제2부 경제생활

제2부 경제생활

Ⅰ. 날씨와 농사

1. 날씨와 함께 사는 일상

대곡일기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행간을 채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날씨에 관한 얘기다. 그런 만큼 신권식씨에게 있어서 날씨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알게 된다. 비, 바람, 눈, 기온과 같은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하는 일은 그의 당연한 일과이면서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일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농사가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즉 신권식씨가 짓는 논농사와 밭농사는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력이 결정되는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순환적 주기(週期)를 갖는 농사일에서 그의 삶은 날씨와 계절적 기후조건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된다. 날씨는 농사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인력으로 어찌 해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날씨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 수동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가 원하는 날씨가 든 경우, 날씨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농사일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기에서 신권식씨에게 가장 바람직한 날씨는 '우순풍조(雨順風調)' 다! 즉 날이 개이는 것 못지않게 비가 제 때 오고 물러가는 일과 바람이 시의적절하게 불어주고 잦아드는 순조로운 상태를 그는 원한다. 이러한 날씨를 바란다는 것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 곳 대곡마을이 '가뭄' 과 '바람'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농사를 짓는 농업환경이 그러하다는 것은 실제로 일기에서도 보인다. 봄 가뭄과 원치 않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애를 태우는 장면은 흔히 발견된다. 특히, 일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雨)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비는 모내기철의 봄 가뭄으로 가장 큰 변수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장마전선의 오랜 지속이나 홍수, 폭우와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리고 당해의 강우조건은 결과적으로 당해의 농업 생산력의 차이로 직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농업 생산력을 고려해 보면 유래를 찾기 힘든 한발(旱魃)과 장마 그리고 해일(海溢)까지 겹쳐 몰려들었던 1965년을 제외하면 비로 인한 피해는 점차로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날씨가 그에게 삶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그의 행동을 제약하고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농사일의 진행은 그럭저럭 순조롭고 농작물의 작황은 평년작이거나 풍작을 이루는 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날씨가 변화무쌍하여 그와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제어하기는 힘들지라도 슬기롭고 묵묵하게 그들이 처한 문제를 헤쳐 나가고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 계절에 따른 날씨와 그 대응

신권식씨는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를 원했고 날씨에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그가 바라는 바대로 일기(日氣)가 변화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일기에서 느낄 수 있다. 계절별로 나타나는 날씨에 대한 대응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봄

일 년 농사는 대개 보리밭에 거름을 주면서 시

작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절기상으로 입춘(立春)을 지나 우수(雨水), 경칩(驚蟄)을 지날 무렵부터 부쩍 날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물론 겨우내 저수(貯水) 된 물의 상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즈음부터는 논에 물이 있어야 한해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비를 기다리는 시기인 것이다. 이때 비가 와주면 그것은 '적우(適雨)' 요, '감우(甘雨)' 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봄비는 잦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61년 3월 3일에 "봄비가 잦으면 동네 지어미손이 커진다더니 인심의 인색함이 봄에 비가 잦으면 풀린다. 오늘도 종일 가랑비가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을 통해 흐뭇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비는 오지 않고 바람이 불어 논이 건조하게 되면 그는 초조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일기에 적고 있다. "금년에 降雨量이 아주 적다. 웬일인지 바람은 심하여 不安하게만 한다.(1965년 4월 1일)"고 나와 있다. 4월 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보리밭 작황도 걱정을 하지만 논농사는 더욱 급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일기 전체를 볼 때 바로 이 때가 가래질을 하는 시기이고, 곧이어 4월 10일~20일 사이에는 '모짜리'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 걱정이다. 오늘도 모인 자리에서 밭원엔 물이 많고 아논엔 물이 없으니 밭원 물을 아논으로 퍼올리자고 議論(1965년 4월 3일)"을 하면서 못자리 물을 마련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1962년과 65년, 68년이 가문 해로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면 못자리와 이앙 시기가 늦추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또 만앙(晩秧) 즉 '늦모' 를 하게 되는 논이 늘어나게 된다.

4월에 논에 모를 찌고 5월 초부터 논갈이를 하고 5월 중하순이 되면서 모심기를 하게 되면서 날씨의 변화는 그에게 더욱 민감해진다. 이앙 시기에도 비가 적어 논에 물이 말라가면 '용두레' 나 '고리두레' 로 직접 논에 물을 퍼 올려야 한다. 실제로 이 무렵 가뭄으로 인해 물을 퍼 올리는 사례는 1960년대에도 몇 해 정도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유난히 가물었던 1965년의 4월과 5월에는 전곡(田穀)은 물론 흉년이고 논농사는 묘판(苗板)에 '게불' 이 일 정도였다. 그리하여 모내기는 둘째치고라도 모판 걱정 때문에 "早飯食事을 마치고 용두레로 4틱으로 용애에서 苗板에 물을 가져오기(1965년 5월 17일)"도 한다. 용두레로 물을 풀 때 물이 있는 곳에서 저지대의 논으로 물을 채워 넣는 일을 '한 틱' 이라고 한다. 보통 한 틱을 하기 위해서는 용두레질을 수백 번도 넘게 해야 하는 고된 일인데, 이 해는 가물어서 모판까지 물이 말라 '4틱' 을 해야 했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봄 가뭄으로 인해 인간의 대응하는 대가로서는 매우 힘든 일인 것이다. 그러나 봄 가뭄에 대한 걱정은 점차 일기에서 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수로공사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2) 여름

6월이면 논매기 즉 제초작업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제초시기에 논에 물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품앗이는 물이 있는 논을 중심으로 돌게 된다. 가물어서 제초가 어려웠던 해로는 1962년 6월의 상황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편 장마철로 접어들어 홍수나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에 해일(海溢)이 이는 경우에는 날씨의 변화가 이 마을주민들에게 특별히 긴급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왜뚝' 과 '원뚝' 을 놓고 벌어지는 행동이 이 시기에 대표적인 모습이다. 왜뚝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논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 놓아 다른 얕은 곳으로 유도하여 바다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든 작은 뚝이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

이 오면 이 왜뚝에 물이 '질름질름' 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왜뚝 한 두 곳을 일부러 터뜨리는 것이 상책이기에 그렇게 손을 써야한다. 신권식씨는 소유한 논두락 중에서 산에 근접한 논들로 인해 이런 대응 작업을 종종 하고 있다. 또한 대곡마을의 특성상 신권식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논은 개간지에 많다. 그런데 개간지는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게 '원뚝' 즉 제방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등으로 바다에 해일까지 겹치게 되면 미처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는 물이 불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불어난 물로 인해 원뚝이 넘치고 터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하면 마을 사람들은 원뚝을 손질하고 터지지 않게 긴급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일기에서는 주로 7월 말에서 8월 말경에 거쳐 가끔 나오는 내용이다. "大谷 洞里에 큰 不幸이 다가 왔다. (…) 일어나 보니 태풍과 함께 바닷물이 해일해서 事業所(難民) 원뚝이 물이 넘치기 始作하고 있다. 나는 급한 거름으로 농꼴로 뒤여 가보니 아번님이 水門을 막고 있어 앞 원뚝으로 와 터논 데을 막고 잇으니 물은 사업소 원뚝을 사정없이 넘기 始作. 터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다. 삽시간에 묻은 다가와 아논으로 다가왔다. 감당하기엔 장이 기울었다.(1965년 7월 29일)"와 같은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 바람이 농사에 해를 입히는 날씨의 변화다.

3) 가을

벼를 벨 때와 탈곡을 하는 시기는 전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논농사에는 좋다. 수확기이기 때문이다. 9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벼베기는 대개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가물었던 해의 경우 만앙으로 인해 벼베기가 늦추어지고 따라서 탈곡 시기도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68년도에도 봄가뭄이 있어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탈곡 시기에 비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한파까지 겹쳐서 탈곡일이 11월 중순까지 늦추어졌다. "비온 後日이라 脫穀일도 못하고 (…) 앞으로 날 日氣가 좋와야겠는데, 주말에도 비가 오겠다니 큰일(1968년 11월 6일)"이었고, 또 "어제 저녁부터 비바람이 일더니 눈으로 변했다. (…) 이렇게 급히 한파가 몰려 온 해는 없다. 김장 脫穀이 그냥 있고(1968년 11월 9일)"해서 날씨의 변화에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이한 점은 1971년과 1972년에는 석유 동력을 이용한 탈곡을 품앗이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탈곡이 11월 하순과 12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탈곡이 늦어가는 것에 대해 예전만큼 걱정하는 모습이 일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농사일에 있어서 기계의 도입을 통해 계절적 환경을 극복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확기가 끝나면 비나 눈 등의 날씨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다.

4) 겨울

12월과 1월, 2월의 날씨상태와 그에 따른 인식 및 행동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은 거의 없다. 계절적으로 겨울은 날씨에 덜 민감한 시기다. 이것은 날씨 상태가 신권식씨에게 있어 농사와 얼마나 직결된 사항인지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만 겨울에는 이듬해 농사를 위해 눈이나 비가 내려 저수(貯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끔 나타났다. 끝으로 1965년 을사년(乙巳年) 한 해를 날씨와 싸워가면서 생산한 결과를 두고 술회하는 모습 속에서 농민의 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파란 많은 乙巳年의 마지막 카렌다을 뗐다. 도리켜 지난 한 해을 보건대 너무나도 복잡한 해다. 60年來 처음 오는 旱魃이 잇는가 하면 50年來 처음 오는 장마이였다. 또한 80老人도 볼 수 없었든 海溢로 막심한 被害을 보았다. 80餘日가물음에서 다 죽다 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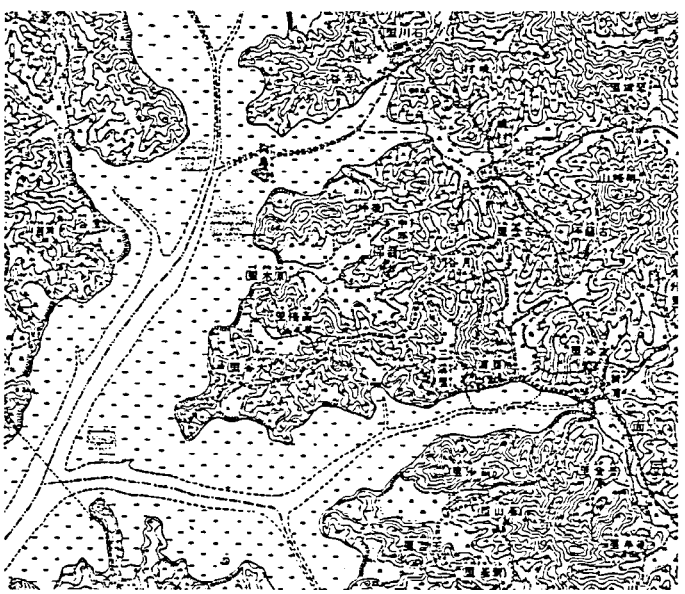
난 穀植을 海水가 몰려와 앞 鹽田堤防이 터지와 우리 집 앞까지 海水가 쳐와 農作物은 아주 못 쓰게 되였다. 大谷部落에 큰 不幸이 왔다. 우리는 농꼴을 괜신히 求하여 큰 위급을 덜었다. 하도 風被 많은 해인고로 가을 秋收 때까지 마음 못 놓았다. 秋收을 해보니 昨年보다 白米 10叭가 떨어진다.(1965년 12월 31일)"

Ⅱ. 간척과 토지이용

1. '원안'의 고장 고잔리

고잔리 일대에는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 농지가 많이 있다. 이러한 간척 농지는 '원안'이라고 불리는데, 신권식씨가 경작하는 논의 대부분도 원안에 위치하고 있다. 원안은 '언안(堰-)', 즉 방죽 안이라는 의미로, 제방 '언'에 내부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이다. 원안이라는 명칭은 고잔리 이외에도 화성시 우정·장안·향남면 일대, 평택시 포승면 일대의 간척지에서도 볼 수 있다.[1] 한편 바닷가에 쌓은 제방 자체는 일기에서 '원뚝(堰-)'이라고 칭하고 있다.

1914년도에 측도한 〈오만분의일지형도〉를 보면 고잔리 해안가 곳곳에 제방이 있으며, 그 안으로 경작지가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작지가 바로 원안으로, 1914년 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전평, 후평, 고잔, 원목, 대곡 등의 자연마을도 표시되어있는데, 이 마을들은 모두 원안을 끼고 입지해있다. 신권식씨가 살고



지도 2
1910년대 고잔리 (1914년 측도, 오만분의일지형도)

1) 화성시, 2006, 『화성의 민속』 중 "제 2장 생산과 유통" 참조.

있는 대곡을 비롯하여 고잔리에 있는 전평, 후평, 고잔, 원목 등은 '도마지 신씨'라고 불리는 고령 신씨들이 대성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들이다. 이 마을들은 고령 신씨들이 퍼져나가면서 형성되었는데, 고잔리 곳곳에 있는 원안들은 고령 신씨들이 이곳에 정착하는 데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잔리 일대의 간척의 역사는 195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농꼴에 정착하면서 간척 사업을 벌이게 되고, 1970년대에는 남양간척지 조성과 함께 대청댐수몰지구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오면서 청룡이라는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고잔리 일대의 인구 유입과 촌락 형성의 역사는 한편으로 간척의 역사와 병행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곡일기에는 원안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원안을 경작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 이밖에도 신권식씨는 농꼴의 간척지 일부를 염전으로 만들 때 현장감독을 보았던 일과 삼계 앞바다를 막을 때 품을 팔러 갔던 일도 일기에 남기고 있다. 대곡일기에서 고잔리 일대 간척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이 일기를 통해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1960년대 진행된 간척사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기에 나온 자료와 신권식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고잔리 일대 원안의 분포와 관리 방식 및 1950년대 이후 이 일대에서 진행된 간척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2. 원안의 분포와 관리

대곡일기에 등장하는 원안으로는 대곡 안원·밭원, 농꼴 안원·밭원, 도랑원 등이 있다. 안원과 밭원의 '안'과 '밭'은 각각 '안'과 '밖'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닷가 쪽에 위치하는 것을 밭원,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안원이라 한다. 신권식씨의 경작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고잔에도 안원과 밭원이 있다고 한다. 안원과 밭원은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간척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기에서 대곡에 있는 안원과 밭원은 그냥 안원과 밭원으로 칭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권식씨가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원안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농꼴에 있는 안원과 밭원을 칭할 때는 '농꼴 안원', '농꼴 밭원'과 같이 앞에 꼭 농꼴을 붙여주어서 대곡의 원안들과 구분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일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뒤개(또는 비야목), 저붕굴 등도 '원'이라는 말이 붙지는 않았지만 간척을 통해 조성된 농지이다. 반면 동욕골은 대곡마을 북쪽 산비탈에 위치한 논으로 비가 와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천수답이다.

이 원안들 중에 조성 시기나 주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농꼴 밭원이 유일하다. 농꼴 밭원은 신권식씨가 3~4세 되던 무렵에 신권식씨 조부와 부친이 막은 것이라 한다. 반면 다른 원안들은 막은 지가 오래 된 까닭에 그 조성 시기를

사진 11. 농꼴 안원과 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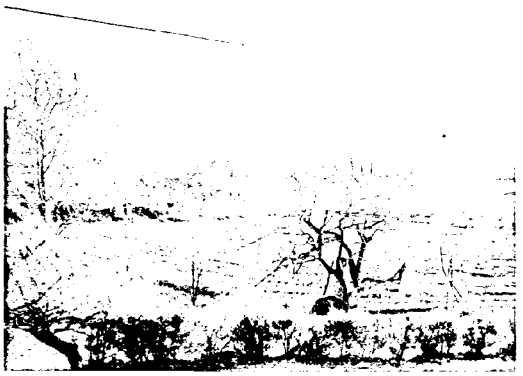


사진12. 대곡 앞논



사진13. 대곡 아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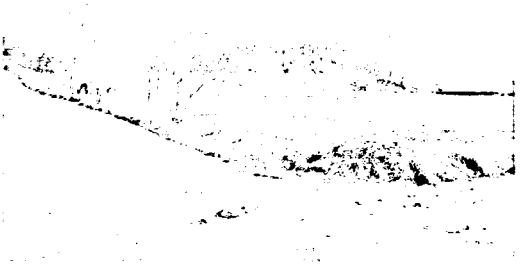


사진14. 대곡 밭원

확실히 알 수 없다. 일기에는 '개논'이란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간척지를 조성하여 논으로 만든 이후에도 염기가 남아있어서 수확이 잘 나지 않는 논을 가리킨다. 농꼴 밭원은 다른 원안보다 늦게 막은 것이어서 개논이 많은 편이었다.

대곡 안원과 밭원은 대곡마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원과 밭원의 면적은 모두 합쳐서 대략 25,770평으로, 안원이 밭원보다 조금 면적이 작다. 일기에 나오는 앞 한 마지기, 말 가웃지기(上·下) 등 면적 앞에 '앞'이라고 적혀있는 논과 아논, 골장 등은 모두 대곡 안원에 위치한 논들이다. 앞이라고 표시된 논은 신권식씨 집 앞에 위치한 논을 가리킨다. 반면 아논은 원뚝 가까이에 있으면서 물이 고이는 논을 부르는 말이다. 아논 중에서도 가운데 위치한 논은 골장이라고 부른다. 대곡 안원 중에서 수리 사정이 가장 좋은 곳은 골장이었다. 농꼴 안원과 밭원은 대곡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합쳐서 만 평이 조금 못 되었다. 안원의 면적은 밭원의 세 배 가량 되었다. 신권식씨가 경작하는 논은 주로 대곡 안원과 밭원, 농꼴 안원과 밭원에 있었다. 고잔 원안은 규모가 훨씬 큰데, 밭원은 5~6정보 가량 되었으며, 안원은 밭원의 열 배 정도가 되는 규모였다. 전평과 고잔 사이에 있는 원안은 약 100마지기로 고잔리에 있는 원안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도랑원, 뒤개, 저붕굴 등은 대곡마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에 원뚝을 쌓아서 갯벌을 육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간척지가 바로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간척지는 염해(鹽害) 및 침수 피해에 취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될 수 없었다. 간척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지는 생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개, 방조(防潮), 방수(防水), 배수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가 요청되기도 한다. 어떤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투입되는 노동력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등의 문제는 간척농지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일기에 등장하는 원안의 시설물로는 수문, 원뚝, '왜뚝' 등이 있다. 원뚝에 설치된 수문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원안의 물을 빼내는 기능을 한다. 수문은 밭원에만 있었다. 안원 밖으로 밭원이 다시 있었기 때문에 안원에는 수문이 있을 필요가 없었으나, 밭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수문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농꼴은 원뚝이 작았기 때문에 나무기둥을 파서 그 안에 짚을 동그랗게 말아서 막은 후 그 나무기둥을 수문자리에 설치하고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수문을 설치하였다. 장마 때와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원안의 물을 빼주어야 할 때는 흙을 헐고 짚을 빼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곡이나 고잔 원뚝에는 나무를 짜서 만든 수문이 있었다. 이 수문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원안의 물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게 설계된 수문을 '바라지수문'이라고 불렀다. 바라지수문은 갯물이 샐 수 있었기 때문에 수문 밖으로 조그맣게 둑을 설치하는데, 이 둑을 '회죽고'라 불렀다.

농꼴 밭원에 있는 수문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신권식씨 부친이 관리하시다가 나중에는 신권식씨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원안인 경우에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수문을 관리했다. 수문 관리를 하는 사람은 '보주(洑主)'라 하였는데, 보통은 수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맡았다. 보주를 두는 원안에는 '보주배미'가 따로 있어서 수문을 관리하는 대가로 보주가 경작하도록 하였다. 대곡 밭원인 경우에는 서 마지기 면적의 보주배미가 있었다고 한다. 보주는 바라지수문 밖에 화죽고를 막는 일도 하였다.

수문의 주 기능은 방조 및 배수이다. 수문 이외에도 방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는 바닷가에 쌓은 원뚝이 있다. 바닷가에 원뚝을 쌓는 일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이 원뚝 자체는 간척 이후에 조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원뚝은 조수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원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방 차원으로 봄에 원뚝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에는 농꼴 원안 앞으로 월남민들이 새로 원뚝을 쌓았기 때문에 일기에는 봄철에 하는 원뚝 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홍수가 나거나 해일이 일 때 원뚝이 무너져서 바닷물이 원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염려하여 원뚝에 나가보는 일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해마다 등장하고 있다. 벼는 바닷물을 먹게 되면 잎이 붉게 타버리게 되므로, 원뚝이 터지게 되면 그 해 농사에 큰 지장을 주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뚝이 터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닥치면 신권식씨는 원뚝이 터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일기에까지 남기고 있다. 원뚝이 터지는 일도 일기에 몇 번 나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가 원뚝 막는 일을 도와준다. 1965년 7월에는 큰 해일이 일어서 고잔리 일대의 원뚝들이 대부분 터지는 큰 재난이 발생하였다. 농꼴 월남민들이 쌓은 원뚝도 이때 터졌는데, 이 원뚝 보수는 1967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 일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닷물이 들어와 원안이 침수되는 경우 수문만으로는 원안의 물을 빼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뚝을 잘라서 물을 빼냈다고 한다. 이때는 물이 들기 전에 재빨리 원뚝을 막아야 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터놓은 원뚝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원둑이

터지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고잔리 일대에서는 정월 보름날 새벽에 팥시루와 술, 북어 등을 수문에 가지고 가 한 해 동안 원뚝이 무사하도록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일기에는 원뚝 이외에 왜뚝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한다. 왜뚝이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경작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일종의 배수로로서, 바다까지 나 있기 때문에 원뚝과 만나게 된다. 왜뚝은 원안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안은 저지대에 위치한 까닭에 홍수가 날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원안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왜뚝을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봄철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허물어진 왜뚝을 보수하고, 비가 많이 오면 왜뚝이 터지지 않을까 나가서 감시하는 모습은 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왜뚝이 터진 경우에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가서 왜뚝을 막는 일에 협조한다.

고잔리에 있는 원안들은 대부분 샘자리를 보고 막은 것이기 때문에 수리사정이 아주 열악한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대곡 원안의 경우에는 아논 안에 물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아논에 저수답을 만들었다. 밭원인 경우에는 아논의 물을 내려서 썼다. 저수답보다 높은 곳에 있는 논에서는 두레로 물을 퍼 올려 썼다. 농골의 경우에도 안원에 저수답을 만들고 밭원에서는 이 물을 내려썼다. 대곡 원안의 경우 매해 농사철이 끝나면 예전에 수문이 있던 자리에 둑을 막아서 아논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수문 자리에 막은 둑도 '화죽고'라 불렀다. 바라지수문 밖에 있는 화죽고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주가 혼자 막았지만, 아논 화죽고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동리 사람들이 같이 막았다.

간척농지는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마르게 되면 땅에서 염기가 올라와 벼가 잘 자라지 못할 수가 있다. 고잔리 일대에 있는 원안은 막은 지도 오래되었고 수리사정도 나쁜 편이 아니어서 논바닥에서 염기가 올라오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과 68년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염기로 인해 벼가 타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염기 피해는 조성 시기가 늦은 밭원에서 볼 수 있다.

고잔리 일대의 수리사정은 1973년에 아산방조제가 축조된 후 아산호의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안정화되었다. 1973년도 일기에는 아산방조제 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수로 부지로 편입된 농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 15. 화죽고 막았던 자리



3. 1950년대 이후의 간척

서해안 일대에는 1950~60년대 이북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간척사업을 벌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 고잔리 농골에 있는 혁명촌 역시 월남민 정착촌으로 1950년대 중반에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마을이 들어선 곳이다. 농골에 들어온 사람들은 옹진 사람들로 두 곳에서 간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각각 〈고잔사업소〉, 〈농꼴사업소〉라 칭했다. 고잔사업소는 대곡 남쪽에 있었으며, 농꼴사업소는 고잔사업소 동쪽으로 있었다. 이들은 '480 양곡' 이라고 불리는 구호양곡을 정부에서 받고 간척사업을 벌였는데, 〈고잔사업소〉의 경우는 그 면적이 15만 8천평이었으며, 〈농꼴사업소〉는 20만평에 달했다. 이들이 정착할 때 정부에서 가옥을 지을 수 있도록 송판 등을 제공하였으나 미국에서 들어온 고급 재목이라고 해서 팔아버리고 토막집 같은 것을 지어서 살았다고 한다. 집들이 들어선 자리는 임야로 예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두 사업소 모두 처음에는 각각 약 50세대가 들어왔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30~40세대로 줄어들게 되었다. 5.16 이후에 두 사업소는 합쳐서 혁명촌으로 불리게 되었다.

〈농꼴사업소〉는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간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모두 농지를 불하받을 수 있었으나, 〈고잔사업소〉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로 개간하지 못하고 염전으로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간척지 일부를 개인 청부업자에게 맡겨서 염전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신권식씨는 이 때 현장감독으로 잠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 내용은 1959년 말부터 1960년 초 일기에 나온다. 당시 청부를 받은 사람은 수원에 사는 윤기화씨와 삼괴에 사는 김두식씨였다. 윤기화씨는 수원형무소 간부로서 염전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청부를 맡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1960년 일기에는 염전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나오는데, 결국 청부업자들은 염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되고 사업소에서 다시 넘겨받아 간척지 전체를 염전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염전은 수원 사람인 이정현씨가 인수하게 된다. 이 염전은 1965년에 있었던 큰 해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다시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인수되었다가 아산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농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고잔사업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막은 간척지를 농지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 가서 품을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삼계 앞바다 '대청매기' 는 1964년 말부터 1965년 초 일기에서 볼 수 있다. 바다를 막을 때는 뭍에서부터 원뚝을 막아오다가 마지막 보름 동안 수심이 가장 깊은 갯고랑을 막게 되는데, 대청매기란 바로 갯고랑을 막는 일을 가리킨다. 대청매기는 '골짱매기' 라고도 하였다. 당시의 간척사업은 삼계리와 옥길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막은 것으로서, 충청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막았다. 이들이 들어와 정착한 마을은 개발단 또는 신혁촌이라고 불렀다. 신권식씨는 대청매기를 할 때 품을 팔러 갔다. 대청매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 사이(15일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여서 인근 마을 사람들의 품을 사서 작업을 해야 했다. 특히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 지게로 흙을 실어 나를 때마다 전표를 끊어주고 나중에 품값을 계산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작업량에 따라 전표를 끊어주는 일을 '만보를 준다' 라고 했다.

이밖에도 신권식씨 일기에는 면에서 뒤개를 막은 일과 대곡에 사는 '박서방' 이 혼자 뒤개를 막은 일들이 나와 있다. 신권식씨는 박서방이 뒤개를 막을 때 가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당시 박서방이 막은 원안의 면적은 300평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마을의 궂은일을 많이 해서 신권식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품값을 받지 않고 일을 해주었다고 한다.

Ⅲ. 농사와 노동력

1. 노동력 교환

이 장에서 살펴보는 노동력 교환은 개인 간이나 소규모의 (친족)집단 내지는 자연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상호부조나 '일품의 교환'을 의미한다. 대곡일기는 농민의 일상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교환은 주로 농사와 관련된 '일품'의 호혜적 거래에 관한 것이 많다. 아울러 일기에는 대곡마을의 일반적 일품교환 이외에 신권식가(家)의 특수성으로 인한 노동력 교환 양상도 엿볼 수 있다.

가장 흔히 일기에 등장하는 노동력 교환은 품앗이와 두레였다. 품앗이는 농촌의 특성상 농사주기(週期)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주는 행위, 받는 행위 그리고 갚는 행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기에 드러나는 '푸마시'(품앗이)를 통한 '일손'의 교환은 신권식씨와 개인 혹은 신권식씨와 소규모 집단(이웃 및 친지들) 사이에서 자주 확인되었다. 계절적으로 농번기는 물론이고 농한기에도 일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형성되고 있었다. 품앗이의 호혜적 교환과 관련하여 신권식씨는 "김매기를 위한 두레나 소를 빌려가고 다음에 일품으로 갚는 경우도 품앗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그가 일기에서 품앗이를 포괄적 의미의 노동력 교환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기에서는 두레 또한 중요한 노동력 교환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신권식씨는 두레 또한 품앗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일기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두레가 언급되는 상황은 이앙(移秧)을 마치고 특히 논매기 시점에만[2]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레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호혜적 교환인 품앗이와는 달리, 두레는 논매기에 있어서 대곡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농악(꽹과리, 징, 장고, 소고) 놀이를 동반하는 노동력 교환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기에서 처음 두레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때는 1959년 6월 21일이며, '壹雨氏家' 제초를 하는 날인 1964년 7월 10일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레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을의 논매기(제초작업)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1964년 이후에도 여전히 논의 제초가 공동으로 행해지는 모습을 일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권식씨의 경우 농사일 노동교환에 있어서 품앗이와 두레적 성격을 띤 공동노동작업은 1963년, 1964년경부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무렵부터 그의 농지가 부쩍 늘어나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우선 1962년 봄에 윤서방네 두 집(병현, 병은)이 이사를 가게 되자, 그들이 부치던 논 다섯 마지기를 사게 된다. 또한 1964년 2월 26일에는 부평아주머니의 논 여섯 마지기도 사들인다. 이렇게 신권식가(家)의 농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1963년에는 일꾼 14명을 사서 이앙을 하기도 하고, 1964년 이앙기(移秧期)에는 동네 품앗이를 위해 고용 일꾼을 대행시키고 있었다. 1965년에는 모내기, 논매기(제초작업), 벼 베기에 형성되

2) 그러나 1962년 9월 29일에는 신권식씨 아버지가의 벼 베기 일에도 '두레'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는 품앗이에 '일품'을 사서 보내고 있었다. 노동 교환에서 당사자의 '품'을 대행시키는 일이 잦아지면서 '품값' 또한 1대1의 노동력 교환을 대체하여 곡초(穀草)나 백미(白米), 보리 혹은 현금 형태의 노임(勞賃)으로 변화해 갔다. 다시 말하면 호혜적 일품 교환의 관행은 차츰 인근 마을 특히, 농꼴(혁명촌)에서 일꾼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 노동의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2. 노동력 교환의 형태와 방식

1) 품앗이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 생활에서 품앗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순 노동의 교환 방식이다. 이것은 비교적 작은 단위의 협동을 요하는 일에 유용하게 활용/응용되었다. 개인적으로 1~2명과 맺는 경우도 있고, 크게는 10여명 이상의 협동체를 이루어 행해지기도 한다. 신권식씨가 품앗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매해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밭(田)일보다는 논(畓)일에, 농한기(農限期)보다는 농번기(農繁期)에 품앗이를 많이 이용했다.

신권식씨가 품앗이를 활용하는 때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3월과 4월 무렵에는 울타리를 치거나 방을 뜯거나 지붕을 새로 일 때 혹은 '깜뚝'[3]이나 '가래질' 할 때 일품을 빌렸다. 5월에는 아버지가(家)의 소(牛)를 빌려 논을 '쓰릴' 때와 조앙(早秧)인 경우 5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만앙(晩秧)의 경우 7월 20일 즈음에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모내기를 할 때 직접적 노동 교환과 '일품'을 사는 일이 많았다. 또한 대개 6월 10일경부터 시작하여 7월말, 8월초까지 이어지는 논매기와 피사리 작업에도 품앗이 관행을 적극 활용했다.

대곡마을에서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벼 베기가 시작되는데, 이때에도 농사일과 관련된 품앗이가 이어진다. 그 이후 대개 11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벼 탈곡(脫穀)에도 크고 작은 규모의 품앗이 모습이 일기에 드러났다. 12월에는 이웃 간에 "지붕을 해이는" 일로 인하여 품을 빌리고 갚기도 하는 품앗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신권식씨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서 12월에는 정미소에 도정(搗精)하러가거나 공판장(共販場)에 공판하러 갈 때, 품을 빌리는 일이 잦았다. 1월, 2월은 상대적으로 품앗이가 적게 나타났다.

품앗이 방식은 호혜성에 입각하여 같은 일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 혹은 일손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963년 4월 3일 일기에서 신권식씨는 "농꼴 가서 일꾼 1명을 사고 戊晟君과 함께 가래질을 했다. 내가 農事짓기 始作해서 처음으로 일꾼을 얻어 가래질을 했다"라고 적고 있다. 이 경우 戊晟君에게는 가래질로 대신 갚았을 것이며 일꾼에게는 품값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품은 신권식씨의 인력(1962년 4월 12일)이나 쌀(1965년 3월 7일)로 교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964년 이후 점차 신권식씨는 늘어난 농사일에 따른 일손부족을 매우기 위해 품을 사서 품앗이에 대응했고 그는 주로 자신의 농사일에 주력하는 모습이 일기에서 자주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고용 노동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다.

3) '깜뚝'이란 일종의 둑 정리로서, 논둑의 반을 갈라 그 사이에 물을 붓고 밟아서 개락질을 하여 나머지 반쪽과 합쳐 삽으로 반들반들하게 발라놓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벌레가 논둑을 파헤칠 수 없게 된다. 개락질이란 평택 지역에서 흙을 물과 섞어 이기는 일을 가리킨다.

벼 베기에 있어 품앗이 관행은 1968년까지 그럭저럭 동네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권식씨의 경우는 1959년~64년까지 자신이 직접 벼 베기 품앗이를 돌고 있고, 1965년~68년까지는 일꾼을 사서 보내고 자신의 일날에는 동네 사람들과 농골에서 일꾼을 사서 함께 벼를 베고 있다. 그러나 1968년에는 이미 벼 베기 품앗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1968년 9월 23일 일기를 보면, "洞里 一代가 벼 비기가 始作 되었다. 몇 해만 해도 洞里사람들이 품아시를 해서 일을 치여 나가겠것만, 洞里사람들은 품아시가 없고 호락질이 아니면 뒤처의 일꾼을 사는 것이다. 洞里 사람들은 품아시 할 사람이 거이 없다"라고 술회하듯이 벼 베기 품앗이는 사라지고 일꾼을 사서 행해지는 것으로 변해버렸다.

탈곡 또한 벼 베기와 비슷한 노동력 관행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 유지되고 있었다. 탈곡도 1960년대 초에는 품앗이를 했다. "食前부터 安雨 家 脫穀일을 같섯다. 脫穀일이란 매우 심드는 일이다. 저녁나절은 발이 안 올라간다. 종일 떠렀다.(1961년 10월 11일)" 그 이후 품앗이 탈곡이 점차 일기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고 1967년에는 아예 행해졌는지 행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1971년에는 탈곡 품앗이가 분명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1971년 10월 31일에는 "食前에 脫穀準備 議論을" 한다. 그리고 나서 11월 3일 교우가(家) 일을 시작으로 무식가(11월 4일), 아버지가(11월 5일), 신권식가(11월 6일) 순으로 탈곡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탈곡이 이렇게 품앗이로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脫穀機合資人이 모여 脫穀機을 修理하고 午後엔 脫穀할 準備用品을 사고 고장 수리을 하라 新浦에 나같다. (…) 脫穀油 2,000원을 내었다.(1972년 11월 10일)"로 보아 동네사람들로 구성된 '탈곡기합자인'들이 석유 동력을 이용한 탈곡기를 공동으로 구입한 결과로 보인다.[4] 이처럼 탈곡 양상의 새로운 전개는 벼 베기가 "품앗이 할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계화되는 영농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0년대까지 초가집이 다수였던 이 마을에서는 모심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봄이나 가을걷이가 끝났을 무렵 이엉을 엮어 "지붕을 해이는" 작업을 하곤 했는데,[5] 이때도 품앗이를 통해 일이 진행된다. 이 경우 매년 지붕을 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값은 다른 일로 대체되거나 쌀 등으로 교환되었다"고 신권식씨는 인터뷰 자리에서 설명해주었다.

2) 두레

(1) 두레조직

두레 또한 넓은 의미의 품앗이인데, 대곡마을의 두레조직은 논매기(제초작업)와 관련해 조직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권식씨는 이 마을에서 두레는 "자연마을단위의 자주적이지만 의무화된 협력노동"의 형태를 띠었다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하였다. 두레가 조직되던 해의 경우를 들면 두레회의는 모내기가 끝나고(1959년 6월 10일) 일주일 정도 지난 후(1959년 6월 16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당해의 김매기 순서를 정하고 있었다. 두레조직의 크기를 일기에서

4) 구체적으로 언제 석유 동력 탈곡기를 구입한지는 일기에 나오지 않지만 1971년 11월 1일 탈곡기를 수리하는 것으로 봐서 1969년이나 1970년도 경에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엉을 엮는 일은 보통 한 사람이 많아야 하루에 열세 마름 정도를 엮으며, 큰 집의 경우에는 백 마름 정도가 지붕을 이는 데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4명 정도의 일꾼이 하루 걸려 지붕을 인다"고 신권식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설명해 주었다.

살펴보면 큰 두레, 작은 두레 그리고 합 두레가 있었다. 큰 두레는 대곡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김매기(혹은 논매기)를 하는 것을 일컫는데, 많으면 15명 정도가 한다. 작은 두레는 그 보다 적은 인원으로 김매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 7~8명으로 구성되었다. 합 두레는 작은 두레가 둘로 갈라진 해의 경우,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되다가 같은 날 작은 두레가 합쳐져서 일을 해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합두레가 형성되는 때는 농악을 울려서 일의 흥을 돋구는 모습을 볼 수 있다.(1959년 7월 8일)

(2) 두레노동

두레는 노동과 놀이가 병행되는 품앗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레 노동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애벌(초벌)', '두벌' '세벌'로 표현되고 있었다. 일기에서 대곡마을 이앙(모내기)과 두레노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해는 1964년이다. 그 해에는 모내기(5월 19일~6월 1일)를 끝내고 20여일 지나서(6월 12일) '애벌(초벌)' 매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 10여일 후(6월 24일)에 하는 두벌매기가 진행되었으며, 세벌매기는 10여일 후(7월 7일)에 손으로 김을 매는 '소매거지'의 형태로 두레패가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매기는 초벌과 두벌까지는 대개 진행되고 있었는데, 세벌매기는 제초작업 끝물이라 두레패가 잘 형성되지 않는 해도 있고 이즈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확인되지 않는 해도 보였다. 아울러 1960년대 중반부터 제초를 위한 농약 사용이 늘어나면서 세벌매기가 생략되거나 피사리 정도로 끝나는 해가 늘어갔다. 그러나 초벌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제초는 논에 물이 적당히 있어야 가능한데, 가뭄이 심한 해에는 논에 물이 없어서 제초작업을 하기 힘들어 논매기 "품을 돌리게" 되는 해도 있었다. 그런 해에는 겨우 초벌을 마치고 이후에는 제초작업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났다.

제초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구는 호미였다. 호미는 모내기가 끝난 직후 시장에 가서 새로 사오거나 무디어진 날은 다듬어 준비를 해두었다. 제초기로 제초를 하는 모습은 1968년에 처음 나타난다. 이밖에 '소매거지'라 하여 논의 김매기를 손으로 훑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피사리 작업은 일의 성격상 손으로 진행되었다.

신권식씨는 인터뷰에서 "논매기를 혼자 하면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마지기 정도를 하게 되지만, 두레패가 형성된 경우 하루에 노동하는 양은 스무 마지기를 약간 상회한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한여름 날 힘들고 고된 논매기를 남자들이 함께 모여 흥을 돋우며 일하는 데서 오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두세 번은 더 진행되는 논매기가 그렇게 섬세함을 요하는 일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1960년대 후반으로 오면 제초에 여자들이 동원되고 있다. 두레 노동에 따른 하루 식사는 오전 '짓두리'(곁두리: 새참)-점심(정오경)-밥(오후 2시경)-저녁 짓두리(오후 4시~5시경)의 형태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음식 나오는 시간에 차이가 보이기도 했다. 짓두리 때는 벼나 보리, 밀 등으로 만든 '농주'와 간단한 안주가 나오는데, 국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3) 두레놀이

두레 노동은 일이 힘들고 거칠지만 모심기가 끝나고 한결 여유로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내기나 벼 베기 및 탈곡에는 볼 수 없는 놀이가 가미되는 특징이 있다. 일기에서 두레패 놀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1959년 7월 3일에서 7월 15일까지 진행되었던 세벌매기 때 농악을 사용한 것이 보인다. "東雨

家 일날인데 前夜 비가 많이 나린 관계로 물이 껴서 못한다고 하여, 日雨氏가 해달라 해서 작근두레와 함두레를 해서 日雨씨, 柱雨氏 等의 일을 했다. 술이 취하니 논 가운데서 춤을 추고 북장고 괭가리 等을 치며 논을 맸다. 사람이 많을 뿐더러 농악을 치니 더 일을 한다(1959년 7월 8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신권식씨는, "대곡마을(고잔5리)에서의 두레놀이는 김매기가 진행되는 약 한 달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터에 나가고 들어오면서 진행되었다"고 당시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일기에서 보이듯이, 농악기 구성은 먼저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꽹과리(2명), 징(1명), 장고(1명), 북(1명)으로 이루어진다. 두레놀이에는 술도 함께 있었다. 이 마을에서 두레놀이를 하는 모습은 1960년대 초반에 자취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초작업이 끝나면 품의 결산이 따르는데, 8월 경에 그러한 모습이 일기에 보이기도 했다.

3. 고용 노동의 확대

일기에는 품앗이나 두레에서 보이는 노동 교환과는 다른 형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모습이 보인다. 즉 농사일에서 노동력이 '일꾼'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품앗이에서도 노임(勞賃)의 방식으로 교환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곡일기에서는 자신의 노동을 본격적으로 '파는' 행위가 보인다는 점이 품앗이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 노동은 신권식씨 자신이 '일꾼'이 된 경우와 신권식가(家)의 일을 위해 '품'을 사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권식씨가 노임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는 결혼 초기 생활이 어려워 농한기를 이용하여 노동하는 경우다. 1965년 3월 9일에 "點心 먹고 가만보밭기 흙을 졌다. 下午에 가 160원을 벌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원뚝'을 막는다든지 고잔 사방공사(沙防工事), 옥길 방조제를 막을 때 지게를 지고 나가 흙을 져 나르면 그 대가로 돈을 버는 노동행위를 말한다. 이외에 염전(鹽田) 일을 가서 품을 판다거나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감독일 등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신권식가에서 '일품'을 본격적으로 사오는 모습은 1963년부터 일기에 나타난다.(1963년 4월 3일) 품을 사는 이유는 논농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품을 얻는 방식은 농꼴이나 인근 마을에서 일의 상황을 보아가며 공급해 오는 경우와 평택 등지에서 아예 '달몸'으로 집에 두고 일을 부리는 식이 보인다. 신권식가에서는 1963년도 6월 2일과 6월 5일에 이앙을 하는데, 품앗이와 이외에 '농꼴 難民'을 동원해 안밭 원안 10마지기, 두 말 가웃지기, 아논 말 가웃지기, 앞 말 가웃지기 等을 심었다. 이어 그 해의 벼 베기에도 농꼴 난민들 품을 샀다. 다음해부터는 가래질에서 모내기, 제초, 벼 베기, 탈곡에 이르기까지 품을 사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보인다. "지붕을 헤이울" 때도 일꾼을 사서 이었다.(1964년 11월 19일) 평택에서 '달몸'을 사와 한 달간 벼 베기와 탈곡을 시키려는 모습이 1964년 9월 25일자 일기에 보인다. 한 달 뒤 일값으로 2,800원을 지불했다.

신권식가에 와서 일을 하는 농꼴 난민들은 초기에는 곡초(穀草)와 백미를 받았으나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현금으로 일값을 받고 있다. "농꼴 孫正俊 穀草 65束 일 품갑(1963년 12월 10일)", "농꼴 金富賢氏가 와 穀草를 좀 내라고 해서 210束을 냈다. 數日來로 돈이 안 되면 일로 모를 심어주겠노라고 했다.(1963년 12월 12일)", "농꼴 崔書房이 와서 穀草을 일 품삭으로 달라고 해서 일 하루치만 주어 돌려보냈다.(1963년 12월 14일)"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1967년 12월 31일에는 "노임은 비싸고 穀價는 떨어지는 農事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120원하던 노임이 200원 도저히 힘드는 農事다. 게다가도 일꾼이 모자라니 어이 될 것이냐."로 보아 노임이 현금화되고 임금도 올라 걱정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1968년 6월 17일에는 백미 1두로 일꾼 2명, 보리 3두로 일꾼 2명을 얻는 일에 노임이 비싸 "억울하다"고 쓰고 있다.

신권식씨가 계약을 맺고 일꾼을 고용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1967년 7월 21일에 잘 나타난다. "일꾼 고용인이 場에 가겠다고 洞里 일꾼들을 선동을 하여 우리 오늘 피사리 일날을 물리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남의 사람 두고 농사짓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급기야 場에 가기로 해서 一金 九百원을 주었다. 白米 1斗當 420원, 2斗값 840원에서 60원을 더 주며 점심을 사먹고 오라했다."와 같이 일꾼으로 인해 속을 앓고 있다. 이외에도 일꾼이 병을 핑계로 혹은 장(場)에 간다는 이유로 일을 하려 들지 않을 때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 노동으로 인해 농사짓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1968년, 1971년으로 가면서 논일을 전부 농꼴 사람으로 짓기도 하고 밭일에도 농꼴 사람들을 쓰면서 고용 노동에 의지하여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용 노동에 의한 농사일이 확대되어 간 것은 신권식가의 농사가 늘어나면서 일손 부족을 고용 노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의 농업 노동 관행이 변화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농업 노동 관행의 변화를 일기에서 읽어내고 집어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반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가뭄으로 인해 용두레로 물을 푸지 않아도 되었고, 개간으로 인해 이 지역의 농지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도 전개되어 갔다. 또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용 인력을 구하기도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레는 사라졌고 품앗이로 하던 노동력 교환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면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농약의 보급으로 제초는 피사리 정도만 하면 되었고 비료를 쓰게 되면서 농사에 서툰 고용 일꾼도 금방 익힐 수 있는 농사일이 되었다. 12월에는 탈곡한 것을 공판장(共販場)에 내다 팔면 곧 현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 농사는 현금으로 사람을 사서 부리면 되었다. 고용 노동의 확대는 위와 같은 상황과 함께 결부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노동 관행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바뀌면서 노동 관행도 달라지고 있었다. 농사일에는 농업 노동 관행에 따르는 노동력 교환과 고용 노동 방식이 있듯이 농사 이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노동에도 그에 맞는 관행을 보이고 있음을 일기가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집을 짓는 일에서 그런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1971년도에 신권식씨가 새로 집을 짓게 되면서 목수나 미장이, 기와장이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을 쓰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품앗이도 아니고 고용 노동도 아니지만 농촌 특유의 정(情)에 의한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노동 관행도 있다. 같은 신(申)씨 일가라는 이유로 혹은 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궂은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웃이나 인근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누가 아프거나 보기 딱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도 '노동'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정(情)'에 의해 일을 봐주고 처리해주는 경우를 일기 곳곳에서 볼 수 있다.

Ⅳ. 여성 노동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농사일을 꾸려가는 소농(小農) 사회에서 농부의 부인은 단순히 집안 살림과 육아만을 담당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남편과 함께 집안 경제를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협력자일 수 있다. 대곡일기에는 신권식씨 본인의 일과만이 아니라 농사 및 시장 거래와 관련된 부인의 일과 역시 꼼꼼하게 기록되어있다. 반면 부인의 다른 일상생활, 다시 말해 가사 및 육아, 여가 생활 등에 대한 정보는 이 일기에 단편적으로 나올 뿐이다. 부인의 일상생활 중에서 농사 및 시장 거래와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일기에 남긴 것은 이 일기를 쓴 일차적인 목적이 농사 및 가계 운영을 위한 기록이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 대곡일기는 농촌 여성의 일상생활의 전모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소농 사회에서 부인의 노동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농사일을 중심으로 일기를 모았으며, 가사·육아를 제외한 집안일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일도 함께 뽑아보았다. 장에 나가 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장 출입과 관련된 내용은 가계 운영에서 부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나 〈유통과 장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생략하였다.

우선 농사일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은 주로 밭농사를 담당하여서 여러 작물(보리, 밀, 콩, 수수, 참깨, 팥, 고추, 감자, 고구마, 김장거리 등)의 파종, 제초, 수확의 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일을 맡고 있다. 밭일 중에서도 쟁기질과 같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남성의 몫이다. 비료가 아닌 거름을 주는 일도 주로 남성이 맡는다. 그러나 전자의 일들이 여성의 독자적인 노동 영역은 아니다. 부인의 밭일을 할 때 남편은 논농사와 관련된 일이나 동네 길 닦기 출력(出力), 공적인 사무 등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이 없을 때는 부인과 함께 밭일을 한다. 같이 밭일을 하더라도 다른 성격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힘을 많이 써야하는 일을 남자 쪽이 맡는다. 가령 보리를 수확할 때 보리를 베는 일은 부인이 맡고 보리타작은 남편이 하게 된다. 부인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부인이 혼자 밭일을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갖는 심적 부담감은 "前日 술에 취한 것이 오늘도 午前 仲 누어있었다. 妻가 콩밭을 맨다고 하여 누어있어도 不安하여 點心을 먹고서 같이 맸다.(1972년 7월 12일)"와 같은 일기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밭농사의 경우 품을 얻어서 작업을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며, 품을 얻는 경우에도 논농사와는 달리 그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1959년 6월 13일 '그루'(보리를 베고 나서 그 밭에 콩을 심는 일)를 갈 때는 이웃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밭을 갈아주었는데, 이는 신권식씨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일'(일소를 부리는 일)에 서툴렀기 때문이다. 이날은 식전에 아버지 가의 일꾼과 큰아버지까지 오시어 같이 콩 파종을 하고 식후부터는 아버지 가의 모내기를 한다. 1962년 7월 14일에는 부인이 여자 한 명을 구해서 콩밭을 매고 있다. 품을 얻어서 밭매기를 하는 내용은 이 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신권식씨의 여동생이 전년도 말에 수원으로 출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 까닭에 신권식씨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인 후 바로 분가를 하였고, 이때부터 여동생 춘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한다. 여동생은

부인과 함께 여러 밭일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집이나 큰집 등 동네에 있는 가까운 친척 집에 가서도 일을 돕고 있다. 밭일에서 한 몫을 하고 있었던 여동생이 출가하게 되자, 신권식씨 부부는 그 빈자리를 품을 얻어서 채워야 했던 것이다. 부인은 자녀들이 10대가 되자 '골고지'(호미로 밭을 맨 후 손으로 김을 뽑아주는 일)나 고구마 캐기와 같이 힘이 덜 드는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도 한다.

밭농사와 달리 논농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노동 영역이 아니었다. 물이 차 있는 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걷어 올려야할 뿐만 아니라 논일의 대부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있던 농촌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옷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논바닥에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대개 여성이 논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일차적인 계기는 일제 말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까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직하여 모를 내도록 하는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성되게 된다. 그러나 총독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모내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을들은 상당수 존재하였다. 특히 '양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마을일수록 여자들이 모내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일제 말 이후로 마을에 따라서 여성들이 모내기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였으나, 논의 제초 작업은 남성들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논매기는 젖은 흙을 뒤집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흙의 반전 기능을 높이기 위해 논호미는 밭호미와 비교해서 호미날 역시 넓은 형태로 되어있다. 여성들이 논매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와 같은 작업과정상의 특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권식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여성들이 논농사에 참여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권식씨는 여성들이 논농사를 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전라도 여자들이 모품을 팔러 집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이며, 그 이전에 여자들이 논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1959~73년간의 일기를 보면 여성이 논농사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점차로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59년에 여성 노동이 논농사에 투입되는 경우는 논에 물을 퍼 올리는 일과 논배미가 작은 논의 모내기, 그리고 만앙(晩秧)으로 모내기를 할 때이다. 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집으로 들인 후 벼를 훑는 일 역시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의 특징은 주로 집안 식구들끼리 작업을 한다는 데 있다.

논에 물을 퍼 올릴 때는 '고리두레'나 '용두레'를 사용하게 되는데, 용두레가 한 사람이 혼자 물을 퍼 올릴 수 도구라면 고리두레를 사용할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 5월 20일 일기에 신권식씨는 여동생 춘자와 함께 물푸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고리두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춘자와 같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5월 19일 일기에는 신권식씨 부부와 여동생이 같이 물을 퍼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과 여동생은 고리두레로 작업을 하고 있고, 신권식씨는 용두레로 물을 푸고 있다.

논배미가 작은 논, 즉 '달뱅이'의 모내기는 품앗이로 하는 동네 모내기가 거의 끝나가는 6월 10일에 부인과 여동생이 하였으며, 신권식씨는 논을 쓰리고 모를 쪄다 준 후 아버지 집으로 모내기를 하러 갔다. 그러나 "春子는 큰집 모 심어달라 해서 집에서도 안 심던 모를 시므러 같다.(7월 2일)"는 일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성이 모내기, 특히 남의 집 모내기에 참여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도 안

심던 모를 시므러 같다"는 표현은 썩은 감자 캐기, 고추 모종, 고구마 심기 등 그날 해야 할 집안일도 있는데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큰집에서 여동생을 데리고 간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별로 하지 않는 모내기를 하는 데 여동생을 데리고 간 것을 못 마땅히 여기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큰집에서는 이앙을 하지 못한 논이 남아있었는데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출가하지 않은 조카딸까지 데려다가 급하게 모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하순부터 시작된 동네 논매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창 밭일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신권식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한가하게 쉴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동네에서 만앙으로 심어야 할 논이 남아있는 집이 큰집만이 아니었다면, 모내기 일손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59년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논배미가 크지 않은 달뱅이나 만앙으로 모를 내기가 쉬웠던 '동욕꿀' 모내기에 부인이 참여하는 일은 계속된다. 동욕꿀인 경우에는 물이 잡히면, 다른 논의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모를 내기도 한다.(1963년 5월 27일) 다른 논인 경우에도 품앗이로 하든지 품을 사서 하든지 '일날'을 잡아서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 이앙을 한 후에도 모를 다 내지 못하고 남게 되면 다음날 부부가 같이 모내기를 하기도 한다. 1965년에는 날이 가물어서 만앙으로 심는 논이 많아지게 되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부인이 여러 논자리의 모내기에 참여하게 된다. 1959~73년 사이 부인이 모내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해는 1960년과 61년, 64년 삼 년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노동을 할 때 부인이 모내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

1959년도 이후의 일기를 보면 벼의 수확 과정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나, 벼 묶기, '벼 조파리기'(비가 오기 전에 논에 흩어져 있는 볏단들을 아쉬운 데로 듬성듬성 모아서 쌓아두는 일), 볏가리 쌓기, 벼 훑기, 탈곡기로 벼 털기, '게꼴 바수기'(벼 탈곡 과정에서 부러져 나간 이삭을 다시 모아서 바수어 추려내는 일) 등의 일에 부인이 참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벼 훑는 일에 여자들의 품을 사서 하기도 한다. 벼를 베고, '끄디리고'(운반하는 일), 져드리는 일은 남성들이 하나, 끄디리는 일에 부인이 협조하는 수도 있다.

1959~73년도 사이 여성이 농사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68년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신권식씨 집에서는 이 해부터 모내

사진 16. 앞달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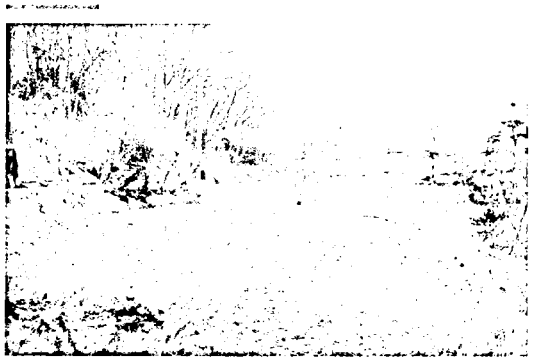


사진 17. 동욕꿀논



기를 하는 데 여성 노동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6월 8일에는 신권식씨 집의 이앙을 하는데, 전체 9명의 일꾼 중 여자 두 명이 '소품'으로 온다. 소품이란 일소를 빌려간 것에 대하여 사람의 노동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신권식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곡 일대에서는 소를 하루 빌리면 사람이 하루치 일로 갚았다고 한다. 소품을 갚을 때는 대개 남성이 왔으나, 여성이 오는 경우에도 하루치 일로 갚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후반에 오면 신권식씨는 농사일의 대부분을 이북 정착민인 농꼴 사람들의 품을 사서 하게 되는데, 신권식씨 집에 모내기를 하러 오는 여성들도 농꼴 사람들이었다. 신권식씨 부인이 모내기에 참여할 때는 혼자 하거나 남편 또는 시누이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전부였다는 것은, 여성들이 논농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 거부감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드러내준다. 모내기 시 여성들을 고용하는 것은 여성들이 공동 노동,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녀가 어울리는 공동 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도까지는 신권식씨 부인이 다른 집 모내기를 하러 가는 일은 없었으며, 자기 집 모내기라고 할지라도 품꾼들과 같이 일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자기 집 일날의 경우에는 일꾼들 식사를 대는 것만으로도 부인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농사일을 직접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로 모내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서 1973년도에는 부인이 총 8회 모내기를 하게 되며(5월 22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31일, 6월 4일), 6월 2일에는 부부가 함께 모를 쪄내고 남편 혼자 모를 심는다. 이와 같은 횟수는 전에 없던 일이며, 부인이 모내기를 하는 논 역시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같이 모를 내거나 남편이 논을 쓰리면 부인 혼자 모를 내기도 한다. 5월 30일 오전에는 부인이 돈식과 같이 모내기를 하는데, 이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신권식씨가 돈식의 부탁으로 인감을 떼러 신포로 가야해서 '한 참'(논농사에서 작업 시간을 세는 단위)만 돈식과 일손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오후 1시부터는 다시 부부가 같이 작업을 한다. 5월 26일과 27일, 6월 3일에는 각각 7명, 9명, 4명의 일꾼을 고용해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일날을 잡아서 모내기를 하는 논은 비교적 논배미가 큰 곳으로 5월 26일에는 "골장 여섯 6斗와 아논 5斗", 27일에는 "농꼴 밭원 5斗, 아논後 3斗 5升지기(苗板除外), 아논後 1斗, 밭원後 1斗", 6월 3일에는 "아논 3斗"에서 작업을 한다. 반면 신권식씨 부부 또는 부인 혼자서 모내기를 하는 곳은 1斗 5升과 1斗, 5升지기 등으로 배미가 크지 않다. 부부 둘이서 모내기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모내기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일기에 나와 있지 않으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신권식씨 부부는 둘이서 모내기를 할 때도 못줄을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모내기 방식 중 줄모는 여러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줄모를 내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다. 신권식씨 부부가 줄모를 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부가 각각 논 양쪽 끝에 서서 못줄을 꽂아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모를 내오다가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면 뒤로 돌아서 모를 내면서 논 끝으로 가서 못줄을 옮기고 다시 마주보면서 모를 낸다. 이런 방식으로 줄모를 내게 되면 한 번 못줄을 꽂을 때마다 두 줄씩 모를 심게 된다고 한다. 달뱅이에 모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만앙으로 모내기를 하지도 않는, 여느 해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부부 둘이서 모내기를

하는 까닭은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신권식씨 집의 전체 논의 규모가 계속 커졌다는 점, 그리고 모내기 시 품앗이 관행이 깨지고 고용노동이 일반화된 상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973년에는 모내기뿐만 아니라 보온묘판 만들기, 제초, 벼 베기 등 논농사의 다른 일에서도 부인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온묘판 만들기의 경우 부인은 묘판에 뿌릴 왕겨숯을 만들고 종자를 치고 왕겨숯을 뿌리고 비닐을 씌우는 일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오기로 한 일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 대신 일을 하게 된 것이지만, 부인이 가담할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논의 제초작업은 1968년부터 부인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 해는 날이 가문 탓에 7월이 되면 부부가 논의 '깨끼'(마른 논의 제초작업) 작업을 며칠 동안 하게 되며, 큰딸이 하루 참여하기도 한다. 이 해 7월 30일에는 부인이 그루밭을 혼자 맨 것에 대해 짜증을 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예년에 없던 논의 제초 작업으로 7월초부터 부인이 고생을 한 탓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1년에는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논에 농약을 뿌리는 일을 하며, 72년에는 부부가 같이 논매기를 한다. 부인이 논의 제초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데 68년도와 같은 가뭄은 예외적인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농약 사용이 많아지게 된 점, 이에 따라 논매기 공동 인원이 줄어들게 된 점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논농사에서 1973년에 있었던 가장 극적인 일은 부인이 처음으로 벼 베기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일에 대해 신권식씨는 "妻는 生前 처음으로 벼을 비였다.(9월 29일)"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적고 있다. 이 날 이후로 부인은 계속 벼 베기에 참여하며 먼저 벼를 베자고 제안하기도 한다.(10월 10일) 부인의 협조로 수월하게 한 해 벼 베기를 마친 것에 대해 "今年엔 妻가 협조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10월 11일)"라고 신권식씨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농사일 이외에도 신권식씨 부인은 소규모의 곡식을 정미소에 가지고 가서 도정하고 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울타리를 치거나 집안 수리를 할 때도 남편과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매끼 짜기, 가마니치기 등도 부인이 같이 하는 일이다. 1963년부터는 가끔 바다에 나가 맛이나 '삐죽'(빗죽이) 등을 잡아오는 일도 하고 있다. 1972년부터 영호와 웅호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부인의 서울 출입도 잦아지게 된다.

밭일은 원래부터 부인이 주로 하던 일이었으며 여기에다 논일까지 점차로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인의 노동 양은 많아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고 있는 부인은 남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朝飯食事 後에 동욕꼴 논에 물이 있어 쓰리였다. 윗배미는 물이 없어 쓰릴까 말까 하다가 (…) 妻는 如何間 쓰리라고 해서 妻와 같이 심고(1963년 3월 22일)", "일군을 사서 보리밭을 글글까 하다가 妻가 글겠노라고 해서 식구끼리 하기로 하고서(1968년 3월 22일)" 등의 일기는 부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부인이 농사일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교육, 그리고 장 출입까지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집안에서 부인의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수퍼우먼'이라고 불리는 기혼 직장여성의 그것보다 더 크면 컸지 작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일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부인이 가끔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간혹 있는 일이지만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지게 되는 것은 신권식씨의 여동생이 출가한 다음해인 1962년도부터이다. 농사일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동생이 출가한데다가 둘째 아이

(1961년생) 역시 아직 어렸기 때문에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이를 보는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여러 일을 해야만 하는 부인의 상황에 대해 신권식씨는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아서) 좁은 마루에 반을 차지하고 누어 잇으니 妻는 짜증을 낸다. 가마니 妻의 일을 살펴보니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린 것들이 하로면 몇 차래식 옷을 버려다 놓고 마루방 등은 흙발로 올라내려 그것 치우랴 집안일 치우랴 그뿐이면 괜찮에 밭으로 나가고 안일 치우며 누어 잇는 나도 보기에 민망스럽다.(1962년 7월 31일)"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부부싸움은 농사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농사일에서 부인의 노동 비중이 커지면서 부인의 발언권 역시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 벌어지는 부부싸움에도 불구하고 신권식씨는 가계를 꾸려가는 경제적 협력자로서 부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고마워한다. "妻가 親家에 가 오늘까지 안 오니 朝夕食事가 문제다. 바깟일도 妻가 있어야 할 일이 많다. 內外란 한시라도 떠날 것이 못된다.(1965년 12월 14일)", "밀 그루밭 매다. (…) (부인이 서울 아이들 집에 가 있어서) 妻와 같이 하던 일을 혼자 할랴니 더욱 힘이 든다.(1972년 7월 17일)" 등의 일기는 신권식씨가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신권식씨는 가끔 스스로에 대해 의지할 데 없는 '홀아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조력을 못 받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권식씨의 부인은 '홀아시' 신권식씨가 가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협력자로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곡일기는 농부의 부인이 농사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 노동'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가족노동'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족 내에서 노동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가족 성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어떠한 형태로 지불되는가, 가족 성원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는 누구의 소유로 받아들여지는가 등과 같은 문제는 '여성'에서 '가족'으로 시각을 이동했을 때 우리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할 수 있을 때 소농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실질적인 단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가족 내에서의 권위의 불평등 문제 역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대곡일기에서 볼 수 있는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부인의 모습은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 시대의 힘이다. 신권식씨 부인은 1960년대 한국 내지는 경기도의 농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표상일 수 있다. 한 여성의 모습에 들어있는 한 시대의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한 시대를 그려낼 수 있다. 한 시대의 에너지를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이전 시기 또 이후 시기 농촌 사회에서 여성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그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다.

Ⅴ. 농한기 부업

1. 농번기의 연장선으로서 농한기 부업

이 장에서는 봄,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농사일 외에 신권식씨가 농한기에 종사하

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일기에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신권식씨 삶의 1년 주기를 그려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의 제목으로 삼은 '농한기 부업'이란 주업 외 별도의 소득 창출을 위해 임금을 받고 하는 유급노동뿐 아니라 농한기에 행해지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농사꾼의 1년 삶의 주기를 그리는 데 왜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의 생활에 대한 분석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의문은 다음과 같은 신권식씨의 술회를 들어보면 쉽게 해결된다.

"農君이란 農閑期엔 農繁期에 줄 農事準備을 해야 할 것이며 (…) 오늘 할 일은 來日로 미룸이 없이 일이 밀리지 않게 그날그날 해야 할 것이매 (…) 겨울로 밀린 것이 울타리치기 새끼꼬기 가마니 짜기 等의 農事準備를 해야 할 일이것만 오늘도 종일 허송세월이다. (1967년 1월 13일)"

"농촌 살림살이란 한가한 때가 없다. 항상 일에 쫓긴다. 이렇게 살아도 生活수준이 제일 못하니 한심지사다. (1972년 1월 26일)"

즉, 농부의 삶에 있어 농한기란 농번기 생활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니다. 농한기의 꾸준한 준비 없이는 농번기의 농사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기를 살펴보면 신권식씨에게 농한기는 무한대의 자유가 허락된 휴식시간이라기보다는 다음 농사를 위해 준비하는 농사 준비기간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농한기에 하루나 이틀 혹은 많아봐야 고작 며칠을 놀면서도 밤이면 귀가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심경을 어김없이 일기에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놀며 生覺하는 것은 不安하기 짝이 없다. 農君은 年月 별로 노는 날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1962년 2월 1일)"

"每日같이 노니 마음이 아주 不安하다. (1962년 3월 4일)"

"農村에선 일없는 때가 없건만 그냥 놀고 보니 氣分이 통쾌치 않다. (1964년 8월 22일)"

"우리 농군은 일을 해야 개운하다. 2월 중 놀다보니 마음이 일하는 이만 못하다. (1973년 2월 11일)"

한편, 농사 준비 외에도 농한기에는 의식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한해살이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의 한해살이 준비 역시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해살이 준비를 위해 농한기에 만드는 각종 생활도구가 바로 전년도의 농사 수확물인 짚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 먹이를 위해 베어 온 풀을 운반할 때는 새끼로 만든 망태가, 한 겨울 추위를 나기 위해 소에게 입힐 우의를 만들 때도 새끼로 만든 덕석이, 수확하기 위해 논에서 볏단을 묶을 때는 짚으로 만든 매끼가, 수확한 곡식을 말릴 때에도 새끼로 만든 멍석이, 가을철 지붕을 해 이을 때에는 왕울기로 만든 이엉이, 울타리를 칠 때에는 새끼로 만든 동이줄이, 심지어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바다일을 가서 조개며 낙지를 잡아 담아 오는 용기로도 새끼로 만든 종태가 이용된다. 이처럼 전년도 농사의 소산물이기도 한 짚은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시, 다음 농사의 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농부들의 생활에서 짚으로 만든 새끼는 어느 귀중품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농한기 부업의 많은 부분도 이 새끼를 꼬는 일에 할애될 수밖에 없었다.

이하에서는 일기에 나타난 농사 관련 부업을 크게 주기별로 나타나는 활동과 비교적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새끼 꼬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농사 관련 부업

주기별 부업에는 농사주기나 농한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업이 대부분이지만 주기와 크게 상관없이 1년 내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도 있다. 주로 가마니 짜기, 각종 생활도구 제작, 지붕이나 울타리 하기 등이 전자에 해당하며 소 먹이를 위한 쇠풀 베기, 나무하기, 새끼 꼬기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먼저 주기적,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부업을 모두 포함하여 농사 관련 부업의 1년 주기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사 관련 부업의 1년 주기표

농사 관련 부업의 1년 주기표

月/年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7	1968	1971	1972	1973
1월	나무 왕울기	농골 사업소 일 왕울기	비 매기 왕울기 울타리 가는새끼	새끼 왕울기 비목준비 비 매기	새끼	짚추리기 새끼	새끼 왕울기	울타리 새끼	새끼 나무	새끼 왕울기 비 매기	가는새끼 꾸밀새끼 짚추리기 가마니	왕울기 짚추리기 (용구새) 가는새끼 미꾸리
2월	울타리	가마니 울타리 맛 잡기 울타리 짚가리 옮겨쌓기	나무 굼불거리	왕울기	새끼 가마니 (짜기, 꼬매기) 왕울기	새끼	새끼 왕울기	새끼 나무 짚추리기	가마니 짚추리기	가는새끼	가마니 (짜기, 꼬매기) 새끼 나무	가는새끼 왕울기 꾸밀새끼
3월	비 매기		맛 잡기 나무 가마니 삐죽	꾸미개새끼 족답기 가마니 사방공사 부역 가마니 (꼬매기) 종태 맛 잡기	가마니 꼬매기 멜빵 새끼	맛 잡기 염전 일 미꾸리 새끼 가마니	대청매기 일	가마니	가마니 울타리	삼테	장작패기 가마니 (꼬매기) 왕겨운반 새끼	
4월	염전 일 (2일)		가마니 (짜기, 꼬매기) 나무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짜기, 꼬매기) 새끼	맛잡기 삐죽잡기 가마니 (꼬매기)	가마니 (꼬매기)	가마니 (꼬매기)			
5월	나무 고기잡기		맛 잡기 가마니 (꼬매기) 새끼 나무	망태		가마니 (짜기, 꼬매기) 풀 베기						나무 져오기
6월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7월	풀 베기	왕울기	풀 베기		맛 잡기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풀 베기

7월	새끼 멍석 전어잡기	삼테 풀 베기	새끼 멍석 싸리		왕울기	맛 잡기 왕울기 새끼					맛 잡기	나무 (수로 공사장) 짚끼리 손 질(장 마대비) 가마니
8월	나무 풀 베기 멍석 바수거리 새끼 싸족 가마니	왕울기 삼테 비료삼테 풀 베기 나무 망테 짚 추리기	풀 베기 멍석 새끼 나무 바수거리 엮기	삼테 왕울기 바수거리 엮기	싸리 새끼 왕울기 풀 베기 꼴 베기 맛 잡기 밑꺼적	풀 베기 새끼 맛 잡기 나무	새끼로 소금값 지불	풀 베기 덕석 길마속 나무 매끼	풀 베기 굴뚝수리 부뚜막 양회	풀 베기 나무 삐죽	가마니 풀 베기 가는새끼 바수거리 쇠구라	가마니 (짜기, 꼬매기) 풀 베기 바수거리
9월	가마니 (짜기, 꼬매기) 나무 맛 잡기 새끼 지게멜빵 매끼	비료삼테 왕울기 지게멜빵 나무	나무 멍석수리 매끼	매끼	새끼 나무 매끼 풀 베기	나무 매끼		도래방석 나무 매끼 풀 베기	풀 베기 새끼 나무	풀 베기 삐죽 나무	가마니 (짜기, 꼬매기) 풀 베기 새끼 나무 매끼	짚가리 쌓기 (퇴적장) 가마니 (짜기, 꼬매기) 풀 베기 매끼
10월	매끼 이영	둥그레가리 이영		매끼 틀 벼 운반		매끼 삐죽	매끼		풀 베기 매끼	나무	왕울기 (가을용) 매끼 나무쌓기	매끼
11월	이영 새끼 삐죽 지붕 가마니 (꼬매기) 둥그레가리	낙지 캐기 짚 추리기 짚가리쌓기 이영 울타리 염전간수 져오기	가마니		낙지		낙지 새끼 가마니	새끼 이영 가마니 왕울기		통가리 새끼 새끼틀 (수리)	짚가리쌓 기 나무	가마니 (꼬매기) 탈곡준비
12월	갯일 농골사업 소감독		새 끼(삼 테용) 짚추리기			새끼틀 차려놓기	나무 왕울기	새끼 왕울기 짚추리기	새끼 지붕 왕울기	새끼 가마날	나무	왕울기
기타	炳烈입대 旗, 차안 작성/면 사무정리 도움	숙모 편지 대필/작은 집 소분육 수금/작은 집 공제금 신청서류 제출/悠雨 사돈댁에 편지 대필	맹식처남 에게 편 지 대필/ 작은 집 편지 대 필	동리 생활기록 카드작성 /숙모 편 지 대필/ 장식 웅 변 원 고 대필/배 구 대 회 취 지 문 대필	현우계약 서 대필/ 병적신고 신 청 서 대서	제승기 구입 (1월)/ 아버님 편지대필		새끼사리 3통 도난		둘째조부 넷째조부 상례주관	표류사체 건 처리/ 연우조부 상례주관 /새마을 지도자교 육/새마 을계획서 작성	

2) 농사 관련 부업의 1년 주기 분석

위의 표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봄철과 가을철의 농번기를 기준으로 6개의 주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12월~1월

수확이 끝난 후 12월에서 1월에는 주로 가마니 짜기나 울타리 하기 등의 겨울 일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마니에 쓸 새끼 꼬기나 울타리에 쓸 왕울기 꼬기가 부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새끼나 왕울기를 꼬기 위한 짚 추리기도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주로 가을에 행해지는 지붕 하기도 가을일이 늦어지는 경우 간혹 12월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또 12월에는 방비, 1월에는 비(마당비로 추정)를 매기도 한다.

(2) 2월~3월

2, 3월에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부업으로는 가마니 짜기와 울타리 하기를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 바로 가마니 짜기이다. 가마니 짜기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시작하여 약 30여 일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혹 수확 철에, 준비해 둔 가마니가 모자라면 단시일에 급조하기도 한다. 조반식사 후 짜기 시작해 해 떨어질 때까지 종일 작업을 하면 보통 하루에 적게는 4짝, 많게는 6짝 정도씩을 짤 수 있었으며 1967년까지는 1년에 평균 총 40짝 정도를 짜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마니는 가을철 수확물의 운반과 보관 등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필수품이었고 생산과정에 상당량의 시간과 노동력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겨울철 농한기에 행해지는 농사 준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이 일기의 곳곳에 드러난 신권식씨의 푸념을 보면 가마니 짜기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센 것이었으며 가마니 짜기가 얼마만큼 고된 작업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空叭 치기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1963년 2월 14일)"

"朝飯床 물리기 바쁘게 서둘러 가마니 짜기 始作해서 (…) 손이 갈라지고 고욕이 말이 아니다. (1968년 2월 18일)"

"몇일 가마니치기에 손이 달아 아푸던 것이 2日 쉬였더니 덜 아픈 것 같아 제대로 가마니를 짰다. (1968년 2월 23일)"

"저녁 나절은 어깨와 팔이 아파 몸살이 날 것 같다. (1972년 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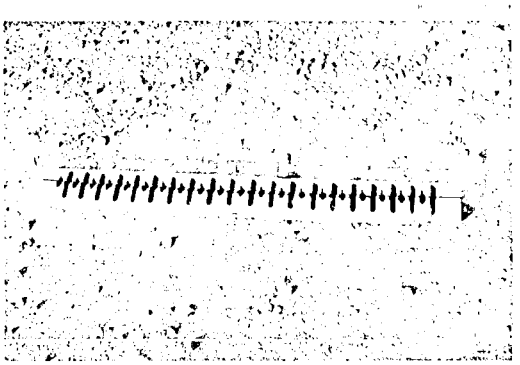
"오늘은 叭니 6닙을 짰다. 下午엔 팔이 아파 몸살이라도 날 것만 같다. 가마니 짜기란 참으로 고딘 作業이다. (1972년 1월 7일)"

"팔이 아파 妻가 바디질을 많이 했다. (1972년 1월 8일)"

○ 가마니틀의 종류

가마니 짜기에는 가마니틀이 사용되었다. 일기에 등장하는 가마니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멱틀'이고 하나는 '족답기'이다. 1959년 8월 17일의 일기에는 "午前 中 멱틀을 만들었다. (…) 남의 집으로 얻으러 가기 싫고 또 얻으러 가기도 무엇해서 만들어 놓으니 아주 좋다. 가마 바디만 사면 가마니 치는 데 걱정이 없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멱틀'이란 손으

사진 18. 신권식씨 댁 창고에 보관된 바디



로 짜는 가마니틀로, 볏짚을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된 볏짚을 바디로 탄탄하게 다지는 사람이 합동해서 짜는, 일종의 수동형 가마니틀을 말한다. 위에서 인용한 "팔이 아파 妻가 바디질을 많이 했다"라는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멱틀을 이용한 가마니 짜기에는 두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족답기'와 비교했을 때 인력의 소모가 두 배나 되었다. 현재 신권식씨 댁 창고에는 과거 멱틀과 함께 사용되던 바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족답기'는 1962년 3월 6일의 일기 "족닥기를 놓기는 했으나 어린이하고 칠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는 대목에서 처음 등장한다. 여기서 '족닥기'란 '족답기'를 말한다. 족답기는 발로 밟아 동력을 발생시키고 손으로 볏짚을 공급하면서 짜는 일종의 반자동 기계로, 멱틀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가마니틀을 말한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1962년 일기에 기록된 족답기는 신권식씨 소유가 아닌, 다른 집에서 빌려온 것이었다고 한다.

○ 가마니의 종류

신권식씨에 따르면, 이렇게 만든 가마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막가마', '공판용 가마', '정부 판매용 가마'가 그것이다. '막가마'는 1960년 2월 27일의 일기에도 등장하는데("가마니틀을 놓고 막가마 5매를 얽었다"), 멱들을 이용해서 짠 것으로 주로 가정에서 쓰이는 것이었으므로 비교적 엉성하게 짜도 되었다고 한다. '공판용 가마'는 말 그대로 공판에 내 갈 벼를 담기 위한 것으로 막가마보다는 훨씬 촘촘하게 짰다고 한다. 이는 공판용 가마이니만큼 운반과 보존에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편, 인터뷰를 통해 들은 우스갯소리에 의하면, 공판용 가마를 촘촘하게 만든 이유는 "가마니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즉, 공판할 때 가마니 자체가 무거우면 한 가마에 담아야 하는 쌀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는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만 했던, 당시 가난했던 농촌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부 판매용 가마'는 한 때 정부에서 대량으로 가마니를 수매해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정부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가마를 말한다.

또 1963년 4월 2일의 일기에는 "農繁期는 다가오는데 新作路出役과 沙防工事 出役에 안나오면 엄벌에 처하고 가마니도 1戶當 60닙을 못치면 엄벌에 처한다니 언제 數量을 맞출 것인가. 너무 들복는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당시 신작로 출역이나 사방공사 출역에 응하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가마니 60립으로 노동력을 대신하게 했던 일종의 강제 동원이었다고 한다.

○ 가마니 생산량의 변화

한편, 1967년까지는 1년에 평균 총 40짝 가량을 치던 것이 1968년을 기점으로 연간 평균 가마니의 총 수가 70짝을 육박하게 된다. 1968년은 77짝으로 기존 가마니 수의 거의 두 배나 되는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1972년과 1973년에는 8월과 9월에 각각 44립과 65립 정도의 가마니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 1968년을 기점으로 가마니 생산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조금씩 확장해 온 농토의 경작 결과 증대된 수확량으로 인해 동시에 가마니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1년에 쌀 다섯 가마가 있으면 굶어죽지 않고, 1년에 가마니 100개를 짤 수 있으면 부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신권식씨의 경우는 1968년에 가마니 77립을, 1972년에 114립을 생산하였으니,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무렵 이미 부농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 가마니를 대신한 보관 방식

또 하나 특기할 만 한 점은 1971년의 일기에는 가마니 짜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해는 신권식씨가 새 집을 건축하느라 몹시 분주했던 해이다. 따라서 당시의 일기에는 가옥 신축 문제로 여러 가지 일에 쫓기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 해에 가마니 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도 바로 가옥 신축 문제로 가마니 짤 시간과 노동력의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마니가 없으면 당장 그해 가을 수확한 농작물의 운반과 관리, 보관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농사꾼에게 가마니 짜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한 해 농사를 위한 필수사항이었다. 그렇다면 1971년 가을에 신권식씨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해 11월 14일의 일기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今年에 空叭을 못처 통가리를 할랴고 밭을 午前中 치였다. (1971년 11월 14일)"

즉, 가마니의 대안으로 '통가리'라는 저장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신권식씨에 따르면, 통가리란, 일종의 알벼 보관 방식으로, 마당에 수수깡을 동그란 모양으로 빙 둘러 높이 쌓아 저장고를 만들고 그 안에 알벼를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던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통가리에 곡식을 보관하면 비도 스며들지 않고 쥐도 파먹지 않아서 가마니에 담아두는 것보다 보관에 훨씬 용이했다고 한다. 이처럼 통가리는 꼭 보관상의 용이함이라는 장점 때문에 가마니보다 우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가마니가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경우 가마니를 대신하는 차선책의 저장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했음을 위의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월의 부업으로 울타리와 가마니 짜기 외에 새끼 꼬기, 짚 추리기 혹은 짚가리 옮겨 쌓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가마니 짜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땔감을 위한 나무하기와 나무패기, 바다에서 조개잡기 등이 있다.

조개잡기는 주로 3월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채취되는 조개는 주로 맛이나 '삐죽'(빗죽이)이었다. 맛이나 삐죽의 채취는 매매를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 번에 보통 3~4사발씩 잡아 새끼로 만든 종태에 담아 왔다. 따라서 조개잡이가 시작되는 3월에는 바다용 종태를 만들기도 했고, 종태 외의 생활도구로 삼태나 멜빵을 만들기도 했다.

(3) 4월~5월

4, 5월은 본격적인 농사준비기로 점차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4월은 겨울일과 봄농사가 교차하는 시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겨울일인 가마니 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논농사의 출발인 볍씨 담그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4월의 부업으로는 가마니 짜기의 마지막 단계인 가마니 꼬매기가 주를 이루며, 가마니 작업이 일찍 3월에 끝난 경우에는 이렇다 할 부업에 대한 기록이 일기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위의 1년 주기표에 4월부터 점점 빈칸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에는 이앙이 시작되므로 부업활동이 더 현격히 줄어든다. 가마니 완성이 특별히 늦어져 5월까지 가마니 꼬매기가 연장되는 1961년과 1964년의 예외적인 두 해를 제외하면 나무하기나 풀베기 등의 일상적인 부업 외엔 특별히 행해지는 작업이 없다. 풀베기는 소 먹이를 위한 것이며, 난방을 해야 하는 겨울철이 지났는데도 나무하기가 계속되는 것은 가정용 취사나 쇠죽을 끓이기 위한 연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62년 5월에는 쇠풀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망

태를 만든 기록도 나온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맛이나 삐죽을 잡는 갯일도 4, 5월까지 간간히 계속되었다.

(4) 6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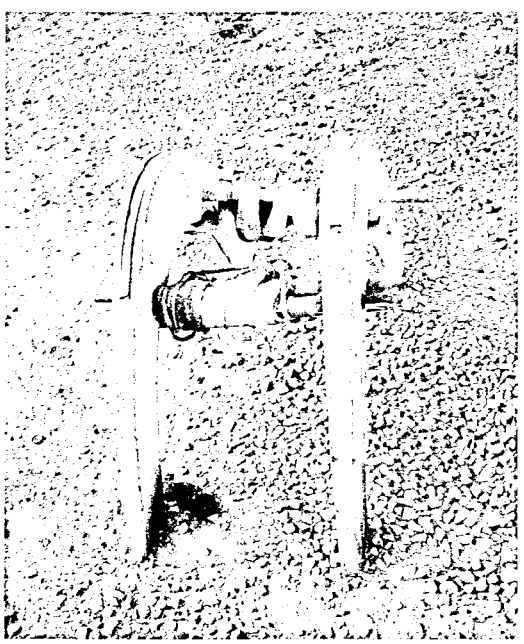
위의 주기표에서도 보이듯이 6월은 본격적인 논농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일상적인 풀베기 외에 다른 부업활동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7월은 논농사가 마무리되고 여름철 농한기의 준비에 접어드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풀베기나 나무하기 등의 일상적인 일 외에 다시 여름철 농한기 생활도구 생산에 쓰일 새끼나 왕울기 꼬기가 서서히 시작된다. 이 때 준비하는 새끼나 왕울기는 대부분 가마니보다는 멍석, 삼태, 망태 등 여름철 농한기에 주로 생산되는 생활도구를 위한 것이다. 가마니 외 대부분의 생활도구는 주로 8월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지만 7월에도 간간히 멍석과 삼태를 만들기도 한다. 그 외 1961년 7월에는 싸리를 베기도 하고, 1963, 1964, 1972년에는 바다에 가서 맛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또 1973년에는 장마를 대비하여 짚까리를 손질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여름철 부업의 대부분이 짚을 이용한 생활도구 제작이었으므로 장마철의 짚까리 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8월~9월

8월과 9월은 본격적인 여름철 농한기로서 한해살이를 위한 각종 생활도구들이 이 시기에 생산된다. 겨울철 농한기가 가마니의 시기라면 여름철 농한기는 생활도구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새끼와 왕울기를 이용하여 멍석, 삼태, 비료삼태, 망태, 덕석, 길마속, 쇠구라, 매끼, 지게멜빵, 도래방석 등을 만들며 바수거리 지게도 주로 이 때 엮는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1959년, 1972년, 1973년의 3년간은 이 시기에 가마니를 짜기도 한다. 새끼를 이용한 생활도구가 많은 만큼 짚 추리기나 새끼, 왕울기 꼬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중 덕석과 길마속, 쇠구라는 1967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소와 관련된 것이다. 덕석은 겨울철 방한을 위해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으로 일종의 우의(牛衣)이고, 길마속은 소의 등에 얹어 물건을 나르는 기구인 길마 안쪽에 대는 짚으로 짠 어치를 말한다. 1967년에 소와 관련된 생활도구들이 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신권식씨는 이 해부터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는 소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권식씨는 1963년부터 소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했지만 이는 자신의 농사일에 부리기 위한 일소가 아닌 송아지로, 일시적으로 먹이다가 더 비싼 값에 다시 팔아 이문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 19. 신권식씨 댁 창고에 보관된 길마



9월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주요한 작업 중 하나는 매끼 틀기이다. 매끼는 추수하기 위해 볏단을 한 단씩 묶어 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수 전에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필수품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매끼 틀기는 추수 전, 보통 9월 중순 경부터 시작하여 약 15일~ 20일 동안 이루어졌다. 하루에 보통 200개씩을 만들었으며 평균 총 2,000여개 정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농토가 확장되면서 수확량의 변화에 따라 매끼의 수량 역시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매끼의 수량에 대한 기록은 일기에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매끼는 벼 베는 당일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날이 잡히면 정확하게 그로부터 15일~20일 전쯤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해마다 매끼 틀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거의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런데 위의 주기표를 보면 보통 9월 중순경에 행해지던 매끼 틀기가 1965년과 1968년에는 한 달이 미뤄진 10월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965년과 1968년 두 해는 심한 가뭄으로 마냥모를 심게 되어 1년 전체의 농사주기가 약 1개월 가량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도구 제작 외에 간혹 바다에 가서 싸족(싸조개), 맛을 잡거나 부뚜막, 굴뚝 등을 수리한 기록도 보인다.

(6) 10월~11월

10월과 11월은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시기이므로 수확 직전 추수 준비, 수확 결과물의 운반과 보관, 탈곡 준비, 다시 겨울일인 가마니 짜기를 대비한 준비작업 등이 주를 이룬다. 10월은 벼 베기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벼 베기와 관련된 매끼 틀기 외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업은 없다. 추수날짜에 맞춰 9월부터 시작된 매끼 틀기가 10월의 벼 베는 날 직전까지 계속되며 수확한 볏짚을 동그란 모양으로 쌓아 보관하는 동그레가리 쌓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추수가 끝난 11월에도 역시 동그레가리나 짚가리 쌓기가 계속 되며 중요한 가을일 중 하나인 지붕 하기도 이 때 시작된다. 지붕은 가옥뿐 아니라 창고나 돼지우리 등의 지붕도 포함된다. 한편, 위의 주기표를 살펴보면 보통 2월에 시작되는 가마니 짜기가 1961년, 1965년, 1967년 11월에도 나타난다. 1961년은 겨울철 가마니 짜기가 좀 일찍 시작된 경우이지만 1965년과 1967년 11월에 특별히 가마니를 짜야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오늘 3닙을 첬다. 섶이가 없어 왕겨 담을 것이 없다.(1965년 11월 24일)" 즉, 1965년에는 겨울철의 대규모 가마니 짜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장 도정한 벼의 왕겨를 담을 곳이 없어 임시로 가마니 3립을 급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가을철에 가마니가 모자라 갑작스럽게 보충하게 되는 것은 그 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주기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즉, 한창 가마니 짜기를 해야 할 1965년 2월과 3월에 신권식씨는 대청매기 일을 여러 날 다닌 것이다. 일기에 의하면 그 결과

사진 20. 그네로 벼 훑기



해마다 적어도 평균 40립 이상씩 치던 가마니를 이 해에는 31립밖에 치지 못했다. 따라서 그 해 11월에 모자라는 가마니수를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共販에 벼을 내갈랴도 공가마가 없어 叉叭을 4닙 첬다.(1967년 11월 22일)" 1967년 11월에도 역시 본격적인 가마니 짜기가 아니라 당장 공판에 쓸 가마니가 없어 급하게 4립을 만들어야만 했다. 이 해에는 여느 해와 같이 3월에 42짝을 쳐 놓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가마니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 해부터 수확량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그 결과 가마니의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인지 다음 해인 1968년의 일기에는 평년 가마니 수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77립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외 바다에 가서 삐죽이나 낙지를 캐오기도 하는데 삐죽은 10월과 11월, 낙지는 11월에만 잡는다.

3) 농사와 관련된 일상적 부업 : 새끼 꼬기

주기별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부업 외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농사와 관련된 부업으로는 새끼 꼬기, 나무 하기, 쇠풀 베기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끼 꼬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새끼 꼬기는 모내기를 하는 6월과 벼 베기를 하는 10월을 제외하면 거의 1년 내내 행해지는, 농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의 하나였다. 이는 농촌생활에서 새끼의 용도가 그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1년 내내 행해졌을 뿐 아니라, 조반 후 새끼 한 사리로 시작해 석반 후 새끼 한 사리 꼬는 것으로 하루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끼 꼬기는 거의 필수적인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농촌생활에서 그 많은 새끼의 수요를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1) 짚 관리와 짚 추리기

새끼를 꼬기 위해선 먼저 짚가리에서 새끼에 쓸 짚을 추려내야 한다. 이 때 비를 맞아 짚가리가 젖어 있으면 곤란했기 때문에 짚가리 관리를 위해서는 날씨에도 민감해야 했으며 특히 장마철의 짚가리 관리는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이었다.

"午前에 장마 대비 次 妻와 같이 짚까리를 손질하고 썩은 것은 뒤엄으로 쌓아 놓고 … (1973년 7월 13일)"

"堆積場을 다시 손질하고 썩은 짚을 쌓고 … (1973년 9월 1일)"

이처럼 비에 대비하여 짚가리를 손질하기도 하고, 수시로 짚가리에서 썩은 짚을 골라내어 양질의 짚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 해도, 이렇게 관리한 짚 전부가 새끼 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짚가리에서 짚을 고르자면 1/10은 제쳐야 쓸 만한 짚이 나온다.(1973년 1월 30일)"는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끼를 꼬기 위해선 좋은 짚을 선별하여 추려내야만 했다.

이렇게 선별해 낸 짚으로 만드는 새끼의 명칭을 일기에서 찾아보면 광범위한 용도만큼 그 명칭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새끼'라고 표현된 것 외에, '가는 새끼', '가마 새끼', '가마날', '꾸밀 새끼', '꾸미개 새끼', '매끼', '매댕기', '삼태용 새끼', '왕울기', '가을용 왕울기', '주대 드릴 새끼', '쇠연장 드릴 새끼' 등이 그것이다.

(2) 새끼의 종류와 용도

○ '가는 새끼' : 주로 가마니 짤 때 속날로 이용되는 새끼로 '가마 새끼'나 '가마날'도 가는 새끼를 지칭하는 것이다. 가마니 외에 보구니나 방석 등에도 이용되었다. 가는 새끼는 하루 종일을 꼬아야 보통 1통을 꼴 수 있었으며 많은 날은

2통까지도 꼬았다.

○ '꾸밀 새끼' : 가마니를 다 짜 놓고 마지막에 테두리를 꿰맬 때 쓰는 것으로 '꾸밀 새끼' 혹은 '꾸미개 새끼'라고도 불렀다.

○ '매끼' : 가을철 벼를 벨 때 먼저 물속에서 벼를 벤 후 한 단씩 묶어서 밖에 내 놓았는데, 이 때 물속에서 볏단을 묶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매끼'라고 하였으며 '매댕기'라고도 불렀다.

사진 21. 신권식씨 댁 창고에 보관된 삼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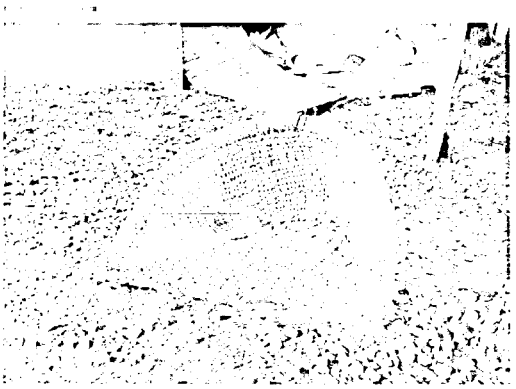


사진 22. 쟁기와 구라 사이에 연결된 쇠연장 드리는 새끼



매끼는 엄밀한 의미의 새끼는 아니고 짚 두 개를 모아서 끝이 풀리지 않도록 대가리를 붙잡아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새끼와 비교할 때 훨씬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식전 짧은 시간에도 매끼 200개씩을 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볏단 하나를 묶을 때 매끼 하나씩 사용되었으며, 보통 한 번에 볏단 40개씩을 묶어 밖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 '삼태용 새끼' : 말 그대로 비료삼태 혹은 삼태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이다. 삼태나 멍석용 새끼는 가는 새끼보다는 굵고 왕울기보다는 가는 중간 새끼를 이용했다고 한다.

○ '왕울기' : 주로 울타리를 엮거나 지붕을 두를 때 사용되었으며 '왕울기' 혹은 '왕울기 새끼'라고도 한다. 울타리나 지붕 외에 땔감으로 해 온 나무를 한 동씩 묶을 때도 사용되었다.

○ '가을용 왕울기' : 왕울기 중에서도 가을에 지붕 할 때 쓰이는 새끼를 말한다.

○ '주대 드릴 새끼' : 1965년 2월 14일의 일기에는 '주대 드릴 새끼'라는 표현이 나온다. '주대 드릴 새끼'란 울타리에 쓸 동아줄을 만드는 새끼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동아줄은 왕울기로 만드는데, 보통 지붕에 쓰이는 왕울기보다 더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야 했다. 주대 드릴 새끼를 만들 때는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길게 꼬아 놓은 왕울기를 붙잡고 '도리개'라는 도구를 이용해 팽팽해 질 때까지 돌린 다음 이것을 반으로 겹쳐 다시 도리개로 돌려 보통 왕울기의 두 배가 되는 굵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 '쇠연장 드릴 새끼' : 1968년 1월 28일 일기에는 '쇠연장 드릴 새끼'라는 표현이 나온다. '쇠연장 드릴 새끼'란 소가 농기구를 끌거나 짐을 나를 때 소의 고삐를 쟁기, 길마 등의 도구와 연결해주는 새끼줄을 말한다. 따라서 소가 쟁기 등의 무거운 농기구를 끌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했기 때문에 쇠연장 드릴 새끼는

왕울기를 가지고 도리개 돌리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만든, 새끼 중에서도 가장 굵고 가장 단단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월 열 나흗날 맑은 날씨로 맞이했다. 朝飯 後에는 여기저기서 쇠연장 드리느라고 왔다 갔다 한다.(1961년 2월 28일)"에서 볼 수 있듯이 쇠연장 드릴 새끼 꼬기는 일종의 세시 풍속의 하나로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행해졌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의 일기에도 매년 정월 14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간혹 '쇠연장 드릴 새끼' 대신 '주대 드릴 새끼'라고도 쓴다.

○ 기타('밀짚자리') : 그 외, 새끼의 종류는 아니지만 위에서 다루지 못한, 짚을 이용한 생활도구 중 1964년 8월 일기에 등장하는 '밀짚자리'가 있다. 이는 볏짚이 아닌 호밀의 짚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일기에 '밀짚자리' 혹은 '밑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종의 돗자리로, 더운 여름밤에 동네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놀며 모닥불 놓고 라디오 듣고 할 때 마당에 깔고 앉던 자리라고 한다.

(3) 새끼의 단위와 가치

일기에 기록된 새끼의 단위는 '사리', '둘레', '통'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사리'는 1959년 일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둘레'가 1961년 12월에 한 번 나온 것을 제외하면, '둘레'나 '통'은 1964년의 일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새끼를 세는 단위가 새끼 꼬는 기계인 '製繩機(새끼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백미 7두를 주고 제승기를 구입한 1964년 1월 24일 이후부터 신권식씨는 새끼를 주로 '사리'가 아닌 '둘레' 혹은 '통'의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사리'는 제승기를 장만하기 이전, 손으로 새끼를 꼴 때 주로 사용하던 단위로, 볏짚 한 아름을 꼬아 놓은 것을 새끼 한 사리라고 불렀다. "왕울기 새끼를 한 사리 꼬는데 손바닥이 닳아 뚫어졌다."라는 1959년 1월 31일의 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끼 꼬기는 거의 매일같이 하다시피 한 일상적인 작업이었지만, 새끼틀 없이 손으로 새끼 꼬기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새끼를 꼴 때에는 하루에 고작 한두 사리 꼬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제승기를 구입하기 이전인데도 1961년 12월 30일에 '사리'가 아닌 '둘레'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 날 새끼 꼬기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의 새끼틀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964년에 장만한 제승기는 짚을 넣고 발로 밟으면 그 동력에 의해 기계가 돌아가서 새끼가 저절로 꼬아지는 반자동식 족답형 새끼틀이었다. 따라서 시간과 노동력이 훨씬 절약되어 새끼를 세는 단위의 규모도 '사리'가 아닌 '통'이나 '둘레'로 바뀌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통'은 '둘레'와 같은 단위라고 하며, 하루에 보통 1통, 많게는 2~3통 정도를 꼬았는데 가는 새끼 1통이면 가마니 15짝 정도를 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한다. 새끼틀이 없을 때는 손으로 꼬면 보통 하루 종일 가마니 6짝 정도의 분량을 꼬았다고 하니, 제승기를 이용할 때와 두 배 이상의 생산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새끼 10통을 무게로 치면 약 200근으로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정도의 무게였다고 한다. 또 "가는 새끼 나발을 때워서 우리 새끼틀에서 두 둘레를 꽜는데 가는 새끼 꼬는 통이 없어 새끼가 잘 안 된다.(1964년 2월 21일)"는 기록으로 보아, 가는 새끼나 왕울기 등 새끼의 종류와 굵기에 따라 그 때 그 때 새끼틀의 부속을 갈아 끼워가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새끼는 일가의 어른들에게 선물처럼 드리기도 하였고, 대가를 받고 차용해주기도 하였으며, 소금을 구입할 때 소금 값 대신 치르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하였다. 1965년 8월 5일의 일기를 보면 "새끼 꽈논 것을 갖고 개섬으

로 소금을 받으러 갔다. … 10둘레에 소금 2叭을 받고 10둘레는 돈으로 달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새끼 10둘레를 소금 두 가마와 교환했으니 새끼 5둘레는 당시 소금 한 가마의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염전에서 새끼를 돈 주고 사거나 소금 값 대신 새끼를 받았던 이유는, 소금가마를 묶기 위해 염전에서도 새끼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1967년 1월 23일의 일기에는 '새끼사리 3통'을 도둑맞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食前에 울타리를 나눌랴고 새끼를 찾으니 없어졌다. 어제까지도 있던 새끼사리 3통이 없어졌다. 氣分이 아주 나쁘다."

다른 귀중품도 아닌 고작 새끼사리 3통을 훔쳐간, 일견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 도난 사건은 오히려 농촌의 실생활에서 새끼가 차지하는 가치나 비중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3. 농한기 부업의 의미와 생산량의 변화

농한기 부업의 1년 주기를 다시 요약해 보면 12~1월은 가마니나 울타리를 위한 새끼와 왕울기 꼬기, 2~3월에는 울타리 하기와 가마니 짜기, 4월은 가마니 꼬매기, 7월은 생활 도구 생산을 위한 새끼나 왕울기 꼬기, 8월은 멍석, 삼태, 망태, 덕석, 길마속, 쇠구라, 지게멜빵, 도래방석, 바수거리 등의 생활 도구 제작, 9~10월은 매끼 틀기, 11월은 이엉 엮기, 동그레가리나 짚가리 쌓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사 관련 부업의 1년 주기를 분석한 결과 농한기 부업의 의미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지난 해 농사의 결과물을 이용한, 다음 농사의 필수 준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농사의 결과물"이라고 한 것은 농한기 부업의 대부분이 전 해 농사에서 수확한 짚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다음 농사의 필수 준비 노동"이라고 한 것은 농한기 부업이 없이는 다음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삼태가 없으면 외양간에서 거름을 쳐 낼 수가 없고, 매끼가 없으면 들에서 벼를 벤 후 볏단을 묶어 밖으로 내놓을 수 없으며, 가마니가 없으면 수확한 벼를 담을 곳이 없고, 멍석이 없으면 수확한 곡물을 널어 말릴 곳이 없으며, 새끼가 없으면 아예 삼태도, 매끼도, 가마니도, 멍석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한기 부업은 한가한 시기에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조 노동 혹은 선택적 노동이라기보다는, 지난 해 농사와 다음 농사의 순환 구조 속에서 다음 농사를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할 필수적인 1차 노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농한기 부업은 '부업'이라기보다는 '주업인 농사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본다면 농번기와 농한기를 통틀어 농부의 1년 365일은 거의 농사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가마니틀이나 새끼틀 등의 기계 도입에 따른 생산량의 증대는 1960년대 농한기 부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가마니는 멱틀을 사용할 때 두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던 것이 족답기를 사용하면서 한 명으로 절감되었고, 새끼 역시 64년에 새끼틀이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두 배로 증대되었다. 만일 이러한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960년대 후반 수확량의 증가에 따른 가마니 수요의 증대도 결코 쉽게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계화 이전과 이후의 이 같은 차이를, 1일 노동시간과 1일 생산량의 변화, 잉여 노동력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농한기 부업의 기계화에 따른 1960년대 농촌 생활

상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 못했다. 또 기계화에 따른 변화뿐 아니라, 부업에 투입된 노동시간과 생산량의 차이가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라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교해본다면, 1960년대 농한기 농민들의 노동 강도가 농번기에 비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차이를 드러내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1970년대 일기에 대한 분석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 1960년대와 70년대를 비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농한기 부업의 노동 시간과 생산량의 실제적인 변화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노동시간과 생산량에 대한 이 같은 시계열적 분석은 모두 다음 과제로 남긴다.

4. 기타

일상적,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농사 관련 부업 외에 마을 공동체 생활과 관련하여 신권식씨가 종사하는 몇 가지 특색 있는 활동들이 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신권식씨의 사회활동이나 친족공동체와 관계된 활동이므로 '부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딱히 포함되는 분야가 없어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편지나 각종 서류 혹은 신청서 등의 대필이다. 이는 개인적인 편지나 매매계약서처럼 사적인 편지나 서류 대필인 경우도 있고 마을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사적인 대필은 주로 아버지, 동생, 숙모님, 작은 아버지, 유우(悠雨) 등의 편지 혹은 매매 계약서, 병적신고 신청서 등을 대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개인의 웅변원고까지 대필해 주기도 한다. 마을일과 관련해서는 동리 생활기록카드를 작성하거나 마을 배구대회의 기금마련을 위한 취지문 작성, 새마을계획서 작성 등이 있다. 또 군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마을에서 전송식을 해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旗'나 '차안' 등을 작성하는 것도 신권식씨의 몫이었다. '차안'이란 환송하는 뜻의 글귀를 새겨, 전송 길에 입대하는 당사자의 어깨에 걸어주던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마을의 사적이거나 공적인 문서 일체를 신권식씨가 도맡아 작성했다는 사실은 한편 이 마을의 문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마을 내에서 차지하는 신권식씨 고유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마을 사람들이 꼭 문맹이어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공적이고 사적인 각종 업무 처리에 있어 신권식씨가 지닌 소양이나 능력이 보통 사람들의 그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문서 작성 외에 친족 공동체 내에서 신권식씨가 담당한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일가친척의 상례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집안에 상이 날 때마다 일기에는 "내가 도맡아 護喪일을 보았다.", "모든 일의 주관이 되여 보았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뿐 아니라 염까지도 직접 하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집안마다 염을 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 집안의 상례를 담당했는데 신권식씨는 이를 큰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한다. 호상일을 직접 보거나 염을 해 주는 것은 당내 8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처럼 신권식씨가 8촌내의 모든 상례를 주관하였다는 것은, 친족 공동체 내에서 의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나 예법에 대한 지식과 실제를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역시 친족 조직 내에서 그가 담당하던 위치와 역할을 알 수 있다.

1972년 3월 10일에는 한 30대 여인의 사체가 바다에 떠내려 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 처리를 위해 동리에서 협조할 몇 사람을 추천해 달

라는 경찰의 부탁에 "누가 좋은 일이라고 올 사람도 없으려니와 누구를 보낼 수도 없어 내가 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는 마을의 궂은일이나 불미스런 일에 타인을 동원하거나 미루는 대신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문서의 대필, 상례의 주관,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신권식씨의 모습을 통해, 마을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지식인으로, 때로는 마을 리더로서 기능했던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Ⅵ. 장시 출입

1. 장시 출입 현황

시장은 물품과 사람이 만나는 결절점이다. 특히 본 글의 분석 대상 시기인 1959년부터 1973년까지는 해방이후 한국에서 소위 오일장이라고 말해지는 정기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때이다. 정승모(1998)[6]에 따르면, "1950년대 중엽부터 60년대 중엽에 걸쳐 정기시가 급증하여 1970년에는 남한에 편입된 경기도에서만 140처의 정기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만큼 정기시장은 오랫동안 농촌 상업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신권식씨를 비롯한 농촌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로 인근지역의 주요 오일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권식씨도 장날에 어떤 곡물과 가축을 얼마만큼 가져가서 얼마에 팔았으며, 무엇을 얼마에 사왔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장날이 다가오면 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장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본 일기의 장시 이용 현황에 대한 기록은 신권식씨 가족뿐만 아니라 농촌의 당시 경제활동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권식씨가 이용한 장들은 안중장, 발안장, 신포장, 서정장 등이고, 이들 장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장	개시일	소재지(일기기록당시)
신포장	4·9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발안장	5·10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안중장	1·6	경기군 평택군 안중읍
양감장	2.7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서정리장	2.7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수원		경기도 수원시

신권식씨 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은 평택군 안중장으로, 일기 기록에는 '장'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후기 이후로 1·6일에 개시되고 있는 안중장은 과거 충남의 서산·예산·당진·합덕 등지에서 포승면 만호리 해안을 거쳐서 서울로 물자를 운반하던 중요한 이동로에 위치하고 있다.(정승모, 1998:363) 이처럼 안중장은 조선후기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포승면·오성면·청북면·현덕면 등 서부 4개 면을 포섭하는 장이며, 북으로는 발안장과 수원장으로 연결되었다.(정승모, 1998:364) 안중장은 신권식씨가 거주하는 청북면뿐만 아니라 인근 농촌지역의 상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신포장과 특히 발안장은 안중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용이 된다. 발안장은 조암장(4·9) 및 오산장(3·8)과 연결하여 경기도 화성군 남부장시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으로, 과거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어 가축거래도

6) 정승모, 1998. "장시유통", 『경기민속지 Ⅰ 개관편』, 경기도박물관, pp.356-380.

활발한 편이었고, 인근 마을에서 만든 수공품과 철물 및 농기구도 거래되었다.(정승모, 1998:369 참조) 이들 장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시 또는 상설시장은 수원, 평택, 양감장, 서정리장을 들 수 있다. 양감장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에 위치한 면단위 장으로 신권식씨가 거의 출입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1963년 9월달에 작두를 맞추었는데, 작두를 만들어 놓지 않아 10월 11일에 작두를 찾아올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출입을 하였다. 서정장은 1972년 7월 22일 백미를 팔기 위해 간 것이 유일하다. 수원장은 경기도의 중심시장이지만, 청북면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단지 수원장날보다는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원시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각 장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포장(新浦場, 평택군 청북면)

신포는 청북면 면소재지로 고잔리 대곡마을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신포까지는 삼계를 거쳐 걸어 다녔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비료 등을 실어오기 위해 우차를 이용(1959년 4월 17일)하거나, 자전거를 빌려 다녀오기도(1962년 10월 26일) 하였다. 신포장은 4·9일에 서는데, 신권식씨의 가족은 신포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었다. 일 년에 어머니 제사흥정(1959년 3월 24일) 등을 위해 1~2번 신포장을 이용하였다. 오히려 신포는 평상시 간단하게 살 물건이 있거나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상생활권이었다. 특히 신포는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안중, 처가, 수원 등지로 오고 갈 때 버스차편을 이용하기 위해 들리는 곳으로, 이 때 신포의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도 하였다.

2) 안중장(安仲場, 평택군 안중읍)

안중장은 신권식씨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으로, 신권식씨 가족은 일 년에 약 20~30회 정도 안중장에 출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중장에 갔을 때에는 안중장이 아니라 '장(場)'으로 일기에 표기하고 있다. 안중장의 개시일은 1·6일(1962년 5월 5일만 5일에 열었음)이다. 안중은 청북면 고잔리에서 20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걸어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교통편으로 신포에서 안중까지 다니는 버스 편이(1960년 1월 16일) 있었지만,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버스, 우차(1971년 4월 26일) 등을 이용하고 대부분은 걸어 다녔다. 이 점은 신권식씨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100프로가 발안, 안중은 걸어가는 거야. 하여튼 발안 간다, 안중 간다 하면 차 탈 생각을 안 해. 걸어가는 거야." 또한 안중장이 마을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반면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신포는 마을에서 서쪽 방향에 위치해 있어서 신포까지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에 안중장에 다 갔다고 하였다. 안중장으로 갈 때는 대곡에서 삼계-옥길-수촌을 거쳐서 갔다. 장에 걸어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일기에서는 안중장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걸어서 다녔다는 기록(1962년 8월 16일, 1964년 1월 11일)도 보기 드물다. 부분적으로 가뭄, 홍수 등이 있을 때 장에 오고 가는 길의 들판 풍경 묘사나 옥길 등의 주막에서 술을 마신 기록을 통해 장길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주로 부인이 장에 다녔는데, 부인이 무거운 곡물과 물품을 가지고 먼 길을 다녀온 것에 대한 신권식씨의 미안한 마음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1960년 5월 16일)

신권식씨와 마을 사람들의 상업활동은 주로 안중장을 통해 이루어져 안중장날은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는 축제의 날이기도 함은 일꾼들이 장

날, 장에 가기 위해서 일을 미루기(1967년 7월 21일)도 하는 것에서 보이기도 한다. 신권식씨도 장날이 다가오면 돈을 마련하는 등 장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 또한 장에 가지 못하게 되면 가지 못한 이유와 아쉬운 점,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을 부탁한 것, 또한 장에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장날 곡물, 밭작물, 가축 등의 시세 변화(1962년 2월 25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이처럼 안중장에서는 상업행위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권식씨는 안중장에서 처가 식구, 특히 처남을 자주 만나 점심을 먹기도 하며 처갓집 소식을 듣는다. 장날 벌어진 선거유세 풍경과 민심의 향방 등에 대한 기록도 빠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 안중장날 뿐만 아니라 병원갈 일(1962년 2월 19일) 등이 있으면 안중에 가기도 한다. 신권식씨의 가족이 신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주로 안중에서 해결하며, 신권식씨와 친구들이 어울려 술 한 잔을 먹으러 오후에 안중에 가기도 하고, 동네 주민의 결혼식(1962년 12월 13일)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안중은 경제활동 공간의 장을 넘어 신권식씨 및 청북면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이었다.

3) 발안장(發安場, 화성군 향남면 발안)

발안은 청북면 대곡리에서 약 15㎞, 30여리 정도 떨어져있는데 걸어서 두 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발안장도 안중장과 마찬가지로 걸어서 주로 이용하였다. 일기에는 발안장에 가는 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단지 "發安場行 楊甘에 차를 떠나 10時 半車로 發安에 到着(1963년 8월 15일)"하였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신권식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안장 가는 길은 고잔-원목-개섬-당아랫골-구문천-상신-발안이었다.

발안장은 5·10일에 개시하는데, 청북면 주변에서는 안중장과 더불어 규모가 큰 장으로, 신권식씨 및 마을 주민들의 상업활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발안장은 안중장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발안장의 이용은 일 년에 1~2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단지 1963년(7회)과 1964년(4회)에는 돼지와 소를 매매하기 위해 다른 해에 비해 발안장의 출입이 조금 많다. 신권식씨는 가축을 사고 팔 때는 좀 더 나은 가격으로 좋은 가축을 매매하기 위해 안중장과 발안장의 가축시장을 모두 들리는 편이다. 신권식씨는 처음으로 발안장에서 소(1963년 8월 15일)를 샀다. 1965년을 넘어서면 발안장의 이용은 거의 없다.

4) 기타

수원은 상포관련 물품을 사러 가거나(1961년 1월 3일) 여동생 춘자의 결혼(1961년 12월 2일) 등 큰 의례를 위해 이용한다. 그런데 1967년부터 서울에 자식들 교육을 위해 집을 마련하면서 평택, 수원을 벗어나 서울과의 관계도 긴밀해진다. 특히 영호와 웅호(1972년 2월 7일자로 전학)가 서울로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신권식씨 가족의 서울 나들이가 많이 증가한다. 1971년에 시골에 집을 지으면서는 서울 동대문 등지까지 가서 목재를 알아본다. 이처럼 서울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서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그리고 영호가 사는 서울 영등포의 한 여성이 마을에 고추를 사러 오는 경우(1971년 9월 26일)도 있다. 신권식씨 및 부인의 서울 출입이 잦아지면서 안중장 등 인근 시장의 출입빈도가 적어진다.

2. 장시 이용시기별 특징

신권식씨의 가족은 일 년에 약 30회 정도 장에 출입한다. 출입의 정도는 년도별,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년도별로는 가축 판매와 구입, 춘자의 결혼(1961년), 선거(1967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장이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월별로는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구정, 신권식씨 생일(음력 1929년 12월 14일), 어머니 제사(음력 2월 16일) 등이 들어 있는 1~3월에는 장에 자주 출입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과 5월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에 출입하지 않는다. 농번기가 끝난 이후 조금씩 장 출입 정도가 증가한다. 특히 9~11월에는 그 해 수확한 고추, 대추, 참깨 등을 팔기 위해 장 출입이 빈번해진다.

3. 장시 출입 주체

장에 주로 가는 사람은 신권식씨의 부인이다. 부인이 주로 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신권식씨는 "妻를 場에 보내는 것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妻인지라 妻를 보내는 것이다.(1961년 10월 21일)"라고 적고 있다. 단지 부인이 둘째 雄浩(1961년 1월 11일)를 출산할 때는 본인과 春子가 장에 갔고, 셋째 大浩(1964년 2월 8일)를 출산할 때는 춘자도 출가를 해서 본인이 장에 출입한다. 한편 장에 갈 때는 부부가 같이 가기보다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장에 간다. 이는 아이들이 어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권식씨가 농사일로 바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기에 처가 장에 간 동안 신권식씨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이 많다. 다른 한편 소 매매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장에 갔다.

4. 장시 출입 목적

장에 가는 목적은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있다. 신권식씨 가족이 주로 파는 물건은 농산물과 가축이다. 농산물로는 쌀이 많이 거래되지만, 참깨, 고추 등 밭작물도 주요 판매 품목이다. 특히 "안중장엔 참깨와 고추장이라 한다.(1961년 9월 6일)" 또는 "금년에 고추 금새가 좋은데 고추를 했어야 잔돈푼이나 만져보는 것인데 고추 흉년을 당하니 잔돈푼이 궁해다. 돈이 아주 말라붙었다.(1965년 9월 26일)"는 표현처럼, 참깨와 특히 고추는 신권식씨뿐만 아니라 청북면 주민들에게도 주요한 환금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기에는 참깨, 고추 시세 등과 관련된 기록이 많다. 농산품 이외에 장에 주로 갖고 가는 것은 가축인데, 초반에는 닭과 계란을 많이 가져갔고, 후반에 가면 돼지, 송아지 등도 종종 판매를 하였다. 장에 가서 사오는 것은 공산품으로 품목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의류와 약이 주를 이룬다. 그 외 농기구, 가축, 혼수품, 각종 생필품 등이 있다. 춘자가 결혼했던 해(1961년)에는 몇 달 동안 장날을 이용하여 혼수품 등을 조금씩 준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장은 물물교환의 경제활동을 넘어 다양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장날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 등 각종 행사들이 행해지고, 이것을 통해 개인적 소식뿐만 아니라 세상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었다. 신권식씨는 안중장에서 특히 처갓집 식구들을 자주 만나 처가소식을 듣는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장날에 선거유세가 많이 행해졌는데, 신권식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유세를 보러 장에 가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하였다.(1960년 3월 11일, 1960년 7월 21일)

Ⅶ. 금융거래와 물가

신권식씨의 경우, 1959년부터 1973년 사이 금융거래는 쌀 또는 벼를 빌려주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간혹 현금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빌렸다가 쌀로 갚거나 또는 빌린 쌀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때로는 농사철에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품삯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벼 또는 쌀이 화폐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빠듯했던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벼 또는 쌀을 빌려주는 개인 간의 거래는 모두 '장리(長利)'로 표현되고 있다.

당시 물가 상황은 안중장(安仲場) 등의 정기시장을 통하여 구입하는 잡화, 상인들에게 넘기는 농축산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벼는 소위 '공판(公販)'의 방식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기시장의 미곡 수집상에게 판매하거나, 장리로 이웃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볏짚으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치는 등의 일부의 수공업을 제외하고는 의복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 생활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어서, 이미 소상품을 생산하는 농민으로서의 면모가 여실히 확인된다.

정기시장을 통한 축산물의 유통은 가축 자체의 거래에 한정되었다. 도축(屠畜)은 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병이나 사고로 죽은 가축을 도살하여 분육(分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도축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고였기 때문에, 먼저 희망자에게 외상으로 고기를 나누어주었으므로, 후에 수금(收金)하는 데에도 여러 날이 걸렸다.

토지의 매매는 전답(田畓)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 다만 신권식씨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을 마친 자녀가 대도시에서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지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2세대에 걸친 이농(離農)의 한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1. 미곡의 차용(借用)과 장리(長利)

신권식씨는 1956년 중매로 혼인할 당시 논 5마지기(750평)를 상속받아 분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새 집을 지어 이주하였고, 자신은 증조부 때부터 살았던 3칸 초가에서 미혼의 누이동생과 같이 거주하면서 천수답 750평을 상속받아 살림을 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그의 경제적 지위는 부농(富農)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검절약을 통하여 신혼 초부터 매년 5가마 내외의 잉여분을 남겼고, 이를 주변 농민에게 장리로 빌려줌으로써 재산을 불려갔던 것이다.

사실 '장리'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까지 만연했던 연 이율 30~50%에 이르는 고금리는 농민들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경제현상이었다. 대부분 식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던 빈곤층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흉년이 들면 영세농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풍년이 든다 해도 곡가(穀價)가 떨어지면 그다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가난한 농민들이 농번기의 일품 값을 미리 받는 방식으로 식량을 마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대곡일기를 보면, 서모(庶母)와 사는 아버지 또는 가까운 일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권식씨가 돈을 빌리는 경우는 생계유지 차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꾸준

하게 전답을 매입하였으며, 그 때문에 모자라는 생계자금을 일시 빌리는 경우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장리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장리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갔다.

장리의 이율은 연 30%에서 50%의 범위에서 움직였다. 대체로 50%에 가깝던 이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 수준으로 꾸준하게 하락하였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일기를 통하여 그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당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5할 장리는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잠시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4할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3할 정도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일기 자료에서 40% 이율의 장리는 1962년 1월 7일의 기록이다. 인터뷰자료와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 1959년부터 1960년대 초반의 장리미(長利米)의 이율은 대체로 40% 선에서 움직였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닌 듯하다.

이에 앞서 1961년 8월 23일의 일기에는 마을 이장의 집에서 "정부의 高利債를 정리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향후에는 5할 長利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돌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장리의 이율이 30% 선으로 하락한 것은 훨씬 뒤의 일로 보인다. 1972년 3월 5일과 같은 달 6일의 일기에는 30% 이율, 1973년 1월 15일과 같은 달 20일의 일기에는 35% 이율로 장리를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사금융에서 이율의 하락은 점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도 장리의 이율은 동일하지가 않았다. 이율의 차이는 주로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도에 달린 듯하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우고 차용증를 받기도 하였다. 1968년 2월 30~35%의 이율이 일반적이었을 당시 동생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보아 친소관계는 이율 결정의 부차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2. 부동산의 거래

신권식씨는 꾸준하게 경지를 매입하였고, 그 결과 분가 당시 750평에 불과했던 전답은 현재 5,000여 평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재산의 증식은 근검과 노력의 결과였다. 주변 친지들이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1965년 2월 하루 150원의 일당을 받기 위하여 품팔이를 나갔던 사례, 또는 같은 해 9월 농골의 제방공사의 감독 겸 잡부로 일을 하는 등의 생활은 모두 신권식씨의 재산증식의 욕구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참고로 1959년 7월 5일 일기를 보면, 염전에서 하루 일당으로 600원을 받았다.

부동산 매매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서울에 대지를 매입한 후 가옥을 신축한 일이다. 혼인 후 분가한 초기에 주변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진 신권식씨는 1968년 12월 자녀의 서울 유학을 위하여 서울에 가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다. 당시는 동생에게 10만원을 빌려준 관계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듬 해 10월부터 현지를 방문한 끝에 고척동의 대지를 매입하였다. 같은 해 11월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일시 공사를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일기에는 당시 마을에서는 주민 가운데 서울에 가옥을 장만한 경우는 신권식씨가 처음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는 소유자가 지인(知人)을 통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때로는 신권식씨 자신이 중개인으로 나선 경우도 있는데, 1967년 1월에는 안중의 과수원을 서울 사람에게 소개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료 1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안중 과수원 계약은 1월 15일에 체결되었으나, 2월에 지급하기로 되었던 잔금지급이 4월에 비로소 완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 매매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이 시기에 토지 매매가 급증하였다는 일기의 기록이다. 1967년의 연두소감(年頭所感)에는 "몇 년 동안 토지를 매도하려는 주민이 늘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이농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인다.

매매계약은 주로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철에 이루어졌다. 농번기를 피하여 한가한 시기에 거래를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가을걷이 이후에도 빚에 몰린 영세농들이 경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매물로 나온 경지를 두고 때로는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신권식씨의 경우에도 1959년 1월에 아버지와 대립하기도 했으며, 1971년 1월에는 임야(林野)를 매입할 당시 경쟁자가 나타남에 따라 평당 가격이 40원에서 46원으로 오르는 일도 있었다.

신권식씨는 토지의 매매가격을 대개 쌀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벼농사가 주를 이루었던 농업사회의 관행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신권식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1959년 당시 논 1평의 가격은 쌀 5되(升) 정도였으며, 최고 1말(斗, 10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논을 매입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1959년 일기에 의하면, 마을에서 2월 2일에 논 164평이 670되(升, 6叭 7斗)에 거래되고 있어서 평당 가격이 4되에 불과하다. 1960년 11월 29일에는 백부(伯父)가 중개인으로 나서서 윤병현(尹炳賢) 소유의 농꼴 논 4마지기를 평당 5두 5승으로 계산하는 흥정이 진행되다가 무산되었다.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5마지기(750평)의 논을 50가마에 거래하였는데, 평당 가격은 약 6두 7승이다. 1961년 1월 8일 일기에서는 숙부(叔父)가 3마지기(450평)의 논을 평당 쌀 6.2두, 총 28가마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기시장 등의 거래를 통해서 본 물가

신권식씨의 농산물의 거래는 주로 정기시장의 상인에게 매각하거나 주변 농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가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대체적인 농산물 가격동향을 알 수 있다. 집안에 저장하던 농산물을 필요에 따라 장에서 팔던 일은 1970년대까지도 농민에게 낯선 광경이 아니었다. 신권식씨의 일기에서도 장에 잡곡을 가지고 가서 팔고 제수(祭需)를 구입하거나 일용품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외상을 보리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격을 받은 경우, 또는 집에서 잰 무게와 상인의 저울질이 달랐던 사례 등은 장터의 거래풍속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소상품 생산 농민의 애환을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전체 일기 가운데 1959년과 1960년의 신권식씨의 농산물 매매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볏짚(穀草)이나 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농우(農牛) 사육농가에게는 주요 사료였다.

사진 23. 신권식씨 댁 창고에 보관된 모말



1950~1960년 농산물 매매현황

일 시		내 역
연 도	월 일	
1959	1월 20일	大麥 1斗를 800환에 팔고 제수를 흥정함.
	1월 26일	친지에게서 빌린 겨 값 900환을 보리쌀 1斗 2升으로 변제함. 보리쌀 1斗의 가격은 800환인데, 대략 1升을 더 얹어서 줌.
	2월 1일	妻가 場에서 白米 1斗에 1,050환에 판매함.
	2월 5일	한국전쟁 정착민이 大麥 1斗를 800환에 사감.
	3월 5일	白米 1斗를 1,030환에 판매함.
	3월 26일	妻가 고추 20斤을 가지고 場에 갔다가 1斤에 230환이라 하여 그냥 돌아옴.
	4월 1일	妻가 고추 20근을 가지고 장에서 1근에 220환의 가격으로 17근만을 팔고 돌아옴.
	5월 21일	妻가 場에 가서 白米 1斗를 1,270환에 팔고 돌아옴.
	6월 1일	妻가 場에 가서 白米 1斗를 1,300원에 팔고 돌아옴.
	6월 8일	白米 3斗를 3,900환에 판매함.
	6월 11일	妻가 場에 가서 참깨 1斗를 3,200원에 팔고 돌아옴.
	8월 21일	妻가 장에 가서 참깨 1斗를 1,600환에 팔고 돌아옴. 時價보다 600환 정도 낮은 가격이었다는 자책을 기록하였음.
	8월 24일	한국전쟁 정착민 장사꾼에게 외상값 600환을 大麥 1斗로 변제함.
	9월 11일	妻가 장에 가서 고추 4斤을 1,100환에 팔고 돌아옴.
	10월 11일	妻가 場에 가서 대추 2升을 950환에 팔고 돌아옴.
	10월 28일	妻가 發安場에 가서 대추 1斗 3升을 7,800환에 팔고 돌아옴.
	11월 15일	쌀 값이 1斗에 950환, 1가마에 10,000환까지 하락하여 한탄스러움.
1960	1월 6일	妻가 場에 가서 찹쌀 1斗를 1,200환에 팔고 일용품을 사서 돌아옴.
	1월 14일	白米 1가마 값 9,700환, 1斗 값 970환, 白米 1가마 1斗 값 1,600환을 받았음.
	1월 16일	妻가 찹쌀 1斗를 1,200환에 팔고 옴.
	3월 10일	白米 3斗를 345환에 판매함.
	5월 16일	妻가 배급 보리 2말을 1,500환에 판매함.
	9월 6일	安仲場에서 거래되는 고추 값이 폭등세임. 마른 고추 1斤에 600환이고, 생고추는 1말에 1,000환임.
	9월 8일	친지에게 보리쌀 1斗를 900환에 판매함.
	9월 15일	공산품에 비하여 농산품이 폭락함. 1斤에 700환에서 650환으로 하락함.
	11월 10일	發安場에 대추 1斗 가지고 가서 여러 가게를 들러보다가 4,000환에 팔고 돌아옴.
	11월 11일	고추 20斤을 가지고 장에 갔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18斤 14兩이어서 17,800환에 판매함.

주민들은 소를 키우지 않는 농민의 볏짚과 겨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축매매는 우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식용으로 쓸 축산물은 주로 마을 내에서 거래되었다. 주로 질병 등의 이유로 급사(急死)한 가축을 도축하여 원하는 이웃에게 분육(分肉)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돼지나 개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도살하여 함께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도리기'라 표현하고 있다. 계란은 장날 일용품을 구입하러 갈 때 흔히 들고 가는 품목이었다.

1959~1960년 볏짚 및 쌀겨 매매현황

일 시		내 역
연 도	월 일	
1959	1월 1일	(尹)炯賢 家에서 쌀겨 1가마니를 1,500환에 매입함.
	3월 12일	겨 2가마니를 4,000환에 판매함.
	5월 14일	興植氏에게 穀草 100묶음[束]에 10여 묶음을 덤으로 얹어서 3,500환에 판매함. (2,500환은 받고 나머지 1,000환은 외상)
	7월 1일	고구마순 약 500本을 600환에 판매함.
1960	1월 30일	興植氏에게 穀草 400束에 약 90束을 얹어서 束당 30환에 판매함.

1959~1960년 축산물 매매현황

일 시		내 역
연 도	월 일	
1959	1월 1일	安仲場에서 계란 3줄 8個을 1,050환에 팔고 일용품을 구입함.
	1월 12일	닭을 900원에 판매함.
	2월 18 · 19일	新浦 나가는 길에 계란 두 줄을 가지고 가서 540원을 받음.
	3월 1일	돼지가 다리를 못 써서 도살함. 고기 총 68斤 12兩을 1근에 230환의 가격으로 이웃들에게 分肉함.
	4월 21일	妻가 場에 솜을 틀러 가는 길에 계란 1줄을 260환에 팔고 돌아옴.
	5월 13일	군대에 가는 澈雨에게 위문금 200환과 계란 8개(230환)를 건넴.
	7월 26일	妻가 場에 가서 계란 1줄을 280환에 팔고 돌아옴.
	8월 21일	妻가 병아리 3마리를 가지고 場에 가서 1,400환에 팔고 돌아옴.
	9월 6일	妻가 場에 가서 계란 1줄을 420환에 팔고 돌아옴.
	11월 1일	敎雨氏 돼지 1마리를 도살해서 57斤의 고기를 얻었는데, 460환에 돈육 3斤을 구입함.
	11월 26일	妻와 함께 安仲場에 가서 돼지 새끼 1마리를 4,200환에 사고 돌아옴.
	12월 10·11일	큰집에서 소 1마리를 116,500환에 판매함.
1960	4월 8일	작은집 소가 죽어서 1斤에 450환의 가격으로 分肉하여 나눔. 時價는 20만환인데, 고기 값은 8만환임.
	5월 10일	계란 1줄을 230환에 판매함.
	5월 16일	妻가 기름을 짜기 위하여 장에 가는 길에 鷄卵 1줄에 250환씩 15줄을 팔고 돌아옴.
	7월 16일	妻가 場에 가서 병아리 4마리를 1,950환에 팔고 돌아옴.
	8월 6일	계란 9줄을 팔아서 받은 2,500환을 가지고 妻가 장에 가서 밀가루 1포를 2,450환에 사고 돌아옴.
	8월 9일	돼지 장사가 왔는데, 前에 1근에 160환으로 흥정한 돼지를 155환으로 깎는다고 하여 계약금 3,000환 중 2,000환은 反換하고 나머지 1,000환은 나중에 주기로 함.
	8월 12일	8월 9일에 왔던 돼지 장사가 다시 와서 1근에 160환의 가격으로 팔기로 하였는데, 총 무게 72근에 못 미쳐서 11,500환에 판매함.
	8월 27일	食前에 계란 2줄 2개를 770환에 판매함.
	9월 18일	집에서 키우는 개를 여러 사람이 6,800환에 공동으로 사서 먹겠다고 함.
	10월 26일	妻가 場에 가서 닭 3마리를 2,700환에 팔고 돌아옴.
	11월 1일	妻가 場에 가서 닭 2마리를 2,100환에 팔고 돌아옴.
	12월 6일	아버지가 157,000환에 소 1마리를 구입함.

1959년부터 1973년 사이 신권식씨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 대부분을 정기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신발이나 일기책과 같이 사소한 품목에 이르기까지 구입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서 물가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959년과 1960년의 신권식씨가 구입한 일상용품의 구입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1959~1960년 일상용품 구입내역

일 시		내 역
연 도	월 일	
1959	1월 1일	安仲場에서 반장화(850환)와 일기책(600환)을 구입함.
	3월 5일	비누 1장을 100환에 구입함.
	3월 9일	新浦에서 藥을 구입하고 650환은 외상으로 남김.
	3월 31일	재봉틀 상인 와서 4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500환을 지불함.
	5월 21일	妻가 場에 가서 이발비 1,000환을 주고, 낫(200환)과 광목(300환) 등을 구입하여 돌아옴.
	6월 1일	妻가 白米 1斗를 가지고 장에 가서 1,300환에 팔고, 대접 1죽(800환), 재봉틀 기름(100환), 재봉틀 바늘 2개(80환), 꽁치(100환), 미역(150환) 등을 구입하여 돌아옴.
	6월 16일	(尹)炳賢에게서 외상으로 낫을 300환에 구입하고 炳均이 場에 가는 길에 호미를 부탁하여 200환에 구입함.
	7월 1일	동생 필식의 생일을 맞이하여 옷 1벌을 100圜에 구입함.
	7월 26일	신발(350환)과 마늘(350환)을 구입함.
	8월 4일	妻가 외상으로 2,000환의 洋傘을 구입하였다고 나무람.
	8월 21일	妻가 장에 가서 옥양목 6마(1,450환)과 도배지(800환)을 구입함.
	9월 6일	妻가 場에 가서 포마드 1병(350환)과 분 1갑(300환)을 구입함.
	9월 9일	美容師가 洞里에 와서 妻가 외상으로 머리를 손질했음(800환)
	10월 11일	妻가 場에 가서 솜을 틀고(400환), 나와 내 동생 春子의 신발(750환)과 아들 英浩의 內衣(550환)를 구입함.
	10월 25일	新浦에서 아들 英浩의 신발(200환)을 구입함.
	11월 11일	밥상(2,500환), 담배(200환), 오줌 항아리(1,800환), 삽(900환), 톱(600환), 못(100환), 채칼 · 생강 · 재봉틀 기름 등(300환), 담배(200환) 포함 총 6,400환 구입함.
	11월 16일	眼鏡店에서 眼鏡(1,300환) 구입함.
	11월 26일	妻와 함께 安仲場에 가서 妻의 바지저고리 옷감(3,000환), 솜(350환), 아들 영호의 의복(2,200환), 비누(100환), 색실(100환), 책(600환, 民事訴訟法槪論) 등 10,550환 어치를 구입함.
1960	1월 6일	妻가 3,500환을 가지고 場에 가서 외상값 1000환을 갚고 바지, 저고리와 일기책(800환), 양말(800환), 쇠꼴(800환)을 구입함.
	5월 1일	場에 가서 바지(1,000환)을 구입함.
	9월 15일	廣木 1동 가격이 7,000환에서 8,700환으로 폭등함.
	9월 21일	妻가 場에 가서 장판지(1,200환), 아들 英浩의 의복(1,200환), 낫(300환), 其他(600환) 등 · 총 2,900환 어치를 구입함.
	11월 10일	發安場에 갔다가 오는 길에 라디오 상회에서 라디오를 27,000환에 구입함 (모자라는 돈 5,000환은 前坪의 여자 行商에게 빌림)
	11월 27일	致雨가 새 라디오(신품)을 25,000환에 구입함.

Ⅷ. 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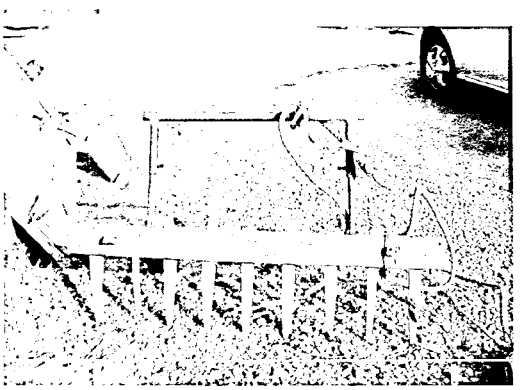
신권식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키웠으며, 현금의 융통을 위한 돼지, 닭 등을 키웠다. 이밖에도 집에서 키웠던 동물로 개가 있다. 이 장에서는 신권식씨가 키웠던 소, 돼지, 닭, 개 등의 가축을 키우는 용도와 사육방법, 매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1. 소

소는 주로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즉 경작에 이용하며, 곡식을 방앗간으로 옮기고 다시 가져올 때, 비료를 받아올 때와 같이 물품을 운반할 때 이용하였다. 소를 직접 키우기 이전에는 대체로 동리에서 사육하는 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소를 빌려 오는 곳은 주로 아버지 집, 둘째조부 집, 넷째조부 집, 다섯째조부 집 등이다. 소를 빌려서 쓴 후에는 백미로 삯을 지불하기도 하고 일로 갚기도 한다.

일소를 부리는 일은 '신일'이라고 한다. 신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일꾼은 보통 일반 품값의 두 배를 받았다. 신권식씨도 처음에는 일소를 부리는 데 서툴러서 이웃에 사는 부친이 쟁기질이나 써레질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권식씨는 자신이 처음 신일을 하였을 때를 기록하고 있으며(1959년 5월 3일), 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1959년 6월 11일)

사진 24. 신권식씨 댁 창고에 보관된 써레



신권식씨는 1963년 8월에 처음 소를 장만하여 키우게 되었다. 당시 송아지의 가격은 9,100원이었다. 이때 구입한 소는 송아지였기 때문에 일소로 부릴 수 없었다. 이 소는 1964년 9월에 16,000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 1967년 3월에는 20,000원에 '어수래기' 소를 장만하였다. 어수래기란 어느 정도 자란 소를 지칭하는 말로, 코뚜레를 채우고 나서 2년이 지난 후 앞니가 빠진 소를 가리킨다. 송아지가 어수래기로 성장하면 일을 가르쳐서 부리기 시작한다. 1967년에 장만한 어수래기는 그 이듬해 1월에 9,000원을 보태어서 '개우(改牛)'를 하였다. 개우란 말 그대로 소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개우를 할 때는 상대 소와 자신의 소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살이 쪘는지, 털에 윤기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소로 바꾸었다. 개우를 하는 상대는 소상인이었다. 그러나 소를 부려보지 않고 개우를 하기 때문에 바꾼 소가 일을 잘하는지, 새끼를 잘 낳는지 등은 소상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신권식씨도 처음 개우한 소가 힘을 잘 쓰지 못해서(1968년 3월 12일, 14일) 이해 9월에 다시 6천원을 보태서 또 개우를 하였다. 소를 사고 팔 때는 안중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소의 가격이 올랐거나, 가격에 맞는 소가 없을 때는 발안장까지 가기도 하였다.

소가 암청(암내)이 나면 수소를 키우는 집에 끌고 가서 교접을 시켰다. 대곡 일대에는 농꼴과 원목에 수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다. 교접을 시킨 후 사례비는 어떻게 지불하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기에 나와 있지 않다.

소의 먹이는 쇠풀과 쇠죽이다. 쇠죽은 봄과 가

을 사이에는 주 1~2회 쑤지만 겨울에는 매일 쒔다. 쟁기질과 같이 힘든 일을 할 때는 소에게 콩을 먹이기도 한다.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수의사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 의논 결과에 따라서 소를 처리하였다. 죽은 소는 보통 동네에서 분육을 하여 팔고, 수의사에게 일부를 수고비조로 지불하였다. 이때 소의 가격은 대체로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돼지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보통 암퇘지이다. 1967년 11월 27일 일기에서 "妻가 수컷 돼지 새끼를 사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사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암컷 새끼 돼지를 구입해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 다시 파는 것을 알 수 있다.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돼지를 팔아서 생긴 목돈으로는 소를 장만하기도 한다.(1963년 8월 2일) 새끼 돼지는 닭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팔기도 한다.

돼지는 우리에서 키운다. 일기에는 '오양'(외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죽은 밤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밥 주는 통을 만들고 흙벽돌로 벽을 쌓아 우리를 만들었다. 보름에 한번 정도 돼지우리를 청소하는데, 우리에서 나온 오물은 마늘밭이나 고추밭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1963년 5월 24일~6월 29일까지의 일기에 "새끼돼지가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뜯어 먹어 큰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돼지를 외양간에서 키우더라도 큰 돼지는 밖으로 못 나가게 막혀있지만 새끼돼지는 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돼지가 암청이 나면 소와 마찬가지로 수돼지가 있는 집에 가서 수정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는 일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돼지 새끼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난 것은 '문열이'(무녀리: 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라 해서 판매할 때 보통 다른 새끼돼지보다 가격을 덜 받았다.(1963년 6월 11일)

돼지의 매매는 주로 안중장에서 행해졌다. 돼지는 농사일이 가장 바쁜 때를 제외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거래되었다. 돼지 장수가 마을에 들어오면 돼지를 팔기도 하였다.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죽는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거나 하면 시세가격의 반도 받지 못하였다. 죽은 돼지의 처리는 신포 육고간이나, 홍원리 염전에서 하였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게 되면 고기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었고, 그곳에서 돼지 순댓국을 끓여서 동네사람들이 같이 먹기도 하였다.

1959년~1960년 안중장의 돼지고기 값은 1근에 160~250원이었으나, 1962년 2월에 안중장의 돼지 값이 폭등한 이래 돼지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1968년 8월 26일에는 돼지 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가격이 잠시 하락하다가 다시금 오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술한 대로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시장에서 사오는 가격보다 절반정도의 가격에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네에서 돼지 새끼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되어 종종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3. 닭

집에 현금이 떨어졌을 때나 처갓집에 갈 때, 급전이 필요할 때 안중장에 가서 가장 손쉽게 팔 수 있는 것이 닭이나 병아리, 계란 등이었다. 닭은 급전을 필요로 할 때 팔기도 하지만, 생일 때

나 명절과 같이 육류가 필요할 경우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이 비싸면 이를 대신해 닭을 잡아 의례를 위한 육류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동리 사람들끼리 하는 놀이의 하나인 '뺑'을 할 때도 종종 내기음식으로서 닭이 등장하며 손님을 치르거나 동네 청년회에서 망년회 등을 할 때에도 닭을 잡아 술안주로 쓰기도 한다. 생닭을 직접 잡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개가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물어 죽였거나, 족제비가 물어 죽였을 때 등 죽은 닭의 처리로서 그것을 직접 요리해서 먹기도 한다.

거래는 거의 안중장에서 이루어졌다. 1961년 1월 21일에는 닭 4마리를 팔고 받은 돈 3,800원으로 기름을 짜는데 150원, 갈퀴 250원, 크림 250원, 성냥 및 기타 200원 등을 지불하였다. 같은 해 2월 11일에는 닭 1마리 900원, 보리쌀 3되 360원, 계란 7개 260원을 받아서 돼지고기 1근 400원, 어린애 샤스 300원, 기타 50원을 산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닭은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가장 손쉽게 팔수 있는 가축으로 보인다. 한편 안중장에서 계란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닭에게 품게 하여 병아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닭 가격은 전체 기록에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으며, 안중장의 시세는 병아리 한 마리가 약 466원(1959년 11월 26일) 정도 하고, 닭의 경우에는 900원(1960년 10월 26일) 정도였으며, 1961년 2월 11일에도 닭 한 마리의 가격은 900원 정도였다. 계란은 개당 37.2원(1961년 6월 11일)정도 한다. 이후 기록에는 닭, 계란 등의 가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전 시세와의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4. 개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는 일기에서도 가정의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소, 돼지,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육고기로 섭취하기 위한 유용한 가축이었다. 개고기는 장에서 식육용 고기를 사 먹거나 살아있는 개를 사서 직접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키우던 개가 집에 놓은 쥐약을 먹고 죽은 것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는 개를 한 곳에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로 키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개는 안중장에서 들어 온 개상인에게 팔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닭처럼 손쉽게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주로 식육용으로서 몸이 허하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할 때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개고기 섭취는 1년 중 7월 중순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복날, 특히 중복의 보양음식으로 개를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린 강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서로 다투어 좋은 강아지를 가지려고 하다가 마음에 차지 않는 강아지를 얻은 사람은 한 마디하며 가져가기 때문에 "강아지 인심 쓰고 마음을 상하는 때"도 있었다.

개의 매매는 전술한 대로 주로 안중장의 개 상인이 왔을 때 팔거나, 개가 쥐약을 먹는 등 사고로 죽었을 때 개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가져다 먹으라고 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처리하게 된다.

1960년 7월 31일에는 미리 약속한 개(6,000원)가 와서 자신은 그중 1/8을 구입하였다. 크기가 매우 크다는 말로 보아 당시 상치정도 되는 개의 값이 약 6,000원 정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개를 판 것이 2차례 더 있었으며, 1961년 1월 21일에는 쥐약을 먹고 죽은 개를 농꼴 사람에게 2,000원 받고 팔았으나,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었다.

일기 : 경제생활

Ⅰ. 평택 지역사와 고잔리 고령 신씨

1959년

◎ 3월 6일 (음 1월 27일) 금요일 雨 驚蟄

… 밤새도록 비가 주룩주룩 나리였다. 새벽에도 끄치질 않고 종일토록 제철 장마비와 같이 종일 밤에도 나리였다. 비가 피료[필요]없을 뿐더러 보리 흉년들까바 걱정들을 한다. 朝飯을 마치고 앞 논뚜랑에 가니 물이 질질 넘을 뿐 논뚜랑이 자빠질 정도라 …

◎ 3월 25일 (음 2월 17일) 수요일 晴雲

… 해를 보내고 집에 늦게 와서 혹 비가 올듯하여 앞 말 가웃지기(下) 논뚝을 돌보고 얏튼 데는 흘[흙]을 언고 드러와 夕飯 食事를 하였다. …

◎ 3월 29일 (음 2월 21일) 일요일 雨

밤 12時 頃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얼마가 나리였는지 食前에 자고 일어나 나가니 비는 繼續 나리는데 동육꿀틀 논이 벌창을 했다. 비가 촉촉하게 나리였으며 보리에 적합하거늘 오늘 종일토록 나리는 비는 끝일 줄을 모르고 나리니 보리에 지장 많은 뿐더러 아무 必要없는 객수이다. (…) 비가 자주 와야 豊年이 드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적기에 안 나리여 사람의 간장을 태우지나 안을까. 약 한 달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나리며는 모심기에 적당할 것 같다. …

◎ 3월 30일 (음 2월 22일) 월요일 晴

食前에 일어나 나가니 구름은 如前히 캄캄히 끼고 앞논뚜랑에선 물 흐르는 소리가 제법 요란하여 삽을 들고 논뚜랑을 一週하고 朝飯 食事를 하고 나니 구름이 벗서지기 始作하더니 午後에는 싹 벗서젓다. …

◎ 4월 9일 (음 3월 2일) 목요일 雲雨

… 前夜에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오늘도 종일토록 오라까락 했다. 朝飯을 마치고 있으니 큰아번님이 오시여 모자리 가래질을 해 달라해서 가서 해 드리고 농꼴 논도 해드리였다. 하고 나서 우리 모자리 갈개를 미고 나니 비가 많이 나리여 그냥 드러왔다. …

◎ 4월 13일 (음 3월 6일) 월요일 晴

오늘 모자리를 할랴고 한 날인데 자고 일어나니 날씨가 멍하고 바람이 불어 논에 드러가 일하기 몹시 추울 것 같다. 아버지도 오늘 할 수 없어 오즘을 준다고 한다. 바람이 불고 날씨도 추워 午前中 집에서 그럭저럭하다가 午後에는 아버지 家高棧 前 모자리와 앞 닷 데지기 모자리를 했다. 午後에 날이 좀 풀리여서도 논에 드러가니 춥다.

◎ 4월 14일 (음 3월 7일) 화요일 晴

자고 일어나니 前日 바람이 사납더니 오늘 날은 맑게 개인 날이 불근 해발이 동역에 소사 오른다. 前日 바람으로 因해 저내던 모자리 재 저내던 것을 저내고 朝飯 食事를 했다. 웬일인지 今年에는 재 모자리가 流行이다. …

◎ 4월 16일 (음 3월 9일) 목요일 雲風

곳 쏘나기라도 쏘닥질 날씨가 온 天地를 휘덥고 있어 논을 一週한 나는 곳 朝飯食事를 하고 (…) 비바울이 후둑뚝 그리여 아버지 보고 씨나락을 처달라해서 아버지 네려와 씨나락을 치는데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우이[雨衣]를 들싸고 첬다. (…) 비가 개이더니 바람이 일기 始作하더니 바람은 일대 소동을 일으키였다. 태풍이다. 우탕탕그리고 집이 들먹그리고 하며 지붕을 보니 들먹그리며 뛰여 올라가 붓잡아 매여 응급조치를 하였다. 洞里 사람이 모두 이리저리 뛰여다닌다. 담이 쓰러젓느니(明雨 家) 지붕이 홀닥 벽겨젓느니 야단법석이다. 모자리 씨나락이 걱정이 되어 가보니 흙탕물에 볼 수가 없다. (…) 몇 번 내려 같으나 볼 수 없다. 큰 걱정이다. 야단이다. 炳哲 家 모자리를 가보니 많이 몰리였다. 싹이 많이 난 우리 씨나락은 더할 것이라 生覺하니 모자리만 가본다. 그러나 별 수 없어 그냥 누어 한심[한숨]을 자고 나니 저녁 대가 되는데 바람은 들 분다. …

◎ 4월 20일 (음 3월 13일) 월요일 晴

… 불과 비 나린지 10日이 못 되것만 논물이 줄기 始作한다. (…) 五日에 한 번씩 비가 나리여야 農作物에는 적합하다. 동욕꼴 논도 물이 제법 네려가더니 오늘 가보니 물이 많이 줄었다. …

◎ 4월 22일 (음 3월 15일) 수요일 雲

바람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니 날씨 험악하고 비발이 날린다. 바끄로 나가 모자리에 가니 비가 더 심하여 그냥 도라왔다. 바람은 더 심히 불어온다. (…) 염전 일이란 별로 심들진 아느나 날씨가 냉하여 좋지 않다. …

◎ 4월 23일 (음 3월 16일) 목요일 晴風

… 밤새것 바람으로 소란을 이루고 모자리 걱정을 했다. (…) 봄은 깊어가고 일철은 나스것만 (…) 나는 반대로 험한 바람 소리에 잠을 못 들고 걱정을 했다. …

◎ 4월 24일 (음 3월 17일) 금요일 雲風

바람은 如前히 繼續되고 소란을 이룬다. 바람 소리에 늣게 잠든 나는 또 바람 소리에 일어나 들로 같다. 모자리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은 몰린 것이다. 농꼴서 희각 소리가 나고 사람이 웅성이는 소리가 나서 맛바람에 물이 海溢해서 모이는 것이 틀림없어 산마루로 가보니 원뚝으로 모이며 야단덜이다. 바같원뚝을 안 마것으면 안원뚝 때문에 우리도 야단을 할 것이지만 안심하고들 있다. 좀 잇으니 뒤깨로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가보니 네재祖父 家 원뚝 다섯재祖父 家 원뚝 等이 터젓다. 다섯재祖父 家에서 도랑원물 대느라고 잘르고 마근 것이 잘못데여 터젓다는 것. (…) 나는 원뚝 막는데 갈까했는데 사람이 안들 가는 것 같아 그냥 와서 앞 왜뚝을 첫더니, 거이 다 가서 원뚝을 막아주어 나는 제진 놈 같고 양심이 걸리여 못 견딜 지경이고 사람 볼 면목이 없다.

◎ 4월 25일 (음 3월 18일) 토요일 晴

바람이 언제 잤는지 자고 일어나니 바람소리가 들리지 안는다. 옷을 주서 입고 밖에 나가니 말근 하눌 아래 동이 트는 바 동역이 불그레하다. 나는 삽을 들고 들로 나갈다가 농꼴 꼬추밭을 글거주었다. (…) 비가 약간 왔으면 좋으련만 몇칠 바람에 물이 많이 마르고 보리도 비가 좀 오기를 기다린다.

◎ 4월 26일 (음 3월 19일) 일요일 雨

후툭툭 그리는 비방울 소리에 잠을 깬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같다. 食前 비가 조곰 오다 말줄 알앗더니 종일토록 비가 많이 나리였다. 논뚜랑 물이 질질 넘을 정도로 많이 왔다. 아직까지 雨順風調다. 바람이 좀 심한 것 같으나 봄바람 안 부는 해가 별로 없는 것이다. …

◎ 4월 27일 (음 3월 20일) 월요일 晴

… 늣게 일어난 나는 모자리에 가보았다. 물이 많아 잘 보이질 않아 그냥 와서 朝飯食事를 마친 나는 春子와 모자리 물을 퍼 그느럿다. 씨나락 친 뒤 바로 바람이 심하여 씨나락이 많이 몰리여 午後 2時 頃까지 고루 느러놓고 늣게 點心을 하고 앞 논뚜랑 손질을 했다. …

◎ 5월 1일 (음 3월 24일) 금요일 晴

… 고구마 溫床한지 얼마 안 되것만 속에서 순이 나오다가 고무 보재기로 덮허 놓았더니 넘어 더워 순이 녹아서 고무 보재기를 것어치웠다. …

◎ 5월 4일 (음 3월 27일) 월요일 雨

어제 午後 6時 頃부터 始作한 비는 밤새도록 오늘 낮 종일 나린 비는 約 두 보지락 정도가 넘을 것 같다. 왜물이 제법 많이 나리고 논뚜랑이 질질 넘어간다. 비가 오면 논뚜랑이 넘으니 가물 때 나누어왔으면 (…) 들로 가 모자리 물을 빼고 그럭저럭 하루 해를 보냈다.

◎ 5월 5일 (음 3월 28일) 화요일 雲

비 개인 食前. 웅성그리는 사람이 들로 왔다 같다 한다. 비 개인 食前은 清明하다고만 오늘은 흐린 날씨로 후덥지근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로 가니 물은 벌창[물이 넘쳐 흐름]을 하고 모자리는 모가 쓰러저 느러지고 드문드문 씨가 서서 모자랄까 걱정이 많은데 雪上加霜으로 또 모가 느러젓으니 속이 상해 못 견디겠다. …

◎ 5월 6일 (음 3월 29일) 수요일 晴

… 淸明한 날씨가 바람 한 점 없다. 곳 들로 가서 논뚜랑을 보고 모자리에 가니 속이 상해 못 보겠다. 느러진 모는 如前하다. 朝飯을 마치고 모자리 물을 빼였다. 이끼가 덥허 눌러 이러날 것 같지 않고 볍씨가 겉으로 나온다. (…) 2日 前 비가 나리여 참깨가 덕끌까[덮을까] 해서 소시랑[쇠스랑]으로 글거주었다. …

◎ 5월 8일 (음 4월 1일) 금요일 雲

자고 일어나니 흐린 날씨가 비방울이라도 할 것 같아 논을 一週하고 와 朝飯을 마치고 큰집이 가서 오즘 통을 얻어다 농꼴 옆밭 감자에 오즘을 주었다. 妻와 春子는 맸다. 곳 비가 올 것 같은 비는 어디로 같는지 午後에는 맑은 날씨가 繼續되였다. …

◎ 5월 14일 (음 4월 7일) 목요일 晴

食前에 논에 가니 몇일 날이 좋터디 물이 많이 마렀다[말랐다]. 앞 닷 데지기도 二三日前에도 물이 네려가더니 쟁기 밥이 나오기 始作한다. …

◎ 5월 15일 (음 4월 8일) 금요일 晴雲

날 日氣가 좋고 바람이 좀 불는[부는] 날씨가 8·9日 繼續되니 논물이 벗석[바싹] 줄기 始作한다. 이대로 모심기가 닥가오면 야단이다. 보리에는 갠찬치만[괜찮지만] 꼬추 참깨 모종새 等에는 좀 기다린다. 朝飯을 마친 나는 모자리에 가서 가름을 따다. …

◎ 5월 21일 (음 4월 14일) 목요일 雨

食前부터 흐린 날씨가 東南風이 솔솔 불러 비가 나릴 것 같다. 논에는 아직 그리 바뿌진 안치만 밭에는 비가 와야 될 정도다. 朝飯을 마치기 前 아버지 家에서 아버지 注射를 놓와 달라 해서 올라가니 前日 물을 푸니 다리에 심을 주어 선지 火傷이 부엇다. (…) 집에 도라와 朝飯을 마치고 아논 복새를 파내려가고 妻는 場에 白米 一斗와 金 千百圓을 같고 같다. 복새를 파내고 나니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종일토록(10時 頃) 나린 비는 얼추 한 보지락[비가 온 양을 나타내는 단위. 보습이 들어갈 만큼 빗물이 땅에 스며든 정도를 이른다.]은 나릴 것 같다. 나는 농꼴 가서 理髮을 하고 와 낮잠을 잣다. …

◎ 5월 22일 (음 4월 15일) 금요일 晴

… 날이 반작 든 食前 높디리 논이 물이 잔득 실리여 대견하다. 今般 온 비에 보리에나 좀 나쁠까 모종새 참개 꼬추 감자 等 밭농사 等에 좋다. 우리 사랑모퉁이 보리가 좀 쓰러젓다. …

◎ 6월 5일 (음 4월 29일) 금요일 雨

적우 降. (…) 朝飯을 마치고 나서부터 비가 부술부술 나리기 始作해서 밤까지 나린 비는 7mm 程度는 나린 것 같다. (…) 못처럼 비가 나리니 모종하느라고 야단덜이다.

◎ 6월 15일 (음 5월 10일) 월요일 晴

… 날씨 가무러 그루 간 것이 잘 날넌지 의문이며 논곡도 몇칠 동안 부는 바람과 심한 태양으로 무[물]를 조리고 감자 꼬추 참깨 원두 等 田穀도 말이 아니다. …

◎ 6월 16일 (음 5월 11일) 화요일 晴

그루갈기도 끝나니 食前에도 한가하여 서서히 들을 一週하니 마르기 始作하는 논이 제법 있다. 앞 닷 데지기도 사흘을 못 참겠고 3·4日 前에도 제법 물이 네려가든 앞 말 가웃지기도 물이 뚝 떠러젓다. 몇일 부는 모진 바람이 물을 벗석 따기같다.

◎ 6월 17일 (음 5월 12일) 수요일 晴

… 자고 이러나면 벌써 하늘을 처다본다. 농작물은 하루 속히 물을 기다린다. 특히 田곡이 더 바뿌것만 午前 中 東風에 午後에 西風에 가물것이나 아닌가 걱정이다. 食前에 논을 돌고 朝飯을 마치니 날씨 흐리여 비가 올 것인가 하고 동욕꿀논 물을 풀랴다 그만 두고 잇다가 그냥 매고 논굿텡일 파니 제법 물이 나온다. 아직 건수는 많이 흐른다. 午後에는 그냥 잇다가 앞 下 말 가웃지기 물을 한 마지기로 퍼 올리였다. …

◎ 6월 18일 (음 5월 13일) 목요일 晴

… 비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고 누구나 하늘을 처다보며 바람을 계량[計量]하며 바라것만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부니 걱정이다. 우리도 앞 닷

데지기가 물이 없고 아논이 적다. 동욕꿀 아래 배미는 말라부텄다. 몇일 더 있어도 안 오면 소동이 날 것이다.

◎ 6월 23일 (음 5월 18일) 화요일 晴

… 비가 올 듯 올 듯 하다가 안 오고 저녁 때는 西風으로 벗서저 버린다. 年事가 엊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별로 비를 기다리였는데 앞으로 만 잘 되면 좋으련만.

◎ 6월 25일 (음 5월 20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水村아저씨 푸마시 네재祖父家 일을 같다. 오늘도 東南風 비는 올 듯 하지 안다.

◎ 6월 26일 (음 5월 21일) 금요일 晴

… 날이 무덥고 太陽熱이 强하여 비가 오지나 안을까 했더니 또 저녁 西風이 몰려 비는 나릴 것 같지 않다. …

◎ 6월 27일 (음 5월 22일) 토요일 晴

… 午前에는 東風이 불고 저녁녘에 西風이 부러 질색인데 오늘은 雨氣가 약간 있었으나 西風은 망창가지다. 밭고랑 논고랑이 목이 말라가고 온같 草木이 다 목이 마르고 사람도 가무름이 네려 조름이 네리고 있다.

◎ 6월 28일 (음 5월 23일) 일요일 雲

… 午前은 흐리고 午後는 西風으로 벗서지들 날씨가 繼續되더니 오늘은 종일토록 흐린 날씨와 간혹 비방우리 나리고 후덥지근한 날씨는 금방이라도 쏘다질 것 같아도 안 오고야 말아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말았다. …

◎ 7월 1일 (음 5월 26일) 수요일 雨

어느 때나 되었는지 비오는 소리가 주룩주룩하여 깨였다. 온 天下萬象이 다 즐기고 바라고 기다리든 비 곡식이 쏘다진 것이다. 적우였다. 비는 제법 나리였다. 朝飯 前에 妻와 나는 농꼴 가 비를 마즈며 꼬추밭에 肥料를 주다 모자랐다.(3斤 반) 종일토록 오락까락 한 비는 약 한 보지락은 나리여 아주 고맙게 나리 비는 약비다. …

◎ 7월 2일 (음 5월 27일) 목요일 雲 細雨

오늘도 가랑비 부슬부슬 나리다 말다 했다. (…) 비 오는 순간에 도랭이를 역었다. 밧삭 마른 건가리 배미 심끼는 아직 부족한 비나 今年에 전부 早秧을 한 고로 논에 물이 고이였다. 아직까지는 年事가 좋다.

◎ 7월 5일 (음 5월 30일) 일요일 雲雨

… 종일토록 오락까락 하는 비는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준다. 4,5日前까지도 타드러가는 모끝이 농꿀이 훌훌 벗어 3,4日 사이에 땅이 안 보이게 변하였다. 기적이다. 이렇게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비가 나린 것이 아니라 肥料가 나린 것이다. …

◎ 7월 6일 (음 6월 1일) 월요일 暴雨

폭우. 물소동. 어느 때나 되였는지 비 오는 소리 요란하여 이러나니 비가 많이 나리여 왜뚝에 뛰어 가니, 물이 별로 네려가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와 누엇다가 늣잠이 들러 이러나 또 왜뚝에 가 보았다. 조곰 있더니 비가 쏘다지기 始作해서 집에 와 있으니 앞이 안 보이게 폭우가 나리여, 뛰여 가 왜뚝을 보니 질름질름 밭 논 산 할 것 없이 물벌창을 하여 天地을 개벽하는 것 같다. 아논 뚝 왜를 가니 왜뚝이 넘어 갈 수가 없어 갠신이 가보니 우리 내가 구멍이 저서 물리로 응급조치를 하고 아버지 家 내뚝을 막았다. 마을을 보니 현우씨 家 내가 탁 터저 물이 아논으로 벌창 약 40分 가량 쏘다지고 그치였다. 앞 말 가웃지기 논뚜랑이 자빠저 막고 왜뚝 손질을 하고 點心을 마치니 동리 사람이 현우씨 家 왜뚝을 막는데 협조하여 나도 가서 午後에 종일 막고 왔다.

◎ 7월 7일 (음 6월 2일) 화요일 雲雨

… 오늘 날이 좋으면 동리일꾼이 한데 다 모이여 16名이나 되니 논매는 것 같아 농악을 울리고 잘 놀 것인데 비가 방해했다. 비가 많이 와서 한참 동안 뛰염박질을 했다. 저녁에도 끄치지 않고 왔다.

◎ 7월 8일 (음 6월 3일) 수요일 雲

… 東雨 家 일날인데 前夜 비가 많이 나린 관계로 물이 껴서 못한다고 하여 日雨氏 가 해 달라 해서 작근 두레와 합두레를 해서 日雨씨 柱雨

氏 等의 일을 했다. 술이 취하니 논 가운데서 춤을 추고 북 장고 괭가리 等을 치며 논을 맸다. 사람이 많을 뿐더러 농악을 치니 더 일을 한다. …

◎ 7월 10일 (음 6월 5일) 금요일 雨雲

… 밤새도록 바람이 심히 불더니 朝飯 前에 폭우가 나리여 물소동이 나고야 마랐다. 약 30分 가량 나리더니 부술부술 午前 中 나리더니 午後에는 개이였다. 오늘 일도 품 미고 마랐다. 나는 낮잠을 잤다.

◎ 7월 19일 (음 6월 14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富平 아저씨 家 일을 같다. 伏이 지나니 날씨는 차차 무더웁고 일도 더욱 심이 든다. (…) 百日紅 피운지 百日만에 서리가 온다는데 과연 지금부터 백일이면 서리는 오고 말고.

◎ 7월 20일 (음 6월 15일) 월요일 晴

… 東南風이 심히 부러 畓作物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海溢한다고 야단이다. 유두 사리가 第一 조수의 차가 심한 것이다. …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 흐린 날씨에 東南風이 부러 畓作物이 좋지 않을 분더러 유두 사리에 물이 많이 미를까 원뚝 가진 사람의 마음을 조린다. 물은 많이 미렀으나 물 밀 頃에 바람이 자서 다행으로 원뚝들은 無事했다. …

◎ 7월 31일 (음 6월 26일) 금요일 晴

… 비 온지 여러 날이 되것만 비가 안 나리니 더운 날씨는 더 더웁고 해낮은 그늘에 앉아도 땀이 줄줄 흐른다. (…) 몇일만에 논에 가보니 우리 논은 아직 안 마러도[말라도] 다런 집 논은 마르는 논이 많다.

◎ 8월 4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 午後에 바수거리[발채] 감을 빌려 농꼴 가든次 논을 一週하니 논이 전부 마르기 始作한다. 비가 안 와 밭곡은 전부 타드러가고 논곡도 소출을 많이 감소했다고 누구나 걱정을 하고 三溪만 가도 물 푸느라고 야단이라고 한다. 너무 오래 가문다. 그전 닷새거리로 비가 와야 하거늘 한 달이 가까이 가무니 소동이 아니 날 수 있으랴. 어느 때는 너무 오고 요사인 너무 가물고 그리해도 우리 앞논 들은 마르진 않았으나 아논이 마르기 始作한다. …

◎ 8월 7일 (음 7월 4일) 금요일 晴

이래 東風이 터졌는지 4日재 東風이 심히 불더니 새암[샘]이 다 마라 붓는다. 前日까지도 물모금이나 있던 논도 오늘은 틈이 가고 前日가지도 네려가던 앞논 들도 윗 두 배미는 마랐다. 아논은 틈이 간다. 콩은 꽃이 다 떠러진다. 꼬추는 마른다. 天下萬物은 다 타고 사람까지 가므름이 네리였다. 잔디가 새발가케 타서 불이 붓는다. 큰 소동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몇일만 더 가면 지워논 벼농사도 못 먹을 것 같다. …

◎ 8월 8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 바람은 如前하고 비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서 말 가웃지기도 마러 붓텄다. 前日까지도 물이 많었겄만 하루 사이에 물 있던 논도 없고 콩은 잎사귀가 떨어지는 놈이 있다. …

◎ 8월 9일 (음 7월 6일) 일요일 雲雨

… 오늘은 날이 흐리고 南風이 솔솔 부러오더니 기다리고 바라던 비는 夕飯 後 늦게부터 부슬부슬 나리였다. 곡식을 퍼 부은 것이다. …

◎ 8월 10일 (음 7월 7일) 월요일 雲

… 前夜부터 나리던 비는 메마른 大地를 촉촉이 적시여 주었다. 물기 있던 논은 제법 물이 고이고 마른 논도 많은 도움을 주고 김장도 갈게 되였다. 곡식을 數萬石 주었다. …

◎ 8월 11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 비가 온 관계로 食前부터 김장 가느라고 야단들이다. 우리도 朝飯 食事 後에 소를 얻어다가 갈고. …

◎ 8월 15일 (음 7월 12일) 토요일 雲

… 食前부터 흐린 날씨가 繼續되더니 夕飯 後에 가랑비 약간 쏘다저 김장나기에 적당히 나리였다. …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食前부터 날씨 후덥지근하고 前日부터 雨氣가

있더니 12時 頃에 一大暴雨가 나리고야 마랐다. (…) 나는 앞 왜뚝에서 나무를 묶고 나니 쏘나귀가 나리여 왜뚝이 질름질름 했다. 약 30分程度 나리더니 끄치였다. (…) 밤이 되니 번개 하고 뇌성을 하더니 급기야 또 폭우가 始作되어 일대 물소동이 나리였다. 어디어디 할 것 없이 왜뚝은 전부 넘고야 말았다. 다행이 우리는 별로 해 본 것이 없고 벼가 좀 쓰리지다 말았다.

◎ 8월 25일 (음 7월 22일) 화요일 雲 폭우

폭우. 물소동. 후덥지근한 날씨 몇일 계속되더니 오늘은 맛파람[마파람]이 심이 불고 거문 구름이 왔다같다, 석반을 마치고 나니 번개 불이 번적번적 始作!.... 마실을 같다 와서 자리에 누어 잠이 드럿는데 뢰성 번개가 심히 하더니 급기야 폭우가 始作해서 왜뚝에 뛰어 같다왔다. 아마 밤중은 지난듯하다. 숙금하더니 똑 폭우가 계속 나리여 왜뚝에 뛰어 같더니 우리 왜뚝은 질름질름하고 東雨 家 왜뚝은 질질 넘어간다. 이거 큰 일이다. 날이 변해 개 발끼[밝기] 시작해서야 날이 개이는 것 같다.

◎ 8월 26일 (음 7월 23일) 수요일 폭우

… 비는 종일토록 폭우로 오락가락 하더니 저녁 때 또 뇌성 번개가 번적 우두뚝! 조바심이 되고 당체[당최] 송구스러워 못 배기겠다. 오늘 저녁에 잘 넹길것인지 비가 와도 자그맛치 왔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

◎ 8월 27일 (음 7월 24일) 목요일 雨

오늘도 종일토록 오락까락 비는 나리였다. 사람마다 만나면 "아이 참. 얼마나 올까여. 어제 저녁은 왜뚝에 뛰어 다니느라고 한심도 못 잤지. 올해는 왜 이리 객수[쓸데없이 내리는 비]가 많아." 等의 화제가 오고 간다. 그나마 늦게 부친 김장도 비에 마자 거이 다 없어젓다. …

◎ 8월 28일 (음 7월 25일) 금요일 晴

새벽녘에 천둥 번개가 심히 하더니 자고 이러나니 날이 벗어지기 始作해서 朝飯食事 後에는 말가케 벗어졌다. 과연 가을 하늘 天高馬肥다. 얼마나 좋으나. 가랑비로 솔솔 나리고 개고 했으면 농작물의 피해도 없이 잘 성장하것만 몽둥이 비가 와서 結實氣의 벼농도 벼농이려니와 김장은 거이 없어지다시피 되었다. 그남상[그나마] 도로 나문 배추에 북을 주었다.

◎ 8월 29일 (음 7월 26일) 토요일 晴

비오는 것이 큰 걱정이다. 바람만 잘못 부러도 神經을 쓰게 된다. 雨順風調 이것이다. 한나절이나 김장밭을 손질을 했다. 午後에는 고추 2斗가량 땄다. 今年에 꼬추 흉년인데다가 우리는 더 凶年을 當했다. 참깨도 말 아니고 꼬추도 말 아니다.

◎ 8월 30일 (음 7월 27일) 일요일 雲

2 · 3日 날이 좋은 것 같더니 오늘 종일 무더웁고 午後 4時 頃부터 흐려와 급기야 下午 5時 頃에 천둥 번개가 심하여와 한참 동안 퍼부었다. 좀 그친 듯하여 개에 가서 고랑을 처언꼬 와서 夕飯 食事를 하고 나니 우루뚝딱 번적 쨍 당체 송구스러워 못 배기것더니 밤에 비는 그다지 많이 나리지 않았다. 下午에 김장밭 거름을 주었다. …

◎ 8월 31일 (음 7월 28일) 월요일 雨

저녁에 千동하더니 食前부터 나리기 시작한 비는 午前 中 조금도 쉬지 않고 심히 나리여 왜뚝에 가서 살다싶히 했다. 午後에 좀 덜 나리는 듯했다. 앞 한 마지기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를 제위[제외]한 가까지 농사가 쓰레쓰레하고 바람만 불면 위험지경이다. 앞 한 마지기, 닷 데지기는 댓 뭇내기 쓰러젔다. 朝雨之短이라더니 요사히 오는 비는 말할 것도 없이 아무 때나 와도 폭우장마다. …

◎ 9월 1일 (음 7월 29일) 화요일 雨

오늘도 종일 비다. 비도 종일토록 많이 오니 조바심이 생기여 못 배기겠다. …

◎ 9월 2일 (음 7월 30일) 수요일 晴

날씨 어떤가? 하고 자고 일어나며 하늘부터 쳐다보니 날은 벗어젓다. (…) 바람이 불고 선들그리여야 할 터인데 날은 맑가도 바람 한 점 없고 또 비올까 걱정이다.

◎ 9월 3일 (음 8월 1일) 목요일 晴雲

자고 일어나면 날 日氣가 어떠한가? 하늘부터 쳐다본다. 거문 구름이 왔다 같다. 날은 청명한 날이다. (…) 몇일 장마로 김장은 빈 바닥이 되다 십히 했다. 그남상 배추는 없다. 오늘 날도 午後부터 구름이 모여 들더니 날이 후덥지근하고 사방이 꽉 들리여 모여든다. 큰일이다. 또 비가 나리면 큰 난리다. …

◎ 9월 7일 (음 8월 5일) 월요일 雲風雨

폭풍인지 食前부터 종일토록 비바람이 일어 농사 전폐하는 줄 알았다. (…)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던 비바람 속에 마음 조리며 자리에 드렀다.

◎ 9월 10일 (음 8월 8일) 목요일 雲

새벽녘에 천동번개 하더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한참 나리여 조바심이 生기여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 하다가 이러났다. (…) 벼는 더 많이 쓰러졌으나 더나 쓰러졌으면 오즉이나 좋을까? 종일토록 흐리고 맞바람이 불어 사람의 간장을 노긴다.

◎ 9월 12일 (음 8월 10일) 토요일 雲

날이 繼續해서 흐리고 비 오고 해서 벼가 많이 영그러 今 8월 15일에 新穀을 잡을 줄 알았더니 논에 가서 벼를 살펴보니 아직 못 비겄다. …

◎ 9월 15일 (음 8월 13일) 화요일 雨

밤중부터 비바람이 일어 논이 말이 안 되였는 줄 알았더니 生角보다는 덜 했으나 더 쓰러졌다. …

◎ 9월 17일 (음 8월 15일) 목요일 雨

밤중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조금도 쉬지 않고 한갈 한시로 나리였다. (…) 비는 종일 나리니, 조바심이 생길 것이다. 祖上任의 祭祀도 參배가 곤난할 지경이다. (…) 우리 농사는 얻이 가나 찾아 볼 수 있게 전부 쓰러졌다. 무엇보다도 논이 궁금해서 비를 맏고 논에를 같더니 많이 쓰러졌다. 속이 상해 종일 잠 타령.

◎ 10월 15일 (음 9월 14일) 목요일 晴

… 저드린 벼는 다 훌텄다. 바람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러모으고 일손을 뗐다. 今年 가을 날씨 좋아 벼 말리기에 아주 좋았다. 洞里 一대가 보리 갈기에 분주하고 도처에 보리갈이 적기 놓치지 않을려고 야단덜이다. …

◎ 10월 23일 (음 9월 22일) 금요일 雲晴

오늘 보리밭에 뒤염을 필까 하다가 바람이 잘 부러 게꼴 드리고 벼도 드리였다. 저녁 나절은 날이 흐리여 앞 닷 데지기 버 나문 것도 끄디리고 하였다.

◎ 10월 24일 (음 9월 23일) 토요일 雲

… 비가 좀 왔으면 하는데 너무 가무러 보리 김장에 지장이 있다. 날씨 흐리여 오늘이나 나릴까 했더니 그냥 드는 것 같다.

◎ 10월 26일 (음 9월 25일) 월요일 雲雨

… 저녁나절부터 날이 점점 더 흐리여 오더니 저녁 食事 後부터 부슬부슬 나리기 始作한다. 김장 보리에 아주 적우다. …

◎ 10월 27일 (음 9월 26일) 화요일 雲

화죽꼬 막았다. 밤새도록 비가 부슬부슬 나리였다. 적당히 잘 나리였다. 종일 그럭저럭 하고 아논뚝 물꼬를 동네 사람이 같이 가 막었다.

◎ 11월 15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雲

… 朝飯食事를 하고 오니 비가 나릴 것 같아 비설거지를 하고 마실 같다가 집에 와 도야지 오양깐을 다시 짓고 나니 해가 다 넘어 같다. …

◎ 11월 22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날이 갑자기 추워지기 始作해서 午後에는 아주 냉하여 오고가는 사람의 거름[걸음]이 재빠라진다. 來日이 小雪! 小雪 취[추위]를 단단히 할 모양이다. …

◎ 12월 23일 (음 11월 24일) 수요일 雲雪

일직 現場에 나같다. 15名이 나와 구루마 굴리다가 下午 3時 頃에 눈이 많이 나리여 그냥 드러왔다. …

◎ 12월 24일 (음 11월 25일) 목요일 晴

날씨는 추운 날씨다. 언제나 그리스마쓰에는 추웁다. 來日이 聖탄이다.

◎ 12월 26일 (음 11월 27일) 토요일 晴雲

… 朝飯食事는 큰집에서 해서 큰집에서 하고

現場에서 드러오니 水原 작은叔도 오시여 尹記士와 잘 알아 같치 高棧 넘어 같다. 늦게 와 저녁 나절 진눈이 나리여 일을 午後 二時 頃에 中止하고 夕飯 食事는 아버지 家에서 했다. 날을 풀리였으나 진눈이 나리여 일에 지장막심하다. …

1960년

◎ 2월 7일 (음 1월 11일) 일요일 雲

… 날씨는 흐리고 맛파람은 부러와 비가 좀 나릴까 했더니 흐린 날씨로 계속될 뿐이다. 어름이 녹으니 논뚜랑으로 물이 새여 물막이를 하였다. …

◎ 3월 4일 (음 2월 7일) 금요일 晴

자고 일어나니 날씨가 흐리였다. 이것이 가물증조다. 食前에 흐렸다 해발 도우며 개이고 (…) 비 안 와 걱정이다. …

◎ 3월 8일 (음 2월 11일) 화요일 晴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너무 가문다. 이 물 가지고는 락종도 못할 뿐더러 보리도 지장막심하다.

◎ 3월 20일 (음 2월 23일) 일요일 雨

새벽 잠결에 드르니 부슬부슬 낙수소리 똑똑… 또록똑…. 엊이 방가운지 눈이 번쩍 떠 문을 열고 내다보니 먼동이 트일 무렵이다. 우리 人間에게 곡식이 나린 것이요 온 草木의 生命水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학수고대 하든 비가 나리니 방가움을 禁할 수 없어 한참이나 내다 보다가 사랑뜰로 안으로 들락날락 하였다. 朝飯에 마실을 가보니 사람들이 입이 벙글벙글 약비여 곡식이 나리였어 等 모두 비오는 인사다. …

◎ 3월 28일 (음 3월 2일) 월요일 大風

아침나절은 그리 심하지 않더니 책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드렀을 대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에 깨여 나가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부니 지붕을 올려다보니 곳 뒤집힐 것 같아 응급조치를 하였다. 동리 사람이 누구나 다름질을 한 참씩 하였다. …

◎ 3월 30일 (음 3월 4일) 수요일 雨

오늘 終日토록 비가 제법 많이 나리였다. 한 달 후에도 또 이렇게 나리며는 大豊이다. 그저 일주일만에 나리었으면 얼마나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테인데. …

◎ 3월 31일 (음 3월 5일) 목요일 晴風

食前 일직 일어나니 날씨가 차거웁고 바람이 일고 있으나 前日 깜뚝해 논 것을 발바야 될 형편이라 논에 드르가니 발이 몹시 시러웠으나 참고 朝飯 前에 다 했다. …

◎ 4월 7일 (음 3월 12일) 목요일 晴

오늘도 날씨는 차거웁다. 비가 자주 와야 할 터인데 몇일 바람만 불고 하니 물이 벗석벗석한다[바짝바짝 마른다]. 오늘 모자리를 갈까하고 소를 얻으려 다니였으나 소 얻기가 매우 심이 들다.

◎ 4월 10일 (음 3월 15일) 일요일 雨

전일부터 후덥지근하더니 밤부터 부슬부슬 비 나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고 일어나보니 물을 늘 程度는 아니지만 부리에는 아주 적당하게 나리였다. 모자리를 못 가려 걱정이다. 10時 頃에 비가 개여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모자리를 갈았다. 한 달 후에 푸근히 나리며는 大豊이다. …

◎ 4월 20일 (음 3월25일) 수요일 晴風

자고 일어나며 논을 일주하니 물이 많이 줄었다. 前日 비가 나릴까 했더니 오늘 날이 풀리더니 午後부터는 바람이 제법 많이 일어 모자리에 걱정이 되여 點心 때 모자리 가보니 몰리였다. …

◎ 4월 26일 (음 4월 1일) 화요일 晴雲

날이 가물 징조인지 흐렸다 개였다 비가 오면 쪼금 나리고 걱정이다. 오늘도 후덥지근하고 비라고 나릴 것 같으나 해가 지도록 안 네리였다. 동리 일대가 오늘 챙깨[참깨]를 부치느라고 야단덜인데 우리는 소가 없어 걱정이다. …

◎ 5월 3일 (음 4월 8일) 화요일 晴

날씨 너무 가물어 큰일이다. 흐렸다간 개이고 개였다간 흐리고 하는 날씨가 계속 되니 가물증조가 아니냐. …

◎ 5월 4일 (음 4월 일9) 수요일 晴

모자리가 잘 안 자라고 모가 들고 일어나 물을 전부 빼고 다시 그누었다. 모자리가 속을 쎄긴다. 아논물은 작꾸 줄어 다섯재조부 두 마지기를 가래질했으니 비는 안 오고 또 큰일이다. …

◎ 5월 5일 (음 4월 10일) 목요일

모자리 물을 대고 그럭저럭 하였다. 비가 올동말동 하더니 오늘 자고 일어나니 흘닥 벗서진 것이 비 올 것 같지 않다. 前日 바람 끝에 비가 안 네리면 여러 날 비는 안 올 것이라고덜 말하고 있다. 앞 말 가웃지기 윗논에 물이 오래 갈 것 같이 안아 및창배로 합해 비리였다[버렸다]. 큰일이다. …

◎ 5월 6일 (음 4월 11일) 금요일 雲晴

날씨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가 비는 좀처럼 나릴 것 같이 안아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있다. …

◎ 5월 7일 (음 4월12일) 토요일 晴

오늘 來日이면 아논의 물은 거이 없어질 것이라 午前 中 일곱 데지기 물을 펐다. 퍼 논 물이란 하로에 한 치는 주는 것 같다. …

◎ 5월 8일 (음 4월 13일) 일요일 晴

아논 물은 완전히 두렁을 다 막고 물을 가두었다. 나도 말 가웃지기 물을 가두었다. 모자리 중거름 물이 걱정이다. …

◎ 5월 9일 (음 4월 14일) 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는 곳 나가 논물을 직히다십히[지키다시피] 하였다. 모자리 중거름을 주고 아논 물을 푸느라고 야단덜이다. 물을 직히고 있었으나 소용이 없다. 午後에 아버지 보고 소를 달라 해서 아논을 갈았다. 몇일 더 가물며는 큰 소동이 난다. 오늘도 물 소동이 났다. 큰일이다. 人心이 극도로 惡化되고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고 혈안이 되여 논뚜랑[논두렁]을 살피고 물 단속을 한다. …

◎ 5월 11일 (음 4월 16일) 수요일

물이 따라 가는 것 같이 줄어든다. 바람이 심히 부니까 죽죽 당기여 올라간다. 일날을 오늘들 잡았으나 비가 안 오면 모두가 허사다. 논뚜랑에 열불나게 쏘다니것만 헛수고이다. (…) 비가 안 오면 그날도 밀고 비가 오며는 이른 편이다. 우리는 모자리가 가래서[가늘어서] 몸이 부러 가지가 친 다음 심으면 좋으련만 물이 마르니 손에 잡히면 길건 짧건 심어야겠다. 이달 28日부터 새달 초여드레까지 일날이 잽히였다. 비 좀 나리소. 비 좀 나리소. 목마른 이 대지에 물 좀 나리소. 목이 타는 초목에 양식을 주소서.

◎ 5월 12일 (음 4월 17일) 목요일 晴

오늘은 종일토록 바람이다. 사람의 간장을 태우는 이 바람. 소란스럽고 진정을 못할 이 心情. 물은 마르고 바람은 불고 하두 걱정이 되여 高棧원안은 어느 정도인가 너머 가 보았다. 高棧은 더 하다. 물이 흔한 곳이것만 물이 고인 곳이 없고 아버지 家 아홉 마지기도 몇일 갈 것 같이 않다. 高棧은 날만 우직해도 물이 고이는 곳이지만 거기도 걱정이다. 바람은 如前하다. 이 바람 끝에 비가 와야지 그냥 들면 참말로 보따리 끄리여야 될 지경이다. …

◎ 5월 13일 (음 4월 18일) 금요일 雨

자고 있으니 비 오는 소리 난다. 食前 비라 얼마나 올까 했으나 참으로 기뿌고 방가웁다. 논을 갈다 와 농꼴 원두밭에 거름을 두 짐 저다 주었다. 비는 계속 나리고 있다. 종일 나리였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든 비. 메마른 大地우에 물이 나리니 온 초목이 생기를 내고 사람들의 거름이 가분가분 하고 우슴소리가 난다. 午後에 들에 가보니 물 있던 논이 물이 제법 많이 고이였다. 밭원 뜰이 한 베미도 못 나갈 논이 비가 나리니 제법 물이 고이였다. 生命水다. 저녁에도 나리였다. 食前 비라 없이 여기였더니 제법 많이 나리였다.

◎ 5월 14일 (음 4월 19일) 토요일 雲

食前에 물고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들에 사람이 웅기중기 하고 있다. 우리 논은 물 있는 것은 별로 급지는[급하지는] 않았으나 물 없는 것이 어중간하다. 물은 아논에 벌창이 되였

다. 논뚜랑이 잘 안 보일 지경이다. 비는 참 많이 왔다. …

◎ 5월 15일 (음 4월 20일) 일요일 雲

날씨는 오늘도 흐린 날씨가 개이질 안았다. 몇 일만 흐리여도 물은 줄질 안을 것 같다. 사방에서 물 푸고 대이고 야단덜이다. 아논 일곱 데지기 물이 새어 푸다가 말았다. 點心 경에 理髮을 하고 그럭저럭 했다. 비가 조곰만 더 왔으면 좋겠다. …

◎ 5월 17일 (음 4월 22일) 화요일 雲

날씨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으나 앞 닷 데지기를 해 심을 욕심으로 食前에 용두레를 얻었다. 한 마지기에서 물을 퍼 싣고 朝飯 後에 깜뚝하고 앞 말 가웃지기에서 물을 퍼 한 마지기 물을 보충했다. 쏘나귀라도 쏘다질 것 같더니 비는 조곰 오고 말았다. 이래도 몇일 더 가면 급핸 대로 심게 되겠다.

◎ 5월 20일 (음 4월 25일) 금요일 晴

참깨 간 것이 가무러 씨앗이 안 서 오늘 참깨 한 데를 팔아다 다시 갈았다. 농꼴 밭을 특히 다른 것을 심어 돈을 해 쓸까 하고 밀을 안 갈고 昨年에는 꼬추를 갈아 실패하고 今年에는 참깨를 갈았더니 이 모양이다. …

◎ 5월 21일 (음 4월 26일) 토요일 晴

… 요사히 날일기가 차가워 모가 더디 자란다. 하는 일 없이 왔다 같다 하다가 오양을 처내고 모자리에 서너 짐 저냈다. (…) 또 한 번 촉촉이 나리엿으면. …

◎ 5월 22일 (음 4월 27일) 일요일 晴

… 비가 좀 나리였으면 조으련만 바람만 심히 불고 날 가물까 걱정….

◎ 5월 23일 (음 4월 28일) 월요일 晴

비온 지 10餘日 되매 또 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이 되었다. 이삼 일 전에도 별로 모르겠더니 오늘은 터 간 것 같이 되여 來日이 넘으면 물이 아주 부족이. 닷 데지기와 말지기가 걱정이다. …

◎ 5월 26일 (음 5월 2일) 목요일 雲

… 날이 가물 증조[징조]인지 몇일 장만한 비가 나린 둥 만 둥 나리고 말았다. …

◎ 5월 27일 (음 5월 3일) 금요일 晴

… 넙디리 건가리도 심게 되였으면 좋으련만 언제나 푸근히 나릴 것인지? 水畓이나 다 끝난 데 푸근히 나리엿으면 일의 순서도 되련만. …

◎ 5월 28일 (음 5월 4일) 토요일 雨雲

새벽녘에 잠이 깨였는데 비 오는 소리가 부슬부슬 난다. 일찍 일어나 내다보니 제법 나린 것 같다. 넙디리 건가리도 내게 될는지 오는 끝에 제법 나리엿으면 좋으련만. (…) 朝飯食事를 하고나도 비는 부슬부슬 나리지 일직암치 잠이나 잘 生覺으로 한숨을 자고 나니 비가 끝치였다. 비도 물 늘게 오도 안았는데 끝치다니 날 가물 증조가 아닌가. 이것이 단오물 간 것인 모양이나 더욱 초조한 마음이 든다. 아직 물 마르는 논은 없지마는 아주 가물까 바이다.

◎ 5월 31일 (음 5월 7일) 화요일 晴

… 비나 와서 동욕꿀 논도 심게 되였으면 좋으련만. …

◎ 6월 3일 (음 5월 10일) 금요일 晴雲

… 가랑비가 나리고 하야 옷을 적씨고 계속 일을 했으나 논에 물은 늘지 않았다. 이것이 가물 증조가 아닌가 걱정이다. …

◎ 6월 5일 (음 5월 12일) 일요일 晴

… 일을 일직 끝나고 논에 와보니 서 말 가웃지기 논물을 큰아번님이 따라같다고 한다. 또 안골 할아비지가 우리 논으로 해서 四 마지기 물을 댄다고 한다. 비는 좀처럼 올 것 같이 안은데 물모금이나 있는 것 같으니 물을 대간다 물을 따라간다 하니 걱정이 된다. 우리 명맥인데 말라 붓트면 큰일인데 어이하면 좋을까?

◎ 6월 6일 (음 5월 13일) 월요일 晴

… 닷 데지기도 코를 골고 한 마지기 물도 오늘로 벗석 드러났다. 애벌도 못 찍고 말리게 생기였으니 어이 하면 좋을까? 비 좀 나리소서. 목마른 大地에 귀한 비 좀 나리시여 아까운 생명을 이여 주소서. …

◎ 6월 7일 (음 5월 14일) 화요일 雲

… 날이 흐리고 南風이 불어와 혹씨나 비를 나릴까 기다리였으나 저녁에 벗어지고 말았다. 저녁에도 문을 열어 하늘을 살피였다. 큰 걱정이다. 너무 가문다. …

◎ 6월 8일 (음 5월 15일) 수요일 晴

… 물이 없어 더딜 분더러 아직 [김] 매일 때도 안 되였다. (…) 물은 오늘도 벗석 마라 아논 두말 가웃지기는 곳 말라 붓틀 것 같고 밭원도 많이들 마르니 年事가 어이 될 것인지? 비 좀 나리소서. …

◎ 6월 9일 (음 5월 16일) 목요일 晴

… 오늘 내일 비가 안 오며는 큰 소동이 날 것이다. 좀처럼 비는 나릴 것 같이 않다.

◎ 6월 10일 (음 5월 17일) 금요일 雲

… 날씨 흐리고 가랑비가 나리여 혹씨나 했더니 곳 지나가고 말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쏘나귀인데 高棧은 똘물이 젓다는데 여기만 빼노았으니 이것도 이 동리에 물 걱정을 더 시키고 말았다.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마르니 이런 때 비 한 줄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 흐린 날씨가 비는 나리지 않고 사람의 긴장은 타고.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 종일 동풍으로 오곡이 깨나질 않고 보는 [곳마다] 거이 다 병이 났다. 나쁜 바람이 계속되는 관계로이다. …

◎ 6월 12일 (음 5월 19일) 일요일 雲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가 이것이 마치 가물 증조인가? 마냥가리는 어디 가던지 심어 노은 것도 못 꺽일 것인지? 안골 祖父가 우리 논으로 해서 물을 돌려가고 있다. 물이 늘 리가 없어 샘물을 돌려 달라 했다. 午後에 가랑비가 나리더니 들었다. 집에 있다가 理髮을 하고 앞밭 보리를 비였다. 푸른 보리가 있으나 비다가 비에 젓어 못 비였다. 夕飯을 마치고 나니 비방울 소리가 제법 나니 사람의 생기가 나는 듯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몇 번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밤새 포근히 나리었으면.

◎ 6월 22일 (음 5월 29일) 수요일 晴

… 今年 들어 충분한 비가 나린 법이 없이 조금씩 나리니 언제나 갈증이 날 지경이다. 요사히 몇일 가무미 계속 되니 논들이 말라붙는다. 닷 되지기는 말라붙고 한 마지기 等 차례로 마르기 始作하고 있으니 언제나 비가 흡족히 나릴 지경인가? …

◎ 6월 25일 (음 6월 2일) 토요일 晴

오늘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곳 비라도 올 것 같더니 下午에 벗어졌다가 또 흐리여왔다가 하였다. (…) 논은 밭원 안 마른 논이 없고 悠雨 家모자리 배미도 물이 말라 매기 매우 더디였다. 언제나 비가 올 것인가.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조바심이 된다. …

◎ 6월 26일 (음 6월 3일) 일요일 雨

바라고 기다리던 비가 나리였다. 넙은 논도 거이 다 십게 비가 나리였다. 하나 우리는 보가 없으니 동욕굴 논은 무엇으로 심나. 비는 종일토록 나리여 물이 논뚜랑마다 넘는다. …

◎ 6월 27일 (음 6월 4일) 월요일 雲雨

食前에 논을 一週하니 물이 벌창을 했으나 모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냐. …

◎ 6월 28일 (음 6월 5일) 화요일 雨

종일토록 비가 나리였다. 몇 차례 세차게 폭우가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안팎원안이 물이 고이여 모가 물속에 드러갈섰다. 午前에 잠자고 午後에는 마실 같었다. 비가 적지 않으면 많다. 몇일 장마가 질 것인지 걱정지사.

◎ 7월 1일 (음 6월 8일) 금요일 雨

장마비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논뚜랑이 질질 넘고 물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린다. 비는 종일 나리였다. 午前에 한나절이나 자고 午鍾 頃에 理髮을 하고 下午에는 도랭이(물치)를 엮었다. …

◎ 7월 3일 (음 6월 10) 일요일 雲

자고 일어나니 안개가 자욱하더니 朝飯食事 前에 쏘나귀가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비가 개이여 오늘 일이 어이 되나 알아보니 하자고 해서 일을 같다.

◎ 7월 4일 (음 6월 11일) 월요일 雲

… 午前 中 흐리고 비가 올 듯하더니 下午에는 벗서지여 해 구경을 하고 몇일만에 西風이 불렀다. 저녁에는 달도 별도 밝근 날이 되였다. …

◎ 7월 7일 (음 6월 14일) 목요일 雨

밤사이 비가 많이 오고 자고 일어나도 비는 끝이질 않고 계속 나리고 있다. 오늘이 우리 일날이것만 늦어가는 김은 또 하루를 미루게 되였다. 비는 종일토록 나리였다. …

◎ 7월 10일 (음 6월 17일) 일요일 晴

… 날 일기가 좋지 못한 고로인지 今年에 병이 아주 심하다. 우리 논은 근잠이 심하고 밭원논에는 도열병이 우려된다. 도열병이 올랐는데 더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겠다. 오늘도 날씨 무더웁고 우기가 드렀다. 장마에 마냥에 두 벌을 못 해주고 훔친 사람이 많으며 일날도 앞으로 몇일 안 갈 것 같다. 우리도 훔쳤으니 앞으로 보아야 드러갈 것 같다. …

◎ 7월 16일 (음 6월 23일) 토요일 晴

날씨는 무더웁고 바람은 東南風이라 병이 가시질 않는다. 도열병 근잠은 한참이라 논에 갈 정이 안 붓는다. …

◎ 7월 18일 (음 6월 25일) 월요일 晴

食前에 논에 가보았다. 논에 같다 온 나는 힘이 탁 풀린다. 서 말 가웃지기 거이가 다 도열병에 걸리였다. 논에선 냄새가 나고 입싸귀는 썩어 들어가고 큰일이다. 것[겉]으로 보고 과히 심하지 않고나 했더니만 날로 심해가는 도열병 어이 하면 좋을까? 비나 좀 왔으면 하는데 좀체로 비는 나릴 것 같이 않고 병은 심해가니 농사 헛 진 것이 아닌가. …

◎ 7월 22일 (음 6월 29일) 금요일 晴

도열병이 가신다고 해서 논에 가보니 일직 난 것은 가시고 늦게 난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논은 뒤늦게 도열병에 걸리여 가시는 것 같이 않고 이일만에 같더니 마찬가지다. (…) 요즈음 비가 나리였으면 병기도 가시것만 좀처럼 비는 나릴 것 같이 않다.

◎ 7월 23일 (음 6월 30일) 토요일 晴

네려 쪼이는 폭양은 계속 되고 있다. 비가 와야 모의 病氣가 가시것만 좀처럼 비는 나릴 것 같이 않다. …

◎ 7월 24일 (음 윤 6월 1일) 일요일 雲

食前에 비방울을 하여 잠에서 깨여 나왔다. 가랑비 나리는 시늉하더니 끄치고야 말았다. 종일토록 흐렸다 나렸다 하는 날씨가 계속될 뿐 비는 나리지 않았다. (…) 비가 한 줄기 나리여 주었으면 …

◎ 7월 25일 (음 윤 6월 2일) 월요일 雨

새벽녘에 비 오는 소리가 나서 엊이 氣分이 좋은지…. 今年에 雨量이 저것지만 농민이 꼭 기다리고 바라며는 비가 나리었다. …

◎ 7월 26일 (음 윤 6월 3일) 화요일 雨雲

비 한 줄기 네리고 朝飯 後에 끝이더니 또 한참 네리다가 10時 頃에 덜 오기 始作하였다. 그만 와도 비는 만족하다. 安仲場에 갈까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같다. (…) 날은 가시고 서풍이 설설 불었으면 좋겟것만 아직 비는 가시지 않았다. …

◎ 7월 27일 (음 윤 6월 4일) 수요일 雲

비가 개이고 서풍이 불어야 농작물에 좋을 것인데 비는 적기에 잘 왔으나 비온 후 날이 개이질 않고 동북남간 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지장 막심할 것 같다. 병만 안 낫으면 별 관심 없겠는데 병기가 막악 가신 고로 걱정지사다. …

◎ 8월 4일 (음 윤 6월 12일) 목요일 晴

동욕골 논위 밭뚝 가시나무 좀 치다가 날씨 더웁고 땀이 소다저 그냥 도라와 新聞을 보다가 낮잠을 한심 잤다. 쏘나귀라도 한 줄기 나리여야 김장도 갈고 벼도 생기를 얻것만 올 듯 올 듯하다가 東西쪽으로만 지나가고 여기는 오지를 안는다. …

◎ 8월 8일 (음 윤 6월 16일) 월요일 晴

… 날씨도 종일토록 무더웁고 해서 그늘 밑에서 종일 있다가 저녁나절 김장밭을 갈았으나 말러서 못 갈겠다. 동리에서 배추 못 부친 집이 우리 한 집밖에 없다. (…) 김장도 늦어 가는데 날

씨만 무더웁고 비는 안 와 걱정이다. 동리에서 우리만 김장을 안 부쳤는데 부친 것이 잘 했는지? 안 부친 것이 나은지 모르겠다.

◎ 8월 14일 (음 윤 6월 22일) 일요일 晴

如前히 繼續되는 가뭄에도 季節이 바뀌는 새벽녘에는 선선한 氣分이 온다. 홑이불 신세도 다지고 누비이불로 바뀌었다. 七日 東風이다. 논마다 마르기 始作하여 모에도 지장이 올 것 같다. 우리도 아논과 밭원이 마르기 始作했다. (…) 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콩도 단풍이 들어 해낮은 시들어 있으니 가뭄도 이리 심할까.

◎ 8월 17일 (음 윤 6월 25일) 수요일 晴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는 비는 어디로 뜨거운 폭양만 내려 쪼이니 김장은 말할 수 없이 늦어가고 콩잎은 돌돌 말리여 들어가 해낮은 안타까와 못 볼 지경이다. 오늘은 물을 길어다 붓고 김장을 갈기로 作정하고 우리 三人이(妻 春子 私) 물을 져다 붓었다. …

◎ 8월 18일 (음 윤 6월 26일) 목요일 晴

前日 물 퍼다 분 밭에 食前에 (김장)을 갈랴고 나가보니 물이 많은 편이라 그만 둘까 하다가(삽으로 파고 호배추를 부치였으나) 잘 날까 걱정이다. 물을 길어다 부친 김장이 잘된 것이 없다니 무슨 까닭일까? 가뭄도 이리 오래 갈까. 20餘日을 비 한 방울 안 나리고 그냥 가무는 것이다. 밭곡 논곡 할 것 없이 말라가고 田穀은 타서 콩가래가 떨어진다. …

◎ 8월 19일 (음 윤 6월 27일) 금요일 晴

앞 밭 달뱅이에 벼가 물이 없어 잎이 말리여 食前에 물을 푸고 해낮에 보니 덜 핸 것 같다. (…) 앞 한 마지기 논뚜랑을 거실르다가 벼를 보니 너무 덴[된]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쓰러질 것만 같다. 땅도 식힐 찬바람이 일어야 할 것이것만 따거운 해빛은 如前하니 어이 될 셈인가. …

◎ 8월 20일 (음 윤 6월 28일) 토요일 晴

자고 일어나 그저께 부친 배추가 노랗게 싹이 터 나오고 있다. 물을 저다 부어 많이 축은 관계로 잘 나고 있다. 오늘도 종일 네려 쪼이는 폭양에 온 天下가 熱로 化하고 말았다. 열광노[용광로] 속 같은 大地 우에 온 농작물은 고생고생 끝에 죽어가는 것이 많다. …

◎ 8월 21일 (음 윤 6월 29일) 일요일 晴

… 오늘도 날씨는 如前히 뜨거운 날씨. 배추가 잘 나은 것 같더니 해낮에 가보니 덜 난 곳이 많다. …

◎ 8월 22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雨

食前부터 김장을 갈랴고 옆밭에 물을 길어다 붓고 해서 물이 땅에 죽을 程度로 30지게 가량 저다 부었다. (…) 下午부터 날씨 흐려오고 잇으나 날씨 너무 가물고 흐렸다간 벗기여지고 해서 믿지를 않았더니 저녁나절부터 몇 방울씩 날리기 始作해서 저녁에는 제법 쏘다지었다. …

◎ 8월 23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鶴首苦待하든 비는 밤새도록 부슬부슬 나리여 곡식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만하면 김장도 부치게 될 것 같다. 食前에 옆 밭 무를 부치였다. 죽엄[죽음]에서 산 오곡이 생기를 띠고 너울그리고 춤을 추며 자라는 듯하다. …

◎ 8월 27일 (음 7월 6일) 토요일 晴

몇일 前에 不足할 程度로 비가 約간 나리더니 또 가뭄이 오고 잇다. 김장비도 적근 뿐더러 콩은 말할 수 없이 되었다. …

◎ 8월 28일 (음 7월 7일) 일요일 雲雨

… 朝飯 後부터 부슬부슬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부슬부슬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용히 오고 조용히 들엇으면 하는데 바람이나 일고 하면 큰 걱정이다. 앞 한 마지기는 위험천만이다. 비는 저녁까지 계속 나리였다. …

◎ 8월 29일 (음 7월 8일) 월요일 雲

저녁내 비가 오고 食前에도 오락까락하였다. 앞논이 엊이 되였나 궁금하여 자고 일어나며 나가보니 서너뭇내기 스러지고 아주 땅에 눕진 않았다. 비바람 치면 위험천만이다. 下午 前에 날이 들어 물꼬에 물을 전부 터놓았다. …

◎ 8월 30일 (음 7월 9일) 화요일 晴

立秋가 지난 지 여러 날이 되것만 무더운 날은

如前히 繼續되더니 前日 비가 나린 後부터는 가을 氣分히 감돌고 있다. (…) 망도 축고 해서 김장을 두 골 삽으로 파고 부치였다. 계속되는 가뭄에 온 곡식이 주럽이 들더니 비 맛을 보고 생기를 띠우고 있다.

◎ 9월 15일 (음 7월 25일) 목요일 晴

… 가을 날씨는 잘 하여 비 올 때 비 오고 날이 요사히 따가워 벼 익끼 아주 알맞다. 논은 하로하로 달라진다. 콩도 단풍이 드렀다. (…) 종일 왔다 같다 하다가 下午에 김장밭에 거름을 주었다. …

◎ 9월 25일 (음 8월 5일) 일요일 雲

요사이 날이 좋와야 곡식이 잘 영글 것인데 몇일재 흐린 날씨가 繼續되더니 가을일이 아주 더디어 가고 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 것 같고 해서 대추를 食前에 땄다. …

◎ 10월 15일 (음 8월25일) 토요일 晴

…저진 것은 갈라놓았다가 저녁나절 흐려들고 레디오에서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듯고 묶어 쌓았다. …

◎ 10월 16일 (음 8월 26일) 일요일 雨雲

… 食前에 영을 엮고 있으니 날씨가 흐리고 비가 곳 올 것 같아 앞논 마른 베[벼]를 저드릴랴고 가서 보니 다 말랏다. 날은 거문 구름장이 모여들며 간혹 비방울을 던진다. 곳 妻와 春子를 불러 쌓으라하고 나는 저드리였다. 비는 차츰 더 온다. 다름질[달음질]로 앞 벼를 다 끄디리였다. …

◎ 10월 26일 (음 9월 7일) 수요일 雲雨

朝飯을 일직 하고 妻가 場에 닭 3조를 갈고 三溪나 가슬까? 해서 비가 오기 始作해서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 보리에 적당할 정도로 나리고 말았다. 조금 더 와도 좋으련만 그만 들고 말았다. 여하간 今年에 雨量이 아주 적은 해이다. …

◎ 11월 17일 (음 9월 29일) 목요일 晴

흐렷다 개엿다 하는 날씨로 繼續될 뿐 비가 안와 큰 걱정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來年이 辛丑年이라고 지난 辛丑年에 大흉년이 드렷다고 게다가 요사히 비도 안 오고 來年이 辛丑年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잇다. …

◎ 11월 18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 비가 좀 왔으면 좋으련만. …

◎ 11월 22일 (음 10월 4일) 화요일 雨

바라고 기다리던 비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부슬부슬 나리였다. 자고 일어나니 앞논의 물이 제법 많이 고이고 아논도 물이 느른 것 같다. 食前에도 부슬부슬 나리는데 삽을 들고 앞 논뚜랑을 도라왔다. …

◎ 11월 24일 (음 10월 6일) 목요일 雨

종일토록 비가 오락까락 하였다. 아논도 제법 물이 느러가고 있다. 농촌에는 무엇보다도 비가 자주 와야 농민들의 안도감을 같게 되기 때문이다. 몇일 비가 나리니 흐뭇한 기분이 돌고 사람덜의 인상이 유해지는 것 같다. …

◎ 送年後感

… 농사도 봄비가 잘 오지 않았고 今年에 雨量이 적엇으나 농사는 잘 진 셈이다. …

1961년

◎ 1월 15일 (음 11월 29일) 일요일

날씨는 溫化하고 淸明하다. 午前 中 눈이 나릴 것이라더니 아무것도 안 왔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봄에 비가 많이 와야 되것만 今年 겨울에는 눈이 안 왔다. 來年 年事가 걱정이다. 푸근히 눈이 나리여 앞논에 저수가 많이 되여야 되는데 논뚜랑이 나왔으니 모자리도 걱정이다. …

◎ 2월 4일 (음 12월 19일) 토요일

몇일 냉한 날씨는 오늘 완전히 올리여 立春 글자 그대로 봄을 마지하는 氣分이 난다. 높은 산어름 밑에서는 벌서 봄을 알리고 있다. 날씨도 좋고 해서 울타리를 한 띠 쳐 둘렀다. 約 6발 가량 모자라는 것은 수수대가 없어 그만 못 둘르고 영으로 둘를 작정이다. 下午에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갈으나 한 전 짐 해 갈고 그냥 도라왔다. …

◎ 2월 5일 (음 12월 20일) 일요일

… 아논이 물이 가득히 고여야 될 것을 물은 없고 당장 모자리 걱정부터 해야 될 지경이다. 날이 흐리고 비가 와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은 비가 제법 왔으나 물 고일 程度는 아니다. …

◎ 2월 7일 (음 12월 22일) 화요일

… 前夜에도 비가 나리여 아논 뚝이 밤새 괜찮은가 가보니 물이 새여서 한참 손질을 했으나 할 수 없어 朝飯 後에 하기로 하고 왔다. 논에를 가다가 드르니 …

◎ 2월 21일 (음 1월 7일) 화요일

훈훈한 봄기운이 감돌아 얼음이 오늘로 완전히 없어져 아논이 물노리를 친다. 억세인 봄바람에 해변가 사람들의 얼굴은 검기 始作하여 입술이 트이고 얼굴이 억세여 간다. 나는 봄만 데면 食욕을 일어 고생을 한다. 무엇으로 입맛을 부치고 바람을 이겨낼까. (…) 아논 물도 늘어 향남배미까지 올라왔다. 엿 마지기 두 배미만 물이 있다.

◎ 2월 28일 (음 1월 14일) 화요일

… 날씨는 零上 10度라는 더운 날씨다. 온 천지가 풀리고 잇으나 메마라만 가는 大地를 흠뿍 추길 비가 나리엿으면 하는 生覺 간절하다. …

◎ 3월 2일 (음 1월 16일) 목요일

前 밤부터 부슬부실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종일 나리였다. 비가 나리니 사람들의 氣分이 흐뭇해 보이며 겨우내 얼어 떨든 나무도 물을 마시고 있다. 아논 물이 제법 많이 느는 데는 더욱 좋다.

◎ 3월 3일 (음 1월 17일) 금요일

전날 저녁에 쉬지 않고 부슬부슬 나리더니 食前에 일어나보니 앞논이 물이 제법 느렀다. 말가웃지기에도 물이 우넹기로 넘어간다. 아논도 우리 일곱지기에도 물이 通했다. 농꼴은 별로 느른 것 같지 않다. 봄비가 잦으며는 맛게 누리손이 커진다[봄비가 잦으면 동네 지어미손이 커진다]더니 인심의 인색함이 봄에 비가 자즈며는 풀린다. 오늘도 종일 가랑비가 오락가락했다. 食前에 앞논뚜랑(下)을 손질했다. …

◎ 3월 4일 (음 1월 18일) 토요일

3日間 나린 비는 제법 물을 고이게 하고 오늘 드럿다. 땅이 풀리고 비가 개이니 바다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잔득 잡아 놓았던 앞 말 가웃지기 물을 구멍이 나 새나갈다. …

◎ 3월 10일 (음 1월 24일) 금요일

봄에 바람 여름 비 가을 결실이라더니 금년에는 바람이 심한 편이다. 저녁나절만 되면 의려 바람이 일어 날씨는 건조해간다. (…) 뒤염 한 짐을 지고 농꼴 논에 가보니 물이 늘지 안아 논뚜랑이 나와 바람에 물노리로 인해 논뚜랑이 잡아졌다.

◎ 3월 14일 (음 1월 28일) 화요일

옆밭(보리밭)을 글겄다. 몇일 바람이 불고 하더니 물이 벗석 줄렀다. …

◎ 3월 19일 (음 2월 3일) 일요일

… 前夜에 비가 나리여 보리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지난주에 비가 촉촉히 나리여 농작물에 도움. …

◎ 3월 25일 (음 2월 9일) 토요일

… 비가 나릴 듯 하고 관상대에서도 약간의 비가 나릴 것이라 햇으나 그냥 개이고 말았다. 몇일 바람이 불더니 물이 많이 줄었다. 촉촉한 비가 나리였으면 한다.

◎ 4월 3일 (음 2월 18일) 월요일

바람이 심히 불어 아버지 家 끄이 하는 것도 차일로 미루었다. 바람은 종일 불어 소란스러워 마음의 不安을 면할 수 없다. 지붕도 한참 손질했다. 前日 판 음물은 한 응뎅이가 못 고였다. 새얌이 별로 잘 나는 편이 아니다. 종일토록 그럭저럭 했다. 저녁에도 바람은 여전하다. 이 바람 끝에 비나 푸근히 나리였으면?

◎ 4월 4일 (음 2월 19일) 화요일 雨

전일 폭풍이 불고 소란스럽게 하더니 밤새 바람은 여전하였다.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니 비 오는 소리가 제법 나리는 소리가 나더니 급기야는 폭우가 쏘다저 여름 장마철과도 같다. 종일토록 비바람은 여전하였다. 똘물[작은 냇물]

이 네려가고 앞 논뚜랑이 넘은 것이다. 저녁나절에야 딜 나리는 것 같다. 보리가 한결 생기를 내고 퍽 자라난 것 같다. 적우다. 이 바람 끝에 안 나리였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조바심을 줄뻔 했다.

◎ 4월 11일 (음 2월 26일) 화요일

食前 6時 半부터 부슬부슬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 (…) 今年 들어 비는 자주 오는 셈이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자주 비가 나리면 豊年이다. …

◎ 4월 25일 (음 3월 11일) 화요일 雲

모자리 그누었다. 논 갈다. 몇일間 바람이 불더니 논의 물이 따라간 듯 주렀다. 食前에 논에 가니 물자리가 벗석 드러나 물구멍을 찾았으나 좀체로 찾질 못했다. 朝飯을 하고는 모자리의 물을 퍼내고 가름을 땄다. (…) 아직까지는 모자리의 씨도 잘 섯고 속을 쎄기지 않았다. 비 한 차례가 더 나리였으면 하는데 흐린 날씨로 계속될 뿐이다. …

◎ 4월 29일 (음 3월 15일) 토요일

논 갈았다. 비는 좀처럼 올 것 같지 않다. 아논 물도 벗석 줄였다. …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푸근한 비를 나리여 풍년을 가져오게 햇으면 농꼴도 물이 벗석 주러 골작논의 가래질을 하게 되였다. 앞논의 물도 벗석 주러드렀다. 이대로 10日만 더 가면 큰 소동이 난다. …

◎ 5월 3일 (음 3월 19일) 수요일

… 날씨는 흐리고 東南風이 솔솔 불어 비가 올 것 같다. 한 줄기 나리였으면 논은 그리 급지 않지만 모종새 참깨를 못 부쳐서이다.

◎ 5월 4일 (음 3월 20일) 목요일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나리여 곡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前夜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 종일 나리여 건가리 배미도 물이 제법 느렀다. 물은 풍족하다. 15日 後에도 한 번 나리였으면 풍년이다. 곡 필요할 적에는 잊지 않고 나리니 적우다. …

◎ 5월 7일 (음 3월 23일) 일요일 雲

… 氣象台 發表에 依해 오늘 下午 頃에 비가 나릴 것이라는 것에 오늘 아버지 家와 우리 집의 참깨가리를 來日로 미루었다. 朝飯을 하고서 모자리 배미 물을 푸고서 중거름을 주었다. 硫安 約 二斗 가량을 갈다 주었다. …

◎ 5월 10일 (음 3월 26일) 수요일

몇일 흐린 날씨가 繼續되더니 저녁나절부터는 가랑비가 나리기 始作했다. (…) 자주 비가 와야지만 바람이나 불지 안앗으면 좋으련만. …

◎ 5월 11일 (음 3월 27일) 목요일

전일 저녁나절 비가 나리여 보리가 쓰러질까 큰 걱정을 하여 자고 일어나면 보리밭을 가 보았으나 별로 많이 쓰러지진 않았다. 가랑비는 如前히 나리고 종일토록 오락까락 했다. …

◎ 5월 17일 (음 4월 3일) 수요일

… 물꼬에 가보니 전일 바람이 일더니 물이 벗석 주렀다. 앞 한 마지기는 당장 심어도 물이 많은 편은 아니다. (…) 보리에는 지장이 많아도 비가 좀 나리였으면 날씨는 흐린 편이고 비올 것 같기는 한데 …

◎ 5월 24일 (음 4월 10일) 수요일

… 비가 촉촉이 나리였으면 좋겠건만 조금도 비올 것 같지는 않다.

◎ 5월 28일 (음 4월 14일) 일요일

… 자고 일어나니 날이 흐리였다. 비가 곳 나릴 것 같다. 일이 될 것인지? 주저하다가 늦게서야 농꼴 논에 비료를 끼언고(重過石 硫安 合 반 포식 합해서 끼언고) 왔다. 일도 늦게서야 일이 始作되였다. 모를 다 찌고 저뚜리를 먹고 나니 비가 많이 쏘다저 일을 못하게 되였다. 보리도 전부 쓰러졌다. 일 드티고 보리도 쓰러지고 속이 상했다. 理髮을 했다. 낫잠.

◎ 5월 30일 (음 4월 16일) 화요일

… 비 온 지가 前日이것만 앞 닷 데지기는 물이 새서 不足하다. …

◎ 6월 4일 (음 4월 21일) 일요일

… 洞里 移秧은 오늘로 다 끝나고 富平 아주머

니 家만 남았다. 오늘로 일제히 끝나는 것인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고 일을 안 가서이다. …

◎ 6월 14일 (음 5월 2일) 수요일

… 부슬부슬 비 오는 소리가 나 엊이 방가운지 일어나 한참 앉았으니 비가 개인다. 새벽부터 나린 비는 그루비가 나리엿나 했더니 부족하다. …

◎ 6월 15일 (음 5월 3일) 목요일

그루 갈다. 食前에 앞밭 보리 가랐다. 웃또리로 세 두록[두렁] 고구마 시물 것을 냉기고 그루를 가랐다. 朝飯 後에는 옆밭 비다 냉긴 보리를 午前 中 비고 午後에는 그루를 가랐다. 그루갈기가 마른데 잘 날 것인지. …

◎ 6월 23일 (음 5월 11일) 금요일

… 비가 나릴 것이라더니 종일 흐렷다 개엇다 할 뿐 비는 나리지 않았다. 저녁에는 앞 달뱅이를 심어 볼 작장으로 웅뎅이를 펐다. 언제나 푸근한 비가 나릴 것인가?

◎ 6월 29일 (음 5월 17일) 목요일

… 날씨는 흐렷다 개엿다 할 뿐 한 방울의 비도 나려주지 않는다. 큰일이다. 논은 마르어 가고 잇으니 어이 하나. 今年에도 도열병이 간혹 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7월 14일 (음 6월 2일) 금요일

… 朝飯食事를 막 치우고 나니 비가 많이 나리기 始作하더니 급기야 물 소동을 이루엇다. 約二時間 동안에 나린 비는 왜뚝이 질름질름 하게 나리여 금년 드러 처음 많이 나리였다. …

◎ 7월 16일 (음 6월 4일) 일요일

… 前日과 今日에 西風이 부러 벼에는 아주 좋은 바람이다. 근잠병도 가신다. 洞里 일대에 예년에 없는 豊作을 이루었다. (…) 아직은 어느 것이 잘된 것인지 모른다. 비바람만 치면 갈 대 없이 쓰러진다.

◎ 7월 23일 (음 6월 11일) 일요일

… 날씨는 흐렷다 개엿다 하것만 비는 안 온다. 비 한 줄기 햇으면 콩닙이 말리고 벼곡이 주러드는 듯하다.

◎ 7월 28일 (음 6월 16일) 금요일

밤중부터 부슬부슬 가을비 나리 듯하더니 朝飯後까지도 나리고 드렀다. 동리 사람들은 물이 많이 민다고 원뚝에들 갈다왔다. …

◎ 8월 2일 (음 6월 21일) 수요일

몃일재 繼續되는 東風으로 농작물에 지장 막심하다. 콩 폴기[포기]는 돌돌 말리고 벼끝은 탄다. 이것을 이래 東風이라 하는데 약간의 비라도 네리엿으면 김장 갈 時期도 되었것만. …

◎ 8월 3일 (음 6월 22일) 목요일

…저녁 자정 짐 되여서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 왜뚝을 심히 걱정했다.

◎ 8월 8일 (음 6월 27일) 화요일 暴雨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폭우다. 왜뚝이 질름질름 넘고 논뚜랑이 넘어가고 했다. (…) 늣게 왜뚝에 가보니 별고는 없다. …

◎ 8월 15일 (음 7월 5일) 화요일

解放 16周年 紀念日.(17回) 東南風이 종일 强하게 부러 농민들의 마음을 걱정케 하였다. 東南風이 심히 불면 비가 많이 오는 까닭이다. (…) 한참 벼 이삭이 나올 무렵 일기가 불순하며 결실에 지장이 잇을 듯하다. 저녁에 자리에 드니 좀처럼 잠이 안 온다. …

◎ 8월 16일 (음 7월 6일) 수요일

… 김장이 늣어가는데 장마철에 드럿으니 김장도 걱정이다. …

◎ 8월 29일 (음 7월 19일) 화요일

… 서 말 가웃지기의 벼는 모자리가 병이 나서 그렇지 잘된 셈이다. 비가 오면 쓰러질까 큰 걱정인지라 저녁엔 한참이나 잠을 못 이루었다. 비는 부슬부슬 나리고 잇다. …

◎ 8월 30일 (음 7월 20일) 수요일

前日 午後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밤새도록 나리여 큰 걱정을 햇더니 (…) 농꼴 것을 除外하고 우리 농사 전부가 걱정인데 아논 것은 아주 위험천만이다. 거이 다 쓰러저 가고 잇다. …

◎ 8월 31일 (음 7월 21일) 목요일

종일토록 비가 오락까락 하다가는 폭우로 나리

고 하여 농작물의 많은 피해를 주었다. 우리도 아논 밭원 앞 等 쓰러진 것이 논 마지기는 데고 전부 반 이상 쓰러져 아주 危險千萬이다. 마음이 타고 조바심이 되여 걱정인지라 안절부절하다가 해를 보냈다. …

◎ 9월 1일 (음 7월 22일) 금요일

날은 들지 않고 폭우가 나리여 물 소동이 낫으니 논의 벼는 말할 것도 없다. (…)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집이든 다 마찬가지다. 비는 개일 줄 모르고 사람을 아주 조바심을 만들고 다 팬 곡식을 다 눕힌다. 종일 안절부절 하다가 해를 보냈다.

◎ 9월 2일 (음 7월 23일) 토요일

… 벼는 점점 쓰러져가고 날은 들지 않으니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줄랴는 것인가. (…) 이르켜 세워야 될 것인지 그냥 두어야 좋은 것인지? 이르켜 세우재도 큰일이다. 논에 가볼 정이 없다. …

◎ 9월 3일 (음 7월 24일) 일요일

中央觀象台 發表에 오늘 午後나 밤에 폭풍 예고를 하여 겁을 먹은 나는 왜뚝을 손질했다. …

◎ 9월 4일 (음 7월 25일) 월요일

中央觀象台에서는 오늘도 洪水警報를 네리여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오늘도 東南風이 强하게 부러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 육감으로도 짐작하는 것이다. …

◎ 9월 5일 (음 7월 26일) 화요일

… 저녁나절은 西風이 불어 개여지는 날씨다. …

◎ 9월 7일 (음 7월 28일) 목요일

어제 오늘 兩日 간에 날씨가 따근하여 五穀이 무루익는데 좋왔고 꼬추도 벗석 말랐다. 觀象台에선 來日 또 비가 올 것이라니 객수는 이틀이 안 가서 또 온다. …

◎ 9월 28일 (음 8월 19일) 목요일

… 쓰러젓던 벼는 싹이 많이 난다. 요사히 日氣가 매우 후덥지근하며 먼저 빈 볏단들이 아주 말이 아니다. …

◎ 9월 29일 (음 8월 20일) 금요일

날은 후덥지근하고 우직하여 싹이 난다고 한다. 가을날은 청명하고 바람이 많이 부러야 한다.

◎ 10월 4일 (음 8월 25일) 수요일

… 비가 올 것 같아 곳 와 朝飯食事를 하고 아논 밭원 먼점 빈 벼를 조파리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했다. 德雨 家 일날인데 품미였다. …

◎ 10월 5일 (음 8월 26일) 목요일

前夜 오늘을 通해 많은 비가 나리여 농작물에 많은 손실을 주었다. 벼단에선 싹이 나고 보리밭 갈 것은 밭고랑에 물이 고였으니 보리가리도 늦어질 것이다. …

◎ 11월 16일 (음 8월 9일) 목요일

來日 지붕을 할려고 지붕을 베껴 내렸다. (…) 날 일기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저녁을 먹고 나니 비가 始作해서 더욱 걱정이 된다.

◎ 11월 17일 (음 8월 10일) 금요일

오늘 지붕을 해 이울랴고 前日 지붕을 베겻드니 밤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종일 많은 비를 나리였다. 용구새 집도 추렷는데 썩지나 않을까 걱정이 아주 안 되었다. …

1962년

◎ 3월 26일 (음 2월 21일) 월요일 晴風

요즈음 벌써 몇일채 바람이 심히 불고 날씨도 冷하다. 오늘 食前엔 어름이 많이 얼었다. 零下 5度나 네려가고 종일 풀리지 않는다. 일철은 다가오는데 날씨는 이러하니 걱정之事. …

◎ 4월 2일 (음 2월 28일) 월요일

날씨가 갑작히 冷해졌다. 별 일 없이 해를 보냈다. 감자가 늦어젓으나 날씨 관게로 못 심는다. …

◎ 4월 3일 (음 2월 29일) 화요일

… 겨울날 못지않은 매서운 날씨다. 잠시 밖에 나갈다가 쪼끼여 드러왔다. 바람은 심하여 한참 소동을 이루었다. 봄 씨앗이 늦어 큰일이다.

◎ 4월 6일 (음 3월 2일) 금요일

… 날씨는 좋치 않은 날이 많고 일철은 닥아오고 걱정之事. …

◎ 4월 7일 (음 3월 3일) 토요일 雨

… 또 비가 와 급하게 갈았다. 午後부터는 심히 나리는 비는 繼續 나리여 밤새도록 나리였다. 기왕 올 바에야 많이 나리여 넙다리[높드리; 높고 메말라서 물기가 적은 논밭] 논에 물이나 많이 고였으면 한다. …

◎ 4월 10일 (음 3월 6일) 화요일 晴

… 오늘 아번님 家 가래질하여 朝飯 後에 아버님 家 일을 갈다. …

◎ 4월 21일 (음 3월 11일) 토요일 晴雲

푸근한 비가 나려야 할 텐데 물은 마러들고 흐렸다 개였다 할 분. 觀象台 發表에 衣하면 몇일 前엔 비 올 것 같지 않다고. 보리는 배서 콩나물 같이 자라나고 잇으니 쓰러질 것은 가지다. 보리는 숭년[흉년]이나 면햇으면 …

◎ 4월 22일 (음 3월 12일) 일요일 晴

…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흐려들어 비가 나릴까 햇더니 저녁을 먹고 나니 홀딱 벳기였다. 비가 좀 나려야 할 텐데 올 듯 올 듯하고선 개이니 가물 증조나 아닌가 걱정이다. 아논도 물이 아주 적다. 모짜리 중거름 물도 모자랄 것 같다. …

◎ 4월 23일 (음 3월 13일) 월요일 晴

… 아논 물이 벗석 주러 모짜리 물이 주지럽지 않을까 걱정. 앞 말 가웃지기도 물이 없다. 윗배미는 來日이면 물이 아주 없을 것이다. 푸근히 비가 나리였으면. …

◎ 4월 25일 (음 3월 15일) 수요일 細雨

종일토록 부슬부슬 비가 나리였다. 田穀에 아주 적당하게 나리였다. 나리기 始作한 김에 푸근히 나리여 넙드리에도 물이 많이 고여야 부秧을 할 텐데. (…) 물이 잇는 곳은 제법 고였으나 건가리엔 아주 멀다.

◎ 5월 8일 (음 4월 5일) 화요일 晴

날씨가 너무 가물어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午前엔 그럭저럭 하고 午後엔 앞 웅뎅이의 흙을 파내고 펏다. …

◎ 5월 9일 (음 4월 6일) 수요일 晴

… 오늘 종일토록 東南風 내지 南西風이 심히 불어 물이 벗석 벗석 줄어든다. 보리엔 더 잇다 오는 것이 좋으련만은 그래도 비가 많이 나리엿으면 한다. …

◎ 5월 10일 (음 4월 7일) 목요일 晴

… 날 일기 흐린 날씨로 바람만 심히 불어 물이 따라 간 듯이 마라들고 잇어 몇일 더 가물면 큰 소동이 날 것 같다. 우리 앞 말 가웃지기(上) 논은 벌서 마르고 미창배미도 걱정이다.

◎ 5월 11일 (음 4월 8일) 금요일 晴

… 바람이 심히 불어 물이 쭉쭉 말라든다. 2,3日만 해도 별 말이 없더니 오늘은 물에 대해 걱정을 한다. 아논 물도 중거름이 걱정이다. 논뚜랑이 드러난다. 서 말 가웃지기의 물을 좀 댔다.

◎ 5월 12일 (음 4월 9일) 토요일 雲

… 食前에 일어나 바깟을 내다보니 비방울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별로 올 듯하지 않다. 旱雨之短이라더니 곳 그치고 마랐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비가 적고 또 기다린다. 올해도 너무 가문다. …

◎ 5월 14일 (음 4월 11일) 월요일 晴雲

… 오늘 氣象台에 發表에 依하면 저녁에 비가 네릴 것이라 해서 모두 많이 나리길 바랬으나 맑게 개이기 始作해서 비는 올 것 같이 않다. 이거 너무 가물어 큰일이다. 푸근한 비가 내려야할텐데.

◎ 5월 15일 (음 4월 12일) 화요일 晴

… 아논 일곱 데지기 물이 많이 주러 이대로 10日을 더 못 참겠다. 朝飯을 마치고 앞 웅뎅이를 푸고 (…) 우리 닷 마지기 물도 적다. 이대로 몇일 더 가물면 물이 없어 아우성이 날 것이다. 아논도 모두 논뚜랑 여며 마갓다.

◎ 5월 16일 (음 4월 13일) 수요일 晴

논에 가보면 물이 따라가듯 줄어든다. 朝飯食事 後에 아논 일곱 데지기 물을 퍼 올리고서 點心을 먹고 소를 갈다가 아논을 갈고서 말 가웃지기의 물을 퍼올렸다. 오늘이면 아논 모두 물을 가두었다. (…) 午後에 논꼴 닷 마지기의 물이 너무 많이 줄어 논뚜랑을 몇 번이나 도랐다. 물이

아주 적다. 10日이 못 갈 것 같다. …

◎ 5월 17일 (음 4월 14일) 목요일 晴

… 妻와 압 웅뎅이를 폈다. 아논물이 많이 주릇다고 壹雨는 물 푼 사람을 뜻고 있다. 바람은 심히 불어 물 모금이나 잇는 것 말라붓기 좋게 되였다. 高棧 앞도 물이 얼마 없어 이대로 몇일 안 갈 것 같다.

◎ 5월 18일 (음 4월 15일) 금요일 晴

… 좀처럼 비는 올 것 같이 않다. (…) 농꼴 논을 一週하니 물이 페가 잇이 줄어든다. (…) 누군가 물싸움을 하고 있다. 너무 오래 가문다. 묻느니 언제 비가 나리느냐고 하건만 觀象台 發表도 비 온다는 말은 없다.

◎ 5월 19일 (음 4월 16일) 토요일 晴

… 날씨가 너무 가무러 氣象日報時間을 기다려 듯는 心情. 비가 언제나 나린다나 기다리는 마음에 잔득 기다려 들으나 오늘 來日까지도 비 온다는 희소식은 없다. …

◎ 5월 20일 (음 4월 17일) 일요일 晴

… 모짜리가 마르는 논이 많다. 큰 야단이다. 우리는 논꼴 논이 第一 급하다. 흉년이 들는지 너무 가문다.

◎ 5월 22일 (음 4월 19일) 화요일 晴

… 농꼴 壹雨 家 물꼬 관계로 三溪事業所人과 耘植과 한참 다투었다. 우리 논은 샘배미 및이라고 물 한 모금 구경 못한다. 물은 몇일 못 갈 것 같다. 밭원 모짜리배미도 물이 별로 없다. 앞 웅뎅이를 매일 푸것만 오늘은 말라붓겠다. 다소라도 왔으면 하는데 걱정이다. 저녁나절은 흐렸으나 비가 올 뜻 하지 않다. …

◎ 5월 24일 (음 4월 21일) 목요일 晴

… 人도 降雨을 나리게 한다는데 하로 속히 비가 오도록 했으면. 큰일이다. 비가 와야지.

◎ 5월 25일 (음 4월 22일) 금요일 晴

… 午前에 東風 午後에 西風이니 좀처럼 비는 올 것 같이 않다. …

◎ 5월 27일 (음 4월 24일) 일요일 雲

… 오늘 중으로 약간의 비가 나릴 것이라고 하더니 食前에 일어나니 비가 몇 방울 始作했으나 旱雨之短은 兵法에도 있다는데 올 듯하지 않다. …

◎ 5월 29일 (음 4월 26일) 화요일 晴

… 비는 기다리다 못해 아주 지처버렸다. 우리 먼점 심은 앞 말 가웃지기도 每日 웅뎅이 물을 푸것만 못 당해고 말라붓텄다. 밭원 3말 가웃지기 물이 몇일 못 가겠다. 잘 가면 3日 갈 정도다. (…) 人力으로 할 수 없는 비는 어이할 수 없다. …

◎ 5월 31일 (음 4월 28일) 목요일 晴

… 비가 안 와 큰일이다. 高棧 앞 골장이 물이 없어 못 심고 말라붓텄다. 高棧 아버지 家 9홉마지기도 물이 없어 틈이 같다. 노인들도 봄 가뭄이 이렇게 가무는 것은 처음 본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일 더 가면 심은 논도 못 먹을 것이다. 오늘 來日 기다리고 바라는 비는 좀처럼 안 온다. …

◎ 6월 1일 (음 4월 29일) 금요일 晴

… 氣象台發表에 희소식인 오늘 저녁에 비가 나릴 것이라고 하니 푸근히 나리여 목마른 大地우에 약이 되도록 바라고 기다린다. 오늘은 종일 東南風이 불어오긴 하것만 가무는 날이라 어이될 것인지?

◎ 6월 2일 (음 5월 1일) 토요일 雨

甘雨. 적우.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前夜에 제법 많이 나리였다. 비 오는 소리를 드르니 엊이 방가운지 한참이나 잠을 깨고 불을 켜놓고 앉아 잇다가 다시 자리에 드렀다. (…) 今般 나린 비는 곡식이다. 꿀과 같이 달콤한 비다. 오던 끝에 좀 더 왓으면. 今般 비에도 못 나가는 논이 많다. …

◎ 6월 4일 (음 5월 3일) 월요일 雲

… 今般 비가 우리는 3마지기를 내게 했다.

◎ 6월 11일 (음 5월 10일) 월요일 晴

… 날씨가 매우 더운 날이였다. 비가 와야겟는데 논은 마르고 큰일이다. 한 마지기와 닷 데지기는 아주 말라 발이 안 빠진다. 그 위의 논은 아직 그리 급[하]지는 않다. 農事철만 되면 항상 비를 기다려야 되고 하루 걸러 비가 와야 그 해에 풍작을 이루게 된다.

◎ 6월 12일 (음 5월 11일) 화요일 晴

… 푸근한 비나 나리엿으면. 午前엔 東南風 午後가 되면 西風으로 변하니 좀처럼 비가 올 것 같이 안은데 논과 밭은 갈증이 날 정도다.

◎ 6월 13일 (음 5월 12일) 수요일 晴

… 오늘 觀象台에서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더니 말근 날씨로 西風이 부는데 비는 올 것 같이 않다. 아논도 말라 몇일 못 갈 것 같고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도 몇일 안 갈 듯하니 비는 아주 기다려진다. …

◎ 6월 14일 (음 5월 13일) 목요일 晴

… 돌아가며 하기로 한 논매기가 물이 말라 제각금하게 될 모양이다. 논바닥 물이 마르니 급한 대로 매게 되였다. (…) 앞논은 물이 없으니 비나 와야 매게 되겠다. 항상 이맘때면 물 걱정을 하것만 今年 같이 雨量이 적은 해는 없다. 二三日來로 비가 와야겟는데 큰 걱정이다. …

◎ 6월 15일 (음 5월 14일) 금요일 晴

… 또 물도 말라든다. 당장 급다. 기다리는 비는 왜 안 올까. 기다리고 바라는 푸근한 비가 나리여 메마른 大地 우에 슨 온갖 곡식과 草木이 생기를 띠우고 즐거히 나풀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싱기스러우며[싱그러우며] 豊作을 알리는 생기띤 모 싹은 결실을 연상하는 우리 농군들의 希望에 온갖 들판에 심 든 줄 모르고 일하는 우슴꽃만 활짝 피울 것이것만 논을 돌고 오는 사람마다 긴 한슴에 말라가는 논에 돌돌 마리는 벼폭은 너무 가련하다. 비비비비비 푸근히 나리소서.

◎ 6월 20일 (음 5월 19일) 수요일 雲

… 午後에 비 몇 방울 나리고 말았다. 큰일 났다. 너무 가문다. …

◎ 6월 27일 (음 5월 26일) 수요일 晴

… 우리 논의 앞 한 마지기와 닷 데지기 말 가웃지기(上)는 아주 틈이 간지 오래고 가운데 논은 웅뎅이 바람에 아직 물끼가 반은 잇다. 아논도 물이 없어 비벼 놓았다. (…) 비가 와야지 비 안 오면 말도 아닌데 큰일이다. 老人들도 이러한 가뭄은 못 보앗다는 것이다.

◎ 6월 30일 (음 5월 29일) 토요일 晴

… 말할 수 없는 큰 가뭄이다. 政府에선 물을 길어다 논에 부라니 텅텅 갈라진 논에 얼마를 부어야 되며 길어다 불 물은 얻[어디]에 잇느냔 말이다. 탁상공론에 잇는 어리석은 말이고, 正조식 모심지 않은 것은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에게 뽀부라니 너무나도 지나친 짓이다. 말도 아닐 뿐더러 뽑다간 매 마자 죽일 일이다. 너무 극성을 피운다. …

◎ 7월 1일 (음 5월30일) 일요일 晴

… 今年에도 이대로 10餘日만 더 가물면 人力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못 먹게 될 것이 아닌가. 지난달 29日에 비 오곤 한달 래 비는 안 왔다. (…) 나는 일이 손에 안 잡히여 낮잠을 한심 잤다. 논이 다 말라 붓텃으니 일감도 없다. 또 할 氣分도 안 난다.

◎ 7월 2일 (음 6월 1일) 월요일 晴

가뭄은 如前히 繼續. 田畓은 몽조리 타들고 이러한 가뭄은 老人들도 못 보앗다고들 한다. 물모금이나 잇던 농골 논도 말라부텄다. 凶年도 凶年이려니와 (…) 氣象台 發表는 來日까지도 비는 안 온다니 타가는 논은 안타까울 뿐. 일도 손에 안 잡히여 한나절이나 잠을 자고 몬지[먼지]가 풋석이는 콩밭을 午後에 맸다. 장마철도 되것만 왜 이리 기다리는 비는 안 올까. 한참 除草作業에 奔주할 時期것만 모두 그늘 밑에 잇다. …

◎ 7월 3일 (음 6월 2일) 화요일 晴

… 오늘도 온갖 곡물이 갈증을 내고 있다. 혹여나 비가 올지 몰라 오늘 급히 보리 집을 다 노였다. 穀物은 많은 소출을 더렀다. 모이면 비 올 이야기로 해를 보낸다. 레디오에도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각 地方으로 웅뎅이 파기 양수기 보급 등으로 파견을 나같다고 한다.

◎ 7월 4일 (음 6월 3일) 수요일 晴雲

… 觀象台 發表는 오늘 비가 올 것이라더니 비는 안 왔다. 이달 10餘日 來에 비가 안 온다면 웅뎅이라도 파야겟는데 수일간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냥 잇는 것이다. …

◎ 7월 5일 (음 6월 4일) 목요일 晴

논 마르는 것 보기 실어 논에 안 가다가 午後에 논을 도니 벼 싹은 좋은 편이나 물이 없어 걱정이다. 농꼴 논은 물은 한 점도 없고 밭원도 물이 없고 아논은 틈이 가 발이 드러갈 程度다. 앞논은 뽀안 기가 난 지 오래고 닷 데지기는 매지도 않았다. 老人들도 이렇게 가무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싹은 좋으나 비가 와야지? 동욕굴은 비가 와도 못 심는다. 모가 썩었다. …

◎ 7월 6일 (음 6월 5일) 금요일 晴

종일토록 東南 及 東北風이 불더니 해 떠러질 무렵에는 西風이 일더니 흐려드는 날씨를 벗겨 버리고야 마랐다. 타드는데다가 종일 東風이 부니 벼 끝이 돌돌 말리고 볼 수 없다. 그래도 혹시나 비를 기다리고 安仲場으로 農藥(근잠) EBN을 두 병 사왔다. 240환을 주었다고 함. 안 끼언질랴고 했는데 근잠이 심하여 사왓는데 늣젓다. (…) 安仲 가는데도 물 잇는 논이 별로 없다고 한다.

◎ 7월 7일 (음 6월 6일) 토요일 晴

오늘도 東南 東北風이 종일 부럿다. 가물랴면 西風이 나흔데. (…) 앞 닷 데지기를 맬랴니 도저히 맬 수가 없어 그만 두었다. …

◎ 7월 9일 (음 6월 8일) 월요일 雲 細雨

… 종일 오락까락 한 비는 몬지도 축이지 않았다. 이리 오고 들면 곡식엔 도움이 없다. …

◎ 7월 10일 (음 6월 9일) 화요일 雲

그래도 비 왓다고 뽀숭뽀숭한 밭에 모종을 했다. 모종을 하고서 물을 길어다 모종에 주엇으나 우리는 그냥 두었다. 午後엔 고구마를 심었다. (…) 흡죽한 비가 나려야겟는데 이대로 날이 들면 큰일이다. 觀象台에선 태풍우가 잇을 것이라니 왜뚝이 터지고 할망정 이곳으로 지나가 많은 비가 왓으면 한다. 비가 많이 나려도 높다리 논엔 물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 7월 11일 (음 6월 10일) 수요일 雲 細雨

밀 그루를 갈았다. 비 온 것이라고 밭을 가니 뽀얀 흙이 나온다. …

◎ 7월 12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晴

기다리던 비는 멀리 떠낫으니 큰일이다. 왜 이다지도 今年엔 雨量이 적은 해란 말인가. 이번만 푸근한 단 비만 나렷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次日피일 하다가 그냥 들면 큰 凶年이다. (…) 午後엔 동욕꿀 논에 스슥(조)[서숙]를 가랐다. 지금 비가 와도 늦을 걸 날이 드럿으니 2, 3日 來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냥 代파를 햇다.

◎ 7월 13일 (음 6월 12일) 금요일 晴

… 웅뎅이 물을 푸고 (…) 午後에 農藥 뿌리던 것을 뿌리고 (…) 2,3日 來에 비가 와야 한다. 이대로 次日피일 밀다가 말숙기 무렵까지 비가 안 오면 아주 希望도 절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 7월 14일 (음 6월 13일) 토요일 晴

콩밭 除草. 마당 끝에 잇는 百日紅이 피였다. 百日紅 피운지 百日만이면 서리가 온다는데 날은 잘도 가것만 기다리는 비는 안 온다. 이대로 가물다가 큰 凶年을 만들 모양이다. 비가 오면 논의 除草를 할랴고 한 것이 農藥을 뿌리다 보니 농꼴 논은 풀이 많아 오늘 뜻어 줄랴고 가 종일 半은 햇을까 했다. 더딜 뿐더러 除草도 잘 안 된다. 뜨더 주는 것이다. …

◎ 7월 16일 (음 6월 15일) 월요일 雲

… 날이 가무러 흙이 뽀얀대다가 굳어 밭이 도저히 하기 어렵읍고 시붕정찮아 하는 둥 마는 둥 하였다. 마른 논 파다가 호미를 분질러 오늘 아버지 場에 가는데 사라 보냈다. 東南風 東風이 불어 논은 더 타드러가고 있다. 벌서 오래는 팻다니 날은 가물고 논에 물은 없고 어이될 판이냐.

◎ 7월 17일 (음 6월 16일) 화요일 雲

… 푸근한 비가 나렷으면. 저녁을 먹고 나니 비 오는 소리가 나 방가움에 잠이 안 올 지경이다. …

◎ 7월 18일 (음 6월 17일) 수요일 雲

前日 밤 不足한 비나마 단비가 나리여 많은 곡식을 주었다. 일직 일어난 나는 들을 가보니 터진 틈바구니로 물이 고였으며 농골 논은 밤작에 물이 잇고 깊은 곳은 물이 번적인다. 밭곡엔 알

맞고 논곡도 갈증은 면했다. 온 것 만큼만 더 와도 몇일 참을 것 같다. …

◎ 7월 19일 (음 6월 18일) 목요일 雲雨

적우. 甘雨. 오늘 날씨가 종일 후덥지근하고 하더니 午後 늦게부터는 쏘나귀로 한 줄기 퍼부었다. 저녁에도 몇 차례 비가 왔다. 엊이 방가운지 잠이 잘 오지 않아 들락날락하고 논에를 가보니 물이 많이 느렀다. 나는 오늘 앞 말 가웃지기를 소매기지 하고 午後엔 밭원 1마지기 피사리를 했다. 아 기다리던 비는 왔다. 갈증이 난 온같 草木을 해방시기였다. 많이많이 나렸으면.

◎ 7월 20일 (음 6월 19일) 금요일 雲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왔다. 갈증을 免할 수 없든 온같 森羅萬象은 단 하루가 새롭든 비는 나리였다. 食前에 일직 일어나 앞 논뚜랑을 밟앗다. 앞 왜뚝을 잘라 노아 풍족하나 그냥 고인 곳은 아직도 不足하다. 아논 일곱 데지기는 물이 없다. 새벽부터 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나, 나도 일직 일어나 논뚜랑 손질을 하고 동욕굴은 대파를 해서 그냥 두기로 하고 건모 부은 것을 몇 임심고 妻는 음물 옆논을 심는다고 하여 심고는 …

◎ 7월 22일 (음 6월 21일) 일요일 雲

어제 저녁에도 비가 나리였다. 아주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만해도 우리 農君의 한시름을 덜어주었다. 앞으로만 雨順風調해도 큰 凶年은 면할 듯하다. 우리 집 앞논은 만은 소출이 감소될 상십다. 이번 비에 많이 피여 났다. …

◎ 7월 23일 (음 6월 22일) 월요일 雨雲

오늘도 많치 않은 적당한 비가 나리였다. 나는 午前 中 잠을 잤다. 午後엔 아논 일곱지기의 논뚜랑을 밝고 앞밭 달뱅이를 맸다. 아논 일곱지기는 물이 없다. 觀象台에서 오늘 夜에 暴雨가 나릴 것이라고 하여 많은 걱정을 햇다. 비는 자주 자주 나려야겠다.

◎ 7월 27일 (음 6월 26일) 금요일 晴

… 午後에 무덥든 날이 西風이 일어 아주 시원하여 앞 말 가웃지기 除草作業을 하다가 냉기였다. (…) 한 줄기 쏘나귀라도 푸근히 나리였으면 아논 일곱 데지기는 물이 아주 없어 每日 같이 바가지로 푸고 잇으나 앞턱만 물이 비치고 만다.

◎ 7월 28일 (음 6월 27일) 토요일 雲

흐린 날씨에 東南西風이 심히 불어 종일토록 일 하기엔 알마즌 날씨다. (…) 날이 가문 탓으로 洞里 除草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 7월 29일 (음 6월 28일) 일요일 雲

東南風이 종일 심히 불어 이 바람 끝에 오면 많이 오고 안 오면 여러 날 가물 것인데 곳 비가 와야겠는데 그냥 들면 큰일이다. …

◎ 7월 30일 (음 6월 29일) 월요일 雲

東南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히 불고 있으나 비는 올 것 같이 않다. 이대로 날이 들면 큰일인데 한번만 푸근히 나리면 한재는 면하는 것인데 今年엔 왜 이리 속을 태우나. …

◎ 7월 31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날씨는 그냥 들고 마랐다. 기어코 今年 農事를 큰 凶年으로 만들고야 말 것인가. …

◎ 8월 10일 (음 7월 11일) 금요일 晴

… 몇일만에 논뚜랑을 거실를라고 논에 가보니 벼가 많이 나오는데 모두 거문 점이 백여 팬다. 날이 가물러선지 아니면 몇일 前에 바람으로 인지 알 수 없으나 많이 점이 백여 나오는데 잘 결실이 될 것인지? …

◎ 8월 17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雨

기다지리 않은 비는 종일토록 나리였다. 몇일 前 비람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기다리지 않은 비가 이렇게 많이 나리면 피해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우리 농사는 더욱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일직 되고 패서 거문 이삭이 아주 많고 쥐가 첫다. 요즈음 패는 벼이삭은 아주 잘 나오고 이삭도 좋다. 이삭 나오자 심한 비람 탄 것은 반 소출이다. 이래저래 흉년이다. …

◎ 9월 6일 (음 8월 8일) 목요일 雨

종일토록 많은 객수가 나리여 農作物에 지장이 아주 많다. 午後에 논이 엊이 되였나 가보니 아논 밭원 等 모두 危險하고 아논은 쓰러졌다. 앞 말 가웃지기(上)도 5坪 가량 아주 쓰러졌다. 필

요없는 객수로 농작물 피해 막심하며 사람의 심정을 게룹하게 한다. …

◎ 9월 7일 (음 8월 9일) 금요일 雲雨

…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비바람이 强해 잠을 이루질 못하고 안절부절 했다. 다 지워 논 農事 전부 쓰러지는 것 같다.

◎ 9월 14일 (음 8월 16일) 금요일 雲晴

몇일 동안을 해빛을 못 보다가 오늘 午後에 해빛을 보게 되니 가을의 상징이 더욱 빛나고 黃金色으로 물 드러가는 들이 유난히 빛나 보인다. 몇일 안 잇으면 벼 비기도 始作될 것이고 五穀의 추수기도 다가오고 있다. …

◎ 9월 17일 (음 8월 19일) 월요일 雨雲

不必要한 비는 밤새도록 나리고 오늘 낮도 종일 오락까락 했다. 우리 논은 많은 被害를 보았다. …

◎ 9월 19일 (음 8월 21일) 수요일 雲

… 前日 하로 날이 좋터니 오늘 또 흐려 드러 午後엔 비기 또 오기 始作해서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하로 속히 모든 穀植이 익어야 할 時期 것만 날씨가 이러고 보니 가을 秋收가 늦어가고 잇다. 昨年 같으면 벼를 벌써 비였것만 今年엔 아직도 푸른 들이 가시질 않는다. 今年엔 보기 드문 가뭄이 오더니 또 가을엔 보기 드문 장마가 繼續되고 있다.

◎ 9월 22일 (음 8월 24일) 토요일 雲

… 날 일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가을 일이 더디어 가고 우리는 쌀도 떠러저 간다. 來日 벼를 빌랴 햇으나 날이 흐려드니 걱정이다.

◎ 9월 23일 (음 8월 25일) 일요일 雲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안팟 원안이 물이 끼였다. 쓰러진 우리 논은 물이 쟁기였다. 싹이 날 것이다. (…) 피해 막심한 비는 왜 이리도 오는지?

◎ 10월 10일 (음 9월 12일) 수요일 雲雨

… 마실을 같더니 비가 많이 오기 始作해서 추녀 밑에 똘물이 제법 네려간다. 밤에도 그치지 않고 많은 비가 나리였으니 들에 있는 벼단이 거이 다 말라가는데 걱정之事인 걸.

◎ 10월 11일 (음 9월 13일) 목요일 雲

前夜에 많은 비가 나리여 구중중한 것이 아주 일하기에 나뿌다. 오늘 아번님 家 일을 한다고 했으나 날이 좋이 안아 來日한다고 한다. …

◎ 11월 3일 (음 10월 7일) 토요일 雲

오늘 일날이 富平 아주머니 家 脫穀일인데 前夜에 비가 온 고로 오늘 일을 못했다. …

1963년

◎ 3월 4일 (음 2월 9일) 월요일 晴

보리밭 施肥. 朝飯食事後에 보리밭에 비료를 끼얹고 글을랴고 하니 땅이 얼은 것이 아직 녹지 않아 글끼가 좋지 않더니 午後엔 좋으나 아랫도리는 진편이다. 날이 가물어 걱정들을 하고 있다. 昨年엔 10일이 지나서 보리밭에 비료를 주었으나 보리가 피여 나질 않아 좀 일직 施肥한 심이다.

◎ 3월 18일 (음 2월 23일) 월요일 晴

… 바람만 심이 일고 비는 안 오니 농작물에 많은 손해가 있다. …

◎ 3월 19일 (음 2월 24일) 화요일 晴雲

東西風이 종일 심히 불어왔으나 비는 올 것 같지 않다. 이 바람 後에 비 와야지 안 오면 비는 아주 멀리 가는 것이다. 날씨는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로 바람만 심하였다. …

◎ 3월 28일 (음 3월 4일) 목요일 雨

밤 어느 때나 되었는지 비 오는 소리가 난다.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오기 始作했다. 오는 끝에 풍족히 나리였으면 한다. 食前에 일직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雨량을 보았다. 보리에는 만족할 만하다. 오든 끝에 앞 논에 물이 그득히 고이도록 나리였으면 한다. (…) 앞 말 가웃지기에 깜뚝물이 不足이다.

◎ 4월 1일 (음 3월 8일) 월요일 雲

… 천동도 하여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비는 한 방울 없이 날천둥이였다. 새벽녘에 일어나 나

가보니 지붕은 그만하나 집까리[짚가리] 옆은 날라 같다. 집까리와 지붕을 손질하고 나니 바람은 덜한 것 같다. 오늘 감자 갈랴 했으나 바람에 못 갈겠어 …

◎ 4월 8일 (음 3월 15일) 월요일

오늘 모짜리를 갈랴고 한 것인데 午前부터 비가 부슬부슬 나리여 못 갈았다. 朝飯食事 後에 집까리를 다시 쌓고 그럭저럭 했다. 今年에 節期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모짜리를 일직 해야겠는데 봄날씨가 고로지 못하여 일이 몰리고 있다. …

◎ 4월 15일 (음 3월 22일) 일요일 雨

… 어제 저녁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午前 中 많은 비가 나리여 어제 일한 말 가웃지기 떼 입힌 것이 모조리 트티고 말이 아니여 몇 군 데 말을 박고 약간의 손질을 했다. …

◎ 4월 17일 (음 3월 24일) 수요일 雨

어제 저녁에 호우가 나리여 물이 벌창을 했다. 앞 논뚜랑들이 질질 넘는다. 소를 갈다가 한 마지기와 닷 데지기 논뚜랑 깜뚝을 했다. 朝飯食事 後에도 또 많은 비가 나리였다. 칠월 장마철 비오듯 한다. 논뚜랑이 넘어가고 물소동이 났다. …

◎ 4월 18일 (음 3월 25일) 목요일 雨

오늘도 비가 나리였다. 今般에 온 비는 거이가 다 객수다. 여러 차례 자주 나리였으면 좋았으련만 많이 필요 없이 오고 가물면 소용없다. (…) 씨나락이 독 속에서 싹이 나 가마니에 건젓다. 밭원은 벌창을 했다. …

◎ 5월 4일 (음 4월 11일) 토요일 細雨

… 비가 덜 오는 것이라 모짜리에 가보니 씨가 많이 가랜다. 그눌 적엔 별로 가래는 줄 몰랐더니 싹이 나오는데 푸른색으로 안 나오고 희게 나오다가 끝이 꼬부라져 들어간다. 벼알을 보니 거문 빛이 난다. 그러고 보면 1/3은 되는데 모짜리가 큰 걱정이다. 해마다 속을 쎅이지만 今年과 昨年이 第一 많이 가래는 것 같은데 더 두고 보아 모짜리를 더 할까 한다. …

◎ 5월 9일 (음 4월 16일) 목요일 晴

바람이 일고 건조하니 물이 따라 가는 것 같이 준다. 앞 닷 데지기와 한 마지기는 이대로 가다간 移秧은 못할 것 같다 비가 한 축 더 나리였으면 좋겠다. …

◎ 5월 26일 (음 윤 4월 4일) 일요일 雨

새벽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 종일 부슬부슬 나리였다. 보리는 모조리 쓰러졌다. 비는 자주 와야지만 기다리지 않던 비였다. 종일 오더니 저녁이 된 후엔 더 많이 나리였다. …

◎ 5월 30일 (음 윤 4월 8일) 목요일 雨

물소동. 惡水같은 비는 밤새도록 오늘도 종일 나리어 일대 물소동을 이루었다. 논뚜랑이 잡아지고 논뚝이 지치고 안밭 원안이 물이 저수해 논 것 같다. 우리 모 심은 것이 물이 끼고 모짜리는 모 끝이 잘 안 보일 程度다. 찰벼 모는 느러져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찔레꽃 머리에 비 안 온다는 것인데 今年엔 아논에 施肥를 했는데 물이 꼈으니 손실이 많을 것이다.

◎ 6월 10일 (음 윤 4월 19일) 월요일 晴

… 참깨는 농꼴 밭원에 심은 것이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전부 파묻혔다. (…) 앞들도 우덩기로 물이 넘어간다. 봄비가 많이 온 관계로 물 걱정은 안 했다.

◎ 6월 14일 (음 윤 4월 23일) 금요일 晴

날씨는 매우 무더운 날씨로 바람이 심히 불더니 물이 많이 줄었다. 2,3日 來에 비가 좀 나리여야 田穀에도 좋으려니와 畓의 모도 좋을 것이다. (…) 우리 논은 농꼴 밭원이 물이 적은 편이고 나머지 논은 그리 급지 않다. 농꼴 아논과 밭원 논은 물이 많다.

◎ 6월 15일 (음 윤 4월 24일) 토요일 晴

농꼴 보리 비다. 食前에 논을 一週하니 농꼴 밭원은 물이 급하다. 몇일 來로 비가 와야겠는데 朝飯食事 後엔 妻와 같이 농꼴 보리를 비고 午後에 그루를 갈고 일러 보리를 떨었다. …

◎ 6월 16일 (음 윤 4월 25일) 일요일 雲

… 일직 끝나 비도 올 것 같고 해서 앞밭 보리를 비였다. 비가 오게 되면 보리를 비여야 했을 것인데 妻는 참깨 밭을 맸다.

◎ 6월 17일 (음 윤 4월 26일) 월요일 雨

… 제법 비가 나리여 아주 정당히 나리였다. 보리를 못 빈 것이 걱정이라 몇 뭇 비다가 말고 농꼴 밭원에 물뚤을 내고 물을 댔다. 저녁에도 비가 나리였다. 보리나 비고 그루나 갈았으면 좋왔을 것을. (…) 安雨 家 모 논매기 일을 해달라고 해서 日氣가 좋지 않아 갈까 말까 했다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같다. 농꼴 難氏들을 얻어 일하는 데 같이 했다.

◎ 6월 19일 (음 윤 4월 28일) 수요일 雲雨

食前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일이 많이 몰려 前日 빈 보리를 띨고 朝飯 後에는 보리를 비였다. 안개비가 오락까락 했다. 午前까지 비고 午後엔 妻 혼자 비고 나는 떨었다. (…) 저녁나절은 여기도 오기 始作해서 보리를 떨다 급히 치우고 비를 맛고 보리는 다 끌었으나 떨지는 못했다. 보리집은 그냥 썩을 것 같다. 날이 들고 몇일씩 있다가 와야 할 것인데 한참 바쁜 판에 장마가 들어 농민들의 조바심 더욱하다.

◎ 6월 20일 (음 윤 4월 29일) 목요일 雨晴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나리여 보리 짚이 쓰러져 물이 들어갔다. 아직도 날이 개이지 않았으니 피해막심이다. 午後엔 날이 들었다. …

◎ 6월 22일 (음 5월 2일) 토요일 雨

… 觀象台 發表에 依하면 中部地方에 오늘 호우 主意報를 내리였으나 일들을 같다. 高棧 앞 9마지기을 始作해서 거이 다 끝날 무렵부터 始作한 비는 쏘나귀로 많이 나리여 저뚜리 먹고 못했다. 비는 아주 많이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뚝이 지치고 비는 여전히 나리였다. …

◎ 6월 27일 (음 5월 7일) 목요일 雲

… 午後부터 또 흐리기 始作해서 매우 걱정이 된다. 몇일만 참아주었으면 그루나 갈아 치웠으면 한다. …

◎ 6월 28일 (음 5월 8일) 금요일 雨

폭우. 어제 저녁부터 또 오기 始作한 비는 오늘 종일 나리여 물소동이 났섰다. 安雨 일인데 품을 미였다. 이번 장마로 인해 우리는 밭이 질어 콩을 못 갈아 그루가 늦어간다. 날이 들어도 몇일 있어야 밭에 드러갈 것이다. 10餘日 後에나 비가 와야겠는데 오늘 몇 뭇 비여 놓은 밀을 탈곡기로 떨었다.

◎ 6월 29일 (음 5월 9일) 토요일 폭우

물소동. 어제 저녁 밤새도록 물난리를 이루어 왜뚝 가진 집은 잠을 못자고 도라다니였다. 나도 견디다 못해 아논 왜를 다녀 보니 괜찮아 그냥 도라와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안온다. (…) 洞里 앞 왜뚝이 몽조리 지처 네리고 했다. 논을 一週하니 안팟 원안이 물이 채이여 모 끝이 안 보이고 아논 물꼬자리는 벼뭇내기나 쓸렸다. 농꼴 가 보니 밭원 밭뚝이 지처 벼 3, 4束은 버리도록 지처 오늘 대충 파 언젓다. (…) 이번 비로 피해가 많다.

◎ 7월 3일 (음 5월 13일) 수요일 雲雨

… 오늘 日氣도 不順한 날씨였다. 비가 오락까락 하고 東南風이 부니 稻熱病은 가시지를 않고 어제보다 더 퍼져 간다. 앞말 가웃지기(下)는 二化명無이 심하여 아주 볼 수 없이 심하다.

◎ 7월 7일 (음 5월 17일) 일요일 雨

… 今年엔 웬일인지 雨量이 많아 田作物에는 아주 많은 피해를 주었다. 꼬추밭이 물 속에 있어 노랗게 뜨고 있고 아직도 그루를 못 가랐으니 큰 걱정이다. 畓穀作物에도 습度가 많아 稻熱病이 아주 심하다. 종일토록 비는 나리였다.

◎ 7월 1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 날씨는 맑은 날씨였으나 東南風이 불어 稻熱病이나 더 심하지 않을까 한다. 稻熱病이 날로 심하여 마지못해 오늘 里長이 安仲場에 가신다고 해서 農藥 세린산석회 半包갑 125원을 드리였다. 도청 稻熱病이 심하여 農藥 사기도 힘들다고 한다. …

◎ 7월 1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雲

… 東南風이 종일 불어 穀植에 매우 좋지 않다.

◎ 7월 16일 (음 5월 26일) 화요일 雲雨

… 東南風이 심하여 농작물에 지장 막심. 비가 오락했으나 앞 말가웃지기 上下除草.

◎ 7월 23일 (음 6월 3일) 화요일 雨

… 今年엔 웬일로 하루 좋은 날 없이 이리 비가 많을까. 비로 因해 피해 막심하여 神經질을 늘 낸다. …

◎ 7월 24일 (음 6월 4일) 수요일 雲雨

오늘 날씨도 東南風이 强하게 불며 비가 오락 까락 했다. 하루 한날 좋은 날씨가 없으니 農作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

◎ 7월 25일 (음 6월 5일) 목요일 雲雨

… 繼續되는 좋지 못한 비바람으로 因해 벼 끝이 타고 싱싱해 보이지 않는다. 겉에서 보니 농꼴 논(밭원)이 아주 노라 이삭거름으로 5되가량 같고 가 줄랴 하니 덜 된 논도 아니려니와 또한 더 될 것만 같다. 약간식 날리였다. …

◎ 7월 29일 (음 6월 9일) 월요일 雲

종일토록 흐린 날씨로 東南風이 심하였다. 今年엔 봄부터 볕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 아니면 흐리고 흐리지 않으면 바람이 심한 좋지 못한 날씨다. …

◎ 8월 3일 (음 6월 14일) 토요일 晴

… 인제 지루한 장마철은 멀리 간는가. 이러다가도 짓궂은 큰 구름이 몰려와 우리들의 얼굴쌀을 찌푸리게 한다. 今年엔 너무도 많은 비가 우리를 게롭혔다. 7, 8日 내지 10餘日 더 있다 비가와도 좋겠다. 우리 人間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自然에 마낄 수밖에 없다. …

◎ 8월 11일 (음 6월 22일) 일요일 晴

… 安仲場에 가다 보니 水村 지나선 물마른 논이 많고 비가 안 온다고 걱정들을 한다. 이대로 더 몇일만 가물면 많은 소출 감소라고 한다. 田穀은 많은 감소라고들 한다. 五日만큼씩 비가 와야 농촌엔 알맞다. 우리 논곡은 과히 급지 않다. 날로 김장이 늦어간다.

◎ 8월 14일 (음 6월 25일) 수요일 晴

어제 저녁에 제법 많은 비가 나리었다. 농작물에도 알마지려니와 김장 갈기는 적당하다. 아주 알맞게 나리였다. …

◎ 9월 14일 (음 7월 27일) 토요일 晴

비가 좀 나려야 김장이 피여 날 것인데 김장이 오고라진다. 벼 한참 필 5,6月이 이렇게 가물렀으면 큰 소동이 날 뻔했다. …

1964년

◎ 1월 4일 (음 11월 20일) 토요일 晴

… 겨울이란 눈이 쌓이고 날씨도 冷해야 겨울 맛이 나는 것인데 今年엔 웬일인지 도라올 봄에 病이 많겠다는 여론에 걱정이 된다. …

◎ 1월 6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晴

춥지 않은 小寒 없다더니 今年엔 小寒답지 않다. 도라올 今年 농사가 걱정이다. …

◎ 3월 26일 (음 2월 13일) 목요일 風

… 바람이 더 심하여 지붕 걱정에 큰 걱정이다. 그 부락도 지붕이 말이 아니다. 집에 오는데 괜신이 왔다. 더 심히 부는 바람에 길을 걸(을) 수 없다. 집에 와 보니 지붕은 괜찮으나 저녁을 먹고 나니 바람이 불드니 사랑채 지붕이 말이 아니다. 용구새가 날라가고 지붕이 뒤지고 야단이다. 눈을 뜰 수 없어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방에 드러왔더니 해가 떠러진 後에 덜하다.

◎ 3월 28일 (음 2월 15일) 토요일 雲

… 어제 트른 용구새을 올려놓고 午前 中 지붕을 손질하고 것[겉]고삿을 맸다. 午後엔 집가리을 손질하고 앞 담을 손질해고 담 용구새을 틀었다. 종일토록 어제 바람으로 파한 손질로 해를 보냈다.

◎ 4월 7일 (음 2월 25일) 화요일 雲

가을날 같이 안은 봄 날씨라 비 개인 날 싸늘한 바람이 심하고 차거웁다. 물이 잽힌 논을 그냥 둘 수 없어 소를 갖다가 깜뚝을 했다. …

◎ 4월 15일 (음 3월 4일) 수요일 雨

자다 일어나니 비오는 소리가 난다. 자고 일어나니 비는 제법 많이 나리여 논뚜랑이 질름그린다. (…) 午後에 모짜리을 가보니 벼뿌리가 들고 일어나 많이 버리였다. 비는 폭우로 종일 나리여

논뚜랑들이 자빠지고 야단이였다. 객수라 보리엔 아주 덜 좋다. 今年에도 보리농사는 흉년이겠다. …

◎ 4월 17일 (음 3월 6일) 금요일 雨

오늘도 종일 나린 비는 물소동을 이루었다. (…) 今般 나린 비는 아주 많은 피해를 주었다. 보리농사는 막심한 피해 흉년을 면치 못하겠다.

◎ 4월 19일 (음 3월 8일) 일요일 폭우

어제 밤새도록 주룩주룩 나린 비는 물을 벌창이 되였으며 오늘 낮에도 끝일 줄 모른 비는 왜뚝을 질름거리였다. 昨年에도 요즈음 비가 많이 나리더니 今年에도 많은 비가 나리여 많은 피해을 주고 있다. (…) 아직도 몇일 더 나릴 것이라니 큰 걱정이다. 모짜리는 물속에서 논뚜랑이 묻히고 있다. 논뚜랑이 자빠지고 왜뚝이 터지고 물소동이다.

◎ 4월 20일 (음 3월 9일) 월요일 雲

몇일 장마로 시달린 農民들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날은 안 들었다. 今般 나린 비로 인해 가래질은 헛했으며 여기저기 지쳐나린 논뚜랑 밭뚝 等 말할 수 없이 일을 많이 주었다. …

◎ 4월 21일 (음 3월 10일) 화요일 雲

날은 오늘도 들지 않고 東南風으로 비를 몰고 있다. 朝飯食事 後에 여물 몇 뭇을 쓸고 安仲場으로 갈다. 新浦로 가며 車을 타고 보니 今般 장마 피해 막심하다. …

◎ 5월 1일 (음 3월 20일) 금요일 雨

초저녁부터 始作한 비는 끝일 줄 모르고 오늘 낮도 종일 나리였다. (…) 비가 종일 나린 고로 가마니을 짰다. 보리는 아주 흉년을 만났다. 쓸대없는 비로 봄일도 많이 밀리고 五穀에도 막대한 손해다. …

◎ 6월 14일 (음 5월 5일) 일요일 쏘나귀

… 10時 頃에 쏘나귀가 나리여 비를 기다리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급한 대로 비는 되였다.

◎ 6월 27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 날이 몇일 가물어 물 마르는 곳이 많다. 우리 동욕꿀 논도 2,3日갈까 말까. 우리 앞 논이 우리 일날까지 갈까 걱정이다. 이대로 몇일 더 가물면 큰일이다. 아주 여러 날 가물다.

◎ 7월 1일 (음 5월 22일) 수요일 雨

… 엿 마지기을 除草하고 새밥[새참]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급기야 풀을 비고 마랐다. 적우다. 아주 감 마차[맞추어] 왔다. 기다리던 비는 왔다. 집에 와 한참을 느러지게 잤다. …

◎ 7월 2일 (음 5월 23일) 목요일 雨

오늘도 비가 나리여 우리 일을 못하게 되였다. 今年 나린 비는 農村에 있어 아주 적우다. 논이 마르기 始作해서 비가 나리였으니 얼마나 좋으나 바람이 이룬 고로 꼬추는 쓰러진 것이 많다.

◎ 7월 4일 (음 5월 25일) 토요일 雲

… 2,3日 後에 장마가 올 것이라 해서 걱정이다. 장마 準備도 準備려니와 왜뚝이 걱정이다. 오늘도 東南風이 종일 부렀다.

◎ 7월 14일 (음 6월 6일) 화요일 雲 쏘나귀

오늘도 일을 못했다. 除草를 다핸 집은 개운하겠으나 우리는 2,3日 더 있어야 일날인데 오늘도 비가 오는 관계로 일이 물리였다. 食前에 쏘다지는 비 소리는 똘물 소리와도 같애 조바심에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쏘다지니 왜뚝이 요절나는 줄 알았더니 비가 덜 오는 듯해서 들에 가보니 괜찮다. (…) 6名이 앞 두마지기 냉기고 했다.

◎ 8월 8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雲 쏘나귀

食前에 妻가 급히 깨우는 소동에 일어나니 앞 원뚝이 터트리었다. 원뚝의 물이 넹겨 배끼니 큰일이다. 급히 뛰어가니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밭원뚝을 막는 데 協助했다. 朝飯 後에 원뚝 막는 데 갈려고 했더니 쏘나귀가 쏘다지기 始作해서 물소동이 났다. (…) 쏘나귀는 오락까락 今年엔 과연 쏘나귀 풍년.

◎ 9월 2일 (음 7월 26일) 수요일 雨

장마는 오늘도 많은 비를 나리였다. 이번 장마로 우리는 많은 피해을 주었다. 꼬추가 거이 다 썩어간다. (…) 비바람 치면 걱정들을 하나 우리

는 벼가 안 되여 걱정할 논은 없다. 앞논 10餘束 가량 쓰러졌다. 몇일이나 더 나릴 것인지? 하로 속히 날이 들어야겠는데. …

◎ 9월 4일 (음 7월 28일) 금요일 폭우

… 피사리을 하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집에 와 點心을 먹고 나니 아주 많이 와 저녁나절은 폭우로 今年들어 第一 많이 나리였다. 洞里 피해도 第一 많다. 앞 안우 家 왜뚝이 트저[터져] 우리 일곱 데지기도 큰집 밭에서 복쌔가 들어왔고 농꼴 밭원 밭뚝이 지처 나리였다. 洞里 왜뚝이 2, 3군데 터지였다. 물이 벌창이 되여 물소동이 한참 일어났다.

◎ 9월 20일 (음 8월 14일) 토요일 雲

흐린 날씨로 農民들의 마음을 개운하지 못하다. 추석이라야 新穀도 못 잡았을 뿐 아니라 비에 지친 國民들의 마음 한가롭지 못할 것이다. …

◎ 10월 20일 (음 9월 15일) 화요일 雨

食前부터 始作한 비는 종일 부슬부슬 나리였다. (…) 들에 벼가 그냥 있어 이번 비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거이 말라가는 벼뭇이 또 젖었으니 아주 덜 좋다. 몇일은 일이 밀려간다. 2,3日來에 벼는 못 들어올 것 같다.

◎ 10월 21일 (음 9월 16일) 수요일 雲

어제 나린 비로 많은 피해가 왔다. 오늘도 일을 못하게 되였다. 거이 말라가는 벼도 다시 말려야 겠으니 2,3日來에 못 실게 된다. 일꾼은 영을 역으라고 했다. …

1965년

◎ 3월 15일 (음 2월 13일) 월요일 雲雨

밤새도록 소란스러운 천동소리는 食前 頃에 덜했다. 비도 부슬부슬 나리며 보리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앞 논들은 물을 전부 놓처 물이 늘지 않는다. 午前 中 부슬부슬 봄비는 감우이다. …

◎ 3월 20일 (음 2월 18일) 토요일 晴

… 풍산한 날씨다. 봄일이 밀리였것만 날씨가 나뿌니 일이 손에 안 잡히여 종일 노랐다. …

◎ 3월 26일 (음 2월 24일) 금요일 晴風

… 下午엔 바람이 심하고 냉하여 그냥 밭매기을 中止했다. 비가 촉촉이 내리여야겠는데, 今年 봄엔 바람이 심하여 今年 農事가 어이될 것인가 걱정이다.

◎ 3월 29일 (음 2월 27일) 월요일 晴風

… 바람이 매일 같이 심하여 아논 물이 벗석 줄고 모짜리 물이 안 된다. 물을 가두게 되었다. 논뚜랑이 나왔다. 앞논도(下) 말 가웃지기 물이 버 폴기가 나왔으니 이대로라면 早秧은 그르었다.

◎ 3월 31일 (음 2월 29일) 수 雲風

早飯食事 後에 소를 갈다가 감자 꼬추을 갈았다. 바람이 심히 불어 차 피우기가 말이 아니다. 몇 짐 펐으나 전부 날리였다. 제대로 못 폈다. 저녁나절은 비가 오락까락 해서 급히 서둘러 다했으나 꼬추 감자가 적을 듯하다. 오는 끝에 좀 푸근히 나리였으면.

◎ 4월 1일 (음 2월 30일) 목요일 晴風

날씨가 가물어 아논 물도 논뚜랑이 들어나고 보리밭도 피여나질 않아 今年 맥 농사도 아주 감소다. 앞 말 가웃지기 밑배도 물을 놓치고는 물이 없어 물가리가 안 될 것 같으니 건가리가 5마지기나 된다. 금년에 降雨量이 아주 적다. 웬일인지 바람은 심하여 不安하게만 한다. 모처럼 만에 바다에 가 맛을 4사발가량 잡아와 피곤하여 누었다.

◎ 4월 3일 (음 3월 2일) 토요일 晴風

… 날씨가 가물으니 앉으면 비 걱정이다. 오늘도 모인 자리에서 밭원엔 물이 많고 아논엔 물이 없으니 밭원물을 아논으로 퍼올리자고 議論이 되었다. 참으로 넘어 가물다. 보리엔 막심한 손해다. …

◎ 4월 9일 (음 3월 8일) 금요일 晴風

날이 여러 날 가물으니 農民들이 기가 죽어 한숨뿐이다. 하늘을 쳐다보며 한식 보리엔 막심한 손해이고 畓農事 準備도 서두를 기운이 없다. …

◎ 4월 10일 (음 3월 9일) 토요일 晴風

오늘 가래질을 할라고 날을 잡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西쪽 하늘이 뿌연 것이 큰바람이 일어오고 있다. 朝飯食事 後엔 바람이 일기 始作해서 흙바람이 종일토록 일었다. 일날을 물리였다. (…) 날마다 바람으로 비는 안 오고 아주 不安하다.

◎ 4월 11일 (음 3월 10일) 일요일 晴

… 食前에 일음이 얼어 일을 못할 줄 알았으나 바람은 심했지만 과히 추운 날은 아니였다. (…) 날이 가물고 바람이 심하니 農民들의 氣分이 떨어진다. 어이 될 것이냐? 물이 많은 곳은 농꼴, 밭원도 많은 셈이다.

◎ 4월 12일 (음 3월 11일) 월요일 晴

인제 아논 물도 3,4日이 못 갈 것이다. 3,4日이면 가래질 할 것이다. 우리는 아논 일급 데지기에 물을 폈다. 來日 갈까 生覺한다. 아논에 물이 없는데 모짜리를 生覺한 것이 잘 한 것일까? 다른 곳은 모짜리을 못하게 되였다고 야단들이다.

◎ 4월 14일 (음 3월 13일) 수요일 晴

… 날씨는 黃土風으로 물모금이나 있는 것을 딸아가고 우리 農民들의 간장을 태운다. 모짜리가 걱정이다. 보리엔 흉년이다.

◎ 4월 15일 (음 3월 14일) 목요일 晴

오늘도 마찬가지의 날씨로 連續되니 큰일이다. 日政의 소화 14年度가 이리 가물었다는데 그때와 같은 흉년이 온다면 나라의 구급은 어려울 것이다. …

◎ 4월 17일 (음 3월 16일) 토요일 晴

… 오늘 종일 우기가 있었다. 비가 나리여야 할텐데, 나라는 어수선하고 비는 안 오고 不安에 잠겼다. (…) 農村에선 비 안 와 한숨.

◎ 4월 22일 (음 3월 21일) 목요일 雲細雨

… 비가 부슬부슬 나리는 밤거리를 걸어왔다. 오는 끝에 푸근히 나리였으면 한다.

◎ 4월 23일 (음 3월 22일) 금요일 雲細雨

자고 일어나니 이슬 오듯 나리는 비는 감질이날 程度다. 푸근한 비를 기다리것만 왜 귀할까? 아주 不足이다. 땅도 안 축었다. 비가 안 와 큰일이다. 종일 그럭저럭.

◎ 4월 25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晴

어제 저녁에 겨울 땅을 추글[축일] 程度로 비가 왔다. 소를 부릴까 했으나 아번님이 부린다고 해서 末日 부릴라고 농꼴논 앞밭원 等 풀을 뽑고 뒤엄을 폈다. 비가 안 와 큰일이다. 다른 곳에선 모짜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이 동리는 모짜리는 고통이 없다.

◎ 4월 28일 (음 3월 27일) 수요일 雲

흐린 날씨가 지나더니 저녁나절은 부슬부슬 비가 始作했다. 오기 始作한 김에 푸근히 나리 기을 바랐다. 下午에 농꼴 모자리에 같더니 아직 그누기는 머른 듯하나 苗板이 깨끗지 않아 물을 뺐다. 씨가 많이 몰리고 또 오리가 와 놀았다. 모자랄듯하여 걱정인데 그누어 보아야 알듯하다.

◎ 4월 29일 (음 3월 28일) 목요일 細雨

오늘도 종일 가랑비가 오락가락 했다. 보리엔 많은 도움이 되었다. 足한 편은 아니나 今年 봄들어 第一 많이 온 셈이다. …

◎ 5월 2일 (음 4월 2일) 일요일 細雨

食前부터 가랑비가 나리였다. 비라야 땀 흘린 편도 못 된다. 농꼴 논 벼 종자가 잘 안 슨[선] 편이다. 일하기엔 구중중한 편이다. 三德敎員들이 생선 회선을 온다고 하더니 日氣가 不順하여 못 왔다. …

◎ 5월 4일 (음 4월 4일) 화요일 晴

… 오늘 날씨가 땅 거우니 게불이 일어 한참이나 노모새을 폈다. 밭원 물도 오늘 來日로 가루게 된다. 苗板 물이 걱정이다. 물이 不足이다. 푸근한 비는 언제나 나릴 것인가? 걱정이다.

◎ 5월 5일 (음 4월 5일) 수요일 雲

흐리지 않고 비도 안 오는 날이 없으나 몇 방울 안 온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날이 말근 것이 좋을 것 같다. 苗板이 게불이 일고 씨가 많이 가래여 논에 가보면 氣分이 나뿌다. 물은 날로 줄어들고 밭원 물도 갈물이 되었다. 참으로 심히 가무는 해다. 田穀은 흉년이다. …

◎ 5월 7일 (음 4월 7일) 금요일 晴

물은 날로 줄어들고 靑靑 하늘엔 바람만 심이 일으니 農民들 한숨만 심해간다. 물 모금이나 있던 논은 오늘 바람에 벗석 줄었다. 큰일이다. 이대로 10餘日만이면 금년 농사는 全無다. 어이 될 것인가? …

◎ 5월 8일 (음 4월 8일) 토요일 晴

오늘도 종일토록 지굳은 바람으로 해을 보냈다. 웬일로 금년 春期 雨量이 이다지 적은가. 오늘도 종일 그럭저럭 해을 보냈다. 전곡 흉년이 들고 답농사도 흉년을 줄 것인가. …

◎ 5월 9일 (음 4월 9일) 일요일 晴

날은 참으로 심히 가무는 해다. 인제 큰일 났다. 나는 종일 그럭저럭 했다.

◎ 5월 11일 (음 4월 11일) 화요일 晴

중거름. 물모금이나 있던 논도 南西風으로 딸아가듯 줄어든다. 온갖 초목은 기갈이 났다. 이곳만 해도 물이 많은 곳이라고 다른 곳은 묘판이 타서 재을 끼언젔다고 한다. 지나가는 行人도 농꼴은 물이 많다고 탐을 낸다. (…) 농꼴은 더욱 가래여서 물을 뺏다가 대었다. 요사이도 가래여서 더욱 속이 상해 묘판을 더하고 1斗半 가량 더 당것다. 늦지나 않을까. 現在생각으로 3, 4斗落 가량 모자랄 것 같다. 묘판이 싱싱하게 자라야 할 것인데 비 안 오고 苗板마저 속을 쎄기고 있다 不安하다. 下午 늦게 사랑방 재벽을 했다.

◎ 5월 12일 (음 4월 12일) 수요일 晴

식전이면 논을 一週 하는 것이 식전의 課題이다. 苗板이라야 시원치 않다. 苗板이 속을 쎄겨 아주 속이 상하다. 朝飯食事 後에 아논 苗板에 물을 주고 下午엔 농꼴 아논 5斗落 풀을 뽑고 뒤엄을 저드리였다. 참으로 날씨 가무러 큰일이다. 날씨 가물고 묘판 속쎄기고 웬일인지 금년 농사가 잘 될 것인지? 移秧이나 잘 심기고 農事가 잘 이루어지길 빌며 새로 한 苗板에 물을 펐다.

◎ 5월 16일 (음 4월 16일) 일요일 晴

… 비는 좀처럼 안 오겠다. 아주 지쳤다. 건가리을 除外하고 묘板과 아논이 급하다.

◎ 5월 17일 (음 4월 17일) 월요일 晴

참으로 날 가물어 큰일이다. 歷史에 없는 가뭄이다. 苗板 求及이 걱정이다. 早飯食事을 마치고 용두래로 4턱으로 용애에서 苗板에 물을 가저왔다. 물을 못 푸게 하여 주다 마랐다. 아논 물이 第一 급하다. 모두들 써린다. 아직 모는 잽히지도 않는다.

◎ 5월 21일 (음 4월 21일) 금요일 晴

바라고 기다리는 비는 영 안 오고 짓궂은 바람만 심하여 물모금이나 있는 논도 달아가듯 줄어든다. …

◎ 5월 29일 (음 4월 29일) 토요일 晴

기다리고 바라것만 야속하게도 비는 안 온다. 早秧으로 심은 모는 말라가고 있다. …

◎ 5월 30일 (음 4월 30일) 일요일 晴

… 물이 아직 있는 편이나 이대로 가물면 몇칠 못 가겠다. 기다리고 바라는 비는 언제나 그래도 大谷部落이 平澤郡에서 第一 많이 이앙을 한다고.

◎ 6월 4일 (음 5월 5일) 금요일

端午. 비을 바라고 기다리였것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야속하게도 바람만 불어 물모금이나 있던 논도 딸아가듯 줄어든다. 우리 아논은 말라붓텄다. 우리뿐 아니라 물 있는 논이 없다. 참으로 큰일 난 날이다. 端午 물도 멀리 같으니 비 올 가망은 없다. 老人들도 이렇게 가무는 해는 못 보았다는 것이다. 밭원도 3,4日이면 말른다. …

◎ 6월 5일 (음 5월 6일) 토요일 晴

南西風으로 몰아치니 草生들은 불을 부치면 붙게 되었다. 어제 물모금이나 비치든 논 오늘 말라붓고 말라붙으면 바로 틈이 갈 程度이니 참으로 야속한 비는 왜 이리도 안 나릴까? 나는 午前中 밭원 3斗 5升지기에 웅뎅이를 팠으나 시원치 않다.

◎ 6월 6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오늘도 마찬가지의 날씨. 하늘을 처다보고 한숨 짓는 농부. 洞里一代가 웅뎅이 파기에 전력을 기울리고 있으나 시원한 집은 없는 모양. (…) 말

에 의하면 90年來 처음 보는 가뭄이라 한다. 농꼴 6斗落을 물을 적게 둔 것이 후회막심.

◎ 6월 7일 (음 5월 8일) 월요일 晴

아논 골장에 물이라곤 새 직어[찍어] 먹을 논이 없다. 몇일 있으면 뽀얀 기운이 돌 것이다. 비가 안 올 바에야 바람이나 불지 않으면 어이 좋을까. (…) 참으로 가무는 해다. 소화 14年가 가물었다 하것만 금년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한다. 下午 늦게 앞 웅뎅이을 푸고 흙을 파냈다.

◎ 6월 8일 (음 5월 9일) 수요일 晴

보리 좀 비다. 날씨는 웬일일까 큰일 난 날이다. 참으로 가무는 해다. 인제 논에 가 볼 必要도 없이 되는 모양이다. …

◎ 6월 9일 (음 5월 10일) 목요일 晴

… 매日 같이 불어오는 南西風은 가시질 않고 무심한 하늘은 야속하게도 山川草木을 이다지도 갈증을 내게 할까. 참으로 큰일 난 날이다. 인제 흉년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인제 물이 적어 食水難인 데가 많고 水利組合 물이 말라 물을 못 주고 있고 심지어는 水力發電所가 총 스덥[스톱]을 하게 되였다고 한다. 漢江이 말라 그냥 건늘[건널] 수가 있다니 이런 해가 어디 있을까? 18年만에 도라오는 가뭄이라나.

◎ 6월 16일 (음 5월 17일) 수요일 雲

일꾼 4名을 얻어 농꼴 논을 매기 시작하니 쏘나귀가 지나가 일을 품미였다. 푸근히 나리기을 고대했으나 아주 不足한 비 감질만 날 정도다. 下午엔 별이 났섰다.

◎ 6월 20일 (음 5월 21일) 일요일 晴

鶴首苦待 하는 비는 언제 푸근히 나릴 것일까. 시들그리는 초목 참아 안타까워 못 볼 지경이다. 날이 가무니 사람도 가뭄이 와 기운이 없다. …

◎ 6월 28일 (음 5월 29일) 월요일 晴

참으로 심한 旱魃은 우리에게 큰 걱정을 갈아다준다. (…) 이렇게 심한 旱魃은 80年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

◎ 6월 29일 (음 5월 30일) 화요일 晴

食前에 물을 푸고 와서 큰집에 가 상마차레을 하고 午前 中 그럭저럭 했다. 날이 가무니까 놀면서도 마음이 아주 不安하다. 논에 가보면 참으로 볼 수 없는 곡식이 애석하다.

◎ 6월 30일 (음 6월 1일) 수요일

… 觀象台 發表에 依하면 7日 초승부터 많은 비가 나릴 것이라고 하니 아주 마음 든든하다. 늦으나마 많은 비가 나리여 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방가운 소식이다.

◎ 7월 1일 (음 6월 2일) 목요일 晴

… 날씨가 가무니 사람도 기운이 없고 조름만 온다. 일을 하자면 한이 없것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물을 주면 느는 것 같더니 어제 오늘 바람으로 도저히 당할 수 없다. …

◎ 7월 2일 (음 6월 3일) 금요일 晴

… 初승부터 온다는 비는 도리어 바람이 심하다.

◎ 7월 3일 (음 6월 4일) 토요일 雲

… 날씨가 旱魃이 심하여 凶年이 드는 관계인지 보리쌀 買할 수 없어 그냥 오니 어제 온 敦一君이 간다고 떠난다. 깨끼라도 해야겠는데 일이 손에 잽히질 안아 걱정만 하다가 해을 보냈다.

◎ 7월 4일 (음 6월 5일) 일요일 甘雨

자다 드르니 부슬부슬 비오는 소리가 난다. 얻지 방가운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놓고 방겨했다. 밤 1時 頃은 된 모양이다. 발기도 前에 일어나 박을 내다보았다. 물이 고인 곳은 없다. 繼續 부슬부슬 나리여 많이많이 나리길 간절히 기달렸다. 들에 나가보니 트진 틈박귀에 물이 보인다. 농꼴 6斗落는 물이 좀 있다. 이만해도 한결 느긋하다. 그루을 갈 것 같다. 비가 午後엔 개이였다. 곳 아번님 家에 가 그루을 가랐다.

◎ 7월 6일 (음 6월 7일) 화요일 雲

今般 나린 비로 인해 穀食은 生起을 띄고 있다. 아주 달라지였다. …

◎ 7월 7일 (음 6월 8일) 수요일

… 오늘도 약깐의 비가 나리였다. 자주자주 또 많이 나리여 만양모라도 금반 장마에 내게 되였으면 한다. …

◎ 7월 9일 (음 6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약깐의 비가 나리였다. 아주 심끼로 또 웅뎅이을 펐더니 물끼가 도라 아주 다 쓰리였다. 아주 심로하였다. 심기 始作해서 심으니 비가 나리기 始作하니 제 물에 심었다. 다 심고 나니 제법 많이 나리였다. 저녁엔 많은 비가 나리였다. 많이많이 나려 주었으면.

◎ 7월 10일 (음 6월 11일) 토요일 甘雨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나리여 논에 물이 제법 물이 고이였다. 오늘 낮에도 종일 비가 나리였다. 비을 맞아가며 妻와 심었다. 앞 닷 데지기을 심었다. …

◎ 7월 11일 (음 6월 12일) 일요일

오늘도 妻와 비을 맞아가며 종일 앞 1斗落 동욕끌을 심었다. 동욕끌은 물이 적다. 들을 一週해 보니 넙디리는 논뚜랑이 터저 물이 안 고인다. …

◎ 7월 12일 (음 6월 13일) 월요일 雨雲

… 오늘은 사람 1名을 얻어 移秧을 始作했다. 앞 1斗 5升落을 심고 苗板을 심얻다. 鍾植과 莊植弟가 와 午前 中 協助했다. 마냥이나 다 심으니 아주 개운하다. …

◎ 7월 13일 (음 6월 15일) 화요일 雨雲

… 오늘도 비가 오락까락 늦게 심은 것이나마 아주 좋다. 지금이라도 날씨만 잘해주면 잘 먹을 것이다. …

◎ 7월 14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雨

오늘도 午前 中 비가 오락까락 해서 일을 하기엔 아주 不便하다. …

◎ 7월 16일 (음 6월 18일) 금요일 雨

비가 많이 와 일을 못했다.

◎ 7월 20일 (음 6월 22일) 화요일 雨

今年 一年來 오고도 나멋을 비가 한꺼번에 쏘다진다. 어제 저녁부터 심한 비가 나리였다. 오늘도 종일 오락가락 했다. 비가 많아야만 豊年이 들것만 너무나도 많이 갑작히 나리여 40年만에 나리는 비로 漢江 위험 水위에 도달해서 보기 드문 수해가 왔다. 수재民이 22만이란 어마어마한 수에 달하고 사망이 200餘名이고 家屋, 橋량, 道路, 田畓 等의 피해가 막심 아직도 降雨전선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

◎ 7월 22일 (음 6월 24일) 목요일 雨

오늘도 비가 종일 나리였다. 밭곡이 말이 아니다. 雀穀엔 별 지장 없다. 불편한 몸 누어있으면 아주 앓게 될 것 같아 그닐었다. …

◎ 7월 29일 (음 7월 2일) 목요일 雲

海일로 원뚝 터짐. 大谷 洞里에 큰 不幸이 닦아 왔다. 妻가 급히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뛰처 나왔다. 일어나 보니 태풍과 함께 바닷물이 해일해서 事業所(難民) 원뚝이 물이 넘치기 始作하고 있다. 나는 급한 거름으로 농꼴로 뛰여가 보니 아번님이 水門을 막고 있어 앞 원뚝으로 와 터논 데을 막고 있으니 물은 사업소 원뚝을 사정없이 넘기 始作 터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다. 삽시간에 물은 닥아 와 아논으로 닥아 왔다. 감당하기엔 장이 기울었다. 나는 농꼴 원뚝으로 뛰었다. 원뚝이 질름그리고 바람이 물은 처 원뚝을 치고 뚝안으로 엥겨백히고 있어 농꼴 원뚝도 아주 위험한 고비에 들어왔다. 難에 難을 거듭 鹽倉庫에서 불려온 空叭 영[이엉]가닥 等으로 터지진 안았으나 물은 많이 넘어왔다. 危험을 면하고 집에 와 보니 앞은 물이 집 앞까지 다가왔다. 큰 不運이 왔다. 참으로 볼 수 없는 짓이다. 하늘도 참으로 야속하다. 도랑원 저붕굴 高棧 앞 등 모두 터 다. 朝飯食事 後에 농꼴 원뚝을 손질했다. 종일 叭 떠밀린 곳으로 급한 곳을 7,8名씩 손질했다. 밤늦도록 했다. …

◎ 8월 4일 (음 7월 7일) 수요일 雨

… 12時 頃에 비가 나리기 시작해서 품을 미였다. 大谷으로 보아선 비가 많이 와야 될 곳이다. 많이많이 나리길 바라면서 자리에 들었다. …

◎ 8월 14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 질어 下午에 부칠까 生覺하고 點心을 먹고 있으니 곳 비가 올듯하여 질어도 종자을 부칠랴고 妻와 같이 급히 가 골을 다듬으니 비가 오기 시작해서 中止하고 있으니 우래와 같이 쏘나귀가 폭우로 변하여 今年 들어 第一 많은 비가 나리였다.

비는 왜뚝을 질름질름 두 군대의 왜뚝을 터트리였다. 말에 依하면 다른 곳은 비가 안 왔다구. 쏘나귀는 쇠등을 다툰다더니 이곳 大谷部落은 오던 중 많은 비가 왔다. 인제 김장이 늦어 걱정之事.

◎ 8월 24일 (음 7월 28일) 화요일 雨雲

오늘이면 復土工事도 거이 되는 것인데 비가 나리여 人員이 안 動員되여 못했다. 來日까지 一氣가 좋이 안으면 큰일이다. …

◎ 9월 25일 (음 9월 1일) 토요일

… 날씨가 넘어 비가 안 와 말라 벼가 마르는 것 같다.

◎ 9월 27일 (음 9월 3일) 월요일 晴

어제 저녁에 雨뢰 소리와 비바람이 불어오더니 오늘 日氣는 선들그리였다. 오늘도 水害復舊工事場에 나갈다. 옷을 벗든 것을 옷을 더 입었으면 할 日氣다. …

◎ 9월 28일 (음 9월 4일) 화요일 晴

… 點心을 먹고 있으니 또 비가 오기 始作해서 집에 쪼기여 왔다.

◎ 10월 10일 (음 9월 16일) 일요일 晴

… 날씨가 여러 날 가물더니 아주 감이 나빠서 밭을 갈기에 힘이 든다. 보리 갈기는 아주 나뿌다. 종일 앞밭 한 때기 갈았다. …

◎ 10월 12일 (음 9월 18일) 화요일 晴

… 午後부터 날씨는 흐려들고 비가 나릴 것 같다. 벼단을 조파릴까 生覺하다가 덜 말아[말라] 그냥 뒤집었다. 또 비도 많이 안 올 것이라 生覺했다.

◎ 10월 13일 (음 9월 19일) 수요일 雨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朝飯食事 後엔 비가 많이 나리기 始作해서 제법 들물이 저 내려가고 있어 벼단 조파리지 않은 것이 후해 막심하다. 午前에 많은 비가 나리더니 下午엔 날이 드는듯하더니 밤에 또 나리였다.

◎ 10월 14일 (음 9월 20일) 목요일

거이 말랐든 벼단이 비에 젓다[젖다]. 朴書房이 일이 몰려 仁性 家 일을 가주었으면 해서 仁性家 일을 갔다. 오늘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해서 보리 갈기엔 아주 나뿌다.

◎ 10월 31일 (음 10월 8일) 일요일 雲晴

… 일직 일어나 보니 날일기 좋지 않고 가랑비가 오락까락 한다. 일을 못하기로 했다. …

◎ 11월 1일 (음 10월 9일) 월요일 雲

… 날씨 고르지 못하여 脫穀이 늦어진다. 來日 날씨나 좋와야겠는데, 下午에 날씨가 흐려들더니 또 비가 왔다.

◎ 11월 2일 (음 10월 10일) 화요일

어제 저녁에 또 비가 나리였다. 脫穀은 나날이 늦어진다. 昨年엔 거이 다 끝났을 때이다. 오늘도 脫穀을 못하고 來日이나 할까 한다. …

◎ 11월 4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雲雨

… 날씨가 흐리더니 급끼야 午後 2時부터 비가 오락까락 하더니 4時부터는 제법 나리였다. 급히 서둘러 脫穀은 다했다. …

◎ 11월 5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어제 저녁에 가을비로는 많은 비가 나리였다. 가을 날씨가 좋이 않으니 秋事가 늦어진다. 어제 떨은 집가리가 물이 들어 웅뎅이을 풀어 헤치였다. …

◎ 11월 7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雨

기다리지 않은 비는 어제 저녁부터 또 나리기 시작했다. 겨울을 재촉하는 막바지 가을이라 일까. 아직도 脫穀을 못한 나에겐 조바심이 생긴다. (…) 우리 서민층에게도 너무나 많은 부담의 겨울 준비에 서둘러야겠꾼. 脫穀이 또 몇일 늦어질 듯하다. 논뚜랑에 600餘束의 벼가 푹 젓었을게다. 비도 나리고 누어있으니 …

◎ 11월 9일 (음 10월 17일) 화요일 雲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나리였다. 제철 비 나리듯 주룩주룩 나리였다. 이번 비로 因해 많은 被害 막심하다. 집까리 벼까리에 모두 물이 들어 같으니 아직 끄디리지 않은 벼뭇은 싹이나 안 났을까? 비가 몇일 나리니 不安해서 못 견디겠다. 안마당에 벼 노적한 것에 비나 안 드러 같으면 한다.

◎ 11월 11일 (음 10월 19일) 목요일 雲

여름 장마철 마냥 흐리지 않으면 비가 나린다.

오늘도 한때 비가 나린다고 觀象臺 發表가 있어 일을 할 용기가 없다. …

◎ 11월 13일 (음 10월 21일) 토요일 雲雨

오늘도 짖궂은 비는 가을 作業을 헤방 노았다. 일직 서둘러 脫穀하다 비가 오락까락 하여 前일 脫穀한 것을 드리여 담았다. 點心 먹고 앞벼을 끄디려 脫穀하다가 급기야 비에 쪼기였다.…

◎ 11월 14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몇일만에야 말근 날씨였다. 겨울을 재촉하는 싸늘한 날씨였다. 오늘 부지런히 서둘러야 脫穀을 끝맡겠는데[끝맺겠는데] 朝飯食事을 일직 마치고 妻와 脫穀을 서둘러했다. 날씨는 말았으나 어제 저녁에 나린 비로 마당이 질은 편이다. 논뚜랑에 있는 것을 피다가 늦도록 벼을 드려 담았다. 오늘 脫穀이 7叭. 많이 했다. …

◎ 11월 15일 (음 10월 23일) 월요일 雲

어제 하루 날씨 좋더니 오늘은 午後에 또 비가 나린다고 氣象臺 發表 있어 오늘 게꼴을 들여 부실라고 計劃했으나 날씨가 不順하여 게꼴만 드리고 下午엔 일을 끝냈다. …

◎ 11월 19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기다리지 않은 비는 어제 저녁에도 또 나리였다. 이달에는 雨量이 아주 많다. …

◎ 12월 6일 (음 11월 14일) 월요일 雲晴

오늘 날씨도 차거운 날씨다. 零下 12度. 來日 公販인데 벼을 말려야 한다고 해서 멍석을 말리였다. 4叭을 말리였다. 저녁 나절은 妻와 같이 드려 담았다. 오늘도 搗精을 못했다.

◎ 12월 25일 (음 12월 3일) 토요일 晴

今年 겨울엔 눈이 안 나린다. 강취[강추위]만 있고 보니 來年 農事가 걱정이다. …

1967년

◎ 2월 22일 (음 1월 14일) 수요일

… 종일토록 비가 나리였다. 논뚜랑이 겨울에 얼어 들띠 물을 자불 수가 없다. 앞 말 가웃지기 종일 돌보았으나 자불 수가 없다. …

◎ 3월 3일 (음 1월 23일) 금요일

… 울타리을 다하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주룩주룩 똘물이 질 정도다. 저녁까지 끝이지 않았다. …

◎ 3월 25일 (음 2월 15일) 토요일

종일토록 뒤엄 몇 짐을 저내고 날씨도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비설거지을 했다. 앞논들도 물을 자바야겠는데 가래질을 해야지.

◎ 3월 26일 (음 2월 16일) 일요일

… 비가 종일토록 많이 나리었다. 논뚜랑이 질질 넘처흐른다. …

◎ 4월 4일 (음 2월 25일) 화요일

풍산한 날씨다. 가래질을 한다는 사람들도 일을 물리였다. 바람이 일고 추운 날씨다. …

◎ 4월 5일 (음 2월 26일) 수요일

풍산한 날씨다. 每日같이 日氣가 흠악하여 不安하다. …

◎ 4월 11일 (음 3월 2일) 화요일

몇일만에 해빛을 보았다. 세죽을 놓고 들을 一週했다. …

◎ 4월 19일 (음 3월 10일) 수요일 細雨

간밤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오늘 낮도 종일 오락가락 했다. 게으른 사람 잠자기 좋은 程度이다. …

◎ 4월 20일 (음 3월 11일) 목요일 雲

날씨가 슈한 편인데 일꾼을 데리고 播種을 했다. 바람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벼씨가 많이 몰리였다. 물이 많은 듯하여 물을 퍼냈다. 日氣가 아주 不順하다.

◎ 4월 30일 (음 3월 21일) 일요일 폭우

食前부터 흐려들더니 폭우로 나리기 始作 한참만에 똘물이 저 나려같다. 점심을 먹고 한숨자고 일어나니 물이 제법 많이 고여 소를 같다 앞 한마지기 깜뚝을 했다. 비가 한번만 더 모심기 前에 나리였으면 지금 깜뚝한 것을 早秧할 수 있다.

◎ 5월 16일 (음 4월 8일) 화요일

… 再耕을하고 곱쓰래[곱써레] 했다. 비가 좀

왔으면 한다. 웅뎅이을 몇일 前부터 펐으나 못 당하겠다. 7,8日만 참았으면 한다. 말라붙을 것 같으면 심어야겠다. …

◎ 5월 17일 (음 4월 9일) 수요일

今年에도 雨量이 적은 해인지 일직 가뭄이 와 농작물에 지장이 많다. 앞논의 물이 몇일 안갈 것 같다. 웅뎅이를 펏으나 마르는 논을 당할 수 없다. 이 동리는 물 단속이 심해 동리의 물은 그리 급지 않으나 他洞里은 물 걱정이라고 한다. …

◎ 5월 19일 (음 4월 11일) 금요일

… 물을 많이 두고 갈았으나 새나가지나 않을지. 소가 다리지 못해 5斗落과 앞에 와 4마지기 장써래을 놓았다. 물이 말라 2日 後에 移秧해야겠다. 날씨가 넘어 가문다.

◎ 5월 20일 (음 4월 12일) 토요일

… 날씨가 가물어 앞논은 물이 말라붙는다. 田穀은 벌써 많은 소출을 일었다. 今年 들어 三年채 봄 가뭄이 와 農軍들의 마음을 조리게 한다.

◎ 5월 25일 (음 4월 17일) 목요일 雨

기다리고 바래든 비가 왔다. 田穀에 많은 도움이 왔다. 朝飯 後에 소을 부리니 10時 頃부터 비가 始作해서 종일토록 田穀에 알맛도록 왔으나 보리엔 지장이 왔다 우리 보리는 쓰러졌다. 조금만 더 오면 동욕꿀 논도 묘을 移秧할 것 같다. 날일기로 보아 더 올 것 같다. 건가리을 除外하고는 만족하게 왔다.

◎ 5월 27일 (음 4월 19일) 토요일

오늘 일날인데 비오는 관계로 드티여 來日이다. …

◎ 6월 1일 (음 4월 24일) 목요일

… 동욕꿀 심은 것은 물이 말라붙었다. 苗 심은 것이 죽어간다. 비가 와야겠는데. …

◎ 6월 3일 (음 4월 26일) 토요일

移秧이 끝나니 긴장이 풀리여 조름만 온다. 理髮을 하고 한잠을 자니 비 오는 소리가 나 더 좀 나리였으면 했더니 끝이었다. 동욕꿀 논은 말라붙는다. 죽지나 않았으면 한다.

◎ 6월 5일 (음 4월 28일) 월요일

날씨가 몇일도 가무니 또 비을 기다리게 된다. 동욕꿀 논은 심으며 말라붙으니 벼가 죽어가는 것이 있다. 앞 닷 데지기 한마지기 等 물이 꾀 없다. 하루속히 비가 나리여야겠는데. …

◎ 6월 9일 (음 5월 2일) 금요일

… 단비가 촉촉히 나리는 날 레디오로 귀을 기울리며 放送을 듯고 있었다. 下午엔 비가 개이니 不足하다. 푸근히 나리였으면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 6월 13일 (음 5월 6일) 화요일

… 비가 좀더 나리여야겠는데, 어제 단오비가 나릴 줄 알았는데 안 오니 비을 기다리게 되었다. 동욕꿀 논가 앞 5升지기는 말랐다. 앞논을 除外하고는 물 걱정을 아직 않게 된다.

◎ 6월 16일 (음 5월 9일) 금요일

… 저녁나절은 妻와 같이 고구마을 물을 저다 부우며 심었다. 오늘로 앞논 물이 아주 많이 줄어 2,3日 못 갈 것 같다. 일꾼은 일손만 되면 마실로 가 妻와 같이 웅뎅이을 퍼야 한다. 비가 좀 나리였으면…

◎ 6월 19일 (음 5월 12일) 월요일

朝飯 後에 비가 오락까락 하더니 개였다. 그루에는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

◎ 6월 20일 (음 5월 13일) 화요일

… 보리을 뚜둘겨 드릴랴고 했으나 12時 頃에 쏘나귀가 와 그냥 드리였다. 今般 나린 비는 藥비다. 肥料 준 것보다 낫다. 동욕꿀도 물이 많이 고였다. 비가 흐뭇하게 나리여 氣分이 좋다.

◎ 6월 21일 (음 5월 14일) 수요일

… 어제 비로 因해 논마다 물꼬가 열렸다. 앞논을 除外하고는 물이 충분하다. …

◎ 6월 27일 (음 5월 20일) 화요일 雨

食前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나리였다. 한보지락(30m)가량만 나리여 주었으면 바랬더니 저녁엔 제법 나리기 始作했다. 畓穀엔 별로 급지 않으나 田穀엔 급하다. …

◎ 6월 28일 (음 5월 21일) 수요일 細雨

어제 저녁에 비가 조용히 많이 나리였다. 食前에 일어나보니 물이 豊足히 나리였다. 논뚜랑이 넘은다. 종일토록 오락까락했다. …

◎ 6월 30일 (음 5월 23일) 금요일

小麥 123斤 製粉. 장마가 와 흐린 날씨 아니면 비가 나린다. 今年 장마가 이대로만 가신다면 곱게 지나가는 것이나 암만 곱게 지나간다 해도 2,3次 물 소동을 이룬다. …

◎ 7월 1일 (음 5월 24일) 토요일 雨

… 종일토록 비가 오락까락했다 일도 품미였다. (…) 우리 中部 地方에 장마線이 다가와 비가 오락가락 홍수가 닥아 올 것이다. 일날이 드터고 늦어가니 3벌을 못 들어 갈 것 같다. 稻熱病이 심하여 농꼴 밭원도 病氣가 있다. 하루 속히 가시기을 …

◎ 7월 4일 (음 5월 27일) 화요일 晴

몇일 만에 해빛 求景을 했다. 日光욕을 서두르고 보리집을 널었다. 날 들기가 바쁜 듯 동욕굴 논은 물기가 젓었다. 건수가 터져야 할텐데. …

◎ 7월 6일 (음 5월 29일) 목요일 雲

흐렷다 개였다 하는 날씨는 오늘도 흐린 날씨다. 밀집을 떨어야겠는데 날씨가 좋이 않아 못하고 보리 땅 쓰래기도 일떠 널었으나 마르지 않았다. 二化螟虫이 과히 심하지 않으나 울묵줄묵 깨끝이 않은 논이 앞뜰 밭원 1斗落 농꼴 밭원 아논 5斗落이다. 藥을 할 것을 안 했다. …

◎ 7월 7일 (음 5월 30) 금요일 雲

장마철이라 하지만 비는 안 오는 건장마다. 中央관상대에 선 장마가 繼續된다고 發表 논들을 말리였더니 그냥 말라붙겠다. 동욕꿀 논은 말랐다. …

◎ 7월 12일 (음 6월 5일) 수요일 雨

食前부터 日氣가 좋지 않더니 10時 頃부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오락까락 畓田穀에 적당량이 나리였으나 今般여비는 3,4日 繼續나릴 것이며 홍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만 왔으면 좋으련만 홍수가 날까 걱정이다. 종일토록 東南風으로 비는 많이 나릴 것 같다.

◎ 7월 13일 (음 6월 6일) 목요일 雲

二次 그루 밭 맸다. 비가 오락까락 일을 못할 것 같더니 午鍾부터 날이 들었다. 장마가 들면 밭이 묵을 것 같아 일꾼과 같이 그루밭을 맸다. 일직 다 매고 밀그루만 못 맸다. 밭을 매고선 타야 좋은 것인데 흐린 날씨며 東南風으로 장마가 닥아올 것 같다.

◎ 7월 14일 (음 6월 7일) 금요일 雨雲

흐린 날씨로 비가 오락까락 했다. 稻熱病은 가시는 것 같다. …

◎ 7월 15일 (음 6월 8일) 토요일 雲

初伏. 더위 중에 더위 여름 中에 여름이 왔건만 아직까지는 더운 줄 모르고 지났으며 除草도 거이 끝나간다. 인제 2,3日이면 일손도 놓게 된다. …

◎ 7월 17일 (음 6월 10일) 월요일

制憲節.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닥아왔다. 31度란 무더운 날씨였다. 아주 무덥더니 下午엔 쏘나귀을 한줄기 하니 모든 五穀이 생기을 띄우는 듯 사람도 氣分이 좋다. …

◎ 7월 18일 (음 6월 11일) 화요일 晴

34度 7分이란 찌는 듯한 날씨다. 不快之數 83이란 무더운 날씨다. 해낮에는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다. 집안에서 부채질로 해을 보냈다. …

◎ 7월 23일 (음 6월 16일) 일요일

장마는 아직도 우리 中部 地方에 머물러 있나보다. 아직까지 비는 곱게 나리어 논뚜랑 하나 터진 곳 없고 물 한번 낀 법이 없다. 우리 농꼴 골장에 물이 끼지 않아야겠는데 受잉기에 물이 낄까 걱정이다. …

◎ 7월 24일 (음 6월 17일) 월요일 晴

바람 한 점 없이 찌는 듯한 하루였다. 午鍾 頃엔 그늘에서도 담이 비 오듯 참을 수 없이 숨이 맥힐 지경이다. …

◎ 7월 31일 (음 6월 24일) 월요일 晴

今年에 날씨란 農事짓기에 알맞은 날씨였다. 요즈음은 靑明한 날씨로 穀食成長에 알맞은 날

씨다. 3,4日 後에 촉촉한 비만 나리여 주면 콩에도 適當하다. …

◎ 8월 3일 (음 6월 27일) 목요일 晴

… 비가 약간 와야겠는데 …

◎ 8월 7일 (음 7월 2일) 월요일 晴

今般 海溢로 앞 堤防이 無事해주기을 바래며 일직 일어나 원뚝을 내다보았다. 풀을 비라 가면서도 몇 번이나 내다보아 無事했다. 2,3日 無事하기을 바래며 田穀은 비가 여러 날 안 와 소출감소다.

◎ 8월 8일 (음 7월 3일) 화요일 晴

… 논마다 물이 마르고 있다. 아직 우리 논은 물이 말라 稻에 지장은 없다.

◎ 8월 9일 (음 7월 4일) 수요일 晴

… 논을 一週해보니 물 있는 논은 없다. 아직 우리 논들은 물이 있고 없는 논은 앞 5升지기 1斗落 동욕끌 1斗落 아논 1斗 5升지기 等이다. 벼이삭이 나오기 始作해서 물을 잘라놓았다. 골장 논이 마르면 來日에 논 갈기가 나빠서다.

◎ 8월 10일 (음 7월 5일) 목요일 晴

풀을 비라 갈 곳이 없다. 날이 가무러 오니 풀이 퍼지지 않아 쇠메기꺼리가 걱정이다. …

◎ 8월 12일 (음 7월 7일) 토요일 晴

… 앞 밭벼 심은 것이 비도 안 왔는데 쓰러졌다. 비가 자도 않았는데 쓰러졌으니 비만 오면 그냥 눕겠다. 패다 쓰러졌으니 또 흉년이다. 밭도 흉년이다.

◎ 8월 13일 (음 7월 8일) 일요일 雲

… 10時 頃에 쏘나귀가 나리였다. 김장을 갈게 되었나 가보니 아직 不足이다. …

◎ 8월 14일 (음 7월 9일) 월요일 雨雲

어제 쏘나귀가 나리고 오늘 새벽의 쏘나기로 김장 갈기에 적당하다. …

◎ 8월 15일 (음 7월 10일) 화요일 雲

… 해방된 22돌 오늘 바라지 않은 객수가 종일토록 나리여 農作物에 披害을 주었다.

◎ 8월 16일 (음 7월 11일) 수요일 雲雨

… 오늘도 下午에 쏘나귀가 많이 나리며 今年들어 第一 많이 나리여 왜뚝을 질름. 우리 아논 뚝이 구녕이저 위험천만.

◎ 8월 18일 (음 7월 13일) 금요일 雲

김장 부치다. 날이 하루 속히 들었으면 하는데도 날은 들지 않고 있어 不安하다. …

◎ 8월 19일 (음 7월 14일) 토요일 雲

… 흐린 날씨로 장마가 가시지을 않아 날이 하루 속히 들기을 고대한다. 인제 비가 조금만 나리여도 아논 1斗 5升지기는 쓰러진다. 今般 비로 밭벼가 전부 쓰러지고 김장이 제대로 못 갈았다. …

◎ 8월 20일 (음 7월 15일) 일요일 晴

… 날씨가 모처럼 말근 듯하여 洞里一代가 꼬추을 땄다. …

◎ 8월 25일 (음 7월 20일) 금요일 쏘나귀

비을 기다리지 않는 날 꼬추, 참깨 等 비가 맞으면 안 될 것이것만 食前부터 쏘나귀가 오락까락 했다. 前日 安仲에서 참깨을 떨라오라는 기별이 있어 妻는 雨中에 安仲에 떠났다. 날이 든듯하더니 午後에 우래와 같이 쏘나귀가 몰려와 지붕에 있는 꼬추을 급히 네리였다. 妻는 下午 3時頃에 安仲에서 도라왔는데 참깨 1斗 4升가량 愼書房이 떨어놓았다고. 날일기는 좋이 않게 비가 오락까락.

◎ 8월 26일 (음 7월 21일) 토요일 雲晴

앞 왜뚝 뜻다. 處暑가 지났것만 아직도 해낮에는 32,3度을 오르나리는 무더운 날씨다. 오늘은 저녁에도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앞 왜뚝을 뜻기에 많은 땀을 흘렸다. …

◎ 8월 27일 (음 7월 22일) 일요일 雲

꼬추 땄다. 흐린 날씨가 繼續되니 꼬추가 마르지 않아 골품에 있다. 다 지은 고추 참깨 농사가 장마로 흉년이 든다. 요즈음 날씨가 좋와야하겠는데 비가 오면 큰일이다. …

◎ 8월 28일 (음 7월 23일) 월요일 雨雲

… 오늘 날씨도 흐린 날씨였다. 꼬추가 골아 꼬추는 따같고 흉년이다. 各種 農産物 價格은 營農費도 못되는 갑이고 그나마도 日氣 關係로 제

대로 건조가 안 되니 農民은 무엇 먹고 쓰고 산단 말인가? …

◎ 8월 30일 (음 7월 25일) 수요일 雲

… 날씨가 좋이 않아 꼬추가 골아 妻는 꼬추 주무루다가 해을 보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손은 많이 간다. …

◎ 8월 31일 (음 7월 26일) 목요일 雲

가을에 접어들어 하루 좋은 날씨 없이 흐렸다 개였다. 쏘나귀로 繼續되니 農作物에 지장이 심하다. 종일 놀다가 저녁나절 세풀 한 짐과 앞 왜뚝 뜻은 것을 묶으니 나무 4동이다. 日氣 關係인지 목도열병이 심하다고 한다.

◎ 9월 2일 (음 7월 28일) 토요일 雨

종일토록 오락까락 하는 비는 농작물에 이롭지 않다. 꼬추는 아주 골품이다. 만질 수 없을정도인데 비가 오고 있으니 말이다. 종일토록 오락까락했다. 下午 늦게 理髮을 하고 논을 一週하니 아논 1斗 5升지기가 쓰러져 간다.

◎ 9월 3일 (음 7월 29일) 일요일 雨雲

어제 저녁에도 기다리지 않은 비는 밤이 새도록 오락까락 오늘 낮에도 오락까락 나리였다.이번 비로 인해 아논 1斗 5升지기가 約 20束가량 쓰러졌다. 오늘 三德國民學校 理事會가 있어 參席했다 運動大會의 件이다. 우리 고장은 이번 비가 穀植에 이롭지 못했다.

◎ 9월 4일 (음 8월 1일) 월요일 雲雨

두 벌 딴 꼬추는 아주 버리게 되었다. 이번 장마로 아주 썩어간다. 우리고장은 요즈음 가물어야 될 것인데 장마로 피해 막심하다. 日氣가 이렇고 보니 氣分이 아주 좋이 않다. 오늘도 그럭저럭 해을 보냈다.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不安하기만 하다. 일기가 좋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 9월 5일 (음 8월 2일) 화요일 雲

오늘도 흐린 날씨로 日氣不順하다. 요즈음 볕이 나야 稻가 잘 結實될 것인데 …

◎ 9월 7일 (음 8월 4일) 목요일 雲

오늘 처음으로 해빛을 보았다. 살 것 같다. 장마 속에 습기찬 各種 種字들을 빛을 쪼이였다. 김장밭 거름이 늦어가 농꼴 배추밭 거름을 주고와 동욕꿀 무밭에도 거름을 午前 中주었다. 下午엔 꼬추을 두 골 땄다. 앞으로 따는 꼬추나 잘 말리여야겠는데 日氣가 어떨는지.

◎ 9월 13일 (음 8월 10일) 수요일 晴

갑작히 日氣가 變하여 食前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天高馬肥의 가을 五穀의 結實의 가을이다. 장마로 여러 날 繼續되더니 청명한 가을을 마지했다. 인제 여러 날 비가 안 왔으면 …

◎ 9월 16일 (음 8월 13일) 토요일 晴

… 요즈음 날씨가 좋아 벼가 잘 익어 간다. 우리 京畿 地方에 今年에 大豊인데 三南 地方인 湖南 嶺南 地方엔 비가 안 와 큰 흉년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재민이 70만을 넘는다고 하나 農事도 한 해만 흉년이 들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못살게 된다. 같은 農君으로 동정이 간다. 레디오를 通해 들려오는 목 메인 소리은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70日이 가물어 畓穀이 모두 凶年이라고 …

◎ 9월 23일 (음 8월 20일) 토요일 쏘나귀

… 갑자기 쏘나귀가 쏘다졌다. 김장엔 좋으나 벼에는 좋이 않다. …

◎ 10월 1일 (음 8월 28일) 일요일 雨

… 오늘은 비가 촉촉히 나리여 김장에 아주 정당하다. 벼에는 좋이 아니 하나 김장에 適雨다. …

◎ 10월 2일 (음 8월 29일) 월요일 晴

前日 비가 나리여 김장에 많은 도움이 되였으나 不足이다. 김장이 흉년인 듯하다. 벼 묵을 것을 못 묶어 걱정을 하고 가보니 과히 속은 젓지 않았다. …

◎ 10월 4일 (음 9월 1일) 수요일

… 가을 날씨가 좋아 今年엔 벼 말리기가 좋다. 늦은 가을이 좋아야겠는데, 洞里 벼비기는 90%가 되여간다. 우리은 일날을 늦게 잡아 모레나 비게 된다. 늦은 감이 있다.

◎ 10월 11일 (음 9월 8일) 수요일 晴

… 가을 날씨 좋은 德分에 아직까지 가을치우

기에 좋왔다. 몇일만 더 좋왔으면 들에 있는 벼을 다 끄디리겠는데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 來日 日氣가 기우러질 것 같다. 우리는 아직 벼뭇이 들에 다 있으니 조바심이 된다. 오늘 소을 갈다가 벼뭇을 실어 드리였다. …

◎ 10월 12일 (음 9월 9일) 목요일 雨

제비가 들어간다는 陰 9月9日이다. 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날씨가 차가와진다는 의미다. 철새의 제비가 들어가면 기러기가 나오겠지. 부지런히 가을일의 秋收하구 우리 人間들도 방으로 들어와야겠는데 날이 오늘 종일토록 비가 나리여 들에 있는 벼단을 적시고 집에 들어온 벼단도 모두 비을 맞았으니 몇일 만 더 있었으면 5,6日만 더 있다왔으면 했으나 人間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만 不安하여 종일 누었었다.

◎ 10월 13일 (음 9월 10일) 금요일

어제 종일토록 비가 나리여 오늘도 가을일은 제대로 안 된다. 벼뭇이 다 말른 것이 벼에 저저 쌀이 절미가 되어 밀출[미출] 白米에 지장이 많다. 午後엔 고구마을 저장할 밭을 첬다. 벼단이 아주 많이 저젔다. 午前엔 벼뭇을 손치였다.

◎ 10월 28일 (음 9월 25일) 토요일 晴

… 今年 가을 日氣가 좋와 일 치우기 매우 좋았다. 昨年에 비해 수확이 낳은 편이다. …

◎ 10월 31일 (음 9월 28일) 화요일 晴雲

… 날씨가 기우리질 것 같아 비설거지 …

◎ 11월 4일 (음 10월 3일) 토요일 雲

… 今年 가을이 너무 가물어 來年農事을 걱정이 된다. 논에는 물 한 방울 없다 우리 고장엔 겨울 貯水 가지고 농사을 지으는 곳인데 논마다 말랐으니.... 가을 일은 개운하게 잘 치우었다. 오늘은 東南風이 불더니 下午부터는 기우러지는 것 같다. …

◎ 11월 5일 (음 10월 4일) 일요일 雲

새벽부터 부슬부슬 가랑비가 나리기 始作 朝飯食事 後까지 나리였다. 오기 始作 끝에 좀 많이 나리여 貯水가 되였으면 한다. 앞논들이 물이 없으니 來年 農事가 걱정이다. 부슬부슬 나리던 비는 9時에 끝이고 말았다. 보리밭에도 不足이다. …

◎ 11월 7일 (음 10월 6일) 화요일 晴

來日이면 겨울(立冬)이것만 날씨는 초가을 날씨다. 가을에 비 한 방울 없이 가을일은 쉬웁게 잘 치였으나 貯水가 안 데여 來年 年事가 걱정이다. …

◎ 11월 8일 (음 10월 7일) 수요일 雨雲

立冬. 어제 밤까지도 말께 개였든 하늘 아래 새벽녘에 비오는 소리가 나 방가히 잠을 깨 내다보았다. 비는 제법 나리여 朝飯 後까지도 나리여 누어있으니 徐巡警이 와 徐巡警이 잡아온 오리고기을 술과 같이 먹었다. 下午 늦게야 집에 왔다.

◎ 11월 12일 (음 10월 11일) 일요일 雲

楊州行 家出. 일직 서둘러 楊州에 갈랴고 잠을 깨니 바람이 일어 태풍으로 화하여 지붕마루가 뒤접히고 집가리가 넘어가고 해서 5時 半 頃에 일어나 지붕과 집가리을 손질하고 일직 떠나 新浦行 7時半車로 떠났다. …

◎ 11월 20일 (음 10월 19일) 월요일 雲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나리였다. 밤새도록 나린 비는 보리에도 도움이 많으런이와 貯水도 다소 되었다. …

◎ 11월 25일 (음 10월 24일) 토요일 雲

흐린 날씨가 비가 곳 나릴 것 같아 서둘러 朝飯食事을 마치자 共販벼을 드리여 담기 午前 中 서둘렀다. …

◎ 11월 28일 (음 10월 27일) 화요일 雲

흐린 날씨가 繼續! 날은 들지 않은 것 같다. 어제 나린 비는 아논의 貯水가 좀 되었다. 예年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 날씨도 좋이 않고 해서 종일 놀았다. …

◎ 11월 29일 (음 10월 28일) 수요일 雲雨

午前 中 흐린 날씨더니 下午 늦게부터 비가 나리기 始作. 저녁 늦게부터는 비바람이 정신을 어지럽히였다. 나는 어제 저녁에 잠을 못자 午前中 누었다가 下午에 닭장을 꾸미였다.

◎ 11월 30일 (음 10월 29일) 목요일 雨雲

風雲이 사나운 저녁 새벽잠을 깨였다. 진눈개비와 바람은 如前하다. 세죽 쑤는데 불이 내서 괜신히 끄리고[끓이고] 朝飯食事는 안골 祖父에 가서 했다. 안골 祖 生辰日이고 祖母님의 6순이다. 朝飯食事을 하고 놀다가 점심까지 해고 늦도록 놀다왔다. 날씨는 가시지 않고 흐린 날씨다. 今年 들어 첫눈이 나리였다.

1968년

◎ 2월 16일 (음 1월 18일) 금요일

웬일인지 날씨가 건조하고 비가 온 지가 오래다. 눈이 나린지 1個月이 가까워 오도록 눈, 비가 안 와 길에는 몬지가 자욱하다. 음물은 生水가 없어 물이 줄어 웅뎅이마다 물이 말라가니 今年農事가 걱정이다. 큰일이다. 보리가 말라죽어가니 우리는 보리농사가 또 실패다.

◎ 2월 19일 (음 1월 21일) 월요일

날씨가 갑자기 冷해지고 흐리여 눈이라도 나릴 줄 알며 기대했더니 그냥 개이고 말았다.

◎ 2월 21일 (음 1월 23일) 수요일 눈

자고 일어나니 모처럼만에 흰 눈이 소복이 나리였다.

◎ 2월 22일 (음 1월 24일) 목요일

오늘도 약간의 눈이 나리였다. 가마니을 오늘은 못 치였다. 날씨도 흐리고 눈도 나리구 해서 오는 김에 많이 나리였으면 기대된다.

◎ 3월 27일 (음 2월 29일) 수요일 晴

가을 貯水가 안 되니 苗板 할 걱정이다. 今年 年事가 어이 될 것인지? 농꼴이 貯水가 잘 되는 곳인데 논두랑이 나왔으니 골장도 위험하다.

◎ 4월 9일 (음 3월 12일) 화요일 雲

묘짜리 갈다. 朝飯食事 後에 日氣도 좋이 않는데 모짜리를 갈라 같다.

◎ 4월 11일 (음 3월 14일) 목요일 晴

今年엔 苗板이 좀 넓다. 오늘도 下午엔 풍산한 날씨로 춥다. 날씨도 冷하고 하여 일손을 일직 뗐다. 洞里에서 우리가 물묘짜리는 第一 먼저 했다. 昨年엔 15日에 했는데 4日 닥아했다. 일꾼이 없어 못 두어 今年 農事는 어이 지을 것인지?

◎ 4월 18일 (음 3월 21일) 목요일 晴

비가 와야겠는데 가물기만 하여 우리 農氏들이 不安에 장기여 있다. 苗板물도 不足할 것 같다. 貯水가 잘되는 농꼴 논도 今年엔 不足이다. 朝飯後에 동욕골 논 건파을 午前 中 부치고 下午엔 뒤염 부스럭도 저내고 여물을 쓸었다. 건파 부친 것이 種子가 잘 스고 잘 되였으면 간절히 바랜다. …

◎ 4월 20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今年엔 雨量이 적어 묘짜리 물이 걱정이다. 苗板 물 걱정은 안했는데 웬일인지 흉년이 올 것만 같다. 농꼴의 물 걱정은 안했는데 今年엔 이대로라면 밭원은 어려울 것 같다.

◎ 4월 21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晴

날이 새면 하늘만 처다보며 일기을 재여본다. 오늘도 청청한 하늘에 바람만 불어 댄다. 큰일이다. 웬일로 비가 이다지도 안 나릴 것인가. 苗板물이 걱정이다. …

◎ 4월 22일 (음 3월 25일) 월요일 晴

… 물이 아주 적다. 이대로 몇일만 더 가물면 苗板 물도 어렵다. 농꼴 물이 아주 적은 것은 드문 일이다. …

◎ 4월 23일 (음 3월 26일) 화요일 晴

… 날씨가 가물으니 마음이 不安하다. 농꼴 아논 5斗落도 물이 아주 적다. 아논 물도 묘짜리 물도 걱정이다. 중거름보다도 그누고 댈 물도 적다. 논뚜랑이 모두 들어 났다. 不安한 마음속에 하루 해을 보냈다.

◎ 4월 24일 (음 3월 27일) 수요일 晴

무더운 날씨다. 苗板 물을 빼고 그눌랴고 하다가 이끼가 끼여 農藥을 사오라고 人便에 一金 百원을 주어 農藥 사온 後에 그눌라 하다가 저녁 나절 물을 푸고 뺏다. 種子가 몰리고 잘 스지 못했으

며 苗板이 적어 모자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허나 비가 와야지? 畓田곡이 모두 고갈이 났다. …

◎ 4월 25일 (음 3월 28일) 목요일 雲

… 가랑비가 나리여 못 실어왔다. 오기 始作했으니 푸근한 비을 기달리였으나 그냥 끝이고 말았다. 가물 증조다. 우리 農民들은 하늘만 처다보며 한숨 짓고 있다. …

◎ 4월 26일 (음 3월 29일) 금요일 晴

… 날씨는 가물어 아논 물이 오늘로 모두 논뚜랑을 막았다.

◎ 4월 27일 (음 3월 30일) 토요일 晴

하늘 보구 한숨짓는 農民의 마음을 언제나 풀어 줄 것인가. 苗板 그눌 後에 뒤물이 걱정이다. (…) 이대로 가물면 移秧할 논은 없다. 우리도 苗板의 증거름은 물이 없다. 웬일로 이리 비가 안 올가. 물 때매 매우 좋이 않게 될 것 같다. 물 모금이나 있는 아논 물 때매 입장이 그북[거북]할 것 같다.

◎ 5월 1일 (음 4월 4일) 수요일 晴

… 날은 가물어 물이 걱정인데 퍼 올린 논도 물이 많이 새였다. 하루 비여있는 것이 많은 손해을 보았다. …

◎ 5월 2일 (음 4월 5일) 목요일 晴雨

… 朝飯食事 後에 앞 1斗 5升 논을(上) 갈고 있으니 비가 와 그냥 들어왔다. 가랑비가 종일토록 나리였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오는 김에 푸근히 나려 주길 바랜다. 종일토록 가랑비가 나리였다. 저녁 먹은 後에는 들었다. 아주 적다. 밭에는 그런 대로 축이였다.

◎ 5월 3일 (음 4월 6일) 금요일 雲

… 우리는 앞을 除外하고는 約 30mm만 나리면 농꼴 16斗落과 昨年에 산 아논뚝 畓 1斗落도 移秧 할 것 같다.

◎ 5월 4일 (음 4월 7일) 토요일 晴

… 날은 가물고 苗板은 씨가 잘 스지 않고 農事란 참으로 힘이 들어 못 짓겠다. 일군이나 있어야지 精神的으로나 육체的으로나 힘에 겨운 일이다.

◎ 5월 7일 (음 4월 10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앞 건가리 1斗 5升 두 벌을 풀고 苗板을 더 하고 점심 먹고 苗板에 물을 퍼댔다. 아논 물도 아주 적어 우리 3斗落도 來日 갈라고 한다. 비가 와야겠는데 …

◎ 5월 10일 (음 4월 13일) 금요일 晴

… 아번님 家 朴三福이 농꼴 골장물을 퍼가 우리 아논 5斗落 물이 아주 많이 줄었다. 사람 사피논 물인데 딸아가 말도 못하고 氣分만 나뿌다. 좀처럼 비가 나릴 것 같이 않다.

◎ 5월 11일 (음 4월 14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감자밭에 거름을 치고 午後엔 논두벌을 풀었다. 밭원 3斗 5升지기 밭원뚝 밀 1斗落 물 때매 큰일이다. 비는 좀처럼 안오겠다. …

◎ 5월 12일 (음 4월 15일) 일요일 雲

朝飯食前에 들을 一週 하고 와 있으니 柱雨가 와 논뚜랑 때매 큰 소리가 오고 같다. 지처진 논뚜랑에 말장을 박아 논뚜랑을 쌓았기에 논뚜랑을 젔쳤다. 농꼴 가 확인하니 自己네가 잘못했음에 말장을 다시 박겠노라고. 氣分이 덜 좋다. 朝飯 後에 안개비가 나리는 듯하더니 그냥 들고 말았다. 감질 난다. 큰일이다. 좀처럼 비는 멀어진 듯하다. …

◎ 5월 13일 (음 4월 16일) 월요일 晴

… 풍산한 날씨로 물 모금이나 있는 것을 말려든다. 오늘 하루 바람으로 물이 벗석 줄었다. 不安해 죽겠다. 心身의 괴로움에 지쳐 졸음만이 닥아온다. 苗板이 물이 적으니 올라 오지 않는다. …

◎ 5월 15일 (음 4월 18일) 수요일 晴

… 비가 와야지 苗板 물이 말러 묘가 자라지 못한다.

◎ 5월 18일 (음 4월 21일) 토요일 雨

甘雨. 기다리고 바래든 비가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단비였다. 어제 저녁부터 부슬부슬 나리더니 물 있는 논에는 제법 많이 田穀에 적당히 나리였으나 畓穀에는 아직 멀다. 午鍾頃에 멈추어 곳 농꼴 金鎭元과 敦植에게 물을 밭원 5斗

로 골장 물을 피달라고 하여 下午에 폈다. 밭원 5斗을 물이 不足이라 2斗落 가량을 못하고 질러 물을 폈다. 조금만 더 와 주었으면 충분했을 것을 …

◎ 5월 20일 (음 4월 23일) 월요일 晴

… 移秧기가 되여 오니 조바심이 된다. 조금만 더 오고 早秧을 다 내고 와주면 제대로 되는데. 품갑은 오르고 참으로 농사는 폐농될 것이다. 참으로 병든 농촌이다.

◎ 5월 27일 (음 5월 1일) 월요일 雲

食前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나리기 始作 해서 아주 마음이 언짠었다. 초 하루 차 식전비의 비도 적을 뿐 아니라 가물 징조라고 生覺하니 不安하다. 兵法에도 早雨之知만이라고 했으니 (…) 우리는 조금만 더 나리여 주었으면 농꼴 논을 해심을텐데. …

◎ 5월 29일 (음 5월 3일) 수요일 雲

… 벌서 구름 장마인지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오니 이대로 들면 큰일이다.

◎ 5월 30일 (음 5월 4일) 수요일 雲

… 아직 물 있는 논은 걱정이 없으나 물 퍼 심은 농꼴 밭원 아논뚝 밑 1斗 等이 물이 적다. 每日 같이 구름으로 싸여 있으나 비가 안 와 걱정이다. 인제 비가 와 주었으면 하고 雨順風調 해주길 바랠 뿐.

◎ 5월 31일 (음 5월 5일) 금요일 雲

… 물 있는 논의 移秧도 거이 끝나고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랠 뿐이다. 우리 洞里가 가장 移秧이 빠른 것 같다. 우리 논도 물이 말라가는 논이 4,5斗落 된다. 못 심은 논이 6,7斗落된다. 今年엔 왜 이리도 雨量이 적을까? …

◎ 6월 1일 (음 5월 6일) 토요일 雲

前日이 端午日. 端午日이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서로 만나는 날이라고 전설이 傳해왔다. 해마다 이날이면 비가 온다고들 하나 今年엔 맑게 개인 날로 기다리는 비는 안 온다. 오늘 食前에도 비방울이 몇 방울 나리였으나 가물 증조다. …

◎ 6월 2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 물 있는 논의 묘을 다 심고 나니 비오기만 기다릴 뿐 농꼴 밭원 논도 물이 말라가니 피여 나질 않을 뿐 아니라 죽는 포기가 있고 묘끝이 불어진다. 아직도 간끼가 있는 모양이다. 간끼 있는 논의 건가리란 간이 아주 많이 솟아난다고 한다. (…) 하루 속히 비가 와야겠는데 …

◎ 6월 3일 (음 5월 8일) 월요일 晴

날씨가 가물으니 洞里 사람들이 모이면 한나절이나 모여 있다가 헤여지곤 한다. 한참 바쁜 時節이것만 비가 와야지! 朝飯 後에 한참이나 비가 안 와 걱정하다가 苗板귓뎅의 묘 몇 침을 심고 점심을 먹고 앞 1斗 5升(下)을 갈고 농꼴 가 묘을 기웁고 세풀 한 망데을 비여 오는 것으로 하루의 日課이였다. 농꼴 밭원은 간이 쎄여서인지 묘끌이 물게 된다. 죽는 놈도 있다. 보기 싫어 가 보지도 않는다. 하루 속히 비가 와야겠는데 …

◎ 6월 6일 (음 5월 11일) 목요일 晴

… 65年度에도 80年만에 가물이 왔노라고 했으나 우리 집으로는 65年度에는 앞 5斗落 外는 아직까지 물이 많았으나 今年엔 농꼴 밭원도 다 심지도 못했으려니와 물이 말라가는 논이 많다. 농꼴 골장도 4,5日 더 못갈 것 같다. 큰일이다. 농꼴 밭원은 죽어가니 참으로 한발이 극심한 해이다. 할먼님 돌아가시든 해에 가물이 아주 심했것만 今年에 우리 집은 더욱 한발이 심한 편이다. 오늘이 할먼님 제사인데 65年도의 한발이 회상된다.

◎ 6월 7일 (음 5월 12일) 금요일 晴

물이 어제 오늘로 따라 가듯 말랐다. 우리 洞里 물이라야 5,6일 넘길 논이 별로 없다. 氣分이 안 나 한나절이나 누어 있다가 저녁나절에야 풀을 비는 것으로 해을 보냈다. 일도 손에 잽히지 않는다.

◎ 6월 8일 (음 5월 13일) 토요일 雨

일꾼 3名. 골장 소매거지 中止.(雨天으로) 前日 일꾼 3名을 얻어 소매거지을 始作했다. 흐린 날씨라 일을 始作했다. 始作한지 1時間도 못 되여

비가 오기 始作해서 일을 품미였다. 오기 始作한 김에 푸근히 나려주기을 기다리였다.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여 물 있는 논은 재법 느렀다. 저녁을 먹고서 쏘나기가 한 줄기 나리여 많이 나려주길 바래며 자리에 들었다.

◎ 6월 9일 (음 5월 14일) 일요일 雨

前日 품민 일군 3名이 농꼴 移秧. 일직 자리에서 일어나 들에 가보니 물 있는 논은 제법 물이 고이였다. 농꼴 가보니 건가리 골에 물이 있어 골장을 퍼 심기로 하고 鹽田 水車을 얻어다가 골장 물을 퍼 올리였다. 前日 품민 일군을 데리고 묘을 심었다. 비는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으나 일은 繼續 농골 밭원 심든 것을 심고 下午에 前日 하든 골장 소매거지을 했다. 이번 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6월 11일 (음 5월 16일) 월요일 晴

… 웅뎅이란 自己가 안 주면 그만이고 또 안골 祖 家 논은 물이 많은데 달라니 다른 집 묘 심는 것이 시기가 나 대꾸를 안 해 그만 두었다. 自己는 우리 웅뎅이을 몇 차례 퍼간 분이 참으로 옹색한 분이다. 상대 못할 분이다. 논뚜랑에 심하고 이웃지간에 모두 실어하고 싸움 안 하는 적이 없다. 그분의 논 이웃집 이웃 모두 끄려한다. …

◎ 6월 13일 (음 5월 18일) 목요일 晴

… 13,14日 頃에 비가 오겠다고 관상대 發表가 있었으나 비가 올 것 같이 않다. 당장 물이 마르는 것은 아니나 농꼴 밭원에 今般에 심은 묘가 거이 다 죽어 가니 苗가 잘된 탓도 있겠지만 간끼가 있어선지? 볼 수없이 죽어가니 비나 왔으면 깨여 나지 않을까. 비가 기달려 진다. 비나 와서 깨여나게 하여 주었으면 한다.

◎ 6월 15일 (음 5월 20일) 토요일 晴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로 비는 오지 안는 不安한 날씨다. 농꼴 밭원 묘가 더 심하지나 않아! 더구나 苗을 나뿐 것으로 심어 심하다. (…) 앞 웅뎅이는 每日 푸니 물이 늘어 더해 심을까 한다.

◎ 6월 18일 (음 5월 23일) 화요일 晴

… 일에 몰리고 비 기다리기에 지칠 정도다 풍족한 비가 나려 주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인데. …

◎ 6월 19일 (음 5월 24일) 수요일 晴

… 2,3日 來로 비가 와야겠는데! 21日경에 비가 나린다고 했는데 기대하며 마른 그루을 갈았다. …

◎ 6월 20일 (음 5월 25일) 목요일 晴

… 골장 논에 들어가 보니 마른 곳이 많다. 마른 곳은 올라오지 않으나 물기가 있는 곳은 제대로 된 듯하다. 하루 속히 비가 와야겠는데 오늘로 앞 1斗 5升지기는 말라 틈이 갈 정도고 윗논은 물을 每日 퍼 물기가 있다.

◎ 6월 21일 (음 5월 26일) 금요일 晴

… 애처럽게 기달려지는 비는 어디로 가고 따가운 太陽과 물 말리는 西風은 왜 이다지도 繼續되여 우리 農民의 간장을 태우나.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탈 때는 것을 바라볼 때 가슴의 피가 마르는 듯 쓰리고 아퍼진다. 한숨짓는 농민의 마음을 언제나 풀어줄까?

◎ 6월 22일 (음 5월 27일) 토요일 晴

… 논의 물이 말라가니 혼자 논에 들어갈 엄두가 안나 일손이 재피질 안는다. 인제 논에 가보기가 싫다. 물이 말라가니!

◎ 6월 23일 (음 5월 28일) 일요일 晴

한발은 繼續! 農民의 한슴은 날로 늘어가고 移秧期은 인제 아주 늦어 가고 있다. 한발이 심하니 조앙苗도 피여나질 못하고 큰일이다. …

◎ 6월 24일 (음 5월 29일) 월요일 晴

… 폭양과 下午에 南西風은 물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태우고 있다. 뽀얗게 타가는 땅은 穀植을 돌돌 말려 간다. 또 한 가지 걱정은 그루을 갈아놓았더니 땅이 타 가니 나질 못하고 있다. 안 가른 것이 잘했다. 일감만 많아지고 이토록 한발이 심하단 말인가?

◎ 6월 26일 (음 6월 1일) 수요일 晴

作物의 生長을 태워 죽일 듯 바래고 기다리는 비는 어데로. 30度를 넘는 폭양만 내려 쪼이니 우리 農民의 한숨만 지으니 얼굴의 주름살만 늘

어 간다. 날씨가 가물은 관계인지 二化螟蟲이 아주 심하여 妻 場에 보내여 農藥을 사갈고 오라 했다. 二化螟蟲藥 時期가 지났으나 묘 1대가 몽조리 죽어가 사다 뿌릴까 한다. …

◎ 6월 28일 (음 6월 3일) 금요일 晴

… 農藥끼언기란 重노동이다. 저녁나절은 아주 피곤하다. 하루 속히 비가 나려 주었으면 農藥 끼언진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

◎ 6월 29일 (음 6월 4일) 토요일 晴

기다리는 비는 얻에로 가고 뜨거운 太陽과 물말리는 南西東風으로 繼續되니 하늘만 처다보며 한슴만 늘어간다. 들에 가 볼 것도 없이 애써 가꾸어 온 作物이 돌돌 말리고 있다. 농꼴 밭원 5斗는 논바닥이 발갛게 타가고 있다. 觀象臺 發表에 依하면 7月 初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있을 뿐! 종일토록 하늘만 처다보고 있었다. …

◎ 6월 30일 (음 6월 5일) 일요일 晴

밀 비였다. 朝飯食事 後에 앞 웅뎅이 푸고 밀을 비였다. 앞 웅뎅이는 每日 같이 푸것만 1斗가량 유지할 뿐이다. 每日 같이 200 두래 이상 마르고 있으나 당해 낼 논이 없다. 무덥고 더운 날 妻와 같이 밀을 비였다. …

◎ 7월 1일 (음 6월 6일) 월요일 晴

中央觀象臺에서 7月 1日 2日에 비가 나릴 것이라고 發表을 했으나 비는 안 오고 뜨거운 太陽만 야속하게도 내려 쪼이고 있다. 이렇게 한발이 심할 수가 있나. 큰일이다. 골장 논들이 뽀얀 기가 날 정도로 비가 안 오니 큰 凶年을 當할 것 같다. …

◎ 7월 2일 (음 6월 7일) 화요일 晴

초승에 비가 오겠다고 發表을 했으나 太陽이 따겁게 쪼이고 있으니 기대했던 오늘 農民들은 큰일 낫다고 한숨만 지은다. …

◎ 7월 3일 (음 6월 8일) 수요일 雲

… 12時 頃에 쏘나귀가 한 줄기 나리여 농민들의 마음을 한결 흐뭇하게 하여 주었으나 不足을 면할라면 아직도 멀다. 오는 끝에 그루비는 와야겠는데.... 高棧에서 도라와 보니 妻는 그루밭 모종을 하고 있다. …

◎ 7월 4일 (음 6월 9일) 목요일 雲

… 저녁나절 세풀을 비라가 稻熱病이 더 심하지는 않은가 도라보니 아주 심하여 분무기가 없어 "조로"루 끼언질라니 제대로 안 된다.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으니 病은 더 심하다. 아주 氣分이 나뿌다. …

◎ 7월 6일 (음 6월 11일) 토요일 雲

장마線이 우리 韓國에 왔다고는 하니 우리 고장엔 비 몇 방울로 그치고 마랐다. 서울도 많이 와 水害을 많이 보았다고 하나 다른 地方도 많이 나리지는 못했다. …

◎ 7월 7일 (음 6월 12일) 日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 일직 서둘러 妻와 같이 깨끼을 始作했다. 점심 먹고 한참 하니 가랑비가 와 중지했다. …

◎ 7월 8일 (음 6월 13일) 월요일 雲晴

前日 비가 약간 나리여 朝飯食事 後에 앞 말가웃지기(上) 물을 터놓고 써리였다. 每日 같이 웅뎅이을 푼 고로 물이 약간 있는 것을 심다 마른 갈개을 터놓고 써리니 범벅이다. (…) 제대로 된 논도 稻熱病이 나 한참 심한데 비가 와야 가실텐데. …

◎ 7월 9일 (음 6월 14일) 화요일 雲晴

흐렸다 개였다 기압은 얕고 후덥지근한 날씨와는 병만 번성한다. 논에 가보기 싫어 논에 가보지도 않으나 藥 끼언느라고 가보면 속이 상해 못 보겠다. …

◎ 7월 10일 (음 6월 15일) 수요일 晴

유독 물이나 하고 기다리였으나 맑개 개인 하늘은 뜨겁기만 하다. 뜨거운 폭양 아래 논에 가 어쭈리여 깨끼하니 참으로 철양만하다. 1斗落을 妻와 종일 했으나 來日 또 해야겠다. 능률이 안 오른다. 비가 언제 나올 것인가? 농약은 오늘도 두 통이나 끼언젔다. 아논은 괜찮은가 했더니 거기도 도열병이 걸리였다. 우리 논이 심하다.

◎ 7월 12일 (음 6월 17일) 금요일 晴

오늘은 농꼴 밭원 除草作業을 始作했다. 今年 한발은 봄부터 如전히 농장물의 피해 막심하다. 농꼴 밭원은 半 以上 제대로 못 먹겠다. 논마다 稻熱病으로 심하고 이대로 몇일 더 가면 今年 수확은 거두기 어렵겠다. 기다리는 비는 어데로 가고. (…) 보기 드문 한발만 계속? 일을 해도 기분이 안 나고 이 穀植을 먹을 것이나 못 먹을 것이냐. 풀만 무성히 자라나고 病만 심해가고.

◎ 7월 14일 (음 6월 19일) 일요일 雲雨

甘雨.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와 英浩까지 데리고 농꼴 밭원 除草을 하다가 午前에 다하고 午後엔 移秧 못한 논을 갈라고 했더니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한다. 푸근한 비가 나려주기을 고대하며 한심 자고 일어나니 부슬부슬 繼續한다. 저녁에도 제법 나리였다. 바래고 기다리던 비는 나리였다.

◎ 7월 15일 (음 6월 20일) 월요일 雨

前夜에 제법 비가 나리였다. 새벽에 일어나 들을 내다보니 물이 건가리 배미에 고이였다. 농골 가서 일꾼 女人 2名을 얻어 나는 논을 가 달고 悠雨가 한참 協助했다. 묘심기 늦은 감이 있으나 移秧을 했다. 앞 1斗 5升지기을 4名이 종일 늦도록 심었으니 일이 더디다. 인제 심으면 얼마나 수확이 있을까? 농꼴 밭원에 묘만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개운치 않다. 아직 不足한 비나 날씨는 들지 않다. 벼가 패인 묘판을 심으면 대석도 안 되겠다고들 한다.

◎ 7월 16일 (음 6월 21일) 화요일 폭우

… 비가 오면 가실 줄 알았든 것이 더욱 심한 듯하다. 朝飯食事 後에 妻와 같이 苗板을 해 심으라가니 폭우가 나리기 始作해서 급기야는 왜물이 제법 많이 나리여 우리는 논뚜랑을 자빠지게 했다. 종일토록 오락까락 한 비는 100mm 이상 내리였다. 농꼴 밭원 죽은 곳을 심을라도 苗가 없어 못 심겠다.

◎ 7월 18일 (음 6월 23일) 목요일 雨

然雨 家에 묘가 나마 농꼴 것을 심을라고 苗根 60침을 쳐 놓으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많은 비가 나리였다. 인제 장마선이 우리 中部 地方에 머물러 있는 모양! 오늘 나린 비도 70mm 以上인 듯하다. 인제 물은 풍족하다. 더 나리면 객수다.

◎ 7월 22일 (음 6월 27일) 월요일 雲

… 新浦에 다녀와 妻를 서둘러 데리고 그루밭을 맸다. 동욕꼴 밭을 매는데 매우 질다. 날씨가 장마철이라 질으나 맸다.

◎ 7월 23일 (음 6월 28일) 화요일 雲

… 그루밭을 매도 기운치 않다. 장마에 그루밭을 맬라니 질어 발이 빠지는 곳이 많은 때문이다. 下午에 세풀을 비라 농꼴을 가보니 아논은 稻熱病이 가시는 것 같다. 날씨만 西風으로 불면 가실 것 같다. …

◎ 7월 25일 (음 7월 1일) 목요일 晴

… 일손을 [놓을] 時期인데 아직도 除草가 나문 것은 한발이 심했던 까닭이다. 今年에 稻熱病이 아주 심한 해이다. 中秧苗 심은 것은 못 먹게 된 논이 많다. …

◎ 7월 26일 (음 7월 2일) 금요일 晴

만앙 심은 묘을 메길라면 자주 약깐식 비을 나려야겠는데. …

◎ 7월 27일 (음 7월 3일) 토요일 晴

午前 中 앞 논 除草와 피사리을 했다. 날씨는 더웁고 除草하기란 고역이다. 앞으로 몇일 더 해야겠는데. (…) 날씨도 더웁고 해서 下午에는 늦게야 세 풀을 빌랴고 나가니 쏘나귀가 쏘다저 세 풀도 못 비였다. 더위도 절정에 달했다. 가뭄에 除草作業이 순조럽지 못해 논마다 풀이 많다.

◎ 7월 31일 (음 7월 7일) 수요일 晴

… 농꼴 아논 5斗을 午前 中에 除草을 끝내고 下午에는 밭원 5斗을 除草을 했다. 가뭄에 뜻어준 풀이 모두 살아 있으니 골이 안보일 程道로 풀이 많으나 하다 말고 來日부터는 앞 아논뜰의 피사리을 할까 한다. 하다가 날이 더워지면 그만 둘 것이다. 三南 地方에는 昨年에도 큰 가뭄이 왔으나 今年에도 가물어 田畓이 말라가 큰 흉년이 왔다고 한다. …

◎ 8월 1일 (음 7월 8일) 목요일 晴

… 오늘은 아논 3斗의 피사리을 했다. 한 고비 더위가 닥아 올 8月의 첫날이다. 이달 중순경이면 벼이삭이 나올 달이다. 오늘도 매우 더운 날이였것만 피사리을 했다. …

◎ 8월 4일 (음 7월 11일) 일요일 晴

今年에는 참으로 가무는 해이다. 오늘까지 푸근한 비는 없었다. 10餘前에 한 차래 장마선이라고 지나가고선 또 한발이다. 김장 가를 時期는 왔것만 밭이 말라 못 갈고 있다. 별일 없이 하루 해를 보냈다. …

◎ 8월 8일 (음 7월 15일) 목요일 雲晴

… 밤새도록 새벽까지 폭우가 나리고 바람이 심이 불어 不安에 싸여 일직 歸家 할라다가 1時차에 몸을 실었다. (…) 4時 頃에 着해 海溢로 걱정했으나 無事하다 해 安心하고 …

◎ 8월 9일 (음 7월 16일) 금요일 晴

김장을 갈랴고 하니 질어서 못 부치고 앞 밭의 배추 1 두룩 부치였다. 가라 놓은 곳에 그냥 다듬고 부치고서 동욕골 밭에 가 보니 질어 못 부치고. …

◎ 8월 10일 (음 7월 17일) 토요일 晴

… 김장을 갈았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씨였다. 비오기 前에 갈아 놓은 것인데 덕어 김장 부치기가 좋이 않으나 다시 갈지도 못하고 해 그냥 김장을 부치였다. …

◎ 8월 19일 (음 7월 26일) 월요일 晴雲

… 오늘 종일토록 東南風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不安이게 했다. 이 바람 끝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올 것인가 하는 초조한 마음이다. 벼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 今年엔 웬일로 농사에 좋이 않게만 日氣가 도라온다.

◎ 8월 20일 (음 7월 27일) 화요일 폭우

前日부터 東南風이 심히 불어 큰 비가 나릴 것을 예상 했더니 급기야는 8時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폭우가 되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심한 바람과 함께 나린 비는 농작물에 큰 피해을 가저왔다. 벼가 몇 군대 쓰래쓰래 꼬추는 쓰러지고 농골 골장논 물이 끼였다. 울타리가 쓰러지고 집안이 말이 아니다. 당장 집 걱정이다. 장마란 사람의 마음을 不安하게 만든다. 금번 비는 피해만 주었다. 김장은 다시 갈어야 할 지경이니 김장은 큰 흉년이다.

◎ 8월 22일 (음 7월 29일) 목요일 雨

기다리지 않는 비는 食前부터 나리기 始作! 종일토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저녁에는 홍수로 화하여 물 소동을 이루었다. 不安하고 不快하여 종일토록 氣分이 좋이 않은 가운데 하루 해을 보냈다. 비가 오니 집이 당장 아쉬워진다. 당장이라도 개우했으면 하는 生覺이 난다. 妻도 來年에 당장 짓자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흙이 쏘다지고 문 사이가 안 마저 가고 사방에선 물소리가 나고 위험하지나 않나 하는 生覺까지 든다. 일손은 제피지 않고 일은 몰렸고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 속히 날이 들어 맑은 날이 왔으면 …

◎ 8월 23일 (음 7월 30일) 금요일 폭우

어제 밤새도록 나린 비는 오늘도 종일토록 나리였다. 새벽에 일어나 왜뚝에 도라 보았다. 多幸이도 벌고 없어 安心이 되였으나 朝飯 後부터는 비바람이 심이 일었다. 不安과 초조 不快한 心情을 참을 길 없어 자리에 누었다. 午鍾 頃에 비가 숙금하여 들을 一週 하니 밭원 농꼴 아논等의 벼가 패자 쓰러져 참으로 氣分이 나뿌다. 금번 비로 因해 많은 손해을 가저왔다. 이래저래 흉년이다. 잘된 벼는 쓰러지고 마냥 심고 병 나고 今年 農事 作況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뜻대로 안 된다. 今般 비로 우리가 第一 많은 피해 같다. 下午 동욕골 김장밭을 가보니 富平 家 왜뚝이 터져 왜물이 달려들어 김장밭을 휩쓸고 나가 김장밭이 평지가 되였으니 김장은 말할 것도 없이 되었다.

◎ 8월 24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雲晴

개운치 못한 氣分으로 해을 보냈다. 날씨가 개였는지는 몰라도 이번 비로 病害만이 주었다. 김장은 절종을 하고 벼 쓰러진 것은 물에 장기였고

논두랑은 지치고 집안은 구중중하고 마음 부칠 곳이 없다. …

◎ 8월 26일 (음 7월 3일) 월요일 晴

… 김장밭이 이번 장마에 떨려 다시 부치였다. …

◎ 8월 27일 (음 윤 7월 4일) 화요일 晴雲

꼬추 땀 1叭 半 以上. 날씨가 흐린 날씨고 후덥지근해 꼬추을 딸까 말까 망서리다가 下午에 꼬추을 따라갈다. …

◎ 9월 5일 (음 7월 13일) 목요일 晴

어제 밤중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종일토록 폭우로 나리여 農作物에 被害 막심이다. 우리 농사가 제일로 피해가 많다. 농꼴부터 앞等 모두 쓰러졌으나 농사 헛 지었다. 앞 묘板논 3斗 앞 1斗 아논 等 쓰러지고 죽고 웬일로 이다지 힘이 든단 말인가. 벼대가 힘이 없는 종자라고 한 듯하다. 비가 안 올 때는 한발로 被害 비가 오기 始作하면 폭우로 被害 해 今年에는 被害가 겹치니 사람이 말라죽을 지경이다. …

◎ 9월 7일 (음 윤 7월 15일) 토요일 雲

… 日氣도 좋이 않아 꼬추을 딸가 하다가 下午에야 妻와 英浩가 땄다. …

◎ 9월 12일 (음 윤 7월 20일) 목요일 雨

바래지 안는 비는 오늘도 오락까락 했다.

◎ 9월 14일 (음 윤 7월 22일) 토요일 晴

… 今年 가을은 푸근한 가을이 못 된다. 농사짓기도 힘이 들겠지만 한발로 다 죽다 피여난 곡식이 도열병 二化螟蟲 等 病蟲害로 農作物에 被害을 주더니 結實期가 되니 수수 도열병으로 벼이삭이 죽어가니 다시 피여날 希望도 없이 가을을 마지 하니 모든 영양 다 들여 놓은 우리 농민은 다시 없는 한숨이다. 우리 벼는 게다가도 쓰러저 일마자 더디게 만들었다. 今年農事는 半농사지였다. …

◎ 9월 18일 (음 윤 7월 26일) 수요일 晴

午前에는 안개로 大地을 덥고 午中에는 따거운 해빛으로 가을을 무색하리만치 31度을 오르내리는 날씨다. 진작 이런 날씨였으면 벼이삭의 결실이 좀 나을 것을 다 버려 놓은 後인지라 논에 가보면 속이 상해 논에 가기 싫다. 作業은 妻와 같이 꼬추을 땄다. …

◎ 9월 19일 (음 윤 7월 27일) 목요일 晴

… 피사리을 같다. 벼가 모두 썩어 뒤엄과 같다. 참으로 氣分이 좋이 않았다. 날씨는 바래지 않는 비가 나릴 것 같다. 김장에는 도움이 될까 畓穀은 피해다.

◎ 10월 4일 (음 8월 13일) 금요일 晴

… 벼 빌 것은 아직 푸르고 하여. (…) 바람이 없어 벼뭇이 잘 마르지 않는다. …

◎ 10월 7일 (음 8월 16일) 월요일 雨

… 기다리지 않는 비는 어제 저녁 밤새도록 오늘도 午前 中 제철 비 나리던 많은 비가 나리였다. 이번 비는 農作物에 막심한 피해을 주었다. …

◎ 10월 10일 (음 8월 19일) 목요일 雲

흐린 날씨가 繼續되니 벼가 싹이 나고 있다. (…) 몇일 前에 비여 깐 벼가 뭍에 쟁기였다.

◎ 10월 16일 (음 8월 25일) 수요일 雲

… 날씨가 흐리고 하더니 저녁나절부터 부슬부슬 나리기 始作해서 저녁에는 제법 비가 나리여 오늘 종일토록 가라논 밭은 안 가니만 못하게 되었으니! 종일 헛수고이고 來日 보리 갈기만 틀리였다. 今年엔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저녁나절은 비여 깐 벼을 묶어 조파리고 비을 마저가며 벼뭇을 조파리였다. 다 마른 벼뭇이 또 비을 마젔으니 다 죽은 벼가 더욱 손해이다. …

◎ 10월 17일 (음 8월 26일) 목요일 雲

기다리지 안는 비는 前日로 비로 因해 오늘 보리 갈랴든 날인데 못 갈게 되었다. 가을 날 비가 개이니 날은 갑작히 쌀쌀해젔고 바람이 심하다. 날씨가 차겁고 해서 午前에는 매끼을 틀고, 下午에는 농꼴가 팔을 걷어 왔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바람은 오늘로 든 것 같이 않다. 속내의을 꺼내 입었으나 바람이 아주 싫다.

◎ 10월 20일 (음 8월 29일) 일요일 晴

觀象臺 發表에 依하면 來日 흐리기 始作 한다

고 해서 벼뭇을 손치였다가 조파리였다. 농골 벼뭇은 마르지 않았다. …

◎ 10월 24일 (음 9월 3일) 목요일 雨

새벽부터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종일토록 많은 비가 나리여 만은 피해을 주었다. 들에 벼단은 흠뻑 젖어 2,3日 來로는 못 끄디리겠고 收穫에 많은 감소니 今年엔 끝가지 농작물에 지장을 주어 農民들은 모두 울상이다. 氣分이 좋이 않은 나는 종일 누어있었다. 서울을 갈랴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못 가니 조바심이 되고 비는 나리니 不安하다.

◎ 10월 27일 (음 9월 6일) 일요일 晴

벼뭇은 비에 젖어 끄디리기 뭐하고 해 벼단을 도라보고 밭원 찰벼을 실기 始作해 일직 다 실고 妻가 농골 꼬추대을 뽀아 벼뭇을 늘어놓았다. 벼뭇은 마르지 않아 물벼뭇 같다. 하루 속히 타작을 해야겠는데 …

◎ 10월 28일 (음 9월 7일) 월요일 雲

기다리지 않는 비가 어제 저녁에 또 나리였다. 午前에 떨라던 찰벼을 下午에야 脫穀했다. …

◎ 11월 5일 (음 9월 15일) 화요일 雨

不필요한 비는 오늘도 새벽부터 종일 오락까락 우리 脫穀 日字는 늦어만 가니 마르지 않는 벼뭇을 쌓아 놓아 不安해 참으로 氣分이 나지 않아 공상에 별 生覺이 다 난다. 今年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가고만 있다. …

◎ 11월 6일 (음 9월 16일) 수요일 晴

비온 後日이라 脫穀일도 못하고 來日부터 脫穀을 해야겠것만 둘재祖 家 來日하게 되여 우리는 모레나 하게 되였다. 앞으로 날 日氣가 좋와야겠는데, 주말에도 비가 오겠다니 큰일이다. …

◎ 11월 9일 (음 9월 19일) 토요일 雪

어제 저녁부터 비바람이 일더니 눈으로 변했다. (…) 흰 눈이 푹 쌓이게 나리였다. 古今에 드문 일이다. 이렇게 급히 한파가 몰려 온 해는 없다. 김장 脫穀이 그냥 있고 水原에 와 보니 논에 벼가 그냥 있고 비여 깐 것은 물속에 쟁기고 水原에 오니 눈이 반 자는 나린 것 같다. 참으로 不安한 해이다. …

◎ 11월 10일 (음 9월 20일) 일요일 雲

갑작스런 한파는 영하 9度라는 부서운 첫 취이가 왔다. 어제까지도 여름옷을 입었는데 웬일인지 김장 脫穀이 급하다. 날만 풀리면 곳 집을 지여야겠는데 큰일이다. …

◎ 12월 10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雲

… 末日 共販日인데 收得稅 肥料代 등 벼을 못내 걱정인데 벼가 건조가 안 되여 말리여야겠는데 날씨가 흐리여 못 내겠다. …

◎ 12월 20일 (음 11월 1일) 금요일

푸근한 날씨에 午前부터 가랑비가 오락까락 下午에는 더 많이 나리기 시작해서 비바람이 심히 일기 始作했다. 下午에 안골祖 家에서 오라해서 술을 먹었다. 날씨가 어둡어오니 날씨가 더욱 험악했다. 술을 먹고 있으니 급한 鍾소리가 나 나가보니 海溢로 앞원뚝이 터졌다고 급히 집[짚]을 갈고 농꼴 원뚝에 갈다. 아직 물이 올라오지 않아 원뚝 水門을 막고 앞 큰 원뚝에 오니 물꼴이 돌아 水門으로 물이 올라왔다. 대충 막았으나 제대로 못 막아 물이 제법 많이 드러왔다. 날은 어둡고 물은 많고 해서 집에 왔다가 밤에 洞民들이 원뚝에 나가 급한 대을 손질하고 드러왔다. 참으로 사람 못 살 곳이다. 몇 년 동안 잘 지어 먹었는데 來年부터는 또 農事짓기에 힘들겠다.

1971년

◎ 5월 4일 (음 4월 10일) 화요일 雲

… 흐린 날씨로 비가 개이지 않은 듯하다. 午後에야 개이였다. 앞 논 5升지기와 1斗을 깜뚝을 하고 苗板 논에 물을 주었다. 큰 水門을 열어 놓고 물을 놓았다. …

◎ 5월 16일 (음 4월 22일) 일요일

… 일기가 매우 추어 논에서 일하기는 좋이 않다.

◎ 5월 24일 (음 5월 1일) 월요일

새벽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田穀에는 아주 적당량의 단비가 촉촉이 나리였다. 下午에 개이여 논을 一週하니 논마다 물이 많이 고이였다. 移秧한 논은 물이 많아 물을 놓았으나 어린 苗을 移秧한 것이라 느러지고 물속에 쟁기고 하였다. 동육굴 논도 물이 다소 있어 늦게 갈아 써리였다.

◎ 6월 1일 (음 5월 9일) 화요일 細雨

食前부터 부슬부슬 나리더니 쏘나귀로 한 줄기 나리였으나 물은 별로 는 것 같이 않다. 물있는 논은 아직 급지 않으나 동욕굴 윗논이 물이 없어 못 심으니 오전 끝에 한 보지락만 나리였으면 한다. …

◎ 6월 3일 (음 5월 11일) 목요일 雨

… 家族끼리 移秧을 할랴고 朝飯을 일직하고 苗을 찌고 나니 비가 많이 나리기 始作해서 쪼기여 들어오니 끝이지 않고 나리여 점심을 먹고 누었다. 한 잠을 자고 나니 어느 때나 되였는지 妻가 깨우어 일어나 동욕꿀 논을 갈아 써리였다. 풀밭(마치 잔디밭과 같은 것)을 뺑뺑이을 갈아 쓰리고 쓰리였으나 물은 없다. 어둡도록 쓰리였다.

◎ 6월 23일 (음 윤 5월 1일) 수요일

… 날씨는 무더운 날씨다. 논의 물이 아논은 거이 말라간다.

◎ 6월 26일 (음 윤 5월 4일) 토요일

… 동욕꿀 일을 갈까 하다가 날씨도 좋이 않고 아직 푸르고 하여 소금을 받으라가 장지 염전에 가 2叭을 받고 간수을 얻어 같고 왔다. 午後부터 부슬부슬 나리더니 下午엔 제법 나리였다. 물 있는 논은 많이 늘고 그루로 갈 것 같다.

◎ 6월 30일 (음 윤 5월 8일) 수요일 雨

종일토록 비가 나리여 일은 몰리고 조바심이 된다.

◎ 7월 1일 (음 윤 5월 9일) 목요일 雨

食前 논을 一週하니 二化螟蟲이 덜한 것 같다. 妻가 場에 간다고 했으나 비에 못 갈다. 몇 일前부터 저녁이면 속이 不便하여 온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 오늘도 누어있으면 좋겠으나 동욕굴 논이 풀이 아주 많아 트러주었다. 妻는 동욕굴 감자을 캤다. 그리고 앞 달뱅이을 비을 맞아가며 妻와 같이 했다. …

◎ 7월 2일 (음 윤 5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비가 오락까락하는 날씨라 午前 中 몸이 不便하지만 오양을 처내고 도야지우리을 손질했다. 午後에도 손질하고 세죽을 비라가니 保溫苗板하던 논 7升지기가 도열병에 걸릴 것 같다. 아주 위험하다.

◎ 7월 3일 (음 윤 5월 11일) 토요일 雲

… 비 맞아 빈 밀은 잘 떨리는데 前에 빈 밀은 떨리지 않아 고역이였다. 비가 올 것 같아 대충 치우었다.

◎ 7월 4일 (음 윤 5월 12일) 일요일 雲

장마선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인지 흐린 날씨이다. 前日 떨은 밀을 드리여 담으니 3叭은 나야 할 밀이 2叭도 안 된다. 午後에 날이 들어 비다 나문 밀을 비고 下午 늦게까지 떨었다. …

◎ 7월 10일 (음 윤 5월 18일) 토요일

몇일토록 피곤한 몸이다. 논을 일주하고 와 비도 오고하여 종일 누었었다.

◎ 7월 15일 (음 윤 5월 23일) 목요일

… 朝飯食事에 쏘나귀 한 줄기하다. (…) 한줄기 쏘나귀가 나리더니 흐린 날씨로 일하기 알맞아 종일토록 농꼴 논 除草겸 피사리을 했다. …

◎ 7월 17일 (음 윤 5월 25일) 토요일 쏘나귀

… 어제 저녁 뇌우을 동반한 심한 폭우로 온 天地을 뒤업는 듯 했다. 不安한 저녁이다. 새벽녘에 일어나 비가 개이며 논을 一週하니 우리는 피해는 없으나 壹雨氏가 왜뚝이 터지였다. 동욕꿀에 가보니 散浩가 길을 파밭을 늘리기에 실은 소리을 했다. 朝飯食事 後에도 쏘나귀 한 줄기에 물 난리을 이루었다. 下午에 高棧 가보니 下川의 피해가 아주 많다고 한다. …

◎ 7월 21일 (음 윤 5월 29일) 수요일

… 새벽녘에 많은 비가 나리였다.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朝飯 後에 농꼴 가 있다오니 午鐘 때이다. …

◎ 7월 30일 (음 6월 9일) 금요일

흐린 날씨로 지루한 장마는 가시질 안는다. 觀象臺發表엔 장마가 가실 거라고 하더니 언제나 가실 것인가. 장마 속이라 일도 능률이 못 오르고 그럭저럭이다. 웅호는 별 차도가 없다.

◎ 7월 31일 (음 6월 10일) 토요일

… 무더운 날씨다. 장마 속에 해볓이란 따겁다. 朝飯食事 後에 苗板배미 피사리을 始作했다. 온몸은 땀으로 목욕을 했다. …

◎ 8월 10일 (음 6월 20일) 화요일

颱風권 내에 들어 있는 날씨는 종일토록 가랑비가 나리였다. 昶鎔君과 柱植氏가 와 술 한 짐 받어다가 먹고 점심까지 대접했다. 태풍의 영향이 어이 미칠 것인지? 南東北進하는 颱風은 우리나라 西海中部을 通過할 것이라고 하니 不安하다. 農作物의 被害 막심할 것이다. 田作도 田作이려니와 海溢이나 하지 않었으면 조바심이 된다. 오늘 0時 頃에 우리나라 中部 通過라고 한다.

◎ 8월 11일 (음 6월 21일) 수요일

颱風 포리号은 급기야 새벽 3時에 우리 中部 海안인 瑞山 앞바다을 通過 水原 서울을 지나서 東北으로 빠저나갈다. 颱風通過 무렵 온 天地을 뒤업는 듯 소란. 3,4時間 흘렀다. 우리 함석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지나간 태풍이 아주 弱化한 것이라니 다행이였다. 새벽에 일어나 나가보니 뒤곁 밤나무가 3주 쓰러젔으나 별 지장 없었다. 바람은 덜 불었으나 海溢이 걱정이다. 朝飯을 마치고 원뚝에 나갈다. 물의 海溢은 면했으나 원뚝은 반쪽으로 떨리였다. 田作物 被害 막심하다. 꼬추는 모두 떨어 놓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꼬추는 아주 흉년이다. …

◎ 8월 21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雨

종일토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今年엔 웬일인지 비가 말이 나리였다. 오늘은 뒤곁을 칠하였다.

◎ 9월 25일 (음 8월 7일) 토요일

오늘도 종일 비가 나리였다. 일은 몰리고 야단이다.

◎ 10월 12일 (음 8월 24일) 화요일

오늘 농꼴 밭원 벼을 비다 냉기였다. 颱風으로 날씨가 풍산하고 춥더니 오늘 食前에 보니 서리가 많이 나리였다.

◎ 10월 15일 (음 8월 27일) 금요일

우리 일날이다. 서리가 갑작히 일직 나린고로 벼와 各種 作物이 모두 시들었다. …

◎ 10월 20일 (음 9월 2일) 수요일

…인제 나문 것은 동욕꿀뿐이다. 비가 몇일만 이라도 참아주었으면.

◎ 10월 21일 (음 9월 3일) 목요일

농꼴 안논 5斗을 일꾼 2名을 얻어 종일 묵어 내여 쌓았다. 날씨가 기우러진다고 해서 급히 서둘러 묵었으나 아직 덜 마른 듯하다. 일꾼 昶鎔, 億洙 等이다.

◎ 10월 23일 (음 9월 5일) 토요일

어제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나리였다. 오기 시작한 김에 보리나 갈 수 있게 되기을 바랬으나 아주 不足하게 나리였다. 朝飯 後에 들을 一週하고 와 누었다가 午前에 동욕꿀 벼을 비고 下午엔 농꼴 밭과 보리을 갈았다.

◎ 12월 17일 (음 10월 30일) 금요일

… 午後에 물이 해발한 듯하여 堤防에 가 보았다. 하도 많이 떨리여 위험천만이다.

1972년

◎ 1월 23일 (음 12월 9일) 일요일

… 겨울비는 현적게도 종일 나리였다. 푸근한 날씨에 주룩주룩 나리는 비는 가을, 겨울에 고갈된 보리에는 만족하리만큼 나리였다. …

◎ 3월 16일 (음 2월 2일) 목요일 雨

이른 새벽부터 단비가 촉촉이 나리여 온 草木의 생기을 독꾸었다. 부슬부슬 나리는 비는 下午

4時·頃까지 나리여 田穀엔 적당히 나리였다. …

◎ 5월 8일 (음 3월 25일) 월요일

자고 일어나니 흐린 날씨다. 일직 朝飯食事을 하고 安仲으로 함석을 사라 6時 半 頃에 出發하여 玉吉部落을 가니 비가 나리기 始作한다. 水村部落에 가니 심히 나리기 始作하여 安仲에 가니 장마비양 쏘다진다. 孫子의 兵法도 無色할 旱雨之변이 旱雨之長이 되였다. 食前비라 얼마 안 올 줄 알았던 비는 100m 以上이나 나리였다. 앞뜰 논뚜랑이 넘고 왜뚝의 물이 많이 나되였다. 午前 中 敦植은 함석 마른개질을 했다. 앞으로 十餘日 後에 또 한 번 나려 주면 今年도 雨順風調이다.

◎ 5월 25일 (음 4월 13일) 목요일 雲雨

… 午前에 묘자리 물을 푸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 부슬부슬 나리였다. 午後엔 아논 논뚜랑 손질을 했다. 午後엔 더 많은 비가 나리였다.

◎ 5월 26일 (음 4월 14일) 금요일 細雨

食前부터 가랑비가 나리였다. 가랑비가 나리여 10時 頃에야 들에 같다. 앞 移秧한 苗는 어린 苗가 물이 많어서인지 느리지고 보기가 아주 싫다. …

◎ 5월 27일 (음 4월 15일) 토요일 흐린 후 비

날씨가 風산 하더니 午後엔 쏘나귀가 나리였다. 20mm 이상 나렸을 것 같다. 今年엔 現在까지 雨量이 좋다. 午前 새밥[새참]까지 아논의 새우젓풀 것고 뒤엄 피고 갈기 始作하니 쏘나귀가 나리였으나 그대로 했다. …

◎ 5월 30일 (음 4월 18일) 화요일

前日 苗찐 것이 나마 앞 1斗 5升(下)을 써리여 妻와 같이 심었다. 두 참에 심고 저녁나절은 농골 가 苗을 쩌다가 밭원 7升지기 논에 같다 넣었다. 날씨가 냉하고 바람이 심이 불어 그냥 드러왔다. …

◎ 6월 11일 (음 5월 1일) 일요일 雨

… 논마다 물이 적다. 집에 와 누어있으니 쏘나귀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많은 비가 나리였다. 妻는 아이들 데리고 新浦는 갔을까 할 때이다. 아이들이 서울 가 비나 안 맞았는지 궁금하다. 아주 약비가 나리였다.

◎ 6월 12일 (음 5월 2일) 월요일

어제 푸근한 비가 나리여 논마다 물이 채이였다. 들을 一週하고 와 朝飯食事는 然雨 家에 가했다. 下午 늦게 또 비가 始作해서 밤중까지 나리였다.

◎ 6월 26일 (음 5월 16일) 월요일

春麥 脫穀을 할랴고 計劃한 것이 날씨가 흐리고 가랑비가 나리여 못하고 감자을 캤다. …

◎ 6월 30일 (음 5월 20일) 금요일

… 장마線은 南部 地方에 왔다고 하나 아지 우리 中部 地方은 비 한 방울 나리지 않아 전답에 목이 마르다. …

◎ 7월 1일 (음 5월 21일) 토요일

… 알목만 하고 뒤목은 못 치우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 물 마른 논이 많은 田穀은 지장 많다.

◎ 7월 3일 (음 5월 23일) 월요일 雨

기다리던 비는 종일 나리였다. 새벽부터 나리던 비는 아주 적당량의 비가 나리였으나 中央觀象臺 發表에 依하면 장마선이고 호우注意報가 나리였다. 午前 中 누었다가 비가 더 나리여 세풀을 비고 집안 뜰 排水路 첬다.

◎ 7월 4일 (음 5월 24일) 화요일

… 밀그루을 갈랴고 나가니 비가 나리여 앞으로 많은 비을 우려 갈았다. 약간 지른 편이다. 나는 갈고 妻는 콩을 심었다. 밀그루을 다 갈고 모종까지 했다. 現在까지 비는 적당량 나리였다.

◎ 7월 13일 (음 6월 3일) 목요일 大晴

… 맑은 날씨로 東風이 불어 畓穀에는 별로 좋이 않는 바람이다.

◎ 7월 19일 (음 6월 9일) 수요일 晴

33度의 따가운 太陽은 용광로 속과도 같은 폭炎之日이다. 대뜰 양회을 할랴고 흙을 파내기에 땀은 온몸을 적시여 몇 차래 목욕을 하여도 당할 수가 없다. …

◎ 7월 23일 (음 6월 13일) 일요일 晴

… 午中엔 나가 거닐 수 없도록 더웁고 한줄기

쏘나귀라도 나려야겠는데 비가 안 와 논밭의 作物이 시들시들하다. 오늘도 온몸의 땀으로 적시였다. …

◎ 7월 25일 (음 6월 15일) 화요일 雲

午前 中 비는 조용히 나리였다. 아주 적당량을 나리였다. 田苗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來日은 颱風이 몰려온다니 어느 정도인가 걱정이다. …

◎ 7월 26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颱風

… 颱風권內 들어 있는 우리나라는 12時 半頃에 우리 地方에 거센 바람이 일었다. 별 피해없이 꼬추만 약간의 지장을 주고 2時 半 頃에 颱風은 멎었다. …

◎ 8월 3일 (음 6월 24일) 목요일 雲

장마는 또 始作했는지 몇 일채 비가 오락까락하여 논의 약을 못 치 不安하다. …

◎ 8월 4일 (음 6월 25일) 금요일 폭우

밤 2時 頃에 始作한 비는 부슬부슬 나리더니 午前 10時 頃부터 폭우로 변하여 今年 들어 제일 많은 강우량을 나타내 왜뚝이 질름 위험한 고비을 넹기였다. 폭우는 약 40分가량 퍼붇더니 끝났다. 논뚜랑이 터지고 온 천지을 뒤업는 것 같다. 午後엔 농꼴 洪明勳 家 前 왜뚝이 터저 가서 協助했다.

◎ 8월 5일 (음 6월 26일) 토요일 雨

안마당 자갈을 깔고 花단을 손질하고 농꼴 왜뚝치는데 協助하고 와 비가 개이는 듯하여 안마당의 양회을 바르었다. 저녁에 쏘나귀가 나리여 양회한 것이 어이될 것인가 궁금.

◎ 8월 6일 (음 6월 27일) 일요일 雨

前일하다 나문 양회일을 할까 했으나 비가 오락까락 하여 못했다. 일을 中止하고 나니 마음이 不安하다. 우중에도 妻는 場에 같다 왔다. 午後엔 理髮을 했다. 저녁에 또 폭우로 많은 비가 나리였다.

◎ 8월 7일 (음 6월 28일) 월요일

… 11時 발인 모시는 것 보고 와 안마당 재벽을 하다 또 비가 나리여 中止했다.

◎ 8월 9일 (음 7월 1일) 수요일

새벽녘에 폭우가 나리여 물바다을 이루었다. 안마당 양회한 것이 다 떠나라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종일토록 비는 나리였다. 웬 장마가 오래 계속되는지 모른다. (…) 농약도 늦어간다.

◎ 8월 10일 (음 7월 2일) 목요일

… 장마는 가시였는지 오늘은 맑은 날씨에 바람만 심했다.

◎ 8월 16일 (음 7월 8일) 수요일 雲

날씨가 흐리고 下午에 쏘나귀가 있다고 해서 사랑 부뚜막 앞 양회하다 中止하고 사랑방을 午後에 놓기 始作해서 겨우 놓고 흙일은 못했다. …

◎ 8월 17일 (음 7월 9일) 목요일 쏘나귀

… 쏘나귀가 또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 8월 18일 (음 7월 10일) 금요일 쏘나귀

午前 中 사랑방 바닥을 바르고 뒤 굴뚝을 쌓을랴고 파내고 나니 쏘나귀가 나리[기] 始作하더니 及기야는 폭우로 變하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저녁엔 밤새도록 폭우가 나리여 不安한 마음이였다.

◎ 8월 19일 (음 7월 11일) 토요일 폭우

밤새도록 나린 비는 많은 비가 나리였다. 들을 一週하니 별 피해는 없는 듯. 왜뚝이 약간 지치였다. 10時 頃부터 폭우로 나리여 온 天地을 물바다 내를 이루었다. 60年內 처음이라고 한다. 水原 地方에 450mm가 나리였다고 나는 아논 일급 데지기 以上 내가 지치여 큰 공사을 만들었다. 밤사이에 비가 안 와야겠는데 농꼴 밭원도 밭뚝이 많이 지치었다.

◎ 8월 22일 (음 7월 14일) 화요일

… 新浦에 가다보니 三溪만도 말이 아니다. 興植 家도 물에 잠기어 대피하고 신포 前이 모두 물바다가 되었다고 벼에 큰 지장이 올 것 같다. 북덕물이 20時間은 모두 쟁기였다고 65年 만에 큰 소동이라고 新聞紙上의 톱뉴스가 물 피해 참상이다. 다행이 큰 피해을 안 가저왔으니 천만다

행이다. …

◎ 8월 25일 (음 7월 17일) 금요일 雨

午前엔 부슬부슬 나리던 비는 午後 3時 頃에는 폭우로 변하여 물소동을 이루는 不安한 날이였다. 왜뚝으로 뛰여가보니 왜뚝이 질름질름 한다. 손볼 곳을 손보고 왔으나 더 以上은 나리지 않았으면 한다. 가는 새끼을 꼬다가 비가 또 나려 바수거리을 만들었다. …

◎ 9월 2일 (음 7월 25일) 토요일

每日같이 흐린 날씨가 아니면 궂은 날씨다. 오늘도 가랑비 와 흐린 날씨다. …

◎ 9월 3일 (음 7월 26일) 일요일

… 흐린 날씨와 가랑비 나리는 날씨다. 결실기에 日氣가 不順하여 농작물에 피해 막심하다. …

◎ 9월 4일 (음 7월 27일) 월요일

…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나리여 食前에 왜뚝에 갈다 왔다.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가마니을 짤라고 가마니 한 짝을 짜고 나니 後坪 祖父任이 別世하시였다고 하여 궂은 비 나리는 속에 後坪에 갈다. …

◎ 10월 3일 (음 8월 26일) 화요일

뇌성벽력으로 쏘나귀가 오락했다. 농작물에 이롭지 못한 비다. 結實期는 날씨가 좋와야 좋으련만 몇일채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

◎ 11월 2일 (음 9월 27일) 목요일 雲

… 날씨가 좋왔으면 하나 오늘 東南風으로 날씨는 기우러질 것 같다.

◎ 11월 3일 (음 9월 28일) 금요일 雨

밤이 새이도록 부슬부슬 비가 나리였다. 들에 벼단이 마르는데 지장이 많다. 종일토록 찌푸른 하늘은 우리 농민들의 일손을 쉬게 하였으나 몰릴 일손이 급해진다. …

◎ 11월 6일 (음 10월 1일) 월요일 雨

어제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거이 말라가는 벼뭇에 비가 많이 나리여 收穫에 많은 감소다. (…) 날씨는 들지 않으니 不安해기만 하다.

◎ 11월 9일 (음 10월 4일) 수요일

농꼴 아논 5斗의 벼 나문 것을 끄디리고 午後엔 밭원 1斗을 끄디리였다. (…) 날씨는 기우러져 저녁에는 비가 나리였다.

◎ 11월 13일 (음 10월 8일) 월요일 雲雨

오늘부터 脫穀을 始作. 敎雨氏 家 脫穀을 갈다. 食前부터 始作해 朝飯食事을 하고나니 비가 나리기 始作하여 中止했다. 楊甘 時향에 갈까 하다가 벼가리가 썩어 못가고 비가 끝치여 벼가리을 헤치니 김이 나고 뜨거워 겉에는 싹이 나고 속은 썩어서 아주 까맣다. 속이 상하다. 많은 감소다. 今年엔 웬일인지 비가 많아 우리 농민들의 속을 썩인다. 200束은 完全히 썩었다. 날이 들기에 농꼴 골장 6斗을 헤치고 앞밭에 끄디린 벼도 늘어놓았다. 비가 안 오길 바래고.

◎ 11월 16일 (음 10월 11일) 목요일 雨

어제 밤이 새도록 비가 나리였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농민을 아마도 못살게 하실 모양이다. 오늘 낮에도 종일 나리였으니 곡식은 싹이 나고 석어가고 있으니 어이하면 좋을까요. …

◎ 11월 17일 (음 10월 12일) 금요일 雨雲

繼續되는 비는 오늘도 午前 中 나리여 우리 농민의 울분을 터트리였다. 마당에 쌓아 노았던 [벼가리를] 비를 마저가며 헤치는가 하면 비을 마저가며 脫穀을 하는 집도 있다. 벼가 썩어서이다. (…) 午後부터는 날씨가 下降하여 영하로 내려가 來日은 영하 5度라고 바라건대 비나 오지 않기를 …

◎ 11월 20일 (음 10월 15일) 월요일 雨

… 날씨는 어제 저녁부터 비가 始作해서 오늘 낮에는 우박까지 나리여 큰일 난 날씨다. (…) 무엇보다도 날씨나 좋왔으면 바라고 빌어마지 않는 우리 농민들의 心情이다.

◎ 11월 23일 (음 10월 18일) 목요일

6時半에 起上하여 脫穀하라 갈랴고 문을 열으니 흰눈이 소복히 나리였다. 금년에 웬일로 이다지도 농민을 못살게구나 하늘이 원망스럽다. 참으로 불게하다. 밥맛이 없을 지경이다. 朝飯 後

에 마당 쓸고 들에 있는 벼뭇 조파린 것의 눈을 쓸었다. 눈은 아주 많이 왔다. 約 5㎝가량 종일 토록 진눈개비.

◎ 11월 24일 (음 10월 19일) 금요일 雲

어제 저녁에 바라지 않는 진눈개가 나리였다. 흐린 날씨로 식전에도 또 눈이 나리였다. 참으로 큰일 난 날이다. 朝飯 後에 누어 있다가 농골 벼를 끄디리기 위해 길을 흙을 파 덥어 빙판 진 곳을 손질하고 벼을 실었다. 급히 서둘러 다 실었다. 논에서 물벼보다 더 무겁다.

◎ 11월 26일 (음 10월 21일) 일요일 雨雲

脫穀機을 차려 놓고 脫穀을 始作해서 16叭을 脫穀을 하니 함박눈이 많이 나리기 始作해서 中止했다. 참말로 원망스럽다. 눈은 繼續 나리여 下午늦게는 비가 제법 나리였다. …

◎ 11월 27일 (음 10월 22일) 월요일 雲

밤사이에 흰 눈이 소복히 나리여 참으로 방갑지 않다. …

◎ 11월 28일 (음 10월 23일) 화요일 雲雪

… 下午 3時 頃에 끝나고나니 앞을 분간키 어렵게 눈이 나린다. 잠간 사이에 눈은 발목이 무치도록 나리였다. 참으로 큰일 난 날이다. 앞으로 約 2,000束가량 脫穀할 것이 나맜다. 벼뭇은 모두 들에 있고 눈은 쌓이고 어이하면 좋을까?

◎ 11월 30일 (음 10월 25일) 목요일 雲雪

어제 저녁엔 또 비가 많이 나리였다. 벼뭇을 말리랴다가 포기하고 벼알을 말리랴다가 이제는 말릴 생각은 다 틀리여 물벼 뭇을 시를 생각이다. …

◎ 12월 20일 (음 11월 15일) 수요일 晴

收穫期에 들어 日氣不順으로 因해 도처에서 벼가 부패했느니 변질이 되었느니 하여 우리도 광에 쌓아 둔 벼가 어이되였나 하는 마음 조바심이 되어 못 견디겠다. 후해 막심하다. 마른벼와 별도로 쌓았으면 얼마나 좋왔을걸. 안 마른 벼는 속에 들어 있으니 어이하면 좋을까. 마지못해 앞에서 몇 叭 널었다. 午後엔 앞산의 나무을 글거 쌓았다.

1973년

◎ 3월 29일 (음 2월 25일) 목요일

… 날씨가 지나치게 가물어 봄 씨앗이 나질 않는다.

◎ 3월 30일 (음 2월 26일) 금요일

… 날씨가 달 반이나 비 한 방울 안 나리여 쟁기가 들어가지 않을 程度로 말라 매우 갈기가 힘들었다.

◎ 4월 2일 (음 2월 29일) 월요일

날씨는 가물어 길가엔 뽀얀 몬지만 내고 온 生物이 약동하는 花春시절에 비 한 방울 안 나리니 목마름에 지쳐 시들어들고 있다. …

◎ 4월 7일 (음 3월 5일) 토요일 雨

메마른 대지에 촉촉이 감수을 나리여 田穀에 다대한 수확을 올리였다. 어제 저녁에 비 오는 소리가 나 방가움에 단잠을 깨였다. 午前 中 부슬부슬 나린 비는 제법 나리여 밭곡엔 만족하나 논에는 아직 멀다. …

◎ 4월 14일 (음 3월 12일) 토요일

비닐을 씨울랴고 準備했으나 레디오에서 全國的으로 비가 나릴 것이라 하여 못 씨우고 苗板을 써리고 妻와 같이 苗板을 만들었다. 일찍 끝나고 新浦에 갈까 했으나 날씨가 비가 나리여 못 같다. 日氣 관계로 모든 일이 지연되니 초조하다. …

◎ 4월 15일 (음 3월 13일) 일요일

밤새도록 비가 나리였다. 비닐을 못 씨워 不安하다. 자고 일어나 씨나락을 보니 싹이 많이 나 이이 할 수 없어 다시 물에 당것다. 날씨는 들지 않고 비가 나리니 들에 가보니 물이 많다. 물 갈개 손질을 하고 왔다. …

◎ 4월 16일 (음 3월 13일) 월요일 雨

오늘도 비가 나리겠다는 中央觀象臺 發表가 있었으나 씨나락의 싹이 많이 나와 朝飯을 일직하고 씨을 치라 같다. 일꾼을 2명이나 얻었으나 오지 않아 妻와 같이 종자을 치고 왕겨숯을 뿌리

고 비닐을 半가량 씨우니 비가 나리기 始作하였으나 비닐을 다 씨우고 나니 午鐘 頃이였다. 왕겨숯으로 씨우니 매우 바르다. 집에 오니 소가 뇌여 물苗 씨나락을 約 2斗가량 먹었다. 속이 상한 일이다. 기다리지 않은 비는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 비가 나린 관계로 昨年에 비해 3日이나 늦었다.

◎ 4월 18일 (음 3월 16일) 수요일 晴

食前에 날씨는 차거웠으나 씨나락을 첬다. …

◎ 4월 24일 (음 3월 22일) 화요일 雲

기다리지 않은 비는 오늘도 午前 中 오락까락 했다. 별 일 없이 있다가 午後에야 비닐의 물을 쓸어 내리였다.

◎ 5월 1일 (음 3월 29일) 화요일 雨

기다리지 않은 비는 오늘도 종일토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食前 비는 짧다던 兵書의 말도 있것만 오늘은 食前에 始作한 비는 종일 비가 나리였다. 종일 누어있었다. 일은 몰리고 날은 짜여있고 걱정이다.

◎ 5월 7일 (음 4월 5일) 월요일

기다리지 않는 비는 부슬부슬 始作하더니 午後에는 폭우로 화하여 많은 비가 나리였다. …

◎ 6월 4일 (음 5월 4일) 월요일

비가 안 와 田곡, 畓穀의 많은 감소가 온다. …

◎ 6월 5일 (음 5월 5일) 화요일 晴

… 날씨가 가물어 우리 농꼴 밭원 5斗는 아주 적다. 몇일 안가 물 마를 논이 많다. 田穀은 많은 감소가 된다. …

◎ 6월 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

食前에 부슬부슬 가랑비가 나리기에 기대할 비는 못될 비라 조금 오고야 말았다. 푸근한 비가 나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午前에 원두밭에 액비을 주고 午後엔 별일 없이 해을 보냈다. 妻는 場에 같다 왔다. 顯忠日 많은 영영들의 명복을 비는 눈물인 양 가물던 날에 부슬비가 나려주었다.

◎ 6월 8일 (음 5월 8일) 금요일 晴

… 무었보다 물이 말라 걱정이다. 밭원을 苗심은 것이 보기 실으며 물도 말라 죽을 것만 같다. 참으로 비가 안 와 걱정이다.

◎ 6월 10일 (음 5월 10일) 일요일 晴

비을 내려주었으면 간절한 마음 자고 새면 하늘만 처다보며 바래고 있건만 맑은 하늘 아래 따거운 해볓만 무정하게 내려 쪼여 우리 농민의 간장을 태운다. 朝飯 後에 앞 웅뎅이에서 물을 푸고 동욕꿀 밭의 보리을 비라가 한 때기을 비여 午後에 떨었다. 보리을 비여 거름기가 不足이라 아주 흉년이다.

◎ 6월 13일 (음 5월 13일) 수요일 晴雲

午前에 妻와 같이 꼬추밭에 액비 거름을 주고 午後에는 농약 二化螟蟲을 妻와 같이 농꼴 5斗와 밭원뚝밑 아논後 1斗을 주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듯하여 중지하고 …

◎ 6월 14일 (음 5월 14일) 목요일 雨雲

甘雨. 속이 불편하여 잠에서 깨여보니 비방울 소리가 부슬부슬 나린다. 방가와 분합문을 열고 내다보니 자욱한 하늘에 비가 나릴 것만 같다. 食前 일어나 보니 제법 많이 나리여 물이 많이 고이였다. 田穀엔 아주 적당량의 비가 나리였으나 물 없는 논은 不足이다. 농꼴 아논 물을 밭원 6.5斗로 내릴 물똘을 내고 물을 내리고 妻와 같이 꼬추 모종을 하고 午後엔 동욕꿀 위밭의 그루을 갈고 고구마 심었다. 참으로 방가운 비가 나리여 우리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 주었다.

◎ 6월 19일 (음 5월 19일) 화요일 雲

午前에 가랑비가 오락까락 하여 누어 있다가 午後엔 나는 꼬추밭 감자 캐고 妻는 원두밭에 집을 피였다. …

◎ 6월 22일 (음 5월 22일) 금요일 晴

午前에 밭벼밭을 매고 午後엔 물을 폈다. 날씨는 每日 흐리고 비는 오지 않아 不足인 논이 많다. 물을 푸면 되겠는데 풀 사이가 없어 따라냈다.

◎ 6월 26일 (음 5월 26일) 화요일 雨

어제 저녁부터 가랑비가 부슬부슬 나리였으나 아주 不足량의 비였다. 식전에 제법 나리여 洞舍

을 부칠랴다가 비가 끝이는 듯하여 농꼴 봄보리 밭의 그루을 갈았다. 午後엔 또 비가 나리였다.

◎ 6월 27일 (음 5월 27일) 수요일 雨

날씨는 들지 않았으나 밀이 장마을 치룰 것 같아 따비밭의 밀을 午前 中 妻와 같이 비고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쏘다저 모두 비을 마처 조파리였다. 午後엔 비을 맞아가며 밀그루을 갈았다. 갈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 6월 28일 (음 5월 28일) 목요일 雨雲

인제 비는 풍족양의 비가 나린 듯하다. 食前에 논을 일주하니 물이 많다. …

◎ 6월 30일 (음 6월 1일) 토요일 雨

…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세죽을 쑤고 논을 一週하니 쏘나귀로 피부어 왜물이 제법 많이 나리였다. 20分 더 나리였으면 (工事水路)場에서 쌓놓은 왜뚝은 무인지경이였다. 청용뿌리와 水路 인접 논은 피해가 많다. 우리도 봉쌔가 많이 들어같다. 面에서 會가 있어 가기 前에 논에 들리니 왜가 터저 골장에 물이 끼였다. …

◎ 7월 1일 (음 6월 2일) 일요일

… 날씨는 개이지 않았으나 밀을 비기 始作해서 雄浩, 大浩을 데리고 밀을 午前에 비고 다 데리고 동욕꿀 논을 除草하고 점심을 먹고 질기는 하나 밀그루을 갈았다. 매우 진 편이였다. …

◎ 7월 2일 (음 6월 3일) 월요일 雲雨

비을 맞아가며 옆밭의 밀을 떨었다. 午前에 다 떨고 나니 비가 쏘다저 퍼다가 사랑방에 퍼다 부었다. 午後에 비가 멈추어 뒤검불을 드리였다. …

◎ 7월 4일 (음 6월 5일) 수요일 雲

… 31.2度을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다. 장마전선이 下강하여 비는 들었으나 6,7일경에 北상하여 또 장마선을 당할 것 같다. 水路工事도 막심한 피해낼 수 없을 듯하다. …

◎ 7월 10일 (음 6월 11일) 화요일 晴

… 今月 25일까지 장마가 진다던 관상대 발표는 어디 가고 비가 온 지도 어연 10餘日이 지나 밭을 매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

◎ 7월 13일 (음 6월 14일) 금요일 晴

午前에 장마 대비 次 妻와 같이 집까리을 손질하고 썩은 것은 뒤엄으로 쌓아 놓고 午後에는 가마니기을 차려 놓고 가마니 2枝을 짰다.

◎ 7월 16일 (음 6월 17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동욕굴 논을 풀을 뽑고 午後엔 세풀을 비였다. 날씨는 매우 더운 날씨였다. 예년에 비해 더위가 미리 닥아와 國民校는 放學을 하고 中高等校도 21일게 한다고.

◎ 7월 17일 (음 6월 18일) 화요일 晴

… 날씨가 무덥고 비온지 오래여 논마다 말라가고 찌는 더웁다. 가마니을 午前에 3닙을 짜고 나니 땀이 하도 나 中止하고 午後에도 아주 못 치겠어 못 치고 해가 기울어서야 1枝 짜고 세풀을 비였다.

◎ 7월 19일 (음 6월 20일) 목요일

… 颱風 민라듕가 오늘 中으로 우리나라 中部地方을 通過한다고 中央觀象臺 發表가 있어 매우 걱정을 하였으나 별 피해 없이 지났다. 颱風권內 들어있어서인지 어제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밤새도록 나리였다. 밭에는 아주 적당량의 비인 듯하다. 날씨도 시원하고 하여 空叭 7닙을 짰다. 午後에 논을 一週하니 논에도 물이 제법 늘었다. …

◎ 8월 11일 (음 7월 13일) 토요일

가마니 2입을 짜고 더워 못 짰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는 숨을 通할 수 없다.

◎ 8월 15일 (음 7월 17일) 수요일

… 날씨는 35度란 혹한이다. 저녁이면 찬바람이 일더니 오늘은 말할 수 없이 더웁다. 날씨는 가물어 논마다 마르고 田穀은 다 죽어 간다. 今年 꼬추는 아주 버리게 되었다. 몇일 사이에 비가 안 오면 農民은 큰일이다.

◎ 8월 16일 (음 7월 18일) 목요일

老炎은 더욱 지는 듯 더운 날이다. 가마니기을 차려놓고 叭니을 짰다.

◎ 8월 19일 (음 7월 21일) 일요일

前日과 同. 단비

◎ 8월 20일 (음 7월 22일) 월요일
… 단비.
◎ 8월 23일 (음 7월 25일) 목요일
비가 와 精米所 車가 今日에도 못 왔다. (…) 기다리지 않는 비는 종일 나리다.
◎ 9월 9일 (음 8월 13일) 일요일
… 午後엔 비가 나리였다.
◎ 9월 25일 (음 8월 29일) 화요일
… 늦게 내려 와 벼글채을 뜨고 점심을 먹고 나니 쏘나귀가 나리였다. …
◎ 9월 26일 (음 9월 1일) 수요일
날씨가 갑짝히 차겁고 바람이 심히 불어 벼 비라 갈랴다가 동욕굴 콩을 것고[꺾고] 수수을 첬다.
◎ 9월 29일 (음 9월 4일) 토요일
妻와 같이 벼 농꼴 밭원 벼을 비여 갈았다. 날씨가 흐리고 가랑비가 나리는 속에 벼을 비였다. …
◎ 10월 13일 (음 9월 18일) 토요일 雲
… 식전에 비방울을 하여 일이 중지데나 했으나 흐린 날씨에도 일을 했다. 바람이 일고 날씨가 차거워 일을 하기가 고디였다. …
◎ 10월 26일 (음 10월 1일) 금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前日 실어온 밭벼을 午前中 脫穀하고 午後엔 비가 올 것이라 하여 벼을 조파리였다. …
◎ 10월 27일 (음 10월 2일) 토요일
… 저녁나절은 비가 나리기 始作하는데 많이 오지 않기을 빌며 來日은 防衛協議會 會가 있어 會에도 나가야겠는데 일은 몰리고 會는 잦고.
◎ 10월 28일 (음 10월 3일) 일요일
前夜에 밤새도록 부슬부슬 가랑비가 나리였다. 식전에 일어나 보니 아논에 물 고인 것으로 보아 많은 비가 나린 모양이다. …
◎ 11월 10일 (음 10월 16일) 토요일
前日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도 종일 나리였다. (…) 우박이 쏘다지고 진눈개비가 나리고 험악한 날씨다.
◎ 11월 14일 (음 10월 20일) 수요일
每日 日氣가 不順한 고로 脫穀이 오늘도 물리였다. 2,3日이면 끝날 줄 알았던 脫穀은 몇일 물리게 되였다. 午前 中 새끼을 2통 꽜다.
◎ 11월 16일 (음 10월 22일) 금요일
… 날씨는 不順하여 脫穀은 늦어가고 조바심이 된다. 今日도 꼴새 사나운 진눈개비 우박 비 등이 오락가락 했다.
◎ 11월 17일 (음 10월 23일) 토요일
… 今日도 진눈개비가 오락가락 不順 日氣다.
◎ 11월 18일 (음 10월 24일) 일요일
… 午後에 눈이 또 나리였다. 脫穀을 못해 큰일이다.
◎ 11월 19일 (음 10월 25일) 월요일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나리였다. 날씨는 갑작히 냉하여 얼어붙었다. 종일토록 눈은 녹지 않아 오늘 脫穀은 또 드티였다. …
◎ 11월 20일 (음 10월 26일) 화요일
… 자고 일어나니 날씨는 냉하나 일은 해야겠기에 일을 시작했다. …
◎ 11월 21일 (음 10월 27일) 수요일
마당이 수렁 같이 질어 脫穀을 못하였다.
◎ 12월 9일 (음 11월 15일) 일요일 晴
날씨는 푸근한 날씨다. 午前 中 동욕굴 밭에 거름을 첬다. …
◎ 12월 22일 (음 11월 28일) 토요일
… 下午에 共販에 갈까 하다가 눈이 많이 나리여 못 같다. 제일 많이 나린 눈이다.

Ⅱ. 간척과 토지 이용

1959년

◎ 3월 23일 (음 2월 15일) 월요일 晴
… 朝飯食事 中에 妻가 아버지 家 今日 왜뚝[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경작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일종의 배수로] 막는다 하여 朝飯食事가 끝나 곳 今年 산 高棧 앞 九마지기로 가니 사람 몇이 왜뚝을 막고 있다. 그 큰 왜뚝이 지처노니 사람이 많이 들 것이라 六名이 종일 지게질로 막은 것이 1/4 정도밖에 못했다. …

◎ 3월 25일 (음 2월 17일) 수요일 晴雲

… 朝飯食事를 하고 곳 아버지 家 왜뚝 막는데 넘어가서 하로를 심에 게우는[힘에 겨운] 지게질 삽질 等으로 하로 해를 보내고 집에 늣게 와서 …

◎ 4월 1일 (음 2월 24일) 수요일 晴

… 나는 午前 中에서 앞 왜뚝 지친 것을 파냈다. …

◎ 4월 3일 (음 2월 26일) 금요일 雲雨

… 나는 아버지 家 왜뚝 막는 데 일을 같다가 午後 3時 頃에 비가 나리여 품을 미고 드러왔다. …

◎ 4월 24일 (음 3월 17일) 금요일 雲風

바람은 如前히 繼續되고 소란을 이룬다. 바람 소리에 늣게 잠든 나는 또 바람 소리에 일어나들로 같다. 모자리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은 몰린 것이다. 농꼴서 희각 소리가 나고 사람이 웅성이는 소리가 나서 맛바람에 물이 海溢해서 모이는 것이 틀림없어 산마루로 가보니 원뚝[바닷가에 쌓은 제방]으로 모이며 야단덜이다. 바같원뚝을 안 마것으면 안원뚝 때문에 우리도 야단을 할 것이지만 안심하고들 있다. 좀 잇으니 뒤깨로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가보니 네재 祖父 家 원뚝 다섯재祖父 家 원뚝 等이 터젔다. 다섯재祖父 家에서 도랑원물 대느라고 잘르고 마근 것이 잘못 데여 터젔다는 것. 朝飯을 마춘 나는 원뚝 막는데 갈까했는데 사람이 안들 가는 것 같아 그냥 와서 앞 왜뚝을 첫더니 거이 다 가서 원뚝을 막아주어 나는 제진[죄진] 놈 같고 양심이 걸리여 못 견딜 지경이고 사람 볼 면목이 없다.

◎ 5월 6일 (음 3월 29일) 수요일 晴

… 논에서 가름[가래; 논에서 자라는 잡초의 일종]을 딸까 하다가 속이 상해 그냥 와 앞 왜뚝 復土 作業과 떼를 몇 짐 저다 잎이였다. …

◎ 7월 6일 (음 6월 1일) 월요일 暴雨

어느 때나 되였는지 비 오는 소리 요란하여 이러나니 비가 많이 나리여 왜뚝에 뛰여가니 물이 별로 네려가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와 누엇다가 늣잠이 들러 이러나 또 왜뚝에 가 보았다. 조곰 있더니 비가 쏘다지기 始作해서 집에 와 있으니 앞이 안 보이게 폭우가 나리여 뛰여 가 왜뚝을 보니 질름질름[둑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서 둑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 밭 논 산 할 것 없이 물벌창을 하여 天地을 개벽하는 것 같다. 아논 뚝 왜를 가니 왜뚝이 넘어 갈 수가 없어 갠신이 가보니 우리 내가 구멍이 저서 물리로 응급조치를 하고 아버지가 내뚝을 막았다. 마을을 보니 현우씨 家 내가 탁 터저 물이 아논으로 벌창 약 40分 가량 쏘다지고 그치였다. 앞 말 가웃지기 논뚜랑이 자빠저 막고 왜뚝 손질을 하고 點心을 마치니 동리 사람이 현우씨 家 왜뚝을 막는 데 협조하여 나도 가서 午後에 종일 막고 왔다.

◎ 7월 20일 (음 6월 15일) 월요일 晴

… 東南風이 심히 부러 畓作物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海溢한다고 야단이다. 유두 사리가 第一 조수의 차가 심한 것이다. …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흐린 날씨에 東南風이 부러 畓作物이 종치 않을 분더러 유두 사리에 물이 많이 미를까 원뚝 가진 사람의 마음을 조린다. 물은 많이 미렀으나 물 밀 頃에 바람이 자서 다행으로 원뚝들은 無事했다. …

◎ 7월 22일 (음 6월 17일) 수요일 晴

… 물이 얼마나 海溢하나 앞 원뚝에 가보니 前日과 같고 바람도 업어 잘 다니여 나같다. …

◎ 8월 9일 (음 7월 6일) 일요일 雲雨

午後에 앞 원안에 가서 싸족 두어 사발 잡아왔다.

◎ 8월 10일 (음 7월 7일) 월요일 雲

午前 중 그럭저럭 하다가 午後에 앞 원안으로 싸족을 쓰르려 같섯다.

◎ 8월 17일 (음 7월 14일) 월요일 晴

… 午後 늦게서야 앞 왜뚝 까깟다.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 쏘나귀가 나리여 왜뚝이 질름질름했다. (…) 밤이 되니 번개 하고 뇌성을 하더니 급기야 또 폭우가 始作되여 일대 물소동이 나리였다.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왜뚝은 전부 넘고야 말았다. 다행이 우리는 별로 해 본 것이 없고 베가 좀 쓰러지다 말았다.

◎ 8월 25일 (음 7월 22일) 화요일 雲 폭우

마실을 같다 와서 자리에 누어 잠이 드렷는데 뢰성 번개가 심히 하더니 급기야 폭우가 始作해서 왜뚝에 뛰여 같다왔다. 아마 밤중은 지난듯하다. 숙금하더니 똑 폭우가 게속 나리여 왜뚝에 뛰여 같더니 우리 왜뚝은 질름질름하고 東雨 家 왜뚝은 질질 넘어간다. 이거 큰일이다.

◎ 8월 26일 (음 7월 23일) 수요일 폭우

밤새도록 왜뚝에 뛰여다니고 또 담이 들어 몸 움직이기가 매우 싫다. 朝飯을 마치고 왜뚝 부토 작업을 하고 …

◎ 8월 31일 (음 7월 28일) 월요일 雨

저녁에 千동하더니 食前부터 나리기 시작한 비는 午前 中 조금도 쉬지 않고 심히 나리여 왜뚝에 가서 살다 싶히 했다. …

◎ 9월 24일 (음 8월 22일) 금요일 雨

食前에 또 와서 오늘 일 오라 해서 朝飯을 마치고 일을 가 원뚝을 5명이 뜨덨다.…

◎ 10월 27일 (음 9월 26일) 화요일 雲

화죽꼬[논에 물을 저수하기 위해 예전 수문자리에 쌓은 둑] 막았다. (…) 논뚝 물꼬를 동네 사람이 같이 가 막었다.

◎ 11월 24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雲

… 뒤개 막을 사람이 다섯재祖父와 뒤개를 일주하고 도라와 正月 20日부터 착수한다고 한다. 농꼴 難民事業所도 청부로 바끼였다.

◎ 11월 27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 요즈음 농꼴 難民事業所에 請負業者가 동리에 있게 되어 여러 사람 품 팔려 다닌다.

◎ 12월 4일 (음 11월 5일) 금요일 晴

… 농꼴事業所 工事판이 터져 모두 일 간 관계로 내가 부잡하였다.

◎ 12월 8일 (음 11월 9일) 화요일 晴

… 농골事業所 일판에 일을 같섰다. 請負業者가 동리와 잇서인지 별로 우리에 대해서는 관습지 않고 일을 부치였다. 심들지 않게 하로 일을 하고 …

◎ 12월 10일 (음 11월 11일) 목요일 雲

食前에 마당에 나가니 井記士가 와서 찾어 나가니 오늘부터 우리 事業에 와 督士로 있어 달라고 해서 朝飯을 마치고 現場에 나가 첫날이라 만보[작업량에 따라 전표를 써주고 나중에 품값을 계산하는 일]도 주고 했다. (…) 夕飯 後에도 事務室에 가서 일을 보고 왔다. …

◎ 12월 13일 (음 11월 14일) 일요일 雲雨

朝飯 일직 마치고 事務室에 가서 傳票를 쓰고 몃으로 나같다. …

◎ 12월 14일 (음 11월 15일) 월요일 雲雨

오늘도 늦게야 현장에 나가 감독을 했다. 夕飯後에는 事務 정리를 하고 …

◎ 12월 15일 (음 11월 16일) 화요일 雲雨

늦게 현장에 나같다. 夕飯 後에는 傳票를 쓰고 正理했다.

◎ 12월 16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冷

… 朝飯을 마치고 現場에 나같더니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냥 있다가 도라왓다. …

◎ 12월 17일 (음 11월 18일) 목요일 晴冷

날씨 벼랑간 차거워 현장 일은 못 하고 書類正理만 종일토록 하였다.

◎ 12월 18일 (음 11월 19일) 금요일 雲冷

오늘도 일꾼들이 나오지 못하여 일을 못했다. 눈도 나릴 것 같은 날씨가 게속 되더니 눈은 나리지 않고 냉하기만 하다. 하는 일 없이 있섰다. …

◎ 12월 19일 (음 11월 20일) 토요일 雲冷

… 洞里 사람 몇이 나가 구루마[염전을 만드는데 쓰이는 흙을 나르는 구루마로 레일을 설치해서 이동했다]를 굴리였다. 午後에는 오즘을 치고

夕飯 後에 書類 정理를 하였다. …

◎ 12월 20일 (음 11월 21일) 일요일 晴

… 이러나 除雪作業을 하고 朝飯을 마치고 現場일이 엇이 되나 事務室로 가니 일 한다고 해서 人員을 보니 사람이 별로 없어 現場에 나가서 일을 안 시키고 드러왔다. 오늘일은 중지다. 오늘이 간조[勘定; 셈, 계산] 날인데 돈주 及 所長이 돈 주선 次 나가서 안 와 못했다. …

◎ 12월 21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晴

… 오늘 현장 일은 人員不足으로 中止했다. …

◎ 12월 22일 (음 11월 23일) 화요일 雲

오늘은 일즉 現場 일 같다.(總員 15名뿐이었다)

◎ 12월 23일 (음 11월 24일) 수요일 雲雪

일직 現場에 나갈다. 15名이 나와 구루마 굴리다가 下午 3時 頃에 눈이 많이 나리여 그냥 드러왔다. 夕飯 後에는 事務를 정리하고 술빵치기를 처서 내가 500원을 내게 되었다. …

◎ 12월 24일 (음 11월 25일) 목요일 晴

날씨도 차거운 날 늣게 일어나 있다가 朝飯을 마치고 일 갈려고 건너가 사람을 동원시키니 춥다고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아 事業主 보고 날씨 차거워 일도 안 될뿐더러 사람도 동원이 안 된다고 하니 그만 두라 해서 종일 놀았다. …

◎ 12월 25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晴

승탄일 (…) 우리 作業場도 일을 中止하고 會食이라도 할까 하고 事業主와 함께 高棧 넘어가 술 두 통을 받고 안주를 求할려고 쏘다니였으나 없어 오징어와 멸치를 사다가 炳賢 家와 炳殷家에서 장만하여 어른은 炳賢 家 젊은 페는 炳殷 家에서 午後에 食事를 始作했다. …

◎ 12월 26일 (음 11월 27일) 토요일 晴雲

… 朝飯 食事는 (…) 하고 現場에서 드러오니 水原 작은叔도 오시여 尹記士와 잘 알아 같치 高棧 넘어갈다. 늣게 와 저녁나절 진눈이 나리여 일을 午後 二時 頃에 中止하고 (…) 날은 풀리였으나 진눈이 나리여 일에 지장막심하다. 저녁 늣게 敎雨氏 家에서 술을 내서 事業主 金과 尹記士 나 等이 잘 먹고 왔다. …

◎ 12월 27일 (음 11월 28일) 일요일 晴

朝飯 食事를 (…) 하고 現場으로 나갈다. 오늘은 현장 인원이 많아 일하는 것 같다. …

◎ 12월 28일 (음 11월 29일) 월요일 晴

종일토록 現場에 나가 감독하고 드러와 事務를 정리하고 있으니 …

◎ 12월 29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晴

… 現場은 감독을 또 한 명 냈다.

◎ 12월 30일 (음 12월 1일) 수요일 晴

現場에 나가니 감독이 안 나왔더라. 알아보니 前日 농꼴 靑年들에게 집단 폭행을 했다는 말 상처가 심하여 病院에 같다고. 夕飯 食事는 事業主 及 尹記士에게 술과 떡국을 대접했다. 늣게 事務를 정리하고 늣게 도라왔다.

◎ 12월 31일 (음 12월 2일) 목요일 雲

오늘 주탕꾹과 술 몇 잔으로 請負者와 몇몇이 망년해를 보냈다.

1962년

◎ 1월 1일 (음 12월 3일) 금요일 晴

… 별 것 같지 않은 우리는 오늘도 作業現場에 일을 나갈다. 저녁에 술잔이라도 나누고 간단한 會食이라도 할까 했으나 事業主가 돈이 떠러저 중지하고 말았다.

◎ 1월 2일 (음12월 4일) 토요일 晴

… 오늘도 作業現場에 나가 종일 서 있다 왔다.

◎ 1월 3일 (음 12월 5일) 일요일 晴

… 現場 감독으로 나갈다 왔다.

◎ 1월 5일 (음 12월 7일) 화요일 晴

날씨 매우 좋던 날씨가 오늘 갑자기 냉하여 現場에서 섯기가 추워 못 배길 지경이라 點心 後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나갈다. 오늘은 일공 구루마가 아니고 품방[흙을 파는 사람, 구루마로 흙을 운반하는 사람 등 몇 사람이 조를 짜서 일을 하는 것]이라 체고[최고] 기록을 내여 50口를

빼고 왔다. …

◎ 1월 6일 (음 12월 8일) 수요일 晴

… 나는 일직 現作業場에 …

◎ 1월 7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 나는 事務室로 와서 농골 難民이 作業場에 와서 말썽을 피여 所長과 타협을 지워 달래라 事業主 보고 가보라고 하고 집에 와 朝飯을 마치고 現場으로 나가니 농골 靑年 둘이 나와 또 말썽을 피여 作業하는 사람까지 氣分 좋지 않게 하여준다.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 피한다는 格으로 이것덜은 털만 건드리여도 진단이다 벌금이다 손해를 뵈이는 고로 그저 手袖傍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하니 이놈덜의 사기만 독꾸는 셈이 된다. 夕飯 後에 事務 정리 차 건너갈다가 사람이 많아 못하고 건너왔다. …

◎ 1월 8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雲

… 朝飯 後에 날씨 좋치 않고 하니 일을 中止하고 午後에 洞里 일꾼과 또 他處에서 온 일꾼이 나가니 鐵[흙을 실어나르는 수레가 다니는 레일]을 중간중간 끈어노았다. 이것은 추축건대 前日 말썽 피던 농골 사람의 짓이라 가고 作業을 못하게 되니 所長에게 같다. 所長은 마음대로 해서 속히 作업이나 해달라는 말. …

◎ 1월 9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일 나갈랴고 농골마루에 나가니 일 나온 사람 없어 그냥 도라오니 事業主는 일꾼도 공갈과 협박을 하여 쪼차버린데다가 구루마 철도 군데군데 끈어놓아 그냥 있을 수 없다고 新浦로 해서 平澤으로 나가보겠다고 떠났다. 尹記士가 옷 좀 빌리여 달라 해서 바바리코트를 빌리여 주고 …

◎ 1월 10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 午後에 또 事務定理 次 넘어가 事務를 定理하고 늣게서야 넘어왔다. 夕飯 늣게 平澤 간 事業主 尹記士가 도라왓는데 일은 복잡하게 되는 모양이다. …

◎ 1월 13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晴

… 平澤 같던 事業主가 와서 엊지 되엇나 궁금하여 건너가니 告訴狀을 내고 온 모양이다. 말에 依하면 조용치는 않을 것 같다. 午鍾頃에 金斗植 尹記事를 오라해서 술과 떡을 대접했다. …

◎ 1월 17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晴

… 午後에 마실 갈다가 오니가 찝차가 뒤동산에 드러와 웬일인가 하고 건너가 보니까 뒤깨 面에서 막든 것을 막는다고 왔다가 바로 도라서서 가버리였다. 앞 난민사업소 請負業者는 告訴事件으로 나같는데 아직 도라오지 않았다.

◎ 1월 19일 (음 12월 21일) 화요일 晴

… 朝岩 가서 네리니 9時 半 頃은 되여서이다. 車에서 네리여 老井里[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事業主 家에 가니 한 2마정 가량 가니 老井里 사람이 와서 알아보니 前日 벌써 더났다고 하여 도라서서 와 (…) 午後 4時 頃에 尹記事가 平澤서 崔 現場감독과 같이 다 우리 집에서 술을 대접하고 보냈다. …

◎ 1월 21일 (음 12월 23일) 목요일 晴冷

… 夕飯 後에 마실을 같더니 농골 靑年들이 많이 너머와 現場監督으로 있던 崔氏 보고 여러가지로 말을 하는데 위협적인 言事다. 알고 보니 오늘 午前에 농골서 所長이 매를 많이 마젔다는 말이 들리고 日前 告訴事件으로 호출을 당한 모양이다. 모두 集團行動으로 좋지 못한 행동을 취한다. 問題는 점점 커가지는 모양이다. …

◎ 1월 22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晴

… 종일토록 농골서 事業 尹技師를 차저 다니것만 나 자신 尹技師의 간 곳은 알 수 없어 궁금하다. 나의 옷을 입고 같는데 오늘 식前에 나같는데 저녁에도 도라오지 않았다. 간조도 支佛해야 할 것을 事件이 점점 확대 데여[되어] 용히치 않을 것 같다. …

◎ 1월 24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晴雲

… 농골서는 또 싸움이 버러저 야단이었다 한다. …

◎ 1월 25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雲雪

… 尹炳賢 家로 마실 가 있으니 尹記士가 왔다고 해서 올라가보니 食前에 와 큰 윤서방 家에

같다가 양복을 찾저 같고 왔다. 尹記士는 平澤에 나같다. …

◎ 2월 8일 (음 1월 12일) 월요일 晴

… 동리 사람이 모이면 일품 갑 건에 대해서 말이다. 請員者는 오도가도 않고 부르러 간 사람도 함흥차사다. 간조는 한 푼도 안 주고 사람은 오도가도 않는다. 윤서방도 쫄린다. 아푸론 윤서방이 매우 귀찮을 것이 틀림없다. …

◎ 2월 10일 (음 1월 14일) 수요일 晴

… 事業主 尹技師가 와 가서 놀다 …

◎ 2월 12일 (음 1월 16일) 금요일 晴

… 나는 마실을 또 가니 炳殷 家에 가 사람이 많이 모이여 가보니 농꼴서 넘어와 尹技師를 간조 내라고 졸라대는 것이다. 큰 윤서방도 많이 졸리었다.

◎ 2월 14일 (음 1월 18일) 일요일 晴

前日 炳哲 父親이 어렵지만 金斗植 事業主 家에 같다 오라고 해서 朝飯을 마치고 좀 잇다가 尹技師와 같이 떠나 감으로 해서 건너가[썰물 때 갯벌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것] 2時 頃에 到着했다. 집에 가니 없어 술집으로 가보니 거기에 있어 술과 밥을 먹고 곳 두식의 집으로 왔다. 그리하여 간조 건에 대해서 말하니 별로 신통치 않다. 하로를 쉬일 것으로 그날 거기에서 묵기로 했다. 대접을 잘 받었다.

◎ 2월 15일 (음 1월 19일) 월요일 晴

前日 斗植 家에서 밤 늣게까지 이야기하고 늣게 일어나니 文光一 辯護士 외 너줄거리가 차자와 여기 일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하니 잘 알앗노라고 來日 떠나 보겠노라는 말을 하였다. 10時 頃에 떠나 尹技師와 함께 떠나 와 朝岩으로 해서 떠나왔다. 집에 下午 3時 半 頃에 到着했다. …

◎ 2월 17일 (음 1월 21일) 수요일 晴

… 午前에 거름을 다 주고 오늘이 간조날이라 해서 건너가보니 尹技師는 도망을 가고 윤서방 혼자 졸리고 있다. 농꼴 사람이 윤서방 가에서 진을 치고 있다. …

◎ 3월 1일 (음 2월 4일) 화요일 晴

… 뒤개 막기로 결정되였다 한다. 상무회에서 公文 受.

◎ 3월 11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

… 朝飯食事를 하고 앞 왜뚜랑 모래를 午前 中파 언고 午後에는 아논 왜뚝 첬다. …

◎ 3월 18일 (음 2월 21일) 금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尹서방이 보자고 해서 가보니 간조 문제를 말해서 다소 남아 주겠다고 해서 나는 엊지 生覺하느냐고 말하니 나는 生覺지 않았다고 하며 못 주겠다는 의사. 한 일판에서 일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월급이라 전표가 없는 관계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

◎ 3월 19일 (음 2월 22일) 토요일 雲

… 아논 왜뚝을 때를 午前 中에 잎이었다. 안논 왜뚝을 손질하고 오다가 …

◎ 3월 22일 (음 2월 25일) 화요일 雲

… 夕飯 後에 尹서방이 와서 來日 새벽에 다만 몇 푼이라도 간조를 해개되는데 농꼴 점 넘어 가자고 해서 간다고 했다. …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 농꼴 사람들이 와서 勞債 支佛証과 傳票保管証을 받으려 와서 내가 代書를 하여 주었다.

◎ 4월 25일 (음 3월 30일) 월요일 晴

… 前夜에 尹서방이 반간조를 해주었다는데 나에게는 아무 소식 없다. 청부 맡어하던 尹基和도 오늘 午後에 왔다. 일은 始作하데 尹서방이 맡어 한다고 한다. 저녁에 농꼴 청년 몇 명이 와서 尹基和 보고 쫄라 댄 모양이라 尹基和는 피하였다. 요지음 동리 주요 화제는 데모 이야기가 절반이고 간조 이야기는 좀 숙끔한 편이다.

◎ 5월 3일 (음 4월 8일) 화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尹基和에게 간조 말을 하러 윤서방 보고 말하니 윤서방은 모르겠다고 하여 큰소리가 나왔다.

◎ 5월 5일 (음 4월 10일) 목요일

… 앞 말 가웃지기 윗논에 물이 오래 갈 것 같

이 안아 밑창배로 합해 비리였다. 큰일이다. 昨年엔 넙디리[높드리; 높고 메말라서 물기가 적은 논밭] 논에 물이 많이 있었것만 올해는 아논이 걱정이 된다.

◎ 5월 12일 (음 4월 17일) 목요일 晴

… 무른 마르고 바람은 불고 하두 걱정이 되여 高棧 원안은 어느 정도인가 너머 가 보았다. 高棧은 더 하다. 물이 흔한 곳이것만 물이 고인 곳이 없고 아버지 家 아홉 마지기도 몇일 갈 것 같이 않다. 高棧은 날만 우직해도 물이 고이는 곳이지만 거기도 걱정이다. …

◎ 5월 13일 (음 4월 18일) 금요일 雨

… 비는 게속 나리고 있다. 종일 나리였다. (…) 午後에 들에 가보니 물 있던 논이 물이 제법 많이 고이였다. 밭원 뜰이 한 배미도 못 나갈 논이 비가 나리니 제법 물이 고이였다. …

◎ 6월 28일 (음 6월 5일) 화요일 雨

종일토록 비가 나리였다. 몇 차례 세차게 폭우가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안팠원안이 물이 고이여 모가 물속에 드러갇섰다. …

◎ 8월 7일 (음 윤 6월 15일) 일요일 晴

… 夕飯 後에 농꼴 같다 겨울게 일한 품갑 받을 것을 議論하고 와 윤기화에게 말하니 몇일 더 참아달라는 것이다. 몇일 있다 해결치 안 해 주며는 받는 최후 수단 한 길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다.

◎ 8월 10일 (음 윤 6월 18일) 수요일 晴

… 午後에 상귀[삼괴: 우정·장안면이 위치한 반도]서 여러 사람이 건너 와 알아보니 겨울에 일 시킨 尹金尹 三人이 모두 와 있어 夕飯을 마치고 건너가니 농꼴 사람 大谷 사람 等 모두 모이여 옥신각신 야단덜이다. 일 시키고 일 품갑 안 줄랴고 이리저리 三人이 相互 責任 傳가를 시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얄굿은 일이다. 밤이 늦게까지 해결을 못 보고 늦게서야 집에 와 자리에 드렀다.

◎ 8월 14일 (음 윤 6월 22일) 일요일 晴

… 食前에 앞 왜뚝을 뜻고 조반 後에는 마실 같다가 모처럼 高棧 넘어가 重植을 만나고 왔다. …

◎ 8월 29일 (음 7월 8일) 월요일 雲

… 夕飯 후에는 마실을 건너가니 金斗植 농꼴 事業所 請負에 관계되는 者가 와서 노임관계에 對해서 말하다가 해젔다[헤어졌다]. …

◎ 8월 31일 (음 7월 10일) 수요일 晴

… 夕飯을 마치고 있으니 尹基和가 尹炳殷에게 매를 맛고 하소연을 하여 나에게는 그런 말을 말라고 일러 보냈다. …

◎ 9월 1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 前야에 金斗植과 尹基和가 윤서방 가에서 무스히 매를 맡고 우리 집으로 왓다가 平澤 나간다고 떠났다.

◎ 9월 24일 (음 8월 4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를 하고 나니 밖께서 찾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농꼴 所長이 찾는데 오늘 人員정檢이엇는데 나와줄 수 없는냐는 것. 동리를 처다보니 洞里 사람이 다 플려나오고 있다. 현 세帶數 27세帶에 100세대 配給을 타서 事業所 운영을 하는지라 政府나 天主敎에서 조사 오면 이렇게 인근 사람을 動員을 한다. 나도 삽을 갇고 現場에 나가서 있다가 天主敎에서 와 금렬[검열]을 하고 下午 늦게서야 가 우리도 늦게 도라왔다. 道民證과 印章도 갇다 주엇다가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는 難民들의 편의를 보아주것만 그네들은 조곰만 수틀리면 언제 보앗느냐는 식으로 대들고 있다. …

◎ 11월 18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 下午에 洞里靑年을 데리고 아논 뚝을 마그러 가니 안꼴 조부가 밭원에 물을 대니 더 잇다 막으라 하니 洞里一代를 희생시키고 自己만이 살 것다는 주장이다. 음물 한아 잇다고 아논물을 마음대로 하니 이거 말이 아니다. …

1961년

◎ 1월 30일 (음 12월 14일) 월요일

… 午前 中 놀다가 下午에 울타리를 始作해서

몇 발 치다가 아논 뚝 물이 새서 막으려 같다. …

◎ 2월 5일 (음 12월 20일) 일요일

… 아논이 물이 가득히 고여야 될 것을 물은 없고 당장 모자리 걱정부터 해야 될 지경이다. …

◎ 2월 7일 (음 12월 22일) 화요일

… 前夜에도 비가 나리여 아논 뚝이 밤새 괜찮은가 가보니 물이 새여서 한참 손질을 햇으나 할 수 없어 朝飯 後에 하기로 하고 왔다. …

◎ 4월 22일 (음 3월 8일) 토요일

… 朝飯을 마치고 마실로 건너가니 오늘 원뚝머리 왜를 돌린다고 하여 아논 받원 논 작인드리 나가 왜를 돌리는데 종일 걸렸다. 안 나온 작인도 있어 불만드리 있으나 일은 잘해 노았다. …

◎ 7월 7일 (음 5월 25일) 금요일

… 도랑원 여덟 마지기 조양 심다 나문 것을 심었다.

◎ 7월 8일 (음 5월 26일) 토요일

… 도랑원 열 닷 마지기 틀을 심었다.

◎ 7월 14일 (음 6월 2일) 금요일

朝飯食事를 막 치우고 나니 비가 많이 나리기 始作하더니 급기야 물 소동을 이루었다. 約 二時間 동안에 나린 비는 왜뚝이 질름질름 하게 나리여 금년 드러 처음 많이 나리였다. …

◎ 7월 28일 (음 6월 16일) 금요일

… 밤중부터 부슬부슬 가을비 나리 듯하더니 朝飯 後까지도 나리고 드렀다. 동리 사람들은 물이 많이 민다고 원뚝에들 같다왔다. …

◎ 8월 3일 (음 6월 22일) 목요일

… 저녁 자정짐 되여서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 왜뚝을 심히 걱정했다.

◎ 8월 8일 (음 6월 27일) 화요일 暴雨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폭우다. 왜뚝이 질름질름 넘고 논뚜랑이 넘어가고 했다. 食前에도 끝일 줄 모르고 나리엿다. 우산이 간 대 없어 찾다가 늣게 왜뚝에 가보니 별고는 없다. …

◎ 8월 12일 (음 7월 2일) 토요일 폭우

비가 오락까락 하더니 點心을 마치고 나니 폭우로 약 15分 가량 쏘다진 비는 일대 물소동을 이루었다. 논밭뚝 말할 것 없이 온 天下를 북덕물[붉덩물; 붉은 황토가 섞여 탁하게 흐르는 큰물]로 화햇다. 앞 왜뚝이 높은데 질름질름하고 炳均家 마당 안골 조모가 마당으로 물이 다 고이여 네려같다 한다. 그리고 곳 비가 드렀으니 말이지 5分만 더 와도 물소동이 많았을 것이다. …

◎ 9월 3일 (음 7월 24일) 일요일

中央氣상台 發表에 오늘 午後나 밤에 폭풍 예고를 하여 겁을 먹은 나는 왜뚝을 손질했다. …

◎ 9월 10일 (음 8월 1일) 일요일

오전 중 꼬추 따고 下午에는 앞 왜뚝을 뜨덧다. …

1962년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食前 일직 농꼴 왜뚝 가래질을 하자고 耘植이와 일찍 치기 始作해서 朝飯食事가 늣게야 끝나 …

◎ 7월 10일 (음 6월 9일) 화요일 雲

… 흡죽한 비가 나려야겟는데 이대로 날이 들면 큰일이다. 觀象台에선 태풍우가 잇을 것이라니 왜뚝이 터지고 할망정 이곳으로 지나가 많은 비가 왓으면 한다. …

◎ 7월 20일 (음 6월 19일) 금요일 雲

기다리고 바라든 비는 왔다. (…) 앞 왜뚝을 잘라노아 풍족하나 그냥 고인 곳은 아직도 不足하다. 아논 일곱 되지기는 물이 없다. …

◎ 11월 22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洞里사람을 動員하여 아논 화죽고를 막고 와 좀 잇으니 …

1963년

◎ 2월 12일 (음 1월 19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를 하고 아논뚝이 물이 새여 洞里

몇 명과 같이 물을 막고 집에 와 …

◎ 2월 1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 농꼴 논뚝이 터져 물이 많이 샌다고 해서 完雨, 然雨 等과 함께 急히 농꼴 가서 보니 저수지 뚝이 터져 물이 많이 샜다. 급히 막고 오니 거이 點心 때가 되어 …

◎ 3월 7일 (음 2월 12일) 목요일 晴

… 농꼴 앞 等 저수가 많이 되었다. …

◎ 3월 29일 (음 3월 5일) 금요일 晴

… 午後엔 농꼴 왜뚝을 耘植과 光雨와 같이 쳤다.

◎ 4월 5일 (음 3월 12일) 금요일 雲

… 午後엔 농꼴 가서 왜가래[가래의 일종. 일반 가래보다 크다.]질을 쳤다.

◎ 4월 6일 (음 3월 13일) 토요일 雨

… 모짜리를 해야겠는데 밭원에 물이 많아 물을 놓아야겠는데 물을 안 놓을랴고 한다. 물을 놓아달라고 밭원 논 하는 작인에게 말했으나 신통치 않게 여긴다. 밭원 作人 아번님 德雨가 물에 관심이 第一 많다. …

◎ 4월 27일 (음 4월 4일) 토요일 晴雲

… 午後엔 논뚜랑을 손질하고 집을 좀 추리고 나서 앞 왜뚝을 파냈다.

◎ 5월 14일 (음 4월 21일) 화요일 細雨

… 朝飯食事를 하고 비도 나리고 하여 한 심 잘랴고 누어있으니 둘째祖父任이 오시어 일을 좀 가라고 해서 일어나 뒤깨 役事을 하는 데 같다. 愼書房이 앓아 누었다고 대신 간 것이다. 12時頃에 비는 더 많이 나리기 始作해서 일손을 떼고 집에 와 있으니 …

◎ 5월 15일 (음 4월 22일) 수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前日 役事에 품민 것을 가서 일직 끝나고 왔다. …

◎ 5월 30일 (음 윤 4월 8일) 목요일 雨

물소동. 惡水같은 비는 밤새도록 오늘도 종일 나리어 일대 물소동을 이루었다. 논뚜랑이 잡아지고 논뚝이 지치고 안밭원안이 물이 저수해 논것 같다. …

◎ 6월 29일 (음 5월 9일) 토요일 폭우

물소동. 어제 저녁 밤새도록 물난리를 이루어 왜뚝 가진 집은 잠을 못자고 도라다니였다. 나도 견디다 못해 아논 왜를 다녀보니 괜찮아 그냥 도라와 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안 온다. 자고 일어나 일직 건너다보니 洞里 앞 왜뚝이 몽조리 지처 네리고 했다. 논을 一週하니 안팟원안이 물이 채이여 모 끝이 안 보이고 아논 물꼬자리는 벼뭇내기나 쓸렸다. 농꼴 가 보니 밭원 밭뚝이 지처 벼 3, 4束은 버리도록 지처 오늘 대충파 언젓다. …

◎ 6월 30일 (음 5월 10일) 일요일 雲

… 今年에 개논[간척지를 논으로 조성한 후에도 염기가 남아있는 논]들이 싹이 좋다. …

◎ 11월 19일 (음 10월 4일) 화요일

아논뚝 막다.(물꼬) (…) 靑年들과 아논 물꼬를 막고 …

1964년

◎ 4월 19일 (음력 3월 8일) 일요일 폭우 雨

어제 밤새도록 주룩주룩 나린 비는 물을 벌창이 되였으며 오늘 낮에도 끝일 줄 모른 비는 왜뚝을 질름거리였다. (…) 논뚜랑이 잡아지고[자빠지고] 왜뚝이 터지고 물소동이다.

◎ 7월 4일 (음 5월 25일) 토요일 雲

… 2,3日 後에 장마가 올 것이라 해서 걱정이다. 장마 準備도 準備려니와 왜뚝이 걱정이다. …

◎ 7월 14일 (음 6월 6일) 화요일 雲 쏘나귀

…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쏘다지니 왜뚝이 요절나는 줄 알었더니 비가 덜 오는 듯해서 들에 가보니 괜찮다. …

◎ 8월 2일 (음 6월 25일) 일요일 晴

朴書房이 뒤개에다가 원뚝매기을 始作했다. 洞里 사람을 얻어 오늘 일을 했다. 10餘발 막었다. 空手로 始作해서 혼자 막는다고 하나 아주 힘들

것 같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댓 마지기 먹겠[다.] 더운 날씨였으나 朴書房은 同悟하는 마음에서 막았다.

◎ 8월 8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雲 쏘나귀

事業所 원뚝 트지다. 食前에 妻가 급히 깨우는 소동에 일어나니 앞 원뚝이 터트리였다. 원뚝의 물이 넹겨 배끼니 큰일이다. 급히 뛰여가니 도저히 히망이 없는 것 같아 밭원 뚝을 막는 데 協助했다. 朝飯 後에 원뚝막는 데 갈랴고 했더니 쏘나귀가 쏘다지기 始作해서 물소동이 났다. 10時頃에 궁금하여 點心을 먹고 원뚝 터진 데 가서 보니 아주 위험천만 곳이 말이 아니다. 來日 날이 문제다. 高棧 兩 事業場 大谷 等 50名이 했으나 반도 못했다. 밤일 끝나고 집에 오니 12時다.

◎ 8월 9일 (음 7월 2일) 일요일 雨

食前에 일직 일어나 원뚝에 가 보았다. 오늘도 물이 많이 들어왔다. 구멍이 난 것을 잡았다. 위험한 고비를 넹겼다. …

◎ 9월 4일 (음 7월 28일) 금요일 폭우

… 저녁 나절은 폭우로 今年들어 第一 많이 나리였다. 洞里 피해도 第一많다. 앞 안우 家 왜뚝이 트저 우리 일곱 데지기도 큰집 밭에서 복쌔[覆沙; 모래가 물에 밀려 논밭 따위에 덮여 쌓임, 또는 그 모래]가 들어왔고 농꼴 밭원 밧뚝이 지처 나리였다. 洞里 왜뚝이 2, 3군데 터지였다. 물이 벋창이 되여 물소동이 한참 일어났다.

◎ 9월 9일 (음 8월 4일) 수요일 雲

… 高棧 가 작근집 왜뚝 손질하는 데 협조해주고 오다 …

◎ 11월 2일 (음 9월 28일) 월요일 晴

… 농꼴 아논 저수가 많이 되어 겨울에 돋으려면 논을 알 수 없을 뜻하여 논뚜랑에 막대을 해 꼬잤다.

◎ 11월 13일 (음 10월 10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아논 뚝을 멋이 막고 …

◎ 12월 29일 (음 11월 26일) 화요일 雲

… 午後에 장모래[삼계 앞바다] 대청매기[뭍에서부터 원뚝을 막아오다가 마지막 보름 동안 수심이 가장 깊은 갯고랑을 막는 일]에 구경같다. 動員된 人員 約 300名 어제 저녁에 대청매기하다 터치였다고 하나 오늘은 잘하면 견딜 것 같다.

◎ 12월 31일 (음 11월 28일) 목요일

장모래 대청매기에 가 보았다. 거이 다 막었으나 물이 작꾸 늘어 아슬아슬한 고비을 못 넹기고서 급기야 참드리에 터치고 말았다. 참으로 안되였다.

1965년

◎ 2월 23일 (음 1월 22일) 화요일

장모래 대청매기에 돈벌이 좋다고 해서 朝飯食事 일직하고 德雨 然雨 朴氏 等이 같다. 힘만 들고 일공[각자 따로 하루 품일을 하는 것] 품갑도 안 들어주다. 4人이 900원 벌고 왔다 집에서. 가마니 짜기로 안 된다.

◎ 3월 2일 (음 1월 29일) 화요일 晴

오늘 朝飯食事 일직하고 三溪 앞바다 대청매기 하는데 일을 가 일공을 했다. 골장에 말박기을 했다. 별로 힘 드는 일은 아니다. 품깝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午後 4時 頃에 집에 와 …

◎ 3월 3일 (음 2월 1일) 수요일

오늘은 더 일찍 일을 갈다 오늘도 골장 말박기을 했다. (…) 오늘은 집에 오니 3時다.

◎ 3월 4일 (음 2월 2일) 목요일 晴

오늘도 장모래 대청매기 일을 가 말 박는 일을 하고 왔다. 날씨가 차거워 일하기 좋지 안았으며 點心 먹고 나니 떨린다. 남의 돈 먹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아는 사람마다 날 보고 무엇이 그리워 이런 일을 다니느냐는 것이다. 하로 종일해야 150원 程度다. 집에 와 보니 …

◎ 3월 8일 (음 2월 6일) 월요일

10時 頃에야 三溪 앞 대청매기에 일을 같다. 얼음으로 土叭 쌓는 일을 했다. 일공은 과히 힘드는 편은 아니다.

◎ 3월 9일 (음 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일을 같다. 물이 잇어 일공일을 못하고 柱雨氏 家에 가 놀다가 點心 먹고 가 만보발기 흙을 짔다. 下午에 가 160원을 벌었다. 매우 힘 든다. 기진맥진이다. 집에 와 夕飯床을 받고 잇으니 …

◎ 3월 25일 (음 2월 23일) 목요일 風

… 下午 늦게 농골 논뚝 지친 것을 파내고 원뚝도 처올리다 냉기였다.

◎ 3월 27일 (음 2월 25일) 토요일 風

… 오늘 三溪 앞바다에 대청매기일 품갑을 준다고 해서 몇이 옥길리에 같었다. 4割 간조라고 해서 一金 300원을 타 같고 왔다. …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 大청매기 품싹이 나와 510원을 찾아왔다. …

◎ 6월 7일 (음 5월 8일) 월요일 晴

… 밭원 5斗落은 물 마르면 간끼[짠 기운]가 잇을 것인데 야단이다. (…) 참으로 가무는 해다. 소화 14年가 가물엇다 하것만 금년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한다. …

◎ 7월 12일 (음 6월 14일) 월요일 雨雲

… 비는 장마로 因해 每日 비가 오락까락 한다. 아직까지 큰 홍수로 나리지 않아 피해는 없다. 우리 지방엔 아주 잘 한다. 아직까지 왜물은 안 나리였다. …

◎ 7월 15일 (음 6월 17일) 목요일 雲

… 둘재祖 家엔 아직도 개논까지 심끼란 멀었으나 安仲 孤兒院에서 5,6名이 심어 몇일 안 갈 듯하다. …

◎ 7월 17일 (음 6월 19일) 금요일 雲

… 저붕굴은 今年에 개물이 많이 들어와 苗가 전부 죽는다. 一次 移秧을 했으나 모두 죽었다고 한다. …

◎ 7월 29일 (음 7월 2일) 목요일 雲

海일로 원뚝 터짐. 大谷 洞里에 큰 不幸이 닦아 왔다. 妻가 급히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뛰처 나왔다. 일어나 보니 태풍과 함께 바닷물이 해일해서 事業所(難民) 원뚝이 물이 넘치기 始作하고 있다. 나는 급한 거름으로 농골로 뒤여가 보니 아번님이 水門을 막고 있어 앞 원뚝으로 와 터 논 데을 막고 잇으니 물은 사업소 원뚝을 사장없이 넘기 始作 터지고 아주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있다. 삽시간에 물은 닥아 와 아논으로 닥아 왔다. 감당하기엔 장이 기울었다. 나는 농골 원뚝으로 뛰었다. 원뚝이 질름그리고 바람이 물은 처 원뚝을 치고 뚝안으로 엥겨백히고 잇어 농골 원뚝도 아주 위헌한 고비에 들어왔다. 難에 難을 거듭 鹽倉庫에서 불려온 空叭 영[이엉]가닥 等으로 터지진 안았으나 물은 많이 넘어왔다. 危험을 면하고 집에 와 보니 앞은 물이 집압까지 닦아왔다. 큰 不運이 왔다. 참으로 볼 수 없는 짓이다. 하늘도 참으로 야속하다. 도랑원 저붕굴 高棧 앞 등 모두 터젔다. 朝飯食事 後에 농골 원뚝을 손질했다. 종일 叭 떠밀린 곳으로 급한 곳을 7,8名씩 손질했다 밤늦도록 했다. 이러한 꼴이 어때 있을까 더군아 鹽 8千叭가 녹아 몰려왔다.

◎ 7월 30일 (음 7월 3일) 금요일 晴

前일 밤을 새웟것만 오늘을 잘 겪어야만 살게 되었다. 일직 일어나 앞 원뚝 막은 델 같다. 夜役으로 앞 원뚝도 막았다. 물은 前日과 같이 들어왔으나 바람이 안 불어 위험을 모면했다. 朝飯食事 後엔 자리에 들어 잠을 자 12時 頃에 일어났다. 오늘도 밭원 물은 모끝이 겨우 나왔다. 도저히 먹을 希望은 없이 되었다. 아논도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잇다. 모끝은 돌돌 말려들고 빛이 불어지고[붉어지고] 있다. 大谷 洞里은 떼거지가 났다. 靑北面에서 이런 꼴이란 처음이다. 농골 밭원도 모끌이 말린다. 아논에서 새물을 가라 넣는다. 事業所 원뚝은 가망 없이 되었다. 事業所을 믿은 가운데 大谷은 不幸이 왔다. 어이 하면 살 것이냐가 문재다. 손에 일이 안 잽힌다. 기운이 없다. 인제는 원뚝 보수가 걱정이다.

◎ 7월 31일 (음 7월 4일) 토요일 晴

앞 원뚝에 水門을 논다고 한편 노깡을 사라가

고 한편 원뚝을 비기로 했다. 下午까지도 사람이 동원이 안 되었다. 참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 座食하자는 心事일까. 4名이 하자니 氣分도 안 난다. 앞의 今年 農事는 大失敗다. 希望은 없다. 오늘까지도 海水가 쟁겨있다. 저녁을 먹고 水門 놀 노깡이 到着되여 夜役을 했다. 밤 2時 頃까지 했으나 水門을 높이 놓아 헌 일을 했다. 마음도 안 맞고 動員도 안 되고 하니 도급을 주기로 했다.

◎ 8월 1일 (음 7월 5일) 일요일 晴

오늘 食前에도 원뚝에 같섰다. 물은 많이 떨어졌다. 농꼴 밭원 5斗落에 물을 돌려댔다. 모끝이 탄 것이 안 퍼나고 더한 듯하다. 물이 댕겨나간 아논 몇 자린 과히 심하지도 안을 뿐 괜찮을 듯하다. (…) 개물이 든 곳은 발까게 타고 요사이는 만양가리가 논에 찬다. 大谷엔 大被害을 보았다. 今年을 어이 살 것인가.

◎ 8월 2일 (음 7월 6일) 월요일 晴

前日 맷긴 水門工事는 안 한다고 포기하여 洞里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짤라 놓고 그만 두어 오늘 또 개물을 드리였다. 밭원은 벌창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급히 서둘러 7名이 늦게야 끝냈다.

◎ 8월 4일 (음 7월 8일) 수요일 雨

… 大谷으로 보아선 비가 많이 와야 될 곳이다. 많이많이 나리길 바라면서 자리에 들었다. 下午 집에서 大谷 部落의 海水害被害報告을 作成 里長에게 주며 面에 보내라 했다.

◎ 8월 5일 (음 7월 9일) 목요일 雲

… 비가 와 깨여날까 한 海水 被害 農作物은 깨여나질 안는다. 들을 一週했으나 아주 가슴 아픈 일이다. …

◎ 8월 6일 (음 7월 10일) 금요일 雲

…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양복을 해 입다니 後悔가 막심하다. 잘 지은 農事가 이리 망하다니 참으로 애용之事다. 洋服을 찾어왔것만 氣分이 不安하다. 우리 3斗 5升지기는 깨여날듯 하나 어이될 것일까. 먹게 하여 주시길 애원하면서.

◎ 8월 10일 (음 7월 14일) 화요일

三德國民學校 校長 校監 等 被訪. (…) 學校先生들이 찾아왔다. 學校問題 議論次 被害 人便 겸 왔다. …

◎ 8월 14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 우래와 같이 쏘나귀가 폭우로 변하여 今年 들어 第一 많은 비가 나리였다. 비는 왜뚝을 질름질름 두 군대의 왜뚝을 터트리였다. 말에 依하면 다른 곳은 비가 안 왔다구. 쏘나귀는 쇠등을 다툰다더니 이곳 大谷部落은 오던 중 많은 비가 왓다. …

◎ 8월 16일 (음 7월 20일) 월요일 晴

鹽田堤防 着工. 前日 李鍾鉉氏가 와 來日부터 現場 일을 보아 달라고 해서 하는 수없이 일을 나같다. 일이 제대로 안 데고 첫날이라 몇 명 일을 못 부치였다. 鹽田堤防이 다음 사리 陰 그무[그믐] 사리 9m 50을 견디여 내도록 일이 進行될 것인지 의문지사. 견디여 낼 수 잇게 일을 해야겠는데.

◎ 8월 17일 (음 7월 21일) 화요일 晴

오늘도 일직 堤防 現場에 나가 일을 보았다. 人員 파악 作業 감독 等의 책임이다. 오늘 動員人員 約 60名 이렇게 와 가지고는 成事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늘도 鹽田 現場責任者로 일을 보았다. 能率은 約 500m는 막았으나 9m 50이란 물은 못이길 것 같다. 일공꾼으로 復土作業을 시켜야하겠다. 오늘 約 90名이 動員되였다.

◎ 8월 18일 (음 7월 22일) 수요일

堤防 防潮工事가 오늘로 약 50%의 能率을 올렸다.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고마[중간중간 막아놓은 원뚝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는 올려 놓았다. 現場責任으로 집에 오면 아주 피곤하다. 帳簿 증리[정리]로 責任을 맡게 되었다.

◎ 8월 19일 (음 7월 23일) 목요일 晴

오늘 防潮工事가 70%의 能率이다. 오늘까지 能率을 보았으나 勞賃이 支拂이 안 되여 일을 시킬 氣分 없다. 李貞鉉氏(工事主)가 와서 100m란 責任만 다 하면 勞賃을 주겠노라던 분이 아무

消息이 없다. 現場에서도 수군대고들 한다.

◎ 8월 20일 (음 7월 24일) 금요일 晴

現場에 있으니 李貞鉉氏가 왔다. 참으로 방갑다. 돈이나 많이 가지 왔으면 한다. 바깥 現 堤防이 完全히 믿을 수 없어 食前에 아번님과 議論해서 농골 役事을 하기로 하고 일꾼 2명을 얻어 役事에 보냈다. 나는 남의 일을 보고 있어 못했다. 우리 3집과 敎友氏가 와서 일을 했다. 대충한 모양이다.

◎ 8월 21일 (음 7월 25일) 토요일 晴

돈을 모두 42,000원을 가지왔다. 반 돈도 안된다. 作業 能率은 約 80% 가량 올랐다. 이번 사리을 격게 될 것인지! 42,000 풀어 주었다.

◎ 8월 22일 (음 7월 26일) 일요일

오늘도 앞 防潮堤防工事場에 같다. 工事場에 같다오면 아주 피곤하다. …

◎ 8월 23일 (음 7월 27일) 월요일 晴

앞 堤防工事는 99%의 물맥이는 되었다. 來日이면 다 한다. 이것으로는 닥아오는 물맥이가못된다고 하여 안으로 復土作業을 始作했다. 完全치는 못 하나 좀 낳은 편이다.

◎ 8월 24일 (음 7월 28일) 화요일 雨雲

오늘이면 復土工事도 거이 되는 것인데 비가 나리여 人員이 안 動員되여 못했다. 來日까지 一氣가 좋이 안으면 큰일이다. 下午에는 몇 명이 왔다. 오늘은 叭 쌓기을 하고 다다귀질[원뚝을 막을 때 가마니를 쌓은 후 물이 새지 않도록 틈새에 흙을 넣고 때리는 일]을 했다. …

◎ 8월 25일 (음 7월 29일) 수요일 晴

堤防工事는 다 데였다. 堤防이 약하다고 復土作業을 했다. 오늘 食前 물도 많이 올라 와 샌 곳이 여러 군데다.

◎ 8월 26일 (음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다 했다. 가마니을 두루고 영을 두르고 들어왔다. 이번 9m 50이란 물을 이겨낼 것이냐가 문제다. 來日은 高棧분들 大谷분들 모두 오셔 달라고 附託했다. 來日 第一 많이 들어오는 날이다.

◎ 8월 27일 (음 8월 1일) 금요일 晴

오늘 食前이 금년 들어 第一 많이 물이 들어오는 날이다. 食前 일직 일어나 堤防에 나가보니 여러분이 오셨다. 물은 과연 많이 들어왔다. 堤防이 여러 군데 새였다. 사람만 많이 動員 안 데였으면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였다. 원뚝이 아주 위험천만한 고비을 넹겼다. 아주 애태워가며 간신이 이겼으나 원뚝은 반 이상 버렸다. 오늘은 급히 人員을 動員해야 되겠다. 食前부터 動員하여 많은 人員이 動員되여 응급한 곳을 손질했다. 오늘 動員된 人員이 100餘名이 넘는다.

◎ 8월 28일 (음 8월 2일) 토요일

오늘 食前도 高棧里분들이 動員되여 約 50名이 와 堤防을 구해 주시였다. 오늘 역시 많은 사람이 아니였으면 도저히 求하기 어려운 것을 구했다.

◎ 8월 29일 (음 8월 3일) 일요일

오늘 낮에도 원둑을 새기였다. 돈 준다는 날짜가 지났다. 걱정이다. 돈이 제대로 나와야겠는데 돈이 어이 될 것인지 不安하다. 고얀한데[괜한데] 발을 들여 노았나 후해가 된다. 걱정이다. …

◎ 8월 30일 (음 8월 4일) 월요일 雲

오늘 食前에도 堤防에 많은 사람이 와 堤防을 지켜 주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나리여 염려을 했으나 堤防을 求했다. 食前에 가보니 많이 지처 네려 걱정을 했으나 오늘 물을 견디여 냈으니 금년 물은 견딜 상 십다. 오늘은 堤防工事을 中止하고 貯水池 堤防을 싸았다. 27日에 勞賃을 준다고 事業主가 약속하고 또 30日에 約束을 했는데 사람도 안 와 저녁나절은 야단이 났다. 농골 洞里가 소란했다. 농꼴 洞民은 좋와라고 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 8월 31일 (음 8월 5일) 화요일 晴

오늘은 堤防工事을 中止했다. 朝飯食事을 하고 농골 가보니 洪, 金, 申 3名이 水原에 다 같다고 한다. 食前에도 몇 사람이 찾아왔다. 답변하기 아주 곤란하다. 남의 일 맡아 아주 속상 하다. 집의 일도 많이 몰렀다. 妻는 짜증을 낸다. 他人의

일을 보아 주어도 工事場일은 안 보아 줄 일이다. 그루밭 골고지며 묘판의 피사리가 걱정이다. 오늘이 三溪 新作路 出役인데 여기 일 때매 늦게 가고 또 일직 갔다 집에 와 보니 안 왔다. 氣分이 나쁘다. 저녁 늦게까지 기달렸다. 오늘 안 오면 아주 소란할 것 같다.

◎ 9월 1일 (음 8월 6일) 수요일 晴

堤防勞賃關係로 水原에 올라간 분들이 왔나 하고 食前부터 농꼴을 가다왔다 했다. 오늘은 勞賃條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朝飯食事後 모짜리 피사리을 하다 냉기고 點心을 먹고 선 농꼴을 몇 번이나 같다왔다. 勞賃 받으려 온 사람들은 농꼴 李社長 집에 장을 이루고 消息을 모르니 우리 집까지 몇 명이 찾아왔다 같다. 저녁을 먹어도 안 왔다. 돈을 가지고 新浦에서 보았다고 한다. 얼마나 가저 왔는지 아주 궁금하다. 종일 안절부절 기다리다가 자리에 들리였다. 아푸로[앞으로] 勞賃이 얼른 안 데면 큰 일이다.

◎ 9월 2일 (음 8월 7일) 목요일

食前 일직 농골을 같다. 柱雨을 만났다. 알아보니 돈이라야 불과 四万원을 가저왔다고 한다. 1割도 못 되는 돈이다. 큰일이다. 오늘도 종일 勞賃條로 數十 名이 왔다같다 한다. 나는 午前에 前日하던 피사리을 하고 點心을 먹고 잇으니 농꼴서 부르라 왓다. 그나마도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7부 다 활당해서 나누어 주었다. 우리들은 한 푼 돈도 차지가 안 왔다. 저녁 늦게서 왔다. 8月 明節이 다가오것만 돈 한 푼 못 만지게 된다.

◎ 9월 3일 (음 8월 8일) 금요일

苗板 할 곳에 피사리을 했다. 今年에 海水가 들어온 곳인데 來年度에 苗板에 지장이 없을는지! …

◎ 9월 8일 (음 8월 13일) 수요일 晴

… 水原에 간 金氏와 柱雨氏가 왔나 하고 농꼴에 같더니 돈은 한 푼도 못 가저왔다고 한다. 아주 氣分이 나뿌다. 明節 세라고 다소라도 줄 것이 아닌가.

◎ 9월 12일 (음 8월 17일) 일요일 晴

오늘 종일 놀다가 下午늦게 高棧서 후리질을 앞 원안에서 하는데 …

◎ 9월 18일 (음 8월 23일) 토요일

… 來日부터는 水害復舊工事을 한다고 한다. 오늘 李貞鉉氏가 와 농골 가 있다 왔다. 下午엔 앞 鹽堤防일 할 야리가다[거푸집 형체를 만드는 일]을 맨다고 協助을 해달라고 해서 같섰다.

◎ 9월 19일 (음 8월 24일) 일요일 晴

오늘 종일토록 농꼴 가서 鹽堤防工事일을 보아 주었다. 高棧 앞 堤防은 오늘로 完了하는 모양이다. …

◎ 9월 20일 (음 8월 25일) 월요일 晴

오늘부터 농꼴 堤防工事을 面에서 始作해서 첫날 取勞者가 約 400명가량 왔다. 나는 십장 及 잡부로 감독을 헸다.

◎ 9월 21일 (음 8월 26일) 화요일 晴

… 朝飯을 일직 먹고는 妻는 場에 가고 나는 농꼴 堤防에 가 일을 보아 주었다. 오늘도 많은 取勞者가 나왔다. 面長을 위시해서 面書記가 나오고 郡에서 기사가 일을 보아 준다. 오늘도 감독을 했다.

◎ 9월 22일 (음 8월 27일) 수요일 晴

오늘도 종일 농꼴 堤防工事場에 나가섰다.

◎ 9월 23일 (음 8월 28일) 목요일

堤防復舊工事가 어제까지 約 90%가 完了했다. 오늘은 大谷 部落에 활당된 곳에 가 일을 했다. 안 하던 일이라 아주 피곤하다. 몇일 논을 안 돌보다가 밭을 가보니 아주 말이 아니다. 半소출은 먹을 줄 알았더니 빚이 검게 되었다. 半소출이 안 될 것 같다. 저녁엔 일직 집에 왔다. 오늘부터 出役함.

◎ 9월 24일 (음 8월 29일) 금요일

아번님 生辰日인 고로 소고기 1근을 사다가 드리고 朝飯食事을 아번님 家에 가 했다. 오늘도 일직 堤防復舊工事場에 나같다. 도급을 洞里에서 맡아 하는 고로 지게질을 하게 되여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하다.

◎ 9월 25일 (음 9월 1일) 토요일

오늘도 마찬가지 堤防作業을 했다. 오늘은 저녁나절은 소주 두 병을 사다 먹었다. 날씨가 넘어[너무] 비가 안 와 말라 벼가 마르는 것 같다.

◎ 9월 26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水害民 堤防復舊工事關係로 가을일이 늦어질 듯하다. 벼 가을이 곳 始作해야 할 始期에 일날도 안 잡고 있다. 하로 일을 나가면 일당 300원 400원은 올른다. …

◎ 9월 27일 (음 9월 3일) 월요일 晴

… 몇日 동안 繼續되는 作業은 피곤에 지치여 오늘은 좀 일직 손을 뗐다. 벼베기 作業이 될 時期이것만 作業關係로 일날이 7,8日 더 늘어간다[늦어간다]. …

◎ 9월 28일 (음 9월 4일) 화요일 晴

工事場에 나가 잇으니 일 나온 중에서 水門을 퍼서 술안주 하자고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오늘은 웅뎅이을 푸고 솟을 같다 끄리고 해서 監독과 함께 술을 먹고 일을 별로 안했다. …

◎ 9월 29일 (음 9월 5일) 수요일

오늘도 工事場에 나갈다. 前보다 能률이 안 오른다. 얼른 마처야 벼비기 일을 始作해야겠는데 늦어가 걱정이다. 안밭원안 개물 든 것이 쭉정벼나마 나왔는데 고개가 꼬부라져 있다. …

◎ 9월 30일 (음 9월 6일) 수요일 晴

… 五穀이 무루 익어 풍성한 달이것만 앞 전원을 내다보면 속이 탈 지경이다. 다 디여 놓은 곡식을 하로 아침에 개물에 집어넣고 말았으니 말이다. 벼비기가 한참인 이즈음 품팔이로 피로에 지치고야 마는구나. 나문 것이나마 하루 속이 비여야겠는데. 인제 2,3日이면 大谷 部落이 맡은 것은 끝마칠듯하다. 밀까루 5,6包袋가량 벌듯하다.

◎ 10월 2일 (음 9월 8일) 토요일 晴

堤防復舊工事에 갈다왔다. …

◎ 10월 3일 (음 9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일을 나가 午前에 洞里에서 맡은 일은 끝났다. 평균 小麥粉 半包이상 벌게 되었다. 金額으로 500원 가량 벌게 되었다. …

◎ 10월 16일 (음 9월 22일) 토요일

… 나는 농꼴 밭원 5斗落의 벼을 비였다. 海溢로 많은 被害가 있다. 今年엔 소출이 떨어질 것이다.

◎ 10월 18일 (음 9월 24일) 월요일 晴

… 저녁을 먹고 나니 농꼴에 李貞鉉氏가 왔다고 해서 저녁 먹고 넘어 같다. 勞賃 밭으려 몇 군대서 와 來日로 미루고 술을 밭아와 밤 1時가 넘어서야 도라왔다. …

◎ 10월 19일 (음 9월 25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서 농꼴 같다. 오늘도 몇 군대서 勞賃을 받으라 왔다. 勞賃條로 27万원인데 불과 4万원을 나누어 주자니 6부박에 안 된다. 야단덜이다. 마지못해 鹽 160叭을 더 주었다. 종일 일을 보아주고 저녁 나절서야 벼단을 손첬다. …

◎ 10월 27일 (음 10월 4일) 수요일 晴

… 午後엔 아논 일급 되지기을 실고 좀 일러 3斗 5升지기 海溢로 被害를 본 다 죽은 벼을 끄디리다가 냉기였다. 今年에 아주 소돌하다[예상보다 적게 나오다]. 벼까리가 아주 적다. …

◎ 10월 29일 (음 10월 6일) 금요일 晴

小麥粉 3包 受領. (…) 朝飯食事 後엔 堤防取勞한 精穀이 나와 실러 간다고 해서 소을 끌고 新浦에 같다. 우리가 4包 찾을 것인데 3包만 찾으라고 里長이 또 여기에도 不政[不正]을 한다. 우리뿐 아니라 洞里에 不滿이 많다. 里長에게 不過 5包인데 10包을 찾았으니 피땀 흘려 지게질로 번 대서도 알겨먹는 다고 不滿不平이 많다.

◎ 11월 8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雲

… 바다에 같다 와서 洞里民들을 動員하여 아논 화죽꼬을 막았다. 거이 다 막을 무렵 쏘나귀가 또 나리여 중지하고 마랐다. 共同에 關係되는 일이라 모두 방관심이 많다. 앞으로 걱정之事.

◎ 11월 20일 (음 10월 28일) 토요일 晴

… 농꼴을 같더니 金鎭元氏가 소곰(鹽) 1叭을 같다 먹으라고 해서 鹽이 잇느라고 하니 金氏가

지고 왔다. 堤防일을 보아준 분들에게 鹽 1叭씩 주었노라고. …

◎ 12월 12일 (음 11월 20일) 일요일 雲

… 朝飯食事을 하고 마실을 가니 上三溪의 宗山을 宗孫이 開간을 協議없이 했다고 윗대 산소가 많은 宗山에 따비을 한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윗삼게을 간다고들 몇이 떠났다.

◎ 乙巳年을 보내면서

… 또한 80老人도 볼 수 없었든 海溢로 막심한 被害을 보았다. 80餘日 가물음[가뭄]에서 다 죽다 깨연난 穀植을 海水가 몰려와 앞 鹽田堤防이 터저 와 우리 집 앞까지 海水가 처와 農作物은 아주 못쓰게 되었다. 大谷 部落에 큰 不幸이 왔다. 우리는 농꼴을 괜신히 求하여 큰 위급을 덜었다. …

1967년

◎ 1월 25일 (음 12월 15일) 월요일

… 洞里 어른들이 獨飛島 工事場에 같다와 일은 착착 進行 中이라고 하루속히 完工을 해야겠는데. 원뚝을 많이 갖은 大谷部落은 바랄 뿐이다.

◎ 3월 16일 (음 2월 6일) 목요일

… 郡守에게 大谷 앞 堤防補修에 古叭[쓰던 가마] 2,000매 要望에 1000매만 4月末경에 보내니 事用해달라는 회신이 왔다. 代表 申權植앞으로 왔다.

◎ 3월 22일 (음 2월 12일) 수요일

… 큰아번님이 水原 李貞鉉氏 宅에 찾아간 모양이다 앞 堤防修理하는데 郡守에게 陳情을 했는대 古叭 신청한 것이 1,000가 결정났다고 회신이 왔다. 그것을 가지고 李貞鉉氏 宅에 가 큰아빈님이 했다고 하고 오셨다고. 큰아번님은 하등 일한 일이 없다. 먹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른 큰아번님인지라 여기까지 파고드시는 모양.

◎ 7월 18일 (음 6월 11일) 화요일 晴

… 2月에 郡에 陳情한 堤防補修 古叭 申請한 것이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里長이 채드려같고 큰 생색이나 낼랴고 洞里사람에게 알리도 않고 水原 李貞鉉氏에게 같다 오시였다. 이번에 여기에서 생길 것이 없나 혈안이 되어 도라다니니 洞里사람들의 조바심난다.

◎ 7월 19일 (음 6월 12일) 수요일

… 古叭 1000매 나온 것을 洞里사람도 모르게 水原 李貞鉉氏에게 네갈랴다 面에서 발각이 되여 里長의 불림이 났다. 참으로 不政이 많은 里長이다. …

◎ 8월 7일 (음 7월 2일) 월요일 晴

今般 海溢로 앞 堤防이 無事해주기을 바래며 일직 일어나 원뚝을 내다보았다. …

1968년

◎ 2월 25일 (음 1월 27일) 일요일

가마니을 始作해 8닙 예산했으나 농꼴서 金氏가 와 지채하고 午後엔 농꼴 貯水 뚝이 물이 샌다고 해서 물을 잡고와 여물 쓸고 하니 해가 기울어젔다.

◎ 4월 20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 농꼴의 물 걱정은 안했는데 今年엔 이대로라면 밭원은 어려울 것 같다.

◎ 6월 2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물 있는 논의 묘을 다 심고 나니 비오기만 기다릴 뿐. 농꼴 밭원 논도 물이 말라가니 피여 나질 않을 뿐 아니라 죽는 묘기가 있고 묘 끝이 불어진다[붉어진다]. 아직도 간기가 있는 모양이다. 간기 있는 논의 건가리란 간이 아주 많이 솟아난다고 한다. …

◎ 6월 3일 (음 5월 8일) 월요일 晴

날씨가 가물으니 洞里 사람들이 모이면 한나절이나 모여 있다가 헤어지곤 한다. (…) 농꼴 밭원은 간이 쎄여서인지 묘끌이 불게 된다. 죽는 놈도 있다. 보기 싫어 가 보지도 않는다. 하루 속히 비가 와야겠는데.

◎ 6월 12일 (음 5월 17일) 수요일 晴

… 농골 밭원의 묘가 죽은 곳에 묘을 기웁고 이번 비에 심은 묘는 묘끝이 죽어 느리젔다. 今年에 간끼가 아주 심한 해이다. 간에다 저려 놓은 것 같은데 뿌리을 주어는 괜찮을는지 의문이다. 물이나 많아야겠는데 물도 적다.

◎ 6월 13일 (음 5월 18일) 목요일 晴

… 13,14日 頃에 비가 오겠다고 관상대 發表가 있었으나 비가 올 것 같이 않다. 당장 물이 마르는 것은 아니나 농골 밭원에 今般에 심은 묘가 거이 다 죽어 가니 苗가 잘된 탓도 있겠지만 간끼가 있어선지? 볼 수 없이 죽어가니 비나 왔으면 깨여나지 않을까 비을 기달려진다. 비나 와서 깨여나게 하여 주었으면 한다.

◎ 6월 16일 (음 5월 21일) 일요일 晴

… 下午 늦게 농골 밭원을 가보니 아주 말이 아닐 程道로 죽었다. 간사地 건가리만 못할 것이다. 아번님 家 논은 까닥없는데 우리 논이 아주 심해 來日 묘을 기을가 한다. 아주 농골 가기가 실타.

◎ 6월 29일 (음 6월 4일) 토요일 晴

… 농골 밭원 5斗는 논바닥이 발갛게 타가고 있다. 觀象臺 發表에 依하면 7月 初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있을 뿐! 종일토록 하늘만 처다 보고 있었다.

◎ 6월 30일 (음 6월 5일) 일요일 晴

… 밭원 5斗는 半 이상 타가고 있고 1斗 以上은 완전히 죽었다.

◎ 7월 11일 (음 6월 16일) 목요일 晴

朝飯床을 받고 있으니 원뚝이 터졌다고 하여 급히 농골로 뛰여가보니 취水門 자리가 터졌다. 안원뚝에는 지장이 없으나 오늘 중으로 막아야 된다. 朝飯食事을 하고 가보니 인원이 많이 動員이 되었다. 나는 집에 와 (…) 午後엔 농골 가서 일을 좀 보아 주다가 도라왔다. 下午 늦게 水原 李貞鉉氏가 왔다 裁判이 끝났다는데 어이 되였느냐 하니 自己에게 不利하게 끝났다고 한다. 未開간地 半 以上 내주게 되였다고 한다. …

◎ 7월 15일 (음 6월 20일) 월요일 雨

前夜에 제법 비가 나리였다. 새벽에 일어나 들을 내다보니 물이 건가리 배미에 고이였다. (…) 농골 밭원에 묘만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개운치 않다. …

◎ 7월 16일 (음 6월 21일) 화요일 폭우

… 종일토록 오락까락 한 비는 100mm 이상 내리였나. 농골 밭원 죽은 곳을 심을라[고 해]도 苗가 없어 못 심겠다.

◎ 7월 17일 (음 6월 22일) 수요일 雪

… 우리는 苗가 없어 농골 못 삼는다. 今年엔 失수을 몇 번 했다. 농골 밭원 건가리 실수! …

◎ 7월 18일 (음 6월 23일) 목요일 雨

然雨 家에 묘가 나마 농골 것을 심을라고 苗根 60 침을 처 놓으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많은 비가 나리였다. 인제 장마선이 우리 中部地方에 머물러 있는 모양! …

◎ 8월 23일 (음 7월 30일) 금요일 폭우

… 今般 비로 우리가 第一 많은 피해 같다. 下午 동욕꿀 김장밭을 가보니 富平 家 왜뚝이 터져 왜물이 달려들어 김장밭을 쉽쓸고 나가 김장밭이 평지가 되였으니 김장은 말할 것도 없이 되었다.

◎ 12월 10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雲

… 오늘 洞里 분들이 아논 물꼬을 막는 데 같이 막고 와 …

◎ 12월 20일 (음 11월 1일) 금요일

… 날씨가 어둡어오니 날씨가 더욱 험악했다. 술을 먹고 있으니 급한 鍾소리가 나 나가보니 海溢로 앞 원뚝이 터졌다고 급히 집[짚]을 같고 농골 원뚝에 같다. 아직 물이 올라오지 않아 원뚝 水門을 막고 앞 큰 원뚝에 오니 물꼴이 돌아 水門으로 물이 올라왔다. 대충 막았으나 제대로 못 막아 물이 제법 많이 드러왔다. 날은 어둡고 물은 많고 해서 집에 왔다가 밤에 洞民들이 원뚝에 나가 급한 대을 손질하고 드러왔다. 참으로 사람 못 살 곳이다. 몇 년 동안 잘 지어먹었는데 來年부터는 또 農事짓기에 힘들겠다.

◎ 12월 21일 (음 11월 2일) 토요일 晴

오늘도 下午에 원뚝에 나가 손질했다. 몇 사람 안 나왔다. 앞 作人들도 안 나왔다. 여럿의 일이란 단결이 안 된다. 남의 꿀매에 밤 줏어 먹을랴고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속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다.

1971년

◎ 2월 25일 (음 2월 1일) 목요일 晴

… 敦植은 대패질 하다가 下午에 防潮堤防補修次 한 참이나 빠졌다.

◎ 4월 16일 (음 3월 21일) 금요일 晴

… 밭원 물이 많아 苗板을 할 수 없어 밭원 水門을 열어 놓았다.

◎ 5월 4일 (음 4월 10일) 화요일 雲

… 앞 논 5升지기와 1斗을 깜뚝을 하고 苗板논에 물을 주었다. 큰 水門을 열어 놓고 물을 놓았다. …

◎ 7월 17일 (음 윤 5월 25일) 토요일 쏘나귀

어제 저녁 뇌우을 동반한 심한 폭우로 온 天地을 뒤업는 듯 했다. 不安한 저녁이다. 새벽녁에 일어나 비가 개이며 논을 一週하니 우리는 피해는 없으나 壹雨氏가 왜뚝이 터지였다. …

◎ 8월 10일 (음 6월 20일) 화요일

… 南東北進하는 颱風은 우리나라 西海中部을 通過할 것이라고 하니 不安하다. 農作物의 被害 막심할 것이다. 田作도 田作이려니와 海溢이나 하지 안었으면 조바심이 된다. …

◎ 8월 11일 (음 6월 21일) 수요일

颱風 포리号은 급기야 새벽 3時에 우리 中部 海안인 瑞山 앞바다을 通過 水原 서울을 지나서 東北으로 빠저나같다. (…) 바람은 덜 불었으나 海溢이 걱정이다. 朝飯을 마치고 원뚝에 나같다. 물의 海溢은 면했으나 원뚝은 반쪽으로 떨리였다.…

◎ 8월 12일 (음 6월 22일) 목요일

농꼴 水門을 열어 놓은 것을 막고 와 …

◎ 9월 6일 (음 7월 17일) 월요일

食前에 坊潮堤防에 같다. 물이 많이 들어왔다. 바람이 일지 않아서이지 물은 堤防을 질름거리였다. …

◎ 9월 7일 (음 7월 18일) 화요일

食前에 堤防에 나같더니 물이 많이 들어왔다. (…) 前日 농섬에 같다 온 消息에 依하면 기개的으로 막고는 있으나 生覺보다는 못하다고. …

◎ 12월 17일 (음 10월 30일) 금요일

… 午後에 물이 해발한 듯하여 堤防에 가 보았다. 하도 많이 떨리여 위험천만이다.

◎ 12월 19일 (음 11월 2일) 일요일

… 농꼴 堤防이 거의 다 터져 위험하여 아버지家와 작근아버지 敎雨 等과 같이 대충 손질을 했다. 아주 위험한 곳에 영을 6마름 두루었다. 오늘 일도 내가 서둘러 한 것이다. 이것 역시 統一의 마음이 안 된다.

1972년

◎ 3월 3일 (음 1월 18일) 금요일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 예정했던 농섬을 九時頃에 出發했다. 一行은 德雨 轍雨 然雨 致雨 敦植 等이 떠났다. 12時頃에 到着했다. 궁금했던 곳을 가 보았다. 장비도 重장비로 많으려니와 水압[수압]도 심하다. 거이 다 막은 듯 하오나 실패을 1번 했다고 실패 없이 成功하길 빌며 구경을 했다. 1時 頃에 떠나오며 酒店마다 들리며 모두 술을 사서 먹으며 와 下午4時頃에 집에 도라왔다. 一行은 自轉車로 같다 왔다.

◎ 5월 8일 (음 3월 25일) 월요일

… 食前 비라 얼마오지 않을 줄 알았던 비는 100mm 以上이나 나리였다. 앞뜰 논뚜랑이 넘고 왜뚝의 물이 많이 나되였다. …

◎ 6월 16일 (음 5월 6일) 금요일

… 그루을 갈았다. 갈고 나 산 밑의 개바닥을 갈았다. 約 200坪 가량 가을보리나 갈아 볼까 한다. …

◎ 7월 5일 (음 5월 25일) 수요일 晴

… 농꼴 大水門下에 "욱"[조개의 종류]이 많다고 하여 같다가 그냥 왔다. 물 막고 푸고 잡은 사람은 4, 5斗는 잡았겠다. 일에 몰리는 나는 그냥 와 …

◎ 8월 4일 (음 6월 25일) 금요일 폭우

밤 2時 頃에 始作한 비는 부슬부슬 나리더니 午前 10時 頃부터 폭우로 변하여 今年 들어 제일 많은 강우량을 나타내 왜뚝이 질름 위[험]한 고비을 넹기였다. 폭우는 약 40分 가량 퍼붇더니 끝났다. 논뚜랑이 터지고 온 천지을 뒤업는 것 같다. 午後엔 농꼴 洪明勳 家 前 왜뚝이 터져 가서 協助했다.

◎ 8월 5일 (음 6월 26일) 토요일 雨

… 농꼴 왜뚝치는데 協助하고 와 …

◎ 8월 19일 (음 7월 11일) 토요일 폭우

밤새도록 나린 비는 많은 비가 나리였다. 들을 一週하니 별 피해는 없는 듯. 왜뚝이 약간 지치였다. …

◎ 8월 25일 (음 7월 17일) 금요일 雨

午前엔 부슬부슬 나리던 비는 午後 3時 頃에는 폭우로 변하여 물소동을 이루는 不安한 날이였다. 왜뚝으로 뛰여가보니 왜뚝이 질름질름 한다. 손볼 곳을 손보고 왔으나 더 以上은 나리지 않았으면 한다. …

◎ 9월 4일 (음 7월 27일) 월요일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나리여 食前에 왜뚝에 같다 왔다. …

◎ 10월 6일 (음 8월 29일) 금요일

… 永登浦에서 李成九君이 앞 개간답 관계로 訪問했다.

◎ 10월 16일 (음 9월 10일) 월요일 晴

… 다 갈고 나니 다소 이른듯하여 靑龍뿌리 산 끝에의 바다에 보리을 묻어 보았으나 제대로 될 것인지 시험 삼아 갈았다. …

1973년

◎ 3월 27일 (음 2월 23일) 화요일

아산만 수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건으로 面에 가 본 부락 농지대장을 베겨 같고 總務係長인 鄭昌煥君이 점심을 대접받고 도라 와 部落 새마을 事業에 나같다 오다가 담배갑 一金 500원을 매끼고 왔다.

◎ 4월 11일 (음 3월 9일) 수요일

… 洞里 몇 사람이 와 午前 中 있다가 가고 午後엔 마실 같다 왔다. 水路 件으로 來日 평택에 파견하기로 의논했다.

◎ 4월 13일 (음 3월 11일) 금요일

… [水]路工事로 우리 논이 아주 많이 들어가[참]으로 기분이 나뿌다. 120餘 坪이나 들어가는데 돈도 찾을뚱 말뚱[이]다. 苗板으로 몇일 분주하다. 새마을事業도 몇일 中止했다.

◎ 4월 20일 (음 3월 18일) 금요일 晴

… 牙山만 水路工事가 농꼴까지 와 도-쟈가 일을 하고 우리 집 앞도 최종적인 측량이 끝나고 나무을 비여오고 있다. 청용뿌리 나무을 비여 놓았다. 일꾼 5,6名이 종일 치여 다섯재 祖 家에서 일을 했다. 來日은 우리 집 앞의 나무을 빌것 같다.

◎ 5월 3일 (음 4월 1일) 목요일

… 牙山만 水路工事는 우리 집 앞에 왔다. 午後엔 쟁기 볏과 보섭이 깨여저 新浦에 나가 사고 肥料도 찾아 革命村과 같이 …

◎ 5월 23일 (음 4월 21일) 수요일 晴

… 水路내는데 피해가 많아 責任者에게 말하였다.

◎ 6월 30일 (음 6월 1일) 토요일 雨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나리였다. 세죽을 쑤고 논을 一週하니 쏘나귀로 퍼부어 왜물이 제법 많이 나리였다. 20分 더 나리였으면 (工事水路)場에서 쌓놓은 왜뚝은 무인지경이였다. 청용뿌리와 水路 인접 논은 피해가 많다. 우리도 봉쌔[복사]

가 많이 들어같다. 面에서 會가 있어 가기 前에 논에 들리니 왜가 터저 골장에 물이 끼였다. 面會가 끝난 後 工事 청부人과 같이 와 답사을 하고 큰소리가 오고 같다.

◎ 7월 4일 (음 6월 5일) 수요일 雲

… 장마 전선이 下강하여 비는 들었으나 6,7일경에 北상하여 또 장마선을 당할 것 같다. 水路工事도 막심한 피해낼 수 없을 듯하다. …

◎ 7월 9일 (음 6월 10일) 월요일 晴

… 午前에 水路工事場에서 비여 놓은 나무을 끄리디리고 (…) 앞산 왜뚝에서 쓴다고 水路 工事場에서 말목 24木 代 2,000원을 받었다.

◎ 7월 23일 (음 6월 24일) 월요일

… 용수로 공사 땅갑 통지가 나왔다. 그리하여 앞뜰의 作人舍을 열었다.

◎ 7월 24일 (음 6월 25일) 화요일

… 食前에 瑞雨氏가 와 농꼴 宗답을 맡아 찾아오라하여 그리 하기로 했다.

◎ 7월 25일 (음 6월 26일) 수요일

… 그리고서 또 作人會을 열었다.

◎ 7월 27일 (음 6월 28일) 금요일

不足한 書類을 가추기 爲하야 高棧가 宗人의 5人의 인감과 호적초본을 떼같고 安仲에 가니 下午 2時 접수치 않아 그냥 도라왔다. 돈 찾느라고 組合事務實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 7월 31일 (음 7월 2일) 화요일

… 하던 일을 中止할 수 없어 安仲엘 같다. 인감한 장이 不足이라 또 接受할 수 없게 됨을 覺書을 써놓고 찾아 왔다. 174,700원을 찾아 와 高棧 瑞雨氏 家에 같다 드리고 경비로 3,900원과 重植의 도장을 분실한 것을 새겨주기로 하고 3,000원을 제워하고 瑞雨氏에게 保管시키놓고 왔다.

◎ 8월 10일 (음 7월 12일) 금요일

… 轍雨 보고 郡에 가 앞 水路 부지자금을 탈랴고 토지대장 등본을 떼오라 보냈다.

◎ 8월 14일 (음 7월 16일) 화요일

새마을學校 敎育이 13日부터 14일까지다. 敎育 次 新浦에 가 面에 가 洞里분들의 인감을 떼여 주고 水路工事의 경작인 증명을 떼여 같고 敎育次 같더니 거이 끝나갈 무렵이다. …

◎ 8월 20일 (음 7월 22일) 월요일

壹雨 尊雨 等과 같이 앞 水路用地 代金을 찾느라 安仲에 같더니 9月 1일에나 온다고 하여 헛거름 했다. 경작인 사실증명 570. 3人 路資 100. 점심 240. …

◎ 9월 2일 (음 8월 6일) 일요일

… 喆植이 왔다고 보자 하여 가보니 관교아저씨가 와 안골祖 家에게 판 산에 對하야 2/3을 賣했는데 조치法에 등기을 다냈으며 水路에 돈을 혼자 같고 있다고 따지라 와 알아보라 왔다고 조치法의 小材委員이 누구냐고 하여 알려주고 …

◎ 9월 5일 (음 8월 9일) 수요일

… 朝飯을 마치고 安仲엘 같다. 水路用地 零受代을 찾으라 같으나 書類未備로 못찾고 來日 또 가기로 하고 係員 1人을 점심을 대접했다. …

◎ 9월 6일 (음 8월 10일) 목요일

水路 敷地 代金을 찾기 위하야 安仲에 나같다. 書類을 未備한 점이 있으니 一金 5,000원과 保證人을 세워 같고 오면 맨들어 보자고 하여 그냥 도라왔다. …

◎ 9월 7일 (음 8월 11일) 금요일

朝飯食事을 하고 保證人覺書을 作成해 주었다. 安仲엔 壹雨氏가 같다 오기로 했다. …

◎ 9월 8일 (음 8월 12일) 토요일

일직 서둘러 肥料갑을 計算해 같고 面에 나가 확인서을 받아 같고 本 組合에 와 肥料 傳票을 떼고 나니 11時 20分 安仲에 갈 시간이 없어 면 우의 싸이토카을 빌려 타고 安仲에 가니 今日에도 어렵다는 것이다. …

◎ 9월 10일 (음 8월 14일) 월요일

安仲에 또 같다. 오늘만은 水路代金을 찾겠지 하고 간 것이 書類未備 件으로 못 찾아 같고 왔다. 여러 사람 수고만 끼쳤다. 참으로 힘이 든다. …

◎ 9월 19일 (음 8월 23일) 수요일

安仲에 가다. 앞 水路代金 찾으라 같다 그냥 도라오다.

◎ 9월 21일 (음 8월 25일) 금요일

水路 代金을 찾아 쓸랴고 計劃으로 있다가 돈을 찾기 어려울 듯하여 (…) 水路 工事 代金을 찾을 전망이 있는 듯하다.

◎ 9월 22일 (음 8월 26일) 토요일

前日 교섭하여 오늘 오면 찾아 갈 수 있다고 하여 오늘 해갈고 오랴는 書類는 큰 아번님의 債務 확인을 해 오라고 하는 것을 못 갈고 가 또 못 찾고 次後로 미루게 되어 도라왔다.

◎ 10월 8일 (음 9월 13일) 월요일

支拂 申請 件으로 마을에 가 壹雨氏에게 平澤에 가 林野 등본을 떼오라고 하고 나는 종일 벼을 비였다. …

◎ 11월 26일 (음 11월 2일) 월요일

… 午前에 安仲에 가 용수로 부지대의 벼을 알아보았다. 곳 서류을 해 오라고 하고 있으나 安雨의 큰소리(공사을 못하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장담을 하여 부락에선 믿고 있으나 그럴 리는 만무한 것) 공판장으로 해서 왔다. …

◎ 11월 29일 (음 11월 5일) 목요일

참으로 氣分 나쁜 날이다. 앞 용수로 공사에 있어 대금을 금일까지 못 찾아 최대한으로 녹력을 하였으나 못 찾았다. 몇일 前에 安仲에 또 가 알아보니 거이 밝은 전망이 있어 작인들의 의견을 들으니 安雨가 공사만 못하게 하면 된다고 하여 돈을 찾기는 오리무중이 되였다. 금년의 安雨을 찾아가 수속을 하여 보자고 하니 금년의 수확가지 찾을 수 있느니 또는 일을 못하게 하면 돈을 갈다 주느니 하며 오히려 이제까지 끌고 온 대대한 책임가지 지라고 하니 무식한 사람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로서는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협조자가 적고 내 돈만 3,000원이나 소비을 했다. 2일에 다른 사람을 매길랴고 하였으나 洞里 작인들이 떠매끼고서 이제 와서 책임가지 논의하니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고 흔드는 격이다. 한참이나 安雨와 말씨름을 하였으나 통하지 않고 무식만 털어 놓는다. 나는 결심을 했다. 洞里일을 그만두기로.

◎ 12월 12일 (음 11월 18일) 수요일

… 앞의 用水路 作業의 돈을 못 받아 우리는 돈을 주고 일을 하라고 농성을 했다. …

◎ 12월 13일 (음 11월 19일) 목요일

오늘도 일을 하여 作人 모두 나가 농성을 했다 그냥 도라갈다. 下午에는 稻의 貢上으로 산업계장 호병계장 등이 와 점심과 술을 대접했다. 저녁에 作人會가 있었다. 밤에 工事場에서 와 來日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니 平택으로 나오라고 했다. 또 속지나 않을가 했다. …

◎ 12월 14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식전 7時 30分에 차가 와 작인 몇몇이 車을 타고 安仲에 가 平澤까지 가자고 하여 平澤에 갈다. 돈 주는 鄭係長을 만나는 것이라 별 신통한 일이 못 되였다. 鄭係長 이야기가 20일에 安仲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그리 믿고 下午 늦게야 헛거름으로 왔다. …

◎ 12월 19일 (음 11월 25일) 수요일

… 곳 牙山만지구 개량조합會가 있어 新浦에 갈섰다. 下午 늦게야 도라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26일) 목요일

今日 安仲에서 진흥공사 직원과 만나자는 날이다. 新浦에 나가 일을 보고 作人들이 安仲에 나갈다. 또 書類가 未備라고 한참 실갱이을 하다가 午後에야 書類을 정리해 갈고 수속을 하여 하오 5時 半 頃에야 끝났다. 중간 역할로 많은 고생을 했다. 울 찾은 돈이 54,100원이다. 여름내 고생하고 도라다니던 보람이 오늘서야 결실을 보았다.

◎ 12월 24일 (음 11월 30일) 월요일

金德壽 堤防農路擴張 工事에 議論하자고 面長이 오라하여 新浦에 갈섰다. 安녹영君이 堤防의 돌을 주선하여 팔고 그 돈으로 하기로 覺書을 써 面長에 주고 우리는 立會人이 되었다. …

◎ 12월 29일 (음 12월 5일) 토요일

… 10時부터 긴급會가 있어 가니 매상관계로이다. …

◎ 12월 30일 (음 12월 6일) 일요일

面長이 新浦에서 만나자고 하여 午前 中에 面

에 가 面長을 만났다. 安祿榮氏가 德壽 家 堤防의 石축을 팔아먹는 관계로 面長이 분개하여 安氏와 三溪 高棧 革命村 大谷 등 里長 있는 자리에서 堤防을 확장해주고 대형 노강을 놓아 주기로 각서를 써놓고 우리 里長들의 立會下에 결정기로 하고 헤여졌다. …

Ⅲ. 농사와 노동력

1959년

◎ 3월 30일 (음 2월 22일) 월요일 晴

… 午前 중에 앞 고얌나무와 봉송수를 접을 처음으로 부치고 午後에는 모자리 갈래질[가래질]을 아버지와 일꾼이 같이 하였다. 우리 논 서 말 가웃지기 금년 산 논과 아버지 家도 3마지기 하고 나니 저물었다. …

◎ 5월 25일 (음 4월 18일) 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소를 가지려 가니 아버지 家 모를 심어 달라 해서 일꾼과 두리 뒤개논 받원 永植에게서 산 여덜 마지기 논을 심다. 십여 침 심을 껄 냉기엿다.

◎ 5월 26일 (음 4월 19일) 화요일 晴

…첫날 푸마시[품앗이]이다. 9명이 飛野木 엿마지기 앞 두 마지기 저붕굴 等을 심었다. 아버지가 우리 앞 말 가웃지기를 갈앗다. …

◎ 5월 27일 (음 4월 20일) 수요일 晴

… 朝飯 後에 아버지가 高棧 前 9마지기 모를 심으려 같다. 모찌기가 나빠 八名이 늣도록 심었다.

◎ 5월 28일 (음 4월 21일) 목요일 晴

炳哲 家 일은 17名이 저붕굴 9마지기 농꼴 8마지기 심었다. …

◎ 5월 29일 (음 4월 22일) 금요일 晴

아버지 家 일. 농꼴 받원 등 8마지기 심다. 9名. …

◎ 5월 31일 (음 4월 24일) 일요일 晴

敎雨 家 일. 11名. (…) 朝飯을 마치고 일을 갈라 하니 致雨가 와서 注射를 놓아주고 敎雨 家 일을 같다. 일꾼 11名이 11말 가웃지기를 심었다.…

◎ 6월 2일 (음 4월 26일) 화요일 晴

敎雨氏 家 移秧 9마지기 10名. (…) 朝飯을 마치고 敎雨家 일을 같다. …

◎ 6월 3일 (음 4월 27일) 수요일 晴

우리 일 12名. 11마지기 移秧. 畢秧. (…) 피가 엇지 많은 지 한 고랑박게 못하니 일꾼들이 왔다. 아버지까지 합해서 12名. (…) 水村 아저씨는 비료 끼언고 또 쓰리다 나문 것 쓰리고 11名이 11마지기 심었다. …

◎ 6월 4일 (음 4월 28일) 목요일 雲

食後 上植 家 일을 같다. 14名이 13마지기 移秧을 했다.

◎ 6월 7일 (음 5월 2일) 일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耘植 家 일을 같다.

◎ 6월 8일 (음 5월 3일) 월요일 雲

食前 논 一週하고 朝飯을 마치고 큰집 일을 같다. (…) 洞里 移秧 事項은 92% 程度다. (…) 9名이 6말 가웃지기 심었다.

◎ 6월 9일 (음 5월 4일) 화요일 雲

… 논을 一週하고 도라와 朝飯을 마치고 明雨 家 일을 같다. 일 다니는 사람 중 내가 제일 高령이고 또 별로 내 또래는 일도 덜 다니는 셈이다. 明雨 家 농꼴 논 移秧을 했다. …

◎ 6월 10일 (음 5월 5일) 수요일 雲

아버지 家 모심기 사람 몇 명 얻어 일 하는 데 일을 같다. 또 닷 마지기나 남았다. (…) 다섯재 祖母 家 일을 가며는 내게는 이[利]가 되는 것은 알지만 차마 남의 일을 갈 수는 없어 아버지 家 일을 같다.

◎ 6월 18일 (음 5월 13일) 목요일 晴

… 朝飯 後 아버지 家 일을 가 5名이 아홉 마지기 매고 뒤깨 논 깨기를 했다. …

◎ 6월 19일 (음 5월 14일) 금요일 雲雨

炳哲 家 일. 식전에 논 일주하고 朝飯을 마치

고 일날이 엊이 되나 건너가 보니 炳默이 일을 해달라 하여 일을 같다. 靑年들은 農樂을 같고 다닐랴고 하는데 재비꾼이 없어 못 가저 같다. 9名이 두 마지기 以上 꼴을 했다. …

◎ 6월 20일 (음 5월 15일) 토요일

… 朝飯을 하고 있으니 둘재祖父께서 오늘 일을 해 달라 해서 일을 같다. 9名이 20마지기 맸다. …

◎ 6월 21일 (음 5월 16일) 일요일

… 朝飯을 마치고 東雨 家 일을 같다. 우리 6名이 첫날이다. 敎雨氏 家도 딴 두레가 하는 날이다. 떡과 술이 나와 잘 먹었다. …

◎ 6월 22일 (음 5월 17일) 월요일 晴

… 26名이 우리 논 다 맸다. 11 마지기. …

◎ 6월 23일 (음 5월 18일) 화요일 晴

… 朝飯 後에 壹雨氏 가 일을 같다. 炳賢 家와 일날이 한 날이다. …

◎ 6월 24 · 25일 (음 5월 19 · 20일) 수 ·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德雨가 일해가는 푸마시 일, 禧雨씨 일을 같다 왔다. 비는 오늘도 안 왔다. …

◎ 6월 25일 (음 5월 20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水村아저씨 푸마시 네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6월 26일 (음 5월 21일) 금요일 晴

顯雨氏 家 일. 애벌 푸마시 끝. (…) 朝飯을 마치고 顯雨氏 家 일을 같는데 今年 들어 第一 더운 날이였다. …

◎ 6월 27일 (음 5월 22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6월 29일 (음 5월 24일) 월요일 雲

東雨 家 일을 같섰다. …

◎ 6월 30일 (음 5월 25일) 화요일 雲

… 일꾼 5名이 두벌을 다 매고 사랑모퉁이 밭을 맸다. …

◎ 7월 3일 (음 5월 28일) 금요일 雲

… 朝飯 後에 上植 家 일을 같다. …

◎ 7월 4일 (음 5월 29일) 토요일 雲

… 朝飯床을 물리고 나니 비가 올둥말둥 하여 일이 엊이 되나 알랴고 나가니 일을 하라고 하여 논에 갈랴다가 德雨 푸마시 富平 아저씨 家 일을 같다. …

◎ 7월 5일 (음 5월 30일) 일요일 雲雨

顯雨氏 가 일. (…) 봄에 高棧 염전에 2日 가서 일한 것 품갑 1200원 중 1000만 가저왔다.

◎ 7월 7일 (음 6월 2일) 화요일 雲雨

다섯재祖父 家 일 품이다.(합두레) (…) 朝飯後에 仁成 家에서 다섯재祖父 家 일 해가는 일을 같다. (…) 오늘 날이 좋으면 동리일꾼이 한데 다 모이여 16名이나 되니 논매는 것 같아 농악을 울리고 잘 놀 것인데 비가 방해했다. …

◎ 7월 8일 (음 6월 3일) 수요일 雲

… 東雨 家 일날인데 前夜 비가 많이 나린 관계로 물이 껴서 못한다고 하여 日雨氏가 해달라 해서 작근 두레와 합두레를 해서 日雨씨 柱雨氏 等의 일을 했다. …

◎ 7월 9일 (음 6월 4일) 목요일 雲

… 食前에 앞 논뚜랑을 막고 朝飯 後에는 논뚜랑을 한참 깍고 午鍾 때 다섯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7월 11일 (음 6월 6일) 토요일 雲

… 논 일주하고 朝飯 後에 東雨 家 일을 같다. (…) 아버지 家도 자근 두레 일날이다.

◎ 7월 12일 (음 6월 7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우리 일날이라 일직 나같다. 일꾼 5명(私)이 다 훔치고 옆밭까지 맷다. …

◎ 7월 13일 (음 6월 8일) 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致雨 일을 같다. …

◎ 7월 15일 (음 6월 10일) 수요일 晴

… 仁成 家 일날로 興植 家 일을 해 가서 나도 일을 가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술을 내서 몇 잔 먹었다. 일 푸마시 오늘로 끝마치는 날이다. …

◎ 7월 19일 (음 6월 14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富平 아저씨 家 일을 같다. 伏이 지나니 날씨는 차차 무더웁고 일도 더욱 심이 든다.

◎ 7월 20일 (음 6월 15일) 월요일 晴

… 오늘로서 洞里一代에 除草(畓作物)가 끝나는 날 큰집에서 했다.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 午後에 德雨에게서 일전 일해 간 갑 중 600원을 가저와 興植 家에서 借用金 600원을 같다 주라 妻에게 주었다. …

◎ 9월 4일 (음 8월 2일) 금요일 晴

… 큰어머니 家에서 春子 여름네 데려다가 일시키였다고 치마 조고리 한 벌 해왔다. 약 2000원 어치는 될 성십다고 한다. …

◎ 9월 28일 (음 8월 26일) 월요일 雲

… 아버지 家 일 가서 高棧 前 9마지기를 비였다. 벼비기 첫날이다. …

◎ 9월 29일 (음 8월 27일) 화요일 晴

… 조반 後에 炳哲 家 일을 같다. 10名이 농골서 마지기 저붕굴 7마지기 좀 냉기고 비여 뽀았다. …

◎ 9월 30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오늘 吉雨氏 家 일날이라 일을 같다. 12名이 비였다. …

◎ 10월 1일 (음 8월 29일) 목요일 雲

… 朝飯食事는 아버지 家에서 하고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17名이 둘재祖父 家 논 태피 제위하고 다 비여 뽀았다. 둘재祖父 家 洞里 第一 먼저 끝났다.

◎ 10월 2일 (음 9월 1일) 금요일 雨

… 朝飯 後에 然雨 家 일을 같다. 9名이 12마지기를 다 비였다. …

◎ 10월 3일 (음 9월 2일) 토요일 雲雨

오늘이 우리 일 食前에 매끼 틀고 일직 일토[일터]에 같다. 일꾼 11名 앞 한 마지기 반 비다 냉기고 안원 받원 앞 말 가웃지기 上下 두 배미를 비고 닷 데기지 동욕꿀 等이 나맜다. …

◎ 10월 4일 (음 9월 3일) 일요일 晴

… 敎雨氏가 일날이다. 10名이 高棧 前 논 저붕굴 논을 비여 뽀는데 매우 저무렀다. …

◎ 10월 5일 (음 9월 4일) 월요일 晴

… 朝飯 後에 上植 家 일을 같다. 10名이 농꼴 앞 等을 비고 뽀았다. 夕飯 食事도 먹고 와 일찍 자리에 누었다. …

◎ 10월 6일 (음 9월 5일) 화요일 晴

敎雨氏 家 일. 11名. (…) 敎雨氏 家 稻束數는 약 2500 束. 나에 비해 약 1000束이 많은 셈이다. …

◎ 10월 7일 (음 9월 6일) 수요일 晴

仁成이 푸마시 일 致雨 家 해가는 일을 같다. …

◎ 10월 9일 (음 9월 8일) 금요일 晴

벼비기 始作해서 하로를 쉬지 않고 繼續 다니다가 오늘 일을 안 마치고 우리 나문 벼비기로 하고 (…) 일직 朝飯을 마치고 나문 것을 다 비기로 결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일직 끝났다. 앞 닷 데지기서 또 동욕꿀 等 처음 잘 데였을뿐더러 束數도 많이 났다. 우리 벼는 오늘로 다 끝 마치였다. 洞里 約 8割은 絶한 셈이다. …

◎ 10월 10일 (음 9월 9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耘植 家 일을 같다. 오늘 耘植家도 다 비였다. …

◎ 10월 11일 (음 9월 10일) 일요일 晴

致雨 家 일을 같다. …

◎ 10월 12일 (음 9월 11일) 월요일 晴雲

食前에 큰아버지가 와서 나무 동 저다 달래서 나무 두 동 저다 드리고 朝飯 後에 벼를 시러 드릴려고 高棧 소를 가질러 같더니 없어 그냥 와 저 드리기로 하고 始作해서 심듬을 억지[로] 하고 24번 열두 뭇 지고 다니니 저녁나절은 느른해진다. …

◎ 10월 28일 (음 9월 27일) 수요일 晴

…식전 일직 敎雨氏 家 벼 타작 일을 같다. 둘재祖父 生辰이라 동리 사람 전부 朝飯을 하고 일꾼도 일동히 가서 먹었다. 종일 턴 것이 約 130束 가량 7名이 털었다. …

◎ 10월 30일 (음 9월 29일) 금요일 晴

食前부터 敎雨氏 家 벼 타작 같다. 德雨氏 家도 하고 일터 게꼴까지 바수었다. …

◎ 10월 31일 (음 9월 30일) 토요일 晴

食前 나가 영을 엮을까 하고 나가니 食前 바람이라 冷하고 또 서리도 제법 오고하여 그냥 드러와 있다가 朝飯 後에 나가기로 하고 朝飯床을 막 밧고[받고] 있으니 큰어머니가 와서 春子더러 벼를 훌터 달라고 해서 보내기로 했다. 妻와 春子는 오늘 게꼴 바수기로 한 것이다. …

◎ 11월 3일 (음 10월 3일) 월화요일 雲

종일토록 영 엮었다. 食前부터 10時 頃까지 둘재祖父 家 벼 훌터드리였다. 동리 청년 거이 다 협조했다. …

◎ 11월 5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食前에 理髮 次 농꼴 갈더니 理髮師가 아파 누어있어 그냥 와 朝飯을 마치고 興植 家 지붕일 갈다. 5名이 前日 영 역꺼논 것으로 종일 두루었다. …

◎ 11월 30일 (음 11월 1일) 월요일 晴

食前에 네재祖父가 와서 지붕이여 달라해서 오늘 네재祖父 家 일을 갈다. …

1960년

◎ 2월 16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늣게 일어나 있으니 박에서 찾아 나가니 炳均君이 일을 해달라고- 炳均 父親이 우리 집이여준 것의 품아시다. 생전 처음으로 오즘 주는 일을 갈다. (…) 나는 炳均 家 일을 갈다. 敎雨氏와 3人이 주었다.(농꼴) …

◎ 2월 29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晴

… 아버지 家에는 변소와 닭장(鷄舍)를 진다고 木手가 있다. …

◎ 3월 1일 (음 2월 4일) 화요일 晴

… 아버지 家 허청 짓는데 조역 한참하고 집에 와 그럭저럭 해를 보냈다. …

◎ 3월 23일 (음 2월 26일) 수요일 雲

새벽에 일어나 농꼴을 가서 炳殷 家에서 일한(농꼴 事務所) 품갑 중 5割 해주기로 하고 일활을 支佛해주었다. …

◎ 4월 4일 (음 3월 9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갈더니 壹雨氏가 일꾼 때매 걱정을 하고 오늘 일을 해주면 모를 심어준다고 해서 내가 壹雨氏 일을 갈다. 지덕이 논 끄이를 했다. …

◎ 4월 17일 (음 3월 22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니 悠雨가 一金 五百圜 借用해 달래서 借用해주고 나는 네재祖父 家 모자리를 하려 갈다.

◎ 4월 19일 (음 3월 24일) 화요일 晴雲

食前에 씨나락을 칠까 했으나 날씨가 차거워 朝飯 後에 치기로 하고 朝飯을 마치고 가 씨나락을 치고 있으니 아버지가 와서 처주었다.

◎ 4월 20일 (음 3월 25일) 수요일 晴風

…오늘 염전 일을 갈다. 갈래질 가서 모래를 파냈다. …

◎ 4월 26일 (음 4월 1일) 화요일 晴雲

저녁나절 다섯祖父 창깨 갈아주고 우리 것도 가는데 다섯祖父 일꾼이 갈아주어 저녁 먹기 또 알맞게 되었다.

◎ 5월 22일 (음 4월 27일) 일요일 晴

… 안꼴 할아버지 家는 벌서 모를 많이 심었다. 냉산모까지 얼추 논 섬지기나 심었다. 오늘도 사람 여럿이 심는다. …

◎ 5월 25일 (음 5월 1일) 수요일 晴

… 今年 들어 처음으로 우리 모 始作이다. 찰벼를 동욕꿀과 심을 예정이였는데 건가리라 못 심고 앞 닷 데지기에 심게 되었다. 모가 키는 큰 편인데 심이 없다. 조금 있다가 孟植이 와서 같이 심었다. 孟植과 함께 앞 닷 데지기 한 마지기等 다 심고 아버지 家 음물 논 닷 데지기를 심었다. …

◎ 5월 26일 (음 5월 2일) 목요일 雲

食前에 물꼬 가는데 뒤염[두엄] 한 짐 저다 모자리 배비 넣고 논뚜랑을 도라보고와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 일을 갈다. 9마지기 심는 날이다. (…) 9마지기 일 다 심고 일러 비도 끄치고

집에 와 옷을 갈아입고 앞에 가서 더 심었다. …

◎ 5월 27일 (음 5월 3일) 금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다섯재祖父 家 일을 같다. 피난민 한 명을 上植 家에서 말해 가지고 일을 같섯다. …

◎ 5월 29일 (음 5월 5일) 일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敎雨氏 家 일을 같다. 13名이 농꼴 엿 마지기 뒤깨 서 마지기 今年에 산 받원 3마지기 모자리배미 한 마지기 等 일직 끝나고 도라왔다. …

◎ 5월 30일 (음 5월 6일) 월요일 晴

늣게 일어나 집에 있다가 朝飯 後에 安雨 家 일을 같다. 8名이 일을 했다. …

◎ 5월 31일 (음 5월 7일) 화요일 晴

오늘이 우리 일날이다. 食前에 물꼴에 물을 좀 눌러놓고 드러와 朝飯을 마치고 肥料 지고 일토에 같다. 10名이 심고 아버지는 소를 부리였다. 겨우 쓰러댔다. 10名이 9마지기 심었다. …

◎ 6월 1일 (음 5월 8일) 수요일 晴

食前에 물꼬를 일주하고 朝飯을 마치고 敎雨家 일을 같다. 高棧 앞논과 저붕굴 논을 10名이 다 심었다. …

◎ 6월 2일 (음 5월 9일) 목요일

아버지 家 일을 같다. 농꼴 논 받원 서 말 가웃지기 말 가웃지기 한 마지기 닷 데지기 等을 심었다.

◎ 6월 3일 (음 5월 10일) 금요일 晴雲

食前에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 모를 기웁고 耘植 家 일을 같다. 날씨가 흐리더니 급기야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일을 품미고 드러오니 또 벗어 저 일을 다시 나가 농꼴 것을 심고 앞에 와 點心을 마치고 나니 또 가랑비가 나리고 하야 옷을 적씨고 계속 일을 햇으나 …

◎ 6월 4일 (음 5월 11일) 토요일 晴

아논 두 마지기를 기웁고 悠雨 家 일을 같다. 날씨가 가물기 始作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것만 비가 안 와 걱정이다. 여덜 마지기를 심고 앞에 와 심엇다. …

◎ 6월 5일 (음 5월 12일) 일요일 晴

食前에 春子와 앞 닷 데지기 물을 프고 朝飯을 마치고 柱雨 家 일을 같다. 일꾼 약 20名이 다 심었다. …

◎ 6월 7일 (음 5월 14일) 화요일 雲

前日까지 일품아시가 끝나는 날이라 오늘은 늣게까지 잘랴고 누어 있으니 네재祖父 家에서 일을 해 달라는 소리에 깨였다. 모 다 심고 놀며 안 갈 수 없어 승낙하고 …

◎ 6월 9일 (음 5월 16일) 목요일 晴

오늘이나 쉬일까 햇더니 食前에 둘재祖父께서 오시여 논을 좀 매달라 해서 또 일을 가게 되었다. 3名이 뒤깨논을 매는데 마른 데가 많고 2, 3日 내로 말라 붓게 되고 오늘 매지 않으면 대우 심들 것이라 아직 맬 때는 되지 않았으나 부득히 맨 것이다. …

◎ 6월 14일 (음 5월 21일) 화요일 雲

食前 일직 일어나 둘재祖父 家에 가서 소를 얻어다 앞밭 그루를 갈았다. 孟植 아버지가 같이 갈았다. 朝飯 後에는 남정배미 물을 푸다가 큰집 콩을 심으려 같다. 下午에는 옆밭 보리를 비다가 타작을 겉보리 가마 반가량 하였다. 저녁 때 孟植이가 협조를 하였다. …

◎ 6월 15일 (음 5월 22일) 수요일 晴

… 물꼬에 다니여와 세재祖父 家 그루를 갈아주었다. 소를 갈다가 朝飯 後에 우리 옆 밭 그루를 갈았다. 完雨와 春子 妻 等이 콩을 심었다. …

◎ 6월 16일 (음 5월 23일) 목요일 晴

食前에 일직 일어나 敎雨 家 그루를 갈아주고 朝飯 後에 보리타작 나문 것을 해치웠다. 아버지 家 사람 몇 얻어 일을 해였다.

◎ 6월 17일 (음 5월 24일) 금요일 雲

食前에 아버지 家 그루를 갈고 敎雨氏 家 일을 같다. …

◎ 6월 18일 (음 5월 25일) 토요일 雲

食前에 아버지 家 일.(그루) 둘재祖父 家 일 같다. …

◎ 6월 19일 (음 5월 26일) 일요일 晴
오늘은 食前 일이 없어 들을 돌고 朝飯을 하고 안꼴 조부가 일을 같다. …
◎ 6월 20일 (음 5월 27일) 월요일 晴
오늘이 우리 일이다. 5名이 일직 끝낫다. …
◎ 6월 21일 (음 5월 28일) 화요일 雲晴
…오늘 나는 쉬는 날인데 孟植을 平澤을 보내고 내가 대신 일을 같다. (…) 敎雨 家 일-. …
◎ 6월 23일 (음 5월 30일) 목요일 晴
아버지 家 일날이다. …
◎ 6월 25일 (음 6월 2일) 토요일 晴
… 悠雨 家 일을 같다 왔다. …
◎ 6월 29일 (음 6월 6일) 수요일 雲
… 朝飯食事를 하고 安雨 家 일을 같다.(모심기) …
◎ 7월 2일 (음 6월 9일) 토요일 雲
… 食前에 논을 일주하고 도라와 朝飯食事를 하고 富平아저씨 家 移秧 일을 같다. …
◎ 7월 3일 (음 6월 10일) 일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나니 비가 개이여 오늘 일이 어이 되나 알아보니 하자고 해서 일을 같다. 둘재祖父 家 일인데 10名이 했다. …
◎ 7월 4일 (음 6월 11일) 월요일 雲
食前에 앞논뚜랑을 거실르고 朝飯을 마치고 나니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오늘 일이 어이 되나 했더니 곳 비가 개이여 일을 같다. 다섯재祖父 家 일날 겸 然雨 家 일날인데 일꾼이 갈라저 우리는 5名이 논을 멜까 하다가 손이 쇠여 훔치였다. …
◎ 7월 5일 (음 6월 12일) 화요일 晴
… 安雨 家 일을 같다. …
◎ 7월 6일 (음 6월 13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 일을 같다. 논에 물도 없고 해서 8名이 25마지기 이상을 除草를 했다. …
◎ 7월 8일 (음 6월 15일) 금요일 雨
… 조반을 마치고 나니 이슬비가 나리고 있어 일이 어이되는가? 알아 볼랴고 마실을 가니 한다는 사람이 있어 나도 하자고 하여 7名 중 3名을 興植家 일을 보내고 4名이 우리 일을 했다. 맬랴고 했으나 손이 쇠여 못하고 전부 훔쳐 주었다. …
◎ 7월 10일 (음 6월 17일) 일요일 晴
논을 一週하고 朝飯食事를 하고 悠雨 家 일을 같다. …
◎ 7월 12일 (음 6월 19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柱雨家 일을 같는데 日雨氏家와 합해 22名이 논에 들어스니 아주 많은 일꾼이다. …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 朝飯食事를 하고 나니 朴서방(다섯재祖 일군)이 와 사정을 하여 일을 같섰다. …
◎ 7월 15일 (음 6월 22일) 금요일 晴
… 敎雨 家 일날인데 못 같다. 오늘로 거이 동리 除草作業이 끝나는 것 같다. …
◎ 7월 17일 (음 6월 24일) 일요일 晴
… 오늘 둘재祖父 家의 일이다. …
◎ 7월 19일 (음 6월 26일) 화요일 晴
… 興植 家에서 품갑 1800환 受.
◎ 9월 30일 (음 8월 10일) 금요일 雲雨
稻色 始作日.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家 벼 비기 始作했다. 食前부터 날씨 좋지 않더니 급기야 午鍾 때서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나리였다. 일을 품밀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기도 하고 비를 맞어가며 뽑았다. 9마지기 일이란 벼 뽑기가 큰 문제이다. …
◎ 10월 2일 (음 8월 12일) 일요일 晴
오늘 安雨 家 일. 朝飯 後에 安雨 家 일을 가너 마지기 통배미 말 가웃지기 等을 비여 뽑았다.
◎ 10월 3일 (음 8월 13일) 월요일 晴
… 아버지 家 일. 일꾼 열 두 명이 열한 마지기 비고 뽑았다. …
◎ 10월 4일 (음 8월 14일) 화요일 晴
우리 일날이다. 11名을 얻엇는데 1名이 못 와 10名이 마음 먹엇던 서 말 가웃지기 아논 앞 너 마지기 等을 비여 뽑았다. …
◎ 10월 7일 (음 8월 17일) 금요일 晴
둘재祖父 家 일. 14名이 14마지기 비였다. …

◎ 10월 8일 (음 8월 18일) 토요일 晴
吉雨氏 家 일. 10名. 吉雨氏 家 일 같다. …
◎ 10월 9일 (음 8월 19일) 일요일 晴
敎雨家 일. 敎雨家 일을 같다. 11名. …
◎ 10월 10일 (음 8월 20일) 월요일 晴
柱雨氏 家 일. 14名. 柱雨家 일을 같다. 14名이 17마지기 찰베 좀 냉기고 다 비였다. …
◎ 10월 11일 (음 8월 21일) 화요일 晴
敎雨氏 家 일 10名. 敎雨 家 일 같다. …
◎ 10월 13일 (음 8월 23일) 목요일 雲
아버지 家 일. 德雨가 해가는 일 8名. 아버지 家 일을 같다. (…) 妻는 벼 훌고 春子는 아버지 家 일을 같다. 妻와 春子는 저녁나절 벼를 조파리게 했다. 아버지 家 일을 같다오다가 한참이나 벼를 조파리고 비설거지를 했다. …
◎ 10월 21일 (음 9월 2일) 금요일 晴
食前에 풍성기[풍선기]를 같다주고 오니 安雨가 오늘 버를 좀 떨어달라고 해서 安雨 家 벼 타작 일을 같다. 저녁 늦게까지 드리여 담았다.
◎ 10월 22일 (음 9월 3일) 토요일 晴
食前 일직 일어나 아버지 家 벼 타작 일을 같다. 날이 저문 고로 벼 떨기에 심이 들었다. …
◎ 10월 28일 (음 9월 9일) 금요일 晴
食前 일직이 아버지 家에 벼 떨러같다. …
◎ 11월 1일 (음 9월 13일) 화요일 晴
前夜에 아버지 家에 같다오다 明雨가 어떤가 問病 같다가 오늘 타작을 해달라 해서 가기로 하고 食前 일직 明雨 家 일을 같다.…
◎ 11월 7일 (음 9월 19일) 월요일 晴
오늘 三人을 얻어 안채를 해이였다. 便所까지 해이였다. 大休氏 家 長利 3叭 가저왔다. 인제 오즘과 울타리만 해이며는 가을일은 끝나는 것이다. …

1961년

◎ 4월 9일 (음 2월 24일) 일요일
날씨가 바람이 불고하더니 (…) 모자리를 할 논인지라 오늘 來日 가라야 한다고. 일은 한다 해서 長靴를 신고 넘어가 始作했다. 아주 일하기에는 좋지 않았다. …
◎ 4월 14일 (음 2월 29일) 금요일
논을 一週하고 朝飯食事를 하고 아버지 家 모자리 하러 같다. 高棧 앞, 앞 닷 데지기, 밭원 일곱 데지기 等 모자리를 했다. …
◎ 4월 15일 (음 3월 1일) 토요일
모자리 했다. 날씨가 冷하고 바람이 이는 듯하여 자고 일어나며 오늘 모자리를 할 걱정을 했다. 食前에 물을 푸고 와 세재祖母의 60순 생신을 차리여 朝飯을 하고 와 모자리를 했다. 아버지와 함게 해서 10時 頃에 끝났다. …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柱雨氏 家 새올리는데 같섯다. 洞里 젊은 사람은 거이 다 모여 종일토록 영을 엮어 가지고 다 올려주었다. …
◎ 5월 6일 (음 3월 22일) 토요일
… 敎雨氏는 일꾼을 얻어 오늘도 물 푸느라고 야단이다. …
◎ 5월 14일 (음 3월 30일) 일요일
… 물을 퍼올린 한 마지기 물이 주른 것 같아 朝飯을 하고서 웅뎅일 퍼서 올리었다. 일날을 잡는데 洞里 일꾼이 두 패로 갈리여 하게 되었다 하여 일꾼 모두 8名이니 큰 야단이다. …
◎ 5월 20일 (음 4월 6일) 토요일
… 朝飯食事를 하고 孟植 일꾼 等 三人이 우리 앞 닷 데지기 한 마지기 等을 12時 頃에 다 심고 아버지 家 밭원 7곱 데지를 심고 …
◎ 5월 21일 (음 4월 7일) 일요일
9마지기 이앙.(아버지 家) 食前 일직부터 아버지 家 모를 찌려 같다. 아번님이 협조는 해주었으나 6名이 일직 다 심었다. …
◎ 5월 22일 (음 4월 8일) 월요일
安雨 家 移秧. (…) 오늘 일꾼 6名이 시멌다. …
◎ 5월 23일 (음 4월 9일) 화요일
5名이 우리 일 했다. 오늘 우리 일을 할랴고 일

꾼을 몇 명 얻었다. 하루에는 못 심을 것 같아 미리 하는 것이다. 5名이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와 서 말 가웃지기를 모자리 제위하고 다 심고 아논 일곱 데지기까지 시멌다. (…) 아번님은 논을 쓰려 주시었다. 저녁 먹고는 柱雨 家 이사짐을 저다 주었다.

◎ 5월 24일 (음 4월 10일) 수요일

敎雨氏 家 移秧. 조반 후에 敎雨 아저씨 家 일을 같다. 7名이 농꼴 6마지기와 비야목 말 가웃지기를 시멌다. …

◎ 5월 25일 (음 4월 11일) 목요일

… 오늘 일을 하느니 못 하느니들 말을 하다가 여기서 별로 일 볼 것도 없으니 일을 하는 것이 좋다가 다섯재조부가 말하여 안 되기는 했으나 일을 하기로 결정! 아버지 家 일을 하는데 7名이 농꼴 논 닷 마지기와 너 마지기를 시멌다. …

◎ 5월 26일 (음 4월 12일) 금요일

禧雨氏 葬日. (…) 食事를 하라오라고 해서 朝飯을 富平 아저씨 家에 가서 하고 나는 山役을 하라 같다. 젊은 사람들은 상여를 같다 꾸미였다. …

◎ 5월 27일 (음 4월 13일) 토요일

둘재祖父 家 일. 12名. 오늘이 우리 일날인데 하로 드티여 來日로 되였다. 朝飯을 하고 둘재祖家 일을 같다. …

◎ 5월 28일 (음 4월 14일) 일요일

오늘이 우리 일날이다. 7名. (…) 일도 늦게서야 일이 始作되였다. 모를 다 찌고 저뚜리[곁두리]를 먹고 나니 비가 많이 쏘다저 일을 못하게 되었다. …

◎ 5월 29일 (음 4월 15일) 월요일

우리 일 7名 품민 일. (…) 朝飯을 하고 일을 나 같다. 前日 모를 쩌논 것이라 朝飯 後부터 심기 始作했다. 다른 논보다 좀 배고 석도 많이 했다. 12時 頃에 다 심고 앞 말 가웃지기 모자리 等을 심고 아버지 家 아논 장구배미도 심었다. …

◎ 5월 30일 (음 4월 16일) 화요일

敎雨氏 家 일. 10名. (…) 敎雨 아저씨 일날이다. 저붕굴 논 8마지기 심고 저녁참에 뒤개 3마지기를 심었다. …

◎ 5월 31일 (음 4월 17일) 수요일

… 朝飯 후에는 安雨 아저씨 家 일을 같다. …

◎ 6월 1일 (음 4월 18일) 목요일

敎雨氏 家 일. 耘植 家 일. 敎雨 家 논 나와 戊晟만을 얻어 일을 했다. 오늘 필모를 했다. 작년에 모논 매준 것을 오늘 갚은 셈이다. 품진 것을 해주니 아주 시원하다. …

◎ 6월 2일 (음 4월 19일) 금요일

아버지 家 일. 11名. 오늘 食前에 모를 기웁고 朝飯 後에 아버지 家 일을 같다. 11名이 받원 8마지기를 심었다.

◎ 6월 3일 (음 4월 20일) 토요일

아버지 家 일. 柱雨 家 일. 前日 심고도 8마지기 턱이나 남아 오늘도 아버지 家 일을 같다. 일꾼 4名이 받원은 모자리를 제위하고는 다 심었다. …

◎ 6월 4일 (음 4월 21일) 일요일

농꼴 모짜리 분 것이 남아 피난민이 쩌 가기로 하고 아논 두 마지기와 받원 일곱 데지기를 심어 주었다. …

◎ 6월 8일 (음 4월 25일) 목요일

논 매다. 始作. 우리 일. (…) 孟植과 일꾼 安雨 等과 함께 농꼴 논의 소매거지를 할랴고 한 것이 풀이 별로 해서 한나절이나 할랴 한 것이 한 참에 끝나 앞 너 말 가웃지기 뜰을 매고 서 말 가웃지기 等을 매고 아논 일곱 데지기 等을 맸다. …

◎ 6월 9일 (음 4월 26일) 금요일

安雨 家 일.

◎ 6월 10일 (음 4월 27일) 토요일

… 朝飯을 하고 오늘 孟植이 농꼴 닷 마지기의 논을 매자고 해서 孟植과 함께 下午 2時 頃까지 다 매였다. …

◎ 6월 11일 (음 4월 28일) 일요일

아버지 家 일. (…) 아버지 家 일꾼 6名이 일직 심은 논 18 마지기를 다 맸다. …

◎ 6월 12일 (음 4월 29일) 월요일

… 柱雨 家 소매거지 일 가다. (…) 朝飯 後에

柱雨 일을 같다. 悠雨 해 같다. …

◎ 6월 13일 (음 5월 1일) 화요일

둘재祖父 家 일. (…) 朝飯食事를 하고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8名이 전부 더듬엇다. …

◎ 6월 16일 (음 5월 4일) 금요일

우리 일. (…) 庶母가 그루 갈라 올 재 구리망 가저오라는 소리에 깨여 아버지 家 그루를 갈라 같다. 일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늣게 始作해서 5名이 할 것은 壹雨氏가 빠개는 바람에 5名이 했다. 우리 농사 다 했다. …

◎ 6월 18일 (음 5월 6일) 일요일

完雨 家 일로 安雨 家로 감. 食前에 보리씨를 떨고 朝飯을 마치고 나니 安雨가 와서 完雨 家 일을 갈 것이면 우리 집으로 오라해서 安雨 家 일을 같다. 完雨 家에서 보낸 것이다. …

◎ 6월 19일 (음 5월 7일) 월요일

食前에 늣게 일어나 朝飯을 하고 아버지 家 일을 같다. …

◎ 6월 21일 (음 5월 9일) 수요일

安雨 家 일. 德雨 일.

◎ 6월 22일 (음 5월 10일) 목요일

悠雨 가 일로 富平 아저씨 家로 감. …

◎ 6월 23일 (음 5월 11일) 금요일

吉雨氏 家 일. (…) 午前 中에는 비가 나릴 것이라 하여 오늘일이 물리나 했더니 朝飯 後에는 비가 멈추어 일을 같다. …

◎ 6월 26일 (음 5월 14일) 월요일

둘재祖父 家 일. 食前에 아버지 家 그루를 갈고 朝飯 後에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6월 27일 (음 5월 17일) 화요일

食前에 논뚜랑을 거실르고[그슬리고] 아버지 家 일을 같다. 孟植은 따로 하라고 관계치 말라해서 일을 못 같다. …

◎ 6월 28일 (음 5월 16일) 수요일

우리 일 6名. 食前에 농꼴 논에 논뚜랑을 거실르고 朝飯 後에 肥料 1斗 가량 가저다가 덜 된 곳에 끼언고 맸다. (…) 한참에 하고 밭원은 흠첫다. 안논도 앞도 모두 除草를 하고 한 마지기와 닷 데지기는 깨끼를 했다.

◎ 6월 29일 (음 5월 17일) 목요일

敎雨氏 家 일. (…) 敎雨氏 家 일을 같다. 일 다니고 본 중 敎雨氏 家 논과 같이 쏠쏠히 잘 된 논은 없다. …

◎ 7월 3일 (음 5월 21일) 월요일

다섯재祖 家 일. …

◎ 7월 7일 (음 5월 25일) 금요일

顯雨氏 家 移秧. 전일 나린 비로 이곳 마냥모는 다 심게 되였다. 食前에 顯雨氏 家 품을 갑으려 같다. 도랑원 여덟 마지기 조양 심다 나문 것을 심었다.

◎ 7월 8일 (음 5월 26일) 토요일

다섯재祖父 家 모내기를 같다. 도랑원 열 닷 마지기 틀을 심었다. …

◎ 7월 9일 (음 5월 27일) 일요일

농꼴 除草. 食前에 물꼬를 보고 朝飯食事를 하고 농꼴논을 훔치러 같다. 龍德(일꾼)을 데리고 종을 농꼴 닷 마지기와 앞 닷 데지기를 除草했다. 농꼴 풀이 많아 아주 심이 드렀다. 洞里 마량모도 오늘로 끝났다. 富平 아주머니 家도 오늘 내고 除草도 했다. …

◎ 7월 10일 (음 5월 28일) 월요일 雲

아버지 家 일. 除草. (…) 朝飯 後에 일을 같다. 아버지 家 除草 끝낫는데 벼도 잘 되었다. …

◎ 7월 11일 (음 5월 29일) 화요일

然雨 家 일. (…) 朝飯 後에 然雨 家 일을 같다. …

◎ 7월 12일 (음 5월 30일) 수요일

除草作業 끝. 우리 두레는 前日로서 끝낫다. 洞里에서 큰 두레와 저근 두레 둘로 나누엇는데 내가 다니는 두레는 前日로서 끝나고 저근 두레는 모래까지 간다. 洞里의 除草도 거이 끝나간다. …

◎ 9월 21일 (음 8월 12일) 목요일

稻絶 始作. 食前에 매끼를 틀고 朝飯 後에 安雨 家 벼비기 일을 같다. 八名이 四마지기 통배미 말 가웃지기 또 개자를 비고 四마지기를 뽀밧다. …

◎ 9월 25일 (음 8월 16일) 월요일
다섯재祖家 일. 食前에 매끼 몇 틀고 朝飯 後에 다섯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9월 26일 (음 8월 17일) 화요일
우리 일. 食前부터 일 준비를 하고 朝飯 後에 일을 나가니 오늘 前日 푸마시 한 朴書房(다섯재祖 일꾼)이 일꾼 한 명 데리고 온다던 사람이 自己도 사정이 잇어 못 온다고 일토에 와서 깨고 간다. (…) 일꾼을 꼭 째였다가 깨지니 낭패가 아주 많다. 그리하여 밭원 3.5 웃지기 비고 아논말 가웃지기를 비다 냉기였다. …
◎ 9월 27일 (음 8월 18일) 수요일
安雨 家 일. 9名. 食前에 늣게 일어나 매끼 몇 틀고 朝飯 後에 安雨 家 일을 같다. …
◎ 9월 28일 (음 8월 19일) 목요일
炳賢 家 일. 새참에는 으레 술인데 술 안 먹는 사람은 아주 허사다. 쓰러진 논을 비여 아주 더디였다. …
◎ 9월 29일 (음 8월 20일) 금요일
오늘은 둘재祖 家 일을 같다. …
◎ 9월 30일 (음 8월 21일) 토요일
炳殷 家 일. 昨年에 孟植과 炳殷과 싸우고 좋지 않게 지나다가 (…) 今年 가을에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炳殷 家 일을 같다. 농꼴 논 炳殷 家 논이 전부 쓰러저 일꾼이 아주 많이 드렀다. 10名이 종일 비고 닷 마지기를 뽀앗는데 산에다 널기 때문에 우리 벼자리가 없어 큰 걱정이다.
◎ 10월 1일 (음 8월 22일) 일요일
호락질. 然雨 일. 오늘은 집에서 비다 남긴 아논 벼를 비였다. 종일 비여서 뽀았다.
◎ 10월 2일 (음 8월 23일) 월요일
敎雨氏 家 일. 12名. 食前에 안밭 원안 벼 뽀은 것을 손질하고 朝飯食事 後에 敎雨 일을 같다. …
◎ 10월 3일 (음 8월 24일) 화요일
우리 일 9名. 오늘이 우리 일날이다. 食前에 매끼 한 짐을 농꼴까지 저다 놓고 朝飯 後에 일을 같다. …
◎ 10월 6일 (음 8월 27일) 금요일
食前에 아번님이 오시여 高棧 앞 9마지기 벼단을 뽀아달라 해서 가서 왜뚝으로 愼書房과 三人이 뽀았다. …
◎ 10월 7일 (음 8월 28일) 토요일
… 食前에 영을 한 아름 역고 朝飯 後에 敎雨 家 일을 같다. …
◎ 10월 8일 (음 8월 29일) 일요일
… 朝飯 後에는 큰아번님 家 밭에 넌 벼단을 치워달라 해서 한나절이나 저냈다. 午後에는 벼를 손치고 앞 닷 데지기 벼 뭇을 저드리였다. …
◎ 10월 9일 (음 8월 30일) 월요일
… 아버님 家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 朝飯을 안 해 먹는 줄 알고 일을 가야겟고 해서 집에서 朝飯을 하고나니 오라 해서 들리여 일을 같다. …
◎ 10월 10일 (음 9월 1일) 화요일
… 朝飯 後엔 悠雨가 일 해가는 아버지 家 일을 같다. 午前엔 뒤깨밭 보리 갈고 午後엔 밭원 벼를 뽀았다. …
◎ 10월 11일 (음 9월 2일) 수요일
食前부터 安雨 家 脫穀일을 같섯다. 脫穀 일이란 매우 심드는 일이다. …
◎ 10월 23일 (음 9월 14일) 월요일
…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오늘 일을 마처 安雨 家 일을 食前에 같다. …
◎ 10월 24일 (음 9월 15일) 화요일
오늘 우리의 벼를 떠렀다. 安雨 家의 脫穀機를 얻어다가 일꾼 5名을 얻어 종일 떠렀다. …
◎ 10월 26일 (음 9월 17일) 목요일
둘재祖父 家 脫穀. 食前에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10월 27일 (음 9월 18일) 금요일
安雨 家 脫穀. 매일 일을 다니니 아주 몸이 피곤하다. …
◎ 11월 2일 (음 9월 24일) 목요일
孟植 家 일. 前日 孟植이 와서 來日 타작을 해달라 해서 食前부터 종일 떠러 다 떨어 모아놓았다.

◎ 11월 22일 (음 10월 15일) 수요일
… 다섯재祖父 家에 朝飯을 하고 오니 일꾼들이 와 시작했다. (…) 용구새도 틀어놓아 일꾼 4名이 해웠다. 大休氏 炳均 愼書房 等이 다 해이우고 나니 아주 기분이 좋다. …

1962년

◎ 1월 7일 (음 12월 2일) 일요일 晴
… 몇일채 품을 미고서야 오늘로 다 찌었다. …
◎ 1월 24일 (음 12월 19일) 수요일 晴
… 저녁에는 富平 아주머니 家 새끼를 꼬와 주었다.
◎ 3월 2일 (음 1월 26일) 금요일 晴
… 지게를 걸랴 했으나 잘 안 된 것 같아 木手 顚雨氏에게 같다 걸어달라하고 手工費로 穀草 10束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 걸었다.
◎ 3월 8일 (음 2월 3일) 목요일 晴
炳殷家 移舍. 朝飯 後에 炳默君이 와서 移舍짐을 날라 달라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移舍 짐을 運搬해주었다. …
◎ 4월 10일 (음 3월 6일) 화요일 晴
모자리 가래질. 오늘 아번님 家 가래질하여 朝飯 後에 아버님 家 일을 같다. 高棧 앞 9 마지기 가래질을 하고 앞으로 와 아번님 家 일을 하는데 우리 모자리 배미도 가래질을 하고 앞 말 가웃지기도 깜둑을 했다. …
◎ 4월 12일 (음 3월 8일) 목요일
모자리를 쓰릴라고 소를 가질라 같더니 아번님은 같다 쓰리라고 하는데 庶母가 일군을 데리고 소를 끌고 골이 잔득 난 얼굴로 농꼴로 가는 것이다. 소를 가저오면 그냥 가저오는 것도 아니고 꼭 따저 일을 해주었다. …
◎ 4월 16일 (음 3월 12일) 월요일
朝飯 後에 아번님 家 모짜리를 하라 같다. 高棧 아홉 마지기 보온 모짜리 비니루를 덥고 앞의 모짜리를 종일 했다. …
◎ 4월 17일 (음 3월 13일) 화요일 雨
… 朝飯을 늣게 먹고 前日 火災를 본 致雨 家에 가 일을 해주었다. …
◎ 4월 23일 (음 3월 13일) 월요일 晴
食前에 朴書房이 가래질을 해달라고 해서 아논 은배미를 가래질 했다. 朝飯을 朴書房(다섯재祖父 家)에서 하고 곳 도라와 …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食前 일직 농꼴 왜뚝 가래질을 하자고 耘植이와 일찍 치기 始作해서 朝飯食事가 늣게야 끝나 …
◎ 5월 11일 (음 4월 8일) 금요일 晴
… 농꼴 崔書房이 와서 일로 해줄 테니 白米 1斗만 달라고 해서 일 3만 해주기로 하고 백미 1斗를 주었다. …
◎ 5월 14일 (음 4월 11일) 월요일 晴雲
食前에 아논 아버지 家와 우리 논의 가래질을 하고 나니 朝飯食事가 늣었다. …
◎ 5월 24일 (음 4월 21일) 목요일 晴
아버지家 移秧. 前日 심다 나문 모를 아번님家 모를 4名이 종일 심었다.
◎ 5월 25일 (음 4월 22일) 금요일 晴
… 오늘은 錦雨 家 일을 했다.
◎ 5월 27일 (음 4월 24일) 일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 아번님 家 일을 같다. …
◎ 5월 28일 (음 4월 25일) 월요일 晴
… 朝飯을 하고 큰아번님 家 모를 심으려 같다. 里長料를 일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일이 바뿐대도 허는 수 없이 같다. …
◎ 5월 29일 (음 4월 26일) 화요일 晴
… 오늘날까지 품아시는 하로를 못했다. 오늘은 敎雨 家 일날이다. …
◎ 5월 30일 (음 4월 27일) 수요일 晴
… 오늘 일꾼 8名이 농꼴 닷 마지기 심고 서 말 가웃지기 모짜리를 냉기고서 다 심고 일곱 데지기 말 가웃지기를 논 마지기나 냉기고 심었다. 물 잇는 논은 來日 일꾼 1名을 얻어 심으면 다 심고 건가리가 서너 마지기 남는다. …

◎ 5월 31일 (음 4월 28일) 목요일 晴
… 오늘 농꼴 崔書房을 얻어다가 前日 심다 나문 것을 다 심었다. …
◎ 6월 3일 (음 5월 2일) 일요일 雲
농꼴 難民 1名을 데리고 모를 앞 닷 데지기와 한 마지기를 심었다. …
◎ 6월 5일 (음 5월 4일) 화요일 晴
둘재祖 家 일. (…) 들에 잠깐 들려 처와 앞 말가웃지기에서 한 마지기로 물을 좀 푸고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6월 6일 (음 5월 5일) 수요일 雲晴
然雨 家 일. 들로 일직 나가 물꼬를 돌보고 朝飯을 마치고 앞 한 마지기로 물을 좀 푸다가 然雨 家 일을 같었다. …
◎ 6월 7일 (음 5월 6일) 목요일 雲
… 朝飯 後에 然雨 家 일을 같다. 비방을 해서 일을 품미고 도라왔다. …
◎ 6월 8일 (음 5월 7일) 금요일 晴
致雨 家 移秧 일. 늣게서야 들을 一週하고 곳 일을 같다. …
◎ 6월 10일 (음 5월 9일) 일요일 晴
… 興植 家 일로 洞里의 移秧은 오늘로 뭇 잇는 논은 끝마첬다. …
◎ 6월 15일 (음 5월 14일) 금요일 晴
아버지 家 일. (…) 아번님 家 일을 해서 오늘 일을 같다. …
◎ 6월 16일 (음 5월 15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를 하고 둘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6월 17일 (음 5월 16일) 일요일 晴
錦雨 家 일. 食前에 자고 잇으니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 일어나 보니 勳植이 와서 그루를 갈아 달라고 해서 가 콩을 심어 드리고 와 다섯재祖父 家 일을 갈 것인데 錦雨 家로 보내서 일을 같다.
◎ 6월 18일 (음 5월 17일) 월요일 晴
우리 일. 6名. 食前에 肥料 줄 것을 準備하고 잇으니 다섯재祖 家 일꾼 朴書房이 와서 오늘 일을 못 오겟다고 해서 일꾼을 완전히 맞추어 놓고 더 얻을 것도 안 얻어놓니 오늘 와서 일을 못 온대서야 될 것인가? 우리 일마다 朴書房은 일날 와서 못한다는 것이다. 일꾼이 그리 되니 오늘 계획대로는 다 들렸다. …
◎ 6월 19일 (음 5월 18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앞 웅뎅이를 푸고 敎雨 家 일을 같다. 일돌량이 두 패인데 한데 합해서 일을 했다. …
◎ 6월 20일 (음 5월 19일) 수요일 雲
… 前飯 後에 아버지 家 일을 같더니 (…) 龍德이 와서(前年의 아버지 家 쓰던 일꾼) 우리 일을 좀 해주어 노자로 20환을 주었다.
◎ 6월 21일 (음 5월 20일) 목요일 雲
둘재조 가 일. 비가 올듯하고 觀象台에서도 비가 올 것이라 하여 앞 웅뎅이를 풀랴다 말고 일을 같다. …
◎ 6월 24일 (음 5월 23일) 일요일 雲
富平 아주머니 家 일. …
◎ 6월 26일 (음 5월 25일) 화요일 雲
安雨 家 일. 돌량으로 하던 일날도 흐지부지 되였다. 일할 논이 별로 없어서이다. 그리하여 오늘은 安雨 家 일을 같는데, 아논을 일하는데 물이 많다. 아논에 물 잇는 논은 安雨 家 논뿐이다. …
◎ 6월 27일 (음 5월 26일) 수요일 晴
오늘이 우리 일 6名. …
◎ 6월 29일 (음 5월 28일) 금요일 晴
아버지 家 일. 高棧 前 9마지기 일을 같는데 말라서 아주 일하기 곤란했다. 除草하는데 풀만 뽑았다. …
◎ 6월 30일 (음 5월 29일) 토요일 晴
興植 家 일. (…) 興植 일도 깨기를 햇다.
◎ 7월 14일 (음 6월 13일) 토요일 晴
… 妻는 성찮은 몸으로 女人 한 사람을 얻어 콩밭을 맸다.
◎ 7월 21일 (음 6월 20일) 토요일 雲晴
安雨氏 일.

◎ 9월 22일 (음 8월 24일) 토요일 雲

큰아번님이 원뚝을 뜻어달라 해서 오늘 일을 같다. 오늘 일꾼 12名이 종일 나무 뜯었다. …

◎ 9월 29일 (음 9월 1일) 토요일 晴

아번님 家 일. 첫날 10名. 벼비기 첫날이다. 우리 두래 10名 中 1名이 못 오고 9명이 高棧 앞 9홉 마지기를 비였다. 다른 벼는 빌 때가 되였는데 9마지긴 아직 푸른 기가 있다. …

◎ 9월 30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水村 아지씨가 아번님 家 일해감. 10名. (…) 오늘 일날은 水村 아저씨가 아버지 家 일을 해가는 날이다. 농꼴 9마지기와 반원에 와서 2마지기를 비였다. (…) 일이 끝나고 큰아번님이 일전에 일한 것 나무 가저 가라고 해서 가저같다.

◎ 10월 1일 (음 9월 3일) 월요일 雲

安雨 家 일. 15名. …

◎ 10월 2일 (음 9월 4일) 화요일 晴

德雨 家 일. 10名. 德雨 家 일날인데 밭원을 비고 뽑는데 매우 힘 드렀다. 午後엔 敎雨 家 서 마지기와 농꼴 엿 마지기를 비다 냉기였다. …

◎ 10월 3일 (음 9월 5일) 수요일 雲

우리 일 10名. 食前에 오늘 일 준비를 하고 朝飯 後엔 일토인 농꼴로 매끼 사리를 지고 같다. 일군은 모두 왔다. 두 참을 일직 비고 뽑았다. 줄가리를 첬다. 午後엔 밭원 3.5지기를 비기 始作했으나 도저히 다 비여 뽑을 것 같이 안아 5, 60束 가량 냉기고 뽑는데 매우 저무렀다. …

◎ 10월 4일 (음 9월 6일) 목요일 晴

敎雨 家 일. 10名. 食前에 일직 일어나 前日 밤에 같다부린 벼뭇을 손보고 敎雨 일을 같다. 前日 우리 일보다 많이 했다. 일도 아주 늦게 끝났다. 일 욕심이 많은 敎雨는 일손 일직 떼는 법은 없다.

◎ 10월 5일 (음 9월 7일) 금요일 晴

悠雨가 壹雨 家 일해 가는 날인데 해줄 것도 잇고 우리 일이 몰리는 것을 알고 그만 두라고 해서 아논 일곱지기를 비고 우리 일날 비다 냉긴 서 말 가웃지기를 비였다. …

◎ 10월 6일 (음 9월 8일) 토요일 晴

敎雨 일. 11名. (…) 朝飯을 하고 敎雨 일을 같다. …

◎ 10월 7일 (음 9월 9일) 일요일 晴

둘재祖父 家 일. 13名. …

◎ 10월 8일 (음 9월 10일) 월요일 雲

다섯재祖 일. 9名. 오늘로서 할돌량 끝나는 날이다. …

◎ 10월 12일 (음 9월 14일) 금요일 晴

아번님 家 일. 아번님 집도 오늘 다 비였다. 일날이 끝났다. 洞里 벼도 마냥가리를 제위하고는 거이 다 벼간다. 보리가리도 來日부터는 始作할 모양이다. …

◎ 10월 17일 (음 9월 19일) 수요일

보리 갈다. (…) 새벽녘에 아번님 家 보리를 갈라 같다. 아번님 家 보리 갈고 나니 10時 半 頃에 우리 밭을 갈라왔다. 일꾼도 와 협조해 주었다. …

◎ 10월 19일 (음 9월 21일) 금요일 晴

아번님 家 脫穀. 食前 일직 일어나 아번님 家 타작일을 같다. (…) 첫날 일인지라 매우 힘들다. 6名이 高棧 앞 9마지기를 종일 떨었다. …

◎ 10월 24일 (음 9월 26일) 수요일 晴

우리 脫穀. 21叭. (…) 우리 일꾼 총 6名. 安雨 愼書房 柳書房 申書房 敎雨 나.

◎ 10월 25일 (음 9월 27일) 목요일 雲

安雨 家 脫穀. 事故. 일직 일어나믄 즉시 安雨 家 일을 같다. 午前 中 일을 잘 하고 午後에 드리는데 풍송기 날게가 떨어져 나의 얼굴에 맞아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였다. …

◎ 10월 29일 (음 10월 2일) 월요일 晴

벼 훌다. 내가 일을 못하는 고로 오늘 處女들 3名을 사서 벼를 훌텄다. 6叭를 훌텄다. …

◎ 10월 31일 (음 10월 4일) 수요일 晴

아버지 家 벼 훌트러 간다. (…) 오늘은 食前 찬바람을 안 쏘이려고 朝飯食事를 하고야 아버지 家 일을 같다. 오늘 처음으로 일을 같다. …

◎ 11월 2일 (음 10월 6일) 금요일 雲

둘재祖 家 脫穀일. 食前 일직 일어나 둘재祖

일을 갈다. 安雨 家 일날 마친 後 오늘 비로소 일을 갈다. …

◎ 11월 6일 (음 10월 10일) 화요일 晴雲

오늘 富平 아주머니 家 脫穀 次 일을 같섰다. 푸마시 일로 오늘 끝날인데 安雨 家만 다치는 관계로 못 해주고 致雨 家도 나맜다. …

◎ 11월 21일 (음 10월 25일) 수요일 雲

… 妻는 오늘 安仲場에 갈랴고 하다가 내가 安雨 家 일을 가게 되여 못 같다. 朝飯食事 後에 收得稅를 里長에 같다주고 올랴고 하니 安雨가 搗精米을 실어오자고 해서 종일 安雨家 쌀을 실어왔다.

◎ 11월 28일 (음 11월 2일) 수요일 雲

… 아번님 家에 같다 놓고 아번님 家 벼 가마를 포장하는데 協助했다. …

◎ 11월 29일 (음 11월 3일) 목요일 晴

지붕 해이우다. (…) 오늘 水村 아저씨 한 분을 얻어 지붕을 해이였다. …

◎ 11월 30일 (음 11월 4일) 금요일 晴

致雨 家 지붕일 가다. …

◎ 12월 4일 (음 11월 8일) 화요일 雲

… 除雪作業을 하고서 또 마실 가서 놀다가 德雨氏 家 집을 해이우다가 눈에 쪼기여 드러같다. 급히 서둘르는 것을 볼 수 없어 한참 協助했다. …

◎ 12월 8일 (음 11월 12일) 토요일 晴雲

… 아번님 家 材木 내는데 協助하고 …

1963년

◎ 3월 2일 (음 2월 7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를 하고 아번님 家에 오늘 木手가 와 일을 하여 봉죽을 午前 中 하고 …

◎ 3월 3일 (음 2월 8일) 일요일 晴

午前 中은 아번님 家 재목 마르는 데 봉죽을 들고 …

◎ 3월 6일 (음 2월 11일)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 家에 올라가니 아번님과 庶母 等 모두 場에 가 木手 봉죽을 들 사람이 없어 종일토록 봉죽을 들었다.

◎ 3월 7일 (음 2월 12일) 목요일 晴

오늘도 아번님 家에 가 協助하고 용두래도 만들었다. …

◎ 3월 15일 (음 2월 20일) 금요일 晴

… 食前에 누가 찾아 나가보니 농꼴 魯氏가 와서 穀草 일품 삭으로 달라 해서 6人分 163束을 주었다. …

◎ 3월 24일 (음 2월 29일) 일요일 晴

아번님 家 집토 돗꾸었다[돋우었다]. 오늘 아번님 家 집토를[집터를] 닥는데 朝飯食事를 하고 올라가 아번님과 일꾼 1名과 함께 집토를 닦았다. …

◎ 3월 25일 (음 3월 1일) 월요일 晴

… 나는 오늘도 아번님 家 집토 닦는 데 가 일했다. …

◎ 4월 3일 (음 3월 10일) 수요일 雲

食前에 농꼴 가서 일꾼 1명을 사고 戊晟君과 함께 가래질을 했다. 내가 農事 짓기 始作해서 처음으로 일꾼을 얻어 가래질을 했다. …

◎ 4월 9일 (음 3월 16일) 화요일 雲晴

… 아번님 家에 오늘부터 木手 일이 始作해서 顯雨氏와 瑞雨氏 두 분이 일을 해서 木手 조력과 끌구멍을 팠다. …

◎ 4월 10일 (음 3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아번님 家 助役을 했다. 끌구멍도 오늘 거이 다 팠다. …

◎ 4월 12일 (음 3월 19일) 금요일 雲 細雨

… 午後엔 일찍 모짜리 쓰리고 행랑 아번님 家 집 꾸미는 데 協助했다. 오늘 午後부터 始作해서 다 꾸미였다. …

◎ 4월 14일 (음 3월 21일) 雲

… 농꼴 崔書房을 얻어 같고 모짜리를 했다. …

◎ 4월 18일 (음 3월 25일) 목요일 雨

… 농꼴 양氏와 孫氏가 와 穀草를 좀 달라고 해서 일 하루치씩 주었다. …

◎ 4월 19일 (음 3월 26일) 금요일 晴

… 나는 오늘 논뚜랑을 손질을 하고 아번님 家

서까래 거는데 協助하고 …

◎ 4월 20일 (음 3월 27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 家 새를 올리라 갔다. 洞里 사람 15, 6名이 새를 올리고 화방 밑 等은 못 했다.

◎ 4월 21일 (음 3월 28일) 일요일 雲

… 아번님 家 에 혼자 모짜리를 해 같이 하고 나니 2時 頃은 데였다. 午後엔 아번님 家 봉죽을 들었다. …

◎ 5월 14일 (음 4월 21일) 화요일 細雨

… 둘째祖父任이 오시어 일을 좀 가라고 해서 일어나 뒤깨 役事을 하는 데 같다. 愼書房이 앓아 누었다고 대신 간 것이다. …

◎ 5월 15일 (음 4월 22일) 수요일 晴

… 食前 모짜리에 가보니 많이 올라온 것 같다. 朝飯食事 後에 前日 役事에 품민 것을 가서 일직 끝나고 왔다. …

◎ 5월 22일 (음 4월 29일) 수요일 雲

… 朝飯食事 後엔 安雨 家 移秧일을 같다. 安雨 家는 保溫苗를 많이 심었다. …

◎ 6월 2일 (음 윤 4월 11일) 일요일 晴

오늘이 우리 移秧日 10. 食前에 농꼴 難氏 몇 名과 모를 찌고 朝飯 後부터 일꾼 10명이 농꼴 안 밭 원안 10마지기를 심는데 鍾선君이 와 협조해주었다. 그리고 앞아논 일곱 데지기를 심었다. (…) 아버지 家 일꾼은 오늘서야 일을 못 온다고 한다. …

◎ 6월 5일 (음 윤 4월 14일) 수요일

우리 일. 농꼴 難民들은 食前부터 모를 쩌 5名이 둘 말 가웃지 아논 말 가웃지기 앞 말 가웃지기 等을 移秧을 해 밭원 1마지기를 냉기고 다 심었다. …

◎ 6월 7일 (음 윤 4월 16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둘째 祖父 家 모를 심어드리라 같다. 오늘 처음 남의 집 모를 심으러 간 것이다. …

◎ 6월 8일 (음 윤 4월 17일) 토요일 晴

일꾼을 사서 일을 보내고 나는 쉬면서 농꼴 논모를 기웁고 앞논도 기웠다. …

◎ 6월 9일 (음 윤 4월 18일) 일요일 雲

다섯째祖 家 일. 朴書[방]이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졸라대여 오늘은 다섯째祖 家 일을 갔다. 今年 들어 일 2日 나갔다. …

◎ 6월 10일 (음 윤 4월 19일) 월요일 晴

… 전일로서 移秧은 우리 패는 끝났다. (…) 今年엔 물이 풍부해서 어디고 早秧이다. 오늘까지 일꾼을 사서 일을 보내고 나는 꼬추밭 거름을 치다 속이 상해 마랐다. (…) 今年 移秧하는 데 품 14名을 샀다. …

◎ 6월 18일 (음 윤 4월 27일) 화요일 雲

安雨 家 일. (…) 安雨 家 모논매기 일을 해달라고 해서 日氣가 좋지 않아 갈까 말까 했다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같다. 농꼴 難氏들을 얻어 일하는 데 같이 했다.

◎ 6월 20일 (음 윤 4월 29일) 목요일 雨晴

… 일직 와 떨든 보리를 급히 떨고 둘째祖父 家 그루를 갈라 같다.

◎ 6월 21일 (음 5월 1일) 금요일 晴

오늘부터 논매기 始作日이다. 食前에 논에 같다가 농꼴 炳賢 家에서 하던 洞里公同田을 아번님 家에서 오늘 콩을 갈고 있어 그루를 갈아주고 와 朝飯 後에 朴書 家 일을 같다. 우리 둘래[두레]가 7名이다.…

◎ 6월 22일 (음 5월 2일) 토요일 雨

아버지가 일. 食前에 그루를 갈랴고 했으나 前夜에 나린 비로 밭이 질어 못 갈고 朝飯食事 後에 일을 같다. 觀象台 發表에 依하면 中部地方에 오늘 호우 主意報를 내리였으나 일들을 같다. 高棧 앞 9마지기을 始作해서 거이 다 끝날 무렵부터 始作한 비는 …

◎ 6월 23일 (음 5월 3일) 일요일 雲

… 洞里일꾼들은 上植 家 일을 같다.

◎ 6월 24일 (음 5월 4일) 월요일 雲

아버지 家 품민 일 가다. …

◎ 6월 25일 (음 5월 5일) 화요일 雲

우리 일. (…) 朝飯食事 後에도 비가 나리여 일

을 못해나 했더니 늦게 끝나 일을 와 始作했다. 9名이 일찍 끝나 밀도 좀 비였다. …

◎ 6월 2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晴

오늘은 敦雨家 일을 같다. 14名. …

◎ 6월 27일 (음 5월 7일) 목요일 雲

둘째祖 家 일. 食前에 늦게 일어나 들에도 못 가고 朝飯食事 後 둘째祖 家 일을 같다. …

◎ 6월 30일 (음 5월 10일) 일요일 雲

致雨 家 除草. 安雨家 일날인데 물이 채여 못하고 致雨 家에서 일을 했다. …

◎ 7월 1일 (음 5월 11일) 월요일 雲

…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도라와 朝飯食事 後에 安雨 家 일을 같다. …

◎ 7월 5일 (음 5월 15일) 금요일 雲

아번님 家 일. 食前에 고구마를 좀 심고 食事後에는 일을 같다. …

◎ 7월 6일 (음 5월 16일) 토요일 晴雲

… 食前에 앞밭 고구마를 심고 다섯째祖 家 일을 같다. 合두래를 처 11名이 도랑원 15마지기를 除草를 했다. …

◎ 7월 7일 (음 5월 17일) 일요일 雨

오늘이 우리 일날인지라 食前에 물꼬의 물을 저처놓고 朝飯食事 後에 肥料 6升가량 농골 안노에 끼언고 除草를 7名이 한참에 끝났다. 9時頃부터 또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10時 頃 저뚜리 食事後에 품을 미었다. …

◎ 7월 8일 (음 5월 18일) 월요일 晴

우리 일 7名. 食前에 논뚜랑을 거실르고 朝飯食事 後에 앞에서부터 일을 始作해서 농골 밭까지 다 했다. …

◎ 7월 9일 (음 5월 19일) 화요일 雲

… 오늘은 敎雨氏 家 일을 같다. 人名이 30餘마지기를 除草를 했다. …

◎ 7월 10일 (음 5월 20일) 수요일 雲雨

둘째祖 家 일 그루 갈다. 오늘 食前엔 논과 같은 밭을 갈고 그루를 갈랴고 했다. …

◎ 7월 1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致雨 家 일. 食前에 논뚜랑을 거실르고 밭원 3.5 가웃지기의 이슬(草露)을 떨고 朝飯食事 後에 致雨 家 일을 같다. …

◎ 8월 3일 (음 6월 14일) 토요일 晴

… 둘째祖 家 일꾼과 푸마시 해서 둘째祖 家 高棧 앞 논부터 끼언다.

◎ 8월 4일 (음 6월 15일) 일요일 晴

어제 끼언다 나문 農藥을 끼언질라고 둘째 祖家에 가 저붕굴 논을 愼書房과 같이 끼언고 우리 농골논을 끼언다가 噴霧器가 고장이 나고 …

◎ 8월 23일 (음 7월 5일) 금요일 雲

… 午後에 농골 趙京彙가 穀草 63束을 일삭으로 가저같다. 가을 벼비기로 가저같다.

◎ 9월 4일 (음 7월 17일) 수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큰아번님 家 토전을 하랴 같다. 일용 같다 와 …

◎ 9월 18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 朝飯食事後에 큰아번님 家 나무 갈을 같섰다. 7名이 뜯었다. …

◎ 9월 24일 (음 8월 7일) 화요일 雲雨

… 오늘 농골 밭원 닷마지기을 빌랴고 농골 難民을 2名 얻어 始作해서 午後 3時 頃에 다 비였는데 비가 오기 始作해서 일을 못했다. …

◎ 9월 25일 (음 8월 8일) 수요일

… 朝飯食事 後에 농골서 어제 품민 일을 왔다. 앞 닷데지기을 비고 말 가웃지기(上)에서 30束을 비여 훌텄다. (…) 午後에 일꾼을 보내고 …

◎ 9월 29일 (음 8월 12일) 일요일 雲

농골 안 논 벼 비다. 623束. 일꾼 5名이 농골 아논을 비여 뽀았다. …

◎ 9월 30일 (음 8월 13일) 월요일 雲

… 妻 보고 陽甘 가서 작도 마친 것을 다 안 해놓았으면 달리 손작도로 해달라고 付託하라고 이르고 다섯재祖 家 일을 같다. …

◎ 10월 3일 (음 8월 16일) 목요일 晴

우리 일. 오늘로서 벼를 다 비울려고 일꾼 9名을 얻었으나 일꾼 2名이 못 와 밭원과 앞에 와 조금했다. …

◎ 10월 4일 (음 8월 17일) 금요일 晴
… 敎雨 家인데 8名이 농꼴 9마지기를 비였다.
◎ 10월 5일 (음 8월 18일) 토요일 晴
둘째祖 家 일 9名.
◎ 10월 7일 (음 8월 20일) 월요일 晴
德雨 家일 7名. (…) 德雨일 날인데 벼 비여 뽑는 데 혼났다. 일도 제일 더디 끝났다.
◎ 10월 8일 (음 8월 21일) 화요일 晴
다섯째祖 家 일을 같다가 趙京彙가 일꾼을 데리고 와 대신 보내고 집에 와 말 가웃지기(下)을 비였다. …
◎ 10월 9일 (음 8월 22일) 수요일 晴
仁成 家 일. …
◎ 10월 12일 (음 8월 25일) 토요일 晴
보리 갈다. 食前에 아번님 가 일꾼이 와 내가 팔이 아푼고로 농꼴 밭을 갈아주었다. 나는 재를 피고 妻는 꾸미였다. …
◎ 10월 24일 (음 9월 8일) 목요일 晴
둘째祖 家 脫穀일 감. 食前 일직 둘째祖 家 일을 같다. 두 交代로 脫穀을 하자니 매우 힘이 든다. …
◎ 10월 25일 (음 9월 9일) 금요일 晴雲
우리 호락질로 脫穀. 오늘 집에 잇게 되어 女人 1人을 얻어 脫穀을 했다. 혼자 발다[밟다] 십히 하니 매우 힘이 든다. …
◎ 10월 28일 (음 9월 12일) 월요일 晴
우리 집 脫穀 5名. 食前 일직 일어나 準備를 하고 나니 4時 半 가량. 6時부터 始作해서 5名이 아논 두 말 두 데지기 밭원 3.5지기와 앞에서 30束을 脫穀해보니 21叭, 斤數로 2950근 가량이다. …
◎ 10월 29일 (음 9월 13일) 화요일 雲
다섯째祖 脫穀. 다섯째祖 家 일을 같다. …
◎ 11월 2일 (음 9월 17일) 토요일 晴
仁性 家 일 감. 食前 일직 仁性 家 脫穀을 하려 같다. 가슴에 담이 들어 매우 아품에도 하로해를 보냈다. …
◎ 11월 3일 (음 9월 18일) 일요일 晴
敦雨 家 일. 뒤밭이 많은 집이라 5時 20分 頃에 일을 같다. 일꾼들이 다 모였다. 다른 집 일은 6時에 始作인데 5時 20分에 始作했다. 오늘도 담은 마찬가지다. …
◎ 12월 14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 食前에 농꼴 崔書房이 와서 穀草을 일 품삭으로 달라고 해서 일 하로치만 주어 돌려보냈다.
◎ 12월 19일 (음 11월 4일) 목요일 晴
…저녁 세죽[쇠죽]을 쑤고 있으니 월順이 學校 같다 오며 一金 320원을 같고 와 웬 돈이냐고 하니 농꼴 安昌勳君이 주더라고 穀草代 500원을 것에 나머지는 일로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1964년

◎ 3월 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농꼴 塩田에 품파리[품팔이]. (…) 朝飯食事을 하고 아번님 家 소을 같고 일을 같다. 일은 별로 힘이 들지 않는 일이다. 點心도 집에 와서 먹고 가니 일은 할 만하다. …
◎ 3월 9일 (음 1월 26일) 월요일 晴
오늘도 농꼴로 일을 같다. 오늘은 종일 塩田 結晶地을 쓰리였다. …
◎ 3월 13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안골祖 家 移舍짐을 날라주고 12時 頃에 三溪 新作路 出役을 나같다. …
◎ 3월 15일 (음 2월 2일) 일요일 雪
… 몇일 前에 농꼴 事業所에 가 일한 품갑을 밭어 德雨에게서 借用한 돈을 갑다. …
◎ 4월 8일 (음 2월 26일) 수요일
날씨가 차거운 날인데도 不구하고 始作해서 일꾼을 얻어 같고 가래질을 했다. …
◎ 4월 13일 (음 3월 2일) 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 家 일을 같다. 3명이 종일 모짜리를 했다. …
◎ 4월 14일 (음 3월 3일) 화요일 晴
… 모짜리는 아번님 家 일꾼과 종일 하고 논뚜

랑을 좀 손질했다. …

◎ 5월 17일 (음 4월 6일) 일요일 雲雨

어제 洞里사람이 興植兄 家 [일] 하는데 다 같으나 소를 부리게 되여 못가서 오늘 가기로 朝飯後에 가서 助役을 해 주었다. 오늘은 5名이 허는데 午後 5時 頃부터 기다리지 않는 비가 나리 始作해서 일직 손을 떴다. …

◎ 5월 20일 (음 4월 9일) 수요일 晴

큰아번님 家 移秧일에 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루에 일을 같다. …

◎ 5월 25일 (음 4월 14일) 월요일 晴

품꾼 3名인데 1名은 일 보내고 2名과 나는 집에서 나는 한참 소를 같고 아논을 쓰리고 심었다. 일직 심고 피사리를 했다. 2名은 우리 집에서 잔다.

◎ 5월 26일 (음 4월 15일) 화요일 晴

품꾼 1名과 농꼴서 3名을 사같고 1名은 소를 부리고 5名이 농꼴 골장 6마지기을 심었다. (…) 품꾼 1名은 洞里 품아시를 다니고 있다.

◎ 5월 27일 (음 4월 16일) 수요일 晴

午前에 소를 한참 부리고 康植 1名을 얻어 밭원 한 마지기을 심고 모짜리 배미를 조금 심다 냉기였다.

◎ 5월 28일 (음 4월 17일) 목요일 晴

… 품꾼은 일을 같다 일직 도라왔다.

◎ 5월 30일 (음 4월 19일) 토요일 晴

오늘 일꾼 數는 14名이다. 14名이 농꼴 안팎 10마지기을 심고 앞에 와 가운데 말가웃지기 냉기고 심었다. 13마지기는 심겄을 것이다. 모가 모자랄 줄 알고 묘판을 앞에 더 부었더니 남게 되여 種子 말 가웃친 것을 농꼴 난민에게 주어 일로 3名을 해준다고 한다. 그리해 2名이 왔다.

◎ 6월 1일 (음 4월 21일) 월요일 雲

오늘 필앙을 할랴고 품꾼 1名과 1名을 더 사같고 나와 3名이 어제 심다 냉긴 것과 묘짜리 배미을 다 심었다. …

◎ 6월 2일 (음 4월 22일) 화요일 雨

품꾼만 일을 보내고 나는 밭달뱅이를 갈아 쓰리었다. …

◎ 6월 8일 (음 4월 28일) 월요일 雲

앞밭 보리를 해치울랴고 낫을 갈아 같고 밭에 나가니 큰아번님이 오늘 일꾼이 빠개저 일이 지장이 있으니 좀 오라고 하시여 잠자코 잇으니 큰어머니가 사정을 하고 해서 어제 비다 냉긴 것을 두고 큰집 일을 같다. …

◎ 6월 9일 (음 4월 29일) 화요일 晴

食前에 아번님 家 그루를 갈고 朝飯食事 後에 우리 앞밭 그루를 갈았다. …

◎ 6월 10일 (음 5월 1일) 수요일 雲

안골 조 家 논매기 일. 오늘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을 같다. 일직 심은 것만 맸다. …

◎ 6월 12일 (음 5월 3일) 금요일 晴

오늘 일날이 쌍품이 나서 일날의 질서가 안 재피였다. 그리해서 하로식 물리기로 되어 오늘 다섯재祖 家 일을 하게 되여 오늘 나도 같다. …

◎ 6월 13일 (음 5월 4일) 토요일 晴

오늘이 논매기 첫날이다. 13名이나 된다. …

◎ 6월 14일 (음 5월 5일) 일요일 쏘나귀

오늘 아번님 家 일날로 16名이다. 다했다. …

◎ 6월 15일 (음 5월 6일) 월요일 雲

사람 1名을 얻어 농꼴 골장 6마지기 소매거지를 했다. 풀이 아주 말 아니다. (…) 제대로 하자면 4名은 가저야겠다. …

◎ 6월 16일 (음 5월 7일) 화요일 晴

敎雨 家 일을 같다. 15名이 35마지기를 했다. …

◎ 6월 17일 (음 5월 8일) 수요일 晴

德雨 일날인데 둘재祖 家에 보내여 둘재祖 家 일을 같다. 5名식 갈러 했다.

◎ 6월 18일 (음 5월 9일) 목요일 晴

仁性 家에서 致雨 家 논을 맡어 지어 13名이 致雨 家와 仁性 家일을 다했다.

◎ 6월 19일 (음 5월 10일) 금요일 雲雨

우리 일 12名. 우리 일날이라 食前 일직이 농꼴로 施肥하라 같다.

◎ 6월 20일 (음 5월 11일) 토요일 雲晴

康植 家 일.

◎ 6월 21일 (음 5월 12일) 일요일 晴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食事 後에 둘재祖 家 일을 같다. …
◎ 6월 22일 (음 5월 13일) 월요일 晴
2日을 김매기를 中止하고 官用肥料도 가질라 갈 겸 興植이 집 짓는데 하로식 조역을 한다. (…) 朝飯食事 後에 三溪 興植 家 집 지는데 가 일을 보아주고 저녁에 肥料을 싯고 왔다. …
◎ 6월 24일 (음 5월 15일) 수요일 晴
다섯재祖 일. 오늘부터 김 두 벌 첫날이다. …
◎ 6월 25일 (음 5월 16일) 목요일 晴
안골 祖 家 일날인데 뒤원서 始作했다. 두벌을 안 매고 除草로 종일했다. …
◎ 6월 26일 (음 5월 17일) 금요일 晴
아번님 家 일을 같다.…
◎ 6월 27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일직 논을 一週하고 朝飯 後에 上植 家 일을 같다. …
◎ 6월 28일 (음 5월 19일) 일요일 晴
敎雨 家 일. 10名이 35마지기을 했다. …
◎ 6월 29일 (음 5월 20일) 월요일 晴
德雨 家일을 가 아침 참에 콩밭을 매고 德雨가 일이 남아 큰아번님 家 일을 해 같다. …
◎ 6월 30일 (음 5월 21일) 화요일 晴
仁性 家 일. 11名이 致雨 家 일 다했다. …
◎ 7월 1일 (음 5월 22일) 수요일 雨
우리 일 10名. 날씨가 흐리여 오늘 일을 제대로 하게 될까 했더니 일꾼이 다모여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始作해서 엿마지기을 除草하고 새밥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급기야 품을 미고 마랐다.
◎ 7월 3일 (음 5월 24일) 금요일 雨
우리 일을 했다. 1名이 못 오게 되여 9名이 농꼴서 밭원과 아논 닷마지기 해다 냉긴 것을 하고 와 새밥을 먹고 앞에서 1참 밭원에 가 두 참 일러 한참은 큰아번님 家 논을 해주었다. …
◎ 7월 4일 (음 5월 25일) 토요일 雲
食前에 前日 냉긴 동욕꿀 논 윗배미를 除草하고 朝飯食事 後에 일을 같다. …
◎ 7월 5일 (음 5월 26일) 일요일 雲雨
둘재祖 家 일. 食前에 감자밭을 갈고 食後에 일을 같다. 새밥을 먹고 나니 쏘나귀가 나리여 물소동을 이루었다.
◎ 7월 7일 (음 5월 28일) 화요일 雲
다섯재祖 家 일.
◎ 7월 8일 (음 5월 29일) 수요일 雲
오늘 다섯재祖 家에서 냉긴 農藥을 끼언질랴다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까락해서 안골祖 家 일을 같다. …
◎ 7월 9일 (음 6월 1일) 목요일 雲
아번님家 일.
◎ 7월 10일 (음 6월 2일) 금요일 雲
壹雨氏 家 일. 除草作業이 끝 두레라 일꾼들이 다 모이질 않는다. 10名이 必要치 않다고 7名이 했다. …
◎ 7월 16일 (음 6월 8일) 목요일 雲
仁性 家 일. 몇일만에 일을 하게 되였다. 장마로 因해 除草가 늦어 벼는 되고 해서 除草하기가 아주 나뿌다. 오늘 일이 致雨 家 논인데 모두 잘 되였다. …
◎ 7월 18일 (음 6월 10일) 토요일 雲 쏘나귀
우리 일 6名. 6,7日 前이 우리 일날인데 장마로 오늘서야 除草을 했다. 몇일 장마로 벼는 오르고 해서 除草을 제대로 못하고 피사리만 했다. …
◎ 8월 2일 (음 6월 25일) 일요일 晴
朴書房이 뒤개에다가 원뚝매기을 始作했다. 洞里 사람을 얻어 오늘 일을 했다. 10餘발 막었다. …
◎ 9월 10일 (음 8월 5일) 목요일 晴
사랑채 광 두간을 헐어 치울랴고 일꾼 2名을 얻어 始作해서 헐었다. …
◎ 9월 25일 (음 8월 20일) 금요일 晴
… 오늘 朝飯食事 後 平澤 가 일꾼을 求해 보았다. 驛前에 가보니 아주 많다. 3名을 求해 오다가 高棧 眞植兄에게 1名을 주고 1名은 아번님

家에 주고 1名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1달 작정하고 2,700원 작정하고서 데리고 왔다.

◎ 9월 26일 (음 8월 21일) 토요일 雲

오늘부터 가을 일이 始作해서 일꾼은 일을 보내고 나는 午前 中 대추을 땄다. …

◎ 9월 27일 (음 8월 22일) 일요일 雨雲

날씨 비가 오는 고로 일이 품 미게 되여 일꾼이 午前에 매기[매끼]을 틀고 오후에 날이 들어 일꾼을 데리고 농꼴 밭원에 벼를 비였다. 일꾼 일을 식거보니 일은 잘한다. …

◎ 9월 28일 (음 8월 23일) 월요일 晴

食前에 일꾼과 같이 앞밭 콩 것든[꺾든] 것을 것고[꺾고] 朝飯食事 後에 吉雨氏 家 일을 같다. 17名이 도랑원 10마지기을 비고 비야목 6마지기을 비였다.…

◎ 9월 29일 (음 8월 24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일꾼과 같이 농꼴 5마지기(밭원)을 비였다. …

◎ 9월 30일 (음 8월 25일) 수요일 晴

食前에 일꾼은 꼬추대을 뽑고 (…) 곳 도라와 일꾼과 같이 앞 닷 데지기 한 마지기 말 가웃지기(上)을 비였다. …

◎ 10월 1일 (음 8월 26일) 목요일 晴

13名을 얻어 농꼴 안논을 해치울랴고 했으나 11名뿐이라 늦도록 했으나 5마지기도 냉기고 뽑도 다 못하고 제지리에도 못 왔다. …

◎ 10월 2일 (음 8월 27일) 금요일

오늘 食前에 어제 뽑아내던 벼를 뽑을랴고 한 품꾼은 누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해서 敎雨氏 일꾼과 仁性 朴書房과 같이 뽑았다. 그래도 나맛다. 朝飯食事 後 들에서 하고 일꾼이 안 나와 내가 아버지家 일을 같다. …

◎ 10월 3일 (음 8월 28일) 토요일

일꾼이 누어 잇어 걱정했더니 오늘 일은 나와 같이 敎雨氏 家 일을 같다. …

◎ 10월 4일 (음 8월 29일) 일요일 雲

다섯재祖 일. 食前에 매기을 일꾼과 같이 틀고 오늘서야 방아을 실려 보냈다. 朝飯食事 後에 일꾼과 나는 各 1名식 갈라가 일을 해고 보니 방아을 찌여 왔다. …

◎ 10월 8일 (음 9월 3일) 목요일 晴

일꾼은 일을 가고 나는 일급 데지기을 일직 비고 농꼴 가서 벼를 손치고 왔다. …

◎ 10월 10일 (음 9월 5일) 토요일 晴

食前에 일어나니 서리가 나리였다. 일꾼 6名이 나문 벼을 다 비였다. …

◎ 10월 12일 (음 9월 7일) 월요일 雲

일꾼과 같이 앞 닷 데지기 한 마지기 말 가웃지기(上)을 저다가 떨었다. 과히 저물지 않고 끝났다. 妻가 좀 협조했다. …

◎ 10월 13일 (음 9월 8일) 화요일 雲

… 朝飯 後에 일꾼과 같이 보리을 갈았[다]. 일꾼은 재을 피고 妻가 꾸미는데 協助했다. …

◎ 10월 14일 (음 9월 9일) 수요일 晴

食前에 농꼴 밭에 밀을 부치다 냉기고 朝飯 後에 일꾼은 일을 가고 나는 밀을 부치였다. …

◎ 10월 17일 (음 9월 12일) 토요일 晴

… 일꾼은 일 가고 나는 농꼴 밭원 벼를 來日 실을라고 밭으로 뽑았다. …

◎ 10월 18일 (음 9월 13일) 일요일 晴

食前 농꼴 길을 손질하고 朝飯食事을 하고 나니 골이 아푸고 어지러웠으나 (…) 농꼴 벼를 끄디리고 妻가 쌓았다. 일꾼은 일을 같다. …

◎ 10월 19일 (음 9월 14일) 월요일 晴

食前부터 일꾼과 같이 어제 끄디린 농꼴 벼를 脫穀했다. …

◎ 10월 21일 (음 9월 16일) 수요일 雲

어제 나린 비로 많은 피해가 왔다. 오늘도 일일 못하게 되였다. 거이 말라가는 벼도 다시 말려야 겠으니 2, 3日來에 못 실게 된다. 일꾼은 영을 역으라고 했다. …

◎ 10월 23일 (음 9월 18일) 금요일 晴

담이 들어 注射을 놓고 종일 노랐다. 일꾼은 영을 엮었다. …

◎ 10월 24일 (음 9월 19일) 토요일 晴

…일꾼은 둘재祖 家 脫穀을 같다.

◎ 10월 26일 (음 9월 21일) 월요일 晴

품꾼이 오늘 나같다. 1個月 일하고 2,800원을 주었다. 1個月間에 3日 노랐으나 그만 두고 2,700원 작장하고[작정하고] 썼으나 100원을 더 주었다. 朝飯食事 後에 高棧 精米所에 같다가 와 영을 엮었다. 8마름. 일꾼이 나가고 보니 脫穀할 것이 걱정이다. 일꾼을 모아 보았다.

◎ 10월 30일 (음 9월 25일) 금요일 晴

일꾼 5名과 나와 6名이 농골 아논 5斗 6斗지기를 脫穀했다. 種子 1叭과 100餘束가량 냉기고 오늘 22叭을 脫穀했다. …

◎ 10월 31일 (음 9월 26일) 토요일 晴雲

오늘 일꾼 5名이 脫穀을 했다. 들에 約 90束가량 냉기고 집에 들어온 벼는 다 훌텄다. 농꼴서 어제도 京彙와 光玉氏가 協助를 한 참식이나 해 주고 오늘도 李氏가 와 한나절이나 協助해 주어 일이 아주 많은 힘을 덜어 주었다. …

◎ 11월 15일 (음 10월 12일) 일요일 晴

食前에 壹雨氏 家에서 지붕을 해이여 달라고 해서 오늘 6, 5代 祖母 時祭日이라 주저하다가 일을 같섰다.

◎ 11월 19일 (음 10월 16일) 목요일 晴

일꾼 4名을 얻어 지붕을 해 이였다. 안밬채, 사랑채, 변소 等 해 이였다. …

1965년

◎ 3월 2일 (음 1월 29일) 화요일 晴

오늘 朝飯食事 일직하고 三溪 앞바다 대청매기하는데 일을 가 일공을 했다 골장에 말박기을 했다. 별로 힘 드는 일은 아니다. 품갑이 얼마나 나을 것인지! …

◎ 3월 3일 (음 2월 1일) 수요일

오늘은 더 일찍 일을 같다. 오늘도 골장 말박기을 했다. 어제 傳票가 나왔다. 166원 나왔다. …

◎ 3월 4일 (음 2월 2일) 목요일 晴

오늘도 장모래 대청매기 일을 가 말 박는 일을 하고 왔다. 날씨가 차거워 일하기 좋이 안았으며 點心 먹고 나니 떨린다. 남의 돈 먹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아는 사람마다 날보고 무엇이 그리 워[아쉬워] 이런 일을 다니느냐는 것이다. 하로 종일해야 150원 程度다. …

◎ 3월 7일 (음 2월 5일) 일요일

… 아버님 家 소도지 7斗을 같다 드리였다.

◎ 3월 8일 (음 2월 6일) 월요일

10時 頃에야 三溪 앞 대청매기에 일을 같다. 얼음으로 土叭 쌓는 일을 했다. 일공은 과히 힘드는 편은 아니다.

◎ 3월 9일 (음 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일을 같다. 물이 잇어 일공 일을 못하고 柱雨氏 家에 가 놀다가 點心 먹고 가 만보발기 흙을 젔다. 下午에 가 160원을 벌었다. 매우 힘들다. 기진맥진이다. …

◎ 3월 16일 (음 2월 14일) 화요일 晴

… 午前에 농꼴 양씨집에 오양을 발바달라고 검불 1짐 저다주고 下午엔 오양을 가서 치고 왔다.

◎ 3월 17日 (음 2월 15일) 수요일 晴

敎雨氏 舍廊채 오늘이 上樑日이다. 朝飯食事 後에 종일 敎雨氏 집짓는데 봉죽을 들었다. …

◎ 3월 21일 (음 2월 19일) 일요일

敎雨氏 家 새올리는데 食前부터 종일 다 올리였다.

◎ 3월 27일 (음 2월 25일) 토요일 晴風

食前이면 농꼴 논에 뒤엄을 저내는 것인데 오늘 三溪 앞바다에 대청매기일 품갑을 준다고 해서 몇이 옥길리에 같었다. 4割 간조라고 해서 一金 300원을 타 같고 왔다. …

◎ 4월 11일 (음 3월 10일) 일요일 晴

오늘 가래질을 할라고 일꾼을 얻었다. 농꼴 김씨(金鎭元)와 張氏을 얻었다. …

◎ 4월 17일 (음 3월 16일) 토요일 晴

우리 모짜리 했다. 愼書房을 얻어 같고 苗板을 만들었다. 재을 넣고 아논 일급 데지기와 농꼴 밭원에 했다. 잘 델는지? …

◎ 4월 19일 (음 3월 18일) 월요일 雲

食前에 논을 一週타가 아번님家 벼씨 치는데 같이 치고 …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 大청매기 품삭이 나와 510원을 찾아왔다. …

◎ 4월 24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敎雨 家 부役을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 지붕 해이우는데 他人이라고는 나 한 사람이다. 종일 지붕을 해이우었다.

◎ 5월 27일 (음 4월 27일) 목요일 晴

移秧. 오늘 농꼴서 人負 4명을 얻어 3斗 5升지기와 논둑밑 밭원뚝밑 1斗落 등을 移秧하고 모짜리 오늘 찐 묘판을 移秧했다. 아논 물은 몇일 못 갈 것 같다.

◎ 5월 28일 (음 4월 28일) 금요일 晴

오늘은 사람 1名을 얻어 농꼴 아논 6斗落을 갈고 나는 빠지는 곳을 팠다. 삭 가는 것이 것만 되는 관계로 일찍 다 갈았다. 생가리가 반은 넘는 것 같다. 도저히 잘 갈 수가 없다.

◎ 5월 30일 (음 4월 30일) 일요일 晴

농꼴 5斗落을 移秧했다. 사람 3名을 사서 농꼴 밭원 5斗落을 했다. 일직 苗板을 냉기고 다 심었다. …

◎ 6월 1일 (음 5월 2일) 화요일 晴

… 나는 來日 高棧서 10名을 얻어 심을 것이다. 오늘 농골 아논 5斗落의 쓰리였다. 肥料가 적어 流安, 復合, 鹽加里 等 合하여 1包袋 2斗가량 아논 5斗落 6斗落에 끼언저 아주 적은 편이다. 농꼴 李基讚君이 곡초 1人分(일)과 돈으로 1人分을 같고 가며 논을 매준다고 한다.

◎ 6월 2일 (음 5월 3일) 수요일 晴

移秧했다. 12名. 오늘이 우리 일날이다. 高棧서 10名과 일꾼이 1명 내가 협조해서 농꼴 11斗落과 밭원 苗板을 移秧하고 일러 아번님家 苗板을 심어드리였다. 高棧 사람들은 물이 많다고 야단들이다. 오늘로서 물 있는 논은 다 심었다. 苗板이 많이 씨가 가래여 苗가 모자라 然雨家에서 2斗落 가량 남은 모을 주어 대행으로 심었다. 苗나물만한 집을 알아보니 나물 것 같아도 안 준다. 마냥모 5斗落 남고 다 심었다. …

◎ 6월 10일 (음 5월 11일) 금요일 晴

앞 밭원 물이 오늘이면 아주 말라붙게 되여 급하게 사람 3名을 사서 아논 1斗 5升지기을 깨기를 하고 아논뚝 박 3斗 5升지기와 밭원뚝밑 1斗지기을 매였다. …

◎ 6월 16일 (음 5월 17일) 수요일 雲

일꾼 4名을 얻어 농꼴 논을 매기 시작하니 쏘나귀가 지나가 일을 품미였다. 푸근히 나리기을 고대했으나 나주 不足한 비 감질만 날 정도다. 下午엔 볕이 났섰다.

◎ 6월 17일 (음 5월 18일) 목요일

어제 품민 일을 했다. 5名이 농꼴 아논 11斗落과 밭 모짜리한 것을 매고 한참은 앞밭 보리 비고 떨어 놓았다. 비가 제대로 오면 푸마시을 좀 하겠는데 일꾼을 전부 사와야만 된다. 푸근한 비가 나리기을 기원함.

◎ 6월 19일 (음 5월 20일) 토요일

… 일꾼 1名을 얻어 동욕꿀 보리을 떨고 아논 일급 데지기 깨끼을 했다. …

◎ 6월 25일 (음 5월 26일) 금요일 晴

농꼴 아논 5斗落을 맸다. 물이 오늘이면 말라붙을 것 같아 일꾼 2名을 얻어 아논 5斗落을 맸다. 물이 없는 곳이 많다. 아주 논매기가 더디다. 매는 것이 올은지 生覺다 못해 풀이 많아 맸다. 일직 끝나고 밀을 떨었다. 小麥 約 1斗 가량이다.

◎ 7월 5일 (음 6월 6일) 월요일 雲晴

食前부터 아번님 家의 그루을 갈고 10時 頃부터 우리 그루을 갈아 늦도록 다 갈았다. …

◎ 7월 7일 (음 6월 8일) 수요일

일군 4名이 농꼴 6두락의 논을 맸다. 말른 논으로선 아주 감이 좋은 편이다. …

◎ 7월 12일 (음 6월 13일) 월요일 雨雲

移秧. 畢秧. 오늘은 사람 1名을 얻어 移秧을 始作했다. 앞 1斗 5升落을 심고 苗板을 심었다. 鍾

植과 莊植弟가 와 午前 中 協助했다. 마냥이나 다 심으니 아주 개운하다.

◎ 7월 14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雨

… 午前엔 집에 잇다가 下午엔 德雨 家 묘 심는 데가 協助했다.

◎ 7월 15일 (음 6월 17일) 목요일 雲

오늘은 둘재祖父가 일을 같다. 둘재祖 家엔 아직도 개논까지 심끼란 멀었으나 安仲 孤兒院에서 5,6名이 심어 몇일 안 갈듯하다. 來日이면 거이 이앙도 끝나 갈듯하다.

◎ 7월 17일 (음 6월 19일) 토요일 雲

네재祖 家 일을 같섰다. …

◎ 7월 19일 (음 6월 21일) 월요일 雲

우리 除草 作業 7名. 食前엔 농꼴 가 일꾼 6名을 얻어 갑작히 일을 하게 되었다. 아논 밭원 3斗 5升 等을 除草하는데 아논은 매고 밭원은 除草하는데 풀이 아주 많다. 마른 논이라 풀이 뜻긴다. 종일하고 저녁 한참 농꼴 밭원을 除草을 했다. 농꼴은 풀이 적었다. 농꼴 아논 11斗落이 넘어 되는 것 같다. 다른 논도 과히 빠지지 안는다.

◎ 7월 22일 (음 6월 24일) 목요일 雨

… 來日 일꾼을 엇어 일을 해 볼까 해서 농꼴가 일꾼 3名을 얻었다.

◎ 7월 23일 (음 6월 25일) 금요일 雲

일꾼 3名을 얻어 만양 심은 묘논을 매고 除草하다 남은 밭원 원뚝밭 1斗落 농꼴 골장 5,6斗落을 할랴고 했으나 농꼴 가서 5두락만 하고 6두락은 아주 만히 남었다. 4斗落은 될 상 십다. …

◎ 8월 4일 (음 7월 7일) 수요일 雨

오늘 소금을 받을랴 갈까 했더니 큰집에서 품진 일을 해달라고 졸라대여 일을 같다. 12時 頃에 비가 나리기 시작해서 품을 미였다. …

◎ 8월 8일 (음 7월 11일) 일요일 雲

큰아번님 家 일 같다. …

◎ 9월 27일 (음 9월 3일) 월요일 晴

… 몇日 동안 繼續되는 [제방복구] 作業은 피곤에 지치여 오늘은 좀 일직 손을 띘다. 벼베기 作業이 될 時期이것만 作業 關係로 일날이 7,8日 더 늘어간다. (…) 朴書房을 달몸으로 두었는데 잘 해줄 것인지.

◎ 10월 4일 (음 9월 10일) 월요일 晴

오늘부터 朴書房이 우리 집에 달몸으로 와 있기로 했다. 食前에 일직 올 줄 알았더니 朝飯食事 後에 왔다. 아번님 家 일날인데 날보구 해달라고 졸라대여 食前에 혼자 벼 60束을 脫穀하고 일을 같었다. 벼베기 첫날이다.

◎ 10월 5일 (음 9월 11일) 화요일 晴

白米 1叭. 食前에 朴書房 보구 콩을 것으라고 하고 나는 高棧에 벼을 실어가 搗精을 해 같고 왔다. …

◎ 10월 6일 (음 9월 12일) 수요일 晴

우리 일날이다. 13名이 농꼴 아논 11斗落을 절하고 앞 아논밑 2斗 5升지기을 비였다. …

◎ 10월 9일 (음 9월 15일) 토요일 晴

朴書房은 일을 가고 나는 前般 일날 비다 냉긴 3斗 5升지기을 비였다. …

◎ 10월 10일 (음 9월 16일) 일요일 晴

食前에 朴書房과 콩을 떨고 朝飯 後엔 밭을 치우고 앞밭 보리을 갈았다. (…) 종일 앞밭 한때기 갈았다. 今年엔 肥料도 더 주고 種子도 더 첬다. 아직까지 朴書房이 일을 잘해 일이 별로 안 몰린다. 별로 시키지 안아도 알아차려 잘 한다. …

◎ 10월 12일 (음 9월 18일) 화요일 晴

일꾼은 일을 가고 나는 농꼴 밭원 5斗落을 비여 갈았다. …

◎ 10월 14일 (음 9월 20일) 목요일

… 朴書이 일이 몰려 仁性 家 일을 가주었으면 해서 仁性 家 일을 갔다. …

◎ 10월 15일 (음 9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농꼴 벼을 비였다. (…) 朴書房은 어제 품민 일 같다. …

◎ 10월 17일 (음 9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朴書房과 어제 좀 냉긴 농꼴 5斗落의 벼을 베고 와 아논을 비였다. …

◎ 10월 27일 (음 10월 4일) 수요일 晴

… 朴書房이 와 脫穀을 해야겠는데 朴書房이 못 오겠다고 하니 일꾼 대매 걱정이다. 인제 얼른 脫穀해야 될 것인데.

◎ 11월 3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脫穀 20叭. 食前 일직 5時에 起上하여 脫穀할 準備을 하고 始作해서 농꼴 鹽員들이 와 떨어 주었다. 종일토록 농꼴 아논 11斗落을 脫穀하고 200束 가량 못 떨었다. …

◎ 11월 4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雲雨

오늘도 外人 2名을 얻어 농꼴 밭원 5斗落을 脫穀했다. 食前에 농꼴 明光郁君이 協助해 주었다. (…) 급히 서둘러 脫穀은 다했다. 밭원 5斗落에서 9叭 半 1,500斤 떨었다. …

◎ 11월 6일 (음 10월 14일) 토요일 晴

4叭 脫穀. (…) 둘제祖父 家 일꾼이 와 協助해서 묵어 끄디리였다.

◎ 11월 10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할 일은 많으나 今般 장마도 일감이 마당치 않아 午前 中 그럭저럭 張巡警 移舍하는데 協助하고 下午엔 집까리을 손질했다. (…) 인제 날씨가 좋와야겠는데 저녁나절 농꼴 金鎭元氏가 協助해 주었다. (…) 脫穀을 못해 不安하다. 잘 말린 벼단도 모두 물에 불렸으니 말이다. …

◎ 11월 21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 朴三福이와 품갑을 야기해서 200원을 주었다.

◎ 11월 22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晴

… 농꼴 明光郁 穀草 110 束 일로 가저감. 일 5日分.

◎ 11월 28일 (음 11월 6일) 일요일 雲

… 洛光君에게서 一金 400원을 借用 朴三福 품갑을 주었다. 백미 3두 一金 600원으로 다 주었다. …

◎ 12월 2일 (음 11월 10일) 목요일 雲

벼 실러다 40叭. 오늘 일꾼 1名을 얻어 高棧精米所로 벼을 넹겨가기로 하서 金氏와 종일 쪽바리로 高棧을 다니였다. 10번 다니며 벼 4叭을 넹겨갈다. …

◎ 12월 4일 (음 11월 12일) 토요일 晴

金氏을 얻어 소 두 필로 白米을 넹겨왔다. (…) 그리해 집으로 25叭을 실어왔다. 25叭을 건너방에 다 쌓는데 아주 심이 들었다. 金氏가 수苦을 많이 했다. …

1967년

◎ 2월 1일 (음 12월 22일) 수요일

… 뒤곁에 참나무 벼논지 1年만에 仁成君과 明光郁君이 오늘 빠겠다. 나무 한 짐을 주었다. …

◎ 2월 26일 (음 1월 18일) 일요일

… 가마니 칠 準備로 妻와 같이 집을 몇 뭇 추리였다. 白米 1斗을 농꼴 韓氏을 일품갑으로 주었다.

◎ 3월 18일 (음 2월 8일) 토요일

食前에 보리밭에 堆肥을 하고 朴書房와 悠雨氏을 얻어 보리밭을 긁고 재를 쳐낼라고 했더니 悠雨氏가 못 오게 되여 朴書房 혼자서 일을 했다. 朴靑房 보고 일을 하라 하고 三德校 理事會가 있어 參席했다. (…) 朴書房 혼자서 보리밭 긁었다.

◎ 3월 20일 (음 2월 10일) 월요일

… 朴書房을 얻어 꼬추와 감자을 갈았다.

◎ 4월 3일 (음 2월 24일) 월요일

일꾼 3名을 얻어 가래질을 했다. 앞5斗落을 가래질을 하고 밭원 3斗 5升지기 今年에 산 1斗落等을 하고 안논 일곱지기 복새[覆沙; 모래가 물에 밀려 논밭 따위에 덮여 쌓이는 것 또는 그 모래]을 파내고 4名이 종일했다. 일꾼들과 같이 했더니 저녁 나절은 피곤하다.

◎ 4월 4일 (음 2월 25일) 화요일

… 安仲 茂晟君이와 과수원에 밑밭에 거름을 주어달라고 비료을 주었다.

◎ 4월 15일 (음 3월 6일) 토요일

묘짜리 했다. 일꾼 2人을 얻었는데 1名이 못 오게 되여 나와 둘이 묘짜리을 했다. 朴書房과같이

종일토록 묘짜리을 하고 아논 뚝밑 苗板엔 모씨을 뿌리였다. 일꾼 1인이 못 오게 되여 일이 어그러졌다.

◎ 4월 16일 (음 3월 7일) 일요일

… 집에 와 있으니 妻가 안 와 기다리니 일꾼을 데리고 왔다. 아주 잘 되였다.

◎ 4월 17일 (음 3월 8일) 월요일

일꾼 보리밭을 매라하고 가마니을 꼬매고 있으니 서울에서 電報가 왔다. 下午 2時까지 安仲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12時 半 車로 4時까지 기달리다가 지쳐 4時 車로 못 만나고 그냥 도라왔다. 참으로 일이 안 된다. 참으로 約束이행이 안 되는 分이다. 일꾼은 일이 제대로 하는 것 같다.

◎ 4월 19일 (음 3월 10일) 수요일 細雨

… 오늘까지 일꾼은 곳잘 일을 하는 편이다. …

◎ 4월 20일 (음 3월 11일) 목요일 雲

날씨가 令한 편인데 일꾼을 데리고 播種을 했다. 바람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벼씨가 많이 몰리였다. …

◎ 4월 21일 (음 3월 12일) 금요일

일꾼이 있던 곳을 가 품갑도 찾을 겸 親友도 만난다고 하여 못 가게 했다. (…) 妻가 妻家에 가 일품갑을 받고 安仲으로 해서 솟을 사갈고 왔다. 솟은 동이드리배 一金 700원 白米 2斗다. 일꾼은 오늘 일을 보냈다. …

◎ 4월 22일 (음 3월 13일) 토요일

일꾼이 곳잘 한다. 오늘은 봉당을 돗고 솟을 걸었다. …

◎ 4월 23일 (음 3월 14일) 일요일

… 나는 午前 中 龍雨아저씨 家에 집 修理하는데 협조을 했다. …

◎ 4월 24일 (음 3월 15일) 월요일

… 午前中 龍雨叔 지붕하는데 協助 …

◎ 4월 27일 (음 3월 18일) 목요일

집 드재비. 모짜리 그누다. 食前에 푸다가 일꾼보고 푸라 하고 朝飯食事 後에 木手가 일 할라면 하라고 해서 土植 家에서 집을 들고 10時 頃에 우리 집을 돌기 始作해서 洞里 壹雨 悠雨 아번님 然雨 等이 봉죽을 들었다. 下午 3時 頃에 끝났다. 그리해 門와 주 1개을 만들어 달라하고 三溪에 쟁기을 같다주고 120원을 주었다.

◎ 4월 28일 (음 3월 19일) 금요일

… 배가 고파 점심을 사먹고 下午에야 집에 왔다. 일꾼이 밭베을 부치였다.

◎ 4월 29일 (음 3월 20일) 토요일

… 큰아버님이 오시여 일꾼을 보내 달라고 하여 우리 일이 몰리였다고 하니 근너가 큰아번님이 큰 야단이 났다. 못 먹것다고 남보다도 더한 분이 일이 몰리면 근너온다.

◎ 5월 1일 (음 3월 22일) 월요일

일꾼이 場에 같다오겠노라고 해서 妻도장에 같다왔다. 妻는 일직 오고 일꾼은 늦게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 아버님 家에 인건했다. …

◎ 5월 4일 (음 3월 25일) 목요일

… 일꾼이 신일을 안해보았는데 해보겠다고 해서 농꼴 밭원 5斗落을 갈아보라고 했다. 아주 서투루다. 하나 그냥 매끼였다. 5斗落 묘板 나문곳을 갈았다. …

◎ 5월 7일 (음 3월 28일) 일요일

일꾼이 신일이 서툴러 내가 初耕을 했다. 앞 4斗落 한 마지기는 물이 차물까 걱정이다. …

◎ 5월 8일 (음 3월 29일) 월요일

致雨 家 부역. 허깐, 오양깐, 감자밭 거름 치다.

◎ 5월 11일 (음 4월 3일) 목요일

… 朝飯食事 後에 일꾼 보구 소을 갈다가 마당을 돗우라고 했다. …

◎ 5월 13일 (음 4월 5일) 토요일

일꾼과 같이 광길의 재벽을 했다. 남의 사람 시켜먹기란 손수하는 것만큼 못하다. 종일토록 비위를 맞추며 일을 시켜야한다. 꾀가 많은지라 속이 상하나 일을 치워먹기 爲해 보비위를 해야 한다. 서둘러 재벽을 다했다.

◎ 5월 16일 (음 4월 8일) 화요일

… 일꾼은 신일을 시켰다. 신일을 못하는데 가르켜 가며 시킨다. …

◎ 5월 20일 (음 4월 12일) 토요일

苗板 피사리. 午前 中 苗板 피사리을 한 배미 하고 점심을 먹고선 아논 말가웃지기와 今年엔 賣收한 3斗落의 논뚜랑 구분 것을 곳게 만들고 일꾼은 감자밭에 물을 주라 같다. …

◎ 5월 21일 (음 4월 13일) 일요일

… 오늘 일꾼 1名을 얻어 우리 두 식구와 三人이 앞 4斗落 移秧을 했다. 食前부터 始作했으나 5升지기 가량 나맛다. 혼자 심으면 1斗 5升지기는 심는데 3人이라인지 못 다 심었다. 苗가 이른 줄 알았더니 苗키는 넉넉한데 몸이 무르다. 아논 물도 오늘로 논뚜랑을 어여 막았다. …

◎ 5월 22일 (음 4월 14일) 월요일

소을 부릴랴니 아번님이 부리신다고 해서 못 부리고 물 단속을 했다. …

◎ 5월 23일 (음 4월 15일) 화요일

농꼴 6斗落을 갈았다. 일꾼은 아번님 家 일을 같다. 일꾼은 얻어 놓았으나 신일이 몰리여 걱정이다.

◎ 5월 24일 (음 4월 16일) 수요일

일꾼 鄭玄玉君 보구 前日 갈지 못하는 곳을 파라고 시키고 집일을 하자니 혼자 시키니 지루하고 힘이 겨울 것 같아 11時 頃에 가 같이 팠다. 같이 파니 下午 3時 頃에 다 팠다. 저녁새 밥을 먹고 今年에 산 한 마지기 물을 푸라고 하니 용두래질이 서투르다. 苗板에 물을 푸고 밭원뚝 밑 1斗落을 가보니 물이 샜다. 鄭君과 같이 또 물을 펐다.

◎ 5월 26일 (음 4월 18일) 금요일

… 논뚜랑을 대충 하고 일꾼과 苗을 쩟다. 일꾼은 일을 가고 소을 몇 번이나 가질러 같으나 못 가져 오고 물은 조라 붓고 둘째 소을 말씀드리니 같다. (…) 동욕꿀 밑 배미는 소시랑으로 하고 妻가 심었다. 달뱅이도 심었다.

◎ 5월 28일 (음 4월 20일) 일요일

우리 移秧日. 푸마시 일꾼 9名과 품꾼 2名. 일꾼 玄玉이 싸우고 일을 안 해 속이 상해 혼났다. 主人놈이라고 꾀만 피우고 말이 아니다. 일도 제대로 못했다. …

◎ 5월 30일 (음 4월 22일) 화요일

移秧日. 품꾼 1名을 일을 보내고 7名 농꼴 5斗落과 今年에 산 1斗落 移秧하고 食前에 밭원뚝밑 1斗落과 앞 5升지기 食前에 移秧했다. (…) 安仲 간 茂成君이 와 우리 일을 잘 치워주었다.

◎ 5월 31일 (음 4월 23일) 수요일

移秧日. 품꾼 4名 일꾼 合 4名. 아논 3斗落과 말가웃지기 移秧. …

◎ 6월 1일 (음 4월 24일) 목요일

농꼴 難民이 1名 일 올 것인데 妻가 安仲에 고구마을 심으라 가게 되여 안골 祖父 家에 일을 보냈다. …

◎ 6월 2일 (음 4월 25일) 금요일

… 농꼴 韓盤令監을 얻어 일꾼과 3名이 농꼴 李昶鎔氏가 한나절이나 協助까지 심어 다 끝났다. 일직 심을 것인데 일꾼이 요즈음 朝飯食事일 하라 왔는지 食前 일을 안 한다. 남의 사람 두고 농사짓기란 속이 상한다. …

◎ 6월 4일 (음 4월 27일) 일요일

… 일꾼은 李昶鎔 家 신일을 보냈다. …

◎ 6월 7일 (음 4월 30일) 수요일

일꾼 보구 묘을 기우라 했더니 눈만 소기고[속이고] 있어 午前 中 묘을 기우는데 苗 심어 논 것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아논은 묘가 느러져 피여날 것인지? …

◎ 6월 8일 (음 5월 1일) 목요일

… 일꾼은 오늘 쉬겠다고 해서 쉬라고 하여 저녁나절 쇠풀이나 비여 오라고 하고 했더니 손까락 까닥치 않고 누어있었다. …

◎ 6월 10일 (음 5월 3일) 토요일

일꾼 2名이 앞 4斗落을 매고 밭원 가서 2斗落을 소매거지(除草)을 했다. 玄玉君 보구 잘 점하라고 입이 달토록 했으나 마찮가지다. 오늘은 하너라고 한다. …

◎ 6월 11일 (음 5월 4일) 일요일

일꾼은 일을 가고 妻와 같이 밭을 맸다. …

◎ 6월 13일 (음 5월 6일) 화요일

食前에 아번님 家에 그루을 갈다가 10時 頃까지 끝냈다. …

◎ 6월 14일 (음 5월 7일) 수요일

일꾼 3名이 농꼴 안원 11斗落 아논 今年에 산 3斗落의 소매거지을 하고 앞 5升지기 물이 없어 깨끼을 했다. (…) 나는 동욕굴 논을 깨끼을 했다. 食前엔 아번님 家 그루을 갈라 갈다.

◎ 6월 15일 (음 5월 8일) 목요일

洞里 一代가 보리비기가 끝날 오늘서야 옆밭 보리을 비였다. 아직도 푸르다. 일꾼은 일을 가고 妻와 같이 비는데 쓰러져 아주 비기 나뻣다. 일직 다 비였다. …

◎ 6월 16일 (음 5월 9일) 금요일

… 일꾼은 일손만 되면 마실로 가 妻와 같이 웅뎅이을 퍼야 한다.

◎ 6월 18일 (음 5월 11일) 일요일

… 아번님이 協助했다. 앞밭은 흙이 제대로 죽지 않아 콩이 안 날 것 같다. 저녁을 먹고나니 일꾼이 보리을 떨기 始作해서 같이 떨고서 할머니 제사 지내라 갈다.

◎ 6월 19일 (음 5월 12일) 월요일

… 일꾼이 일을 못 가 소매거지을 하는데 下午에 같이 했다. 아논의 물이 많아 모가 피여 나질 못한다. 앞논을 除外하곤 물이 많은 편이다.

◎ 6월 23일 (음 5월 16일) 금요일

… 오늘이 우리 일날이다. 일꾼 11名이 논을 맸다. 한참을 나도 했다. 12名이 논을 매면 못 다할 줄 알았는데 젓두리 한 참에 농꼴 아논을 하고 밭원 가서도 한 앞이나 했다. 우리농사 33斗落을 다하고 밀도 비였다. 일꾼과 같이 저녁에 밀을 떨었다.

◎ 6월 26일 (음 5월 19일) 월요일

食前에 아번님 家 그루을 갈고 朝飯 後에 妻는 安仲場에 밀을 비라갈다. (…) 安仲에 밀은 愼茂晟氏가 協助했다고. 밀 8斗 가량 난는데 茂晟 1斗가량 주고 下午 늦게 왔다. …

◎ 7월 3일 (음 5월 26일) 월요일 雲

除草作業 8名. 우리 일날이다. 食前에 물꼬을 열어 놓고 朝飯 後에 일꾼을 챙겨 일을 부치였다. 농꼴부터 始作하는데 肥料을 1斗가량 가지고 가 골장을 끼언질라니 病도 무섭고 해서 그만두고, 농꼴 16斗落에 누른 기가 있는 곳에 끼언지였다. …

◎ 7월 8일 (음 6월 1일) 토요일 晴

食前에 아번님이 오시여 소를 갈고 가 소금(鹽)을 실러 갈라느냐고 하시여 가기로 하고 朝飯後에 개섬 鹽田으로 갈다. 春雨, 敎雨 等 3名이 車길가지 소금을 실었다. 111叭 실어 1500원 一人 當 500원식이다. …

◎ 7월 11일 (음 6월 4일) 화요일 晴

除草作業. 일꾼6名이 우리 농사을 다 더듬었다. …

◎ 7월 17일 (음 6월 10일) 월요일

… 아주 무덥더니 下午엔 쏘나귀을 한 줄기 하니 모든 五穀이 생기을 띄우는 듯 사람도 氣分이 좋다. 일꾼은 둘재祖父 家 일을 보냈다. …

◎ 7월 20일 (음 6월 13일) 목요일 雨

朝飯 前부터 비가 나리기 始作해서 午前 中 오락까락 했다. 일꾼 때매 속이 상하다. …

◎ 7월 22일 (음 6월 15일) 토요일

피사리. 일꾼 4名을 얻어 피사리을 했다. 비가 오락까락해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농꼴 16斗落과 앞에의 5斗落을 했다. 오늘도 일꾼 고용인이 속을 세기며 종일토록 氣分이 좋이 아났다. …

◎ 7월 25일 (음 6월 18일) 화요일

일꾼 보고 일을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 해도 일을 같다. 집에서 호락질은 아주 실어한다. 피사리라야 2名이면 充分하다. …

◎ 7월 26일 (음 6월 19일) 수요일

妻는 場에 간다고 하고 장짐을 꾸리는데 朝飯食事을 하고 한참 만에 내다보니 일꾼 2名을 얻어 일을 하고 있다. …

◎ 7월 28일 (음 6월 21일) 금요일

피사리 3名. 일꾼도 나갈 것 같고 해서 2名을 얻어 피사리을 하자니 또 와 피사리해주고 來日

나가겠다는 것이다. (…) 來日 나갈라 한다고 해서 따져 달라고 해서 가을에 白米 2叭 代을 돈으로 一金 6000원을 주기로 했다.

◎ 7월 29일 (음 6월 22일) 토요일

… 몇일 前부터 들락날락하던 일꾼이 朝飯 後에 나가겠노라고 한다. 路資가 없다고 해서 300원을 주었다.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몇일 놀다가 가을일을 해달라고 해서 보냈다. …

◎ 8월 18일 (음 7월 13일) 금요일 雲

… 食前에 安仲 愼書房이 와 참깨을 비라[베러] 오라고 왔썼다. 愼書房 보구 비여 달라고 했다. 새끼 한 둘레와 穀草 4束을 주고 과수원 作業을 해달라고 했다. …

◎ 9월 11일 (음 8월 8일) 월요일 晴

… 李昶鎔에게 일품갑으로 一金 1,000원을 달래주었다.

◎ 9월 24일 (음 8월 21일) 일요일 晴

우리 벼 비다. 5名. 농꼴 밭원 5斗落을 비였다. 5名이 비기 始作해서 비여가니까 아주 쉬어 두참에 다비여 깔었다. (…) 일직 비고 李昶鎔氏家 벼 50束 비고 앞에 와 3斗 5升지기 밑의 1斗落 비고서 苗板 6束을 비였다. …

◎ 9월 30일 (음 8월 27일) 토요일 雲

우리 일날이다. 11名. 농꼴 難民을 얻어 벼을 비였다. 골장에서 444束을 비고 말가웃지기 苗板 나문 것, 밭원뚝 밑 1斗落, 앞뜰 5斗落 等은 비여 깔았다. 今年엔 아주 일이 쉬웁다. …

◎ 10월 6일 (음 9월 3일) 금요일

우리일 10名. (…) 큰일이다. 李昶鎔氏 보구 主人삼아 잘 좀 보살펴 달랬으나 不安하기 짝이 없다. (…) 마음은 더욱 초조하다. 그래도 서둘러 줄 사람이 몇 명 있을 것만 믿는다. 저녁에 李昶鎔氏가 왔다. 못다 했다고 300餘束을 못 뽑았다고 뭇은 굴근 편이라고. 일꾼은 농꼴 분들. …

◎ 10월 14일 (음 9월 11일) 토요일

脫穀 13. 일꾼 2名을 얻어 농꼴 밭원 5斗落 脫穀을 했다. 70束 早稻한 것에 밭원 벼 59束을 合해 脫穀한 것이 게꼴 제위 13叭 났다. …

◎ 10월 17일 (음 9월 14일) 화요일

脫穀 23叭. 脫穀日이라 일직 일어났다. 나까지 6名 농꼴 분들이다. 李昶鎔君이 데리고 왔다. 오늘까지 28名을 댔다. 오늘 800원을 가저가 一金 3000원을 가저갈다. 오늘脫穀은 23叭 約 1000束 脫穀했다.(150斤 入) …

◎ 10월 19일 (음 9월 16일) 목요일 晴

보리 갈다. 일꾼 男 1, 女 1名을 얻어 내가 신일을 하고 보리파종을 했다. 일직 끝내고 동욕꿀 밭의 뒤엄을 저냈다. …

◎ 10월 22일 (음 9월 19일) 일요일 晴

安仲 고구마 실어왔다. 5叭. 來日 농꼴 벼을 끄디릴랴고 午前에 조파리고 下午엔 일꾼을 마련했다. 午鍾 頃에 安仲에서 고구마을 馬車에 실고 왔다. 運賃으로 600원을 물었다.

◎ 10월 25일 (음 9월 22일) 수요일 晴

脫穀 20叭. 농꼴서 일꾼 5名을 얻어 脫穀을 했다. 20叭 脫穀했다. …

◎ 10월 26일 (음 9월 23일) 목요일 晴

脫穀 232叭. 오늘도 脫穀을 농꼴서 일꾼 5名을 얻어 6名이 脫穀을 했다. …

◎ 10월 29일 (음 9월 26일) 일요일 晴

… 食前에 昶鎔君이 넘어와 일한 품갑을 計算해달라 해서 품갑도 支拂 3000원과 나문 것 1500원 주고 품 바들 것 6名分 計算해 주었다. 품갑까지 計算이 되고 ○君 150원만 주면 된다. 女子 1名分까지 주었다. …

◎ 11월 19일 (음 10월 18일) 일요일

… 나는 아번님 家에 가 지붕 해이우는데 協助하다가 집에 와 가는 새끼을 좀 꽜다. 비가 오락까락했다.

◎ 11월 23일 (음 10월 22일) 목요일 雲

거름치다. 일꾼 1名을 얻어 거름을 치고 앞 새울타리를 쳤다. …

◎ 12월 23일 (음 11월 22일) 토요일 晴

… 저녁나절에 昶鎔君이 와 집[짚] 1짐을 일품갑으로 가저갈다. …

1968년

◎ 3월 24일 (음 2월 26일) 일요일 晴

愼氏을 만나 같이 뻐쓰정유소에 와 時間 半 가량 기달리니 貞勳 母가 왔다. 같이 食事하고 果樹원은 愼氏에게 도지 白米 5叭에 주고, 농약과 거름(퇴비)을 2천원어치 사놓고 노임도 2400원 신서방을 주고 下午에 떠났다.

◎ 4월 1일 (음 3월 3일) 월요일

일 좀 덜하고 살아볼까 했더니 일군 求하기도 어려우려니와 노임이 비싸니 쌀 1斗에 3名 사든 것이 2名 사기도 어려우니 농사짓고 살 시절은 못된다. 일군도 6叭면 두던 것이 10叭 以上이니 穀價는 그대로고 도저히 살 수 없다.

◎ 4월 7일 (음 3월 10일) 토요일 雲

朴三福 보고 일꾼 3名을 데리고 와 가래질을 해 달라고 하니 오늘 2名만 보내여 내가 같이 했다. 농꼴 밭원 아논 5斗落을 가래질하고 앞에 와 앞들 아논 7升지기 밭원 들을 하고 밭원 1斗락은 말라 못했다. 좀 일은 듯하여 앞 왜가래질을 했다.

◎ 4월 20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女 1名을 얻어 妻와 같이 보리밭을 맸다.

◎ 4월 22일 (음 3월 25일) 월요일 晴

농꼴 아논 5斗落 끄이하고 耕. 朴三福을 얻어 농꼴 아논 5斗落을 끄이을 하고 下午엔 갈았다. …

◎ 4월 28일 (음 4월 1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농꼴가서 韓氏을 만나 우리 묘을 심어 달라고 농꼴 아논 5斗落을 심어주겠다고 하고 田氏 보고 골장 밭원 농골 논을 심어달라고 졸라 대고 논뚜랑을 돌보고 농꼴 아논 5斗落 논뚜랑을 손질했다. …

◎ 4월 29일 (음 4월 2일) 월요일 晴

朴三福을 얻어 신일을 했다. 농꼴 밭원 5斗落을 건가리 하고 밭원 3斗 5升지기을 갈고, 아논 1斗 5升지기을 갈라다가 말았다. …

◎ 5월 3일 (음 4월 6일) 금요일 雲

… 金鎭元 朴三福을 얻어 아논 가래질을 했다. (…) 창깨을 갈고 鹽田 水車을 같다가 우리 아논 5斗落에 물을 폈다. 金鎭元이 와 協助해주다가 夕飯食事을 같이 했다. …

◎ 5월 4일 (음 4월 7일) 토요일 晴

食前에 농꼴 골장물을 아논 5斗落에 푸고 있으나 金鎭元氏가 協助해 朝飯食事을 같이 했다. …

◎ 5월 8일 (음 4월 11일) 수요일 晴

朴三福을 얻어 오늘 아논을 갈았다.…

◎ 5월 9일 (음 4월 12일) 목요일 晴

… 今年엔 일군도 귀하려니와 勞賃도 올라가니 穀價은 그대로고 참으로 천농이다. 白米 1斗에 일군 3名 사던 것이 白斗에 1名이니 무슨 수기가 있겠는가. 농촌은 썩고 날로 病들어 간다. …

◎ 5월 13일 (음 4월 16일) 월요일 晴

일품갑 선支拂 2500. (…) 농골 가서 一金 2500원을 주고 移秧을 해 달라고 付託했다. 陰 26,27日 경에 농꼴 논을 심어 달라고 부탁했다. …

◎ 5월 14일 (음 4월 17일) 화요일 晴

… 농꼴 골장 물을 5斗落으로 피올리였다. 來日 갈까 한다. 敦植과 金鎭元氏가 한 참이나 폈다. …

◎ 5월 18일 (음 4월 21일) 토요일 雨

… 농꼴 金鎭元과 敦植에게 물을 밭원 5斗로 골장 물을 퍼달라고 하여 下午에 폈다. 밭원 5斗을 물이 不足이라 2斗落 가량을 못하고 질러 물을 폈다. …

◎ 5월 19일 (음 4월 22일) 일요일 晴

골장 논 파다. 농꼴 가 일꾼 3名을 얻어 농꼴 골장을 파라 하고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아논 3斗에서 물을 밭원 1斗落에 댔다. 이번 비로 약 4斗 가량 내게 되였다. 물을 대고 써리고 아논 3斗을 곱쓰리고 下午에는 농꼴 밭원 前日 푼 것을 써리였다. 3명이 파든 골장 논은 다팠다. 써릴 것이 걱정이다.

◎ 5월 22일 (음 4월 25일) 수요일 晴

… 女人 3名을 얻어 농꼴 밭원을 심을랴고 했더니 弘植이 젓두리에 와 協助해서 앞 밭원 1斗을 半 以上 심었다. 5名이 4斗落 가량 심었다 來日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 5월 23일 (음 4월 26일) 목요일 晴

… 男子 3 女子 2名을 얻어 골장 6斗을 移秧했다. 今年에 아주 감이 나뿌다. 안 판 곳이 많고 말른 것이라 높고 얏고[얕고] 아주 나뿌어 제대로 검질 않을 것 같다. 金鎭元氏 婦人이 와 한참이나 協助해서 앞의 前日 심은 1斗 냉긴 것도 심었다. …

◎ 5월 24일 (음 4월 27일) 금요일 晴

… 일꾼이 5,6名 될 줄 알았는데 농꼴 草命村에 물을 퍼대여 일꾼이 못 오게 되여 1名이 왔다. 洞里에서 然雨氏을 얻어 나와 3名이 앞골 3斗을 移秧했다. …

◎ 5월 26일 (음 4월 29일) 일요일 雲

… 女子 일군이 4名인 줄 알았더니 3名뿐. 아논 1斗 5升과 苗板을 除外한 3斗 5升 배미을 심다가 2,3升가량 냉겼다. 점심새 밥 먹고 농꼴 金鎭元氏가 와 協助했다. 金氏 婦女이 人間美가 없는니 말이 많지만 우리에겐 잘하는 편이다. 무엇이던지 해 줄라고 한다. 농꼴 아논 5斗 물이 아주 줄었노라고 해 妻보고 가보라고 해 농꼴서 第一 많은 물이였는데, 第一 적다니 氣分이 나뿌다. 柱雨가 따랐거나 펐거나 한 것 같다. …

◎ 5월 27일 (음 5월 1일) 월요일 雲

… 午後엔 妻을 데리고 前日 심다 냉긴 것을 심고, 밭원 뚝 一斗을 심다가 조금 냉기였다.농꼴 金鎭元氏가 와 협조해서 많이 심었다.

◎ 5월 29일 (음 5월 3일) 수요일 雲

… 일꾼 5名을 얻어 농꼴 5斗을 移秧하고 …

◎ 6월 8일 (음 5월 13일) 토요일 雨

일꾼 3名 골장 소매거지 中止.(雨天으로) 前日 일꾼 3名을 얻어 소매거지을 始作했다. …

◎ 6월 9일 (음 5월 14일) 일요일 雨

前日 품민 일꾼 3名이 농꼴 移秧. (…) 前日 품민 일꾼을 데리고 묘을 심었다.

◎ 6월 10일 (음 5월 15일) 월요일 晴

앞 말가웃지기 移秧. 앞 말 가웃지기을 食前에 쓰리고 妻와 같이 심었다. (…) 下午에야 심기 始作해서 못다 심을 줄 알았는데 悠雨氏가 와 協助해서 다 심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 …

◎ 6월 17일 (음 5월 22일) 월요일 雲晴

… 白米 1斗에 일꾼 2名, 보리쌀은 3斗에 2名이니 도저히 어굴하다. 일 한명이라도 덜 살라고 生覺하니 몸만 고디다. …

◎ 6월 19일 (음 5월 24일) 수요일 晴

보리 비다. 女人 2名, 男 1名 얻어 보리을 비고 떨고 그루까지 갈았다. 아주 푸른 보리을 비고 朴三福은 떨었다. …

◎ 6월 21일 (음 5월 26일) 금요일 晴

일꾼 5名 除草作業. 농꼴 골장을 물이 없는 것을 개여 부치고 아논 5斗을 맸다. 앞에 와 골장 3斗을 除草했다. …

◎ 6월 22일 (음 5월 27일) 토요일 晴

下午에 농골서 와 쌀을 내겠느냐고 해서 논맬 품갑도 줄 겸, 白米 1叭 賣 一金 四千三百원을 받었다.

◎ 6월 25일 (음 5월 30일) 화요일 晴

除草 3名. 일꾼 3名을 얻어 除草을 하는데 …

◎ 6월 27일 (음 6월 2일) 목요일 晴

… 일꾼 2名을 얻어 아논 3斗 밭원 2斗5升 원뚝밑 1斗 等을 除草하였다. (…) 물 마른 농꼴 골장, 농꼴 밭원 앞 等이 나마 있다. 일꾼 얻어 깨기하기란 억울하다.

◎ 7월 18일 (음 6월 23일) 목요일 雨

然雨 家에 묘가 나마 농꼴 것을 심을라고 苗根 60 침을 처 놓으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많은 비가 나리였다. …

◎ 7월 19일 (음 6월 24일) 금요일 雨雲

仁性 家에 移秧할 것이 많이 나마 仁性 家의 묘을 심어줄라고 같섰다. …

◎ 7월 20일 (음 6월 25일) 토요일 雲雨

茂植 家 묘을 심어 주라 같섰다. 오늘도 쏘나

귀 한 차래 물 소동을 이루었다. 인제 내가 3日째 묘 많이 나문 집의 묘을 심어 주었다. …

◎ 7월 25일 (음 7월 1일) 목요일 晴

일꾼 4名을 얻어 除草을 하는데, 이번 4名으로 많은 것은 다 해치울라고 했으나 풀이 얻이[어찌] 많은지 골장 6斗에서 3참이 늦도록 했다. 아직도 4,5名은 더 있어야 대충 하겠것만 날은 더웁고. …

◎ 7월 26일 (음 7월 2일) 금요일 晴

… 농꼴 金富鉉氏가 일품갑으로 一金 1000원만 달라 해서 1000원 같다 주었다.

◎ 8월 29일 (음 윤 7월 6일) 목요일 晴

… 농골 李昶鎔氏가 白米 1斗을 품갑으로 가저 같다. 李昶鎔君이 일품갑으로 3400원, 金富鉉 1000원, 韓相殷氏 200원 等이다.

◎ 9월 15일 (음 윤 7월 23일) 일요일 晴

… 농골 李昶鎔君에게 일군을 付託했더니 음 8月 4日에 10名, 10日에 10名을 구해 놓았다고 한다.

◎ 9월 23일 (음 8월 2일) 월요일 晴

… 몇 해만해도 洞里사람들이 품아시을 해서 일을 치여 나가겠것만 洞里사람들은 품아시가 없고 호락질이 아니면 뒤처의 일꾼을 사는 것이다. 洞里 사람들은 품아시 할 사람이 거이 없다. …

◎ 9월 25일 (음 8월 4일) 수요일 晴

우리 일 11名. 농꼴서 일군 10名을 사 오늘 벼비기 일을 했다. 아논뚝 밑 아논 7升지기을 除外하고 다비였다. 쓰러져서 매우 더디고 束數가 昨年에 비해 많이 났고 일이 아주 더디다. …

◎ 9월 28일 (음 8월 7일) 토요일 晴

우리일 11名. 아논에서 1174束. 일꾼 11名이 농골 아논 11斗을 비고 이른 듯하여 밭원 가서 좀 비였다. 밭원 벼는 농광인데, 좀 이른 것 같으니 비였다. …

◎ 10월 19일 (음 8월 28일) 토요일 晴

보리 갈다. 일군 2名을 얻어 보리을 갈았다. 더운가리을 쳐 놓아 둔 것이되 다소 빠르다. …

◎ 11월 8일 (음 9월 18일) 금요일 雲

… 농꼴 일군 5名과 朴三福이 와 협조해 脫穀 19叭을 했는데 …

◎ 11월 13일 (음 9월 23일) 수요일 晴

… 일꾼 6名을 얻어 脫穀을 했다. 게꼴까지 하게 되여 아주 개운하다. 오늘도 朴三福이 協助했다. …

◎ 11월 14일 (음 9월 24일) 목요일 晴

… 오늘도 6名을 얻어 脫穀을 했다. 오늘도 게꼴까지 드리였다. …

◎ 11월 15일 (음 9월 25일) 금요일 晴

… 오늘은 일꾼 5名을 얻어 脫穀했다. 앞뜰 벼을 저다가 脫穀했다. 인제 게꿀만 해치우면 벼는 다해는 것이다. …

◎ 11월 17일 (음 9월 27일) 일요일

오늘부터 집짓는데 가보기로 했다. 오늘 부엌반은 쌓았다. 人夫 4名이 일을 하니 빠르다.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물자대여 주는 것이다. 孟植이 수고을 많이 한다.

◎ 11월 19일 (음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은 부엌일을 끝내고 上樑을 했다. 간단하게 술 1斗와 간단한 안주 一金 500원을 놓아 上樑式을 했다.

◎ 11월 20일 (음 10월 1일) 수요일

… 오늘은 개와쟁이[기와쟁이]와 木手의 점심을 해 주었다. 一金 500원을 주어 쌀을 사고 400원이치 술과 담배을 사 같고 대접 했다. …

◎ 12월 8일 (음 10월 19일) 일요일

일꾼 3名을 얻어 영을 역었다. 영 60마름을 역었다. …

◎ 12월 9일 (음 10월 20일) 월요일

일꾼 3名을 얻어 사랑채을 해이였다. (…) 오늘 복역꾼이 있어 4名이 사랑채 광채 안지붕 용구새까지 해이였다. …

◎ 12월 15일 (음 10월 26일) 일요일 雲雪

… 당장 몰려오는 돈에 머리가 어지럽다. 품갑으로 一金 3000원, 위상갑 3800원, 쌀돈 낸 것이 3000원. 앞으로도 19000원이 필요한데 돈

이 돌지 않는다. …

◎ 12월 28일 (음 11월 9일) 토요일 晴

… 下午에 창용이 와 품갑 떨어진 것 一金 1600원을 주었다. …

1971년

◎ 1월 1일 (음 12월 5일) 금요일 溫晴

… 契約金으로 白米 拾入 中 一金으로 5만원 받어 홍정갑으로 5斗代 一金 3,400원을 주었다. 뭇 梁正鎬君 품갑 밀린 것 2人分 800원 주고 李昶鎔 白米 1叭代 68,500원, 池億洙 一金 4,000원 일품갑으로 先拂했다.

◎ 1월 2일 (음 12월 6일) 토요일 溫晴

… 오늘은 농꼴서 3名이 와 석까래을 베겨주었다. 하루 베겨주고선 갈 제 집[짚] 한 짐씩 주었다. …

◎ 1월 3일 (음 12월 7일) 일요일 晴

… 석까래를 농꼴 池億洙와 두리 베기였다. …

◎ 1월 4일 (음 12월 8일) 월요일 雪冷

池億洙 白米 1叭 先拂 일품갑. (…) 농꼴서 池億洙가 付託했든 白米 1叭을 더 달라고 당장 먹을 쌀이 없다 해서 高棧 가서 柱雨에게서 契約米 올 것에서 1叭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해 壹叭을 가저갈다.

◎ 2월 6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 장척을 갈고 木手아저씨와 같이 와 장보감을 보고 敦植을 데리고 비였다. …

◎ 2월 9일 (음 1월 14일) 화요일

水村아저씨 一金 500원 주다. (…) 仁性父가 협조했다. 수촌아저씨와 悠雨와 같이 와 술과 점심을 같이 했다. 水村아저씨 일품갑으로 돈을 달라해서 一金 500원을 드리였다. …

◎ 2월 16일 (음 1월 21일) 화요일 晴

… 敦植이도 와서 마른개질을 같이 하고 끌구멍을 팠다.

◎ 2월 17일 (음 1월 22일) 수요일 태풍

… 10時 頃에 木手아저씨가 오시여 午後에 敦植과 같이 今年에 산 산에서 나무 중방도리을 7개 비여왔다.

◎ 2월 18일 (음 1월 23일) 목요일

날씨는 冷한 편이나 木手아저씨와 敦植이 와 일을 했다. 기둥 마른개질이 거이 다 끝나간다. 敦植은 나무을 다듬었다. …

◎ 2월 19일 (음 1월 24일) 금요일

… 洞里 敎雨, 德雨, 悠雨, 申아번님이 오시여 끌구멍을 뚤었다. 거이 다 뚤었다.

◎ 2월 20일 (음 1월 25일) 토요일

수촌아저씨와 아번님이 오시여 끌구멍을 파시였다. …

◎ 2월 24일 (음 1월 29일) 수요일

… 敦植은 대패질을 했다.

◎ 2월 25일 (음 2월 1일) 목요일 晴

… 敦植은 대패질하다가 下午에 防潮堤防補修次 한 참이나 빠졌다.

◎ 2월 26일 (음 2월 2일) 금요일

… 敦植은 대패질하고 木手아저시는 대공거리와 평고자 6개 손질로 해을 보냈다. …

◎ 2월 27일 (음 2월 3일) 토요일

敦植은 대패질하고 木手氏는 종일토록 장보을 마른개질 했다. …

◎ 3월 1일 (음 2월 5일) 월요일

… 高棧 源植, 裕浩, 昌植, 定植, 작은아번님 등이 집을 헐었다. 高棧 사람들에게 매끼였다. …

◎ 3월 2일 (음 2월 6일) 화요일 雨

… 妻男이 삼테을 놓아 만드는데 나는 한나절이나 잤다. …

◎ 3월 3일 (음 2월 7일) 수요일 雲

… 木手도 늦게 와 오늘은 일은 못하고 대패 집이나 파겠다고 하고 敦植은 서울서 電報가 와 서울 갈다. 집토는 오늘도 닦았다. 일은 많이 했다. 妻男과 같이 산자거리와 덧집거리 비루나무을 비었다.

◎ 3월 5일 (음 2월 9일) 금요일 晴

정초 일로 결정했으나 집토 닦기가 힘이 들어 오늘 것 정초만 했다. 오늘은 일꾼 2名을 얻어 일을 했다. 일이 늦어간다. 來日은 정초을 끝내고 기둥을 세울는지 일군은 不足이겠다. 本 高棧里 全員이 總動員되어 道路工事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번님과 큰아번님이 보드나무 덧집거리을 키였다. 敦植은 下午 늦게 서울서 도라왔다.

◎ 3월 6일 (음 2월 10일) 토요일

오늘부터 敦植과 두 木手가 같이 했다. 오늘 정초가 끝났다. 정초을 前日부터 2日間이나 했다. 아번님과 尾雨氏가 덧성가래을 종일토록 톱질했다. …

◎ 3월 7일 (음 2월 11일) 일요일

上樑日. 일직부터 서둘러 집을 세웠다. 前日에서 약간 실수하여 장모의 마른개질이 한 치가 낮아 前間 기둥에 한 치을 나추었다. 氣分이 매우 좋이 않았으나 그리 큰 잘못이 아니라 어이 할 수 없다. 9尺 기둥이 8자 9치로 前間柱가 주렀다. …

◎ 3월 11일 (음 2월 15일) 목요일

서가래을 종일 걸었으나 못 다 걸었다. 농꼴 柱雨을 얻었으나 못 다 걸고 마자가 나맜다. …

◎ 3월 12일 (음 2월 16일) 금요일

마자을 종일 부치였다. 날씨는 차거운데 다섯재祖父님이 오시여 수고하시였다. 下午 늦게 부연을 걸기 始作했다. 高棧 작은 아번님이 수고하시였다. …

◎ 3월 13일 (음 2월 17일) 토요일

瑞雨 아저씨만 한나절 일 하시였다.…

◎ 3월 14일 (음 2월 18일) 일요일

오늘도 瑞雨氏만 오시여 일을 午前 中 하시다가 高棧에 체신부장관이 온다고 高棧에 갔었다. …

◎ 3월 15일 (음 2월 19일) 월요일

… 오늘도 瑞雨氏만 오시였다. …

◎ 3월 16일 (음 2월 20일) 화요일 雨

… 오다가 농꼴 가서 2日후에 새을 올린다고 하루 보아준다고 하여 농꼴 사람보고 새을 올려 달라고 했다.

◎ 3월 17일 (음 2월 21일) 수요일 晴

동욕골 미루나무을 비여다가 아번님, 창용군과 같이 덧집거리을 키였다. …

◎ 3월 18일 (음 2월 22일) 목요일 晴

… 농꼴 분들이 모두 와 일을 始作하여 일직 끝냈다. 불과 作業時間은 午前 中에 끝낸 셈이다. 몇몇 분은 새만 올리고 가시고 몇 분이 남아 화방 및 가지 쌓아주고 갔다. 梁正鎬, 李正國, 姜淳鎬, 安正來, 崔成奉. 午後에 함석공이 와 곳 덧집을 짓기 始作했다. …

◎ 3월 19일 (음 2월 23일) 금요일 晴

木手는 안오시고 敦植이 수고했다. …

◎ 3월 20일 (음 2월 24일) 토요일 晴

敦植 500원 拂. 食前 일직부터 함석일을 끝내고 오늘 일직 끝냈다. 下午 4時 頃에 일을 끝내고 떠났다. 일품갑으로 3人이 2日 半에 一金 9,500원을 주었다. 敦植이 종일 協助하고 木手아저씨도 協助했다. 지붕을 해이우고 나니 아주 개운하다.

◎ 3월 21일 (음 2월 25일) 일요일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木手일을 始作했다. 木手 2名이 모두 와 문꼴의 마른개질 급 대패질을 했다. …

◎ 3월 22일 (음 2월 26일) 월요일

… 木手아저씨는 문중방 홈을 파고 敦植은 문중방 대패질을 했다. 오늘까지 문 중방은 거이 끝나간다. …

◎ 3월 23일 (음 2월 27일) 화요일

문 중방 드리다. 문 중방은 거이 다 드리였다. 내일 문꼴 드릴 것 같다. (…) 왕겨는 木手아저씨 家에 드리다.

◎ 3월 24일 (음 2월 28일) 수요일 雲細

… 木手아저씨와 敦植은 종일 門꼴을 드리였으나 안방문 앞 같고 종일했다. 사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

◎ 3월 25일 (음 2월 29일) 목요일 雲

敦植은 마루 송판을 대패질을 하고 木手아저씨

는 문꼴을 드리었다. 門꼴 드리기 始作하면 2,3日이만 끝날 줄 알았으나 몇 일이 더 걸린는지? 敦植도 食前에 오더니 朝飯 後에 온다. …

◎ 3월 26일 (음 2월 30일) 금요일

敦植은 오늘부터 중깃 드리고 木手는 오늘도 종일 문꼴을 드리였다. 종일 다락드리다 마랐다. 앞으로도 몇 일이나 더 할 것인가?

◎ 3월 27일 (음 3월 1일) 토요일

… 오늘도 敦植은 중깃 드리고 木手는 門꼴 드리였다. 종일 한 일이 건너방 문꼴과 뒤마루 분합문꼴과 대청뒤 문꼴 드리였다.

◎ 3월 30일 (음 3월 4일) 화요일 晴

오늘로 집지 일이 거이 끝나가는 것 같다. 일 始作 後 月餘가 걸리였다. 1個月이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것이 둘이 1個月이나 지난 35日에 끝나간다. 오늘은 敦植은 구루마루 귀틀을 걸고 木手 아저씨는 소로을 만들었다.

◎ 3월 31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木手 800원식 32日分 一金 25,000원 왕겨 40가마. 敦植 16,200원. (…) 오늘은 木手도 종일 와 구루마루을 놓고 敦植은 중깃을 드리고 외을 일겄다. 큰아번님, 둘재祖, 壹雨, 正奭, 撒雨, 然雨, 裕浩, 작근아번님, 안골祖, 弘植 등이 위을 걸것다. 下午에 木手는 일이 끝나 計算을 해 주는데 내 生覺에 日當 仟원을 生覺했으나 800원식 게산하자고 하여 마지못해 800원식 32日分 一金 25,000원을 드리고 왕겨 40가마. 敦植은 16,200원을 주었다.

◎ 4월 1일 (음 3월 6일) 목요일 晴

위 얼기 完. 洞里 몇 분이 와 위을 얼거주어 일직 끝나고 뒤똘도 多少첬다. 敏雨숙이 愁苦했고 농꼴 姜老人이 愁苦했다. 일꾼 1名은 감자 꼬추밭에 거름을 냈다.

◎ 4월 2일 (음 3월 7일) 금요일 晴

… 午前에 安榮來 君이 와 協助하여 농꼴 밭은 다 갈고 동욕꿀 山 산데 넘어 온 밭은 몸새을 부치고 午後엔 뒤엄을 져 냈다. …

◎ 4월 5일 (음 3월 10일) 월요일

… 오늘부터 初벽을 치기 始作했다. 水村아저씨와 농꼴 池億秀가 바르고 창용君은 흙을 셍기였다. 安仲場에서 문 짜는 사람이 와 문을 재여갔다.

◎ 4월 6일 (음 3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흙을 바르었다. 뒤 추녀가 남고 다 바르었다. 致雨가 와 부역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와 또 문을 재여같다. 오늘 온 사람이 금액 차이가 있어 결정했다. 짝 당 1,000원에 마치였다. …

◎ 4월 8일 (음 3월 13일) 목요일 雨

… 농꼴 미장이와 天벽치든 것을 午前 中 발랐다. 午後엔 맛벽칠 흙을 準備했다. 午後에 共和黨에서 왔다. 흙이 모자랄 것 같다.

◎ 4월 10일 (음 3월 15일) 토요일 晴

… 맏벽을 쳤다. 농꼴 池氏가 온다고 해 기다리다 가보니 仁川 같다고 하여 水村아저씨을 얻어 다 맏벽을 발랐다. 건너방 벽만 나맜다. …

◎ 4월 12일 (음 3월 17일) 월요일 晴

… 일꾼 2名을 얻어 苗板을 만들고 앞논 下 1斗 5升 논을 가래질하고 나는 맛벽 치다 냉긴 것을 바르고 일꾼들은 뒤 추녀 밑을 파라고 했다. …

◎ 4월 15일 (음 3월 20일) 목요일 晴

… 保溫苗板 비닐 두루다. 농꼴 金海星君을 데리고 비닐을 두루었다. 食前에 種子을 치었다. 昨年에 비해 2日이 늦었다. 수촌 아저씨와 億秀君은 재벽을 했다. 房 3개을 재벽했다. 池億秀 白米 1叭 支拂.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여 白米 1叭을 食前에 가저갔다.

◎ 4월 16일 (음 3월 21일) 금요일 晴

水村아저씨와 億秀君이 재벽과 白회을 바르었다. …

◎ 4월 17일 (음 3월 22일) 토요일 晴

… 수촌아저씨, 억수 재벽. 苗板 갈다. 苗板물이 많은 듯하나 갈았다. 午前 中 갈고 下午엔 벽 바르는데 조역을 했다. 오늘은 안방 後을 종일 바르었다. 잡부 1名을 얻어 같이 했다.

◎ 4월 18일 (음 3월 23일) 일요일

… 모짜리 쓰리다. 食前 일직 敎雨아저씨에게 水車을 얻어다 모짜리 물을 저내고 朝飯 後에 농꼴 양정호군이 물을 퍼주어 나는 모판을 써리였다. 수촌아저씨와 億秀君은 오늘 대청을 바르었다. 下午에 벽돌이 왔다. 소로 실었다.

◎ 4월 19일 (음 3월 24일) 월요일 晴

저녁에 魯氏家에 일 온 1名分 합해 一金 1,000원을 주었다. 苗板하다. 食前에 理髮을 하고 있으니 농꼴서 일꾼이 못 온다고 하여 급히 농꼴 가니 창용君은 술이 취해 있고 金海星君은 쌍품이난다고 하여 魯君을 ○成滿君이 얻어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모짜리을 始作했다. 한참은 가래질, 한 참 모짜리을 하고 下午에도 가래질을 했다. 池億秀君은 혼자 바르었다. …

◎ 4월 21일 (음 3월 26일) 수요일 晴

… 午前에 뒤엄 몇 바리 싣고 下午엔 水村아저씨와 벼 種子을 첬다. 일이 늦어가 조바심이 된다. 水村아저씨가 一金 1,000원만 달라고 하여 一金 1,000원을 드리고 鳳性의 품갑 400원과 水村아저씨의 100원 末抑 除外하면 500원이 더 간 셈이다.

◎ 4월 23일 (음 3월 28일) 금요일

房 놓았다. 水村아저씨는 房을 놓고 억수는 재벽 나문 것을 하고 안방 굴뚝을 쌓았다.

◎ 4월 24일 (음 3월 29일) 토요일

水村아저씨는 건너방을 놓고 억수君은 굴뚝 쌓고 下午에 共和黨 緊急會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新浦에 같다. 수고비로 一金 2,000원을 주었다. …

◎ 4월 25일 (음 4월 1일) 일요일 晴

億秀 혼자 美장 일을 했다. 벽에 양회 바르고 굴뚝 쌓고 부엌 손질했다. 敦植을 얻어 안 사랑 고래을 놓고 앞 현관 대똘을 나추었다.

◎ 4월 28일 (음 4월 4일) 수요일 雨

… 우중이지만 池億秀君은 부엌 白회와 방의 재벽을 바르었다. …

◎ 4월 29일 (음 4월 5일) 목요일 晴

… 美粧의 億秀가 왔는데 準備도 덜되고 苗板 물도 퍼야겠고 하다니 來日하자고 하여 보냈다. 오늘은 美粧일을 않고 비닐 苗板 비닐을 하고 논 뚜랑을 손질하고 와 妻와 같이 솟을 걸었다. …

◎ 4월 30일 (음 4월 6일) 금요일 晴

億秀君은 루다락 재벽하고 굴뚝 재벽했다. 白炭을 루다락에 바르어야겠는데 白炭이 오지 않아 못하고 있다. 다이루, 도기다시, 함석, 白炭等이 와야겠는데 일이 지연된다.

◎ 5월 2일 (음 4월 8일) 일요일

… 문 달라 와 7名이 종일 문을 달았다. 거이 달았다. 문은 비교적 잘 짯으나 후변이 좀 약하다. 문을 달고 나니 집이 한결 띄운다.

◎ 5월 4일 (음 4월 10일) 화요일 雲

安榮來 年 一金 4,500원 支拂. (…) 앞 논 5升지기와 1斗을 깜뚝을 하고 苗板 논에 물을 주었다. 큰 水門을 열어 놓고 물을 놓았다. 농꼴 安榮來君과 李창용 군이 왔다. 安榮來君이 품갑으로 10名치을 달라고 하여 一金 4,000원인데 5,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一金 4,500원을 주고 나중에 따지자고 했다. …

◎ 5월 6일 (음 4월 12일) 목요일

億秀君은 부엌 양회을 바르었다. 下午 늦게 문과 유리 나문 것을 달라왔다. 바틉 오늘 始作할라고 高棧 같다가 연장을 가저왔다. 來日부터 소을 농꼴로 일을 나간다. 오늘 朴榮熏을 얻어 농꼴 받원 5斗 앞 1斗 5升 받원 1斗를 갈았다.

◎ 5월 9일 (음 4월 15일) 일요일

… 水村아저씨는 마루 귀틀을 걸고 億秀君은 벽을 아라이[새로] 다시하고 타일을 부치었다. …

◎ 5월 10일 (음 4월 16일) 월요일

食前에 타일을 三溪에 가 실어오고 水村아저씨는 마루을 종일 놓아 億秀君은 부엌 타일을 부치고 修雨을 얻어 앞 축대을 했다. 下午에 億秀君과 같이 하여 일직 다 했다.

◎ 5월 11일 (음 4월 17일) 화요일

못이 모자라 물꼬을 일직하고 新浦에 가 못 2근을 사같고 왔다. 億秀君은 대똘 시아게을 하고

아저씨는 뒤마를 종일 놓았다. 午前 中하고 億秀君은 같다. …

◎ 5월 13일 (음 4월 19일) 목요일 청 雷雨

木手일이 오늘 끝났다. 귀마루을 종일 놓고 선반을 맸다. 일손을 일직 뗐다. 木手일로 새 대문까지만 하였으면 完全이 끝날 것을. 夕飯을 마치고 일한 勞賃을 計算하여 드리였다. 一金 4,000원. 저녁을 먹고 나니 천동, 번개가 쏘나귀와 함께 쏘다지더니 지났다. 木手아저씨는 越房에서 쉬시였다.

◎ 5월 18일 (음 4월 24일) 화요일 晴

食前에 들을 一週하고 농꼴 가 일꾼을 알아보니 20日 頃에 일꾼이 된다고 한다. 25日 頃에 해 달란 것인데 5日이나 이른 편이다. 今年엔 웬 일인지 苗가 자라지 않는다. 洞里 앞 役事라고 食前에서야 알았다. 못 나갈 형편이다. 一金 400원 하루 품갑을 냈다. …

◎ 5월 19일 (음 4월 25일) 수요일

… 일꾼 1名을 얻어 논귀을 파고 나는 가랐다. 예년에 비해 많이 갈았다. 일꾼 1名 얻은 것이 늦게 와 논귀을 파고 下午에 피사리을 시키었다. 신일은 일직 끝났다.

◎ 5월 21일 (음 4월 27일) 금요일

창용, 명훈, 최병국, 안영래, 박은복(제외), 양정호, 박은록妻, 億秀妻 7명. 敦植, 봉성. 일꾼 10名이 농꼴 골장 6斗와 5斗을 移秧했다. 농꼴 池億秀君이 8名 中에 女人이 2名을 얻고 敦植과 봉성君을 얻었다. 苗板 판장을 찌였는데 苗가 4斗는 더 심을 苗가 나왔다. 苗는 아직 어리다. 4,5일 後면 아주 좋겠다. 下午 늦게 苗가 나마 앞에 와 1斗 5升을 써리였다. …

◎ 5월 22일 (음 4월 28일) 토요일

前日 保溫苗 진 것이 많이 나마 女人 3名(朴玉女, 양정호妻, 박은록처)을 얻어 앞 1斗 5升을 심고 밭원 7升을 써리고 7升지기도 갈아 써리고 농꼴 밭원 5斗을 써리였다.…

◎ 5월 23일 (음 4월 29일) 일요일

일꾼 5名 (水村 아저씨 敦植 박玉女 박은록처 양장수母) 等을 얻어 농꼴 밭원 5斗을 移秧했다. …

◎ 5월 29일 (음 5월 6일) 토요일

1斗 移秧. 敦植이 소을 가저가게 되여 아논 後 1斗을 妻와 같이 苗을 심었다. 일직 심었다. 苗로 보면 移秧期가 적당하다. 아주 잘 심귀였다.

◎ 6월 8일 (음 5월 16일) 화요일

… 아논 4斗 5升과 밭원 3斗 5升을 일꾼과 합해 10名이 종일 심었다. 苗가 모자랐다. 苗대가 굴거서 아주 흡푸고 더디다. 保溫苗가 많이 심어서 다행이지 아주 모자랄 뻔했다. 오늘 심은 것도 석이 아주 적다. 오늘 일은 李昶鎔君이 해 왔다. 1. 李昶鎔 2. 安貞來 3. 池億秀妻 4. 池億秀 5. 洪明熹 子 6. 崔秉國 子 7. 崔成奉弟 8. 金互哲 妻 9. 徐斗鎔 妻. 女人 2名은 소품으로 왔다. …

◎ 6월 15일 (음 5월 23일) 화요일

除草. 창용, 억수, 정태, 명훈, 일꾼. 일꾼 4名을 얻어 농꼴 16斗 앞애와 3斗을 하고도 이른 듯하여 동욕꿀 깨끼을 했다. 나는 함석공이 있는데서 조역했다. 분주한 날이다. 논에 풀은 없어 아주 쉬웁다.

◎ 10월 6일 (음 8월 18일) 수요일

벼 비다. 7名. 아논 4斗 5升 밭원 3斗 5升은 비다 냉기였다. 농꼴서 일꾼이 9名이 온다더니 7名만 왔다. 昶鎔, 億秀, 正浩, 正來, 朴용훈, 崔正子, 洪氏 子 等이다.

◎ 10월 8일 (음 8월 20일) 금요일

오늘이 우리 일날을 6日에 닥아했다. 그리하여 敦植 1名을 얻어 前日 베 비다 냉긴 벼을 비고 밭원 뚝 밑 1斗 비고 아논 後 1斗을 비여 깔았다. 다소 냉기다.

◎ 10월 15일 (음 8월 27일) 금요일

우리 일날이다. 서리가 갑작히 일직 나린고로 벼와 各種 作物이 모두 시들었다. 오늘은 일꾼 11名이 농꼴 11斗落을 비였다. 아논 5斗는 비여 깔았고 벼을 뽀아 내는 것도 아주 가깝게 뽑았으나 저물도록 했다. 束數가 만이 난 듯. 오늘 일꾼

敦植을 비롯 明浩 昶鎔 貞來 光烈 洪明勳 子崔東國 子 朴銀祿 崔成奉 弟 光烈 弟.

◎ 10월 21일 (음 9월 3일) 목요일

농꼴 안논 5斗을 일꾼 2名을 얻어 종일 묵어 내여 쌓았다. 날씨가 기우러진다고 해서 급히 서둘러 묵었으나 아직 덜 마른 듯하다. 일꾼 昶鎔, 億洙 等이다.

◎ 11월 10일 (음 9월 23일) 수요일

午前에 벼 갈라 묶고 午後엔 농꼴 벼 실다. 洪明勳 일꾼 1名을 얻어 午前 中 벼 묶고 午後엔 앞 벼 끄디리다.

◎ 11월 11일 (음 9월 24일) 목요일

基德君을 얻어 午前 中 벼 묶고 午後엔 벼 끄디리였다.

◎ 11월 15일 (음 9월 28일) 월요일

우리 脫穀 叭數 未定 통가리 約 45叭 程度. 일꾼 敎雨, 水村아저씨, 균雨, 창용, 貞來, 淳浩, 敦植. 今年엔 收확이 아주 떨어지는 것 같다. 仁鎬가 종일토록 많은 協助을 했다.

◎ 12월 13일 (음 10월 26일) 월요일

망채 지붕을 해이다. 下午에 昶鎔君이 協助해 주다. …

◎ 12월 25일 (음 11월 8일) 토요일

… 李昶鎔에게 일품갑으로 1叭 17名 분. (…) 14叭 中 1叭은 일품갑으로 주라하고 11叭은 田榮基에게 長利 7斗 5升을 주고 2叭는 賣할랴고 한다. …

1972년

◎ 1월 30일 (음 12월 16일) 일요일

동욕굴로부터 집까지 길 닥고 따비 이르다.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 도자가 오늘中으로 오겠느냐고 하니 午後에 오겠다고 하여 몇 사람을 動員하여 따비 이를 곳의 나무을 비었다. 작은아번님을 비롯 裕浩, 基植, 範植 兄弟, 德雨, 轍雨, 敦植, 致雨 等이 나무을 비였다. 午後 4時부터 우리 일 길 닦은 것을 約 1時間하고 따비 이르는 것을 4時間하니 저녁 8時라 中止하고 來日하기로 했다. 저녁 대접(4名分)하고 2名은 우리 집에서 잤다.

◎ 2월 2일 (음 12월 18일) 수요일

… 농꼴 길을 뚤으랴고 농꼴 作人들이 議論이 되였으나 아버지 한 사람 반대하여 못하게 되였다. 농꼴 作人 모두 대찬성으로 나오고 있으나 아버지는 극구 反對하여 도자을 불렀다가 보냈다.

◎ 2월 8일 (음 12월 24일) 화요일

… 둘재祖母任의 물 몇 바게쓰 길어다 드리고 나무 좀 끄디려 드리였다.

◎ 2월 12일 (음 12월 28일) 토요일

妻와 여물을 썰고 있으니 悠雨가 와 協助했다. …

◎ 2월 21일 (음 1월 7일) 월요일

… 별일 없이 하루 해을 보냈다. 마실 갈다 와 致雨가 나무(미루나무)을 비여 協助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나무도 한 주 비였다.

◎ 2월 24일 (음 1월 10일) 목요일

致雨가 와 나무을 운반해 달라고 하여 가서 午前中 洞里靑年들이 運搬해 주었다. …

◎ 3월 24일 (음 2월 10일) 금요일

… 妻가 서울을 가게 되여 짐을 新浦까지 같다 주고 오다가 革命村에 오니 在潤家 집 짓는데 토를 닥고 있어 나도 오다가 協助했다.

◎ 4월 9일 (음 2월 26일) 일요일

… 일꾼 2名과 같이 농꼴에 今年 처음으로 苗板을 하고 肥料 復合 1包에서 얼마 남지 않게 끼언고 苗板은 16斗落 移秧이 不足할 듯이 했다. 앞에 와 가래질을 하고 앞 5斗落移 移秧. 苗板을 하고 밭원에 가 1斗와 7升의 가래질을 하고 아논 7升 묘판. 앞논에 가래질을 했다. (…) 일꾼 李昶鎔 朴銀祿氏.

◎ 4월 12일 (음 2월 29일) 수요일

… 悠雨에게 사랑채을 헐고 석은세을 베겨가라고 했더니 5名이 헐기 始作해서 일직 다 헐었다. …

◎ 4월 22일 (음 3월 9일) 토요일

… 高棧에 새마을 가꾸기 양회 50包 中 오늘 20포가 왔다. 기초는 양회 6包을 들여 했다. 일직 끝나고 갈다. …

◎ 4월 24일 (음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은 瑞雨氏와 敦植이와 木手일을 했다. 기둥 마른개질 하고 문 왁꾸을 대패질하고 敦植은 보거리을 다듬었다.

◎ 4월 24일 (음 3월 12일) 화요일

… 敦植은 敎會로 해서 安仲場도 볼 겸 간다고 못 오고 瑞雨아저씨만 오시였다. 오늘은 일직 끝날 줄 알았으나 오늘도 끝이 안나 來日 한참은 더해야 할 상싶다. 來日은 농골 在潤 家 짓는데 문왁꾸 짜라 가야 할 것이다. …

◎ 4월 26일 (음 3월 13일) 수요일

木手일은 午前 中하고 午後엔 原木으로 일을 갈다. 木手 연장은 우리 집에 두고 瑞雨氏, 敦植은 석까래 걸라 오게 된다. 午後엔 뒤엄을 농골로 실고 妻는 場에 갈다. 못을 4치 못 2관 2치 못 1관을 사왔다. 오늘 담일 하는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 제재하라 간 나무도 가저와야겠는데.

◎ 4월 27일 (음 3월 14일) 목요일

… 쌓은 사람 3名과 助役꾼 2名이 일해 반 以上 쌓아 來日이면 쌓는 것은 끝날 것 같다. 下午엔 철근이 없어 上三溪에 갔다왔다. 次後에 보자고 한다. 새마을 가꾸기로 아주 모범적인 부락이다.

◎ 4월 28일 (음 3월 15일) 금요일

오늘은 助役人夫 1名을 데리고 三溪里 兪基鍾君이 와 부럭을 쌓았다. 일은 제일 잘 한다. 月谷會館 지여 놓은 것 보니 아주 눈에 뛰인다. 일손은 일직 끝났다. (…) 부럭은 오늘로 다 쌓았다. 2日 後에 석가래을 걸어야겠다.

◎ 5월 1일 (음 3월 18일) 월요일

瑞雨氏와 敦植은 보드리 걸고 나는 조역했다.

◎ 5월 2일 (음 3월 19일) 화요일

瑞雨氏와 敦植은 석가래 걸고 농골 光烈君을 僉洙가 보내여 나와 아번님 等이 助役을 하여 석가래을 다 걸었다. 기다리던 함석과 울타리 담부럭이 도착했다. 午前에 와 종일 담을 세웠다. 쑥고개에 부탁한 物件을 다 잘왔으나 대문 돌조기가 분어오지 않아 안 되였다. 돈은 다 계산을 해서 보냈다. 權雨氏가 부탁치 않은 지붕용 사비도 매을 싣고 와 3,600원에 드려 놓았다. 權雨氏가 수고을 많이 했다.

◎ 5월 6일 (음 3월 23일) 토요일

… 洞里분들이 와 새을 올려 주었다. 일직 다하고 뒤의 흙을 좀 파냈다. …

◎ 5월 7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敦植이 와 瑞雨氏가 함석지붕을 하였다. 오늘 덧집을 다 걸고 함석 몇 장을 부치였다. 처음 하는 일이라 매우 더디다. 함석을 計算해 보니 13장 가량 모자란다.

◎ 5월 10일 (음 3월 27일) 수요일

… 食前부터 敦植이 일을 하여 午前 10時 頃에 끝났다. 지붕 해인 代로 一金 6,000원을 주었다. 瑞雨氏와 2日하고 비오는 날 하루 半日과 오늘 10時 頃에 끝난 代金이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투르고 지붕이 높아 보기 싫다. 논을 一週하고 샛 大門을 해 달았다.

◎ 5월 17일 (음 4월 5일) 수요일

大門 스라부하다. 食前에 月谷에 가 철근을 가저 왔다. 2名이 半日이면 할 일을 3名이 한 참했다. 7時에 始作해서 12時까지 하고 또 午後 4時에 하여 7時에 끝났다. …

◎ 5월 22일 (음 4월 10일) 월요일

… 李昶鎔君이 보내여 일꾼 4名이 왔다. 崔東柱, 魯善鎔, 金海星, 洪基源 君이 와 앞에 와 3斗 밭원 1斗을 移秧했다. 나는 농골 11斗 장 써리였다. …

◎ 5월 24일 (음 4월 12일) 수요일

우리 일 10名. 일꾼 10名을 崔光熙君이 해왔다. 일꾼은 고루 데려 왔다. 나는 비료을 끼언고 復合 22-22 2包 尿素 2包을 11斗 베 끼언고 1斗가량 넝기였다. (…) 집에 오니 사랑채도 3名

이 와 바르고 있다. 10名이 移秧을 일직 했다.

◎ 5월 29일 (음 4월 17일) 월요일

우리 일 5名. 池億洙君이 일꾼 4名을 보내여 농꼴 밭원을 심었다. 食前부터 잔득 흐리더니 종일토록 비가 나리였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맛고 일하기란 참으로 고역이다. 종일토록 안간힘을 쓰면서 일을 했다. …

◎ 6월 4일 (음 4월 23일) 일요일 晴

移秧 8名. 아논 4斗 5升 아논後 3斗 5升 苗板 7升을 나와 9名이 심었다. 苗板 나문것과 앞달뱅이가 남고 畢秧한 셈이다. 일꾼은 昶鎔君이 6名을 해오고 쇠품으로 鄭在潤과 梁正鎬君이 왔다. 苗가 4斗 移秧할 것은 나마 아번님이 가저가시고도 나물 것 같다.

◎ 6월 17일 (음 5월 7일) 토요일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億洙家에 가 일을 언제하느냐고 하니 來日부터 하겠노라고 하며 천벽할 것은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한다. 나는 포함해서 하자고 始作 前부터 한 것이 아니냐고 해도 안 된다고 하여 4,000원 더 주기로 했다. …

◎ 6월 18일 (음 5월 8일) 일요일

사랑채 천벽 始作. 三溪 朴斗秀君과 池億洙君이 와 천벽을 치는데 助役을 해주기로 하여 종일 助役을 하는데 매우 고던 일이다.

◎ 6월 19일 (음 5월 9일) 월요일

오늘도 斗秀君과 池億洙君이 오고 助役으로 昶鎔君을 데리고 왔다. 午後에 재벽흙을 처서 싫어왔다. …

◎ 6월 21일 (음 5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白灰바르다. 億洙, 斗洙, 昶鎔君이 와 白灰을 바르었다. 농꼴 在潤 家에서 白灰 나문것 2包와 수사 2개을 사같고 집에 나문 것 2包 半이 모자라 來日 사와야겠다. 인제 2日이면 맡은 일은 끝낼 것 같다. 아직도 나의 일은 굴뚝 대돌[댓돌] 음물 장판 등 아직 멀었다.

◎ 6월 24일 (음 5월 14일) 토요일

… 일이 끝난 後에 술 한 잔 대접하고 一金 10,000을 주어 4,5000원 中 5,500이 남고 다 주었다. 곳 농꼴 가 來日 農藥 끼언질 사람을 얻고 분무기을 얻어 놓고 와 앞 보리 빈 것을 꺼드리고 梁正鎬가 協助하여 일직 끝냈다. (그루도 갈다) 다소 마른 듯하나 그루도 갈았다. …

◎ 6월 25일 (음 5월 15일) 일요일

二化螟蟲이 심하여 늦었으나 끼언기로 하고 농꼴 金海景君을 얻어 농꼴부터 밭원 1斗 除外 다 끼언지였다. …

◎ 6월 30일 (음 5월 20일) 금요일

… 食前에 농꼴 가 2日 頃에 除草할 일꾼을 얻어 놓고 朝飯食事 後에는 妻와 같이 동욕꿀 밭밀을 비였다. 반가량 비고 떨랴고 하였으나 비든 끝에 비여 脫穀할랴니 저물었다. 푼무기는 없어도 마르지 않아 脫穀하기가 힘이 들었다. 알목만 드려 닦고 뒷일은 못했다. …

◎ 7월 2일 (음 5월 22일) 일요일

除草 5名. 일꾼 4名을 얻어 농꼴 16斗와 앞에 와 1斗 5升의 除草을 했다. 농꼴 16斗에 비료기가 없는 듯하여 肥料 1包1斤을 施肥했다. (…) 일꾼은 昶鎔, 光烈, 貞來, 免榮.(高憲植 家 쇠품)

◎ 7월 11일 (음 6월 1일) 화요일

… 安仲에 문갑 6,000원을 支拂하고 와 三溪 龍浩 家에서 借用해 온 一金 30,000원과 利子 1,800원을 합해 一金 31,800원을 支拂했다. 三溪 가다 斗洙의 美莊갑 떨어진 것 5,500원 月谷의 鐵근갑 떨어진 900원을 같다 주었다. …

◎ 7월 14일 (음 6월 4일) 금요일 晴

除草 5名. 일꾼 5名을 얻었으나 1名이 못 와 다합하여 5名이 除草을 농꼴부터 始作했다. 골장 11斗는 제대로 除草을 했다. 풀은 많이 않으나 피가 많다. 밭원 5斗는 피사리만 했다. 풀도 뽑을 만하다. 앞으로 와 아논 及 밭원 등 모두 했으나 除草製 農藥을 뿌리여서 인제 풀은 없어 논 뚜랑만 걷어 올리고 피사리만 했다. 그리고 밭원(농꼴) 5斗와 앞의 3斗 5升 苗板 7升 앞 3斗 等의 벼을 뽑아 물돌을 냈다. 昶鎔, 明勳, 龍勳, 水村아저씨 등.

◎ 7월 29일 (음 6월 19일) 토요일

… 집에 와 있으니 洪明勳君이 와 일품갑으로 2名치만 달라고 졸라대여 일금 1,200원을 주었다.

◎ 8월 4일 (음 6월 25일) 금요일 폭우

… 午後엔 농꼴 洪明勳 家 前 왜뚝이 터져 가서 協助했다.

◎ 10월 8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벼 100束을 비여 午後에 실어오다. 妻는 밭거지을 했다. 來일 밭원 5斗을 빌랴고 일꾼을 얻었으나 푸른 듯하여 물리였다.

◎ 10월 14일 (음 9월 8일) 토요일 晴

우리 일 11名. 벼 비다. 約間 이른 듯하다. 오늘 우리 일 날이다. 농꼴 아논 11斗을 비였다. 李昶鎔君이 일꾼 10名을 데리고 와 5斗는 비여 깔고 6斗는 비여 냈다. 아주 이트있다. 예년에 비해 1名은 追加했다. 5斗는 덜 덴 편이나 골장 6斗는 예년에 비해 낳은 편이다. 일꾼 李昶鎔, 朴銀祿, 洪明彦, 孫貞俊, 池億洙, 洪基德, 崔OO, 魯善龍, 崔光烈 等이다. 개운하다. …

◎ 10월 21일 (음 9월 15일) 토요일 雨

농꼴 아논의 벼을 묶을랴고 했으나 일꾼이 모두 못 와 창용이 아이들 2名을 얻어다가 묶기 始作하니 비가 오기 始作해 中止했다. 1/3가량 묶었으나 비마리을 하여 논뚜랑에 줄가리을 쳤다. 비는 종일 나리다가 下午 늦게 개다. …

◎ 10월 23일 (음 9월 17일) 월요일

前日이 우리 일날이다. 비가 와 하루 물리여 오늘 우리 일을 했다. 10名 농꼴 일꾼. 나와 같이 11名이 밭원 3斗 5升을 비기 始作해서 아논 5斗 2升을 비였다. 午前 中 가랑비가 오락가락하여 벼는 OOO로 묶어 냈다. 오늘 일꾼 朴銀祿, 洪明彦, 孫貞俊, 梁貞浩, 汝貞來, 洪基德, 池億洙, 池宣洙, 崔光烈, 崔末國 子 等이다. 모두 뽑고 일손은 적당히 띘다. 벼는 별로 잘된 것은 아니고 平年 作이다.

◎ 11월 11일 (음 10월 6일) 토요일 雲

昶鎔 白米 1叭代 10,500원 支拂. 食前에 또 脫穀機 受理. 昶鎔君이 와 來年度 품갑을 先拂해 달라고 졸라대여 우리 일도 잘해오고 하여 전번에 一金 3,000원과 今 7,500원 合 10,500원을 주었다. 白米 1叭. 來年度일은 18名으로 결정. …

◎ 11월 13일 (음 10월 8일) 월요일 雲雨

오늘부터 脫穀을 始作. 敎雨氏 家 脫穀을 같다. …

◎ 11월 14일 (음 10월 9일) 화요일 雨

敎雨氏 家일을 같다가 비가 나리여 또 품미였다. 前日 8叭 今日 20叭 脫穀했다. 前日 헤친 벼뭇은 더 맛게 되었다. …

◎ 11월 28일 (음 10월 23일) 화요일 雲雪

우리 脫穀 54叭. 오늘 일꾼 8名이 脫穀을 始作해 38叭을 脫穀했다. 昨日 脫穀과 合해 54叭다. 下午 3時 頃에 끝나고 나니 앞을 분간키 어렵게 눈이 나린다. 잠간 사이에 눈은 발목이 무치도록 나리였다. …

◎ 12월 4일 (음 10월 29일) 월요일 晴

茂植 家 脫穀 30叭. 우리 일날인데 하루을 물려 달라고 졸라대여 茂植 家에 양보을 했다. 벼가 잘 되지 않아 종일 脫穀한 것이 벼 30叭 덜었다. 來日도 우리 일을 못하게 되었다. …

◎ 12월 5일 (음 10월 30일) 화요일 晴

茂植 家일 일꾼이 不足이라 벼을 같다 脫穀하기에 아주 못 떨어 28叭 떨었다. 脫穀機는 우리 집으로 가져왔다.

◎ 12월 6일 (음 11월 1일) 수요일

우리 脫穀 43叭. 농꼴서 일꾼 4名과 脫穀 쪼차다니는 일군 致雨 除外 4名이 脫穀을 했다. 朝飯 後에 始作해서 43叭 떨었다. 今年 농사가 昨年보다는 나은 것 같으나 搗精을 하여야 알 일이다. 오늘로 脫穀은 끝났다. 날씨와 싸와가며 산곡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참으로 속쎄기은 해이였다. 總 收穫量은 110叭이다. 17,000餘束가량. …

◎ 12월 10일 (음 11월 5일) 일요일

敎雨 家 脫穀 55叭. 後坪에서 6時 頃에 와 일을 같다. 어제 저녁에 밤을 새우고 일을 하자니

종일토록 아주 피곤했다. 저물도록 일을 해 아주 많이 떨었다.

◎ 12월 11일 (음 11월 6일) 월요일 雲

아번님家 脫穀 38叭. 갈라 묶지 않고 脫穀을 처음으로 해 보았다. 할만하다. 일군 2名만 더 가지면 못할 것 같다. 10名 11名이만 충분하다. 洛光君에게 쌀돈으로 一金 2,000원을 내여 왔다.

1973년

◎ 1월 3일 (음 11월 29일) 수요일 晴

洪明勳君이 와 移秧하여 줄게 품갑을 달라고 하여 2名分 1,200원을 주었다. …

◎ 1월 5일 (음 12월 1일) 금요일 晴

食前에 李昶鎔君이 와 농꼴에 품갑을 주라고 自己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10名分 6,000원을 주었다. …

◎ 4월 12일 (음 3월 10일) 목요일

敎雨 敦植 等과 같이 푸마시 묘짜리 뚝을 가래질했다. 세 집의 묘짜리 뚝을 가래질을 하고 나니 下午에야 끝이 났다. …

◎ 4월 16일 (음 3월 13일) 월요일 雨

… 朝飯을 일직하고 씨을 치라 같다. 일꾼을 2명이나 얻었으나 오지 않아 妻와 같이 종자을 치고 왕겨숯을 뿌리고 비닐을 半가량 씨우니 비가 나리기 始作하였으나 비닐을 다 씨우고 나니 午鐘 頃이였다. …

◎ 5월 8일 (음 4월 6일) 화요일

소가 나가 신일을 못하고 午前 中 물 苗板에 물을 퍼내고 새마을事業하는데 協助하고 午後엔 뒤엄 몇 짐을 저냈다. 田氏 집 짓는데 새을 올린다고 하여 우리 집 짓는데 協助한 분 家의 집을 짓게 되어 가서 協助하여 주었다. 柱雨 家도 가드려다 보고 왔다.

◎ 5월 26일 (음 4월 24일) 토요일 晴雲

移秧 7名. 우리 일을 했다. 일군이 7名 李昶鎔, 洪明勳, 洪基德, 安貞來, 梁○○, 崔光 等이다. 나와 8名이 골장 6斗 심고 아논 5斗 심다. 2斗 가량 나만는데 1,200원에 마끼였다. 식전에 밭원 7升지기 물을 펐다.

◎ 5월 27일 (음 4월 25일) 일요일 晴

移秧 9名. 前일 온 사람위[외] 세품으로 梁正鎬 婦人 崔, 朴銀祿가 더 왔다. 농꼴 밭원 5斗와 아논後 3斗 5升지기 苗板 除外와 아논後 1斗와 밭원後 1斗을 심다 남았다. 苗가 많이 나맜다. 모자랄 줄 알았던 苗가 많이 남게 된다. 다소 드물게 심은 것이 흠이다.

◎ 6월 3일 (음 5월 3일) 일요일 晴

移秧 4名. 三溪에서 일꾼 4名을 얻어 아논 3斗와 苗板의 苗을 뽀아냈다. 苗찌기도 더디려니와 심기도 좋은 편이 아니라 三斗을 3참 심고 苗板苗을 찌다 냉기였다. 일꾼 품갑은 즉일로 2,400원을 計算했다. 前일 移秧할랴던 것을 今日하니 더딘 감이 있다. 洞里 移秧 狀況은 92%. 2,3日이면 끝날듯하다. …

◎ 6월 24일 (음 5월 24일) 일요일 晴

우리 일 除草 3名. 洪基德, 安正來, 崔光烈 等 나와 3名이 농꼴 16斗 앞에 와 1斗 5升을 했다. 풀이 할 만하나 물 마르는 논이 많다.

◎ 7월 6일 (음 6월 7일) 금요일 晴

作業狀況. 妻는 장에 가고 나는 除草 作業. 8일에 일꾼을 얻었는데 다 못다 할 것 같아 따로 떨어져 있는 논을 除草을 했다. 밭원뚝 밑 1斗와 아논後 1斗을 하다 세풀 빌 시간이 없어 냉기였다. …

◎ 7월 8일 (음 6월 9일) 일요일 晴

除草 6名. 李昶鎔, 安貞來, 洪明勳, 洪基德, 高憲植, 池亘秀 등. 李昶鎔君이 일꾼 6名을 데리고 와 除草을 농꼴부터 始作. 나와 같이 7名이 그 참에 농꼴을 마치고 앞에 와 除草을 하는데 앞뜰 1斗는 벼도 잘 되였으나 풀도 아주 많았다. 보이지 않아 대충했다. …

◎ 9월 15일 (음 8월 19일) 토요일

농꼴 池億洙君을 데려다가 장독대의 미장을 했

다. 每日 벼르다가 미장을 하여 놓고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午後 3時 頃에 끝마치였다. 양회도 不足이라 敦植에게서 1/3袋을 借用하여다가 끝마치였다. 세멘장[세면장]까지 겸하여 했다. 今年度 양회일은 끝매치였다.

◎ 10월 4일 (음 9월 9일) 목요일

우리 일 9名. 일꾼은 못 와 10名이 온다던 것이 8名이 왔다. 종일 비고 한참 뽀았으나 半도 못 내었다. 束數는 1,500餘束. 처음으로 만이 났다. 벼도 잘 되었다. 李창용, 홍명운, 홍기덕, 안정래, 노원영, 개발단 崔氏, 金氏, 광련家人 등이다.

◎ 10월 13일 (음 9월 18일) 토요일 雲

우리 일 7명. (…) 식전에 비방울을 하여 일이 중지데나 했으나 흐린 날씨에도 일을 했다. 바람이 일고 날씨가 차거워 일을 하기가 고디였다. 아논 3斗와 밭원 3斗 5升을 비였다. 3斗 5升 約 600여 속 안논 500여속 約 1,200속은 될 상 싶다. 거이 다 뽀고 다소 냉기였다. 일꾼 洪明彦, 李창鎔, 安貞來, 洪基德, 魯원영, 양정호 등.

◎ 10월 15일 (음 9월 20일) 월요일 晴

… 李창용 품갑으로 一金 貳仟원 가저가다. …

◎ 11월 7일 (음 10월 13일) 수요일

우리 脫穀 30叭. 우리 일날인데 中間에 脫穀機의 風具 가 故障이 나 몇 번이나 뜻어 고치느라고 아주 못 떨었다. 30叭 떨었다. 豫備軍이 協助해서 도움이 되였다. 이창용, 홍명훈, 김대철.

◎ 11월 8일 (음 10월 14일) 목요일

玄氏와 敦植이 脫穀은 해 준다고 하여 今日도 남자는 敦植과 玄氏, 철호, 철호 엄마, 현씨 부인 等이 와 脫穀機로 한번의 故障도 없이 잘 떨었다. 30叭 떨었다. 아주 많이 떨었다. 인제 남은 것은 밭원 안의 約 800束과 앞의 500餘束 뿐이다.

◎ 11월 20일 (음 10월 26일) 화요일

18叭 脫穀. 자고 일어나니 날씨는 냉하나 일은 해야겠기에 일을 시작했다. 12時 頃에 또 비가 와 품을 미였다. 벼는 18叭 脫穀을 했다. 참으로 속을 쎄기는 해이다. 박은녹, 홍명훈, 안정내, 노원영.

◎ 12월 22일 (음 11월 28일) 토요일

… 朝飯 後에 큰아번님 家에 가 共販벼을 들여 담아주고 仁性 家의 지붕 해이는데 영을 올려주고 高棧의 柱植氏 二男의 結婚에 갈다 왔다. …

Ⅳ. 여성 노동

1959년

◎ 3월 15일 (음 2월 7일) 일요일 晴

食前에 울타리 치던 것을 치고 朝飯을 마치고 妻와 함께 울타리를 둘렀다. …

◎ 3월 31일 (음 2월 23일) 화요일 晴

… 午後에 두엄을 저냈다. (…) 春子는 보리밭 맸다.

◎ 4월 7일 (음 2월 30일) 화요일 雲

… 出力을 나가 자갈을 피고[펴고] 저녁 먹기 알맞게 드러왔다. 妻와 春子는 앞밭 보리밭 매는데 春子는 둘재祖 當고모(묘순) 가는데 어린 것 업어다 주느라고(느런) 午前 中 못 매고 午後부터 맸다 한다. …

◎ 4월 8일 (음 3월 1일) 수요일 雲

… 點心을 하고 아논 밑 3말 가웃지기 뒤염[두엄]을 저내고 妻와 春子는 앞밭을 다 맸다. …

◎ 4월 27일 (음 3월 20일) 월요일 晴

… 물이 많아 잘 보이질 않아 그냥 와서 朝飯食事를 마친 나는 春子와 모자리 물을 퍼 그느릿다[그느르다; 돌보고 보살펴 주다]. …

◎ 5월 8일 (음 4월 1일) 금요일 雲

… 농꼴 옆밭 감자[밭]에 오줌을 주었다. 妻와 春子는 맸다. …

◎ 5월 9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친 나는 방아를 찌러 갈 텐데 소가 없어 걱정이다. 집에 소가 없으니 아쉽기 한량없

다. 그냥 지고 가기로 하고 한 가마를 지고 가고 한 가마는 春子와 妻 보고 져다 동욕골 마루에 놓으라 햇더니 같다놓아서 저다 찌었는데 白米 8斗이다. …

◎ 5월 20일 (음 4월 13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집안 食口가 참깨밭을 맬랴 하니 英浩가 말을 일터여[말을 잘 안 들어서. 당시 장녀인 영호는 화상을 입어서 자주 울고 보챘다고 한다] 나는 英浩를 보아주고 妻와 春子가 午前 중 다 매고 午後에는 春子와 앞 말 가웃(하)지기 물이 넘고 앞 한 마지기 닷 되지기 等은 물이 적어 퍼올리였다. …

◎ 5월 23일 (음 4월 16일) 토요일 晴

… 논을 돌고 드러와 석반[조반의 오기]을 마치고 모자리 가름[가래; 논에서 자라는 잡초의 일종]을 午前 中 따고 午後에는 그럭저럭했다. 春子는 아버지 家 밭 매고 妻는 떡(개피떡)을 했다. …

◎ 6월 10일 (음 5월 5일) 수요일 雲

… 앞밭 달뱅이 논을 파내고 朝飯을 마치고 물을 대고 敎雨氏 家 소를 달래다가 가라 쓰리고 모를 쩌다 느주니[느지막하게] 10時 頃은 된 뒤 妻와 春子 보고 심으라 하고 아버지 家 모심기 사람 몇 명 얻어 일 하는 데 일을 같다. …

◎ 6월 11일 (음 5월 6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妻는 참깨 一斗를 같고 場에를 가고 나와 春子는 옆밭 보리 비다가 午後부터는 나는 타작을 하고 春子는 비였다. …

◎ 6월 12일 (음 5월 7일) 금요일 雲

食前 일찍 이러나 前日 가리 논[갈아놓은 논] 옆밭을 妻와 두리 콩을 심고 朝飯을 마치고 妻와 春子는 앞밭 보리를 비였다. 10時 頃까지 나도 비고 나서 타작을 했다. …

◎ 6월 14일 (음 5월 9일) 일요일 雲

… 또 春子도 큰어머니가 벌서부터 말하여 데려다가 보리를 빈다.

◎ 6월 17일 (음 5월 12일) 수요일 晴

동욕골 논 맷다. (…) 妻와 春子는 참깨 밭 맸다.

◎ 6월 20일 (음 5월 15일) 토요일 晴

둘재祖父 일. (…) 妻는 보리방아 찌여왔다.

◎ 6월 23일 (음 5월 18일) 화요일 晴

食前에 春子와 앞 말 가웃지기에서 닷 되지기 물을 푸고 …

◎ 7월 1일 (음 5월 26일) 수요일 雨

… 朝飯 前에 妻와 나는 농골 가 비를 마즈며 꼬추밭에 肥料를 주다 모자랐다.(3斤 반) …

◎ 7월 2일 (음 5월 27일) 목요일 雲細雨

… 妻는 옆밭 감자가 석는 고로 캐고 나는 농골 밭 꼬초 모종을 했으나 아주 신원치[시원치] 않다. 春子는 큰집 모 심어 달라 해서 집에서도 안 심던 모를 시므러 같다. …

◎ 8월 12일 (음 7월 9일) 수요일 晴

오늘 안방 뜻기로 하고 食前에 흙 이기고 朝飯後에 집안 食口끼리 방을 뜻덨다. …

◎ 9월 2일 (음 7월 30일) 수요일 晴

… 朝飯 後에 부엌 앞 벽을 치고 午後에는 가마니를 妻와 4닙 치었다. …

◎ 9월 4일 (음 8월 2일) 금요일 晴

… 큰어머니 家에서 春子 여름네 데려다가 일 시키였다고 치마조고리 한 벌 해왔다. 약 2000원 어치는 될 성 십다고 한다. …

◎ 9월 14일 (음 8월 12일) 월요일 雲

… 午後에 妻와 같이 꼬추를 따라 같다. …

◎ 9월 26일 (음 8월 24일) 토요일 晴

三溪 新作路 자갈 次行. (…) 벼 22束 빔. (…) 妻와 春子는 옆밭 콩을 떨엇는데 약 4斗 가량은 되여 보인다.

◎ 9월 27일 (음 8월 25일) 일요일 晴

食前에 벼를 훌터 널고 종일 그럭저럭 했다. (…) 午後에는 나무가리 썩는 것을 헤처 다시 쌓았다. 妻와 春子는 꼬추 3斗 가량 땃다.

◎ 9월 29일 (음 8월 27일) 화요일 晴

… 炳哲 家 일 10名. (…) 妻와 春子는 수수깡 처내고 高棧 精米所에 가서 白米 4斗 半을 찌여왓다. …

◎ 10월 4일 (음 9월 3일) 일요일 晴

… 敎雨氏 가 일날이다. (…) 妻와 春子는 콩 꺾었다. …

◎ 10월 6일 (음 9월 5일) 화요일 晴

敎雨氏 家 일. (…) 妻와 春子는 콩을 떨었다. …

◎ 10월 7일 (음 9월 6일) 수요일 晴

仁成이 푸마실[품앗이] 일 致雨 家 해가는 일을 같다. (…) 妻는 앞 김장밭 거름을 주었다.

◎ 10월 9일 (음 9월 8일) 금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나문 것을 다 비기로 결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일직 끝났다. (…) 妻는 벼를 1叭 훌텄다.(받원 벼) …

◎ 10월 10일 (음 9월 9일) 토요일 晴

食前에 벼 한 짐을 저오고 朝飯 後에 耘植 家 일을 같다. (…) 妻와 春子는 벼를 훌텄다. 2叭(始作) …

◎ 10월 12일 (음 9월 11일) 월요일 晴雲

벼 끄디리다[끝어들이다]. (…) 妻는 찰벼 훌텄다. 53束.

◎ 10월 15일 (음 9월 14일) 목요일 晴

… 夕飯食事를 하고 마을 건너가 그네를 얻어다가 妻와 春子 보고 훌트라 하고 저드리다. …

◎ 10월 16일 (음 9월 15일) 금요일 晴

아버지 家 보리 갈려 가다. (…) 妻는 벼 훌텄다. 昨日 훌튼 것과 4叭 훌텄다. …

◎ 10월 18일 (음 9월 17일) 일요일 晴

… 나는 앞 벼를 끄디리였다. (…) 妻는 방아 찌여왔다. 白米 12斗이다. …

◎ 10월 25일 (음 9월 24일) 일요일 雲

오늘 다 훌틀랴고 일직감치 그네를 차리여 놓고 훌트니 오늘 種覽日[면사무소에서 그 해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사하는 일]이라 해서 10時 頃에 新浦面에 가서 종람 事項을 알아보고 왔다. (…) 妻와 春子가 훌텃는데 3叭 450斤 程度 훌텄다. …

◎ 10월 30일 (음 9월 29일) 금요일 晴

食前부터 敎雨氏 家 벼 타작 같다. (…) 春子는 큰집일 前日부터 가고 妻는 고구마 캐고 콩 털었는데 고구마 7斗 가량 콩 1斗 가량이라 한다. …

◎ 10월 31일 (음 9월 30일) 토요일 晴

… 朝飯床을 막 받고 있으니 큰어머니가 와서 春子 더러 벼를 훌터달라고 해서 보내기로 했다. 妻와 春子는 오늘 게골 바수기[벼 탈곡 과정에서 부러져 나간 이삭을 다시 모아서 바수어 추려내는 일]로 한 것이다. 영 10마름 엮고 妻는 게골 한 마당 부수었는데 叭 半이다. …

◎ 11월 4일 (음 10월 4일) 수요일 雲

… 妻가 게골 부스는 데 협조하고 담아 드리였다. 게골은 꼭 5叭 났다. …

◎ 11월 18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食前부터 終日 高棧精米所로 베[벼]를 소로 시러 20叭를 날렀다. 베를 대뚤[댓돌.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에서 올려놓고 시르니 사람이 필요치 않아 妻와 春子를 데리고 시렀다.

1960년

◎ 1월 2일 (음12월 4일) 토요일 晴

… 春子가 除雪을 하고 나는 그럭저럭하였다. …

◎ 1월 21일 (음 12월 23일) 목요일 晴冷

… 妻는 場에를 가 종일토록 英浩 보아주고 해를 보냈다. …

◎ 2월 27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 妻와 春子를 새끼를 꼬라 시키고 집에 도라오니 아직 다 못 꽈 양심적으로 미안한 生覺이 드러간다.

◎ 3월 1일 (음 2월 4일) 화요일 晴

… 아버지 家 허청 짓는데 조역 한 참 하고 집에 와 그럭저럭 해를 보냈다. 妻와 春子는 가마 4작을 첬다. …

◎ 3월 24일 (음 2월 27일) 목요일 晴

꼬추 栽培. 妻와 春子는 옆 보리밭 매였다. …

◎ 4월 2일 (음 3월 7일) 토요일 晴

… 오늘 作業事項은 鷄舍修理다. 妻, 春子 等

이 함께 하였다. …

◎ 5월 22일 (음 4월 27일) 일요일 晴

앞 닷 되지기 물이 적근 것 같아 春子와 물을 퍼 올리고 …

◎ 5월 25일 (음 5월 1일) 수요일 晴

食前에 春子와 앞 한 마지기에 물을 주고 …

◎ 5월 29일 (음 5월 5일) 일요일 晴

… 敎雨氏 家 일을 같다. (…) 妻와 春子는 창깨 밭을 매고 앞에서 물을 좀 펐다. …

◎ 5월 30일 (음 5월 6일) 월요일 晴

… 일직 드러와 春子와 앞논에서 물을 좀 펐다. …

◎ 6월 1일 (음 5월 8일) 수요일 晴

… 앞 닷 되지기에 물을 퍼 올리라 하고 일을 같더니 안 퍼서 春子와 일 같다 와서 펐다. 가운데 배미가 물이 많아서 모가 녹글 것 같아서이다.

◎ 7월 5일 (음 6월 12일) 화요일 晴

… 安雨 家 일을 같다. (…) 妻와 春子는 그루밭[보리를 매고 나서 콩을 심은 밭]을 맸다. …

◎ 7월 19일 (음 6월 26일) 화요일 晴

… 食前에 집안 食口가 앞밭 콩밭을 맸다. …

◎ 8월 17일 (음 윤 6월 25일) 수요일 晴

… 오늘은 물을 길어다 붓고 김장을 갈기로 作정하고 우리 三人이(妻 春子 私) 물을 저다 부었다. …

◎ 8월 27일 (음 7월 6일) 토요일 晴

… 午前에 하는 일 없이 놀고 春子는 꼬추를 땄다. 下午에 농꼴 창깨도 비야 되고 모자리 피사리도 해야될 것이라 春子 보고 비라 하고 나는 피사리를 하다 …

◎ 9월 22일 (음 8월 2일) 목요일 雲

… 食前부터 約 十時까지 방 바르고 天張 下午에는 옆밭 콩 꺾었다.(白豆) (…) 夕飯 後에는 妻와 春子는 수수 떨었다.

◎ 9월 25일 (음 8월 5일) 일요일 雲

… 朝飯을 마치고는 콩 꺾고 수수댕[수숫대] 치고 집안 食口가 종일토록 밭거지[밭걷이: 밭에 심은 곡식이나 야채를 거두어들이는 일] 콩가래까지 글거치웠다. …

◎ 9월 28일 (음 8월 9일) 수요일 雲晴

… 나는 매댕기[매끼]를 600餘個 틀었다. 妻와 春子는 흰콩(白豆)을 털었다. …

◎ 10월 2일 (음 8월 12일) 일요일 晴

오늘 安雨 家 일. (…) 妻와 春子는 콩 털고 달뱅이 버 훌텄다.

◎ 10월 8일 (음 8월 18일) 토요일 晴

吉雨氏 家 일. (…) 妻와 春子는 콩 띨었다. …

◎ 10월 10일 (음 8월 20일) 월요일 晴

柱雨氏 家 일. (…) 妻는 아논 일곱 되지기 食前에 저다 논베를 훌텄다. …

◎ 10월 12일 (음 8월 22일) 수요일 晴

… 朝飯 食事 後에 옆밭을 갈고 재를 저냈다. 妻와 春子는 골 다듬고 꾸미였다. …

◎ 10월 13일 (음 8월 23일) 목요일 雲

아버지 家 일. (…) 妻는 벼 훌고 春子는 아버지 家 일을 같다. 妻와 春子는 저녁나절 벼를 조파리게[비가 오기 전에 논에 흩어져 있는 볏단들을 아쉬운 데로 듬성듬성 모아서 쌓아두는 일. 조파려 놓으면 비가 와도 안쪽의 볏단은 덜 젖게 된다.] 했다. …

◎ 10월 14일 (음 8월 24일) 금요일 晴

食前부터 벼를 끄디리였다. (…) 妻와 春子는 벼를 훌텄다. …

◎ 10월 15일 (음 8월 25일) 토요일 晴

벼 끄디리였다. (…) 春子와 妻 보구 벼를 훌트라고 食前에 앞논에서 벼 100여 뭇을 끄디리여 주엇더니 春子는 아버지 家에서 일 해달라 해서 가고 妻 혼자 훌텃는데 약 以 半 가량 훌텄다. …

◎ 10월 16일 (음 8월 26일) 일요일 雨雲

… 날씨가 흐리고 비가 곳 올 것 같아 앞논 마른 베를 저드릴랴고 가서 보니 다 말랏다. 날은 거문 구름장이 모여들며 간혹 비방울을 던진다. 곳 妻와 春子를 불러 쌓으라하고 나는 저드리였다. …

◎ 10월 17일 (음 8월 27일) 월요일 晴
… 그네 3틀을 놓고 妻와 春子 나 三人이 앞 서 마지기를 훌텃는데 상상위로 소출이 안 났다. …
◎ 10월 18일 (음 8월 28일) 화요일 晴
食前에 아버지 家에 가 脫穀機를 갈다가 妻 春子나 三人이 종일 털었다. …
◎ 10월 19일 (음 8월 29일) 수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또 妻 春子 等 三人이 떨고 산에 나문 것도 저다가 오늘 찰베를 제위[제외]한 稻를 다 떨어 거더 모으고 해가 잇어 집가리[짚가리]를 쌓았다. …
◎ 10월 25일 (음 9월 6일) 화요일 晴
… 下午에는 白豆 떠는데 妻와 같이 하고 …
◎ 11월 11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 꼬추 20斤을 上植 家 소가 場에 가는데 언저 가지고 갈다. (…) 妻는 김장거리 무를 뽀아 다듬었다. …

1961년

◎ 3월 14일 (음 1월 28일) 화요일
… 朝飯을 마치고 妻와 春子에게 옆 보리밭을 글게 하고 나는 모처럼 등그럭 나무를 가서 午前에도 한 짐하고 下午에도 한 짐을 햇더니 피곤하다. …
◎ 3월 22일 (음 2월 6일) 수요일
… 고구마를 온상을 하엿다. 妻와 春子는 가마니치기 始作해서 3작을 첬다.
◎ 3월 24일 (음 2월 8일) 금요일
… 오늘은 春子와 종일토록 가마니 넉 작을 첬다.
◎ 3월 26일 (음 2월 10일) 일요일
新作路 出役. (…) 妻는 앞밭 보리밭을 맷다. …
◎ 4월 6일 (음 2월 21일) 목요일
모자리 갈다. (…) 妻와 春子는 보리밭 맸다.
◎ 4월 12일 (음 2월 27일) 수요일
보리가 울묵줄묵 한 것이 심한 데는 농클이 벗어나[보리가 조밀하게 모여서 자라는 것을 뜻함. 이 경우에는 보리가 웃자라 힘이 없어서 수확기에 쓰러지게 됨으로 미리 북을 주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북을 주고 모자리가 적근 듯 하여 좀 늘리였다. (…) 妻와 春子는 가마니 4짝글 첬다.
◎ 4월 13일 (음 2월 28일) 목요일 晴
… 朝飯을 하고 있으니 세재집 當叔母가 와 春子를 오늘 달라 해서 보냈다. …
◎ 4월 21일 (음 3월 7일) 금요일 細雨
… 孟植은 오늘 시간[세간] 날 집의 장판을 하였다. 春子도 같이 했다. 妻와 나는 가마니 몇 짝을 첬다. …
◎ 4월 22일 (음 3월 8일) 토요일
朝飯을 마치고 마실로 건너가니 오늘 원뚝머리 왜를 돌린다고 하여 아논 받원 논 작인들이 나가 왜를 돌리는데 종일 걸렸다. (…) 妻와 春子는 가마니 몇 짝을 첬다.
◎ 4월 27일 (음 3월 13일) 목요일
… 妻가 감자밭을 맨 것에 거름을 주다가 농꼴은 나맛다. …
◎ 5월 2일 (음 3월 18일) 화요일
食前에 春子와 앞 웅뎅이를 펐다. …
◎ 5월 8일 (음 3월 24일) 월요일
… 朝飯을 마치고 중거름 준 논에 물을 주고 논뚜랑을 손질하고서 창깨 갈 밭에 재 몇 짐을 전했다. 點心을 마치고 농꼴 밭에 창깨를 가랐다. (…) 창깨를 갈고 妻가 꼬추밭 매는데 협조했다.
◎ 5월 12일 (음 3월 28일) 금요일
… 앞 한 마지기가 감[논바닥을 갈 만큼 물이 충분히 고여 있지 않고 습기만 조금 있어서 땅바닥이 축축한 상태를 가리킴]이 날 것 같지 않아 물을 푸기로 하고 朝飯을 마치고 妻와 春子와의 交代로 나와 같이 앞 말 가웃지기 물을 거실러 올리였다. 종일 푼 셈이다. …
◎ 5월 15일 (음 4월 1일) 월요일
… 朝飯을 마치고 妻가 꼬추밭 매는 데 협조하

고 앞 웅뎅이를 푸고 下午에는 동욕꿀 밭베 [밭벼]부친 것을 매주었다. …

◎ 5월 19일 (음 4월 5일) 금요일

… 朝飯食事를 하고 앞 닷 되지기 물을 앞 말가웃지기(下)에서 물을 펐다. 午前 중 春子와 妻와 고리 두리래로 푸고 내가 용두래로 퍼서 겨우 심을 물을 시렀다. …

◎ 6월 3일 (음 4월 20일) 토요일

아버지 家 일. (…) 妻와 春子는 앞 닷 되지기 물이 말아[말라] 물을 펐다.

◎ 6월 6일 (음 4월 28일) 화요일

… 春子와 앞 웅뎅이를 펐다.

◎ 6월 10일 (음 4월 27일) 토요일

… 오늘 孟植이 농꼴 닷 마지기의 논을 매자고 해서 孟植과 함께 下午 2時 頃까지 다 매였다. (…) 妻는 보리를 몇 뭇 비여 떠렀다.

◎ 6월 11일 (음 4월 28일) 일요일

… 아버지 家 일꾼 6名이 일직 심은 논 18 마지기를 다 맸다. 妻와 春子는 옆밭 보리를 비였다. …

◎ 6월 12일 (음 4월 29일) 월요일

… 柱雨 家 소매거지[맨손으로 제초하는 것] 일 가다. 妻는 보리를 찌여왔다. 2斗 半 가량. 꼬추밭에도 肥料를 주고 북을 주엇다 한다.

◎ 6월 13일 (음 5월 1일) 화요일

… 둘재祖父 家 일을 갈다. 8名이 전부 더듬엇다. (…) 妻와 春子는 보리를 비였다.

◎ 6월 14일 (음 5월 2일) 수요일

… 朝飯 後에는 활작 개이여 春子와 妻는 앞밭 보리를 비고 나는 마당을 쓸고 타작을 했다. …

◎ 6월 22일 (음 5월 10일) 목요일

悠雨가 일로 富平 아저씨 家로 감. (…) 妻와 春子는 창깨 밭을 매고 비료를 주었다.

◎ 6월 24일 (음 5월 12일) 토요일

… 밭 달뱅이 해냈다.(깨묵모[깨의 모종]) 오늘 하로를 (…) 쉬게 되여 앞밭 달뱅이를 해내기로 하고 웅뎅이를 푸고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갈고 春子와 妻는 심고 모를 떠왔다. …

◎ 6월 25일 (음 5월 13일) 일요일

食前에 둘재祖父가 오시여 그루를 가라달라고 하시여 그루를 심어 드리였다. 午前에는 쉬고 下午에는 논뚜랑을 거실렀다. (…) 妻는 보리집[짚]대고 고구마를 심었다. …

◎ 8월 9일 (음 6월 28일) 수요일

… 食前에 멍석 몇 돌량[멍석을 짤 때 짠 줄을 세는 단위] 만들고 朝飯 後에 나무 한 짐 하고 종일 멍석을 만들었다. (…) 妻와 春子는 사랑방 도배.

◎ 9월 2일 (음 7월 23일) 토요일

… 朝飯 後에는 쓰러진 논의 똘을 치고 드러왔다. (…) 妻와 春子는 꼬추를 땄다.

◎ 9월 9일 (음 7월 30일) 토요일

… 妻는 창깨 1斗를 갈고 新浦場에 가 (…) 午後에는 꼬추를 땄다. 나도 같이 했다. (…) 저녁에 妻와 春子는 수수 떨었다. …

◎ 9월 17일 (음 8월 8일) 일요일

… 午後에는 농골 김장밭에 거름 주고 妻와 春子가 걷은 콩을 저드리였다. …

◎ 10월 6일 (음 8월 27일) 금요일

… 妻와 春子가 꼬추대 뽀은 것을 같다 너렀다. …

◎ 10월 12일 (음 9월 3일) 목요일

… 나는 오늘 집에 잇어 食前에 날씨 좋을 것 같이 않아 농꼴 벼를 조파리고 밭원 벼를 종일 저드리였다. (…) 妻는 벼를 1叭 훌텄다. …

◎ 10월 17일 (음 9월 8일) 화요일

食前에 벼 한 바리를 실어다 精米所에 두고 종일 농꼴 벼를 저드리였다. (…) 妻는 오늘 씨나락 種子를 훌텄다. 59束이나 훌튼 것이 치름叭밖에 안되니 소출이 안 난다. 저녁나절 妻는 방아를 찌러갈다가 고장이라 그냥 도라왔다. …

◎ 10월 21일 (음 9월 12일) 토요일

… 妻를 場에 보내는 것도 한 푼이라도 절략하는 妻인지라 妻를 보내는 것이다. 하기야 홍청그리면 우리 신접살림이 아주 말이 아닌 것이다. …

1962년

◎ 3월 6일 (음 2월 1일) 화요일 雲

… 朝飯 後에 妻와 叭마니 짜기 始作은 햇으나 雄浩가 덤비고 방에 놓[으]면 나오고 밖에는 아직 찬 기운이 잇어 내놓기가 안 되였다. 그리하여 어린 것 보며 午前 2닙 午後 2닙을 합 4닙을 첫다. 우리 가정엔 가마니치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마저 사쓴다는 것은 안 될 일인지라. …

◎ 4월 19일 (음 3월 15일) 목요일 晴

… 妻가 가마니를 짜자고 해서 가마니 5립을 첫다.

◎ 4월 21일 (음 3월 11일) 토요일 晴雲

… 오늘 妻와 가마니를 6닙이나 첫다. …

◎ 4월 23일 (음 3월 13일) 월요일 晴

… 朝飯을 朴書房(다섯재祖父 家)에서 하고 곳도라와 집을 추리고 울타리를 것어드리고 동아줄을 틀어 妻와 종일토록 손질했다. …

◎ 5월 2일 (음 3월 28일) 수요일 晴

… 午後엔 보리밭의 妻가 골고지[밭을 호미로 맨 후 죽지 않은 풀을 손으로 뽑아주는 일]하는데 協助했다. …

◎ 5월 17일 (음 4월 14일) 목요일 晴

… 妻와 압[앞] 웅뎅이를 펐다. …

◎ 6월 11일 (음 5월 10일) 월요일 晴

옆밭 보리 타작. (…) 朝飯食事 後에 웅뎅이를 푸고 妻와 옆밭 보리를 비고 午後엔 떠렀다. 타작을 하고 그러 모았다. …

◎ 6월 12일 (음 5월 11일) 화요일 晴

… 食前에 옆밭을 갈고 食事 後에 妻와 함께 그루를 가는데 좀 마른 듯 하여 잘 나올는지 곳비가 와야겠는데 …

◎ 6월 13일 (음 5월 12일) 수요일 晴

… 일직 食事를 하고 앞 웅뎅이를 푸고 妻는 前日 비던 앞밭 보리를 비고 나는 떨다가 그루를 아주 갈랴고 보리를 비였다. …

◎ 6월 16일 (음 5월 15일) 토요일 晴

… 둘재祖 일. (…) 논매기가 더디다. 일을 같다 오니 妻가 三溪 精米所에 가서 보리를 찌여왔다. 170斤을 같고 가 삭[삯] 뜨고[떼고] 精麥 6斗 3升이라고 한다. …

◎ 6월 19일 (음 5월 18일) 화요일 晴

敎雨 일. (…) 妻는 오늘 고구마 멫 폭을 심었다. …

◎ 6월 21일 (음 5월 20일) 목요일 雲

둘재조 가 일. (…) 妻는 고구마를 심엇는데 거름을 하지 않아 될 것 같지 않다. …

◎ 6월 23일 (음 5월 22일) 토요일 晴

… 午後에 妻가 농꼴 창깨 밭을 매는데 가보니 도저히 맬 수 없이 풀이 많아 그냥 파 없고 녹두를 심었다. …

◎ 7월 1일 (음 5월 30일) 일요일 晴

… 妻와 앞 웅뎅이를 푸고 …

◎ 7월 12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晴

… 朝飯 後에 앞 닷 되지기를 깨끼[논바닥이 마른 상태에서 김을 매는 것]를 妻가 協助해주어 午鍾 頃에 다 메고 午後엔 동욕꿀 논에 스슥(조)[서숙]를 가랐다. …

◎ 7월 14일 (음 6월 13일) 토요일 晴

… 妻는 성찮은 몸으로 女人 한 사람을 얻어 콩밭을 맸다.

◎ 7월 20일 (음 6월 19일) 금요일 雲

… 건모 부은 것을 멫 침 심고 妻는 음물 옆논을 심는다고 하여 심고는 …

◎ 7월 25일 (음 6월 24일) 수요일 晴

… 저녁 먹고는 앞 말 가웃지기에 물이 없어 妻와 좀 푸다가 마랐다. …

◎ 7월 31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 좁은 마루에 반을 차지하고 누어 잇으니 妻는 짜증을 낸다. 가마니 妻의 일을 살펴보니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느겼다. 어린 것들이 하로면 멫 차래식 옷을 버려다 놓고 마루 방등은 흙발로 올라내려 그것 치우랴 집안일 치우랴 그 뿐이면 괜찮에 밭으로 나가고 안일 치우며 누어 잇는 나

도 보기에 민망스럽다. …

◎ 8월 6일 (음 7월 7일) 월요일 雲

… 몸이 피곤하여 종일 누어 잇었다. 妻는 밭을 매고 저녁 나절은 짜증을 다 낸다. …

◎ 8월 7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기운을 차릴 수 없어 종일 누어 잇으니 밭에서 도라온 짜증을 다낸다. …

◎ 9월 25일 (음 8월 27일) 화요일 晴

… 午後엔 옆밭 콩을 妻와 같이 것고 저녁 나절은 벼 말린 것을 高棧 精米所에 갖다주고 왔다. …

◎ 9월 26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 朝飯 後엔 아논 벼를 비기 始作했다. (…) 妻는 高棧 가서 쌀을 찌였다.

◎ 10월 5일 (음 9월 7일) 금요일 晴

… 食前엔 前日 妻가 걷어논 콩을 저드리였다. …

◎ 10월 9일 (음 9월 11일) 화요일 晴

… 일을 끝나고 妻와 또 큰소리를 했다. 콩까래 잘못 글것다고 한 것으로이다. …

◎ 10월 13일 (음 9월 15일) 토요일 雲

… 食前에 도야지 오양 처내고 朝飯 後엔 앞밭 달뱅이 비고 벼를 손쳤다. (…) 午後엔 농꼴서 수수 처오고 수수깡을 처왔다. 저녁 수깔 놓곤 그냥 자리에 드렀다. 고구마는 오늘 妻가 캤는데 잘 앉은 편이다.

◎ 10월 15일 (음 9월 17일) 월요일 晴

… 오늘 朴書房 家 일을 갈 날인데 그만 두라고 해서 집에서 꼬추대를 뽑고 밭을 치웠다. 앞논뚜랑도 손질하고 물을 잡았다. 妻는 꼬추를 땄다. 저녁나절 다 뽑고 꼬추는 못 땄다. …

◎ 10월 16일 (음 9월 18일) 화요일

오늘 보리를 갈랴했으나 소가 없어 못 갈고 妻보고 메기[매끼]를 장만하라고 벼 70餘束을 갖다주고 …

◎ 10월 20일 (음 9월 22일) 토요일 晴

… 食前에 馬車가 간다고 해서 벼 두 가마를 갖다 언젔다. 朝飯 後엔 예정대로 벼 끄디리기를 했다. (…) 妻는 高棧 精米所로 가저간 벼를 찌을랴 午後에 가 늦게 찌여왔다. 105束이나 홀튼 것이 겨우 쌀 12斗빠게 안 났다고 한다. …

◎ 10월 23일 (음 9월 25일) 화요일 晴

오늘 농꼴 벼를 소로 끄디리였다. 다 끄디릴라고 妻보고 짐을 풀며 쌓으라고 하고 부지런히 다니여 일직 다 끄디리였다. …

◎ 10월 27일 (음 9일 29일) 토요일

… 妻는 씨나락을 1叭 훌고 나는 그럭저럭 영을 몇 마름 엮었다.

◎ 10월 29일 (음 10월 2일) 월요일 晴

… 내가 일을 못하는 고로 오늘 處女들 3名을 사서 벼를 훌텄다. 6叭를 훌텄다. …

◎ 10월 30일 (음 10월 3일) 화요일 晴

… 앞논뚜랑의 벼를 저다가 妻와 둘이 훌텄다. …

◎ 11월 1일 (음 10월 5일) 목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아버지 家 탈곡기를 갖다가 妻와 두리서 나문 벼를 훌텄다. …

◎ 11월 2일 (음 10월 6일) 금요일 雲

둘재祖 家 脫穀일. (…) 妻는 오늘 벼 몇 뭇 나문 것을 다 훌터 오늘로 우리 脫穀은 끝났다. …

◎ 11월 9일 (음 10월 13일) 금요일 晴

게꼴 드리였다. (…) 바람이 잘 불어 게꼴을 드릴 차려 놓았다. 조금 드리다가 飛野木 8代祖時香에 갖다오니 妻가 거이 다 드리였다. 집에 와 마당을 치웠다. (…) 게꼴을 드리고 나니 개운하긴 하나 아주 뚜드리였으면 한다. 妻가 많은 手苦를 했다. …

◎ 11월 10일 (음 10월 14일) 토요일 晴

게꼴 부시였다. 朝飯 後엔 생삼[게꼴과 같은 말]을 부시기 始作해서 妻와 둘이 종일 끝마치였다. …

◎ 11월 18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 妻는 高棧精米所에 가서 꼬추를 빠아왔다. …

1963년

◎ 1월 10일 (음 12월 15일) 목요일 雪雲

… 안방에서 새끼 한 사리를 妻가 協助해 9時

50分 頃에 끝났다.

◎ 3월 3일 (음 2월 8일) 일요일 晴

… 午後에 妻는 꼬추를 빠왔다. 高棧精米所에서. …

◎ 3월 14일 (음 2월 19일) 목요일 晴

… 午後에 妻와 함께 석까래를 걸었다. …

◎ 3월 26일 (음 3월 2일) 화요일 晴

… 點心을 먹고 妻와 울타리 띠을 둘르다가 저물어 中止했다. …

◎ 5월 17일 (음 4월 24일) 금요일 晴

닥아오는 일철을 앞두고 모든 準備를 하고 있다. (…) 妻는 감자밭 북을 주었다. …

◎ 5월 18일 (음 4월 25일) 토요일 晴

… 앞 말 가웃(上)에서 한 마지기로 妻와 물을 푸다가 말고 그럭저럭했다. …

◎ 5월 27일 (음 윤 4월 5일) 월요일 雲

동욕골논 移秧. (…) 朝飯食事 後에 동욕골 논에 물이 있어 쓰리였다. 윗배미는 물이 없어 쓰릴까 말까 하다가 웅뎅이를 믿고 쓰리기는 했으나 범벅이다. 妻는 如何間 쓰리라고 해서 妻와 같이 심고 午後엔 妻 혼자 심고 나는 아논 논뚜랑을 손질하고 뒤엄을 폈다. …

◎ 6월 6일 (음 윤 4월 15일) 목요일 晴

… 밭원을 쓰리고 妻가 協助해주어 일직 다 심고 모짜리도 심었다. …

◎ 6월 9일 (음 윤 4월 18일) 일요일 雲

다섯째祖 家 일. (…) 妻는 꼬추밭을 맸다. (…) 농꼴 참깨 간 것은 前般 장마에 씨가 잘 슨 것을 아주 빈 바닥을 맨들었다. 妻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참깨를 기웠으나 늦어 소출은 아주 감소다. …

◎ 6월 12일 (음 윤 4월 21일) 수요일 晴

… 李巡警이 巡察 나와 같이 오게 되어 집에 술도 한 잔 있고 해서 같이 드러와 술 한 잔 같이 나누고 朝飯食事도 같이 했다. 오늘은 종일토록 노랐다. (…) 妻는 참깨를 기운 것이 나 오늘 참깨 밭을 맸다.

◎ 6월 14일 (음 윤 4월 23일) 금요일 晴

… 下午 늦게 妻는 精米에 가 보리를 찌여 왔는데 精麥 1斗 半가량 搗精을 해왔다. …

◎ 6월 15일 (음 윤 4월 24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後엔 妻와 같이 농꼴 보리를 비고 午後에 그루를 갈고 일러 보리를 떨었다. …

◎ 6월 16일 (음 윤 4월 25일) 일요일 雲

아논 말가웃지기와 밭원 3.5 지기의 가래가 많아 소매거지를 했다. 일직 끝나 비도 올 것 같고 해서 앞밭 보리를 비였다. 비가 오게 되면 보리를 비여야 했을 것인데 妻는 참깨 밭을 맸다.

◎ 7월 5일 (음 5월 15일) 금요일 雲

아번님 家 일. (…) 애벌을 매고서 오늘은 훔치(除草)였다. (…) 妻는 三溪에 가서 밀을 빠라 갈다왔다. 小麥 31斤을 粉해왔다.

◎ 7월 10일 (음 5월 20일) 수요일 雲雨

오늘 食前엔 논과 같은 밭을 갈고 그루를 갈랴고 했다. 둘째祖 家 소로 밭을 가니 도저히 콩을 심을 것 같지 않고 밭 가운데서 샘이 솟사오른다. 朝飯後에 나는 일을 가고 妻가 호미로 심었다. …

◎ 7월 1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雨雲

… 妻는 生前 처음으로 바다에 가 맛을 잡아왔다.

◎ 7월 1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雲

… 場에 같다 와 콩밭을 妻와 함께 맸다. …

◎ 7월 22일 (음 6월 2일) 월요일 雲雨

… 건너방을 修理할랴고 살펴보니 쥐가 골을 메구어 全部 뜻지 않고선 안 될 것 같아 妻가 協助하고 떼를 떠다가 방을 뜯었다. …

◎ 7월 26일 (음 6월 6일) 금요일 雲

… 朝飯食事 後에 앞산에 가 싸리를 좀 비고 妻와 같이 농꼴 참깨 밭을 午前 午後를 通해 맸다. …

◎ 7월 27일 (음 6월 7일) 토요일 雲晴

… 오늘은 일직 서둘러 같고 妻와 콩밭을 맸다. …

◎ 7월 30일 (음 6월 10일) 화요일 雲

… 妻는 午後에 스슥(조) 밭을 맸다. …

◎ 9월 19일 (음 8월 2일) 목요일 晴

… 60束을 비여 點心 後에 소로 실어 다 脫穀機로 훌텄다. 妻가 協助하여 일직 훌텄다. …

◎ 9월 22일 (음 8월 5일) 일요일 晴

食前에 소를 같다가 방아를 찌려 같다. 朝飯食事을 하고 오라 해서 같더니 술이 취해서 午後에 오라고 해서 농꼴 밭으로 뒤엄을 저내고 妻 콩 걷은 것을 저오고 …

◎ 9월 23일 (음 8월 6일) 월요일 晴

… 妻는 高棧精米所에 가 搗精을 했는데 1叭 1斗 5승이 났다. …

◎ 9월 28일 (음 8월 11일) 토요일 晴

… 午前에 옆 밭 콩을 것고 午後에는 날 日氣가 흐려들고 觀象台發表에 依하면 오늘 저녁이나 來日 비가 올 것이라고 해서 농꼴 벼 비여 깐 것이 걱정이다. 妻와 함께 급히 서둘러 묶어냈다. …

◎ 10월 11일 (음 8월 24일) 금요일 晴

보리 갈다. (…) 찬찬히 始作해서 앞 옆 밭을 종일 갈았다. (…) 妻는 종일 재를 끼언저가며 앞밭을 꾸미였다. …

◎ 10월 12일 (음 8월 25일) 토요일 晴

보리 갈다. 食前에 아번님가 일꾼이 와 내가 팔이 아푼 고로 농꼴밭을 갈아주었다. 나는 재를 피고 妻는 꾸미였다. (…) 妻는 종일 옆밭을 꾸미였다. 今般 보리 가는 데 妻가 手苦가 많았다.

◎ 10월 14일 (음 8월 27일) 월요일 晴

… 저녁나절은 아논뚝 벼를 옮기고 妻는 콩을 脫穀機에 떨었다. …

◎ 10월 18일 (음 9월 2일) 금요일 晴

벼 떨다. (…) 妻는 벼를 셍겨주는데[탈곡기로 벼를 훑을 때 옆에서 볏단을 날라주고 협조해주는 일] 朝飯食事한 것이 치했는지[체했는지] 배가 아푸다고 종일 억지로 벼를 셍겨주었다. …

◎ 10월 21일 (음 9월 5일) 월요일 雲 쏘나귀

… 벼를 끄디리며는 妻가 쌓은 고로 많은 힘을 더렀다.

◎ 10월 23일 (음 9월 7일) 수요일 晴

앞논 벼 끄다리다. (…) 妻는 농꼴 밭원 벼 게꼴을 했다. …

◎ 10월 26일 (음 9월 10일) 토요일 晴

… 妻는 前日 脫穀한 게꼴을 드려 담은 것이 1叭도 못되고 百斤 가량이다. …

◎ 10월 29일 (음 9월 13일) 화요일 雲

… 前日 떤 게꼴을 妻는 드렸다.

◎ 10월 31일 (음 9월 15일) 목요일 晴

… 妻와 농꼴 아논을 떨기 始作해서 300餘束을 脫穀했다. …

◎ 11월 1일 (음 9월 16일) 금요일

… 오늘은 집에서 前日 脫穀한 穀草를 쌓고 妻는 게꼴을 드렸다.

◎ 12월 10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晴

… 妻가 쌀을 독에 붓고 여물 쓸고 쌀이 와 집에 저다 쌓고 하니 해가 같다. …

1964년

◎ 4월 27일 (음 3월 16일) 월요일 晴

… 벌써 거이 1個月前에 小麥粉 1包袋을 三溪精米所에 마긴[맡긴] 것이 오늘 국수을 눌렀다고 해서 妻가 찾아냈다. …

◎ 5월 3일 (음 3월 22일) 일요일 雲

… 午前에 妻와 울타리을 꼬매다가 …

◎ 6월 7일 (음 4월 27일) 일요일 雲晴

… 妻는 앞밭 보리를 지여 나도 한 참 비고 午後에 떨기 始作해서 밤 9時 頃에야 끈났다. …

◎ 6월 8일 (음 4월 28일) 월요일 雲

앞밭 보리를 해치울랴고 낫을 갈아 같고 밭에 나가니 큰아번님이 오늘 일꾼이 빠개져 일이 지장이 있으니 좀 오라고 하시여 (…) 논매기 일인데 몇일 後엔 사정에 못 이겨 같다. 妻는 아주 말리였으나 사정에 못이겨 같다. 그리했더니 妻가 다 비여놓았다.

◎ 6월 23일 (음 5월 14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어제 妻가 비던 밀을 실어다 놓고 …

◎ 6월 24일 (음 5월 15일) 수요일 晴

다섯재祖 일. 오늘부터 김 두벌 첫날이다. (…) 妻는 前日 떤 밀을 손질했는데 …

◎ 8월 15일 (음 7월 8일) 토요일 晴
… 妻는 오늘 김장을 부쳤다. 골을 다듬어 놓고 高棧으로 會에 參席했다.
◎ 8월 21일 (음 7월 14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엔 妻와 꼬추을 땄다.
◎ 8월 27일 (음 7월 20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妻와 농꼴 꼬추을 땄다. …
◎ 9월 24일 (음 8월 18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소를 갈다가 前日 빈 농꼴 벼을 실고 午後에 妻와 같이 훌텄다. …
◎ 10월 12일 (음 9월 7일) 월요일 雲
일꾼과 같이 앞 닷 되지기 한 마지기 말 가웃지기(上)을 저다가 떨었다. 과히 저물지 않고 끝났다. 妻가 좀 협조했다. …
◎ 10월 13일 (음 9월 8일) 화요일 雲
… 朝飯 後에 일꾼과 같이 보리을 갈았다. 일꾼은 재을 피고 妻가 꾸미는데 協助했다. …
◎ 10월 18일 (음 9월 13일) 일요일 晴
… 소를 부리기로 해서 소를 갈다가 농꼴 벼를 끄디리고 妻가 쌓았다. 일꾼은 일을 갈다. …
◎ 10월 23일 (음 9월 18일) 금요일 晴
담이 들어 注射을 놓고 종일 노랐다. 일꾼은 영을 엮었다. 소가 없는 고로 일깜이 없다. 妻는 들깨을 떨었는데 5斗는 된다고 많이 했다고 한다.
◎ 10월 25일 (음 9월 20일) 일요일 晴
… 저녁나절은 비가 올 듯하여 나문 벼뭇을 조파리였다. 妻가 協助했다.(쌓는데) …
◎ 10월 29일 (음 9월 24일) 목요일 晴
오늘로 벼는 거이 다 끄디리고 100束가량 나맜다. 종일 소를 부리니 저녁나절은 아주 피곤하다. 벼까리를 妻가 쌓아서 쉬웠으나 저물었다. …
◎ 11월 2일 (음 9월 28일) 월요일 晴
… 點心 後에는 妻와 게꼴을 드리다 냉기였다. …
◎ 11월 3일 (음 9월 29일) 화요일 晴
… 게골을 다 드리고 가리는데 아주 잘못 드리여 나물을 妻에게 했더니 잘한 편으로 대들여 言爭 끝에 妻가 꺽끌라는 心事로 대하여 급기야는 손찌검까지 되었다. …
◎ 11월 8일 (음 10월 5일) 일요일 晴
게꼴 부시였다. 妻와 게꼴을 종일 하였것만 드려 담진 못했다. …

1965년

◎ 3월 25일 (음 2월 23일) 목요일 風
妻와 같이 밭을 午前 中 매고 下午에도 매다가 마랐다. …
◎ 3월 26일 (음 2월 24일) 금요일 晴
妻와 함께 보리밭을 매기 시작했으나 하로 종일 매야 3고랑 매면 해가 진다. …
◎ 3월 28일 (음 2월 26일) 일요일 晴
… 妻가 오늘부터 앞밭을 매기 시작했는데 종일 한 앞 반가량 맸다. …
◎ 3월 30일 (음 2월 28일) 화요일 晴
보리밭을 午前 中 妻와 같이 매니 거이 다 매였다. …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食前 일직 일어나 농꼴 가서 種子을 치기 始作했다. (…) 가운데가 이가 빠진 것과 같이 모자랐다. 칠라고 妻보고 더 당그라고 하고서 아논 일곱 되지기 落種을 했다. …
◎ 4월 27일 (음 3월 26일) 화요일 晴
… 妻와 같이 울타리 띠 트렸다.
◎ 4월 29일 (음 3월 28일) 목요일 細雨
… 午前엔 妻와 농꼴 원뚝에 팥을 심고 모짜리 가름을 땄다.
◎ 5월 5일 (음 4월 5일) 수요일 雲
… 妻와 같이 앞웅뎅이을 퍼 미꾸리와 붕어을 많이 잡았다.
◎ 5월 23일 (음 4월 23일) 일요일 晴雲
… 妻와 모짜리 물을 푸고 오양 처낸 것을 멎짐 저냈다. …
◎ 6월 15일 (음 5월 16일) 화요일 晴
… 妻는 보리을 비고 나는 웅뎅이을 푸라 갈다. …

◎ 6월 18일 (음 5월 19일) 금요일 晴
… 妻는 어제 떤 보리을 드려 담았다. …
◎ 6월 27일 (음 5월 28일) 일요일
… 午後에 妻가 高棧 가서 搗精을 했다. …
◎ 6월 28일 (음 5월 29일) 월요일 晴
… 오늘 妻가 감자을 캔 것이 3叭 以上 나야 할 곳에서 감자 5斗가량 났으니 田穀도 아주 말할 것도 없이 수확이 감소다. …
◎ 7월 8일 (음 6월 9일) 목요일
妻와 같이 앞 웅뎅이을 퍼 흙이 축은 김에 깸묵모[깨의 모종]라도 할까 한 것이 물이 적어 앞 말 가웃지기(下)의 반을 막아 심었다. …
◎ 7월 10일 (음 6월 11일) 토요일 甘雨
移秧. (…) 비을 맞아가며 妻와 심었다. 앞 닷 되지기을 심었다. 소을 부린 고로 얼마 못 심었다. 食前에 사람을 얻어 볼까 하고 농꼴을 돌랐으나 못 얻었다.
◎ 7월 11일 (음 6월 12일) 일요일
오늘도 妻와 비을 맞아가며 종일 앞 1斗落 동욕골을 심었다. (…) 妻가 많은 심을 덜어주었다. …
◎ 8월 1일 (음 7월 5일) 일요일 晴
… 場에을 가야 할 것인데 場에 갈 氣分도 없고 妻가 그루밭이나 매자고 해서 그루밭을 맸다. …
◎ 8월 14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 김장밭을 갈았다. (…) 질어도 종자을 부칠랴고 妻와 같이 급히 가 골을 다듬으니 비가 오기 시작해서 中止하고 잇으니 …
◎ 10월 28일 (음 10월 5일) 목요일 晴
오늘은 糧도을 떨기로 妻와 같이 아논 일곱 되지기을 떨고 2叭을 떨었다. …
◎ 10월 30일 (음 10월 7일) 토요일 晴
… 午後에는 妻와 같이 脫穀을 했다. …
◎ 11월 25일 (음 11월 3일) 목요일 雲
妻가 국수을 눌리라 간다고 새벽밥을 지어먹고 서둘르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직 일어났다. (…) 玉吉精米所에로 간다고 해서 三溪 堤防까지 같다주고 왔다. 날씨가 좋지 않다고 妻는 그냥 도라왔다. …
◎ 12월 3일 (음 11월 11일) 금요일 雲
朝飯食事을 하고 高棧으로 搗精을 하라 같다. 11時 頃에나 始作해서 저녁 7時 頃에 다 搗精을 했다. 혼자 일하기란 아주 심들어 妻가 協助을 했다. …
◎ 12월 6일 (음 11월 14일) 월요일 雲晴
… 來日 公販인데 벼을 말려야 한다고 해서 멍석을 말리였다. 4叭을 말리였다. 저녁 나절은 妻와 같이 드려 담았다. …
◎ 12월 14일 (음 11월 22일) 화요일 黃風
… 妻가 親家에 가 오늘까지 안 오니 朝夕食事가 문제다. 바깟일도 妻가 있어야 할 일이 많다. 內外란 한시라도 떠날 것이 못된다.

1967년

◎ 2월 26일 (음 1월 18일) 일요일
… 가마니 칠 準備로 妻와 같이 집을 몇 뭇 추리였다. …
◎ 4월 9일 (음 2월 30일) 일요일
… 日氣도 不順하고해서 妻와 같이 가마니짜기을 해 6닙을 짰다. …
◎ 4월 10일 (음 3월 1일) 월요일
… 오늘 날씨도 가랑비 부슬부슬 妻와 가마니를 짯다.
◎ 4월 12일 (음 3월 3일) 수요일
… 妻는 보리밭을 매기 始作했으나 보리밭에 들어가 보기 싫다. …
◎ 4월 13일 (음 3월 4일) 목요일
… 下午엔 妻 보리밭 매는 데 協助했다. …
◎ 5월 6일 (음 3월 27일) 토요일
… 妻을 安仲場에 보내여 과수원에 참깨을 갈라고 보냈다 妻는 부치고 왔다. …
◎ 5월 26일 (음 4월 18일) 금요일
… 동욕 꿀 밑 배미는 소시랑으로 하고 妻가 심었다. 달뱅이도 심었다. …

◎ 6월 1일 (음 4월 24일) 목요일
… 妻가 安仲에 고구마을 심으라 가게 되어 (…) 安仲場에 가 과수원에 고구마 1500木 심고 왔다.
◎ 6월 4일 (음 4월 27일) 일요일
新浦에 나간지도 오래되고 해서 妻 고추밭 메는데 協助하다가 新浦에 나같다. …
◎ 6월 11일 (음 5월 4일) 일요일
일꾼은 일을 가고 妻와 같이 밭을 맸다. …
◎ 6월 15일 (음 5월 8일) 목요일
… 오늘서야 옆밭 보리을 비였다. 아직도 푸르다. 일꾼은 일을 가고 妻와 같이 비는데 쓰러져 아주 비기 나뻣다. 일직 다 비였다. …
◎ 6월 16일 (음 5월 9일) 금요일
… 저녁나절은 妻와 같이 고구마을 물을 저다 부우며 심었다. 오늘로 앞논 물이 아주 많이 줄어 2,3日 못 갈 것 같다. 일꾼은 일손만 되면 마실로 가 妻와 같이 웅뎅이을 퍼야 한다. …
◎ 6월 19일 (음 5월 12일) 월요일
… 그루에는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午前 中 妻와 같이 모종을 했다. …
◎ 6월 26일 (음 5월 19일) 월요일
食前에 아번님 家 그루을 갈고 朝飯 後에 妻는 安仲場에 밀을 비라[베러] 같다. …
◎ 7월 19일 (음 6월 12일) 수요일
… 朝飯 後엔 농꼴 李和鎔氏을 만날랴고 같다가 鹽田에서 술을 먹는데 가자고 해서 鹽田에 가 놀다가 下午에야 집에 오니 妻가 밀그루밭을 다 맸다. …
◎ 8월 14일 (음 7월 9일) 월요일 雨雲
… 下午 늦게 김장밭을 갈고 來口 김장을 부칠라고 한다. 妻는 참깨을 비였다. …
◎ 8월 17일 (음 7월 12일) 목요일 雲
… 질밭이나 妻는 下午에 농꼴에 무우을 부치였다.
◎ 8월 19일 (음 7월 14일) 토요일 雲
… 妻는 英浩을 데리고 콩밭 골고지을 했다.
◎ 8월 20일 (음 7월 15일) 일요일 晴
… 妻가 오늘 꼬추 따고 나는 저왔다. …
◎ 8월 22일 (음 7월 17일) 화요일 晴
… 妻 국수을 눌리라 가는데 저다 주고 와 집을 보았다. 저녁 나절 三溪가 국수을 저왔다. 12관이다. …
◎ 8월 27일 (음 7월 22일) 일요일 雲
… 午前에 아논 왜뚝을 뜻고 下午엔 妻가 꼬추 따는데 協助했다. …
◎ 8월 28일 (음 7월 23일) 월요일 雨雲
… 妻는 安仲으로 참깨을 떨라 같다. 1斗가량. …
◎ 8월 30일 (음 7월 25일) 수요일 雲
… 날씨가 좋지 않아 꼬추가 골아 妻는 꼬추 주무루다가 해을 보냈다. …
◎ 9월 20일 (음 8월 17일) 수요일
… 농꼴 밭원에 가 벼을 비였다. 늦게나가 午前에 40束 下午에 30束을 비고 찰벼 비여 깐것을 妻와 같이 묵고 풀을 한 짐 비였다. …
◎ 9월 21일 (음 8월 18일) 목요일
朝飯 後에 소를 같다가 벼을 실어다가 脫穀을 했다. 妻와 같이 午前 中에 했다. …
◎ 9월 26일 (음 8월 23일) 화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찰벼을 떨기 始作 妻와 같이 下午에 다해 담았다. (…) 下午엔 妻는 콩을 것고 나는 벼을 비였다. …
◎ 9월 27일 (음 8월 24일) 수요일 晴
… 妻는 콩을 떨고 나는 벼을 비라 같다. …
◎ 9월 28일 (음 8월 25일) 목요일 晴
오늘도 妻는 콩을 떨고 나는 苗板 벼을 午前中 80束을 비여 깔고 下午엔 妻와 같이 농꼴 밭원 벼을 묵으러 같다. …
◎ 9월 29일 (음 8월 26일) 금요일 晴
… 妻와 같이 앞밭 콩을 것어 떨었다. …
◎ 10월 5일 (음 9월 2일) 목요일
농꼴 밭원 벼을 실어 드릴랴고 소을 같다 실기 始作해서 妻가 쌓아 다 실고 밭원 가서 한 바리 실어왔다. …
◎ 10월 7일 (음 9월 4일) 토요일
… 妻는 안절부절 高棧 가서 찰벼을 찌고 와 저녁나절 新浦에 가 藥을 사같고 왔다. …

◎ 10월 9일 (음 9월 6일) 월요일 晴

… 妻는 英浩 雄浩을 데리고 安仲 고구마 밭을 캐라 같다 저녁 나절까지 안 와 걱정이 된다. 저녁 7時가 지나도 안 와 많은 염려을 했더니 8時頃에 妻가 도라왔다.

◎ 10월 11일 (음 9월 8일) 수요일 晴

벼 실다. (…) 妻가 쌓아 쉬웠다.

◎ 10월 15일 (음 9월 12일) 일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서둘러 妻와 같이 밭원뚝밑 1斗落 벼을 脫穀했다. …

◎ 10월 16일 (음 9월 13일) 월요일

… 아논 뚝에 줄가리[묶어 놓은 볏단을 일렬로 쭉 세워 놓는 일. 탈곡 전에 볏단을 말리는 효과가 있다.] 친 벼뭇을 실끼[싣기] 매우 고생했다. 妻가 協助해여 일직 다 끄디리였다. …

◎ 10월 19일 (음 9월 16일) 목요일 晴

보리 갈다. 일꾼 男 1 女 1名을 얻어 내가 신일을 하고 보리파종을 했다. (…) 施肥와 種子는 妻와 끼언지였다. …

◎ 10월 20일 (음 9월 17일) 금요일 晴

… 종일토록 妻와 같이 게꼴을 드리여 부시였다. …

◎ 10월 21일 (음 9월 18일) 토요일 晴

… 朝飯 後에 妻을 安仲의 고구마을 가질라 보낼랴 했으나 집의 일이 몰려 못 보내고 앞들 벼을 저들리는데 벼가리을 쌓으라 했다. 서둘러 저들여 下午 2時 頃에 다 저들리였다. 동욕꿀까지 저들리고 …

◎ 10월 24일 (음 9월 21일) 화요일 晴

벼 실다. (…) 못 실을 줄 알았으나 다 실으니 개운하다. 실어오면 妻가 쌓주어 아주 쉬웠다.

◎ 10월 28일 (음 9월 25일) 토요일 晴

… 朝飯 後 일직 서둘러 게꼴 부수기 始作해서 妻와 같이 게꼴을 부수었다. 게꼴은 오늘로 다 부수었다. …

◎ 10월 29일 (음 9월 26일) 일요일 晴

… 일직부터 서둘러 妻와 같이 벼 나문 것을 훌트니 3叭半 게꼴까지 해치우니 아주 개운하다. …

◎ 11월 4일 (음 10월 3일) 토요일 雲

… 妻는 新浦로 꼬추가루 빠라 가고 나는 영을 엮었다. …

1968년

◎ 2월 20일 (음 1월 22일) 화요일

가마니 7닙. 피곤도 하고 하여 쉬일까 했더니 妻가 서둘러 始作해서 前日과 같이 칠 것인데 7닙을 짜고서 여물이 떨어저 여물을 쓸었다. …

◎ 3월 18일 (음 2월 20일) 월요일

… 妻는 씨앗(種子)을 조금 부치였으니 일도 始作인 모양이다.

◎ 3월 22일 (음 2월 24일) 금요일 晴

일군을 사서 보리밭을 글글까 하다가 妻가 글겠노라고 해서 식구끼리 하기로 하고서 朝飯食事後에 시작했더니 농꼴 田氏가 밭 갈라와서 아이들 보구 하라고 해서 밀밭을 삽시간에 글것다. …

◎ 3월 26일 (음 2월 28일) 화요일 晴

일직 서둘러 재을 실고 꼬추와 감자을 일군도 안 얻고 妻와 같이 부치였다. 昨年만 해도 일군이 있었는데 今年엔 일군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

◎ 4월 19일 (음 3월 22일) 금요일 晴

… 오늘은 가마니을 꼬맸다. 妻는 보리밭을 맸다.

◎ 4월 20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女 1名을 얻어 妻와 같이 보리밭을 맸다. …

◎ 5월 22일 (음 4월 25일) 수요일 晴

… 女人 3名을 얻어 농꼴 밭원을 심을라고 했더니 弘植이 젓두리[곁두리]에 와 協助해서 앞밭원 1斗을 半 以上 심었다. …

◎ 5월 23일 (음 4월 26일) 목요일 晴

男子 3 女子 2名을 얻어 골장 6斗을 移秧했다. (…) 金鎭元氏 婦人이 와 한 참이나 協助해서 앞의 前日 심은 1斗 냉긴 것도 심었다. 저녁엔 아주 피곤하다.

◎ 5월 26일 (음 4월 29일) 일요일 雲

女子 일군이 4名인 줄 알았더니 3名뿐. 아논 1斗 5升과 苗板을 除外한 3斗 5升 배미을 심다가 2,3升가량 넹겼다. 점심새 밥 먹고 농꼴 金鎭元氏가 와 協助했다. 金氏 婦女이 人間美가 없느니 말이 많치만 우리에겐 잘하는 편이다. 무엇이던지 해 줄라고 한다. …

◎ 5월 27일 (음 5월 1일) 월요일 雲

… 午後엔 妻을 데리고 前日 심다 넹긴 것을 심고 밭원뚝 一斗을 심다가 조금 넹기였다. 농꼴 金鎭元氏가 와 협조해서 많이 심었다.

◎ 5월 28일 (음 5월 2일) 화요일 雲

처을 데리고 前日 심던 묘 몇 침을 심고 來日 移秧할 苗板의 피사리을 했다. …

◎ 5월 30일 (음 5월 4일) 목요일 雲

… 우리도 오늘 妻와 같이 苗板을 심었다. 下午 3時 頃에 다 심었다. …

◎ 6월 10일 (음 5월 15일) 월요일 晴

… 앞 말 가웃지기을 食前에 쓰리고 妻와 같이 심었다. …

◎ 6월 17일 (음 5월 22일) 월요일 雲晴

묘 20침가량 농골 밭원에 기우라고 妻보구 시키고 나는 소매거지(除草)을 했다. …

◎ 6월 19일 (음 5월 24일) 수요일 晴

女人 2名, 男 1名 얻어 보리을 비고 떨고 그루까지 갇았다. …

◎ 6월 20일 (음 5월 25일) 목요일 晴

午前에 보리을 떨어 널어놓고 妻 보구 들여 담으라 하고 來日 일할 논의 肥料을 끼언지였다. …

◎ 6월 28일 (음 6월 3일) 금요일 晴

農藥 분무. (…) 妻는 감자을 캤다. 3叭가량 된다.

◎ 6월 30일 (음 6월 5일) 일요일 晴

… 무덥고 더운 날 妻와 같이 밀을 비였다. …

◎ 7월 2일 (음 6월 7일) 화요일 晴

… 妻와 같이 小麥을 脫穀하고 …

◎ 7월 3일 (음 6월 8일) 수요일 雲

… 나는 高棧 회장을 갇섰다. (…) 도라와 보니 妻는 그루밭 모종을 하고 있다.

◎ 7월 6일 (음 6월 11일) 토요일 雲

… 妻와 같이 꼬추밭의 북을 주고 下午엔 앞 1斗5升는(下) 깨끼을 했다.

◎ 7월 7일 (음 6월 12일) 일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 일직 서둘러 妻와 같이 깨끼을 始作했다. 점심 먹고 한 참 하니 가랑비가 와 중지했다. …

◎ 7월 8일 (음 6월 13일) 월요일 雲晴

… 물을 또 푸고 해서 妻와 같이 종일토록 했다. …

◎ 7월 9일 (음 6월 14일) 화요일 雲晴

… 오늘은 먼점 깨끼 하다 마른[만] 앞 1斗5升(下) 논을 妻와 같이 깨끼을 午前 中 하고 下午엔 밭원 1斗落을 깨끼을 하는데 풀이 아주 만아 두 앞 치니 해가 저물어 도라왔다. …

◎ 7월 10일 (음 6월 15일) 수요일 晴

… 깨끼 하니 참으로 철양만하다[처량 맞다]. 1斗落을 妻와 종일 했으나 來日 또 해야겠다. …

◎ 7월 11일 (음 6월 16일) 목요일 晴

… 나는 집에 와 妻와 같이 前日 하던 아논뚝 밖 1斗의 깨끼을 午前 中 했다. …

◎ 7월 13일 (음 6월 18일) 토요일 晴

오늘도 농골 밭원의 除草作業을 妻와 같이 하는데 일할 氣分이 나지를 안는다. …

◎ 7월 14일 (음 6월 19일) 일요일 雲雨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와 英浩까지 데리고 농꼴 밭원 除草을 하다가 午前에 다하고 午後엔 移秧 못한 논을 갈라고 했더니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한다. …

◎ 7월 16일 (음 6월 21일) 화요일 폭우

… 朝飯食事 後에 妻와 같이 苗板을 해 심으라 가니 폭우가 나리기 始作해서 …

◎ 7월 22일 (음 6월 27일) 월요일 雲

… 妻를 서둘러 데리고 그루밭을 맸다. …

◎ 7월 23일 (음 6월 28일) 화요일 雲

… 食前에 그루밭 골을 갈고 朝飯食事 後에 일직 서둘러 후덥지근한 날씨 아래 妻와 같이 앞

밭을 午前 中 매고 下午엔 옆 밭을 맸다. …

◎ 7월 30일 (음 7월 6일) 화요일 晴

오늘도 종일토록 농골 아논 5斗 除草와 피사리을 대충 했으나 來日 한 참[논농사에서 작업 시간을 세는 단위] 거리는 나맜다. 妻는 그루밭을 맸다. 그루밭 혼자 매게 했다고 짜증을 내여 다투었다. …

◎ 7월 31일 (음 7월 7일) 수요일 晴

농꼴 아논 5斗을 午前 中에 除草을 끝내고 下午에는 밭원 5斗을 除草을 했다. (…) 점심 먹[고] 三溪에 가 肥料 重過石 1 鹽加 1을 실고 왔다. (…) 妻는 그루밭 매다.

◎ 8월 12일 (음 7월 19일) 월요일 晴

안房 뜻다. 朝飯食事 後 서둘러 같고 房을 뜻기 始作해서 妻와 같이 下午 4時 頃에 다 놓았다. 房 뜻는 기술者가 별 수 없다. 우리는 기술者을 얻어 방을 뜻어 본 적이 없다. …

◎ 8월 18일 (음 7월 25일) 일요일 晴

… 午前에 妻와 같이 꼬추 5,6斗 가량 따고 下午엔 도야지 우리의 콩크리을 했다. …

◎ 9월 7일 (음 윤 7월 15일) 토요일 雲

… 日氣도 좋지 않아 꼬추를 딸까 하다가 下午에야 妻와 英浩가 땃다. …

◎ 9월 10일 (음 윤 7월 18일) 화요일 晴

妻는 콩밭 골고지 하고 나는 뒤밭뚝을 뜻다.

◎ 9월 18일 (음 윤 7월 26일) 수요일 晴

… 作業은 妻와 같이 꼬추을 땃다. …

◎ 9월 22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午前에 앞 밭달뱅이을 비고 13束 마당을 손질하고 妻는 콩닢을 땃다. …

◎ 9월 24일 (음 8월 3일) 화요일 晴

午前에 妻가 김장밭을 손질하여 協助하고 下午엔 농골 아논 쓰러진 것을 비고 하루해을 보냈다.

◎ 9월 30일 (음 8월 9일) 월요일 晴

… 妻는 前日부터 대추을 땃다. 오늘은 사람을 얻어 땃는데 約 1叭는 될 상 십다. …

◎ 10월 8일 (음 8월 17일) 화요일 雲

… 妻는 흰콩(白豆)을 떨었다.

◎ 10월 12일 (음 8월 21일) 토요일 晴

… 妻는 黑豆을 떨었다. 約 16斗는 될 상 십다. 많이 났다.

◎ 10월 27일 (음 9월 6일) 일요일 晴

… 밭원 찰벼을 실기 始作해 일직 다 실고 妻가 농골 꼬추대을 뽀아 벼뭇을 늘어 놓았다. …

◎ 10월 30일 (음 9월 9일) 수요일 晴

… 前日부터 벼 끄디리기 始作해서 오늘도 종일 실었다. 妻가 쌓았다. 來日이면 앞 벼는 다 디려 올 것 같다. …

1971년

◎ 1월 2일 (음 12월 6일) 토요일 溫晴

… 妻는 搗精 次 高棧 같다. …

◎ 3월 23일 (음 2월 27일) 화요일

… 妻는 搗精 次 高棧 같다. …

◎ 5월 18일 (음 4월 24일) 화요일 晴

… 피사리도 빌리고 일이 쌓이고 싸이여 妻보고 農藥을 끼언지라 하고 아논 물을 아논 및 1斗에 대는데 …

◎ 5월 21일 (음 4월 27일) 금요일

창용, 명훈, 최병국, 안영래, 박은복(제외), 양정호, 박은록妻, 億秀妻 7명. 敦植, 봉성. 일꾼 10名이 농꿀 골장 6斗와 5斗을 移秧했다. 농꼴 池億秀君이 8名 中에 女人이 2名을 얻고 敦植과 봉성君을 얻었다. 苗板 판장을 찌였는데 苗가 4斗는 더 심을 苗가 나맜다. 苗는 아직 어리다. 4,5일 後면 아주 좋겠다. 下午 늦게 苗가 나마 앞에 와 1斗 5升을 써리였다. …

◎ 5월 22일 (음 4월 28일) 토요일

前日 保溫苗 진 것이 많이 나마 女人 3名(朴玉女, 양정호 妻, 박은록 처)을 얻어 앞 5升 1두 1斗 5升을 심고 밭원 7升을 써리고 7升지기도 갈아 써리고 농꼴 밭원 5斗을 써리였다. …

◎ 5월 23일 (음 4월 29일) 일요일

일꾼 5名 (水村 아저씨 敦植 박玉女 박은록처

양장수母) 等을 얻어 농꼴 밭원 5斗을 移秧했다. …

◎ 5월 29일 (음 5월 6일) 토요일

敦植이 소을 가저 가게 되여 아논 後 1斗을 妻와 같이 苗을 심었다. …

◎ 6월 5일 (음 5월 13일) 토요일

8日날 移秧할 논을 곱써래를 놓았다. (…) 妻는 前日 심다 냉긴 논을 심고 밭을 맸다. …

◎ 6월 6일 (음 5월 14일) 일요일

妻와 같이 앞 1斗5升(下)을 심었다. (…) 못 다 심을 줄 알고 妻가 서둘러 일직 다 심었다. …

◎ 6월 8일 (음 5월 16일) 화요일

우리 移秧 9名. 아논 4斗 5升과 밭원 3斗 5升을 일꾼과 함해 10名이 종일 심었다. 苗가 모자랐다. 苗대가 굴거서 아주 흡푸고 더디다. 保溫苗가 많이 심어서 다행이지 아주 모자랄 뻔했다. 오늘 심은 것도 석이 아주 적다. 오늘 일은 李昶鎔君이 해 왔다. 1. 李昶鎔 2. 安貞來 3. 池億秀妻 4. 池億秀 5. 洪明熹 子 6. 崔秉國 子 7. 崔成奉 弟 8. 金互哲 妻 9. 徐斗鎔 妻. 女人 2名은 소품으로 왔다. …

◎ 6월 12일 (음 5월 20일) 토요일

… 가마니을 챙기고 재간을 妻와 같이 지였다. …

◎ 6월 27일 (음 윤 5월 5일) 일요일 雨

朝飯食事 後에 妻와 같이 그루을 가랐다. 그루라야 앞 얼마 안 된다. …

◎ 7월 1일 (음 윤 5월 9일) 목요일 雨

… 妻는 동욕굴 감자을 캤다. 그리고 앞 달뱅이을 비을 맞아가며 妻와 같이 했다. …

◎ 7월 5일 (음 윤 5월 13일) 월요일

… 妻와 같이 일직 서둘러 밀 그루을 갈았다. 午前 中 다 갈고 모종까지 했다. …

◎ 7월 12일 (음 윤 5월 20일) 월요일

… 오늘은 妻와 같이 그루밭을 맸다. …

◎ 7월 15일 (음 윤 5월 23일) 목요일

… 午鐘때 小麥을 高棧 다 실어다 주고 오니 妻가 製粉했다. …

◎ 7월 18일 (음 윤 5월 26일) 일요일

… 妻는 밀 그루갈을 맸으나 아주 질다. …

◎ 7월 24일 (음 6월 3일) 토요일

… 앞밭 그루밭 매다. (…) 午後도 妻와 같이 밭을 맸다. …

◎ 8월 3일 (음 6월 13일) 화요일

안 사랑방을 놓기로 하고 食前에야 흙을 파다 놓고 준비을 했다. 妻가 협조하여 일직 놓았다. …

◎ 8월 7일 (음 6월 17일) 토요일

온 가족이 동욕꿀로 가 가시나무을 치고 밭을 늘리였다. 午前 11時까지 하고 나만 除外하고 모두 바다에 갔다. 바다에 가 삐죽 3사발 가량 잡아 같고 왔다. 下午 3時 頃에 또 온 家族이 동욕꿀 가서 밭을 늘리였다. 온 家族이 같이 하니 能率도 오르려니와 힘도 아주 덜 드는 듯하고 氣分도 좋다.

◎ 8월 8일 (음 6월 18일) 일요일

… 下午엔 동욕꿀 밭을 前日하다 냉긴 것을 오늘도 家族과 함게 하였다.

◎ 8월 9일 (음 6월 19일) 월요일 晴

… 妻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 삐죽을 잡아 왔다.

◎ 8월 11일 (음 6월 21일) 수요일

… 온 식구가 바다에 가 삐죽 1斗 가량 잡아 같고 왔다.

◎ 8월 12일 (음 6월 22일) 목요일

… 午後에는 妻와 같이 꼬추밭 골고지을 했다. …

◎ 8월 13일 (음 6월 23일) 금요일

朝飯 後에 雄浩와 大浩을 데리고 싸리을 비라 같다. 영호와 妻는 고추밭 골고지을 같다. 싸리을 비라 같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골고지을 하고 왔다. …

◎ 8월 24일 (음 7월 4일) 화요일

… 妻와 아이들은 콩밭 골고지을 했다.

◎ 8월 30일 (음 7월 10일) 월요일

… 그냥 와 참깨을 비였다. 妻는 꼬추을 땄다. …

◎ 8월 31일 (음 7월 11일) 화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 柱植氏 家에 가 고압식

품무기[분무기]을 얻어 다 놓고 (…) 점심을 먹고 1時 半 頃에 서둘러 논에 가 아논부터 藥을 끼언기 始作해서 10斗落가량 끼언지었다. (…) 雄浩와 妻가 같이 끼언지였다.

◎ 9월 1일 (음 7월 12일) 수요일

… 妻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농꼴 논 16斗에 農藥을 끼언지었다. …

◎ 9월 3일 (음 7월 14일) 금요일

… 下午엔 妻 꼬추밭 풀 뽑는데 가 協助했다.

◎ 9월 7일 (음 7월 18일) 화요일

… 妻와 같이 삐죽 1斗 以上 잡아왔다. …

◎ 9월 9일 (음 7월 20일) 목요일

… 妻은 오늘도 바다에 같섰다. 前日만도 못 잡았다.

◎ 9월 18일 (음 7월 29일) 토요일

… 妻는 新浦에 가 고춧가루를 빠같고 왔다. …

◎ 10월 22일 (음 9월 4일) 금요일

보리을 갈랴고 했으나 날씨가 어이될른지 몰라 妻와 같이 농꼴 밭원의 벼는 妻와 같이 묵었다.

◎ 10월 24일 (음 9월 6일) 일요일

밭원 뚝 밑 1斗 찰벼을 실어오고 妻는 脫穀을 했다.

◎ 10월 25일 (음 9월 7일) 월요일

… 妻는 前日 실어온 벼 100餘束을 훌텄다.

1972년

◎ 1월 8일 (음 11월 22일) 토요일 溫

… 가마니 짜기을 다소 늦게 始作해서인지 5닙짜고 말았다. 팔이 아파 妻가 바디질을 많이 했다. …

◎ 3월 12일 (음 1월 27일) 일요일

食前에 보리 갈 밭에 재을 피고 비료을 끼언고 보리밭에 비료을 끼언고서 學校에 나갈다가 監督을 끝내고 午後에야 왔다. 밭은 妻가 꾸미였다.

◎ 3월 13일 (음 1월 28일) 월요일

… 午前 中 다 갈고 午後에 妻와 같이 농꼴 보리밭을 글그라 같다오니 …

◎ 4월 5일 (음 2월 22일) 수요일

… 妻와 大浩은 植木日에 나무을 심었다고. 100本 가량.(니기다송) …

◎ 4월 8일 (음 2월 25일) 토요일

사랑채을 헐 準備로 울타리 겸 쌓았든 집가리을 옮겨 쌓았다. 뒤곁 산으로 옮겨 쌓는데 妻와 같이 종일 했다. …

◎ 4월 12일 (음 2월 29일) 수요일

… 午前 中 다 갈고 下午엔 妻와 같이 농꼴 가 종자을 치고 비닐을 半가량 싸두었다. …

◎ 5월 19일 (음 4월 7일) 금요일

… 妻는 동욕굴 논을 移秧했다. 우리 모로 첫모을 심었다.

◎ 5월 30일 (음 4월 18일) 화요일

前日 苗찐 것이 나마 앞 1斗 5升(下)을 써리여 妻와 같이 심었다. …

◎ 6월 3일 (음 4월 22일) 토요일 晴

밭원뚝 1斗을 써리여 같고 妻와 같이 심었다. …

◎ 6월 6일 (음 4월 25일) 화요일 晴

… 妻는 꼬추밭을 맸다. …

◎ 6월 12일 (음 5월 2일) 월요일

… 午鐘에 누었다가 妻와 같이 논을 맸다. …

◎ 6월 23일 (음 5월 13일) 금요일

… 妻는 앞 밭의 봄 보리를 비는데 나도 틈틈이 協助하며 일의 助役도 했다. …

◎ 6월 28일 (음 5월 18일) 수요일

… 앞 말 가웃지기上의 除草을 했다. (…) 일직 끝내고 妻의 보리 생삼 부수는데 같이 하고 …

◎ 6월 29일 (음 5월 19일) 목요일

… 妻와 같이 꼬추밭 북을 주고 午後엔 장마대비로 집안 배수로을 쳤다. …

◎ 6월 30일 (음 5월 20일) 금요일

… 朝飯食事 後에는 妻와 같이 동욕꿀 밭밀을 비였다. …

◎ 7월 4일 (음 5월 24일) 화요일

밀그루을 갈랴고 나가니 비가 나리여 앞으로 많은 비을 우려 갈았다. 약간 지른 편이다. 나는

갈고 妻는 콩을 심었다. …

◎ 7월 6일 (음 5월 26일) 목요일 쏘나귀

午前 한 참 농꼴 그루밭을 매고 와 妻는 꼬추 참개 밭으로 가고 나는 아논 後의 1斗 除草을 하라 갈다. …

◎ 7월 7일 (음 5월 27일) 금요일 雲

… 妻와 같이 개간田의 꼬추 북을 주고 동욕골 논의 풀을 뜻어주고 앞 밭 달뱅이도 풀을 뜻어주었다.

◎ 7월 9일 (음 5월 29일) 일요일

… 午後에 앞 굴뚝을 높이 쌓고 妻는 밀(小麥) 목을 드리였다[밀을 떨 때 바람에 날려 주위에 쌓인 뒷못(쭉정이 및 덜 찬 낱알)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까불러서 낱알을 가능한 한 아껴 찾아 모으는 일]. …

◎ 7월 12일 (음 6월 2일) 수요일

前日 술에 취한 것이 오늘도 午前 仲 누어있었다. 妻가 콩밭을 맨다고 하여 누어있어도 不安하여 點心을 먹고서 같이 맸다. …

◎ 7월 13일 (음 6월 3일) 목요일 大晴

… 妻의 밀 일구는데 協助하고 세풀[쇠풀] 한 짐 비다. …

◎ 7월 17일 (음 6월 7일) 월요일 晴

밀 그루밭 매다. (…) 妻와 같이 하던 일을 혼자 할랴니 더욱 힘이 든다. …

◎ 7월 18일 (음 6월 8일) 화요일 晴

… 午前에 妻와 같이 그루밭을 매고 집에 와 點心을 먹고 누었다가 …

◎ 7월 21일 (음 6월 11일) 금요일

… 妻와 같이 대똘 콩크리을 했다.

◎ 7월 25일 (음 6월 15일) 화요일 雲

… 午後엔 동욕골 논과 앞 밭 달뱅이의 除草을 妻와 같이 했다.

◎ 7월 26일 (음 6월 16일) 수요일 颱風

… 午中에 妻와 같이 농꼴 꼬추밭을 매고 와 點心을 먹고 동욕골 꼬추밭을 매는 중 …

◎ 8월 10일 (음 7월 2일) 목요일

妻는 꼬추밭 골고지 英浩와 …

◎ 9월 27일 (음 8월 20일) 수요일 晴

… 午後엔 앞밭의 콩잎을 妻와 같이 땄다. (쇠메기[쇠먹이] 용)

◎ 9월 30일 (음 8월 23일) 토요일 晴

… 朝飯을 일직하고 妻와 같이 사랑방 天井을 바르었다. …

◎ 10월 2일 (음 8월 25일) 월요일 晴

… 妻는 농꼴 밭 콩을 걷었다. …

◎ 10월 8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 妻는 밭거지을 했다. …

◎ 10월 9일 (음 9월 3일) 월요일

午前에 妻와 같이 脫穀機(궁굴레)로 벼 100束 前日 빈 벼을 脫穀하고 …

◎ 10월 12일 (음 9월 6일) 목요일 晴

농꼴 밭원 5斗을 혼자서 비여 깔았다. 妻는 앞 감나무의 감을 땄다. …

◎ 10월 19일 (음 9월 13일) 목요일 晴

밭원 뚝밑 1斗을 벼비였다. (…) 妻는 콩을 떨었다. …

◎ 10월 20일 (음 9월 14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아주 點心밥도 싸갈고 妻와 같이 농꼴 밭원 벼을 묶어 쌓았다. (…) 妻가 들에서 늦게 들어오니 저녁밥이 늦었다. …

◎ 10월 24일 (음 9월 18일) 화요일

농꼴 아논 5斗 벼 비여 깐 것을 妻와 같이 묶었다. …

◎ 10월 31일 (음 9월 25일) 화요일 晴

… 妻는 前日 실어논 벼 食糧用 벼을 脫穀타 냉기였다. …

◎ 11월 1일 (음 9월 26일) 수요일

… 前日 脫穀타 냉긴 것을 妻와 같이 脫穀하고 午後엔 밭원 찰벼을 妻와 같이 저내고 와 脫穀한 벼는 드려 담을라고 하니 …

◎ 11월 2일 (음 9월 27일) 목요일 雲

소을 내주어 妻와 같이 농꼴 골장 6斗의 벼을 들에서 갈라 묶었다. …

◎ 11월 3일 (음 9월 28일) 금요일 雨

… 妻는 午後에 기름 짜고 꼬추가루을 빠라 갈

다 늦게 왔다. …

◎ 11월 4일 (음 9월 29일) 토요일 晴

… 늦게 始作해서 妻는 찰벼을 脫穀을 했다. 찰벼을 다 싣고 밭원 7升 벼도 실어다가 앞밭에 줄가리을 치였다. 내가 協助해서 와 떨었다. …

◎ 11월 8일 (음 10월 3일) 화요일

… 午後엔 妻와 같이 산에서 나무을 글거드리였다.

◎ 11월 11일 (음 10월 6일) 토요일 雲

… 마지못해 妻와 같이 밭원에 가 벼을 갈라 묶었다.

◎ 11월 12일 (음 10월 7일) 일요일

… 아논 뚝에 줄가리 친 것을 몇 바리 뽀아 실었다. 아주 마르지 않았다. 午後엔 농꼴 벼 몇 바리 실었다. (…) 妻는 원호엄마와 벼을 갈라 묶다.

◎ 11월 21일 (음 10월 16일) 화요일 雲

日氣는 갑작히 下降하여 영하 5, 6度라고 午前에 妻와 같이 벼뭇을 손치고 …

◎ 11월 29일 (음 10월 24일) 수요일 雲

妻와 같이 벼뭇의 눈을 쓸고 나니 午鐘 때이다. …

◎ 11월 30일 (음 10월 25일) 목요일 雲雪

… 妻는 벼뭇을 갈라 묶었다.

◎ 12월 1일 (음 10월 26일) 금요일 晴

아논의 벼을 실었다. 아주 마르지 않았다. 妻는 벼을 갈라 묶었다. …

◎ 12월 9일 (음 11월 4일) 토요일 雲

妻와 같이 뒤검불을 드리였다. …

1973년

◎ 3월 30일 (음 2월 26일) 금요일

새마을 사업에 일을 시켜 놓고 집에 와 妻와 같이 농꼴서부터 갈기 始作해 午前에 농꼴서 꼬추 갈고 앞밭에 옆밭 등 꼬추 감자을 갈았다. …

◎ 4월 7일 (음 3월 5일) 토요일 雨

… 妻는 苗板할 왕겨숯을 만들었다.

◎ 4월 9일 (음 3월 7일) 월요일

保溫 苗板. 일꾼이 來日이나 된다고 하여 來日은 發安場에 가게 될 것 같아 妻와 苗板을 하기로 하고 苗板을 始作했다. …

◎ 4월 12일 (음 3월 10일) 목요일

… 앞 말 가웃지기에 苗板을 할라고 갈고 妻는 논뚜랑을 ○았다. …

◎ 4월 13일 (음 3월 11일) 금요일

줄묘할 논에 갈고 앞 苗板을 妻와 같이 했다. …

◎ 4월 14일 (음 3월 12일) 토요일

… 苗板을 써리고 妻와 같이 苗板을 만들었다.…

◎ 4월 16일 (음 3월 13일) 월요일 雨

… 씨나락의 싹이 많이 나와 朝飯을 일직하고 씨을 치라 갈다. 일꾼을 2명이나 얻었으나 오지 않아 妻와 같이 종자을 치고 왕겨숯을 뿌리고 비닐을 半가량 씨우니 …

◎ 4월 18일 (음 3월 16일) 수요일 晴

… 朝飯하고 앞의 비닐 苗板의 비닐을 妻와 같이 씨우고 …

◎ 5월 3일 (음 4월 1일) 목요일

午前에 妻와 같이 밭벼을 부치고 갈은 김에 참깨을 부치였다. …

◎ 5월 22일 (음 4월 20일) 화요일 晴

논 써리다. (…) 妻는 동욕골 묘을 심었다.

◎ 5월 23일 (음 4월 21일) 수요일 晴

妻와 같이 앞 5升지기을 移秧하고 午前中에 妻와 같이 농꼴 苗板의 피사리을 하고 농약을 끼언고 오니 …

◎ 5월 24일 (음 4월 22일) 목요일 晴

아번님家에 苗 쩌논 것이 있어 앞 1斗을 써리고 妻가 심었다. …

◎ 5월 27일 (음 4월 25일) 일요일 晴

移秧 9名. 前일 온 사람 위[외] 세 품으로 梁正鎬 婦人 崔, 朴銀祿가 더 왔다. 농꼴 밭원 5斗와 아논後 3斗 5升지기 苗板除外와 아논後 1斗와 밭원後 1斗을 심다 남았다. …

◎ 5월 28일 (음 4월 26일) 월요일

前일 苗심다 남은 것이 있어 妻와 같이 前日

심다. …

◎ 5월 29일 (음 4월 27일) 화요일

… 앞 1斗5升 논 苗板 除外하고 써리고 골장 3斗와 1斗 5升을 갈기 始作했다. (…) 妻는 앞 1斗 5升논을 심었다.

◎ 5월 30일 (음 4월 28일) 수요일

… 妻는 돈식과 같이 앞 1斗 5升(下)을 심고 있어 1時에 歸家하여 敦植은 보내고 내가 심었다.

◎ 5월 31일 (음 4월 29일) 목요일

미니시카 苗을 얻어 아논 1斗 5升 논을 妻와 같이 移秧했다. 우리 苗도 많이 남겠다. 午後엔 妻는 농꼴 밭원을 기웁고 나는 농꼴 아논 11斗을 기웁고 …

◎ 6월 2일 (음 5월 2일) 토요일 晴

앞말 가웃지기(上) 苗板 한 곳을 移秧했다. 苗가 많이 나마 妻와 같이 한 참을 쩌내고 나 혼자 심어 午後 4時 頃에 끝났다. …

◎ 6월 4일 (음 5월 4일) 월요일

… 妻와 같이 苗板을 해치우고 나는 농약을 끼언지다. …

◎ 6월 5일 (음 5월 5일) 화요일 晴

… 午中엔 妻와 같이 꼬추밭을 맸다. …

◎ 6월 7일 (음 5월 7일) 목요일 晴

일직부터 서둘러 아논 7升지기 及 1斗 5升에 물이 적어 3斗 5升에 然雨 家에서 물을 놓아 다소 많아 妻와 같이 물을 펐다. 午後엔 밭달뱅이 물을 푸고 來日 새마을事業 심사가 있다고 妻는 苗木場에 풀을 뽀으라 가고 …

◎ 6월 11일 (음 5월 11일) 월요일 晴

… 妻는 동욕꿀 보리을 비였다. …

◎ 6월 12일 (음 5월 12일) 화요일 晴

시험 삼아 심은 개벌 보리[갯벌을 개간해서 시험 삼아 심은 보리]가 거름 不足으로 덜 되었으나 살아 妻와 같이 비여 갇고 와 前日 빈 동욕굴 보리을 떨었다. …

◎ 6월 13일 (음 5월 13일) 수요일 晴雲

午前에 妻와 같이 꼬추밭에 액비 거름을 주고 午後에는 농약 二化螟蟲을 妻와 같이 농꼴 5斗와 밭원뚝밑 아논後 1斗을 주니 …

◎ 6월 14일 (음 5월 14일) 목요일 雨雲

… 妻와 같이 꼬추 모종을 하고 …

◎ 6월 15일 (음 5월 15일) 금요일 雲

午前에 妻와 같이 참깨밭 매고 (…) 每日같이 편한 날 없이 妻와 같이 꾸준히 일을 하것만 쪼차오는 일은 당해낼 수가 없다. 아마도 우리 內外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을 듯하다. …

◎ 6월 19일 (음 5월 19일) 화요일 雲

… 午後엔 나는 꼬추밭 감자 캐고 妻는 원두밭에 집을 피였다. 일은 산적같이 쪼차온다. …

◎ 6월 20일 (음 5월 20일) 수요일 晴

… 妻가 몸이 不便하다 하여 午後엔 앞밭 꼬추밭의 북을 주는데 혼자 하라 했다. …

◎ 6월 2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午前에 妻는 場에 가기 爲해 동욕꿀 감자을 캐기 始作했으나 10時 頃에야 다 캐여 10時 頃에야 場에 갇다. …

◎ 6월 2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晴

午前에 농꼴 봄보리을 妻와 같이 비고 싣고 와 半가량 탈곡을 하고 12時 頃에 出發 面會에 나가다가 (…) 下午 늦게야 집에 오니 妻가 허둥지둥 치우는 것을 보니 未安하다.

◎ 6월 27일 (음 5월 27일) 수요일 雨

날씨는 들지 않았으나 밀이 장마을 치룰 것 같아 따비밭의 밀을 午前 中 妻와 같이 비고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쏘다저 모두 비을 마처 조파리였다. …

◎ 6월 29일 (음 5월 29일) 금요일 雨

밭원 7升지기 논을 除草하고 妻는 동욕꿀 밭 除草을 하고 나[서] 앞달뱅이의 除草을 했다. …

◎ 7월 3일 (음 6월 4일) 화요일 雲

밀 뒷일을 해치우고 午後 늦게야 동욕꿀 밭을 맸다. (…) 午中엔 날씨도 덥고 하여 누어 있다가 妻가 땀 흘리며 일을 하여 협조했다.

◎ 7월 7일 (음 6월 8일) 토요일 晴

앞 김장밭 냉긴 것을 갈고 그루 밭 골을 타고 妻와 같이 그루밭을 맸다. 농꼴까지 매고 앞 꼬

추밭은 하다 냉기다. …

◎ 7월 10일 (음 6월 11일) 화요일 晴

午前에 妻와 함게 앞 창깨 밭을 매고 午後엔 옆밭 밀그루 밭을 맷다. …

◎ 7월 13일 (음 6월 14일) 금요일 晴

午前에 장마 대비 次 妻와 같이 집까리을 손질하고 썩은 것은 뒤엄으로 쌓아 놓고 …

◎ 7월 20일 (음 6월 21일) 금요일 晴

… 妻와 같이 옆 그루밭 2벌을 맸다. …

◎ 8월 5일 (음 7월 7일) 일요일

… 下午에는 妻와 같이 空叭 3닙을 짰다.

◎ 8월 15일 (음 7월 17일) 수요일

… 妻와 같이 가마니을 짰다. …

◎ 9월 7일 (음 8월 11일) 금요일

… 나는 妻와 같이 종일토록 음물 양회, 사랑마루 재벽을 했다. …

◎ 9월 23일 (음 8월 27일) 일요일

妻가 꼬추 빠라가고 나는 수수을 치고 나니 妻가 와 콩을 떨었다. …

◎ 9월 27일 (음 9월 2일) 목요일

… 妻는 콩을 떨었다.

◎ 9월 29일 (음 9월 4일) 토요일

妻와 같이 벼 농꼴 밭원 벼을 비여 갈았다. (…) 妻는 生前 처음으로 벼을 비였다. …

◎ 9월 30일 (음 9월 5일) 일요일

妻와 같이 午前 中에 농골 비였다. …

◎ 10월 7일 (음 9월 12일) 일요일

앞 밭원을 비였다. 논이 마르지 않아 묶으며 마른 곳을 갈았다. 午後에 妻가 와 다 비였다. …

◎ 10월 9일 (음 9월 14일) 화요일 晴

妻가 서둘러 앞밭의 보리을 갈았다. …

◎ 10월 10일 (음 9월 15일) 수요일 晴

妻가 벼을 비자고 하여 妻와 같이 밭원 1斗을 비였다. …

◎ 10월 11일 (음 9월 16일) 목요일 晴

妻와 같이 일직 서둘러 앞 1斗 5升 前日 60束을 비고 今日 일직 다 비였다. (…) 今年엔 妻가 협조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 10월 17일 (음 9월 22일) 수요일

… 前일 脫穀라 냉긴 벼을 떨었다. 5叭이다. 午後엔 일직 빈 농꼴 벼뭇을 손을 妻와 같이 치고 …

◎ 10월 18일 (음 9월 23일) 목요일

… 朝飯 後에 농꼴 밭원의 벼을 실기 始作. 종일 실었다. 妻는 벼을 쌓아가며 미장일을 했다.

◎ 10월 20일 (음 9월 25일) 토요일

날씨가 흐리여 午前 中에 안팥 원 안 7升지기의 벼을 싣고 妻와 같이 밭원뚝 밑 1斗의 벼을 저내고 농꼴 가 논뚜랑의 벼을 뽀아 내다 냉기였다. …

◎ 10월 21일 (음 9월 26일) 일요일

… 점심을 먹고 妻와 같이 농꼴의 벼뭇을 뽀부라 갈다가 半가량 저내니 비가 나리여 쪼기여 왔다.

◎ 10월 22일 (음 9월 27일) 월요일

… 朝飯食事을 하고 妻와 같이 농꼴 1斗의 벼뭇을 저냈다. …

◎ 10월 29일 (음 10월 4일) 월요일

… 곳 와 妻와 같이 농꼴의 벼뭇는 못 치고 와 앞 찰벼을 끄디리고 점심을 먹고 妻와 같이 脫穀을 하여보니 …

◎ 11월 5일 (음 10월 11일) 월요일

… 여물을 쓸고 妻와 같이 앞 벼을 끄디리였다. …

◎ 11월 8일 (음 10월 14일) 목요일

玄氏와 敦植이 脫穀은 해 준다고 하여 今日도 남자는 敦植과 玄氏, 철호, 철호 엄마, 현씨 부인 等이 와 脫穀機로 한번의 故障도 없이 잘 떨었다. …

V. 농한기 부업

1959년

◎ 1월 27일 (음 12월 19일) 화요일 晴

날씨 봄날 같아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무들을 하느라고 야단덜이다. 午後에는 나도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왔다.

◎ 1월 28일 (음 12월 20일) 수요일 晴

모처럼 나무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한나절래 나무 한 짐을 해왔다. 또 산에 가니 등그럭이 몇 개 있어 짤라 왔다.

◎ 1월 29일 (음 12월 21일) 목요일 雲

오양을 처내고 처음으로 나무 두 짐을 했다.

◎ 1월 31일 (음 12월 23일) 토요일 晴

그냥 있다가 夕飯 食事를 하고 모처럼 왕울기 새끼를 한 사리 꼬는데 손바닥이 달아 뚜러젓다.

◎ 2월 3일 (음 12월 26일) 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뒤동산에서 나무를 좀 하다가 집에 오니 孟植이 와 뜻 위의 일이였다.

◎ 2월 5일 (음 12월 28일) 목요일 晴

夕飯 後에는 새끼를 꼴랴 하니 鍾소리 나서 會에 건너가니 날더러 里長을 보라 해서 그냥 왓다.

◎ 2월 13일 (음 1월 6일) 금요일 雨

農事꾼의 취미는 물론 농작물 거두는 데도 있겠지만 수학을 거둔 뒤 겨울 한 철 이렇게 노는 것도 농군의 가장 즐거운 것이다.

◎ 2월 17일 (음 1월 10일) 화요일 雨

夕飯 後에는 왕울기 새끼 한 사리를 꼬앗다.

◎ 2월 18 · 19일 (음 1월 11 · 12일) 수 · 목요일 雨

夕飯 後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2월 26일 (음 1월 19일) 목요일 晴

씨름을 몇 차례 햇더니 매 마진 놈같이 몸이 아푸고 해서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朝飯을 하고 마실 같다가 처음으로 일손을 잡아 울타리를 準備해서 한 발쯤 첫다.

◎ 3월 2일 (음 1월 23일) 월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울타리 날을 느르고 …

◎ 3월 4일 (음 1월 25일) 수요일 晴

어제 오늘 兩日間 날씨가 온화해서 울타리를 첫다.

◎ 3월 7일 (음 1월 28일) 토요일 雨

… 朝飯 後에 마실 같다 바로 비 조리개를 얻어다 비를 午前 中 매였다.

◎ 3월 8일 (음 1월 29일) 일요일 雨雲

午前에 몇일 前에 집 추려 논 것이 있어 꼬아치우고 午後에는 그냥 놀았다.

◎ 3월 12일 (음 2월 4일) 목요일 晴風

… 悠雨氏가 敦一에게서 온 片紙를 주엇다 하며 答辭를 한 장 써 달라 해서 그리하라고 대답했다. 음 今 6日날 여동생 혼일에 답사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써달라는 것이다. 敦一의 편지를 보니 아주 잘 구절에 맡게 썼다. 중학 입시에 합격햇다는 것이다. 夕飯 後에 답사 초안을 했다.

◎ 3월 13일 (음 2월 5일) 금요일 晴

悠雨에게 答辭를 써다주고 그냥 있을 수 없어 白米 5升代 五百원을 부주하였다.

◎ 3월 15일 (음 2월 7일) 일요일 晴

食前에 울타리 치던 것을 치고 朝飯을 마치고 妻와 함께 울타리를 둘럿다. 午前 中 울타리 밑 긁어 드리고 울타리 둘렀다.

◎ 3월 16일 (음 2월 8일) 월요일 晴

좀 잇다가 炳烈君 入營하는 데 旗等을 내가 쓰고 또 차안도 한귀 쓰였다. 전송을 하고 집에 와 앞 농꼴 밭을 갈았다.

◎ 3월 20일 (음 2월 12일) 금요일 晴

食前 일어나 今年 삿 논으로 뒤염을 저내고 있으니 高棧 重植이 片紙 한 장을 傳하여 開封하니 面에서 事務 정리를 하는데 좀 나와달라는 公文이다. 前日 보리밭 긁던 것도 있고 해서 못 갈 生覺을 하고 잇으니 큰아번님이 와서 오늘 좀 나가라고 권고를 햇으나 오늘 나가 보리밭을 못 긁으면 來日은 場에를 가야하고 날씨도 東風이 불고하여 밭이 肥料도 주어야겟고 生覺다 못해 못 나갈다.

◎ 3월 30일 (음 2월 22일) 월요일 晴

午前 중에 앞 고얌나무와 봉송수를 접을 처음으로 부치고 …

◎ 4월 10일 (음 3월 3일) 금요일 雲雨

앞울타리 용구새를 틀러 언젔다.

◎ 4월 11일 (음 3월 4일) 토요일 晴

집에 도라와 뒤염 몇 집 지고 앞보리밭 오즘을 치고 午後에는 울타리 직어매다 나가 알른 英浩

가 보채여 그만 두고 집가리를 보니 비가 드러 썩어 다시 쌓았다.

◎ 4월 21일 (음 3월 14일) 화요일 晴

… 鹽田 일 가자 해서 하루를 하고 왔다.

◎ 4월 22일 (음 3월 15일) 수요일 雲

염전 가래질 같다.

날씨 냉하고 하여 일을 못갈 것 같아 마실을 갈까 하고 건너가니 일을 간다고 해서 나도 같다. 발 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갠찮은 줄 알고 같더니 날씨가 하도 차니 춥다. 염전 일이란 별로 심들진 아느나 날씨가 냉하여 좋지 않다. 午後에는 더 심이 북청이 불어온다. 추운 날씨나 하로를 견디고 일을 했다.

◎ 5월 2일 (음 3월 25일) 토요일 雲

德雨가 나무가자고 해서 같이 같다가 등그릭 몇 개피를 해 같고 도라왔다. 午後에도 또 같다. 산에 가 놀다 왓다.

◎ 5월 9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방아 찌우려 가서 작은집에 四寸妹弟가 보낸 軍人이 와서 같이 있다가 片紙 한 장 써주고 쌀을 지고 왔다.

◎ 5월 14일 (음 4월 7일) 목요일 晴

1時 頃에 生前 처음으로 魚網에 가자고 해서 德雨氏와 함게 같다. 사람이 물보다 많은데 고기는 없어 그냥 도라왔다.

◎ 7월 5일 (음 5월 30일) 일요일 雲雨

봄에 高棧 염전에 2日가서 일한 깃 품갑 1200원 중 1000만 가저왔다.

◎ 7월 14일 (음 6월 9일) 화요일 晴

하로를 쉬는 날이다. 德雨 家 일날인데 나는 그만 두라 해서 그럭저럭하다가 午後에 풀을 두 짐 지고 마랬다.

◎ 7월 16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

新浦 藥局에 外上 700원을 잡고 와 풀 3짐을 지고 하루해를 보냈다.

◎ 7월 17일 (음 6월 12일) 금요일 晴 初伏

나도 일손이 끝나 그럭저럭 놀아가며 앞에서 풀을 세 짐 비였다.

◎ 7월 18일 (음 6월 13일) 토요일 晴

종일토록 그럭저럭 해가며 풀 세 짐을 비였다.

◎ 7월 20일 (음 6월 15일) 월요일 晴

午後에 풀 한 짐 비고 마랐다.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妻가 場에 갈까 했으나 돈도 없을뿐더러 비도 올 것 같아 그만 두고 나는 종일 놀다가 풀 두어 짐 비고 하루해를 보냈다. 새끼 한 사리 꼬왔다.

◎ 7월 22일 (음 6월 17일) 수요일 晴

풀 한 짐. 새끼 한 사리를 종일 꼬왔다.

◎ 7월 23일 (음 6월 18일) 목요일 雲

朝飯 後에 모처럼 멍석을 한 닙 놓아 보았다. 처음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안 되며 서투르다. 午後에 세 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25일 (음 6월 20일) 토요일 晴

안개 자욱한 食前에 앞 밭둑 마당 밑 等 除草作業을 하고 朝飯 後에 멍석을 만들다 高棧 너머 같다 와 멍석을 만드렀다. 멍석을 만들고 있으니 앞가슴에서 샘솟듯 담이 흐르고 하여 綠陰을 찾았으나 마찬가지로 못 배길 지경이다. 이 중에도 개꾼들은 벌서 몇일 前부터 길이 미지게 앞을 다투어 왔다간다. 生涯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 7월 27일 (음 6월 22일) 월요일 晴

生活에 허덕이는 처량한 몸. 食前부터 풀비기 나무하기 멍석 만들기 冊보기 等 한가한 날이 없다. 놀면 표가 나는 생활. 언제나 넉넉한 살림을 하여 한가로히 지내보나? 나무를 하려 산에 가니 땀이 비 오듯 하고 못 배기니 짜증만 난다. 사람生活도 千층만층.

◎ 7월 29일 (음 6월 24일) 수요일 晴

食前부터 심한 더위가 오고 뜨거운 太陽熱은 大地를 휘덥어오고 가는 行人조차 눈에 들 뜨인 속에 멍석을 만들고 있으니 晧植君이 와 바다로 후리질[후릿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을 가자고 와서 海水浴도 할 겸 그믈을 갈고 같다가 조곰하다가 심이 드러 한 사발 쯤(전어)을 잡아 같고 와 點心을 마치고 마루에 있으니 …

◎ 7월 30일 (음 6월 25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나무 한 짐을 하고 뜨거운 해낮은 멍석을 만들고 午後 늦게 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31일 (음 6월 26일) 금요일 晴
食前에 멍석을 만들다가 朝飯 後을 하고 나무 한 짐을 하고 또 멍석을 만들 午後에 나무 같다. 나무 두 동을 묶어 세웠다. 夕飯 後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4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요사히 매일 같이 午前에 나무 한 짐 午後에 풀 한 짐 午鍾 때 멍석만들기 等 요사이 行事이다. 午後에 바수거리 감을 빌려 …
◎ 8월 5일 (음 7월 2일) 수요일 晴
今年 드러 처음으로 바다에 같다. 洞里 사람이 다 풀리여 가도 안 가던 나는 來日 妻가 親庭에 간다고 해거 같섯는데 (써개질)을 할 줄 몰라 第一 못 잡았는데 약 사발 가웃 짐 잡아 같고 와 있으니 (…) 午後 늦게 풀 비려 같다가 날이 더워 그냥 와 나무 한 동을 묶고 (…) 땀이 비 오듯 해서 목욕을 하고 바수거리를 엮었다.
◎ 8월 6일 (음 7월 3일) 목요일 晴
午後에는 멍석을 만들다가 풀 한 짐을 비였다. 나무 두 동 묶다.
◎ 8월 7일 (음 7월 4일) 금요일 晴
午前에 나무 한 짐 하고 午後에는 나무 같다 그냥 도라왔다. 멍석은 오늘 다 만드렀다. 夕飯 食事 後에 새끼 한 사리 꼬았다.
◎ 8월 8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食前에 앞 논뚜랑 거실르고 朝飯 食事 後에 나무 한 짐 하고 낮잠을 자고 午後에 나무 한 짐 하고서 마른 나무를 묶었다.
◎ 8월 9일 (음 7월 6일) 일요일 雲雨
食前에 앞 논뚜랑 깍고 朝飯 後에 나무 한 짐 하고 낮잠을 느러지게 한심 자고 마실 같다오니 妻와 聘母가 왔다. 午後에 앞 원안에 가서 싸족 두어 사발 잡아왔다.
◎ 8월 10일 (음 7월 7일) 월요일 雲
午前 중 그럭저럭 하다가 午後에 앞 원안으로 싸족을 쓰르려 같섯다.
◎ 8월 11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방 뜻을 흙 앞산에서 저 왔다.
◎ 8월 12일 (음 7월 9일) 수요일 晴
午後 5時 頃에 다 놓고 나무 한 동 무꺼왔다. 夕飯 後에 새끼 한 사리 꼬았다.
◎ 8월 13일 (음 7월 10일) 목요일 晴
종일토록 나무 두 짐 하고 하로해를 보냈다.
◎ 8월 14일 (음 7월 11일) 금요일 雲
새끼 한 사리를 夕飯 後에 꼬았다.
◎ 8월 15일 (음 7월 12일) 토요일 雲
朝飯 後에 母親 先墓에 伐草를 하고 午後에 나무 한 짐 하고 나무 한 동 묵껐다. 夕飯 後에 새끼 한 사리 꼬았다.
◎ 8월 17일 (음 7월 14일) 월요일 晴
자고 이러나 명를 叭機을 만들 準備를 하고 있으니 음물 푼다고 해서 가서 같이 음물을 食前中 펐다. 午前 中 멱틀을 만드렀다. 午後에 한 짝 첫다. 남의 집으로 얻으려 가기 싫고 또 얻으려 가기도 무어해서 만드러노니 아주 좋다. 가마바디만 사면 가마니 치는데 걱정이 없다.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앞 왜뚝에서 나무를 묶고 나니 쏘나귀가 나리여 왜뚝이 질름질름했다.
◎ 9월 2일 (음 7월 30일) 수요일 晴
午後에는 가마니를 妻와 4닙 치었다.
◎ 9월 3일 (음 8월 1일) 목요일 晴雲
前日부터 가마 틀을 차려놓고 오늘 食前에도 한 짝 첬다. 朝飯을 마치고 가마 한 짝을 치고 나는 모자리배미 피사리를 午前 중 했다. 午後에는 역시 가마니를 첬다.
◎ 9월 4일 (음 8월 2일) 금요일 晴
食前에 가마 한 짝 치고 朝飯 後 처 午前부터 가마 4립을 치고 午後에는 부엌 앞벽 맛 벽을 첬다.
◎ 9월 5일 (음 8월 3일) 토요일 雲
종일토록 가마니를 첬다. 7립.
◎ 9월 7일 (음 8월 5일) 월요일 雲風雨
食前에 가마니 한 짝 치고 午前에 두 짝으로 집

새끼 等이 없어 끝마추었는데 도합 31짝이다.

◎ 9월 8일 (음 8월 6일) 화요일 雲

午前에 가마니 몇 작 꾸미고[꿰매고] 午後에는 멋처럼 바다에 맛 잡으려 가 댓 사발 程度 잡아 왔다. 다른 날보다 잘 잽히고 써개질이 잘 되는 듯하다.

◎ 9월 9일 (음 8월 7일) 수요일 雲

午前에 김장밭 거름을 주고 가마니 몇 짝을 꾸미고 하루해를 보냈다.

◎ 9월 10일 (음 8월 8일) 목요일 雲

午後에 바다에 가서 맛 3사발 정도 잡아오니까 春植 왔다.

◎ 9월 11일 (음 8월 9일) 금요일 雲

食前에 가마 몇 작을 꾸미고 朝飯을 마치고 나니 아버지 家에서 방 드리는데 봉죽을 해 달라 해서 올라가 봉죽을 했다.

◎ 9월 13일 (음 8월 11일) 일요일 雲

食前에 가마 몇 작 꾸미고 朝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길치도 일이다.

◎ 9월 24일 (음 8월 22일) 목요일 雨

食前에 나무 좀 뜨더달라고 와서 박절이 할 수 없는 큰아버지라 대답을 했으나 나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족하라고 보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롭게만 한다. 朝飯을 마치고 나니 가랑비 부슬부슬 나리여 새기 한 사리 지게 멜빵 等을 만들고 하로해!

◎ 9월 27일 (음 8월 25일) 일요일 晴

午後에는 나무가리 썩는 것을 헤처 다시 쌓았다.

◎ 9월 29일 (음 8월 27일) 화요일 晴

食前에 매댕기 200여개 만들고 조반 後에 炳哲 家 일을 같다.

◎ 9월 30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일을 끝마치고 오니 큰아번님이 日前에 나무 뜨든 사람 나무 한 동씩 가져가라 해서 한 동 같고 왔다.

◎ 10월 1일 (음 8월 29일) 목요일 雲

食前에 매끼를 틀고 妻는 일.

◎ 10월 2일 (음 9월 1일) 금요일 雨

食前에 일어나기가 싫은 것을 억지로 일어나 매끼를 틀고 朝飯 後에 然雨 家 일을 같다.

◎ 10월 3일 (음 9월 2일) 토요일 雲雨

오늘이 우리 일 食前에 매끼 틀고 일직 일토에 같다.

◎ 10월 8일 (음 9월 7일) 목요일 晴

동이 트인 뒤에야 일어나 매끼 몇 개를 틀고 朝飯食事를 하고 炳賢 家 일을 같다.

◎ 10월 9일 (음 9월 8일) 금요일 晴

안개가 자욱 낀 날 앞 왜뚝에 벼 묶어 논 것을 한 짐 저오고 매끼를 틀고 일직 朝飯을 마치고 나문 것을 다 비기로 결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일직 끝났다.

◎ 10월 12일 (음 9월 11일) 월요일 晴雲

食前에 큰아버지가 와서 나무 동 저다 달래서 나무 두 동 저다 드리고 …

◎ 10월 16일 (음 9월 15일) 금요일 晴

食前에 영 두 마름을 역고 …

◎ 10월 29일 (음 9월 28일) 목요일 晴

… 朝飯 食事 後에 영가 始作해서 종일 영 12마름 역고 …

◎ 10월 31일 (음 9월 30일) 토요일 晴

食前 나가 영을 엮을까 하고 나가니 食前 바람이라 冷하고 또 서리도 제법 오고 하여 그냥 드러와 있다가 朝飯 後에 나가기로 하고 (…) 영 10마름 엮고 …

◎ 11월 1일 (음 10월 1일) 일요일 雨

비도 부슬부슬 나리고 해서 새끼 한 사리 꼴려고 집을 축기여 몇 발 꼬니 …

◎ 11월 2일 (음 10월 2일) 월요일 雲

食前에 영 한 마름 역고 朝飯 後에도 영을 역었다. 집을 만지면 골치가 아푸고 어지러워 悠雨 집 재목 다듬는 데도 왔다같다. 쉬염쉬염 종일 영 10마름박에 못 엮었다. 夕飯 後에는 골치도 아푸고 해서 일찍 자리에 누었다.

◎ 11월 3일 (음 10월 3일) 화요일 雲

종일토록 영 엮었다. 食前부터 10時 頃까지 둘

재祖父 家 벼 훌터드리였다. 동리 청년 기이 다 협조했다. 約 500束 털고 집에 와 영 10마름 엮었다.

◎ 11월 4일 (음 10월 4일) 수요일 雲

食前에 앞논 물꼬를 막고 朝飯 後에 마름 엮고 바다(海)에 갇다. 삐죽이 많이 난다 해서 갇더니 물은 많이 났는데 모처럼 갇기에 서투러 남만큼 못 잡았다. 約 두 사발 가량 잡고 와 妻가 게꼴 부스는데 협조하고 담아 드리였다. 게꼴은 곡 5叭 났다.

◎ 11월 5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興植 家 지붕일 같다. 5名이 前日 영 역꺼는 것으로 종일 두루었다. 날씨 흐리고 하여 저녁에 집에 와 영을 드리여 놓고 자리에 드렀다.

◎ 11월 6일 (음 10월 6일) 금요일 雲

食前에 영 두 마름 엮고 (…) 집에 와 朝飯을 마치고 나니 가랑비 부슬부슬 나리여 영 6마름을 엮고 그럭저럭 하다가 午後 늦게 농꼴 무 한 짐 저다 주고 한 마름 엮고 夕飯 食事하고 일직 자리에 드렀다.

◎ 11월 7일 (음 10월 7일) 토요일 雲 細雨

영 8마름 엮고 지붕 베기여 네리였다.

◎ 11월 8일 (음 10월 8일) 일요일 雲

오늘 지붕 해일 날이라 食前에 사다리와 영꼬챙이 얻어다놓고 朝飯 後에 일 始作해서 尹서방 敎雨 德雨 晧植 等이 다래이였다. 영 75마름 드렀다.

◎ 11월 9일 (음 10월 9일) 월요일 晴

食前에 叭니 두 작을 꾸미는데 아주 발이 시렸다. 朝飯 後에 지붕기스락을 짜르고 …

◎ 11월 12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晴

食前에 오즘 지게 만들고 …

◎ 11월 25일 (음 10월 25일) 수요일 雲晴

오른편 가슴 어깨에 담이 드러 밤에 잠자기 不便하여 오늘 아버지 家 지붕 이는데 말까 하다가 덜한 것 같아 올라가서 하로 일을 끝마추었다. 午前에 영 역는데 손이 시립고 날씨 흐리고 냉하여 무엇이 나릴 줄 알았더니 夕飯 食事 後에는 말가케 벗어젔다. 집안 食口 合 6名이 늦게야 끝났다.

◎ 11월 28일 (음 10월 28일) 토요일 雲

그럭저럭 하다가 집가리 동그레가리 1000뭇 가량 쌓고 …

◎ 11월 29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雲

晧植 家에서 지붕이여 달라 해서 건너가 영을 역거 주었다. 晧植이 우리 집 해이는데 용구세 트러준 품아시 갑었다.

◎ 11월 30일 (음 11월 1일) 월요일 晴

食前에 네재祖父가 와서 지붕이여 달라 해서 오늘 네재祖父 家 일을 갇다.

◎ 12월 1일 (음 11월 2일) 화요일 晴

나는 바다에 가서 삐죽 3사발 가량 잡아왔다. 농군은 요사이 편안 時節이다. 안에는 일 다 치우고 親家에 가고 나두리 다닐 時節이다.

◎ 12월 3일 (음 11월 4일) 목요일 雨晴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 갇다가 모두들 바다에 간다고 하기에 나도 갇다. 동짓달에 바다에 간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다. 별로 춥도 않고 발도 그리 시립지 않으나 三日前부터 잡아내서 별로 없어 한 사발 가량 잡아왔다.

◎ 12월 4일 (음 11월 5일) 금요일 雨晴

朝飯을 마치고 있으니 壹雨氏가 지붕을 좀 해달라 해서 건너가 영을 역꺼 사랑채를 해이였다. 농꼴事業所 工事판이 터져 모두 일 간 관계로 내가 부잡하였다.

◎ 12월 8일 (음 11월 9일) 화요일 晴

농골事業所 일판에 일을 같섰다. 請負業者가 동리와 잇서인지 별로 우리에 대해서는 관습지 않고 일을 부치였다. 심들지 않게 하로 일을 하고 夕飯 後에는 明雨家 굿 하는데 늦도록 있다 왓다.

◎ 12월 12일 (음 11월 13일) 토요일 雲

食前에 마당에 나가니 尹記士가 와서 찾어 나가니 오늘부터 우리 事業에 와 督士로 있어 달라고 해서 朝飯을 마치고 現場에 나가 첫날이라 만

보도 주고 했다. 夕飯 後에도 事務室에 가서 일을 보고 왔다.

◎ 12월 21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晴

朝飯 後에 東雨 시간짐을 後坪으로 한 짐 날라 주었다. 집은 여섯 간의 전퇴 논은 120坪 밭은 600坪에 시간난다.

◎ 12월 31일 (음 12월 2일) 목요일 雲

午後에는 웅덩이를 퍼서 미꾸리를 세 사발 程度 잡아서 夕飯 後에 술과 주탕을 해서 먹었다.

1960년

◎ 1월 4일 (음 12월 6일) 월요일 晴

興植 집에 가 지붕 해인 품싹 六百圜 받어왔다.

◎ 1월 9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雲

午後에는 왕울기 한 사리를 꼬았다. 孟植에게 편지 送.

◎ 1월 11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雲晴

왕울기 한 사리를 꼬았다.

◎ 1월 12일 (음 12월 14일) 화요일 晴

夕飯 後에는 일직암치 왕울기 새끼 한 사리를 꼬아놓고 마실 같다왔다.

◎ 2월 6일 (음 1월 10일) 토요일 晴

울타리를 노았으나 바람이 엊이 심한지 못 치겠어 한 발 가량 치다 그만 두었다. 바람이 엊이센지 울타리가 쓰러졌다.

◎ 2월 7일 (음 1월 11일) 일요일 雲

늦게 朝飯食事를 하고 울타리 치던 것을 내던지고 마실 가서 한나절이나 있다가 와서 前日 치단 논 울타리를 첬다.

◎ 2월 8일 (음 1월 12일) 월요일 晴

食前부터 울타리를 처서 午前 中에 한 띠를 둘렀다. 3分之1은 더친 셈이다.

◎ 2월 9일 (음 1월 13일) 화요일 晴

울타리를 치다가 수수깡이 모자라 치다 말았다.

◎ 2월 16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늦게 일어나 있으니 박에서 찾아 나가니 炳均 君이 일을 해달라고- 炳均 父親이 우리 집 이여준 것의 품아시다. 생전 처음으로 오즘 주는 일을 같다. 나는 炳均 家 일을 같다. 敎雨氏와 3人이 주었다.(농꼴)

◎ 2월 21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저녁에는 멋처럼만에 새끼 한 사리 꼼.

◎ 2월 23일 (음 1월 27일) 화요일 晴

夕飯 後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고 …

◎ 2월 25일 (음 1월 29일) 목요일 雲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고 來日부터 가마니를 칠가 한다.

◎ 2월 26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夕飯 食事 후에 새끼 한 사리 꼬다.

◎ 2월 27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가마니틀을 놓고 막가마 5매를 얼겄다. 夕飯 食事 後에 새끼 한 사리 꼬왔다. 妻와 春子를 새끼를 꼬라 시키고 집에 도라오니 아직 다 못 꽈 양심적으로 미안한 生覺이 드러간다.

◎ 2월 28일 (음 2월 2일) 일요일 晴

食前에 집 몇 뭇을 추리고 (…) 오늘은 가마니를 4립박에 못 치였다.

◎ 3월 1일 (음 2월 4일) 화요일 晴

아버지 家 허청 짓는데 조역 한참 하고 집에 와 그럭저럭 해를 보냈다. 妻와 春子는 가마 4작을 첬다.

◎ 3월 3일 (음 2월 6일) 목요일 晴

아버지 家에서 새 올리여 달라 해서 새를 올리여 주고 下午 늦게 집에 와 울타리 두를 동아줄을 틀고 있으니 …

◎ 3월 4일 (음 2월 7일) 금요일 晴

點心을 마치고 맛 잡으러 같섰다.

◎ 3월 7일 (음 2월 10일) 월요일 晴

오늘 妻家에는 井물 바닥 공크리한다고 사람을 얻어 와 일을 始作하는 것을 보고 왔다. 午前에 집에 와 울다리를 꼬매고 하루해를 보냈다.

◎ 3월 9일 (음 2월 12일) 수요일 晴

종일 그럭저럭하다가 뒤염 몇 짐 지다가 가마도 몇 작 치다가 하로해를 보내고.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내가 작근숙모 와 편지 한 장 서 주었다.
◎ 3월 17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下午에는 집가리를 옴기여 쌓았다.
◎ 4월 8일 (음 3월 13일) 금요일 晴
食前은 논을 一週하고 高棧協同組合理事會를 하는데 오라 해서 넘어가니 작근집 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 과연 죽었다. 찹쌀 一斗 가량 먹었다 하는데 前日까지도 괜찮더니 밤에 그리 데였다 한다. 이것을 엊이 처분해야 좋을지 몰라 공논이 구구하더니 10時 頃서 작판을 하게 되였다. 李昌均이 잡았다. 나도 종일 협조를 하였다. 수의도 오고 支署에서도 왔는데 支署에서 또 먹자는 것이다. 수의는 6000환이나 주었다. 잡아놓고도 공논이 구구하더니 동리에서 치우기로 하고 現場市勢 8000환인데 斤當 450환에 팔기로 해서 分肉을 하는데 저녁 먹글 때에 다나 같다. 소 市價 20萬 圜자리 8萬환 건지였다. 저녁에 전부 따저주고 늣게 집에 왔다. 내가 전부 책임을 맡었는데 受金할 것이 걱정이다.
◎ 4월 12일 (음 3월 17일) 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高棧 넘어가 작근집 소고기 갑을 받으려 다니였다. 아직까지 受金 이 35940환을 겄었다.
◎ 4월 13일 (음 3월 18일) 수요일 雲晴
바다에 갔더니 사람이 삐죽數도 많아 얼마 못잡고 도라왔다. 下午 늣게 작근 叔父가 와서 共劑金 申請을 하는데 平澤가지 좀 가 달라 해서 가기로 하고 書數를 보니 未備한 점이 있어 後坪面長하라버지에게 가서 問議 次 같다가 늣게 도라왔다.
◎ 4월 14일 (음 3월 19일) 목요일 晴
來日 모자리를 할까 했떠니 平澤을 같다 와 달라 해서 내가 平澤을 가게 되었다.
◎ 4월 15일 (음 3월 20일) 금요일 晴
朝飯을 일직 마치고 高棧 넘어가 작근집 소의 共劑金 申請 次 平澤組合에 갈 準備를 하고 떠났다. 平澤에 10時 頃에 到着하여 郡廳 內의 축산조합에 가서 書類를 提出하고 도라서 집에 오니 下午 6時 頃 되였다. 來日 소의 카-드를 安仲場으로 같다주라고 알리고 집에 왔더니 떡을 하였다. 도처에 모자리들을 하느라고 야단덜이다. 오늘 平澤에 안 같으면 나도 오늘 모자리를 햇을 것인데 못하고 저녁에 바람이 일고 날씨가 추어지는데 걱정이다.
◎ 4월 18일 (음 3월 23일) 월요일 晴
朝飯 後에 高棧 작근집에 가 牛肉 代 受金 事項을 보고 왔다.
◎ 4월 20일 (음 3월 25일) 수요일 晴風
오늘 염전일을 같다. 가래질 가서 모래를 파냈다.
◎ 4월 24일 (음 3월 29) 일요일 雲
點心 때 悠雨가 정물골 사둔가에 片紙 써 달라 해서 한 장 써 주었다.
◎ 4월 30일 (음 4월 5일) 토요일 晴
下午에 일한 소금 가저 가라 해서 鹽田에 가서 가저왔다.
◎ 7월 25일 (음 윤 6월 2일) 월요일 雨
夕飯 후에 왕울기 한 사리 꼬앗다.
◎ 7월 26일 (음 윤 6월 3일) 화요일 雨雲
종일토록 놀다가 삼테를 놓았다. 저녁나절 풀 한 짐 비였다.
◎ 7월 27일 (음 윤 6월 4일) 수요일 雲
朝飯 前에 풀 한 짐 비고 朝飯 후에 동욕골 논을 훔처 줄까 하고 올라가 풀 좀 뽑다가 …
◎ 7월 28일 (음 윤 6월 5일) 목요일 晴
집에 와 풀을 비고 잇으니 …
◎ 7월 29일 (음 윤 6월 6일) 금요일 晴
집에 와 풀 한 짐.
◎ 7월 30일 (음 윤 6월 7일) 토요일 晴
세 풀 한 짐.
◎ 7월 31일 (음 윤 6월 8일) 일요일 晴
食前에 앞 밭뚝을 깍고 朝飯 後에는 날씨도 더웁고 싸리를 비려 갈려다가 그만 두고 말았다. 종일토록 그늘 밑에서 놀다가 午後에 풀 한 짐 비였다.

◎ 8월 1일 (음 윤 6월 9일) 월요일 雲
夕飯 後에는 왕울기 한 사리를 꼬았다.
◎ 8월 2일 (음 윤 6월 10일) 화요일 晴
點心을 하고 삼태 만들던 것을 떼고 下午에 풀 한 짐 비고 夕飯 後에 왕울기 한 사리 꼬고 자리에 들렀다.
◎ 8월 5일 (음 윤 6월 13일) 금요일 晴
朝飯 食事 後에 모처럼 지게를 지고 나무를 갈다. 땀이 비 오 듯 하고 해서 가시나무를 한 짐 하고 집에 와 그늘 속에서 해를 보냈다. 몇일 전 망테 논 것을 오늘 뗐다. 풀 한 짐을 빌랴 햇으나 소나귀 한 줄기 나리니 깍닭귀가 심하고 비도 올 것 같고 해서 그만 두었다. 夕飯 食事 後에 왕울기 한 사리 꼬왓다.
◎ 8월 6일 (음 윤 6월 14일) 토요일 晴
夕飯後에는 새끼 한 사리. 朝飯 後에는 나무 한 짐.
◎ 8월 8일 (음 윤 6월 16일) 월요일 晴
飯食事 後에는 왕울기 새끼 한 사리 꼬고 高棧 넘어가 洞里 靑年들이 다리방아를 미여왔다.
◎ 8월 11일 (음 윤 6월 19일) 목요일 晴
食前에 옆 밭뚝을 뜻고 朝飯食事 後에 종일토록 놀다가 下午 늣게 풀 한 짐 비였다.
◎ 8월 12일 (음 윤 6월 20일) 금요일 晴
종일 놀다가 下午에 풀 한 짐 비고 …
◎ 8월 13일 (음 윤 6월 21일) 토요일 晴
食前에 나무 좀 뜻고 종일 놀다가 나무 4동 묵었다.
◎ 8월 14일 (음 윤 6월 22일) 일요일 晴
늣게 논 求景도 할 겸 지게를 지고 풀을 비라 갈더니 풀도 없을 뿐더러 논이 말라 속이 상해 그냥 도라왔다.
◎ 8월 16일 (음 윤 6월 24일) 화요일 晴
食前에 앞 밭뚝(대추나무 밑)을 뜻고 朝飯食事 後부터 終日 그늘나무 밑에서 놀다가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肥料(農協斡旋) 인硫燐安을 15斤 나누어오고 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28일 (음 7월 7일) 일요일 雲雨
食前에 비료 삼테를 만드러 볼까 테를 求하다가 삼테를 놓았다.
◎ 8월 31일 (음 7월 10일) 수요일 晴
집을 추리여 놓앗다가 레디오도 드를 겸 해서 왕울기를 한 사리 꼬앗다.
◎ 9월 1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出役을 같다 와 비료삼테를 뗏다.
◎ 9월 2일 (음 7월 12일) 금요일 晴
저녁 식사 후에 왕울기 한 사리를 레디오 옆에서 꼬았다.
◎ 9월 4일 (음 7월 14일) 일요일 雲 細雨
下午에는 지게를 손질하고 맬빵을 한 켤레 닿고 夕飯 食事 後에 孟植 와 앉았다가 자리에 드렀다.
◎ 9월 7일 (음 7월 17일) 수요일 晴
나무가 없어 밥짓기에 걱정을 하여 나무 좀 할 생각으로 지게를 지고 나가 한 짐 해 같고 왔다. 제산이 없는지라 산에는 얼신도 못하게 하는 산주 소리만 질러도 그냥 도라와야 된다. 풀도 말리니 산 없는 사람 어이 신탄 걱정을 면할까?
◎ 9월 8일 (음 7월 18일) 목요일 晴
오늘도 나무를 두 짐을 하였다. 산마루에 새꼬치 줏기란 시부정찮다.
◎ 9월 11일 (음 7월 21일) 일요일 晴
朝飯을 마친 나는 나무를 한 짐 하고 종일 해세월을 하였다.
◎ 10월 20일 (음 9월 1일) 목요일 晴
저녁나절 찰베 묶어저오고 집가리도 아주 동그래가리로 쌓았다. 집이 마르지 않은 것을 쌓앗는데 썩지나 않을는지 걱정이다.
◎ 10월 23일 (음 9월 4일) 일요일 晴
오늘은 하로 쉬일 작정으로 食前에 理髮을 하고 와 종일 그럭저럭 하며 영 6마름을 엮었다.
◎ 10월 24일 (음 9월 5일) 월요일 晴
食前에 영을 엮고 朝飯 後에 마당 쓰레기를 저다 논에 내고서 妻가 美容 次 三溪에 가 點心 늣게서야 도라와 늣게 點心을 하고 영 몇 마름 엮었다.

◎ 10월 27일 (음 9월 8일) 목요일 晴
종일토록 놀면서 영 10餘 마름 엮었다.
◎ 10월 31일 (음 9월 12일) 월요일 晴
食前에 영 두 마름을 엮고 朝飯을 마치고 낙지를 케려 갈라고 하니 물때가 食前 일직이나 된다고 하여 말았다. 종일 영 10餘 마름 엮고 마랏다.
◎ 11월 2일 (음 9월 14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모처럼 바다에 갔다. 모두덜 낙지를 캐기에 나도 낙지를 캐러 같으나 낙지 구멍을 알 수 없어 종일 허매다 낙지 한 마리를 캐왔다. 도야지 우리 옆에 집가리를 쌓았다.
◎ 11월 3일 (음 9월 15일) 목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앞마당 끝에 쌓았던 집가리를 다시 쌓으며 적근 집뭇을 보태 묶어 쌓았다. 下午에는 영을 엮었다.
◎ 11월 4일 (음 9월 16일) 금요일 晴
午前 中 영을 엮고 下午에는 그럭저럭 하다가 …
◎ 11월 5일 (음 9월 17일) 토요일 晴
집 몇 뭇 추리고 종일 그럭하였다.
◎ 11월 6일 (음 9월 18일) 일요일 晴
來日 지붕 해 일랴고 사다리를 얻어다가 지붕을 벼껴네리고 영 6마름을 엮었다.
◎ 11월 9일 (음 9월 21일) 수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영을 엮어 앞 울타리를 두루고 點心을 먹고 高棧 넘어가니 작근집에 집을 해이여 協助해 주었다.
◎ 11월 12일 (음 9월 24일) 토요일 晴
일덜이 끝나면 농촌 生活도 한 세월 간다. 게속되는 똑같은 生活의 朝飯을 마치고 종일토록 노랐다. 농꼴 鹽田에 가 간수 한 짐 지고 와 농꼴 조선무 한 짐 지고 왔다.
◎ 11월 26일 (음 10월 8일) 토요일 雲
집가리가 쓰러저 다시 쌓는데 손이 시러워 손을 불며 쌓았다.
◎ 12월 13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雲
거름을 일직 치고 물 몇 짐 지고서 夕飯食事를 하였다.

1961년

◎ 1월 6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場에 가기로 하고 일직 일어나 理髮을 갈랴고 옷을 입고 잇으니 孟植이 와 妻男에게 편지 한 장을 써 달라 해서 食前에 편지를 쓰고 朝飯을 같이 하고 …
◎ 1월 10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집에 잇을랴니 심심해서 비를 매였다. 10자루.
◎ 1월 12일 (음 11월 26일) 목요일
… 高棧 넘어가 놀다가 작근집이 와서 편지 한 장을 써 달라 해서 써놓고 있다가 왔다.
◎ 1월 14일 (음 11월 28일) 토요일
夕飯食事 後에는 모처럼 왕울기를 한 사리 꼬러같더니 朴서방이 꼬아주고 나는 또 같이 담배 내기를 했다.
◎ 1월 16일 (음 11월 30일) 월요일
저녁에는 새끼를 꼬라 같다 왕울기 한 사리를 괜신히 꼬고 왔다.
◎ 1월 19일 (음 12월 3일) 목요일
저녁에는 왕울기 한 사리를 꼬았다.
◎ 1월 22일 (음 12월 6일) 일요일
저녁나절 울타리를 놀랴고 하다가 못 놓고 새끼만 감아 놓고 말았다.
◎ 1월 23일 (음 12월 7일) 월요일
朝飯 後에 옆 밭에 거름 처내고 下午에는 울타리를 놓아 몇 발 치였다.
◎ 1월 24일 (음 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늣게 와 먹고 집을 추리여 가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새기 한 사리를 꼬고 와서 孟植의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자리에 드렀다.
◎ 1월 25일 (음 12월 9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富平 아저씨 問病을 같다가 와 울타리 좀 치다가 點心을 마치고 理髮을 하고 놓다가 夕飯 食事를 하고서 새끼 한 사리를 꼬왓다.
◎ 1월 26일 (음 12월 10일) 목요일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1월 27일 (음 12월 11일) 금요일
朝飯 後에 富平 아저씨 문병 같다 와 울타리를 첫다. 울타리를 한 띠 처서 둘렀다.
◎ 1월 29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늣게까지 朝飯을 마치고 놀고 와 갈키를 들고 나갔으나 참으로 할 곳이 없어 그냥 도라왔다. 처음으로 나간 것이라 더욱 어렵다. 종일 놀다. 날은 좋은데 놀고 잇으니 더욱 마음의 不安을 禁할 수 없다.
◎ 1월 30일 (음 12월 14일) 월요일
午前 中 놀다가 下午에 울타리를 始作해서 몇 발 치다가 아논 뚝 물이 새서 막으려 같다.
◎ 2월 4일 (음 12월 19일) 토요일
날씨도 좋고 해서 울타리를 한 띠 처둘렀다. 約 6발 가량 모자라는 것은 수수대가 없어 그만 못 둘르고 영으로 둘를 작정이다. 下午에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같으나 한 전 짐 해 같고 그냥 도라왔다.
◎ 2월 5일 (음 12월 20일) 일요일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外上 갑(국수 1관) 갑 600환을 갑고 와 집을 추리여 저녁에 가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2월 11일 (음 12월 26일) 토요일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2월 26일 (음 1월 12일) 일요일
종일 놀다가 뒤동산에 가서 굼불거리 한 아름 글거왔다. 멎 뭇 남지않은 穀草 가지곤 아무리 생각해도 신탄 問題가 걱정이다.
◎ 2월 27일 (음 1월 13일) 월요일
오늘은 나무를 가볼랴고 나가 도라다니다가 한 바수거리를 해왔다.
● 3월 이달의 행사
17일(금) 울타리 꼬매다
21일(화) 國土開發事業의 植木
22일(수) 가마니치기 始作
◎ 3월 6일 (음 1월 20일) 월요일
오늘 인분을 칠랴고 食前에 차려놓고 朝飯을 마치고 몇 짐 저내니 밭이 녹아 흘러 못 치고 못 처럼 바다에를 같다. 날씨는 온화하고 바람이 없어 바다에 가도 춥지 않다. 녹구화를 신고 간는데 빠지지도 안았다. 맛 두어 사발 잡아같고 왔다.
◎ 3월 8일 (음 1월 22일) 수요일
食前에 자리에 잇으니 妻가 누가 나무동을 저 같다고 야단을 하고 급히 나가보니 사랑모텡이 쌓은 나무동 3동을 저같다. 어리로 같나 찾아보니 동욕굴로 가서 보니 동욕굴 가서 다시 목어지고 돌팍지로 공동묘지 쪽으로 흘리며 같으니 三溪로 간 것이 틀림이 없다. 아주 氣分이 덜 좋다. 종일 氣分이었다. 下午에 나무 보충한다고 나가 한 바수거리 글거왔다.
◎ 3월 9일 (음 1월 23일) 목요일
종일 나무 한 바수거리 해왔다. 나무가 없어 어디다 지게를 내려 놓을 곳이 없다. 봄만 데면 얼굴은 먹지장으로 변하고 아주 볼성 모양이 되고 만다. 이거 나무 할 곳은 없고 당장 나무 걱정을 할 것 같다.
◎ 3월 10일 (음 1월 24일) 금요일
午前에 그냥 놀다가 下午에 나무 한 전을 해왔다.
◎ 3월 11일 (음 1월 25일) 토요일
나는 종일 나무 몇 갈이를 했다.
◎ 3월 12일 (음 1월 26일) 일요일
나무를 갈랴고 지게를 지고 나서니 작근 尹書房이 와서 쌀 달라 해서 孟植과 計金해서 들에 내다놓고 나는 나무를 같다. 요즈음 갠나무 유행이 되여 나도 갠나무 午前 午後 通해 햇더니 저녁나절은 논이만 못하다.
◎ 3월 14일 (음 1월 28일) 화요일
나는 모처럼 등그럭 나무를 가서 午前에도 한 짐하고 下午에도 한 짐을 햇더니 피곤하다.
◎ 3월 15일 (음 1월 29일) 수요일
午前에 (…) 갈키나무 한 짐을 햇다. 下午에도 등그럭을 햇다.
◎ 3월 16일 (음 1월 30일) 목요일
자고 일어나 前日 해온 나무등걸을 빠개고 朝

飯食事를 하고 앞 꼬추밭을 아버지 家 소를 같다가 갈았다. 10時가 넘어서야 다 갈고 나무를 같다왔다. 點心을 먹고서도 나무 한 짐을 해왔다. 한 짐이라야 한 바수거리 아침저녁만 때면 없어진다.

◎ 3월 17일 (음 2월 1일) 금요일

食前에 등걸을 패고 朝飯食事 後에 모처름 바다에 가 맛을 잡아왔다. 건맛 서너 사발 가량 되여 보이다.

◎ 3월 19일 (음 2월 3일) 일요일

朝飯 後에 마실을 같더니 晧植으로부터 幸運의 글을 받었다.

◎ 3월 20일 (음 2월 4일) 월요일

前日 받은 幸運의 글은 오늘 돌랐다.

◎ 3월 22일 (음 2월 6일) 수요일

妻와 春子는 가마니치기 始作해서 3짝을 첬다.

◎ 3월 24일 (음 2월 8일) 금요일

오늘은 春子와 종일토록 가마니 넉 작을 첬다.

◎ 3월 25일 (음 2월 9일) 토요일

가마니 넉 작 치다.

◎ 3월 31일 (음 2월 15일) 금요일

朝飯食事를 하고 곳 바다에 같섰다. 今年들어 처음으로 삐죽이란 조갑이 앉었다. 두어 사발 잡아 같고 왔다.

◎ 4월 12일 (음 2월 27일) 수요일

妻와 春子는 가마니 4짝을 첬다.

◎ 4월 21일 (음 3월 7일) 금요일 細雨

妻와 나는 가마니 몇 짝을 첬다.

◎ 4월 22일 (음 3월 8일) 토요일

妻와 春子는 가마니 몇 짝을 첬다.

◎ 4월 23일 (음 3월 9일) 일요일 晴

가마니도 오늘로 40작을 치고 떼놓았다.

◎ 4월 30일 (음 3월 16일) 일요일

종일 한 일은 가마니 몇 짝 꾸미고 등걸 한 짐. 논뚜랑 손질.

◎ 5월 2일 (음 3월 18일) 화요일

朝飯 後에는 밭원 몇 배미 가래질을 하고 (…) 맛을 잡으러 같다. 별로 못 잡고 도라와 농꼴 논이 뚝을 손질했다.

◎ 5월 4일 (음 3월 20일) 목요일

한참이나 자다가 下午에서야 가마니 몇 작을 꼬매고 새끼 한 사리를 꼬맸다.

◎ 5월 11일 (음 3월 27일) 목요일

등걸 한 짐을 해오고 그럭저럭 했다.

◎ 7월 2일 (음 5월 20일) 일요일

날씨가 고로지 못한 관계로 집에서 한 일 없이 하로해를 보내고 저녁나절서야 풀 한 짐 비여왔다.

◎ 7월 10일 (음 5월 28일) 월요일 雲

몸이 피곤하여 늣게 일어나 도야지 풀을 좀 비고 朝飯 後에 일을 같다.

◎ 7월 12일 (음 5월 30일) 수요일

나는 오늘 앞 한 마지기를 除草하고 말 가웃지기 아논 일곱지기도 이름을 지우고 풀을 한 짐 비였다. 우리도 除草는 끝났다.

◎ 7월 13일 (음 6월 1일) 목요일

저녁나절은 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14일 (음 6월 2일) 금요일

비는 下午에는 안개비로 오락까락 하여 우장을 엮고 풀을 좀 비고 …

◎ 7월 15일 (음 6월 3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 종일 놀다가 下午에 풀을 좀 비였다.

◎ 7월 16일 (음 6월 4일) 일요일

初伏. 午前과 午後에 걸러 풀 두 짐을 비였다.

◎ 7월 19일 (음 6월 7일) 수요일

저녁나절 풀 1짐.

◎ 7월 27일 (음 6월 15일) 목요일

食前에 새끼를 좀 꼬았다.

◎ 7월 28일 (음 6월 16일) 금요일

멍석 놓았다. 午前에 그럭저럭하다가 午後에 멍석을 놓았다. 새끼가 좀 글근 편이다.

◎ 7월 29일 (음 6월 17일) 토요일

食前에 멍석 몇 돌림을 만들고 …

◎ 7월 30일 (음 6월 18일) 일요일

食前에 멍석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사리

비라 같다. 完雨 戊晨 晧植 무植 等이 밥을 같고 덕지절로 싸리를 비라 같으나 없어 절에서 한 심식 자고 서대울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바수거리 두 감내기는 비여왔다. 날씨도 더웁고 매우 혼났다. 저녁 먹을 경에서야 도라왔다.

◎ 7월 31일 (음 6월 19일) 월요일

食前에 멍석 만들고 朝飯 後에도 몇 돌 량 만드럿다.

◎ 8월 1일 (음 6월 29일) 화요일

몇 일만에 풀을 저녁나절 비였다.

◎ 8월 2일 (음 6월 21일) 수요일

食前에 풀을 좀 비고 朝飯 後에 멍석을 만들고 저녁나절도 풀 한 짐. 夕飯 後에는 모처럼 새끼를 꼬왔다.

◎ 8월 3일 (음 6월 22일) 목요일

오늘 처음으로 食前에 나무를 뜨드러가 동욕굴 仁成 家 가시덤풀을 뜨덧다. 朝飯 後에도 나무를 했다. 아직 덜 해가서인지 조사가 심하다 해서인지 나무 할랴면 할 것 같다. 下午에는 쏘나귀가 나리여 멍석을 만들고 夕飯에도 몇 돌량 만드렀다.

◎ 8월 4일 (음 6월 23일) 금요일

날씨가 흐리고 구중중해서 들일은 못하고 食前에 멍석 몇 돌량을 만들고 朝飯食事 後에 오늘 新作路 出役이라 해서 건너가보니 來日로 간다 해서 나무 뜨드러 같다가 손만 닷처 같고 왔다.

◎ 8월 5일 (음 6월 24일) 토요일

食前 멍석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新作路 出役. 洞里가 生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動員이 되였다. 별다른 대책도 없다. 軍政이라 엄한 것을 各自 自覺한 관게다. 靑龍台와 三溪로 나누어 하여 나는 三溪에서 하고 일직 와 풀 한 짐을 했다. 그리고 나무를 조고마하게 두 동 묵다.

◎ 8월 6일 (음 6월 25일) 일요일

食前 일직 나무 한 짐. 朝飯 後에도 낮에는 따거운 볕에 그냥 놀다가 저녁나절도 나무를 했다.

◎ 8월 7일 (음 6월 26일) 월요일

食前에 나무 하고 朝飯 後에 동욕굴 논뚝을 뜨덨다. 저녁나절도 나무를 하고 點心 頃에는 날씨가 심히 더워 바수거리를 역었다. 사랑방도 뚜러진 곳에 손질을 했다. 저녁에는 새끼를 꼬왔다. 종일토록 일을 햇더니 피곤하다.

◎ 8월 8일 (음 6월 27일) 화요일 暴雨

종일 그럭저럭 멍석 몇 돌량을 만드렀다.

◎ 8월 9일 (음 6월 28일) 수요일

食前에 멍석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나무 한 짐 하고 종일 멍석을 만들었다. 저녁나절은 나무 뜨든 것 두 동을 묶어왔다.

◎ 8월 10일 (음 6월 29일) 목요일

食前에 멍석을 몇 돌량 만들고 朝飯 後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妻가 일직 떠났다. 종일 그럭저럭 하다가 저녁나절 나무 한 짐 하고 나무 한 동을 묶어왔다.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11일 (음 7월 1일) 금요일 暴雨

食前에 나무 한 짐을 하고 朝飯食事 後에는 멍석 몇 돌량 만들다.

◎ 8월 12일 (음 7월 2일) 토요일 폭우

멍석을 만들었다.

◎ 8월 13일 (음 7월 3일) 일요일

午前 中 낮잠. 午後에 늣게야 나무 한 짐하고 한 동 묶었다.

◎ 8월 14일 (음 7월 4일) 월요일

前日과 같은 날씨. 종일 하는 일 없이 놀다가 저녁나절 풀 한 짐.

◎ 8월 15일 (음 7월 5일) 화요일

朝飯 後에 나무 한 짐 하고선 종일 노랐다. 八.一五와 더부러 멍석을 떳다.

◎ 8월 19일 (음 7월 9일) 토요일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를 꽜다.

◎ 8월 21일 (음 7월 11일) 월요일

朝飯 後에 나무 한 짐 하고 下午에도 한 짐 했다.

◎ 8월 22일 (음 7월 12일) 화요일

저녁나절은 나무를 묶였다. 뒤뚝을 4동 묶다.

◎ 8월 25일 (음 7월 15일) 금요일

저녁은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26일 (음 7월 16일) 토요일

종일 놀다가 午後에 나무 한 짐 했다. 조그마하게 한 동 묶었다.

◎ 8월 27일 (음 7월 17일) 일요일

午前엔 그냥 놀다가 저녁나절에야 나무 한 짐 했다.

◎ 8월 29일 (음 7월 19일) 화요일

朝飯 後에 피사리를 했다. 두 말 가웃지기가 前日 午後에 하고 오늘 午前에도 못다 하고 午後에도 해야 다 할까 한데 나무 한 동 묵고 …

◎ 9월 4일 (음 7월 25일) 월요일

종일 하는 일없이 冊만 보다가 下午 늦게 나무 한 짐 햇다.

◎ 9월 5일 (음 7월 26일) 화요일

몇일만에 나무 두 짐을 했다.

◎ 9월 6일 (음 7월 27일) 수요일

날씨가 든듯하여 습기 잇는 곳에 乾조할랴고 멍석을 보니 멍석 한 닙이 썩었다. 만들기 힘든 멍석을 쎄긴 나는 좋은 氣分이 좋지 않았다. 저녁나절 썩은 멍석을 새기였다.

◎ 9월 7일 (음 7월 28일) 목요일

午前에 나무 한 짐을 하고 午後에 나무 두 동을 묵겄다.

◎ 9월 25일 (음 8월 16일) 월요일

食前에 매끼 몇 틀고 朝飯 後에 다섯재祖父 家일을 같다.

◎ 10월 3일 (음 8월 24일) 화요일

食前에 매끼 한 짐을 농골까지 저다 놓고 朝飯後에 일을 같다. 두 참을 일직 비였으나 벼가 아주 잘 되였다고 야단덜이다. 과연 잘 되였다. 500束이 난 해가 없다고 하는데 708束이나 났다. 새참을 먹고 가운데 농골 말냉이 산소펄판까지 뽑기에 많은 심이 드렀다. 點心(겨뚜리 點心)이 아주 늦은 때야 뽑고 와 點心을 먹고 너 말 가웃지기를 비였다. 늦게 끝난 고로 세여보지 못했다. 매끼 2000개를 트럿는데 約 300개는 모자란 셈이다.

◎ 11월 26일 (음 10월 19일) 일요일

가을일은 거이 다 했다. 거름까지 치면 가을일로는 겨울 準備의 나무를 해놓아야 하는데 이 지방은 가을 나무는 할 수 없다.

◎ 11월 28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庶母와 아버지 家는 가마니 치고 있다.

◎ 12월 17일 (음 11월 10일) 일요일

朝飯 後에는 英浩 藥을 바러주고 못처럼 마실을 같다. 삼태를 놓을랴고 집을 좀 같고 가 새끼를 좀 꼬아왔다. 몇일 잔치에 어린 것에 지친 나는 팔 다리의 힘이 없다. 저녁에도 집토깨를 같고 같으나 내가 마실 가니 한 군이 되여 담배내기를 밤이 익숙도록 하다가 왔다.

◎ 12월 18일 (음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먹고는 새끼(小) 한 사리 꼬왔다.

◎ 12월 19일 (음 11월 12일) 화요일

저녁을 먹고 다섯재祖 家로 새끼를 꼬라 가 몇발 꼬니 鍾소리가 요란히 나며…

◎ 12월 25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前日 추린 집 16束을 高棧 敬浩에게 새끼를 꼬와 달라고 저다 주었다.

◎ 12월 26일 (음 11월 19일) 화요일

새끼를 꼴랴고 高棧 넘어가니 나발이 고장이라 못 꼰다고 해 그냥 넘어왔다.

◎ 12월 29일 (음 11월 22일) 금요일

요즈음의 하는 일이란 나무 아니면 별로 하는 일 없는 한가로운 때이다. 나무 지게 안 지다가는 나무 할 것 같지 안아 왔다 갓다 하다가 午後에 …

◎ 12월 30일 (음 11월 23일) 토요일

朝飯食事를 일직 하고 高棧 敬浩 家에 가 새끼를 꼬기 始作하니 처음 하는 일이라 스툴러 正秀가 協助해 주어 세 둘래를 꼬니 點心 때가 되여 올랴 하니 點心까지 얻어먹고 왔다. 午後에는 雄浩 돌 차리 떡방아를 協助해 주었다. 夕飯 後에는 새끼를 한 사리 꼬아왔다.

1962년

◎ 1월 2일 (음 11월 26일) 화요일 晴
오늘도 朝飯 後 늦게야 高棧 가서 새끼를 좀 꼬왔다.
◎ 1월 10일 (음 12월 5일) 수요일
저녁에는 새끼 한 사리 꼬왔다.
◎ 1월 11일 (음 12월 6일) 목요일 雲
오늘 高棧서 새끼 꼬다 나문 것을 꼬라 같다가 詳植이 술집으로 가자해서 가 나도 술 한 데를 받어 마신 것이 만취가 되어 저녁에는 고생을 햇다. 저녁에 새끼 꼬라 같다가 그냥 도라왔다.
◎ 1월 12일 (음 12월 7일) 금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高棧 가서 새끼를 꼬와 올랴니 …
◎ 1월 17일 (음 12월 12일) 수요일 晴
저녁에 새끼 꼴라가니 음물 파는 사람이 안 간지라 마실꾼이 많아 그냥 도라왔다.
◎ 1월 22일 (음 12월 17일) 월요일
夕飯 後에는 왕울기 좀 꼬왔다.
◎ 1월 24일 (음 12월 19일) 수요일 晴
저녁에는 富平 아주머니 家 새끼를 꼬와주었다.
◎ 1월 28일 (음 12월 23일) 일요일 晴
오늘은 朝飯을 마치고 洞里의 生活 記錄 카드를 作成햇다.
◎ 1월 29일 (음 12월 24일) 월요일 晴
農銀 支시인 借用金 申請書를 종일 作成해다가 高棧에 주고 왔다. 家庭事項 財産事項 及 生産 소비 等 家家戶戶히 하는 것이라 아주 복잡한 것인지라 종일 쓰고 午後에 같다주었다.
◎ 1월 30일 (음 12월 25일) 화요일 晴
朝飯 後에는 비를 매리라고 食前에 비목을 準備해놓고 朝飯 後에 芙浩 藥을 발라주고 잇으니 重植이 와서 安仲을 좀 같이 나가 役員의 登記申請을 같이 하자고 하여 할 수 없이 安仲에 같이 나같다. 組合長 重植인 다른 일 보고 登記申請은 내가 作成했다.
◎ 2월 3일 (음 12월 29일) 토요일 晴
오늘은 종일토록 어린 것 보아주는 일. 저녁엔 왕울기 한 사리.
◎ 3월 5일 (음 1월 29일) 월요일 晴
저녁엔 꾸미개 새끼를 좀 꼬왔다.
◎ 3월 6일 (음 2월 1일) 화요일 雲
족닥기[족답기]를 놓기는 햇으나 어린이 하고 칠 수 잇을까 걱정이다. 朝飯 後에 妻와 叭마니 짜기 始作은 햇으나 雄浩가 덤비고 방에 놓면 나오고 밖에는 아직 찬 기운이 잇어 내놓기가 안 데였다. 허는 수 없이 안마당에 내놓앗다. 그리하여 어린 것 보며 午前 2닙 午後 2닙을 합 4닙을 첫다. 우리 가정엔 가마니치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마저 사쓴다는 것은 안 될 일인지라. 始作은 햇으나 40여닙을 엇이 칠 것인지?
◎ 3월 7일 (음 2월 2일) 수요일 晴
오늘도 날씨가 차가와 어린 것 보아가며 가마니 3닙을 첬다.
◎ 3월 8일 (음 2월 3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炳默君이 와서 移舍짐을 날라 달라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移舍 짐을 運搬해주었다. 前日을 生覺하면 귓심하기 짝이 없으나 十人之友보다 老人之散이 더 무섭다고 좋은 게 좋은지라 같이 가 협조했다. 午前 中 運搬하고 午後에도 해달라 햇으나 洞里사람 午後에는 문도 그만 두엇다. 날씨도 溫化하고 하여 가마니를 칠까 한 것이 못 첫다.
◎ 3월 9일 (음 2월 4일) 금요일 晴
食前에 모자리 할 논에 두엄 몇 짐을 저내고 朝飯食事 後엔 일직 가마니 치기 始作해서 午前에 3닙 午後에 3닙을 첬다. 웅호가 잘 놀아주어 6닙을 친 셈이다. 날씨도 溫化하고 하여 밖에 雄浩를 내놓니 종일 재롱을 떨며 잘 노라 신통하기 말할 때 없다.
◎ 3월 10일 (음 2월 5일) 토요일 晴
氣溫이 많이 네려가 일직 가마니틀에 못 앉아 마실을 건너가니 前日 炳賢家 移舍 짐을 물에

집어 넣엇다고 한다. 오늘은 가마니를 3닙박게 못 첫다.

◎ 3월 12일 (음 2월 7일) 월요일 晴

아번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間病을 갈다와선 곳 가마니를 치기 始作해서 종일토록 4립을 첬다.

◎ 3월 13일 (음 2월 8일) 화요일 晴

가마니 2닙.

◎ 3월 18일 (음 2월 13일) 일요일 晴

食前에 농꼴 밭에 재를 저내고 午前엔 사냥 갈다왔다. 午後에 가마니를 꼬매고 잇으니 炳賢父親이 와서 동욕꿀 밭을 사라해서 (…) 저녁에 바다에 다니는 종태 1마를 만드럿다.

◎ 3월 19일 (음 2월 14일) 월요일 晴

午後엔 마당 부스럭을 논에 갈다 내고 가마니를 몇 작 꼬맷다. 나는 오늘 저녁에 꾸미개 새기를 꼬왔다.

◎ 3월 21일 (음 2월 16일) 수요일 晴

妻의 毒感의 증세는 오늘도 별 次度가 없다. 오늘 종일 혼자서 제사 準備를 하고 나는 朝飯食事後에 바다에 가 맛을 몇 사발 자바왔다.

◎ 4월 9일 (음 3월 5일) 월요일 雲

봄일에 잔득 몰리여 조바심이 되여 午前에 가마니 한 짝을 치고 午後에 모자리를 가랐다.

◎ 4월 12일 (음 3월 8일) 목요일

午後에는 가마니를 2닙 첬다.

◎ 4월 19일 (음 3월 15일) 목요일 晴

妻가 가마니를 짜자고 해서 가마니 5립을 첬다.

◎ 4월 21일 (음 3월 11일) 토요일 晴雲

오늘 妻와 가마니를 6닙이나 첬다.

◎ 5월 5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午前에 高棧 叔母任이 와 片紙를 써달라고 오시여 써드리였다.

◎ 5월 10일 (음 4월 7일) 목요일 晴

午後엔 망태 만들던 것을 만드러 치웠다.

◎ 6월 22일 (음 5월 21일) 금요일 晴

莊植이 와서 雄辯 原稿를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

◎ 8월 3일 (음 7월 4일) 금요일 雨

點心도 안 먹고 누어 잇으니 靑年들이 몰려와 今般 新浦서 排球大會에 出전해야겟는데 어이하면 좋으냐고 會費問題가 걱정이라고 해서 나는 洞里 어른들의 協助를 바랄 수밖에 없이 않으냐고 하고 靑年들의 취지文을 써 回覽시키는 것이 어떠냐니 좋다고 해서 취지文을 써주엇드니 가지고 갈다.

◎ 8월 10일 (음 7월 11일) 금요일 晴

오늘 삼테를 만들기 始作했다. 夕飯 後엔 왕울기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16일 (음 7월 17일) 목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里事務所에 가서 삼테 만들던 것을 만들고 잇으니 …

◎ 8월 17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雨

삼테 만들던 것을 오늘 끝맛고. 夕飯 後에 왕울기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22일 (음 7월 23일) 수요일 晴

저녁엔 왕울기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23일 (음 7월 24일) 목요일 雲

왕울기 한 사리 꼬왔다.

◎ 8월 25일 (음 7월 26일) 토요일 雲雨

종일 하는 일 없이 잇다가 저녁에 왕울기 한 사리 꼬왔다.

◎ 8월 26일 (음 7월 27일) 일요일 雲雨

왕울기도 꼴랴 햇으나 비가 와 일직 자리에 드럿다.

◎ 8월 27일 (음 7월 28일) 월요일 雨

午後 늣게 바수거리를 엮었다.

◎ 8월 28일 (음 7월 29일) 화요일 晴

夕飯 後에 왕울기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30일 (음 8월 1일) 목요일 晴

저녁엔 왕울기를 한 사리 꼬왔다.

◎ 9월 18일 (음 8월 20일) 화요일 晴

묵은 穀草도 치울 겸 해서 食前에 매기를 좀 틀고 …

◎ 9월 24일 (음 8월 26일) 월요일 晴

食前에 매끼를 틀고 잇으니 …

◎ 10월 3일 (음 9월 5일) 수요일 雲
食前에 오늘 일 준비를 하고 朝飯 後엔 일토[일터]인 농꼴로 매끼 사리를 지고 같다.
◎ 10월 16일 (음 9월 18일) 화요일
오늘 보리를 갈랴했으나 소가 없어 못 갈고 妻보고 메기를 장만하라고 벼 70餘束을 같다주고 농꼴 벼 뭇에 새떼가 하도 많이 뎁벼 다른 곳으로 옮길랴고 같다가 손을 치고 나니 午後가 지나 點心을 먹으랴 왔다. 새가 하도 많이 까먹은 짓이 겨가 한 삼테기는 넘을 상십다.

1963년

◎ 1월 5일 (음 12월 10일) 토요일 雲
종일 놀다가 저녁을 마치고선 집에서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1월 6일 (음 12월 11일) 일요일 雲
낮에는 종일 그럭저럭하고 저녁엔 가마색끼[가마니 만드는 새끼]를 한사리 꼬왔다.
◎ 1월 7일 (음 12월 12일) 월요일 晴
夕飯食事를 하고야 안방에서 새끼를 꼴랴니 어린 것들이 성가시게 굴어 성가시라 마실방이나 공방이 잇어야 집일 하기예 편리한 것인데 적당한 곳이 없어 집일 하기에 不自由스럽다.
◎ 1월 8일 (음 12월 13일) 화요일 晴
오늘 저녁은 새끼를 안 꼬왔다.
◎ 1월 9일 (음 12월 14일) 수요일 晴
저녁엔 어린 것들과 싸워가며 집에서 새끼를 한 사리 꼬왔다. 마실에 空房이 없는 고로 집일하러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좁은 집 방에서 일을 한다.
◎ 1월 10일 (음 12월 15일) 목요일 雪雲
마을 방으로 갈까 하다가 날씨 차거웁고 해서 안방에서 새끼 한 사리를 妻가 協助해 9時 50分頃에 끝났다.
◎ 1월 11일 (음 12월 16일) 금요일 晴
夕飯後엔 새끼를 한 사리 꼬왔다.
◎ 1월 13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晴
종일 그럭저럭 저녁에야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1월 18일 (음 12월 23일) 금요일 晴
夕飯後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1월 19일 (음 12월 24일) 토요일 晴
저녁을 먹고 나 마실 가 새끼을 꼬고 잇으니 …
◎ 1월 20일 (음 12월 25일) 일요일 晴
마실 가 새끼을 꼬왔다.
◎ 2월 6일 (음 1월 13일) 수요일 晴
저녁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2월 12일 (음 1월 19일) 화요일 晴
… 아논뚝이 물이 새여 洞里 몇 명과 같이 물을 막고 집에 와 가마니 치기 始作해서 종일 4닙을 첬다.
◎ 2월 13일 (음 1월 20일) 수요일 晴
食前에 재 저내고 叭 6닙
일직부터 서둘러서 오늘은 叭니를 6닙첬다. 어린 것들과 싸워가면 치자니 매우 어려운 일이다.
◎ 2월 14일 (음 1월 21일) 목요일 晴
空叭 6닙. 朝飯食事를 일직하여 서둘러서 雄浩는 英浩보고 마실로 데리고 가 놀라고 하고선 치기 始作해서 오늘도 6닙을 첬다. 6닙을 치고 보면 저녁식사가 늦다. 夕飯食事를 하고선 아번님家에 가 新聞을 보고선 마실 가 놀다가 왔다. 空叭 치기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 2월 16일 (음 1월 23일)
안개 자욱한 날씨였다. 오늘도 朝飯食事를 일직 해먹고 가마니 치기 始作했다. 날씨가 음산하고 안개가 안 가시여 어린 것들이 마실로 못가니 아주 보채여 가마니 치기 더디다. 午後엔 날씨가 바람 한 점 없는 온화한 날씨다. 다른 날보다 좀 일찍 6닙을 처고 앞말 가웃지기 물을 보니 논뚜랑 속으로 새여 잡을 수가 없다.
◎ 2월 1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오늘 叭니를 칠랴고 朝飯을 일직 먹고 空叭를 치기 始作해 한 닙을 치고 나 妻가 나같다 오더

니 顯雨氏 집 재목 실는데 洞里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 …

◎ 2월 19일 (음 1월 26일) 화요일

空叭 四닙. 일직 始作해서 空叭를 칠랴는 것이 아논뚝 막는데 같이 하고 午前엔 3닙을 첬으나 午後엔 어깨가 아푸고 해서 치다 말았다. 妻는 벌써 10餘日째 두두러기로 고생을 하고 있다.

◎ 2월 20일 (음 1월 27일) 수요일 晴

벌써 여러날부터 妻가 두두러기(담마진)가 심하여 가마니도 못 치고 그럭저럭 하다가 …

◎ 2월 21일 (음 1월 28일) 목요일 晴

… 그리고 와 가마니를 짜기 始作해서 5닙을 짰다.

◎ 2월 22일 (음 1월 29일) 금요일 晴

妻의 두두러기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新浦에를 같다오라고 보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繼續되는고로 걱정이 된다. 午後에 新浦서 도라온 妻는 볼 수 없을 程度로 벗성 승했다. 注射와 內服藥을 사갈고 와 즉시 먹고 注射도 주었다. 저녁엔 좀 차도가 있는 듯하다. 종일 걱정 속에 가마니 10닙을 꼬맸다.

◎ 2월 24일 (음 2월 1일) 일요일 晴

朝飯을 바치고 나 가마니를 꼬매고 있으니 큰어머니가 와 밭을 사라고 하니 여유 없는 것을 알면서도 졸라대는 대는 질색이다. 午後에 가마니를 꼬매었다. (…) 저녁엔 왕울기 한 사리.

◎ 2월 25일 (음 2월 2일) 월요일 晴

… 저녁엔 왕울기 한 사리.

◎ 2월 27일 (음 2월 4일) 수요일 晴

오늘 우리는 가마니 4닙을 치고 5닙을 꾸미였다.

◎ 2월 28일 (음 2월 5일) 목요일 晴

오늘 가마니 틀을 내놀랴고 서둘러 가마니 4닙을 처 午後에 일직 띘다. 둘째 祖父任도 가마니 틀을 좀 빌리라고 하시고 해서 일직 끝났다. 전부 49닙 첬다.

◎ 3월 1일 (음 2월 6일) 금요일 晴

오늘 作業狀況은 농꼴 밭원 5마지기 논뚜랑을 돌보고 午後엔 叭니 몇닙을 꾸미였다.

◎ 3월 3일 (음 2월 8일) 일요일 晴

午前中은 아번님 家 재목 마르는 데 봉죽을 들고 午後엔 前日 도야지 오양 친 것을 저내고 가마니를 꾸미였다.

◎ 3월 8일 (음 2월 13일) 금요일 雲

食前에 悠雨씨가 와서 顯雨氏家 집토 壹雨氏에게 賣渡한 契約書을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왔다.

◎ 3월 26일 (음 3월 2일) 화요일 晴

저녁 후엔 兵籍申告申請代書을 해달라고 해서 마실 건너 갔다 왔다.

◎ 3월 28일 (음 3월 4일) 목요일 雨

저녁나절 맬빵을 따고 새끼을 꼬왔다.

◎ 4월 2일 (음 3월 9일) 화요일 晴

오늘 일직부터 서둘러같고 妻와 농꼴밭 감자를 심고 와 옆 밭에 꼬추를 부첬다. 午後엔 앞말 가웃지기(上)을 깜뚝을 하고 모자리 할 곳을 갈았다. 저녁엔 洞會 新作路 出役, 沙防工事 出役 及 가마니 치기 等 農繁期는 닥아오는데 新作路 出役과 沙防工事 出役에 안나오면 엄벌에 처하고 가마니도 1戶當 60닙을 못 치면 엄벌에 처한다니 언제 數量을 마출 것인가. 넘어 들복는다.

◎ 7월 1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雨雲

妻는 生前 처음으로 바다에 가 맛을 잡아왔다.

◎ 7월 23일 (음 6월 3일) 화요일 雨

今年에 맛이 많이 앉아 이 근방 사람들은 봄내 잡아다 먹고 팔고 했으나 우리는 한 번 못 잡아다 먹어 없어지기 前에 한 번 잡아다 먹을까 하고 오늘 가볼까 했으나 비가 많이 나리여 못 같다. 今年엔 웬일로 하루 좋은 날 없이 이리 비기 많을까. 비로 因해 피해 막심하여 神經질을 늘낸다. 비에 쪼끼여 오든 개꾼들은 한참이나 우리 집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 7월 24일 (음 6월 4일) 수요일 雲雨

모처럼 바다에 같더니 사람이 장을 이루고 빈틈 없이 누어있다. 기술이 不足한지라 한 말 以

上 잡는 데 댓사발 잡아왔다.

◎ 7월 25일 (음 6월 5일) 목요일 雲雨

이삭거름(농꼴밭원)

(…) 길이 미지도록 개꾼이 들어가 나도 點心을 먹고 같다. 어제보다는 좀 많이 잡았다. 바다에 같다 와 꿀 한 짐을 비였다.

◎ 7월 30일 (음 6월 10일) 화요일 雲

저녁 먹고는 왕울기 한사리를 꼬왔다.

◎ 7월 31일 (음 6월 11일) 수요일 雲

날씨도 무덥고 해서 종일 집에서 그럭저럭 하다가 새끼 한 사리를 꼬고 저녁에도 새끼 한 사리를 꽸다.

◎ 8월 2일 (음 6월 13일) 금요일 晴

德雨氏가 싸리를 비라 가자고 해서 싸리를 비라 가 좀 비여 같고 왔다. 昨年만 해도 바수거리 한 감을 비자면 하루가 걸리며 德智寺에 가야했다. 잠간만에 두감을 비게 되는 것은 사방공사를 한 고로이다.

◎ 8월 7일 (음 6월 18일) 수요일 晴

매우 무더운 날씨였다. 바다에 갈까 하다가 날씨 무더워 못 같으나 우리 집 앞으로 가는 개꾼도 길이 미지게[미어지게] 지나같다. 바다를 뒤덥께 모여드는 개꾼도 午後에 잡아가는 것을 보면 많이 잡은 사람은 1斗 이상이다. 종일토록 새끼(小)를 꽸다.

◎ 8월 8일 (음 6월 19일) 목요일 晴

33度란 더운 날씨다. 집안에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른다. 午前에는 낮잠을 자고 午後에 새끼 小을 꼬다 더워 마실을 같더니 朴巡聲이 술을 1斗 같고 와 洞里 靑年들과 같이 會食을 했다.

◎ 8월 9일 (음 6월 20일) 금요일 晴

午後엔 왕울기를 꽸다.

◎ 8월 17일 (음 6월 28일) 토요일 雲

午後엔 풀 한 짐 비고 저녁 먹고는 새끼 한사리를 꽸다.

◎ 8월 19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

食前에 집을 축이여 새끼를 꽸다. 종일 그럭저럭 가는 새끼 4닙 매기 가량 꽸다.

◎ 8월 23일 (음 7월 5일) 금요일 雲

왕꿀을 비여 빠갰다. 좀 늦게 빈듯하다.

◎ 8월 2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晴

食前에 오양간에 修理를 하고 모처럼 바다에 맛을 잡으려 같다. 써개질이 서툴러 아주 덜 잡아 집에 와 데여 보니 3사발이라고 한다.

◎ 8월 25일 (음 7월 7일) 일요일 晴

날은 무척 더웁웠고 해서 午前에 새끼를 한 사리 꽸고 저녁나절은 나중에 심은 골고지를 했다.

◎ 8월 26일 (음 7월 8일) 월요일 晴

저녁엔 왕울기 한사릴 꽸다.

◎ 8월 27일 (음 7월 9일) 화요일 晴

저녁 먹고 선 새끼(大) 한 사리를 꼬왔다.

◎ 8월 28일 (음 7월 10일) 수요일 晴

그럭저럭하며 바둑 몇 판을 두고 하루 해를 보내고 세 풀 한 짐을 비였다. 풀이 없어 한참이나 도라다녀야 하니 앞으로 1세풀이 걱정이다. 저녁 먹으면 새끼를 꼬와 10時半이 지나야 자리에 든다.

◎ 9월 2일 (음 7월 15일) 월요일 晴

저녁 먹고 새끼를 꽸다.

◎ 9월 3일 (음 7월 16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飛野木에 산소 옆에 솔을 가꾸어 가며 나무를 午後까지 두 짐 했다.

◎ 9월 5일 (음 7월 18일) 목요일 晴

오늘 食前부터 매끼를 틀기 始作했다.

◎ 9월 6일 (음 7월 19일) 금요일 晴

食前에 매끼를 틀고 朝飯食事後에 김장밭에 거름을 주고 午前 午後를 通해 모짜리 배미 피사리 냉긴 것을 하고 …

◎ 9월 7일 (음 7월 20일) 토요일 晴

食前에 매끼를 틀고 食事後엔 뒤밭뚝을 뜻다가 조곰 냉기였다. 세 풀을 빌랴 나가면 풀이 없어지게 놀 자리가 마당찮다. 저녁나절이 되면 풀빌 걱정이 된다.

◎ 9월 9일 (음 7월 22) 월요일 晴

앞 왜뚝 뜻던 것을 午前에 뜻고 午後엔 나무 한 짐을 했다.

◎ 9월 11일 (음 7월 24일) 수요일 晴
午前에 나무 한 짐 하고 午後엔 앞 내뚝 뜻은 것 나무 두 동 묵고 妻가 솟 가저오는데 마중 나가니 태피 원뚝에서 받어왔다. 집에 와 세 풀 한 짐 비고 저녁엔 새끼(小) 한사리를 꽜다.
◎ 9월 12일 (음 7월 25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나무 한 짐하고 點心 먹고선 작두를 마칠랴 陽甘에 가 못 가저오고 10日後에 된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9월 13일 (음 7월 26일) 금요일 晴
오늘은 아까시야 나무 3짐을 했다.
◎ 9월 14일 (음 7월 27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일직 나무를 始作해서 아까시야 나무 3짐을 했다.
◎ 9월 15일 (음 7월 28일) 일요일 晴
매끼 틀던 것 집이 몇 문 남아 틀어치우고 집이 없어 2000個 만들었다. 朝飯食事後에 나무 한 짐 해오니 비가 오락까락하여 집에 와 비설거지을 하고 나니 點心 때가 되었다.
◎ 9월 16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晴
妻 場에 간 고로 어린 것들을 보아주며 나무 2짐을 했다.
◎ 9월 20일 (음 8월 3일) 금요일 晴
흐렸다 개였다 하는 날씨라 멍석 널기에 좋지 않았으나 멍석을 너렀다. 농꼴 밭뚝 뜻은 것을 묵꼬와 나무 가리를 손질하고 點心後에 理髮을 하고 아까시 나무 한 짐을 해왔다. 저녁을 먹고 나니 비가 올 것 같아 멍석을 뜰로 올려 놀랴 했으나 힘이 不足이라 마당에 포갰다.
◎ 9월 21일 (음 8월 4일) 토요일 晴
밤에 갑작히 나린 비는 폭우로 今年 들어 第一 많이 나린 듯 하다. 자고 일어나보니 멍석이 젓고 마당이 패이고 해서 아주 氣分이 덜 좋다. 멍석도 잘 둘렀것만 비가 많이 온 고로 젖었다.
◎ 9월 27일 (음 8월 10일) 금요일 晴
午前에 나무 한 짐을 하고 午後엔 풀을 비여다가 세메기[소먹이]을 장만했다.
◎ 11월 5일 (음 9월 20일) 화요일 晴
어제까지 벼 떨기를 끝내고 오늘은 쉬기로 했다. 바다에 가서 낙지를 캐려 갈다가 담이 결리는 것이 더한 것 같에 7마리 캐 갈고 그냥 도라왔다.

1964년

◎ 1월 14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일손을 놓은 後는 아무 일 않고 每日 놀고만 잇으니 마음도 不安하다. 昨年만 해도 새끼는 다꽈 놓았을 것이건만 今年엔 새끼 한 사리 못 꽜으니 더욱 不安하다. 얼음도 풀리여 뒤엄도 못 저냈고 겨을일이 몰리였다.
◎ 1월 15일 (음 12월 1일) 수요일
겨울들어 손까락 깟닥 않고 노랐다. 도라올 농사준비도 해야 할 것인데 今年엔 날씨가 봄날씨와 같아 어름도 안 얼어 뒤엄 한 짐 못내고 洞里 空房이 없어 새끼 한 사리 못 꽜으니 봄일이 몰리면 항상 바뿌게 되는 것이다. 미리 해 놓아야 일이 안몰릴 것을 알면서 놀게 되니 마음이 不安하다. 오늘은 가마니 칠 집을 몇 뭇 추렸다.
◎ 1월 16일 (음 12월 2일) 목요일
마실로 一週하고 집 몇 뭇 추리였다. 모처럼 만에 새끼 한사리을 꽜다.
◎ 1월 17일 (음 12월 3일) 금요일
午前엔 마실가 놀다가 午後에 여물을 쓸고 집을 추리여 가는 새끼 한사리을 夕飯 後에 7時까지 꽜다.
◎ 1월 19일 (음 12월 5일) 일요일 雲晴
저녁 나절은 새끼을 한 사리 꽜다.
◎ 1월 21일 (음 12월 7일) 화요일 晴
오늘도 종일 놀다가 가는 새끼 한 사리을 꽜다.
◎ 1월 23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겨울에 뒤엄을 저내야 봄날이 안몰리는 것인데 어름이 안 얼어 못저내고 봄일이 몰리였다. 今年엔 가마니도 짜놓아야겠는데 空房이 없어 못 짜고 妻가 홀몸이 아니라 더욱 곤란하다.

◎ 1월 24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晴

농꼴 밭원으로 두엄을 저내고 잇으니 농꼴 京彙가 製신機[製繩機; 새끼 꼬는 기계(새끼틀)]을 안 사겠냐고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 崔書房집 것인데 하도 졸라대여 마지 못해 사기로 하고 白米 7斗에 작정하고 일 둘만 해달라고 하고서 製신機을 지고 와 술을 몇잔 같이 하고 헤여젔다. 간後에 새끼을 꼬와보니 뒤의 기아아 넘는 거이라 못꽜다. 이놈들에게 속았다.

◎ 1월 25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晴

食前 일직 넘어가 京彙보고 製신기가 고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샀노라고 하니 와서 고처 주겠다고 해서 같이 와 朝飯食事을 같이 하고 보아주어 곳 잘 데는 것 같아 새끼 두사리을 꼬고 나니 또 마찬가지다. 아주 氣分 덜 좋다.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安仲場에 갈랴고 했으나 새끼틀이 고장이 나서 농꼴 京彙가 와 고치는 고로 場에 못같다. 完全한 줄 아랐든 것이 고장이 자주나니 氣分이 나뿌다. 午後에 새끼 두둘래 꼬왔다.

◎ 1월 27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晴

종일 李巡警과 새끼을 꼬고 잇다가 …

◎ 1월 29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雲 細雨

어제 새끼 꼬다가 나발이 터저 오늘 敦植에게 때웠다. 새끼 두 사리을 꽜다.

◎ 1월 30일 (음 12월 16일) 목요일

집을 추리여 李 巡警과 새끼을 4통 꼬왔다.

◎ 1월 31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雪

午前에 李巡警과 새끼 한 둘래을 꼬고 …

◎ 2월 1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雪

甲辰年이 밝은지 어언 일개월이 지나 2月 1日을 마지했다. 지난 1個月間에 한 일이란 별로 없고 새끼틀을 買入한 것이 큰일이요 땅 흥정은 될뜻하고 마랐다. 별로 한 일없이 놀다가 (…) 오늘은 새끼 한 사리.

◎ 2월 2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晴

마실 가 놀다가 午後에야 집에 와 새끼 두사리을 李巡警과 같이 꽜다.

◎ 2월 3일 (음 12월 20일) 월요일 晴

날씨도 차거웁고 해서 그럭저럭하다가 李巡警이 와 새끼을 두 둘레 꽜다.

◎ 2월 4일 (음 12월 21일) 화요일 晴

날씨가 좀 풀린 것 같기는 하나 零下 5, 6度라는 추운 날씨다. 새끼을 꼴랴다 손이 시리워 못꼬고 종일 노랐다.

◎ 2월 20일 (음 1월 8일) 목요일

오전에 새끼 두 둘래을 꼬고 논뚜랑에 불을 놓았다.

◎ 2월 21일 (음 1월 9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李巡警이 가는 새끼 나발을 때워서 우리 새끼들에서 두 둘래을 꽜는데 가는 새끼 꼬는 통이 없어 새끼가 잘 않된다.

◎ 3월 1일 (음 1월 18일) 일요일 晴

모처럼 바다에 가 맛을 3사발가량 잡아왔다. 바다에 같다오니 아주 皮곤하다.

◎ 3월 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오늘 농꼴서 塩田을 가는데 소사람이 오면 300원을 준다고 해서 朝飯食事을 하고 아번님家 소을 같고 일을 같다. 일은 별로 힘이 들지 않는 일이다. 點心도 집에 와서 먹고가니 일은 할만하다.

◎ 3월 9일 (음 1월 26일) 월요일 晴

오늘도 농꼴로 일을 같다. 오늘은 종일 塩田 結晶地을 쓰리였다.

◎ 3월 10일 (음 1월 27일) 화요일 晴

午後늦게 앞 웅뎅이를 靑年 몇이 퍼서 미꾸리를 3사발 가량 잡았다.

◎ 3월 15일 (음 2월 2일) 일요일 雪

몇일 前에 농꼴 事業所에 가 일한 품갑을 받어 德雨에게서 借用한 돈을 갑다.

◎ 3월 16일 (음 2월 3일) 월요일 雲

午前 中 그럭저럭하고 午後에 새끼 한 둘래 꽜다.

◎ 3월 21일 (음 2월 8일) 토요일

… 곳 집에 와 李巡警과 새끼 두 둘레을 꽜다.

◎ 3월 31일 (음 2월 18일) 화요일 晴

李巡警과 같이 있다가 와 10時頃에 가마니틀을

차리고 叭니 치기 始作해서 오늘 四닙을 일직 치고 여물을 쓸었다.

◎ 4월 1일 (음 2월 19일) 수요일 晴雲

일직부터 가마니치기 始作해서 7닙을 첬다. 오늘 三德國民校 道路가 마당으로 나 잇어 돌리는데 貝役을 하라 가기로 한 날인데 날씨가 흐리고 해서 안가는 줄 알고 가마니을 짰다.

◎ 4월 2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2時頃에 집에 와 가마니 2닙을 치였다.

◎ 4월 2일 (음 2월 20일) 목요일 晴

空叭을 짤랴했더니 오늘 農協을 一里와 二里가 병합을 할 會을 했다. (…) 2時頃에 집에 와 가마니 2닙을 치였다.

◎ 4월 5일 (음 2월 23일) 일요일 雲雨

2, 3日後에 가래질을 할랴고 일꾼을 얻을려고 농꼴 가 일꾼을 마치고 와 朝飯食事後에 然雨家에서 보는 姜春彦家 先代祖墓에 沙草을 하는데 아번님이 보내서 같섰다. 일을 할랴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그해 가면서 했다. 1時半頃에 끝났다. 사람을 사는 고로 一金 百원식 싰다고 百원을 받었다.

◎ 4월 6일 (음 2월 24일) 월요일 雨

午前 中엔 그럭 저럭하고 午後엔 새끼을 꽜다.

◎ 4월 10일 (음 2월 28일) 금요일 晴

午前엔 날씨가 흐리여 오늘 국수을 눌리려 갈랴다가 말고 午前에 가마니을 치고 나니 …

◎ 4월 15일 (음 3월 4일) 수요일 雨

비도 오고해서 가마니 짜기 始作해서 4닙을 첬다.

◎ 4월 22일 (음 3월 11일) 수요일 雨雲

어제 저녁부터 나린 비는 또 많은 비가 午前까지 나리고 午後에 개였다. 午前에 가마니 몇짝을 꼬매고 午後엔 앞 논을 물을 빼고 갈았다.

◎ 5월 1일 (음 3월 20일) 금요일 雨

비가 종일 나린 고로 가마니을 짰다.

◎ 5월 2일 (음 3월 21일) 토요일 雨

오늘 날씨도 종일 日氣 不順한 날씨였다. 가랑비 오락까락 바람이 심하여 가마틀을 마루에 올려놓고 4닙을 첬다. 어린 것들이 보채고 해서 능률이 안 올른다. 午後에 풀망을 미고 풀을 비려 가니 高棧 祥植이 世上을 別했다고.

◎ 5월 3일 (음 3월 22일) 일요일 雲

… 午後 5時頃에 집에 와 풀 한망을 비였다.

◎ 5월 4일 (음 3월 23일) 월요일 晴

午後엔 피곤하여 누었다가 풀 한 망테을 비였다.

◎ 5월 6일 (음 3월 25일) 수요일 晴

소를 부칠랴고 가니 安仲場에 洋灰사라 간다고 해서 소를 못부리고 李巡警과 가마니 3닙을 치고 세풀 한망을 비였다.

◎ 5월 9일 (음 3월 28일) 토요일 晴

날씨는 맑은 날씨로 후덥지근한 고로 또 비가 나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몇일 날씨가 더 좋와야겠는데 할 뿐이다. 가마니 짜던 것을 아주 짤랴고 始作해서 5닙을 치고 일직 손을 떼여 풀을 비였다.

◎ 5월 10일 (음 3월 29일) 일요일 細雨

몸도 피곤하고 해서 종일 놀고 가마니 몇 작을 꼬맸다.

◎ 5월 11일 (음 3월 30일) 월요일 晴

午前엔 논뚜랑을 손질하고 午後엔 가마니을 짰다. 3닙.

◎ 7월 9일 (음 6월 1일) 목요일 雲

食前에 풀 한 짐 비다.

◎ 7월 22일 (음 6월 4일) 일요일 雲

午後 늦게야 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23일 (음 6월 5일) 월요일 雲雨

午後에야 풀 한짐을 비였다.

◎ 7월 14일 (음 6월 6일) 화요일 雲 쏘나귀

點心때까지 낮잠을 자고 點心먹고 말가웃지기 (下) 물꼬를 고치고 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15일 (음 6월 7일) 수요일 雲 쏘나귀

食前에 풀을 비고 …

◎ 7월 20일 (음 6월 12일) 월요일

바다에 가 맛 3사발 가량 잡다.

◎ 7월 21일 (음 6월 13일) 화요일 雲晴

바다에 갔섰다. 食前에 소를 같다 매고 朝飯食

事를 일직 하고서 모처럼 만에 바다에 같다. 바다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맛 잡는 사람이 아주 많다. 잘 잡는 분은 7, 8사발 잡는다. 4사발 가량 잡아 같고 왔다. 바다에 같다 와 새끼틀을 차려 놓고 왕울기 한사리을 꽜다.

◎ 7월 23일 (음 6월 15일) 목요일 雲雨

午前에 새끼 2둘레 꼬고 高棧같더니 …

◎ 7월 24일 (음 6월 16일) 금요일 晴

논에 풀은 잇는데 일손을 놓으니 논에 들어가기 싫어 午前 中 그럭저럭 理髮하고 새끼 두통 꼬고 點心먹고 高棧 가서 쌀을 찌여 같고 와 풀 한짐을 비였다.

◎ 7월 25일 (음 6월 17일) 토요일 晴

오늘 바다에 가서 맛 4사발 가량 잡아왔다. 午後에 세풀 한 짐.

◎ 7월 27일 (음 6월 19일) 월요일 晴

李柱乙이 한 번 만나자고 몇 번이나 편지가 와 來日쯤 한 번 다녀올까 하고 맛이라도 잡아 같고 갈까 하고서 바다에 가 맛 4사발 가량 잡았다.

◎ 7월 28일 (음 6월 20일) 화요일 晴

종일 놀다가 저녁나절 세풀 한짐을 비였다.

◎ 7월 29일 (음 6월 21일) 수요일

午後엔 한심 자고 나니 비가 오기 始作했다. 기다리지 않는 비다. 비가 덜한 것 같아 세풀을 한 짐 비였다.

◎ 7월 31일 (음 6월 23일) 금요일 晴

날씨 더워 저녁나절에야 풀 한 짐.

◎ 8월 6일 (음 6월 29일) 목요일 晴

食前에 농꼴 거름 한 짐 저다주고 里長料 大麥 15升을 같다 주고 雜種金 60원을 같다 드리였다. 午前엔 앞 말가웃지기 피사리 午後엔 밭원 모짜리배미 및 한마지기 피사리를 했다. 그리고 나 풀 한짐 비였다. 우리 논은 논마다 풀이 많다. 來年엔 除草를 철저히 해야겠다.

◎ 8월 7일 (음 6월 30일) 금요일 雲 쏘나귀

비도 오락까락 새끼 좀 꼬고 풀 한짐 비였다.

◎ 8월 9일 (음 7월 2일) 일요일 雨

作業事項 새끼 한 둘레. 세풀 한 짐.

◎ 8월 10일 (음 7월 3일) 월요일 雲雨

作業事項 밀집 자리 한 닙. 풀 한짐.

◎ 8월 11일 (음 7월 4일) 화요일 雲雨

朝飯食事後에 洞里 會館 짓는데 가 있다가 妻가 親家에 간다고 해서 맛이나 잡아 보낼까 生覺하고 바다에 같섰다. 바다에 가서 맛 3, 4사발 잡아 오니 5사발 사고 내가 잡은 것과 합해 갔고 午後 4時半頃에 雄浩와 大浩를 데리고 떠났다.

◎ 8월 12일 (음 7월 5일) 수요일 雲晴

午前에 밑꺼적 엮고 午後에 풀 한짐을 비였다.

◎ 8월 13일 (음 7월 6일) 목요일 晴

午後엔 풀 한짐 비고 저녁밥 지여 먹기도 바쁘다.

◎ 8월 14일 (음 7월 7일) 금요일 晴

몇일만에 어린 것을 데리고 午後 늦게 妻가 도라왔다. 午前에 올줄 알고 英浩가 마중을 나갔으나 안 와 그냥 도라왔다. 풀을 일직 비여다 놓고 저녁 炊事을 할랴니까 도라왔다.

◎ 8월 18일 (음 7월 11일) 화요일

오늘부터는 집일을 치워야 겠다. 몇일 동안 外出관계로 여름일이 몰렸다. 食前에 흙을 몇짐 파오고 食事後에 앞 대똘 뭉겨진 것을 쌓고 午後엔 건너방 구둘 가라앉인 것을 손질해고 아궁이를 다시 앉치고 솟 걸었다. 날씨는 34度란 무더운 날씨로 세풀 비라 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

◎ 8월 19일 (음 7월 12일) 수요일 晴 쏘나귀

午前에 어머니 산소에 伐草을 하고 午後엔 풀 한짐을 비였다.

◎ 8월 21일 (음 7월 14일) 금요일 晴

食前에 창께을 비고 朝飯食事後엔 妻와 꼬추을 땄다. 꼬추 따같고 오니 午後 2時다. 오늘 딴 꼬추가 1叭는 될상십다. 좀 잇다가 세풀 1짐을 비였다.

◎ 8월 22일 (음 7월 15일) 토요일 晴

農閑期을 마지한 이래 일한 것이라고 없다. 農村에선 일없는 때가 없건만 그냥 놀고 보니 氣分

이 통쾌치 않다. 오늘도 午後에 비를 맬까하고 싸리를 좀 비여왔다. 더위는 절정에 다 달해 34.5度란 무서운 노렴이다. 여름 일로 밀린 것이 마당도 도두어야 하고 안방도 손질 사랑도 손질 等 잔자분한 일이 많다.

◎ 8월 27일 (음 7월 20일) 목요일 晴

저녁나절 풀 1짐.

◎ 8월 28일 (음 7월 21일) 금요일 晴

모처럼 食前에 아까시야 나무 한짐을 했다. 午後에 풀 한짐.

◎ 8월 29일 (음 7월 22일) 토요일 晴

食前 일직 아까시야 나무 한짐하고 朝飯食事後에 아논 왜뚝에서 나무을 뜻고 午後에는 뒤겻 밭뚝을 뜯었다. 저녁나절 세풀 한짐을 비여 같고 오니 敎雨氏家 도야지가 새끼을 낳아가 실수 했다고 해서 가보았다니 잡았다.

◎ 9월 7일 (음 8월 2일) 월요일 雲

나무 두 동 묵다.

◎ 9월 8일 (음 8월 3일) 화요일 雨

食前에 나무 1짐하고 朝飯을 먹고 나니 …

◎ 9월 11일 (음 8월 6일) 금요일 晴

午後늦게 뒤 밭뚝 나무 두 동을 묵었다.

◎ 9월 14일 (음 8월 9일) 월요일 雨

비도 오고해서 벼 묶을 準備의 매끼을 틀었다.

◎ 9월 15일 (음 8월 10일) 화요일 雲

食前에 매끼을 틀고 있으니 …

◎ 9월 16일 (음 8월 11일) 수요일 晴

食前 일직 잦은 소리가 나가보니다 高棧 優秀가 와 10餘日前에 借用해 간 돈을 가저왔는데 4,000원 가저같는데 100원을 보태와 도로 돌려주니 안 밧겠다고 다라나 버리였다. 좀 잇다가 매끼을 틀고 있으니 (…) 나는 午前에 어린 것 보아주고 午後엔 앞 대추나무 뜻다.

◎ 9월 22일 (음 8월 16일) 월요일 晴

食前에 매끼을 틀고 있으니 …

◎ 9월 27일 (음 8월 22일) 일요일 雨雲

날씨 비가 오는 고로 일이 품비게 되여 일꾼이 午前에 매기을 틀고 오후에 날이 들어 일꾼을 데리고 농꼴 밭원에 벼를 비였다.

◎ 9월 29일 (음 8월 24일) 화요일 晴

쌀을 搗精을 못해 메끼가 없어 오늘 食前에 高棧 가 精米所 修理가 어이 되였나 알아보니 오늘 저녁이면 시운전을 한다고 한다. 妻는 쌀 없다고 짜증을 내고 있다.

◎ 10월 4일 (음 8월 29일) 일요일 雲

食前에 매기을 일꾼과 같이 틀고 오늘서야 방아을 실려 보냈다.

◎ 10월 6일 (음 9월 1일) 화요일 晴

妻 꼬추 갖고 場에 가 (…) 나는 집에 잇으며 바다에 가 삐죽 3사발 가량 잡어 왔다.

◎ 12월 9일 (음 11월 6일) 수요일 晴

저녁나절 아번님家에서 여물을 쓸었다. 食前에 答辭을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

◎ 12월 26일 (음 11월 23일) 토요일 晴

오늘은 새끼틀을 차려 놓았다.

1965년

◎ 1월 7일 (음 12월 5일) 목요일 晴

종일 놀다가 새끼 2사리을 꽜다.

◎ 1월 8 · 9일 (음 12월 6 · 7일) 금 · 토요일 晴

어제오늘 새끼 4사리.

◎ 1월 14 · 15일 (음 12월 12 · 13일) 목 · 금요일 晴雪

나는 어린 것을 돌보며 새끼 두둘래를 꽜다.

◎ 1월 16일 (음 12월 14일) 토요일 晴

왕울기 새끼 1사리.

◎ 1월 17일 (음 12월 15일) 일요일 晴

오늘은 왕울기 새끼 1사리 꽜다.

◎ 1월 23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晴

食前 에 농꼴 논으로 재 1짐을 터내고 朝飯食事後엔 마실 一週後에 가는 새기 1둘래을 꽜다.

◎ 1월 24일 (음 12월 22) 일요일 晴

高棧으로 愁雨와 놀라 같다와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날씨는 겨울 날씨로 溫和한 날씨다.

◎ 1월 25일 (음 12월 23일) 월요일 晴
오늘도 가는 새끼 한동을 꼬고 高棧가서 …
◎ 1월 26일 (음 12월 24일) 화요일 晴
가는 새끼 오늘까지 3둘래 꽜다.
◎ 2월 14일 (음 1월 13일) 일요일 雲
주대 드릴 새끼을 동그고 있으니 新任面長이 人使次 왔다가 같다.
◎ 2월 21일 (음 1월 20일) 일요일 晴
오늘부터 가마니을 짤라고 시작해서 5립을 짰다 건너방에서 치는 고로 한가하기는 하다. 英浩가 봄방학을 해 기회를 얻어 始作 했다.
◎ 2월 22일 (음 1월 21일) 월요일 晴
오늘은 가마니을 좀 일직 시작해서 6립을 짰다. 英浩가 어린 것을 보아주기에 많은 힘을 덜어준다. 어린 것을 종일 보아 주기란 무리다. 人生이란 이렇게 無利을 해가며 사는 것일까. (…) 4時 30 分頃에 가마 짜기 끝났다.
◎ 2월 24일 (음 1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가마니 짜기 5립을 짰다. 일직 띄였다.
◎ 2월 25일 (음 1월 24일) 목요일 晴風
종일토록 공입 5립을 첬다
◎ 2월 26일 (음 1월 25일) 금요일 晴風
叭 5립.
◎ 2월 27일 (음 1월 26일) 토요일
叭 5립.
◎ 3월 2일 (음 1월 29일) 화요일 晴
오늘 朝飯食事 일직하고 三溪 앞바다 대청 매기 하는데 일을 가 일공을 했다. 골랑에 말 박기을 했다. 별로 힘드는 일은 아니다 품깝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午後 4時頃에 집에와 건너방에 쌀가마을 안방으로 옮겼다. 쥐가 많이 먹었다.
◎ 3월 3일 (음 2월 1일) 수요일
오늘은 더일 찍 일을 갈다 오늘도 골장 말박기을했다. 어제 傳票가 나왔다. 166원 나왔다. 오늘은 집에 오니 3時다.
◎ 3월 4일 (음 2월 2일) 목요일 晴
오늘도 장모래 대청매기 일을 가 말막는 일을 하고 왔다. 날씨가 차거워 일하기 좋이 안았으며 點心 먹고 나니 떨린다. 남의 돈 먹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아는 사람마다 날보고 무엇이 그리워 이런 일을 다니느냐는 것이다. 하로 종일 해야 150원 程度다.
◎ 3월 8일 (음 2월 6일) 월요일
10時頃에야 三溪 앞 대청매기에 일을 같다.
◎ 3월 9일 (음 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일을 같다. 물이 잇어 일공일을 못하고 柱雨氏家에가 놀다가 點心 먹고 가 만보 발기 흙을 젔다. 下午에 가 160원을 벌었다. 매우 힘든다. 기진맥진이다.
◎ 4월 1일 (음 2월 29일) 목요일 晴風
모처럼만에 바다에가 맛을 4사발가량 잡아와 피곤하여 누었다.
◎ 4월 3일 (음 3월 2일) 토요일 晴風
바다에가 멋 3사발 가량 잡아왔다.
◎ 4월 9일 (음 3월 8일) 금요일 晴風
종일 그럭저럭 가마니 몇작 꼬매고 날을 보냈다.
◎ 4월 16일 (음 3월 15일) 금요일 晴
물이 오늘 많이 쓸 것이다 해서 바다에 같섰다. 과연 물은 많이 썼다. 삐죽을 잡는데 5,6 사량 잡았다. 바다에 같다오니 피곤하여 오양 몇짐 저내였다.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大청매기 품싹이 나와 510원을 찾아왔다
◎ 8월 5일 (음 7월 8일) 목요일 雲
비가 오락 까락 해서 별 일 않고 일도 손에 안 잽히고 해서 종일 놀다가 下午엔 새끼 꽈논 것을 같고 개섬으로 소금을 받으러 같다 앞에서 交換할라고 한 것이 今般 鹽被害로 새검까지 가 10 둘레에 소금 2叭을 받고 10 둘레는 돈으로 달라 했다. 돈을 몇일 잇다 찾아가라고 해서 소금 2叭만 받어 같고 왔다. 今年糧鹽은 될 상 십다.
◎ 8월 14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조반식사을 하고 개섬으로 새기 갑을 받으러 같다와 김장 밭을 갈았다.
◎ 9월 17일 (음 8월 22일) 금요일 晴
오늘은 모처럼 앞 왜뚝을 뜯었다. 今年엔 웬일

인지 일도 손에 안잽히고 나무도 한짐 못했다. 昨年엔 이맘 때 가시나무도 몇 짐 했것만 今年엔 아주 못했다.

◎ 10월 9일 (음 9월 15일) 토요일 晴

저녁에 벼 매기을 틀고 있으니 春植이 왔다. 항상 걱정이든 春植의 除隊을 했다고 한다.

◎ 11월 8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雲

早飯食事을 하고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물때가 좋다고 바다에을 간다고 해서 나도 쪼차 같다. 물은 많이 났다. 낙지을 캔다고 도라다니다가 삐죽은 못잡았다.

◎ 11월 21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妻는 일직부터 서둘러 김장을 하고 있다. 女子의 일로는 김장이 큰일이다. 울타리 칠 새끼가 없어 새끼을 두둘래 꽜다.

◎ 11월 24일 (음 11월 2일) 수요일 晴

새벽녘에 비가 나리더니 오늘 날씨는 좋았다. 食前부터 섬을 첬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러 더디다. 오늘 3닙을 첬다. 空叭가 없어 왕겨 담을 것이 없다. 하로 속히 搗精을 해야겠는데 갑자기 얼어 붓을까 걱정이다. 農協精米所라 搗精하기 아주 不便하다.

◎ 12월 1일 (음 11월 9일) 수요일 雲

乙巳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農繁期의 복잡 하든 때도 지나가고 農民들이 푹은히 쉬는 달이기도 하것만 우리집은 나무가 걱정이다. 신탄 준비가 없고 穀草을 때야만하니 겨울 화로불 하나 구경 못하겠으니 말이다.

◎ 12월 6일 (음 11월 14일) 월요일 雲晴

오늘 날씨도 차거운 날씨다. 零下 12度 來日 公販인데 벼을 말려야 한다고 해서 멍석을 말리였다. 4叭을 말리였다. 저녁 나절은 妻와 같이 드려 담았다. 오늘도 搗精을 못했다.

◎ 12월 16일 (음 11월 24일) 목요일 冷晴

종일 房 안에서 있다가 下午에 高棧가서 수수을 떽이여 갈고 왔다. 날씨는 심히 추운 날씨다. 온 天地가 꽁꽁 얼어붙었다. 下午 늦게 불이나 많이 때볼라고 솔까지을 좀 따갈고 왔다.

◎ 12월 29일 (음 12월 7일) 수요일 晴雲

오늘 왕울기 두통을 꽜다.

1967년

◎ 1월 13일 (음 12월 3일) 금요일

農君이란 農閑期엔 農繁期에 줄 農事準備을 해야 할 것이며 요즈음 길로 바람이나 마음이 같지 않아 않아 걱정이다. 오늘 할 일은 來日로 미룸이 없이 일이 밀리지 않게 그날그날 해야 할 것이매 마음이 들뜨고 일이 손에 안 잽힌다. 겨울로 밀린 것이 울타리치기 새끼꼬기 가마니 짜기 等이 農事準備을 해야 한 일이것만 오늘도 종일 허송세월이다.

◎ 1월 23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食前에 울타리을 나눌랴고 새끼을 찾으니 없어졌다. 어제 까지도 있든 새끼사리 3통이 없어졌다. 氣分이 아주 나쁘다. 농꼴놈들의 소행일 것이다.

◎ 1월 25일 (음 12월 15일) 월요일

午前中 울타리 치고 下午엔 새끼를 꽜다. 봄날씨와 같이 푸근한 날씨는 마치 해봉하는 것 같다.

◎ 1월 30일 (음 12월 20일) 월요일

가마니 짜기을 해야겠는데 明節도 닥아오고 일은 밀리고 조바심이 된다. 겨울일이 밀리고 보니 농번기의 일이 몰린다.

◎ 1월 31일 (음 12월 21일) 화요일

가는 새끼 한통 꽜다.

◎ 2월 1일 (음 12월 22일) 수요일

가는 새끼 두통 꽜다. 뒤곁에 참나무 벼논지 1年만에 仁成君과 明光郁君이 오늘 빠겠다.

나무 한 짐을 주었다.

◎ 2월 2일 (음 12월 23일) 목요일

가는 새끼 한통 을 꽜다.

◎ 2월 3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朝飯後에 가는 새끼 한통을 꼬고 마실을 갈다 오니 …

◎ 2월 7일 (음 12월 28일) 화요일
새끼 한통을 꽜다.
◎ 2월 26일 (음 1월 18일) 일요일
가마니 칠 準備로 妻와 같이 집을 몇 뭇 추리였다.
◎ 3월 4일 (음 1월 24일) 토요일
食前에 가마니틀을 차려놓고 朝飯食事後에 가마니짜기 始作해서 7닙을 짰다. 昨年엔 8닙을 쳤는데 今年엔 능률이 않을는다.
◎ 3월 5일 (음 1월 25일) 일요일
가마니 5닙을 짰다. 三溪精米所에 벼 10叭을 실리었다.
◎ 3월 8일 (음 1월 28일) 수요일
점심경에 始作 가마니 4닙을짰다.
◎ 3월 9일 (음 1월 29일) 목요일
마실 같다 와 가마니 4닙을 쳤다.
◎ 3월 10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朝飯食事後에 가마니을 짜다가 서울을 갈라고 生覺하고 命植 安仲을 보냈다
◎ 4월 2일 (음 2월 23일) 일요일
일이 손에 걸리지 않는다. 길바람이 나서인지 일손이 잽히지 않는다. 거름을 칠까 하다가 종일 그럭저럭 뒤염 몇 짐 저내고 가마니 몇 작 꼬맨 것으로 해을 보냈다.
◎ 4월 9일 (음 2월 30일) 일요일
오늘도 흐린 날씨였다. 日氣도 不順하고 해서 妻와 같이 가마니 짜기을 해 6닙을 짰다.
◎ 4월 10일 (음 3월 1일) 월요일
가마니 5닙.
오늘 날씨도 가랑비 부슬부슬 妻와 가마니를 짯다.
◎ 4월 17일 (음 3월 8일) 월요일
일꾼 보리밭을 메라 하고 가마니을 꼬매고 있으니 서울에서 電報가 왔다
◎ 4월 22일 (음 3월 13일) 토요일
일꾼이 곳잘한다. 오늘은 봉당을 돗고 솟을 걸었다. 妻와 나는 下午부터 가마니를 4닙 쳤다.
◎ 4월 23일 (음 3월 14일) 일요일
下午엔 가마니 4닙을 쳤다
◎ 4월 24일 (음 3월 15일) 월요일
…下午엔 가마니 3닙.
◎ 7월 5일 (음 5월 28일) 수요일 晴
…下午 5時頃에 집에 와 풀 한짐을 비여왔다.
◎ 7월 6일 (음 5월 29일) 목요일 雲
종일토록 놀다 저녁에 풀한짐 비였다.
◎ 7월 15일 (음 6월 8일) 토요일 雲
요즈음 일이라고 저녁나절 세풀 한 짐과 세죽 쑤는 것이다.
◎ 7월 17일 (음 6월 10일) 월요일
나는 종일토록 있다가 저녁나절 세풀 한 짐과 세죽 쑤는 것이 하루의 日課다.
◎ 7월 19일 (음 6월 12일) 수요일
오늘도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27일 (음 6월 20일) 목요일
食前에 나는 풀 한 짐을 했다
◎ 7월 29일 (음 6월 22일) 토요일
농한기는 닥아왔지만 세풀 빌 것이 걱정이며 당장 나무가 없는데 걱정이다. 오늘도 식전에 세풀을 한점 비고 …
◎ 7월 30일 (음 6월 23일) 일요일
食前에 세 풀 한 짐을 비여왔다.
◎ 7월 31일 (음 6월 24일) 월요일 晴
食前에 풀 한 짐 비고 朝飯後엔 高棧精米所에 가 누룩할 것을 데려왔다. 下午 늦게 소을 뜨끼며 풀 한 망테(쇠메기풀) 비며는 하루의 日課다.
◎ 8월 1일 (음 6월 25일) 화요일
朝飯食事後에 세풀 한 짐 비고 종일 누어 있었다. 消化不良症이다.
◎ 8월 2일 (음 6월 26일) 수요일
食前에 풀 한 짐 비여 오면 피로해서 朝飯後엔 날씨도 더웁고 해서 그럭저럭했다. 下午에 늦게는 세풀 좀 비여 소을 뜩낀다. 나무가 없어 세죽을 못쑤어주고 무념물을 해주는데 물은 잘 먹지 않는다.
◎ 8월 4일 (음 6월 28일) 금요일
食前 풀 한 짐. 下午에 뜩끼며 세죽꺼리 풀 한

망테 낮에 더위엔 놀면서 덕석[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멍석. 쇠덕석 · 우의(牛衣)]을 만들면 하루의 日課다.

◎ 8월 5일 (음 6월 29일) 토요일

소을 멕이니까 연료가 問題가 된다. 당장 땔 나무가 없이 된다. 산이 있어야 나무라도 하는것인데 하루에 한 짐씩만 해도 이여 땔텐데. 食前에 풀 한짐 저녁 5時만 소을 끌고 나가 저녁메기 풀 비면 종일 놀고 있다. 오늘로서 쇠덕석을 끝마치였다

◎ 8월 7일 (음 7월 2일) 월요일 晴

今般海溢로 앞 堤防이 無事해주기을 바래며 일직 일어나 원뚝을 내다보았다. 풀을 비라가면서도 몇 번이나 내다보아 無事했다.

◎ 8월 9일 (음 7월 4일) 수요일 晴

식진에 풀 한짐비고 朝飯後에 농꼴가서 李柏鎔氏에가 가을 벼빌 議論하고 와 길마속[길마; 소의 등에 얹어 물건을 나르는 기구, 길마속은 길마 안쪽에 대는 짚으로 짠 어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을 놓아 만들다 냉기였다. 저녁늦게는 풀 한망테을 비였다.

◎ 8월 10일 (음 7월 5일) 목요일 晴

풀을 비라 갈 곳이 없다. 날이 가무러오니 풀이 퍼지지 않아 쇠메기꺼리가 걱정이다. 앞에서 한 짐을 비였다.

◎ 8월 13일 (음 7월 8일) 일요일 雲

朝飯後에 앞에 가 풀 한 짐을 비여왔다. 下午에 세멕이풀을 빌랴하고 들에 나가자니 어린것들을 데리고간 妻가 도라왔다.

◎ 8월 14일 (음 7월 9일) 월요일 雨雲

午前 午後을 通해 아까시아 나무을 두짐을 했다. 몇년만에 나무짐을 졌다.

◎ 8월 17일 (음 7월 12일) 목요일 雲

어머니산소 벌초. 나무 한 짐. 모처럼만에 아카씨아 나무 두 짐을 했다.

◎ 8월 18일 (음 7월 13일) 금요일 雲

午前에 高棧가 있다가 오고 下午에 나무 한 짐.

◎ 8월 19일 (음 7월 14일) 토요일 雲

食前에 풀 한 짐. 午前 나무 한 짐. 午後에 나무 한 짐. 저녁나절은 소풀을 뜻기였다.

◎ 8월 20일 (음 7월 15일) 일요일 晴

下午 늦게야 나무 한 짐을 했다.

◎ 8월 21일 (음 7월 16일) 월요일 晴

오늘은 나무을 못 했다.

◎ 8월 24일 (음 7월 19일) 목요일 晴

종일 午鍾頃에와 저녁나절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26일 (음 7월 21일) 토요일 雲晴

食前엔 벼빌 準備로 매끼을 틀었다.

◎ 8월 31일 (음 7월 26일) 목요일 雲

종일 놀다가 저녁나절 세풀 한 짐과 앞 왜뚝 뜻은 것을 주으니 나무 4동이다.

◎ 9월 6일 (음 8월 3일) 수요일 雲

종일 집에 있으며 도래방석을 만들었다.

◎ 9월 14일 (음 8월 11일) 목요일 晴

午前에 동욕꿀 미루나누 가쟁이을 따고 下午엔 아논 왜뚝 나무을 묵었다. 두동 나무 하다. 食前에 매끼을 틀고 朝飯食事後에는 찰벼을 비라 같다 논이 말라 비여 깔았다.

◎ 9월 20일 (음 8월 17일) 수요일

늦게나가 午前에 40束 下午에 30束을 비고 찰벼 비여 깐것을 妻와 같이 묵고 풀을 한짐 비였다.

◎ 11월 5일 (음 10월 4일) 일요일 雲

午前에 새끼 2통을 꼬고 下午엔 영 2마름을 엮었다.

◎ 11월 19일 (음 10월 18일) 일요일

妻는 기름짜라 가고 나는 아번님家에 가 지붕해 이우는데 協助하다가 집에 와 가는 새끼을 좀 꽜다.

◎ 11월 20일 (음 10월 19일) 월요일 雲

古叭가 없어 共販場에 벼을 낼랴 하여도 없어 오늘 가는 새끼를 한통 꽜다. 몇일동안 나가 도라 다니고 나니 집안일이 몰리였다. 당장 거름도치고 울타리 等 가을일이 몰리였다 당장 쇠메기 겨도 떨어저가고 있으나 搗精은 언제 할는지?

◎ 11월 22일 (음 10월 21일) 수요일 晴
共販에 벼을 내갈랴도 공가마가 없어 空叭을 4닙 첬다. 해가 짤바서인지 4닙 치니 해가 넘어가 꾸미였다.
◎ 11월 24일 (음 10월 23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高棧精米所에 가보았다 벼가마가 마치 共販場과도 같이 싸이였다. 벼 같다 놓은지 10日 내지 15日 걸릴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언제나 搗精을 할 것인지? 당장 김성메기가 떨어저 간다. 언제나 搗精을 하게 될 것일까? 기관수가 서투르니 매일 고장이다. 高棧가 있다가 와 왕울기 한 통을 꼬고 광채 지붕 기스락을 짜르고 도야지 지붕 용구새을 틀어들었다.
◎ 12월 2일 (음 11월 1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새끼 한통을 꼬고서 점심먹고 高棧精米所에 가 搗精을 했다.
◎ 12월 3일 (음 11월 2일) 일요일 雲
장마다 오늘도 종일토록 오락까락 진눈깨비가 나리였다. 下午엔 왕울기 두통을 꽜다.
◎ 12월 13일 (음 11월 12일) 수요일 晴
下午엔 새끼 한통을 꽜다.
◎ 12월 16일 (음 11월 15일) 토요일
午前에 왕울기 한통을 꼬왔다.
◎ 12월 22일 (음 11월 21일) 금요일 雲
가마니 짤 準備로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 12월 23일 (음 11월 22일) 토요일 晴
放學. 朝飯食事後에 날씨는 차가운데 집을 추리여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가는 새끼 한통을 꼬자면 하루해가 간다.
◎ 12월 24일 (음 11월 23일) 일요일 晴
가는 새끼 한통.

1968년

◎ 1월 5일 (음 12월 6일) 금요일
朝飯後에 쇠오양을 쳐 냈다. 下午엔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 1월 6일 (음 12월 7일) 토요일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 1월 7일 (음 12월 8일) 일요일
가는 새끼 한통 꽜다.
◎ 1월 8일 (음 12월 9일) 월요일
가는 새끼 1통 꽜다.
◎ 1월 18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점심먹고는 나무 한 짐 해왔다.
◎ 1월 25일 (음 2월 26일) 목요일 晴
冷下 13度란 차거운 날씨다. 종일 사랑방에 누어 있었다. 下午 늦게 나무 몇 다발 했다.
◎ 1월 28일 (음 12월 29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쇠연장 드릴 새끼을 꼬고 있으니 里長任이 오시여 …
◎ 2월 7일 (음 1월 9일) 수요일
점심을 먹고 나 여물을 쓸었다. 여물을 쓸고 나 쇠연장 드릴 새끼을 꽜다.
◎ 2월 15일 (음 1월 17일) 목요일
가마니 짜기 始作 5닙. 오늘부터 일을 始作 가마니틀을 드려놓았다 첫날이라 5닙 치고 해을 보냈다.
◎ 2월 16일 (음 1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일직 始作해서 7, 8닙을 칠 계획이였으나 安書房이 와 6닙치고 마랐다.
◎ 2월 17일 (음 1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일직 가마니 짜기 始作했으나 安書房이 한참이나 같이 있게 되여 6닙 치고 말았다. 놀다가 일을 해서인지 온몸이 피곤하고 저녁을 먹으면 그 자리에 눕게 된다 아주 피곤하다.
◎ 2월 18일 (음 1월 20일) 일요일
朝飯床 물리기 바쁘게 서둘러 가마니 짜기 始作해서 오늘은 8닙을 짰다. 저녁 세죽을 쑤고서 집을 몇뭇 추리고 食前에도 집을 추리고 하니 손이 갈라지고 고욕이 말이아니다. 저녁이면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든다.
◎ 2월 19일 (음 1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일직 서둘러 가마니 8닙을 짰다. 날씨가 갑자기 冷해지고 흐리여 눈이라도 나릴 줄 알

며 기대했더니 그냥 개이고 말았다.

◎ 2월 20일 (음 1월 23일) 화요일

피곤도 하고 하여 쉬일까 했더니 妻가 서둘러 始作해서 前日과 같이 칠 것인데 7닙을 짜고서 여물이 떨어져 여물을 쓸었다.

◎ 2월 23일 (음 1월 25일) 금요일

몇일 가마니치기에 손이 달아 아푸던 것이 2日 쉬였더니 덜앞은 것 같이 제대로 가마니을 짰다. 오늘은 일직 서둘러 8닙을 치고도 일렀다.

◎ 2월 24일 (음 1월 26일) 토요일

午前中에 가마니을 4닙 짜고 午後에는 高棧 1 精米所 請負業者(도지)가 오늘 고사을 한다고 請하여 高棧을 같다가 늦게야 도라왔다.

◎ 2월 25일 (음 1월 27일) 일요일

가마 5닙. 가마니을 始作 해 8닙 예산했으나 농골서 金氏가 와 지채하고 午後엔 농골 貯水 뚝이 물이 샌다고 해서 물을 잡고와 여물 쓸고 하니 해가 기울어젔다.

◎ 2월 26일 (음 1월 28일) 월요일

가마 4닙. 가마니을 치고 있으니 李巡警이와 오늘 초소을 철수하게 되였노라고 人便次 왔다. 午前中 가마니을 짜고 점심 食事을 우리 집에서 해서 李徐巡警을 대접했다.

◎ 3월 4일 (음 2월 6일) 월요일

午前중 가마니 4닙 첬다. 下午엔 서울 갈 돈 準備차 여러 군대 알아보았으나 쌀금이 맛지 않아 來日하기로 하고 마랐다.

◎ 3월 9일 (음 2월 11일) 토요일 晴

가마니을 짤랴고 準備하고 있으니 轍雨가 와 위을 얽어 달라고 해서 안골祖家 사랑채 위을 洞里 분들의 부역으로 위을 다 얽었다. 집에서 일할 날이 없다. 나드리로 몇일 빠지니 가마니 짤 날이 없고 봄일이 몰리였다.

◎ 3월 10일 (음 2월 12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後 가마니을 짤랴고 서둘러 午前中 4닙을 짜고 下午에도 짤랴고 차리니 …

◎ 3월 18일 (음 2월 20일) 월요일

午前중에 가마니을 4닙 짜고 가마니틀을 아주 내놓았다. 가마니 77닙을 짜고 가는 새끼가 없어 못짜겠다. 下午엔 울타리을 놓았다. 妻는 씨앗(種子)을 조금 부치였으니 일도 始作인 모양이다.

◎ 4월 15일 (음 3월 18일) 월요일 晴

집에서 가마니을 몇짝 꼬매였다.

◎ 4월 19일 (음 3월 22일) 금요일 晴

오늘은 가마니을 꼬맸다. 妻는 보리밭을 맸다.

◎ 4월 20일 (음 3월 23일) 토요일 晴

女 1名을 얻어 妻와 같이 보리밭을 맸다. 今年에도 보리밭이 種子가 잘안스고 보리싹이 좋이 않다. 우리는 보리 흉년이 3年채이다. 나는 가마니을 꼬맸다.

◎ 4월 21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晴

나는 가마니을 꼬매며 하루 해을 보냈다. 날이 새면 하늘만 처다보며 일기을 재여본다.

◎ 6월 2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午後엔 앞뜰 묘을 기웁고 풀 한망테을 비여왔다

◎ 6월 3일 (음 5월 8일) 월요일 晴

朝飯後에 한참이나 비가 안와 걱정하다가 苗板 귓뎅의 묘 몃침을 심고 점심을 먹고 앞 1斗 5升(下)을 갈고 농골가 묘을 기웁고 세풀 한망데을 비여 오는 것으로 하루의 日課이였다.

◎ 6월 6일 (음 5월 11일) 목요일 晴

하루 日課라야 세풀 한짐으로 해을 보낸다

◎ 6월 7일 (음 5월 12일) 금요일 晴

물이 어제 오늘로 따라가듯 말랐다. 우리 洞里 물이라야 5,6일 넹길 논이 별로 없다. 氣分이 안나 한나절이나 누어 있다가 저녁나절에야 풀을 비는 것으로 해을 보냈다. 일도 손에 잽히지 않는다.

◎ 6월 22일 (음 5월 27일) 토요일 晴

사람도 가뭄이 들어선지 조름만 와 앞 웅뎅이 푸고와 세 모양 처내고선 누어 피곤한 몸을 푸군히 쉬고 下午 늦게야 세풀 한짐을 비였다.

◎ 7월 2일 (음 6월 7일) 화요일 晴

妻와 같이 小脈을 脫穀하고 下午 늦게 세풀을 비라가 논을 도라보니 밭원 苗板畓의 도열病이 始作했다.

◎ 7월 4일 (음 6월 9일) 목요일 雲

저녁 나절 세풀을 비다가 稻熱病이 더 심하지는 않은가 도라보니 아주 심하여 분무기가 없어 조로루 끼언질라니 제대로 않된다.

◎ 7월 23일 (음 6월 28일) 화요일 雲

下午에 세풀을 비라 농꼴을 가보니 아논은 稻熱病이 가시는 것 같다.

◎ 7월 27일 (음 7월 3일) 토요일 晴

날씨도 더웁고 해서 下午에는 늦게야 세 풀을 비랴고 나가니 쏘나귀가 쏘다저 세 풀도 못비였다. 더위도 절정에 달했다.

◎ 8월 10일 (음 7월 17일) 토요일 晴

下午에는 세풀 한 짐.

◎ 8월 14일 (음 7월 21일) 수요일 晴

下午에는 날씨가 무더워 누어 있다가 세 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19일 (음 7월 26일) 월요일 晴雲

세 풀 한 짐.

◎ 8월 24일 (음 7월 1일) 토요일 雲晴

午前엔 굴둑이 문어저 한나절이나 고치고 下午에는 부뚜막의 양회을 바르고 세 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29일 (음 윤 7월 6일) 목요일 晴

下午에는 피곤하여 누었다가 理髮하고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31일 (음 윤 7월 8일) 土요일 晴

住民證을 交換한다고 증명사진을 직는다고 사진사가와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고서 묘자리 매미 피사리을 하고 세풀을 비였다. 下午가 되면 세풀 빌 것이 걱정이다.

◎ 9월 2일 (음 윤 7월 10일) 월요일 風晴

下午에는 세 풀 한짐을 비였다.

◎ 9월 6일 (음 윤 7월 14일) 금요일 雲晴

들을 내다 보면 참으로 氣分이 나쁘다. 벼는 죽어 멀거게 되지 않았으면 쓰러졌으니 소출은 없이 일만 더딜 것이다. 집에서 벌일 없이 새끼 1통 꽈놓았다.

◎ 9월 8일 (음 윤 7월 16일) 일요일 晴雲

洞里 一代가 나무 가을 하느라고 한참이다. 우리는 산이 없어 그럭저럭 해을 보낸다. 午前에 오양 처내고 下午에 세 풀 한짐 공상에 잠긴 초가을 기분이다.

◎ 9월 15일 (음 윤 7월 23일) 일요일 晴

朝夕으로 서늘한 날씨인가 하면 해 낮은 30度를 오르 나리는 가을 날씨다.

오늘은 왜뚝 뜻어 놓은 나무을 7동 묵었다. 저녁 나절은 세 풀 한짐을 비였다. 하루의 日課다.

◎ 9월 16일 (음 윤 7월 24일) 월요일 晴

농꼴 魯應奉氏가와 새끼 10통을 借用해 달라고 졸라대여 借用해주었다.

◎ 9월 20일 (음 윤 7월 28일) 금요일 晴

午前에 쇠오양 처낸 것이 오늘의 日課이다. 下午에야 세 풀 한 짐!

◎ 9월 23일 (음 8월 2일) 월요일 晴

午前에 마당 끝의 손질을 하고 前日 빈 벼 멎뭇을 훌고 점심을 했다. 下午에는 논을 돌아보고 풀 한짐을 비였다.

◎ 10월 1일 (음 8월 10일) 화요일 晴

벼뭇을 손치고 세풀 한 짐을 비였다. 나문벼는 아직 푸르다.

◎ 10월 3일 (음 8월 12일) 목요일 雲

下午엔 세 풀 한 짐 비였다.

◎ 10월 4일 (음 8월 13일) 금요일 晴

下午에는 콩을 마당에 끄디리고 세풀 한 짐을 비였다. 바람이 없어 벼뭇이 잘마르지 않는다.

◎ 10월 5일 (음 8월 14일) 토요일 晴

午前中 벼비고 下午에는 세 풀 한 짐을 비였다.

◎ 10월 17일 (음 8월 26일) 목요일 雲

가을 날 비가 개이니 날은 갑작히 쌀쌀해젔고 바람이 심하다. 날씨가 차겁고 해서 午前에는 매끼을 틀고 下午에는 농꼴가 팠을 것어왔다.

◎ 12월 7일 (음 10월 18일) 토요일

돈식을 얻어 거름을 치고 오전에 나는 새끼 두 통을 꼬고 下午에는 지붕을 베끼였다.

◎ 12월 12일 (음 10월 23일) 목요일 雲

새끼을 꼬고 妻는 떡을 했다.

◎ 12월 13일 (음 10월 24일) 금요일 雲
午前에 왕울기 한통을 꽈 놓고 나니 …
◎ 12월 24일 (음 11월 5일) 화요일 晴
종일토록 별일 없이 놀랐다. 下午늦게야 새끼 한통을 꽜다.
◎ 12월 28일 (음 11월 9일) 토요일 晴
쇠오양 及 도야지오양을 치내고 새끼 두통을 꽜다.
◎ 12월 29일 (음 11월 10일) 일요일 晴
새끼 한통을 꽜다.

1971년

◎ 1월 7일 (음 12월 11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는 다섯재祖 家에서 했다. 다섯재祖母生辰日이다. 곳 도라와 새끼 한통을 꼬고 석가래를 베기였다.
◎ 1월 18일 (음 12월 22일) 월요일 晴
朝飯床을 물리고 나니 車소리가 나서 가보니 前 付託했던 모래를 싣고 왔다. 모래 운반 代로 一金 3,000원을 주고 모래을 밀양 아저씨가의 마당에다 부려놓고 갈다. 모래을 풀고와 나무 벼기던 것을 베기고 왕울기 2통을 꽜다.
◎ 1월 19일 (음 12월 23일) 화요일 晴
食前에 왕울기 한통을 꼬고 朝飯食事後에 …
◎ 1월 24일 (음 12월 28일) 일요일
午前에 땅이 질지만 車길에 같다 놓은 沙(모래)을 소로 실어 왔다. 다 실어오고 위 얼글 새끼를 꽜다. 저녁에는 비를 맸다.
◎ 1월 26일 (음 12월 30일) 화요일
새기을 꽜다. 1통.
◎ 2월 5일 (음 1월 10일) 금요일
前日 지엣 있었든 고로 高棧서 農樂을 놀아 資金이 얻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새기을 꼬다가 高棧을 갈다.
◎ 2월 6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高棧가 장척을 갈고 木手아저씨와 같이 와 장보감을 보고 敦植을 데리고 비였다. 비여놓으니 그대로 쓸만하다. 洞里 靑年들을 動員 집으로 가저왔다. 장보는 아번님이 주시였다. 술과 국수을 대접하고 下午에 妻는 場에 갈다. 나는 가는 새끼 한 통을 꽜다.
◎ 3월 2일 (음 2월 6일) 화요일 雨
妻男이 삼테을 놓아 만드는데 나는 한나절이나 잤다.
◎ 7월 5일 (음 윤 5월 13일) 월요일
세풀 한 짐.
◎ 7월 7일 (음 윤 5월 15일) 수요일
둘재 祖父別世 새벽 1時. 둘재祖 家에 같다 와 잠이 들랴고 하니 밖에서 찾아 일어나니 둘재祖父任이 돌아 가실랴고 한다고 하여 급히 가보니 벌서 운명 하시였다. 수세을 걷고 나 상주와 함게 장려의 대한 의논을 했다. 새벽이 되어 洞里 분들을 불러 열락할 곳에 열락을 하고 상포을 하라 갈다. 나는 부고을 쓰고 모든 準備을 했다. 분주한 하루 해을 보냈다.
◎ 7월 19일 (음 윤 5월 27일) 월요일 雲
午後 늦게서야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7월 21일 (음 윤 5월 29일) 수요일
점심을 먹고 나니 네재祖父가 돌아 가시였다고 한다. 곳 가보니 수세 中에 있다. 모든 일의 주관이 되여 보았다. 喪布을 보내고 訃告을 백이라 보내고 모두 일을 시켜놓고 모든 準備을 했다. 訃告을 써놓았다. 約 300장의 부고을 쓸랴면 한참이나 걸린다.
◎ 7월 29일 (음 6월 8일) 목요일
晧植君이 와 낙씨질 가자고 하여 점심 食事을 우리집에서 같이 하고 붕어 낙씨을 갈다. 곳 도라와 세꿀을 한 짐 비였다.
◎ 8월 2일 (음 6월 12일) 월요일
前日 과주에 依해 종일 누어있었다. 下午에야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5일 (음 6월 15일) 목요일
별일 없이 하루 해을 보냈다. 일이라야 세풀 한 짐 비였다.

◎ 8월 7일 (음 6월 17일) 토요일
온 가족이 동욕꿀로 가 가시나무을 치고 밭을 늘리였다. 午前 11時까지 하고 나만 除外하고 모두 바다에 같다. 바다에 가 삐죽 3사발 가량 잡아 같고 왔다.
◎ 8월 9일 (음 6월 19일) 월요일 晴
妻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 삐죽을 잡아왔다. 下午 늦게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11일 (음 6월 21일) 수요일
온 식구가 바다에 가 삐죽 1斗 가량 잡아 같고 왔다.
◎ 9월 2일 (음 7월 13일) 목요일
午後엔 세풀 한 짐을 비고 …
◎ 9월 7일 (음 7월 18일) 화요일
食前에 堤防에 나갈더니 물이 많이 들어왔다. 朝飯 後에 엇무을 갈고 뒤뜰을 뜻고 바다에 같다. 물이 아주 많이 썼다. 妻와 같이 삐죽 1斗 以上 잡아왔다. 동욕굴산의 나무을 뜻기 始作했다.
◎ 9월 8일 (음 7월 19일) 수요일
午前에 동욕꿀 가 나무을 뜻다가 바다에 같다. 나무라야 솔가지와 아가시나무 등 거친나무 들이다. 松蟲이 만아 온몸이 두두러기가 난다. 바다에 가 비죽을 前日보다 아주 적게 잡았다. 바다에는 人山人海다. 사람이 많아 덜 잡았다. 바다에 같다와 나무을 하다가 와 세풀을 비였다.
◎ 9월 9일 (음 7월 20일) 목요일
오늘은 종일 나무을 했다. 妻은 오늘도 바다에 같섰다. 前日만도 못잡았다.
◎ 9월 10일 (음 7월 21일) 금요일
늦게서야 산을 나무을 같다. 종일토록 사다리을 놓고 가지을 땄다.
◎ 9월 11일 (음 7월 22일) 토요일
10時半車로 서울에 간다고 서둘러 떠나는데 德秀家 堤防가지 짐을 같다주니 弘植이 自轉車에 짐을 마기고 집에 와 나무을 했다.
◎ 9월 13일 (음 7월 24일) 월요일
나무 했다.
◎ 9월 17일 (음 7월 28일) 금요일
요즈음의 每日같이 나무을 했다. 앞 산은 德雨 正奭 悠雨 等이 反分으로 한다.
◎ 9월 27일 (음 8월 9일) 월요일
妻는 西里場에 가고 나는 뒤곁나무을 뜻다.
◎ 9월 28일 (음 8월 10일) 화요일
뒤곁 나무을 뜯었다.
◎ 9월 29일 (음 8월 11일) 수요일
… 집에 와 나무을 저드리였다.
◎ 9월 30일 (음 8월 12일) 목요일
오늘도 洞里 前 나무을 끄디리여 산 아래에다 쌓았다.
◎ 10월 1일 (음 8월 13일) 금요일
나무 끄디리였다. 오늘로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끄디리다.
◎ 11월 14일 (음 9월 27일) 일요일
今年에 空叭을 못처 통가리을 할랴고 밭을 午前中 치였다.
◎ 11월 18일 (음 10월 1일) 목요일
뒤검불 피새고 새끼 꼬다. 뒤검불 드리다.
◎ 11월 20일 (음 10월 3일) 토요일
安仲에 가 새끼틀 고장수리 해오다.
◎ 11월 21일 (음 10월 4일) 일요일
새끼 꼬왔다. 큰아번님 家에 새끼4통 같다드리다.
◎ 12월 17일 (음 10월 30일) 금요일
午前 中 새끼 꼬고 午後엔 致雨가 와 脫穀機에 對해 計算을 했다.
◎ 12월 22일 (음 11월 5일) 수요일
朝飯後에 모처럼 농꼴을 같섰다. 昶鎔君을 만나고 와 새끼을 꼬왔다. 來日부터는 가는 새끼을 놀까 한다. 午中에 앞산에서 나무 한 주을 비여 기둥으로 쓸랴고 作業을 했다.
◎ 12월 23일 (음 11월 6일) 목요일
가는 새끼을 놓아 꼬고 있으니 농꼴 里長인 田榮基氏가 와 中止하고 사랑으로 같이 들어 왔다.
◎ 12월 26일 (음 11월 9일) 일요일
가마날을 꽜다.

◎ 12월 27일 (음 11월 10일) 월요일
가는 새끼 한 사리을 꽜다.
◎ 12월 28일 (음 11월 11일) 화요일
새끼 한통.(가는 새끼)
◎ 12월 29일 (음 11월 12일) 수요일
新浦에 같다 와 가는 새끼 한 통을 꽜다.
◎ 12월 30일 (음 11월 13일) 목요일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1972년

◎ 1월 1일 (음 11월 16일) 토요일
妻는 英浩와 雄浩을 데리고 場에 같다 왔다. 나는 종일토록 가는 새끼을 꽜다.
◎ 1월 2일 (음 11월 17일) 일요일
가는 새끼을 꽜다.
◎ 1월 3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오늘도 가는 새끼 1통. 今年 겨울은 춥지도 않고 눈도 나리지 않는다. 오늘도 영상의 날씨다. 空叭짜기 始作 3짝. 朝飯後에 오양 처 밭원 1斗에 같다 피고 空叭 짤 準備로 집을 추리였다. 午後부터 空叭을 짜기 始作하여 3짝을 짰다.
◎ 1월 4일 (음 11월 19일) 화요일 雨
모처럼 만에 비가 나리였다. 어제 저녁부터 나리기 始作한 비는 오늘 午前中 여물을 썰고 空叭을 짜고 있으니 李昶鎔 梁正鎬 安榮來 池億洙 等이 와 空叭 2叭을 짜고 그 사람덜 술과 떡을 대접했다.
◎ 1월 5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일직 서둘러 午前에 3叭 午後에 3叭 6叭을 짰다. 해가 잛아서인지 7, 8叭는 짜는 것인데 6叭으로 해을 보냈다. 저녁 나절은 어깨와 팔이 아파 몸살이 날 것 같다.
◎ 1월 6일 (음 11월 20일) 목요일
水源 四寸과 같이 朝飯을 같이 하고 마실 같다가 午中에야 와 점심 먹고 가마니 2叭을 짰다.
◎ 1월 7일 (음 11월 21일) 금요일 溫
봄날과도 같은 푸근한 날씨였다. 오늘은 叭니 6닙을 짰다. 下午엔 팔이 아파 몸살이라도 날 것만 같다. 가마니 짜기란 참으로 고던 作業이다.
◎ 1월 8일 (음 11월 22일) 토요일 溫
英浩 雄浩가 오늘은 歸家할까 했으나 歸家치 않아 궁금하다. 가마니 짜기을 다소 늦게 始作해서인지 5닙짜고 말았다. 팔이 아파 妻가 바디질을 많이 했다.
◎ 1월 10일 (음 11월 24일) 월요일
空叭 7닙. 가마니짜기 始作해서 제일 많이 짰다.
◎ 1월 11일 (음 11월 25일) 화요일 溫
여물 썰고 새끼 한동 꼬고 집을 추리였다.
◎ 1월 12일 (음 11월 26일) 수요일
가마 5닙 짜다. 가마니을 짜는 중 온몸이 피곤하고 몸살이라고 날 것 같더니 저녁을 먹고 나니 열이 나고 한다. 午鐘 때 손님이(꼬마손님) 닥쳐 왔다. 妻 이질 妻家에서 權觀里에서 3名 利비서 2名 6名의 손님이 왔다. 午後엔 가마 1닙 치고야 말았다.
◎ 1월 17일 (음 12월 2일) 월요일
무엇을 할까 망설리다가 새끼틀에 앉아 새끼을 꼬고 있으니 高棧 柱植가 와 술 먹으라 가자고 하여 농꼴로 술을 먹으라 같다. 午前中 술을 먹었다. 午後에도 또 다른 사람과 얼리여 술을 먹었다. 농꼴서 저녁 12時까지 놀다가 왔다.
◎ 1월 19일 (음 12월 4일) 수요일
空叭 6닙. 오늘부터 가마니 짜기 始作해서 6닙을 짰다. 저녁엔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들었다.
◎ 1월 20일 (음 12월 5일) 목요일
叭 3닙. 叭 6닙. 午前 中 가마니을 짜고 점심을 먹고 가마니을 짤랴고 하니 밖에서 찾아 나가보니 校長을 비롯해서 會長 田氏 等이 와 찾는다. 가마니 짜든 것을 中止하고 술을 대접했다. 점심과 저녁가지 먹고 같다. 青北面 共和黨 개편 대회가 있는데 왜 新浦에 한 번도 안 나가느냐고 高棧의 重植가 관리장이 될거라고 한다. 서둘러 처야 가마니 6닙 짜기가 바쁘다.

◎ 1월 21일 (음 12월 6일) 금요일

妻을 場에 보내여 藥을 사라 보낼까 했으나 돈이 없어 못 보내고 叭 6닙을 짰다. 오늘까지 空叭 51닙을 짰다. 藥이 떨어지면 못사는데 떨어질가 걱정이다.

◎ 1월 22일 (음 12월 7일) 토요일

가마 6닙 짜다.

◎ 1월 25일 (음 12월 11일) 화요일

叭 6닙. 叭數 63닙.

날씨는 흐리고 가랑비 오락 까락한 날씨다. 일직 서둘러 가마니 6닙을 짰다.

◎ 1월 27일 (음 12월 13일) 목요일

午前에 소 오양 처내고 午後엔 꾸밀 새기 한 동 꼬다.

◎ 2월 5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朝飯後부터 밤까지 가마니 7작을 치고 가마니機을 내여 놓았다. 인제 舊正後에나 치게 되였다. 이제까지 70닙을 짰다.

◎ 2월 10일 (음 12월 26일) 목요일

6時半에 起上하여 朝飯食事라고 세죽쑤어 大浩 學校 보내기 분주하다. 아이들 工夫 시키기 爲해 부엌 일은 실컷 한다. 午前에 새기 한 통을 꼬고 午後엔 오양을 처냈다. 下午 5時면 妻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저녁준비을 하고 있으니 妻가 왔다. (…) 일에 쪼기는 몸이것만 오늘도 새끼 한 통으로 해을 보냈다. 雄浩을 서울로 보내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비운 것 같고 일손이 재피지 않아 마실가 午前 놀다왔다. 둘재祖母任의 물 멷 바겠스 길어다 드리고 나무 좀 끄디려 드리였다.

◎ 2월 12일 (음 12월 28일) 토요일

나무 3짐 꺼디린 것으로 해을 보냈다.

◎ 2월 20일 (음 1월 6일) 일요일

舊正을 맞이 해 술을 심히 먹어서인지 피곤하다. 朝飯 食事 後 누어 있으니 농꼴 田氏가 와 한참 있다가 같다. 날씨는 갑자기 冷하여 영하 10度란 강취이다. 나가 가마니을 꼬맸다. 10장을 꼬매였다.

◎ 2월 21일 (음 1월 7일) 월요일

별일 없이 하루 해을 보냈다. 마실 같다 와 致雨가 나무(미루나무)을 비여 協助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나무도 한 주 비였다.

◎ 2월 26일 (음 1월 12일) 토요일

午前에 가마니 10작을 꼬매고 午後엔 마실 같다가 농꼴로 마실가 저녁 10時까지 놀다왔다.

◎ 3월 2일 (음 1월 17일) 목요일

敦植이 와 장작을 패여주고 장작 2집은 저같다. 종일토록 장작을 같다 쌓았다. 마음이 대견하다. 昨年만 해도 장작 한 개피가 없어 다림질을 못했는데 장작구애는 안받고 화로불도 담개되니 人生事가 이렇게 變하는구나 했다.

◎ 3월 4일 (음 1월 19일) 토요일

가마니 15닙 꾸미다.

◎ 3월 7일 (음 1월 22일) 화요일

가마니을 꾸미고 있으니 昶鎔君이 왔다. 가마니 10작을 꾸미고 昶鎔은 새기을 꼬고 나는 뒤님밭 채을 떴다. 午後까지 다 끝냈다.

◎ 3월 8일 (음 1월 23일) 수요일

오늘도 가마니을 꾸밀랴고 하고 있으니 …

◎ 3월 9일 (음 1월 24일) 목요일

왕겨 실어오고 가마니 꾸미였다. 봄 바람이 풍산하게 불어 한참이나 누어 있었다. 사랑채을 지을랴고 하는데 準備가 안되여 걱정이다. 날은 풀리고 조바심이 된다.

◎ 3월 10일 (음 1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마실을 같더니 택시가 와 누구인가 보니 金公監과 金巡警 朴書記 等이 와 海에 漂流屍體가 있다고 왔다. 날 보고 洞里에서 멷 사람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좋은 일이라고 올 사람도 없으려니와 누구을 보낼 수 없어 내가 같다. 30代 女人이다. 연고자가 있을 듯한 女人이다. 그날 저녁은 잠이 안왔다.

◎ 3월 19일 (음 2월 5일) 일요일

흐린 날씨로 가랑비가 오락까락 했으나 일이 몰린고로 뒤엄을 따비밭에 실다가 下午엔 더 많이 나리여 새끼을 한통 꽜다.

◎ 3월 23일 (음 2월 9일) 목요일
종일토록 가랑비가 나리였다. 새끼 2통을 꼬고 마실같다가 然雨家에서 술과 국을 얻어 먹고 놀다가 왔다.
◎ 6월 3일 (음 4월 22일) 토요일 晴
밭원 뚝 1斗을 써리여 같고 妻와 같이 심었다. 일직 다 심고 농꼴 논을 一週하고 와 妻는 來日 일 準備을 하고 있기에 풀을 한 망 비여 같고 세죽을 쑤었다.
◎ 6월 8일 (음 4월 27일) 목요일
午後엔 묘을 기웁고 나니 然雨 祖父任이 別世하시였다고 한다. 급히 저녁을 일직먹고 앞 웅뎅이을 푸고 然雨家에 같다. 洞里사람들이라야 모두 일을 가고 없다. 급히 訃告의 초안을 잡고 葬日의 行事에 對해 議論을 했다.
◎ 6월 9일 (음 4월 28일) 금요일
食前 일직부터 서둘러 심부름을 보내고 訃告 것봉을 써 外處의 전인 부고을 보냈다. 내가 도맡아 護喪일을 보았다. 비교적 平決에서 賻儀金이 많이 나왔다. 오늘까지 6萬원 가량 나왔다.
◎ 7월 3일 (음 5월 23일) 월요일 雨
기다리던 비는 종일 나리였다. 새벽부터 나리던 비는 아주 적당량의 비가 나리였으나 中央觀象臺 發表에 依하면 장마선이고 호우注意報가 나리였다. 午前中 누었다가 비가 더 나리여 세풀을 비고 집안 뜰 非水路첬다.
◎ 7월 5일 (음 5월 25일) 수요일 晴
下午 4時頃에 물이 빠전나 하고 같으나 그냥 도라오다 맛이라도 잡을까 하고 도라다니였으나 허탕치고 와 논두랑을 거실르고 왔다.
◎ 7월 10일 (음 5월 30일) 월요일 雨雲
밤에 始作한 비는 오늘 午前中에도 부슬 부슬 나리였다. 누어 있다가 논 除草타 남은 아논 後 1斗의 除草을 하고 點心을 먹고 高棧 가 大麥 搗精 해논 것을 같고 와 세풀 비고 오양 처냈다.
◎ 7월 12일 (음 6월 2일) 수요일
前日 술에 취한 것이 오늘도 午前仲 누어 있었다. 妻가 콩밭을 맨다고 하여 누어 있어도 不安하여 點心을 먹고서 같이 맸다. 不便한 몸으로 세풀을 비고 해을 보냈다.
◎ 7월 13일 (음 6월 3일) 목요일 大晴
술의 如독으로 오늘도 종일 골이 어지럽고 속이 불편하여 별일 없이 해을 보냈다. 妻의 밀 일구는데 協助하고 세풀 한짐 비다.
◎ 7월 17일 (음 6월 7일) 월요일 晴
아래 밭을 매고 윗밭을 4골을 매고 세풀을 비고 저녁 準備을 하고 있으니 妻가 歸家했다.
◎ 7월 22일 (음 6월 12일) 토요일
저녁나절 세풀을 비다가 앞뜰 논을 도라보니 물이 마르는 논이 많다.
◎ 8월 23일 (음 7월 15일) 수요일
오늘은 가마니을 짤랴고 가마니틀을 맞추어 5닙 짰다. …
◎ 8월 24일 (음 7월 16일) 목요일
… 술 몇 잔 먹은 것이 취하여 종일 누어 있다가 下午늦게야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 8월 25일 (음 7월 17일) 금요일 雨
… 가는 새끼을 꼬다가 비가 또 나려 바수거리을 만들었다. …
◎ 8월 26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 가는 새끼을 꼬와 놓고 세풀 한짐을 비였다. …
◎ 8월 27일 (음 7월 19일) 일요일
午前中 가는 새기을 꼬왔다. 午後엔 쇠구라을 만들기 始作했다. …
◎ 8월 28일 (음 7월 20일) 월요일
… 食前에 새끼꼬고 下午에 …
◎ 8월 31일 (음 7월 23일) 목요일
늦게 始作해서 가마 6닙을 짰다. …
◎ 9월 1일 (음 7월 24일) 금요일
午前에 가마니 4닙을 짜고 午後에 논을 一週했다. …
◎ 9월 2일 (음 7월 25일) 토요일
… 朝飯을 일직 하고 오늘은 가마니을 짤랴고 했으나 한닙을 짜고 나니 敎雨氏가 와 後坪祖任이 대단히 편찮은지 오래인대 몇 일을 더 살수

없다니 잠간 다녀오자고 하여 悠雨家에 가 理髮을 하고 後坪에 같다 와 가마니은 짰다. 9닙을 짰다. …

◎ 9월 3일 (음 7월 26일) 일요일

… 오늘 처음으로 종일 가마니 짯다. 8닙 짜고 세풀 비였다.

◎ 9월 4일 (음 7월 27일) 월요일

… 朝飯 食事을 일직하고 가마니을 짤라고 가마니 한짝을 짜고 나니 後坪 祖父任이 別世하시였다고 하여 궂은 비 나리는 속에 後坪에 같다. …

◎ 9월 5일 (음 7월 28일) 화요일 晴雲

가마니 6닙 짜다. 後坪에서 朝飯食事을 하고 집에 왔다. 피곤한 몸이지만 가마니을 짰다.

◎ 9월 7일 (음 7월 30일) 목요일

叭 8닙. 종일 가마니짜다. 새끼가 인제 1닙 내기가 나마 來日짜면 44닙이다.

◎ 9월 9일 (음 8월 2일) 토요일 晴

가마니 1닙을 짜고 가마니 틀을 뜻어 치우었다. …

◎ 9월 10일 (음 8월 3일) 일요일 晴

오늘부터 나무을 할랴고 낫을 갈고 안개가 자욱하여 새끼을 꼬고 있으니 面書記가 와 오늘 새마을 指導者 敎育갈 날인데 어이 되느냐고 하여 나는 못가겠어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고 하니 안된다고 졸라댔다. 마지 못해 마을로 건너 같다와 가길래 산으로 같다. 마을같다가 里長任과 같이 왔으나 산으로 가 있으니 한참이나 기달리다가 같다고 나무 몇다발 했다.

◎ 9월 11일 (음 8월 4일) 월요일 晴

나무하다. 아까시야 나무는 다했다. (…) 來日부터는 솔까지을 할까 한다.

◎ 9월 12일 (음 8월 5일) 화요일 晴

나무하다. 食前에 세죽을 쑤면서 왕울기 한 통을 꽜다.

◎ 9월 13일 (음 8월 6일) 수요일 晴

나무 했다. 午後엔 날씨가 기울어지는 듯하여 아까시 나무는 쌓았다. …

◎ 9월 14일 (음 8월 7일) 목요일) 雲

… 속이 불편하여 누어 있다가 나무을 같다 오늘은 별로 못했다. …

◎ 9월 15일 (음 8월 8일) 금요일 晴

… 午後에 나무하고 세풀을 비였다. 풀이 아주 귀하다.

◎ 9월 16일 (음 8월 9일) 토요일 晴

… 술이 취해 누어 있다. 午後에야 나무했다. 오늘부터 벼 묶을 매끼을 틀었다. …

◎ 9월 17일 (음 8월 10일) 일요일

… 벼 매끼을 틀다가 논을 一週하고 (…) 오늘로 나무을 다 묶었다. …

◎ 9월 18일 (음 8월 11일) 월요일 晴

가마니 꾸미였다. 나무 하던 것을 中止하고 오늘은 가마니 30닙을 꾸미였다.

◎ 9월 19일 (음 8월 12일) 화요일 晴

午前에 가마니 꼬매던 것을 꼬매고 午後엔 농꼴 밭의 콩잎을 따고 와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 9월 20일 (음 8월 13일) 수요일 晴

午前에 산에 등걸 나무을 저드리고 午後에는 콩잎을 뜻고 세풀을 비였다.

◎ 9월 29일 (음 8월 22일) 금요일 雲

… 里長任이 새마을 計劃書을 作成하라고 하시더니 指導者인 鍾植이 와 써달라고 하여 써주었다.

◎ 10월 1일 (음 8월 24일) 일요일 晴

가을용 왕울기을 4통 꽜다. …

◎ 10월 5일 (음 8월 28일) 목요일 晴

… 午前에 매끼을 틀고 午後엔 나무 저다 쌓다.

◎ 11월 8일 (음 10월 3일) 화요일

午前에 앞밭의 집가리 쌓을 곳을 손질하고 午後엔 妻와 같이 산에서 나무을 글거드리였다.

◎ 12월 20일 (음 11월 15일) 수요일 晴

… 午後엔 앞산의 나무을 글거 쌓았다.

◎ 12월 23일 (음 11월 18일) 토요일

날씨가 흐리고 하여 앞 산에서 나무을 글고 …

◎ 12월 27일 (음 11월 22일) 수요일 晴雲

… 今年 집으로 말리였겄만 집까리에선 김이

무럭 무럭 나고 있으니 쇠메기, 가마니 새끼 등 무었으로 쓸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 1월 4일 (음 11월 30일) 목요일 晴
왕울기 2통을 꼬고 용구새 집을 추리였다. …

◎ 1월 6일 (음 12월 2일) 토요일 晴
… 왕울기을 꼬고 있으니 …

◎ 1월 15일 (음 12월 11일) 월요일 晴
… 몇일만에 왕울기을 두통 꽜다. …

◎ 1월 17일 (음 12월 13일) 수요일 雨
가는 새끼 꼬기 始作. 지튼 구름 아래 겨울 담지않은 가랑비는 마치 봄비와 같이 부슬부슬 종일 나리였다. 오늘은 마실가지 않고 새끼 꼬기로 하고 집을 추리여 새끼틀을 손질하고 가는 새끼을 始作했다. 거이 종일 꼬다 십히 했으나 1통을 못꽜다. 저녁 나절은 다리을 들수가 없어 중지했다.

◎ 1월 20일 (음 12월 16일) 토요일
來日은 서울에 갈까 하고 겨가 없어 소메기 겨을 꾸어 볼랴고 마실같다가 주어 오지도 못하고 놀다가 왔다. 점심을 먹고 여물 썰고 새끼 몇 발 꽜다. …

◎ 1월 25일 (음 12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모처럼 만에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 1월 26일 (음 12월 22일) 금요일
… 오늘 臨時로 三溪에 共販이 슨다고 하여 午前에 새끼을 꼬다가 下午에 벼 3叭을 共販場에 내갇다. …

◎ 1월 27일 (음 12월 23일) 토요일 晴
… 마실을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가 下午 3時頃에야 집에 와 새끼을 꼬다가 오양을 처냈다.

◎ 1월 28일 (음 12월 24일) 일요일 晴
(小)새끼 한통 꽜다. 새끼을 꼬고 있으니 동리 젊은이덜이 웅뎅이을 푸기에 같이 앞 웅뎅이을 펏더니 붕어 미꾸리 등 3사발 가량 잡았다. 우리 집에서 술을 대접하고 붕어는 悠雨氏家에 가서 끌여 먹기로 했다. 下午늦게 붕어을 먹고 술을 받어다 먹었다.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술을 같고 가 밤이 깊도록 놀다가 왔다.

◎ 1월 30일 (음 12월 26일) 화요일
가는 새끼 1통. 집가리에서 집을 골르자면 1/10은 제처야 쓸만한 집이 나온다. 가는 새끼는 1통만 더 골까 한다.

◎ 1월 31일 (음 12월 27일) 수요일 晴
안개 자욱한 날 밖에 나가 거닐기보다는 房안으로 기여 들어갔으면 할 기분이다. 朝飯食事을 하고 새기틀 앞에 앉아 한참 꼬다가 마실 가 …

◎ 2월 1일 (음 12월 28일) 목요일 晴
오늘까지 가는 새끼 8통을 꽈 그만 꼴까 한다. 前日 꼬다 냉긴 새끼을 꼬고 마실가 놀다 와 여물을 썰고 뒤뜰 문어진 돌무넥을 파냈다.

◎ 2월 11일 (음 1월 9일) 일요일 晴
우리 농군은 일을 해야 개운하다. 2월 중 놀다보니 마음이 일하는 이만 못하다. 오늘부터는 일을 하여야지 했으나 오늘도 별일 없이 해을 보냈다. 새끼라도 꼴까 했으나 집만 추리여 놓고 마랐다. 저녁엔 왕울기 한사리을 꽜다. …

◎ 2월 12일 (음 1월 10일) 월요일 晴
새기틀을 고쳐놓고 새끼 몇 발 꼬다가 마실 가 轍雨家에 가 술과 국수을 먹고 田氏가 와 같이 있다가 下午늦게 헤여졌다. …

◎ 2월 19일 (음 1월 17일) 월요일 晴
꾸밀 새끼 한통을 꽜다. …

◎ 5월 4일 (음 4월 2일) 금요일
… 앞논 들 가래질하고 농꼴가 밭원동을 하고 끝참엔 나무을 저드리였다. …

◎ 6월 2일 (음 5월 2일) 토요일 晴
… 午後 늦게야 세풀 한망을 비고 모처럼 만에 동욕꿀 논에 같다. …

◎ 6월 2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 나는 除草을 할까 하다가 書類정리 하다가 세풀을 비여 왔다. …

◎ 7월 6일 (음 6월 7일) 금요일 晴

… 밭원뚝 밑 1斗 와 아논後 1斗을 하다 세풀 빌 시간이 없어 냉기였다. …

◎ 7월 7일 (음 6월 8일) 토요일 晴

앞 김장밭 냉긴 것을 갈고 그루 밭 골을 타고 妻와 같이 그루 밭을 맸다. 농꼴까지 매고 앞 꼬추밭은 하다 냉기다. 저녁나절은 前日 除草다 냉긴 것을 하고 세풀을 비였다. …

◎ 7월 9일 (음 6월 10일) 월요일 晴

찌는 듯 네려 쪼이는 한 여름. 논의 제초작업을 끝내고 한가한 마음. 午前에 水路工事場에서 비여 놓은 나무을 끄라 디리고 마당가에 나무까리와 집까리을 치우고 나니 점심을 먹게 되었다. 午後엔 누어 있다가 面 朴書記가 와 술을 한 잔 같이 하고 午後 늦게야 세풀을 비러 같다. …

◎ 7월 12일 (음 6월 13일) 목요일 晴

소에다 밀을 120斤을 싣고 三溪에 나가 製粉을 하라고 하고 나는 집에 와 별일 않고 午後에 국수을 실으라 갈랴고 세풀을 일직 비여 놓고 있으니 妻가 왔다. …

◎ 7월 13일 (음 6월 14일) 금요일 晴

午前에 장마 대비 次 妻와 같이 집까리을 손질하고 썩은 것은 뒤엄으로 쌓아 놓고 午後에는 가마니기을 차려 놓고 가마니 2枝을 짰다.

◎ 7월 16일 (음 6월 17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동욕굴 논을 풀을 뽑고 午後엔 세풀을 비였다. …

◎ 7월 17일 (음 6월 18일) 화요일 晴

叭 4닙 짜다.

(…) 가마니을 午前에 3닙을 짜고 나니 땀이 하도 나 中止하고 午後에도 아주 못 치겠어 못치고 해가 기울어서야 1枝 짜고 세풀을 비였다.

◎ 7월 18일 (음 6월 19일) 수요일 晴

空叭 4枝. (…) 安仲으로 하여 平澤까지 다녀을까 하다가 못 가고 午前에 叭 2枝을 짜고 午後에 2짝을 짰다.

◎ 7월 19일 (음 6월 20일) 목요일

颱風권內 들어 있어서인지 어제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밤새도록 나리였다. 밭에는 아주 적당량의 비인 듯하다. 날씨도 시원하고 하여 空叭 7닙을 짰다. (…) 午後늦게야 풀 비라가 농꼴 5斗 밭원의 벼 ○○를 빼 排水을 넸다.

◎ 7월 20일 (음 6월 21일) 금요일 晴

… 午後엔 空叭 1닙을 짜고 풀베기을 했다.

◎ 7월 22일 (음 6월 23일) 일요일

노리 같다 온 여독으로 종일 누어 있었다. 下午 늦게야 세풀 한 짐을 비였다. …

◎ 8월 1일 (음 7월 3일) 수요일

날씨도 서늘하고 집에 있게 되어 차분하게 앉아 가마니을 짰다. 마음도 편안하고 고디지도 않다. 가마니 7닙을 짰다. 집에서 일을 하니 한가롭다. …

◎ 8월 5일 (음 7월 7일) 일요일

모처럼 만에 집에 있게 된다. 하도 나가 도라다니여 집안 일이 궁금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닐상십다. 마음을 갈아 앉치고 苗板할 논의 피사리을 했다. 농꼴은 못하고 下午에는 妻와 같이 空叭 3닙을 짰다.

◎ 8월 11일 (음 7월 13일) 토요일

가마니 2입을 짜고 더워 못짰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는 숨을 通할 수 없다.

◎ 8월 15일 (음 7월 17일) 수요일

光復節 記念行事가 中學校에서 各게 人事가 모여 式을 거행한다 하였으나 못가고 妻와 같이 가마니을 짰다. 空叭 6닙을 짰다. …

◎ 8월 16일 (음 7월 18일) 목요일

老炎은 더욱 지는 듯 더운 날이다. 가마니기을 차려놓고 叭니을 짰다.

◎ 8월 17일 (음 7월 19일) 금요일

종일토록 叭니 6닙을 잤다. 午後에 풀 1짐. 午中에 낮잠 1時間半.

◎ 8월 18일 (음 7월 20일) 토요일

前日과 동.

◎ 8월 19일 (음 7월 21일) 일요일

前日과 同. 단비.

◎ 8월 24일 (음 7월 26일) 금요일

… 바수거리 2닙을 엮었다.

◎ 8월 25일 (음 7월 27일) 토요일

… 妻는 車가 안오니 發安으로 가고 나는 11時까지 가마니 3닙을 꼬매고 食事는 간단히 하고 理髮을 하고 面에 가니 會에 간다고 모두 新浦에 와 일도 제대로 못보고 雪創으로 車을 타고 가 會에 參席했다. …

◎ 8월 31일 (음 8월 4일) 금요일

… 들을 一週하여 논뚜랑을 짤라 놓고 와 點心을 먹고 가마니을 몇 작 꼬매고 나니…

◎ 9월 1일 (음 8월 5일) 토요일

… 堆積場을 다시 손질하고 썩은 집을 쌓고 點心 먹고선 가마니 몇 닙을 꼬매고 세풀을 비였다. …

◎ 9월 3일 (음 8월 7일) 월요일

堆肥 동요 차 洞里을 一週하고 와 가마니 10작을 꼬매고 점심을 마치고 농골 가 苗板할 논의 피사리을 하였다. 소메기 풀을 비고 …

◎ 9월 5일 (음 8월 9일) 수요일

… 일직 와서 풀을 비였다.

◎ 9월 14일 (음 8월 18일) 금요일

午前에 고추다(따)고 午後엔 밭 갈고 세풀 한 짐.

◎ 9월 16일 (음 8월 20일) 일요일

… 가마니을 꼬매고 下午에는 매끼을 틀다.

◎ 9월 17일 (음 8월 21일) 월요일

가마니 짜다. 5닙.

◎ 9월 18일 (음 8월 22일) 화요일

가마니 짜다. 5닙.

◎ 9월 25일 (음 8월 29일) 화요일

… 마당을 치우고 매끼을 좀 들고 저녁 食事의 손님 대접 準備을 했다. …

◎ 9월 28일 (음 9월 3일) 금요일

午前에 매끼을 틀고 午後엔 농골 밭원의 벼을 비여 깔았다. …

◎ 10월 12일 (음 9월 17일) 금요일 晴

… 來日 일 준비로 매끼을 들었다.

◎ 11월 1일 (음 10월 7일) 목요일

妻 歸家. 가마니 꾸미고 벼 조라리고 다 脫穀準備.

◎ 11월 14일 (음 10월 20일) 수요일

… 午前 中 새끼을 2통 꽜다.

◎ 12월 25일 (음 12월 1일) 화요일

… 每日 같이 쏘다니던 몸이 오늘은 午前 中에 밀린 오양을 처 논에 내고 午後엔 왕울기 2통을 꽜다. …

◎ 12월 26일 (음 12월 2일) 수요일

… 午前엔 방에서 있다가 下午엔 왕울기 2통을 꽜다.

Ⅵ. 장시 출입

1959년

◎ 1월 1일 (음 11월 22일) 목요일 雲晴

炳賢 家에서 쌀겨 1叭 1500원에 샀다. 安仲場에 가 반장화 850원 日記册 600원에 사왔다. 아버지에게 仟5百圜 借用. 계란 3줄 8個에 1050원 受.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니 윤서방이 겨 살려며는 가저 가라해서 돈을 꿀려니 없어 아버지보고 말하니 원목 益秀에게 가면 벼 돈 차즌 것을 찾아오라 해서 原木가서 益秀에게 一金 5仟2百50원을 찾아 仟5백圜을 아버지에게 借用해서 尹서방을 주고 德雨와 場에를 같다. 場에서 장모 妻男 건고 동서 等을 만낫다. 妻男이 點心을 사주었다. 德雨와 炳賢에게 酒 200원치 사주었다.…

◎ 1월 16일 (음 12월 8일) 금요일 晴

妻는 場으로 해서 妻家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마실을 같다. 妻가 말하기를 親庭에 가서 모자라는 것을 봇태달라고 해본다고 하기에 거절하다가 응하여 朝飯 後에 出發했다. …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妻 歸家. 지난 장에 大麥 1斗에 800원 賣에 제사 흥정함.

◎ 2월 1일 (음 12월 24) 일요일 晴

… 妻 場에 白米 一斗 같고 가 천오십원 받아

양말 1,750원 소 骨 500원어치 사왔다. (…) 妻는 白米 一斗를 갈고 場에 가서 내 양말 1 고기 骨 500원어치를 사왔다. 白米 一斗에 천오십원을 받았다 한다.

◎ 2월 6일 (음 12월 29일) 금요일 雲

… 곳 場에 가서 炳賢君과 술을 같이 하고 국수 두 관 메리치 한 봉 배 3개 牛肉 한 근 천400원을 주고 사고 炳賢에게 꾼 돈 600원을 갑고 오다가 頭雨氏와 술 1斗(약주)를 三溪서 먹고 왔다. 멋처럼 場 路資로 500원을 썼다.

◎ 2월 26일 (음 1월 19일) 목요일 晴

… 點心 頃에 炳賢이 安仲場에 간다더니 몸이 不便하다고 나 울타리 치는데 잇다가 술 한 잔을 대접햇다. …

◎ 3월 21일 (음 2월 13일) 토요일 雲晴

前夜부터 부슬부슬 나리는 비는 종일토록 오락까락 하여 場에를 갈까 하다가 못 같다. …

◎ 3월 24일 (음 2월 16일) 화요일 晴

新浦 藥代 未支拂 650圜 支佛. 祭祀 흥정 1000圜. 英浩 양말 150원. 英浩 신발 130원. 먹 100원. 붓 100원. (…) 食前 논을 一週하고 朝飯을 마친 나는 두엄(테비) 멎 짐을 지고 新浦場에를 어머니 祭祀 흥정을 하려 같다. 新浦의 약갑 미수를 650원 갑고 제사흥정 1000餘圜어치와 붓, 먹, 英浩 신발, 양말 等 500餘圜어치를 해 같고 바로 왔다.…

◎ 3월 26일 (음 2월 18일) 목요일 晴

聘母 작근妻男 왔다. 妻 場에 같다 왔다. (…) 午前 中 심디려 일을 하고 點心을 하고 나니 심이 탁 풀리여 갱신 못하겟는 것을 앞 감자밭 농꼴 감자밭을 갈고 집에 와 잇으니 妻가 場으로부터 돌아오며 聘母와 작근妻男이 온다 하여 나가보니 聘母行이 오시였다. 妻는 꼬추 20斤을 가지고 場에를 같는데 斤當 230圜을 준다고 싸다고 그냥 왔다. …

◎ 4월 17일 (음 3월 10일) 금요일 雲

… 날씨 험악하고 비가 오락까락 중에 둘재祖父 家 소를 끌고 新浦에 가서 病院에 가서 百日咳에 對한 藥을 문의하니 신통한 藥이 없어 마이싱(스트리트, 오래오) 등 藥을 千圜어치 중 300원 支佛하고 700圜 남기고 肥料 실고 왔다. …

◎ 6월 1일 (음 4월 25일) 월요일 晴

食前에는 논 一週하고 食後에 炳賢 家 일을 같다. (…) 妻는 白米 一斗를 갈고 場에를 같다 왔다. 白米 1두 1300원. 대접 한 죽 800원. 自縫油 100원. 自縫針 2개 80원. 꽁지 100원. 미역 150원.

◎ 6월 11일 (음 5월 6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妻는 참깨 一斗를 갈고 場에를 가고 나와 春子는 옆밭 보리 비다가 午後부터는 나는 타작을 하고 春子는 비였다. (…) 妻는 참깨 일 두에 2890원을 받어왓다. 데[되]가 빠저 덜 받은 것이라고 한다. 一斗에(3200원) …

◎ 6월 16일 (음 5월 11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炳賢 家에서 낫을 위상[외상]으로 한 가락 사고(300원) 炳均 場에 가는데 호미를 한 가락 부탁했더니(200원) 사 같고 왔다. …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 妻가 場에 갈까 했으나 돈도 없을 뿐더러 비도 올 것 같아 그만 두고 나는 종일 놀다가 풀 두어 짐 비고 하루해를 보냈다. …

◎ 7월 26일 (음 6월 21일) 일요일 晴

妻 場 게란 할 줄 280원 受. 신 350원. 마늘 350원. …

◎ 8월 5일 (음 7월 2일) 수요일 晴

… 德雨氏가 참외 장사 왔다고 해서 妻를 보내여 보리쌀 3升어치를 사다 먹었다. 午後 늣게 풀비려 같다가 날이 더워 그냥 와 나무 한 동을 묶고 夕飯을 까치고 둘재祖父 家 일 해준 것을 소금으로 가저가라 해서 高棧 염전에 가 소금 一叭을 가지왔다. …

◎ 8월 11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 비가 온 관게로 食前부터 김장 가느라고 야단들이다. 우리도 朝飯 食事 後에 소를 얻어다가 갈고 妻와 聘母는 場으로 떠났다. 妻는 게란

한 줄 같고 가서 참외 200원어치와 비는 김장약(BHC)을 사왔다. …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 妻는 참깨 一斗와 병아리 3마리를 같고 場에를 가고 나는 앞 왜뚝에서 나무를 묵고나니 쏘나귀가 나리여 왜뚝이 질름질름했다. 약 30分程度 나리더니 끄치였다. 場꾼이 다 와도 妻는 안 온다. 밤이 되어도 안 온다. 아마 親庭으로 行한 모양이다. (…) 人便 말에 依하면 참깨는 내 빌다시피 팔았다 함. 前日 場까지도 2800원이던 거시 2200원인데 게다가 商人의 농간으로 서산 아주머니와 우리는 모자라 1600원을 받았다니 1000원은 도망 같다. …

◎ 8월 22일 (음 7월 19일) 토요일 雲

場에를 간 妻는 그날 못 오고 이튿날 親庭에 가자고 왔다. 밀가루(小麥粉) 一斗 가량과 누루 한 장을 같고 왔다. (…) 龍浩 家에서 꾸어온 밀가루를 갑았다. 참깨는 같다 도독[도둑] 마진 것이나 다름없이 一斗 1600원을 받었다 한다. 잘 되어 보냈것만 서산 아주머니 家와 우리 것을 600원이나 덜 주었다. 병아리는 1400원을 받었다 한다. 오양木[옥양목] 6마를 1450원에 바꾸엇다 한다. 도배지 800원을 주고.

◎ 8월 24일 (음 7월 21일) 월요일 晴

… 高棧 難民 장사 와서 外상 갑 大麥 1斗 600원에 주었다. …

◎ 9월 6일 (음 8월 4일) 일요일 雲

POMADE 350원. 분 300원. INK 필촉. 기타 400원. (…) 妻는 場에 갈랴고 하다가 늣게서야 꼬추(마른 것) 4斤 半과 게란 줄 반 一金 五百圓 닭 1조 等을 같고 더났다. 洞里 一大가 소동이 나서 場에 몰리여 같다. 午後 늣게 도라온 妻는 꼬추 닭 等을 그냥 같고 왔다. 시세 폭락이더라고 지천으로 쏘다저 나와 처치골란이더라고 그냥 같고 왔다. 게란은 420원에 할 줄. 잉크 한 병 AB(POMADE 한 병 필촉 2개 분 한 각 家用品 食用品 等 1100원어치 해왔다. …

◎ 9월 11일 (음 8월 9일) 금요일 雲

… 妻는 꼬추 4斤을 같고 場에 가서 1100원을 받었다. 祭祀 흥정 等을 해왔다. …

◎ 9월 15일 (음 8월 13일) 화요일 雨

… 高棧서 소를 치는 고로 牛肉을 사려 갈까 했더니 비가 오고해서 못 같다. 또 고기갑도 場과 마찬가지라 닭을 잡아 쓰기로 했다. …

◎ 10월 11일 (음 9월 10일) 일요일 晴

… 妻 場 꼬추 1000원 5斤 대추 950원 2升. 솜 트는 삭 400. 신발 私·春子 750. 英浩 內衣 550. 場 흥정 600. (…) 妻는 場에 꼬추 5斤과 대추 두 데를 같고 가 꼬추 1400원 대추 950원을 받어 이불솜 틀고 신발 내 것과 春子 것 750원을 주고 사고 英浩 속내이 550원을 주고 家用品 600원어치 흥정을 해왔다. …

◎ 10월 16일 (음 9월 15일) 금요일 晴

… 신발 사오다. 450원.(바꾸어오다) …

◎ 10월 24일 (음 9월 23일) 토요일 雲

… 石油配給 5升 나누어오다.(70원 現金) (…) 食前에 石油配給 한 사발 나누어 오고 …

◎ 10월 25일 (음 9월 24일) 일요일 雲

… 오늘 種覽日이라 해서 10時 頃에 新浦面에 가서 종람 事項을 알아보고 왔다. 新浦에서 英浩 신발 2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 …

◎ 10월 28일 (음 9월 27일) 수요일 晴

… 妻는 發安場에 가서 대추 1斗 3升을 같고 가 7千800원을 받어왔다. 3日前에는 더 받을 것인데 돈 천원이나 덜 받었다. 그러나 아주 비산셈이다. 눈이 번하다.

◎ 11월 11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상(床食) 2500원 담배 200원 오즘통 1800원 삽 900원 톱 600원 못 100원 채칼+생강+재봉유 300원 計 6400원. 朝飯 後에 東雨氏 家에서 오라해서 건너가니 東雨 妻 근친 술과 떡, 엿 等을 내서 먹고 敎雨氏 炳哲 君 等이 모처럼 場에 같섰다. 場 흥정 상 2500원(高級) 오즘통 1800원 삽 톱 못 1600원 생강 채칼 재봉유 300원 담배 200원 等의 흥정을 해왔다. 6400원 어치 흥정해서 늣게서야 집에 도라왔다.

◎ 11월 16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晴

柱雨가 正月달에 가저간 도야지 고기 대 오늘 장에 준다고 해서 朝飯을 마치고 곳 장에를 같다. 한참만에 柱雨 妻男에게 一金 九千圜을 밭고 나머지 천 원은 또 받었다. 곳 도야지 전에 가보니 도야지 같은 것이 없어 그냥 도라와 眼鏡店에 와서 眼鏡을 1300원에 사고 일직 집에 왔다.

◎ 11월 26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 妻와 함께 安仲場에를 같다. 도야지 새끼 4200원을 주고 사고 妻는 바지저고리감 3000원을 주고 사고 솜 350원 영호 양복 2200원 비누 100원 색실 100원 책 600원 民事訴訟法槪論 흥정 萬五百五十圜 어치 흥정을 해왔다. 참개 2升 500원 게란 270원 等 자고.

◎ 12월 2일 (음 11월 3일) 수요일 雨

석유 배급 2斗. (…) 下午 늣게 石油 配給 2斗 가령 나누어왔다. …

◎ 12월 16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冷

妻 歸嫁 15日만에. 돈육 두 근 4양[兩] 사다. (…) 아버지 家 도야지를 洞里서 잡아 목정 두 근 2斤 4兩을 사왔다. …

◎ 12월 21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晴

… 안중장 인편에 孟植에게 편지를 送하였다. …

1960년

◎ 1월 6일 (음 12월 8일) 수요일 晴

妻는 일직 場에 가고 나는 일직 現 作業場에. 찹쌀 一斗에 1200환 받고 一金 2천 300환 같고 가다. 外上 代 1000환 갑고 바지저고리 代 日記冊 800환 주고 양말 800환 쇠꼴 800환 주고 사왔다. 場에서 妻는 일직 도라왔다.

◎ 1월 9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雲

… 英浩가 쪼차다니며 업어달라고 해서 업고 아버지께서 오늘 新浦場에 가신다 해서 前夜 써논 孟植의 편지를 같다드리고 올랴하니 英浩가 안 오겠다 해서 노아두고 와 朝飯을 마치고 일나갈랴고 …

◎ 1월 16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組合長 家에서 나와서 정유소로 나오니 九時 半 車가 出發하여 좀금 있으니 10時 半 車가 드러왔다. 安仲場이라 그런지 만원이다. 밀고 당기여 車에 올라 잠간 사이에 安仲에 到着했다. 아직 場이 일러 사람이 별로 없어 農銀에 들리여 불 좀 쪼이고 차를 타려 같섰다. 오늘 洞里 場꾼도 많을 뿐 아니라 妻도 場에 나온다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그냥 新浦로 와 철용에게 藥代 400환 중 200환인 外上을 갑고 서서히 걸어왔다. 妻는 찹쌀 一斗를 같고 가 1200환을 받어 흥정을 해왔다. 국수도 한 관 샀다. …

◎ 2월 16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 妻는 場으로 해서 妻家에 좀 같다온다고 장모가 편찮은 것을 알고도 한 번도 다니여 오지 안아 다니여 오라고 했다. 계란 세 줄과 돈 五百圜을 같고 같다. …

◎ 2월 26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 妻 場에 가다.(계란 三줄과 수수 1斗와 교통 ○○) …

◎ 3월 6일 (음 2월 9일) 일요일 晴

몇日前에 仁成君 편에 妻男이 잠간 왔다 가라는 消息을 듯고 오늘 場으로 해서 들릴려고 일직 떠날 準備를 하였다 一金 1500환을 넣고 떠났다.(맛 4사발 程度 入z 新浦에 가서 溫胃丹이라는 藥을 사갈고(500환) 安仲에 가서 사과 300환 한 가고를 사들고 妻家에를 妻男을 만나서 같이 點心 요기를 하고 같이 떠나 드러갈다. (…) 新浦 酒代 200환 支佛 …

◎ 3월 11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

… 妻는 場에 같다왔다. 제사흥정을 해왔다. 오늘 場에서 民主黨의 街頭宣傳에 場이 거이 쪼차다니고 自由黨 宣傳에는 몇 사람 없섰다는 말을 듯고 民心은 돌대로 도랐다는 말 自由黨 宣傳場所에는 듯다가 비웃고 사라지는 사람이 많더라는 場꾼의 소식.

◎ 4월 11일 (음 3월 16일) 월요일 晴

… 妻가 場에서 妻家 消息을 드렀는데 장모 병환이 덜 하다는 말을 드니 한같 마음에 든다.

◎ 5월 1일 (음 4월 6일) 일요일 晴

… 春植이 安仲場에 물건이 있으니 찾아오라고 해서 妻가 場에 가보니 벌서 庶母가 찾어왔다나. (…) 場는 場에 가 아래쓰봉을 1000원짜리 한 벌을 사왔다.

◎ 5월 5일 (음 4월 10일) 목요일

… 晧植이 發 安場에 가는데 낙시대 한 감 사오라 했더니 사왔다. 대, 줄, 비늘, 찌 等 合 600환에 사왔다.

◎ 5월 16일 (음 4월 21일) 월요일 晴

… 妻는 들깨를 같고 가 기름을 짜고 鷄卵을 15줄 같고 가 줄 당 250환 3750환을 받아 보리쌀 김성 메일랴고 두 말을(배급보리) 두 말에 1500환을 주고 팔아왔다. 큰 고생을 했다. 짐으로도 한 짐을 이고 가고 또 이고 오느라고 오즉 고생을 헸을까?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 妻는 계란 10줄과 닭 일조를 갈고 장에 가 누비이불 280환를 주고 사고 영호 옷 春子 적삼 等 其他 6000 여환을 흥정해왔다. …

◎ 7월 16일 (음 6월 23일) 토요일 晴

… 오늘 場에를 갈까 하다가 妻만 場에 병아리 4조를 보내 돈을 해오라 했더니 신발을 2000환치 해왔다. 병아리는 1950환을 받엇다고 한다. 오늘 場에선 民參議員 立候補 30餘名이 場을 소란할 정도로 政見이 있었다 한다. …

◎ 7월 21일 (음 6월 28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安仲을 같다. 치열한 選擧戰이 일어나고 點心 요기는 누구나 하고 온다고 自身하고 들 場에를 같것만 點心 굶고 온 사람이 허다하고 아는 사람 없으면 허사다.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양心에 꺼리끼는 짓은 하기 싫은 지라 그냥 올랴다 柱雨 아저씨에게 點心을 대접받았다. 구매구매 食券으로 點心을 먹고 잇다. 人使 次 各 事務所를 찾았다. 妻男을 만나서 사이다와 어름을 같이 했다. 場에서 늦게 도라왔다.

◎ 7월 26일 (음 윤 6월 3일) 화요일 雨雲

… 安仲場에 갈까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같다. …

◎ 7월 28일 (음 윤 6월 5일) 목요일 晴

妻男이 떠난다고 해서 오늘 新浦場이고 7.29 選擧戰도 끝맺는 오늘 新浦나 나갈까 하고 妻男과 같이 나같다. 10時 頃부터 始作하는 政見은 崔錫和 李炳憲 金鎭澤 崔承錄 等의 政見을 듯고 도라왔다. 崔錫和 政見이 젊은 기백이 살아있고 구변도 제일이며 아주 自然스럽고 李炳憲 政見은 늙엇으나 파고 들면 아주 신뢰성이 잇어 보이며 미듬직스립고 崔承록은 별 인기 없이 말하며 鎭澤은 너무 열적이다. 李斗憲에게 點心 대접을 받고 上植과 같이 걸어왔다. …

◎ 8월 6일 (음 윤 6월 14일) 토요일 晴

妻男이 五日만에 場으로 해서 妻와 같이 떠났다. 모처럼 와서 몸에 두두러기가 나서 고생을 하여 오늘도 가시질 않아 떠나 궁금하다. 食前에 계란 9줄에 一金 2500환을 받아 妻가 장에 가서 밀가루 2450환에 한 포 사왔다. 밀가루 今年에 二包袋 사먹었다. …

◎ 8월 31일 (음 7월 10일) 수요일 晴

孟植이 간선 오는 날이다. 배를 대달라 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내가 건너가 농꼴 배를 이용하여 간선 오는 손님을 건너놓고 와서 孟植을 보았다. 상회 아저씨도 건너와 新婦아버지 도와서 좋와하고 와서 보라 해서 發安場으로 만나기로 하고 헤지였다. …

◎ 9월 1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妻가 場에 갓다고 仁成 家 借用해준 一金 參仟圜을 달내니까 20日이 지난 오늘까지 못 받았다. 몇일만 借用해 달랜 것이 이 모양이다. 앉아주고 서 받는 현실. 妻는 여러 가지 場 흥정과 양재기 한 죽을 사왔다. …

◎ 9월 6일 (음 7월 16일) 화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安仲場에를 갈랴고 準備 中에 仁成이 借用金 3000환 2300환을 가저오고 700환은 後場에 주겟다고 하여 그리하라고 하고

安仲場에 별로 일도 없는데 같다가 치솔 치약 밀집모자 等 500환어치를 사같고 왔다. 場에를 가보니 꼬추場이다. 꼬추 斤당 마른 것에 600환 물꼬추 말에 1000환까지 하니 꼬추금도 너무 좋은 셈이다. 今年 꼬추 많이 한 집은 큰돈 해 쓰게 되였다.

◎ 9월 21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妻가 場에 일직 간다고 일직 일어나 왔다같다 해서 나도 일직 일어났다. 도배장판지 1200환 英浩 양복 1200환 낫 300환 其他 600환 합 2900환어치 흥정을 해같고 왔다. …

◎ 10월 1일 (음 8월 11일) 토요일 晴

第二共和國 樹立 慶祝日이다. 安仲中學校에서 運動大會를 開催한다고 해서 西部 四個面 農樂이 大會를 安仲서 하고 한다 한다. (…) 妻도 場에서 제사흥정해 같고 늦게서야 도라왔다.

◎ 10월 26일 (음 9월 7일) 수요일 雲雨

朝飯을 일직하고 妻가 場에 닭 3조를 같고 三溪나 가슬까? 해서 비가 오기 始作해서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 보리에 적당할 정도로 나리고 말았다. 조금 더 와도 좋으련만 그만 들고 말았다. 여하간 今年에 雨量이 아주 적은 해이다. 저녁나절 비가 끝일 무렵 妻가 場에서 도라왔는데 닭 2700환을 받었다 한다. …

◎ 11월 1일 (음 9월 13일) 화요일 晴

… 妻는 場에 닭 두 마리를 같고 場에 가 2100환을 받어왔다.

◎ 11월 10일 (음 9월 22일) 목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理髮을 하고 發安場에 가기로 하고서 대추를 一斗 같고 場에 같다. 場에 가 무러보니 대추가 많아 그리 시세가 없어 여러 가게에 가보고 4000환에 一斗를 팔았다. 올길에 레디오 상회에 가보니 적당한 것이 있어 흥정하고 27000환에 사 같고 왔다. 돈이 모자라 앞들(前坪) 女人行商人에게 一金 5000환을 借用해서 사 같고 왔다. 적녁에 늦도록 레디오를 듯다 자리에 드럿다. 레디오 사오다.

◎ 11월 11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둘재祖父 家에 가 자루를 얻어 가지고 와 꼬추 20斤을 上植 家 소가 場에 가는데 언저 가지고 같다. 집에서 20斤을 가지고 같는데 場에 가서 달아보니 斤 두 兩이 빠저 18斤 14兩에 팔아가지고 왔다. 一金 17800환을 받어 장노자 300환 허리띠 500환에 가같고 작근아버지가 흥정해같고 오는데 같이 지고 왔다. 妻는 김장거리 무를 뽀아 다듬었다. 꼬추 生産해서 처음으로 가저 같다. 집에 먹을 꼬추도 부졸일 것 같다. …

1961년

◎ 1월 3일 (음 11월 17일) 화요일

朝飯食事를 마치고 나니 完雨가 와서 當叔母가 도라같다고 傳하여 급히 건너가보니 벌서 운명을 하여 덥허놓았다. 急히 命植이나 작근아저씨를 알려야 하고 상포 흥정도 해야 될 것인지라 安仲의 命植에게 보내고 내가 水原으로 기별하고 상포도 해올 次 水原으로 一金 萬八仟圜을 같고 楊甘으로 가니 車가 없어 德雨는 상귀[삼괴] 기별차 가는데 같이 發安으로 걸어 發安 가서 車를 타고 水原에 二時 三十分 頃에 到着하여 緊雨아저씨 집을 찾아 알리고 곳 市場으로 가서 상포 흥정을 같이 하고 나니 차가 떠날랴 해서 곳 車를 타고 저녁 五時 頃 해서 도라왔다. …

◎ 1월 6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場에 가기로 하고 일직 일어나 理髮을 갈랴고 옷을 입고 잇으니 孟植이 와 妻男에게 편지 한 장을 써달라 해서 食前에 편지를 쓰고 朝飯을 같이 하고 理발을 같다 와 늦게 창깨 一 斗를 같고 場에를 떠났다. 창깨 一斗에 2,850환을 받어 라디오 약 600환 本册 850환 미역 500환 석약[성냥] 비누 실 초 등 400환 點心 100환 합 2450환을 쓰고 왔다. 李炳憲 月曆 受.

◎ 1월 11일 (음 11월 25일) 수요일

… 종일 집에 잇으니 後坪 사는 鍾万君이 와서

肥料 살 사람을 아라보아 달라 해서 알아보고서 돌려보냈다. …

◎ 1월 12일 (음 11월 26일) 목요일

朝飯을 마치고 나 한참 잇으니 前日 왔던 鍾万君이 또 와서 肥料 살 確實한 數字를 알려 달라 해서 알아보고서 …

◎ 1월 21일 (음 12월 5일) 토요일

… 곳 밖에 가 除雪을 하고 朝飯을 일직 먹고 安仲 場에를 가 春子와 같이 떠났다. 옥길 次前으로는 우리가 第一 먼저 같다. 눈의 발작이 없다. 닭 4마리에 3800환을 받어 기름 짜는데 150환 갈키 250환 구림 250환 석냑 기타 200환의 흥정을 하고 點心은 妻男이 사주어 먹었다. …

◎ 1월 26일 (음 12월 10일) 목요일

場行. 朝飯食事 後에 安仲場에를 가다가 然雨가 쌀을 지고 場에 가기에 우리가 買하였다. 一金 參仟圜을 주고 場금 하자고 하였다. 白米 一斗에 仟六百환을 하였다. 場에 가서 국수 한 관 330환 레디오 약 500환 레디오선 주리 200환 풍무파랑 150환 후추 50환 其他 50환 합 1,280환을 쓰고 왓다. …

◎ 1월 27일 (음 12월 11일) 금요일

… 동태장사가 와서 오징어 한 코[쾌]를 사고 또 한 코를 사서 저녁에 도리기를 했다. 저녁엔 국과 밥을 밤참으로 잘 도리기를 했다.

◎ 1월 28일 (음 12월 12일) 토요일

… 저녁에는 新浦의 寫眞師가 와서 仁成 家에서 한참 놀다가 도라왔다.

◎ 1월 29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前夜에 新浦의 寫眞師와 같이 늦게까지 놀다가 오늘 늦게 일어나 나가니 날은 아주 봄날 같은 氣分이 나며 날은 아주 밝고 맑다. 洞里 處女들이 일제히 寫眞을 직고 또 美容師가 와서 또 머리를 짓고 한다. …

◎ 2월 1일 (음 12월 16일) 수요일

창깨 二斗를 같고 春子를 安仲場에 보냈다. 창깨 二斗에 一金 六仟百圓을 받어 제사흥정 천환어치를 해갈고 왔다. …

◎ 2월 5일 (음 12월 20일) 일요일

外上 갑 高棧 商會 400환 支佛. (…)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外上 갑(국수 1관) 갑 600환을 갑고 와 집을 추리여 저녁에 가는 새끼 한 사리를 꼬왔다.

◎ 2월 11일 (음 12월 26일) 토요일

… 朝飯 後에 春子를 場에 보냈다. 닭 1에 900환 받고 보리쌀 3斤 360환 계란 7個 260환에 賣하고 고기 豚 1斤 400환 어린 것 사쓰 下 300환 其他 50환에 買하여 가지고 왔다. …

◎ 2월 22일 (음 1월 8일) 수요일

… 下午에는 平澤의 澤休가 肥를 한 차 가저와 동리가 다 샀다. 우리도 찹쌀 1叭 멥쌀 1斗를 주고 肥料 5包를 땄다. 高棧 작근아번님이 肥料 사는데 白米 1叭 차용해 달라 해서 借用해드리였다.

◎ 3월 11일 (음 1월 25일) 토요일

完雨 아저씨 場에 가기에 長靴를 사다 달라 부탁했다. 一金 1300환을 주었다. 春子를 孟植이 데리고 場에 같다. 나중에 알아보니 솟을 사라 같다고 한다. …

◎ 3월 24일 (음 2월 8일) 금요일

… 저녁나절에 삼장사가 와 白米 貳斗를 샷다. …

◎ 3월 29일 (음 2월 13일) 수요일

… 後坪으로 가 東雨 移舍짐을 新浦로 저다 주었다. 新浦에 가는 겸 제사흥정도 해왔다. 흥정 仟餘圓어치를 해왔다.

◎ 4월 26일 (음 3월 12일) 수요일

키, 화로 一金 2000환에 사다 孟植 주었다. (…) 妻는 어린 것을 두고 場에 같섰다. 孟植이 세간 난 곳에 키와 火盧를 사다 주었다. 어린 것의 세타 等等 一金 4000여원어치 흥정을 해왔다.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朝飯을 마치고 난 나는 오늘 安仲場에 官用肥料 갑을 건는다 해서 白米 1斗를 1800환에 내여 작만해 놓고 柱雨氏 家 새올리는데 같섯다. …

◎ 5월 6일 (음 3월 22일) 토요일

… 朝飯食事 後에 一金 五百圓을 아버지가 場에 가시기에 借用해달라 해서 官用 肥料代 貳仟圓을 里長에게 支佛하였다.

◎ 5월 9일 (음 3월 25일) 화요일

白米 1斗 賣 1900환. (…) 妻는 白米 1斗를 갈고 新浦 場에 가서 一金 1900환에 사갈고 겨란 2줄에 600환을 받어왔다. …

◎ 6월 21일 (음 5월 9일) 수요일

… 妻는 어린 것이 성치 않은 고로 약도 지을 겸 場에 같다. 콩 1斗를 같고 가 1500환을 받고 신발을 사오고 어린 것의 약도 사왔다. 레디오 약도 500환에 사왓다. …

◎ 7월 1일 (음 5월 19일) 토요일

… 妻는 場에 같다. 今年에는 웬일인지 돈이 밀리고 있다. 위상갑을 대강 알아보니 5천환 정도니 돈 나올 것은 없는 대 어이 할 것인가? …

◎ 7월 5일 (음 5월 23일) 수요일

… 來日 場에 肥料 사기로 하고 孟植에게 一金 2000환을 借用해왔다.(半包 代)

◎ 7월 6일 (음 5월 24일) 목요일

前夜에 孟植 家에서 借用해온 一金 2000환을 몇일 前에 敎雨에게 買온 鹽 1叭代 2000환을 食前에 찾으려 와 주었다. 肥料는 白米 1斗와 모자라는 돈은 게란으로 사기로 하고 白米 1斗를 둘재祖父에게 같다드리였다. 1包를 둘재祖父와 나눌랴는 고로이다. …

◎ 7월 16일 (음 6월 4일) 일요일

… 혹시나 春子 간선이나 안 올까 하다가 妻도 12時頃에나 場에 같다. …

◎ 7월 27일 (음 6월 15일) 목요일

… 배추씨 外上 200환어치 買. 行商人 물것약 뿌리는 사람에게 一金 三百圓에 안房에 물것약을 끼언젓다.(行商人)

◎ 8월 1일 (음 6월 29일) 화요일

… 妻는 大麥精을 賣해같고 1斗當 900환에 二斗를 賣같고 場에 같다왔다. 어린것의 옷 800환. 레디오 약 5500환. 기타 700환의 흥정을 해왔다. …

◎ 8월 11일 (음 7월 1일) 금요일 暴雨

… 안중장에 오늘 처음 난 꼬추금은 아주 下落하여 1斗 當 200환부터 400환까지라니 어이없다. 昨年엔 900환부터 1200환까지에 비해 말도 아니다. 꼬추 창깨 시세 아주 없다.

◎ 8월 26일 (음 7월 16일) 토요일

… 妻는 늦게서야 場에 같다가 늦게 도라온 妻는 몸이 不便한 모양이다. 몸이 성치 안은지 3日째이다. 場에 간 妻는 춘자의 망사 저고리 1300환 문풍지 250환 其他 500환 計 2050환의 흥정을 해왔다.

◎ 9월 6일 (음 7월 27일) 수요일

… 몇 장을(安仲場)으로 깨이더니 맑근 날씨로 安仲場을 마지했다. (…) 安仲場엔 창깨와 꼬추장이라 한다. 安仲場 時勢는 꼬추 斤當 上品 350환 창깨 斗當 上品 2300환 新米 1700환 꼬추는 昨年에 아주 下落이다. 昨年에 上品 斤當 900환에서 仟환까지이라 한다.

◎ 9월 9일 (음 7월 30일) 토요일

石油 配給. 石油 갑(配給)하라 妻는 창깨 1斗를 같고 新浦場에 가 一金 2200환 받어 石油갑 470환 支佛하고 와 …

◎ 9월 19일 (음 8월 10일) 화요일

來日 發安場에 갈랴고 도야지 우리 修理하고 일날을 잡고 일꾼을 얻었다. …

◎ 9월 20일 (음 8월 11일) 수요일

朝飯을 일직 먹고 妻와 場에 같다. 도야지 賣돈 29000환을 場에 가 다 둘러쓰고 왔다.

솜 2000환짜리 4동치 8000환 광목 1필 10000환 作業服 上下 2800환 英浩 옷 1700환 안신발 2케레 800환 소창 1疋 3300환 흥정 600환 레디오약 800환 기타 700환 계 28700환 맹식에게 片紙 送.

◎ 10월 6일 (음 8월 27일) 금요일

… 이 바쁜대도 불고하고 아버지와 庶母는 安仲의 運動會에 같다고 한다. 아버지 家의 裁縫針을 사온 것을 보니 아주 조와 보이고 一金 六萬

圓을 주엇다고 한다.

◎ 10월 11일 (음 9월 2일) 수요일

… 妻는 꼬추 6斤을 갈고 場에 가 一金 2400환을 받어 당꼬바지 1100환 농구화 550환 기타 900환어치 흥정을 했다.

◎ 10월 21일 (음 9월 12일) 토요일

…妻는 꼬추 17斤을 갈고 場에 가 꼬추 갑이 폭락이라고 7斤만 사먹고 場에 마끼고 도라왔다. 春子 옷감 한 벌 사갈고 왔다. 대충 春子한테 갈 것을 計算해보니 10만환도 보잘 것 없을 것 같다. 아주 불성모양인데도이다. 妻를 場에 보내는 것도 한 푼이라도 절략하는 妻인지라 妻를 보내는 것이다. 하기야 흥청그리면 우리 신접살림이 아주 말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最下의 生活로 겨우 밥 먹게 된 우리 살림을 生覺해 볼 째 지나온 것이 아주 험악했다. 父母의 德을 못 바든 우리는 결심도 대단햇던 것이다.

◎ 11월 1일 (음 9월 23일) 수요일

… 妻는 꼬추를 갈고 場에 갈다가 갑이 많이 떠러젓다고 妻男 서울 가는데 마끼고 3000환을 借用해서 속치마감과 저고리감을 바꾸어왔다. 돈 드러 갈 자리는 많으나 돈 날 곳은 없다. 春子 혼사 문제로 걱정이 많다.

◎ 11월 6일 (음 9월 28일) 월요일

… 妻는 場에 갈다 기름 짜 갈고 一金 2000환을 쓰고 왔다. 妻男에게 借用해쓰고 꼬추 마낀 것 파라 쓰라 했다고 한다. (…) 春子 문제도 나 혼자 걱정이지 동생들이나 아버지도 모른 체하고 있다. 인복(人福)을 못 탄 제(罪)다. …

◎ 11월 10일 (음 10월 3일) 금요일

食前 첫차로 水原 갈랴고 하다가 비가 오락까락해서 午車로 떠났다. 妙順 아주머니와 함께 갈다. 꼬추 24斤을 갈고 가서 8500환을 받었다. …

◎ 11월 11일 (음 10월 4일) 토요일

작근叔 家에서 朝飯을 하고 妙順 아주머니와 市場에 나와 이불 요 감을 박꾸고 英浩 옷 雄浩 속내의의 흥정을 했다. 이불요 5000환 어린것들 옷 300환 8000환의 흥정을 해 갈고 밤 늣게 집에 歸嫁했다.

◎ 11월 21일 (음 10월 14일) 화요일

… 場에 가야할 것인데 午前에 망설이다가 雨中에 點心을 먹고 妻와 安仲場에 떠낫다. (…) 상자 반지그릇 1,000환 內衣 上 800환 장갑 500환 인두 가새[가위] 자 실패 600환 네롱(衣類) 2500환 보 2개(大) 3400환 소창 9마 1200환 인조[인조견] 6마 1300환 보선[버선] 5개 1200환 수건 소창 소재 560환 보개모조리[베개모서리] 테침[퇴침] 1400환 妻의 나드리벌[나들이벌] 7,500환 等 의 흥정을 해 갖고 집에 오니 밤 7時가 된다. 아주 기진하다. 計 22,100환.

◎ 11월 27일 (음 10월 20일) 월요일

食前에 高棧 가서 쌀돈을 오늘 場금 치자고 하고 萬伍仟圜을 내갈고 와 場에 妻와 함께 갈다. 場에 가 국수 5관에 2000환 석면 대추 오징어 等 1100환 비누 실 비누갑 치솔 等의 其他 1500환 신발 英浩 신발 1000환 기타 1000환의 흥징을 해 갈고 왔다. 點心은 妻男이대접했다. 그래도 春子 앞으로 갈 것이 無數기數이다.

◎ 12월 1일 (음 10월 25일) 금요일

새벽밥을 해 먹고 春子를 데리고 짐을 소에 싯고 아버지 둘재祖母 億植 큰어머니 惠植 等과 함께 첫차로 發해 水原에 9時 頃에 도착. 妙順 아주머니 家에 짐을 마끼고 市長에 가 농을 42000환에 사고 (아버지가) 경대 오강 마후라(春子用) 等 여러 가지 흥정을 (내가) 갈다주고 新郎을 만나 式場을 알아갈고 우리가 부담할 돈을 支佛하고 작근집에로 갈다. 작근집에 저녁에 가니 妻와 무러니 애도 와 잇어 식구가 아주 만이 가 작근집 신세를 젔다.

◎ 12월 5일 (음 10월 28일) 화요일

… 나는 午前에 高棧 가서 煙草를 五百圓어치와 메리치 等 仟圜어치를 사왔다. …

◎ 12월 11일 (음 11월 4일) 월요일

… 安仲場에 가서 약을 사왓으면 좋으련만 妻 혼자만 두고 갈 수 없어 仁川 아주머니에게 附託을 햇더니 데디마이싱 1500환짜리를 사왓는

데 차도가 잇으면 또 한 병 사다노라고 하더라고 갑은 如何間 하로 速히 안글길 바랄 뿐. …

◎ 12월 21일 (음 11월 14일) 목요일

朝飯하고 理髮. 安仲場 行. 홍정 수판 550환 日記冊 800환 방寒화 1100환 약 600환 융 800환 기타 500환 計 4350환. 高棧 靑年 몇몇 一行이 되여 三溪 舜雨가 술을 받어 酒席이 되어 늣게 집에 왔다.

◎ 12월 28일 (음 11월 21일) 목요일

… 妻는 新浦에 가서 미역 550환찌 한 개와 솜을 트러왔다. …

1962년

◎ 1월 11일 (음 12월 6일) 목요일 雲

英浩의 상처는 별 차도가 없다. 한 장 도막 약이 없어 한약을 해 보았다. 오늘은 安仲場으로 藥을 사라 보냈다. …

◎ 1월 16일 (음 12월 11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를 일직한 妻는 場에 일직 出發했다. 鷄 一羽를 갈고 가 仟百圓 받어 소고기와 도야지고기 1斤식 사오고 聘母任의 還甲이 도라오는 正月인지라 春秋服으로 一金 萬圜어치를 해갈고 왔다. 나는 종일토록 어린 것 보아주었다.

◎ 1월 26일 (음 12월 21일) 금요일 晴

朝飯 後에 安仲場에 갈섯다. 敦一의 自轉車를 갈다 줄 겸 場에 갈더니 自轉車를 가질라 내가 떠난 後에 왓다가 떠낫다고 한다. 場 홍정 속초마감 1400, 레디오약 900, 속내의 1500, 웅호옷 교환 500, 약갑 600, 新浦 外上 약갑 1000, 其他 400, 計 6300환어치와 妻男의 英浩 藥 1300환어치와 點心을 대접받었다. …

◎ 2월 1일 (음 12월 27일) 목요일 晴

… 오늘 靑年 몇이 安仲場으로 農樂 북과 장꼬 채펀을 해라 갈다. 午後 늣게 7000환에 사갈고 왔다.

◎ 2월 7일 (음 1월 3일) 수요일 晴

오늘 妻家로 떠나기로 한 날인지라 (…) 新浦 얼추 다가니 車가 떠나 步行으로 은성까지 가니 기진맥진하다. 은성서 車를 타고 午後 2時 頃에 到着했다. 저녁엔 妻男과 來日 行使 準備에 의논했다.

◎ 2월 11일 (음 1월 7일) 일요일 雲晴

朝飯을 하고 우리는 떠날 準備를 햇다. 두 동서들의 말기엿으나[말리엿으나] 11時 頃에 떠낫다. 내기리 와 車를 놓쳐 1時 頃 차를 타고 安仲에 오니 新浦 行 車를 놓쳐 步行으로 영호를 데리고 오기에 많은 고생을 했다. 집에 3時 頃에 到着하니 …

◎ 2월 19일 (음 1월 15일) 월요일 晴

밤을 새우도록 雄浩의 설싸는 차도가 없어 날만 새우면 病院으로 떠날라고 했다. 妻는 어린 것을 보고 나는 물을 데우고 취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해서 몇 수까락 뜨고 妻를 安仲場으로 어린 것을 데리고 가자면 新浦의 車 時間을 노칠가바 일직 떠났다. 집에 잇자하니 걱정이 된다. …

◎ 2월 25일 (음 1월 21일) 일요일 晴

… 오늘 安仲場에 갈다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家축의 값이 폭등이라고. 소도 보통 大牛가 45만환 앙등하고 도야지도 보통 2,3천환 앙등 小牛는 23만환 내지 28만환. 도야지는 7천환에서 12000환까지라고 하니 도야지 1마리 당 白米 7斗는 주어야 산다니 도야지 살랴고 하다가 걱정이다.

◎ 3월 11일 (음 2월 6일) 일요일 晴

일직부터 서둘러 妻의 場에 갈 準備를 햇다. 朝飯 後에 妻는 場으로 나는 어린 것을 업고 마실로 건너가 午鍾 頃에야 도라왔다. 場에 가 外上 갑 五仟圜을 支佛하고 제사 홍정을 하고 기타 잡費로 仟餘 환을 쓰고왔다. …

◎ 3월 16일 (음 2월 11일) 금요일 風

前夜에 레이오가 고장이 나서 妻를 場에 보냈다. 꼬추 몇 400환 賣 게란 2줄 340환 受하고 레디오는 修理도 못해 갈고 왔다. 집안이 비운

것 같고 아주 가갑하다. 安仲선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어러놓고 한참 이것저것 손질하니 소리가 나기 始作했다. 엊이 신기한지 몰라 집안이 한참이나 우슴 꽃이 피였다. …

◎ 5월 5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어린이날. 水原 애 떠나다. 朝飯食事를 일직하고 水原 애 떠난다고 한다. 혼자 보내기 뭐해 妻를 같이 가 發安場을 보고 오라 했다. 路資로 一金 五百圓을 주고 妻는 내가 서울까지 같다온 先物이 없어 섭섭해서 스이스 갑사 적삼(春秋用)을 사 이부라고 2000환을 주었다. 오늘 發安場에 가서 쓰고 온 金額은 3500환 가량 된다. …

◎ 5월 19일 (음 4월 16일) 토요일 晴

… 오늘 안방을 바르랴고 도배지를 사라 新浦場에 妻가 白米 1斗를 같고 가 1750환을 받어 도배 반 자 지 850환어치를 사 같고 午鍾 頃 도라왔다. 나는 어린 것을 보아주며 집에서 잇으며 논뚜랑을 도라 보았다. 午後에 안방에 도배 반 자를 했다. …

◎ 5월 21일 (음 4월 18일) 월요일 晴

… 安仲 場에 갈랴고 쌀을 賣할랴 햇으나 買갈 사람이 없어 場에 못 같다. 官에서 農機具가 나왓는데 괭이를 한 개 外上으로 가저왔다. 등도 家家戶戶 도른다는데 不必要한 것이다. 모짜리에 쓰는 것인데 모짜리는 벌써 지났다.

◎ 5월 23일 (음 4월 20일) 수요일 晴

… 일을 같다오니 妻가 白米 五斗를 賣했다. 도야지 새끼를 살랴고 한 것인데 場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이 너무 가무는데 쌀을 낸다니. 政府에서도 큰 관심을 같고 잇다. 白米 5斗 8500환.

◎ 5월 26일 (음 4월 23일) 토요일 晴

도야지 새기 買. 壹萬仟圜. 白米 6斗 萬五百圓. 白米 6斗를 내고 一金 五百圓을 보테 같고 도야지 새끼를 사왔다. 朝飯을 큰아번님 家에서 큰어머니 육순 生日에 하고 곳 安仲場에를 떠났다. 安仲場에 가면서보니 우리 洞里가 물이 第一 많은 셈이다. 개사리 앞부터 安仲場까지 가면서 물 잇는 논이 몇 배미 안 된다. 우리 洞은 골장에 물이 잇것만 他洞은 물 잇는 논이 없다. 모짜리가 타는 논이 잇고 모짜리를 구할랴고 샘을 파는 곳이 오늘만 해도 10여 군데나 된다. 場꾼도 적다. 도야지새끼를 사 같고오니 도야지는 왜 사오느냐고 한다. 날이 가무러 좀 떠러진 것이라 한다. …

◎ 7월 4일 (음 6월 3일) 수요일 晴雲

… 安仲서 온 犬 商人에게 犬을 賣 600환.

◎ 7월 6일 (음 6월 5일) 금요일 晴

… 그래도 혹씨나 비를 기다리고 安仲場으로 農藥(근잠) EBN을 두 병 사왔다. 240환을 주엇다고 함. 안 끼언질랴고 햇는데 근잠이 심하여 사왓는데 늣젔다. 레디오藥도 80환에 사왔다. 安仲 가는 데도 물 잇는 논이 별로 없다고 한다.

◎ 7월 7일 (음 6월 6일) 토요일 晴

… 농꼴 鹽部長 婦人이 와서 나무와 소곰과 交煥하자고 해서 나무 3동을 주었다. …

◎ 7월 16일 (음 6월 15일) 월요일 雲

… 마른 논 파다가 호미를 부질러 오늘 아버지 場에 가는데 사라 보냈다. …

◎ 7월 26일 (음 6월 25일) 목요일 晴

大麥 精 2斗 賣 270환. 妻 安仲 場行. 場 흥정. 마라리야 注 1갑, 消化不良 注 1갑, 百日咳 注 3병, 알콜 大 1병, 其他 170원. 作業服 下 130원. 其他 50원. 옷감 210원 外上. 計 560원. …

◎ 8월 6일 (음 7월 7일) 월요일 雲

… 저녁 나절 高棧 孝植이 와서 웬일인가 햇더니 오늘이 孝植의 生日이다. 가자고 해서 場에 같다 도라온 悠雨와 함께 넘어가 저녁 늣게 도라왔다. …

◎ 8월 16일 (음 7월 17일) 목요일 雲雨

… 悠雨와 德雨가 場에를 가자고 해서 돈을 德雨에게 200환을 借用해서 場에를 같다. 날은 비가 오락까락 해서 길 걷기엔 더운 것보다 낳은 셈이다. 場에 가 藥房에 가서 진통제 1갑에 80환 핀셋트 10환 관장기 40환 판창코 5원 마기롬 50환 화장가제 10원 其他 20환의 흥정을 해같고

왔다. 一行은 서서히 걸어 늦게 왔다.

◎ 8월 19일 (음 7월 20일) 일요일 雲

닭 생기다. 大麥 2斗 賣 270원. 닭이 안는 소리를 하는데 닭알이 잇어야 앵길 것이라 德雨에게서 借用핸 一金 200환도 주어야 하고 해서 新浦場에 麥를 보낼랴 하니 妻가 한참 잇더니 大麥精 2斗를 賣하여 一金 290환에 200圓을 德雨 갖다주고 35圓에 게란 사서 앵기였다. …

◎ 8월 22일 (음 7월 23일) 수요일 晴

… 羅巡警 水原가는데 레디오 약을 附託햇더니 사갖고 왔다. 80원. …

◎ 9월 8일 (음 8월 10일) 토요일 晴

… 雄浩가 요즈음 起縮이 심하여 오늘 급히 妻가 雄浩를 데리고 安仲을 갖다왔다. 病院에서 氣管支가 나뿌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리하여 藥을 百圓어치나 사오고 치료비를 합해 百五拾圓이라고 한다. 아주 간 김에 제사 흥정도 해왔다. 2百60원 藥 買. 大麥精 1斗 130 賣. …

◎ 9월 21일 (음 8월 23일) 금요일

妻가 場에 간 고로 종일 雄浩 보아 주었다. 場흥정 200환어치 낫을 사왔다. …

◎ 9월 26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아번님 生辰日이 모래인데 해마다 닭을 잡아 진지를 해드리였는데 닭이 없고 보니 고기라도 한 칼 살랴고 햇으나 돈이 없어 보리쌀을 1斗 냈다. 그리하여 場人便에 보냇더니 사갖고 왔다. …

◎ 10월 11일 (음 9월 13일) 목요일 雲

… 妻는 오늘 꼬추 3斤과 콩 1斗을 갖고 場에 가서 藥을 해왔다. 쌍화탕 10병. 경丸 5. 간기산 5. 마이싱 10個. 아스피링 350個. 스타뽕 5 等 230환어치 흥정. 고추 210원 콩 130원. …

◎ 11월 21일 (음 10월 25일) 수요일 雲

… 妻는 오늘 安仲場에 갈랴고 하다가 내가 安雨 家 일을 가게 되여 못 갖다. …

◎ 11월 25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晴

各種 藥 買. 鍾植의 自轉車를 얻어 갖고 꼬추 대바래기를 갖고 發安場에 갖다. 지난 장에 꼬추 금이 좋아 가저갖더니 아주 말이 안니여 고추 10餘斤에 350원을 받었다. 그리고 雄浩 藥 원기소를 사왔다. 그 外에 各種 400餘円어치 藥을 사왔다. 妻는 김장 準備을 했다.

◎ 12월 11일 (음 11월 15일) 화요일

先金 納 肥料 갑 800원. 食前에 里長인 큰아번님이 오시여 肥料代를 내야 安仲 場에 간다고 하시여 朝飯食事를 하고 流安 1袋 尿素 1袋 갑 800원을 支佛하고 더 必要하면 돈을 내라고 하시긴 하나 돈을 借用할 수 없어 그만 두었다. …

◎ 12월 16일 (음 11월 20일) 일요일 晴雲

前日 搗精한 白米를 오늘 실어오나 햇더니 朴書房은 場에 간다고 하고 高棧 精米所 門은 닷처잇다. …

1963년

◎ 1월 1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雪雲

또 한 해를 마지했다. (…) 우리는 오늘 安仲場에 갈 겸 妻家에 消息이 없어 궁금하다가 5時에 밥을 먹고 妻家로 해서 場에 다녀왔다. …

◎ 1월 16일 (음 12월 21일) 수요일 晴

날씨가 풀린 것 같아 安仲場에 갖섰다. 場흥정 祭祀흥정을 하고 소등성마루뼈와 동태 좀 사갖고 왔다. 一金 250円을 갖고 가 一푼도 안 남기고 왔다. 아푸로 밀린 돈이 많은데 돈을 장만할 일이 없어 걱정이다. …

◎ 2월 1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 〈權管里〉오다가 妻男이 妻家로 같이 드러갖다가 來日 떠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安仲으로 나왔다. 초행길이라 그러한지 아주 멀다. 오늘 安仲場이라 場에 와 가마니바디(막까마) 200円을 주고 사갖고 집에 오니 5時가 되었다. …

◎ 2월 21일 (음 1월 28일) 목요일 晴

肥料代 640원 支佛. 食前에 里長任이 오시여 肥料代을 오늘까지 내야 오늘 安仲場에 가 傳票을 떼겠다고 하시여 돈을 보니 70원이 不足이라 돈을 구하라 다니고 있으니 敏子가 借用해주어

냈다. 肥料는 流安 1袋 重過石 半包袋이다. …

◎ 3월 5일 (음 2월 10일) 화요일 晴

發安場에 朝飯食事를 일직 물리고 떠났다. 智德이 瑞雨아저씨 논에서 오리가 있어 얼음을 끄며 맨발로 드러가 끄내 같고 집에 왔다가 悠雨, 德雨 等이 場에 간다고 해서 一行이 되어 같다. 上新村에 가서 무러니 安書房(妹弟)를 만나 같이 같는데 發安 가서 安書房이 點心을 먹으로 가자고 해서 一行이 같이 드러가 많은 노자를 축내니 미安하고 안되였다. 오다가 술이라도 대접할까 한 것이 못 만났다. 場 흥정 용두래용 松板 120원, 쌍화탕약 35원, 제사흥정 100원, 其他 150원의 흥정을 해 같고 왔다. …

◎ 3월 6일 (음 2월 11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 家에 올라가니 아번님과 庶母 等 모두 場에 가 木手 봉죽을 들 사람이 없어 종일토록 봉죽을 들었다.

◎ 3월 16일 (음 2월 21일) 토요일 晴

妻場 꼬추 9斤 900원에 賣. 食事을 일직 해 먹은 妻는 場에 가 (…) 꼬추 10斤을 같고 간 妻는 900원을 받어 廣木 半疋 540원 其他 750원을 해 같고 와 돈이 모자라 外上 190원을 젔다고 한다. …

◎ 3월 21일 (음 2월 26일) 목요일 晴

妻가 場으로 솜 틀러 간 고로 어린 것을 보며 마늘밭[마늘밭] 긁은 두엄을 저냈다. 妻는 일직 집에 왔다. …

◎ 4월 26일 (음 4월 3일) 금요일 晴

… 오늘 場에 脫穀機을 살랴고 崔巡警에 700원 借用하고 1斗를 賣하고 몇일 前에 보리쌀 賣한 것 770원고 둘째 祖父任이 주신 1550원을 합해같고 場에 떠났다. 장에 가다가 들으니 쌀갑이 껑중 뛰여 200원 하던 것이 250도 더 간다고 한다. 오늘 食前에도 230원에 샀으니 20원은 미찌고 들어같다. 場에 가 脫穀機을 3000원에 買하고 올 걱정을 했더니 德均君이 自轉車에 싯고 와 三溪까지 실어다 주었다. 그냥 있을 수 없어 담배 5갑을 주었다. 脫穀機는 둘째祖父 家와 같이 샀다. 三溪부터 茂晟이 같고 왔다.

◎ 5월 25일 (음 윤 4월 3일) 토요일 雲

도야지 새끼 두 마리 賣 600원, 賣藥 200원어치 買.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保溫苗板 피사리을 하고 朝飯食事後에 모를 찌 말가웃(上)지기를 심기 始作했다. 妻가 오늘 發安場으로 도야지 새끼를 같고 간 고로 어린 것들을 보아주며 심짜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간다. (…) 妻는 場에서 도라왔는데 도야지 새끼 두 마리에 600원을 받었다니 한 마리 갑도 못 바덨다. 보통은 데는데 좋와야 400원 간다고 그냥 내빌고 왔다. 속이 상해 아논 일급되지기 물을 푸는데 氣分이 안 난다. …

◎ 6월 11일 (음 윤 4월 20일) 화요일 晴

도야지 새끼 賣 두 마리 1000원. (…) 妻가 場 간다기에 準備를 해주고 朝飯食事後에 妻는 도야지 새끼 두 마리를 같고 場에 가고 나는 어린 것들을 보살피며 앞달뱅이의 푸른 보리를 비고 소로 가 다루고 물을 퍼 심었다. 午後에 場에서 妻가 도라왔는데 도야지 새끼 한 마리는 700원을 받고 문열이는 300원을 받었다니 상상 外의 금을 받었다. 먼점번에 골라 간 것이 300원 及 400원을 받었는데 많은 돈을 이렀다. 이번 場에 다 같다 팔았으면 도야지 새끼 낸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 場흥정. 노타이 200원. 기타 300원.

◎ 6월 2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晴

… 14名 安仲場에 가 組合에서 나오는 除草機를 사오라고 妻를 시켰드니 高棧 와 있다고 해서 高棧 가서 가저왔다고 한다. 價격은 아직 자세히 몰라 150원을 里長을 주었다고 한다. 組合에서 보조를 해 93원이라고도 하는데 里長은 127원이라니 아직 모른다.

◎ 6월 27일 (음 5월 7일) 목요일 雲

… 어제 장 쌀끔이 벗석 올라 1斗에 290원한 것이 450원까지 하고 보리쌀 180원 하던 것이 350원을 했다니 이것이 무슨 소동이 날 것인지 농민인 우리도 걱정之事.

◎ 7월 1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 稻熱病이 날로 심하여 마지못해 오늘 里長

이 安仲場에 가신다고 해서 農藥 세린산석회 半包갑 125원을 드리였다. 도청 稻熱病이 심하여 農藥 사기도 힘들다고 한다. …

◎ 7월 1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雲

모에 二化명虫이 심하여 農藥도 살 겸 發安場에 같다. 場꾼들 말에 依하면 요즈음 발생된 病기는 소용없고 또한 時期 2化期는 8月 초순경이라고 해서 家庭常備藥 400餘円 어치를 사오고 레디오 약도 사왔다. 場에 같다 와 콩밭을 妻와 함께 맸다. 둘째 祖父 家 쟁기 보습을 깨트려 오늘 사다 맞추었다. …

◎ 7월 21일 (음 6월 1일) 일요일 雲雨

二化명虫이 심하여 妻는 場에 가 농약 다이야지론(タイヤヂロン)을 450원에 사고 도배 반 자지을 사같고 왔다. 둘째祖家에도 사실텐데 돈이 현재 없으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사같고 왔다. …

◎ 8월 1일 (음 6월 12일) 목요일 晴

安仲場에 가 牛소의 時勢와 物價의 時勢를 알아볼랴고 食前에 보리집을 추리고 나 理髮을 하고 朝飯食事를 하고 悠雨와 같이 場에를 가는데 날이 매우 무더운 날씨다. 場에서 일직 떠나 4時頃에 집에 왔다. 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장만하기 좋다. 쌀갑이 第一 좋다. 白米 叭當 440원이다.

◎ 8월 6일 (음 6월 17일) 화요일 晴

… 저녁나절 도야지 장사가 와 팔었다. 안 올줄 알았더니 와 죽도 못 메기고 팔아 섭섭하다. 126斤에 3150원을 받었다. 새끼를 냈으면 했으나 접이 안 데고 속을 쎄기며 팔았다.

◎ 8월 10일 (음 6월 21일) 토요일 晴

妻는 發安場으로 藥을 뜨라 같다왔다. 鎭痛劑 마이시 S.M 及 其他.

◎ 8월 11일 (음 6월 22일) 일요일 晴

돈을 장만해 같고 安仲場으로 소를 사라 같다 牛市場엔 경험이 없다. 9000원짜리를 살랴고 하니 적당한 것이 없다. 종일 금을 마치다가 그냥 도라왔다. 12,000원 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다. 3,000원만 더 장만해볼까 한다. 安仲場에 가다 보니 水村 지나선 물마른 논이 많고 비가 안 온다고 걱정들을 한다. 이대로 더 몇일만 가물면 많은 소출 감소라고 한다. 田穀은 많은 감소라고들 한다. 五日만큼씩 비가 와야 농촌엔 알맞다. …

◎ 8월 15일 (음 6월 26일) 목요일 晴

… 牛 九阡百円에 샀다. 朝飯食事 後에 發安場行 楊甘에 차를 떠나 10時 半車로 發安에 到着. 牛市場에 가 소을 도라보고 午後에 소를 九阡壹百円에 사 같고 도라왔다. 萬円만 넹겨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으나 우리 소는 못 부릴 것 같다. 좀 비싸게 산 것 같으나 먹꺼리나 종일 바란다. …

◎ 8월 19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

… 통 미는 사람이 와서 통을 60원에 미고 點心을 대접했다. …

◎ 8월 20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 妻는 發安場에 도야지새끼를 사라 같다 마땅한 것이 없다고 그냥 도라왔다. 마늘 한 접을 같고 가 300원을 받어 왔다.

◎ 8월 21일 (음 7월 3일) 수요일 雲晴

… 도야지새끼 買 650원 (…) 朝飯食事後에 妻는 安仲場에 도야지 새끼 사라 가고 나는 敎雨氏家 허청을 이루키어 달라 해서 協助해주고 와 里稅 15斤을 支佛하고 어머니 산소에 伐草를 같다와 보니 (…) 妻는 場에서 도야지 새끼를 아주 잘 못 사왔다. 속이 상했다.

◎ 9월 7일 (음 7월 20일) 토요일 晴

… 저녁을 먹고 나니 高棧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해서 알아보니 藥宣傳員이 와 無料로 藥을 나누어 주는데 도장을 같고 오라고 해서 저녁에 高棧 가서 위보롱이란 위약을 한 봉 타고 腎氣丸이란 보약을 사 같고 왔다. 내가 몸이 약한 관계로 어린 것들을 줄랴고 샀다. 一金 500원 外上이다.

◎ 9월 11일 (음 7월 24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는 場에 꼬추 45斤 半과 참깨 1斗를 같고 가 꼬추 630원 받고 참깨

420원을 받어 솟을 4동이드리 650원에 사왔다. 午前에 나무 한 짐 하고 午後엔 앞 내뚝 뜻은 것 나무 두 동 묵고 妻가 솟 가저오는데 마중 나가니 태피 원뚝에서 받어왔다. 安仲서 가저오느라고 혼났겠다. (…) 今年엔 꼬추 금이 좋와 꼬추 잘한 집엔 돈푼이나 만저보겠으나 우리 집엔 田穀은 凶年을 만났다.

◎ 9월 12일 (음 7월 25일) 목요일 晴

… 點心 먹고선 작두를 마칠랴 陽甘에 가 못 가저오고 10日後에 된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작도 바탕이 없어 구하다 못해 아주 볼성모양의 밤나무를 가저같다. 저녁을 먹고선 新浦로 映畵 求景을 같다왔다.

◎ 9월 16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晴

… 妻는 場에 가 雄浩, 英浩 옷을 사같고 오니 어린 것들이 좋와하는 것이란 父母들에 흐뭇하게 하여 준다. …

◎ 10월 1일 (음 8월 14일) 화요일 晴 쏘나귀

… 食前에 陽甘 가서 작도 마친 것 찾으려 같다가 그냥 도라와 …

◎ 10월 10일 (음 8월 23일) 목요일 晴

… 食前에 陽甘에 가서 작도를 찾으러 같더니 오늘도 안 해 놓았다. 7月에 돈을 갖다주고 마귄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오늘도 안 되어 당장 해달라고 해서 불을 피우고 만드는 것을 보고 도라왔다. …

◎ 10월 11일 (음 8월 24일) 금요일 晴

… 食前 일직 陽甘으로 작도를 찾으러 自轉車를 타고 가다가 길이 익숙지 않고 自轉車 부레키가 말을 안 드러 自轉車에서 떨어져 한참이나 정신을 일코 일어나 보니 엔편[왼편] 팔이 쓸 수가 없이 아푸고 결린다. 괜신히[간신히] 場에 가 한참 있다가 작도를 찾아 같고 왔다. 집에 오니 9時는 넘었다. …

◎ 10월 20일 (음 9월 4일) 일요일 雲

… 妻는 發安場에 白米 2斗를 같고 같다. 場흥정 藥을 330원어치 해오고 水原 생질려 옷 250원.

◎ 11월 6일 (음 9월 21일) 수요일 雨

일직부터 서둘르더니 妻가 場에을 같다. 妻 場에 떠난 지 1時間도 못 데여 始作한 비는 종일토록 부슬부슬 나리였다. 妻는 大豆 1斗와 一金百貝을 같고 가더니 牛足을 사 같고 와 닭을 한 마리 잡아 곰을 한다 한다. …

◎ 11월 16일 (음 10월 1일) 토요일 晴

白米 1叭 賣渡 2,700원. 政府買上 價格이 어제 저녁에 發表되였다. 45k 當 1等 千四拾원, 2等 千원, 3等 9,50원이라고 하니 白米叭 2300원 때도 못된다. 政府買 價格이 언제나 市中時勢보다 높았는데 今年엔 아주 떠러진다. 市中時勢는 오늘 叭當 2800원이 넘는다. 政府買上 갑이 나와 쌀갑이 떠러질 것 같아 午後에 高棧 가서 쌀갑을 내왔다. 收得稅를 金納이라고 해서 一叭갑을 냈다. 妻는 白米 1斗을 같고 場에 같다왔다. 今年 들어 쌀을 벌써 5斗와 오늘 1叭 갑을 냈다. …

◎ 12월 6일 (음 10월 21일) 금요일 晴

妻가 安仲場에 가게 되어 종일 어린 것들 보아주었다. 配給鹽代 半叭에 130원을 냈다.

◎ 12월 8일 (음 10월 23일) 일요일 晴

共販 2叭 交換穀 1叭 肥料代 1叭. 共販場에 벼 2叭 내서 1等을 맞아 交換穀으로 1叭, 肥料代로 1叭을 했다. 共販場에 같다 오니 前日 실던 벼를 三溪 馬車가 와 실고 같다.

◎ 12월 16일 (음 11월 1일) 월요일 晴

… 安仲場을 갈랴고 하다가 마랐다.

◎ 12월 21일 (음 11월 6일) 토요일 雲晴

… 10時 頃에 집에 있으니 德雨가 찾아 나가니 밭원 2마지기를 팔아야겠는데 알아보아 달라고 해서 高棧 裕浩가 말한 바 있어 高棧을 같더니 安仲場에 같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 12월 26일 (음 11월 11일) 목 晴冷

… 朝飯 後에 安仲場에 같다. 몸에 이상이 있는 듯 해서 病院에 가 진찰을 해 보니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한다. 장흥정, 호구, 120원, 기타 300원의 흥정을 해 같고 왔다.

◎ 12월 30일 (음11월 15일) 월요일 晴

高棧서 소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를 3斤 220원어치 사갈고 왔다. …

1964년

◎ 1월 10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敦一君이 水原으로 가는 고로 路資도 줄 겸 發安場도 볼 겸 妻가 간다고 하기에 보냈다. 닭을 두 마리 갈고 가 290원 받어 路資 100원 주고 약을 해 갈고 왔다.

◎ 1월 11일 (음 11월 27일) 토요일

朝飯을 마치고 白米 1斗을 내갈고 安仲장에 갈다. 場에서 妻男을 만나 點心을 대접받고 同婿가 安仲다가 精米所을 샀다고 가보자고 해서 가보고 집에 올랴고 하니 비가 오락까락해서 車를 타고 올랴고 하니 아번님이 場에 오시여 파이푸을 사갈고 오시는데 같이 갈고 왔다. 安仲을 막 떠나니 비가 더 오기 始作해서 비을 맡고 옷을 적씨고 왔다. 小·大寒머리에 비가 온다니.

◎ 1월 21일 (음 12월 7일) 화요일 晴

… 오늘 安仲場에서 쌀금이 오르기 始作해서 300원(1斗當)을 했다고. …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安仲場에 갈랴고 했으나 새끼틀이 고장이 나서 농꼴 京彙가 와 고치는 고로 場에 못 갈다. …

◎ 3월 5일 (음 1월 22일) 목요일 晴

오늘 發安場으로 소을 賣할랴고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떠났다. 11時 頃에 牛市場에 着했으나 소 賣買가 덜 되고 소가 많이 났다. 風門에 依하면 소금가(이) 올랐다고 하나 별로 오른 것 같이 않다. 우리 소는 작자가 없다. 종일 잇다가 午後 4時 頃에 떠났다. 드러 앉았든 소는 거름을 못 것고 주저앉아 집에 오기가 힘이 들었다.

◎ 3월 6일 (음 1월 23일) 금요일 晴

오늘도 安仲場을 소를 끌고 같으나 작자가 없어 그냥 도라왔다. 땅갑을 3叭를 못 댔는데 소를 팔아야겠는데 팔지을 못하니 큰 걱정이다. 오늘은 집에 오기에 내가 혼났다. 7月에 9,300원이나 준 소를 이제 멕이고 본전이나 받을까한다. 今般 소를 멕기고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 3월 26일 (음 2월 13일) 목요일 風

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靑龍 新作路 出役이라고 한다. 나는 오늘 場에을 가야겠는데 出役이라 安仲場을 보고 와 出役에 나갈랴고 일직 떠났다. 날씨는 겨울날씨와 같고 바람이 심하다. 安仲場에 가 흥정. 제사흥정 英浩 가방 等 一金 360원을 갈고 가 쓰고 外上 200원을 지고 왔다. …

◎ 4월 21일 (음 3월 10일) 화요일 雲

… 朝飯食事 後에 여물 몇 뭇을 쓸고 安仲場으로 갈다. 新浦로 가며 車을 타고 보니 今般 장마 피해 막심하다. 이 동리는 피해 없는 것이다. 安仲場에 가 英浩 가방갑 200원 支拂하고, 소풍가방 100원, 물병 50원(외상), 雨衣 200원, 煙통 150원, 롬부(바) 100원, 소창 3마 100원 外上, 農藥(이짜 除) 60원의 흥정을 해 갈고 왔다. 場에 갈다 와 모짜리 가보니 흙탕물이라 볼 수가 없다.

◎ 5월 6일 (음 3월 25일) 수요일 晴

소를 부칠랴고 가니 安仲場에 洋灰 사라 간다고 해서 소를 못 부리고 李巡警과 가마니 3닙을 치고 세풀 한 망을 비였다.

◎ 7월 11일 (음 6월 3일) 토요일 雲

場 흥정 英浩 옷 230원(上下) 外上갑 230원. 일을 못 가고 場에 農藥을 사라 갈다. 安仲場에 가며 보아도 우리 논 같은 논은 없다. 모두 농사 잘 되였다. 今年에 藥 안 쓴 것이 아주 후해다. 農藥商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農事指導所을 찾아갈다. 時期는 아주 늦었다는 것이다. 效力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농약도 아주 침투성이 강한 놈이라야 한다는데 安仲엔 없다. 그리해서 그냥 왔다. …

◎ 7월 26일 (음 6월 18일) 일요일 晴

妻가 場에를 가겠다고 분주히 도라다녀 이런 것을 돌보았다. 妻는 마늘 두 접을 갈고 갈다. 종

일 어린 것을 보아주고 젓을 英浩가 데리고 가 얻어 먹였다. 妻는 일직 왔다. 마늘 굴근 놈은 350원 잔 놈은 20원을 받고 鷄卵은 한 줄에 70원이라고 한다. 穀價는 下락이고 白米 1斗에 480원 가던 것이 35원이라 하고 보리쌀이 400원 가던 것이 250원이라니 다런[다른] 물까는 오르고 穀價는 네리니 우리 農民만 살기 걱정이다.…

◎ 8월 1일 (음 6월 24일) 토요일 晴

聚雨堂叔이 刑務所에 入감된지 여러 날이 되였다. 水原郡廳의 양정게원은 엄부상 횡령으로 투옥된 지 여러 날이 되였다. 한 번 다녀올까 生覺하고 妻를 오늘 場에 路資 장만次 安仲을 같다. 집에서 어린 것 보아주기란 소월한[수월한] 것이 아니다. …

◎ 8월 16일 (음 7월 9일) 일요일 晴

8. 15 19週年을 경축마지 各種 경진大會를 오늘부터 安仲場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 安仲場에를 같섰다. 오늘은 3個 農樂大會 準경[결]승이 있고 쓰름[씨름]이 잇고 했으나 낮에는 農樂大會만 보고 도라왔다.

◎ 8월 25일 (음 7월 18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소를 끌고 發安場에 같다. 讚植과 重雨도 와 있다. 쌀끔이 폭落이다. 쌀끔이 350원 가던 것이 280원이라 금이가 안 마자 소를 못 치것으니 다른 곳으로 팔라고 해서 팔기로 했더니 작자가 물려 1,600원에 흥정했다. 돈을 기룰랴고 하다가 안 핸다고 해서 그냥 끌고 왔다.

◎ 9월 6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安仲場으로 소를 갓고 나갔다. 午後에 牛전이 성황이 되여 우리 소를 1時 頃에 賣買되였다. 돈 萬6仟원에 賣買에 찾이 돈 萬6仟원을 받어같고 왔다. 妻男을 만나 點心을 하고 곳 집에 왔다. 妻男의 部落에 伐木을 하는데 나무 살랴면 와 보라고 해서 生覺해 보고 알리라고 했다. 오다가 작근아번님에게 말하니 작근아번님이 사시겠다고 來日 가보신다고 하시였다.

◎ 9월 11일 (음 8월 6일) 금요일 晴

妻가 어린 것을 놓고 場에 간 고로 나는 어린 것을 보아주며 어제 허른 사랑채 두間의 뒤치다거리를 했다. (…) 妻는 場에 一金 2,200원 같고가 旋風機 仟百원에 사고 어린 것들 옷 1,100원어치 흥정을 해왔는[데] 아직도 仟원은 잇어야 급한 것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돈이란 價치 없는 것이다.

◎ 9월 16일 (음 8월 11일) 수요일 晴

… 妻는 아주 조바심을 하고 있다. 妻는 오늘 場에 꼬추 8斤을 같고 가 제사 흥정하고 150원, 삽 200원을 주고 사같고 왔다. 나는 午前에 어린 것 보아주고 午後엔 앞 대추나무 뜻다.

◎ 10월 6일 (음 9월 1일) 화요일 晴

妻는 場에 꼬추 18斤을 같고 가 一金 阡百원을 받어왔다. 꼬추해서 재미을 못 보았다. …

◎ 10월 11일 (음 9월 6일) 일요일 晴

집에 잇으면서 들깨을 비고 妻가 場에 꼬추 12斤을 같고 팔아같고 도야지 새끼을 사같고 온다고 했으나 꼬추 870원을 받어 같고 도야지는 120원부터 2,000까지라고 그냥 왔다.…

◎ 10월 27일 (음 9월 22일) 화요일 晴

妻가 發安으로 대추 3斗을 같고 가 1斗 當 380원을 받었다니 生覺보다 아주 덜 받었다. 生覺컨대는 1斗 當에 600원 以上 받을 줄 안 것인데 아주 덜 받었다. (…) 妻는 場에서 牛足 1足을 사같고 와 닭을 잡아 곰을 한다고 사같고 왔다. …

◎ 11월 29일 (음 10월 26일) 일요일 晴

妻가 新浦場에 간 고로 종일 어린 것을 보아주었다.

◎ 12월 1일 (음 10월 28일) 화요일 晴冷

… 모처럼 安仲場에 같섰다. 場에 가 旣成靴 한 1足에 400원과 모자 200원, 장갑 300원 新聞料 1,400원 等 一金 1,200원을 쓰고 왔다.…

◎ 12월 21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晴

妻가 場에 가는 고로 종일 大浩와 집에 잇었다. 어린 것 보아주기란 심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

1965년

◎ 1월 14일 (음 12월 12일) 수요일 晴

날씨 풀리여 푸근하다. 妻는 新蒲場에 같다왔다. 來日 내 生日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같다왔다. 나는 어린 것을 돌보며 새끼 두 둘래를 꽜다. …

◎ 1월 21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晴

妻가 場에 白米 1斗을 갈고 같다 어린 것을 보며 집을 보았다. 다섯재祖 家에서 메기는 事業所 소가 어제 저녁에 죽었다. 수의사가 와야 치운다고 종일 잇다가 저녁 늦게까지 치우지를 못했다. 妻가 場에 갈라면 의레 돈때매 걱정 끝에 不和가 온다. 우리는 糧食은 걱정 없는데도 돈에 몰려 이렇니 없는 집은 오즉할까.

◎ 2월 1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 高棧서 소를 친다고 해서 안 샀더니 안 잡아 오늘 장꾼을 구할라고 朝飯食事을 하고 가보니 벌써 장꾼이 같다. 慇雨가 큰집에 가는 틈을 타서 安仲場꾼을 만나 보내 달라고 보냈다. …

◎ 3월 1일 (음 1월 28일) 월요일 晴

… 나는 安仲場에 같었다. 소금[소 가격]을 보기 爲해서다. 白米 6,7叭머는 좋은 農牛을 세울 수 잇었는데 가당찮게 올랐다. 15叭는 주어야 세울 것 같다. 큰 손해을 보았다. 돈도 準備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놓치고 말았다.

◎ 3월 18일 (음 2월 16일) 목요일 晴

食前에 밭 검불 몇 짐을 논에 내고 朝飯食事後엔 新蒲場에 제사 흥정을 갈섰다. 어린 것들의 홍역 관계로 주저하다가 1年에 한 번 제사을 철할 수 없어 지내기로 했다. 저녁엔 제관들이 한 명도 없어 혼자 지냈다. 큰어머니가 오섰고 무러니 애가 왔다.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 妻는 장에 가 食口 신발을 사왔다. 肥料代을 장만하라고 해서 白米 4斗을 냈다. 肥料代 仟八百원이라고 한다. …

◎ 5월 21일 (음 4월 21일) 금요일 晴

… 洞里 젊은 사람 廣德으로 숭어 회선을 간다고들 하는데 妻가 場에 간다고 해서 나는 못 갔다. 妻는 白米 2斗을 갈고 가 作業服 400원에 사고 學校 英浩班에 주전자을 사다주고 왔다. …

◎ 6월 21일 (음 5월 22일) 월요일

쌀갑 3斗 賣 1100원을 갈고 장에 가 농약 지푸테레스 1봉(1kg)을 800원에 사고 其他 1300원을 쓰고 왔다. 장꾼 모두 가뭄 때매 걱정이다. 商人이 먼저 흉년을 타는지 장사가 안 되여 걱정이라고 한다. 먹기 장사도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한다. 어딜 가나 물이 잇는 논은 없다.

◎ 7월 1일 (음 6월 2일) 목요일 晴

妻가 장에 가게 되여 종일 어린 것을 보아 주었다. 날씨가 가무니 사람도 기운이 없고 조름만 온다. (…) 妻는 結婚반지을 一金 3500원에 賣했다. 大麥精을 買하야 늘리것다는 것이다.

◎ 7월 26일 (음 6월 28일) 월요일 雲

自輪車을 얻어같고 안중장에 가 도야지 새끼을 1700원에 샀다. 上치가 2500원까지 잇으나 中치上을 산 셈이다. 場에서 點心을 먹고 生覺 끝에 洋服을 마치기로 결심하고 洋服店에 들어가 모든 것을 生覺지 않고 마치였다. 夏服 겸 春秋服으로 4500원에 마치였다. 많은 돈을 쓰고 오니 무엇이나 잊은 것 같다. 내손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허용한 것 같다.

◎ 8월 1일 (음 7월 5일) 일요일 晴

… 場에을 가야 할 것인데 場에 갈 氣分도 없고 妻가 그루밭이나 매자고 해서 그루밭을 맸다. 오늘로 그루밭 두 벌을 맸다. 개물이 든 곳은 발까게 타고 요사이는 만양가리가 논에 찬다. 大谷엔 大被害을 보았다. 今年을 어이 살 것인가.

◎ 8월 6일 (음 7월 9일) 금요일 雲

妻는 安仲場에 같다. 김장 種子 及 其他의 흥정 次 場에 같다. 妻가 場에 가 洋服을 찾아같고 왔다. 고얀한[괜한] 짓을 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양복을 해 입다니 後悔가 막심하다. 잘 지은 農事가 이리 망하다니 참으로 애용之事다. 洋服

을 찾어왔것만 氣分이 不安하다. 우리 3斗5升지기는 깨여날 듯 하나 어이될 것일까. 먹게 하여 주시길 애원하면서.

◎ 9월 6일 (음 8월 11일) 월요일

妻가 場에 가는 고로 종일 어린 것 보아주었다. 돈 모두 내가 준 것이 5000원 가량인데 秋夕 흥정을 어이 할 것인지! 今年엔 더욱 돈이 몰린다. 李社長 앞에서 돈이 좀 나올 줄 아랐던 것이 돈이 안 나오고 보니 더욱 아쉬웁다.

◎ 9월 26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 妻는 오늘 場에 갈다왔다. 今年엔 꼬추 금새가 좋은데 꼬추을 했어야 잔돈푼이나 만저보는 것인데 꼬추 凶年을 當하니 잔돈푼이 궁해다. 돈이 아주 말라붙었다.

◎ 10월 1일 (음 9월 7일) 금요일 晴

妻은 場에 집을 비우고 갈다. 돈 장만하라 갈다. 高棧 甲秀 婚日이 닥아오고 또 내가 요즘 심한 일에 지친다고 고기 근이나 사다준다고 집을 비우고 場에을 갈다. 과연 아주 피로하다. …

◎ 10월 10일 (음 9월 16일) 일요일 晴

… 安仲場에 약을 사라 보냈다.

◎ 10월 16일 (음 9월 22일) 토요일

妻는 安仲場에 갈다. 英浩의 세타을 사갈고 왔다. 나는 농꼴 밭원 5斗落의 벼을 비였다. …

◎ 11월 1일 (음 10월 9일) 월요일 雲

脫穀을 妻가 場에 가는 고로 못했다.…

◎ 11월 16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晴

妻가 場에 간 고로 어린 것을 보아 주었다. 어린 것들의 겨울 衣類 等 1,000원 어치의 흥정을 해왔다. 요즈음 잔돈푼이 몰렸다. 품갑도 밀린 것을 해결해야겠는데.

1967년

◎ 1월 3일 (음 11월 23일) 화요일

… 敦一이 서울에 얻은 방이 잘못 얻은듯하여 말썽이 있다고 해서 가서알아보기로 했다.(…) 藥도 먹을 겸 外투도 살 겸 來日 서울 가기로 했다.

◎ 1월 4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서울행. 오늘 孟植와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 일직 떠나 三溪가 理髮하고 돈이 적을듯하여 돈을 취해볼까 했으나 그냥 떠났다. 孟植과 같이 南大門市場에 가 오바을 골라 3,000원 주고 사 입고 敦一집에 오니 큰妻男도 와 있다. …

◎ 1월 21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 妻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場에 갈다. 설 흥정과 어린 것들 옷 내 소화藥 등의 흥정을 해왔다. 一金 3000원 가량 다 썼다. …

◎ 2월 5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어린 것들 옷을 해줄라고 妻가 場에 갈섰다. 永登浦 孟植 보고 해오라 했는데 오늘까지 기별이 없어 場에 갈다. 돈에 쪼겨사는 人生. 오늘도 妻가 場에 가며 한바탕 푸념이 있었다. 1,000원 어치 英浩雄浩의 잠바.

◎ 3월 16일 (음 2월 6일) 목요일

安仲場 갈 準備을 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갈다. 場에 가 牛市場에 들리였다가 布木전에 가 妻의 春秋服을 마치였다. 春秋 約 2,000餘원 흥정을 했다. 牛市場에 와 소을 골으니 제대로 돈에 만는 것이 없다. 저녁나절서야 20000원 짜리를 샀다. 꼬 뚠지[뚫은 지] 오래지 않은 어수래기 송아지다. 白米 6叭 半이 넘는다. 白米 10叭만 場中齊一 牛을 고르던 것이 20叭라야 산다. 소 금이 말할 수 없이 비싸다. 모처럼만에 妻와 같이 장에 갈다. 인제 먹성이나 잘 하고 잘 자라주었으면 한다. …

◎ 4월 16일 (음 3월 7일) 일요일

妻는 安仲場에 가고 나도 서울 消息도 궁금하여 安仲에 가면 알 수 있을까 하고 집을 나오니 吉雨氏가 앞 세바닥에 나무 심고 있어 그것은 우리 것이니 심지 말라고 해도 그냥 심어 지적도을 갈고 가 이것은 산이 아니라 보다십히 103坪 따로 떨어져 논으로 되여있는 것이니 하고 네 거다 내 거다 큰소리을 냈다. 洞里 사람이 다 아는 것

이라 하고 安仲으로 떠났다. 氣分이 좋이 않은지라 종일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돈도 6百원 中 500원 出 다 썼다. 理髮料 200원을 네 번 깎은 것 支拂. 집에 와 있으니 妻가 안 와 기다리니 일꾼을 데리고 왔다. 아주 잘 되였다.

◎ 4월 21일 (음 3월 12일) 금요일

… 妻가 妻家에 가 일품갑을 받고 安仲으로 해서 소을 사갈고 왔다. 솟은 동이드리배 一金 700원 白米2斗다. …

◎ 5월 1일 (음 3월 22일) 월요일

일꾼이 場에 같다오겠노라고 해서 妻도 장에 같다왔다. 妻는 일직 오고 일꾼은 늦게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 아버님家에 인건했다. 場에서 共和黨新民黨 遊說가있었는데 共和에는 無관心이고 新民에는 박수 갈채. 安仲만은 新民이 우세라고들 광중평-. 前日 仁川에도 里班長黨員들을 車에 태워간 共和보다는 장소도 不便한 新民측이 더 관중이 많더라고 허나 共和에서 당선이 가능.

◎ 5월 6일 (음 3월 27일) 토요일

妻을 安仲場에 보내여 과수원에 참깨을 갈라고 보냈다. 妻는 부치고 왔다. …

◎ 5월 16일 (음 4월 8일) 화요일

妻는 場에 가고 (…) 妻는 場에 가 일꾼과 내 쓰봉 雄浩 옷을 사왔다.

◎ 6월 1일 (음 4월 24일) 목요일

… 安仲場에 가 과수원에 고구마 1500木 심고 왔다.

◎ 6월 5일 (음 4월 28일) 월요일

… 雄浩가 感氣가 총냉해서인지 기침이 심하여 저녁나절은 그냥 두고 불 수 없어 新浦로 약을 사라 같다. 新浦에 가 내 신발과 운동화을 사갈고 오다가 草命列 고기갑(숭어) 250원을 주고 왔다.

◎ 6월 6일 (음 4월 29일) 화요일

장에 간 지도 오래이고 果樹園도 궁금하고 참깨 고구마 심은 것도 볼 겸 安仲場에 같다. 과수원에 生覺보다는 낳다[낫다]. 신발을 한켤래 마처 신을랴 했더니 1700원이라 해서 못 마치고 도라왔다. 選擧 종반전에 오늘 安仲場에 立候補者 모두 왔다. 술과 국수가 헤여젔다. 場 흥정 광목 10마 호미 2 양산 其他 1200원.

◎ 6월 26일 (음 5월 19일) 월요일

食前에 아번님 家 그루을 갈고 朝飯 後에 妻는 安仲場에 밀을 비라갈다[베러갔다]. 白米 1斗 400원에 賣해갈고 場에 가 내 胃腸藥 사갈고 왔다. 安仲에 밀은 愼茂晟氏가 協助했다고 밀 8斗가량 난는데 茂晟 1斗가량 주고 下午 늦게 왔다. …

◎ 7월 16일 (음 6월 9일) 일요일 雲

妻는 場에 같섰다. 一金 850원을 같고 場에 같다. …

◎ 7월 21일 (음 6월 14일) 금요일

일꾼 고용인이 場에 가겠다고 洞里 일꾼들을 선동을 하여 우리 오늘 피사리 일날을 물리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남의 사람 두고 농사짓기란 매우 힘 드는 일이다. 급기야 場에 가기로 해서 一金 九百원을 주었다. 白米 1斗 當 420원, 2斗 값 840원에서 60원을 더 주며 점심을 사먹고 오라했다. 일꾼이 요즈음 일도 잘 않고 속을 세기고 있다. 종일토록 氣分이 좋이 않았다. 洞里 고용인들도 場에 간 사람은 없다.

◎ 7월 26일 (음 6월 19일) 수요일

妻는 場에 간다고 하고 장짐을 꾸리는데 朝飯食事을 하고 한참만에 내다보니 일꾼 2名을 얻어 일을 하고 있다 쪼차가 일을 하면 主人보구 일을 하겠노라고 하지 場에 간다고 하는 말을 듯고 일을 하면 누가 밥을 해주느냐고 소리지르니 일꾼을 보내고 와 나가겠노라고 한다. 몇일 前부터 主人속을 쎄기고 하더니 오늘은 나갈랴고 트집을 잡은 것이다. 나갈랴면 나가라하고 들어왔다. …

◎ 8월 1일 (음 6월 25일) 화요일

… 妻는 場에 가 어린것들의 여름옷을 사 같고 왔다. …

◎ 8월 6일 (음 7월 1일) 일요일

安仲場에 갈랴고 하다가 돈을 장만치 못하여

못 갈다. 여름만 되면 쌀의 여유가 없어 돈거리가 없다. …

◎ 8월 11일 (음 7월 6일) 금요일 晴

白米 1斗 400원 보리쌀 1斗 210원에 賣해 갈고 妻와 함께 場에 갈다. 과수원을 가볼 겸 場도 볼 겸 갈다. …

◎ 8월 21일 (음 7월 16일) 월요일 晴

妻가 場에 갈까 하다가 돈을 장만치 못해 못가고 날씨가 좋아 밀을 비라갈다. …

◎ 9월 1일 (음 7월 27일) 금요일 雲晴

… 妻은 꼬추 10斤을 갈고 場에 가 賣해서 1,100원을 받아갈고 모말(斗)을 650원에 買갈고 왔다.

◎ 9월 6일 (음 8월 3일) 수요일 雲

妻는 꼬추 18斤을 갈고 場에 갈다. 2,300원을 받어 갈고 어린 것들 옷을 사왔으나 上下 제대로 못 사와 앞으로도 2,000원은 더 있어야 어린 것들 옷 한 벌씩을 입힌다니 食口 많은 집들은 어렵겠다. …

◎ 9월 11일 (음 8월 8일) 월요일 晴

妻는 꼬추 15斤을 場에 가 흥정을 해 갈고 왔다. (…) 白米6斗 賣했다. 2400원. …

◎ 9월 29일 (음 8월 26일) 금요일 晴

妻와 같이 앞밭 콩을 것어 떨었다. 午前 中에 콩을 것고 下午에 떨었다. 날씨가 무더워 날씨가 기우러질까 염려가 되어 부지런히 해서 다 끝마추었다. 앞으로 콩을 떨 날이 멀어지다. 來日 일을 해야 하고 익일은 妻가 場에 가야하고 아번님 생신일이 닥아오니 일이 몰리여와 오늘 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부리런히 해치우었다. …

◎ 10월 1일 (음 8월 28일) 일요일 雨

… 妻가 場에 가 아번님 生辰 準備 次 갈다왔다.

◎ 11월 6일 (음 10월 5일) 월요일 晴

場에 가 도야지 새끼을 살랴고 서둘러 妻와 같이 꼬추 48斤을 갈고 場에 갈다. 꼬추금이 떨어저 아주 덜 받았다. 5600원을 받아 도야지전에 갈다가 마땅한 것이 없어 못 사고 李柱乙氏을 만나 점심食事와 술만 얻어먹었다. 도야지 새끼도 못 사고 돈만 3000원가량 썼다.

◎ 11월 11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晴

妻는 場에 도야지 새끼을 사라가고 나는 집에서 午前中 도야지 깐을 완전히 손질하여 새끼을 사라 넣을라고 서둘렀다. 奉事公時祭에 갈다가 楊州時祭에 내가 가기로 하고 妻 場에 가 도야지 새끼 사오는데 마중 가니 그냥 와 …

◎ 11월 21일 (음 10월 20일) 화요일 晴

도야지 새끼을 사라 갈랴고 朝飯食事을 일직했다. 妻도 場에 간다고 해서 나는 그만 두고 저 근너 가 壹雨氏에게 실어다 달라고 對話하고 나는 그만 두고 妻가 場에 갈다. 下午에 도야지 새끼을 사왔다. 3450원 주었는데 숫놈을 사와 내生覺과는 다르게 사왔다. 암놈을 살랴든 것인데- 그리고 쌀 1叭갑을 주고 사서 별 이득이 없을 것 같다.

◎ 11월 26일 (음 10월 25일) 일요일 雲

… 妻는 場에 갔다. …

◎ 12월 7일 (음 11월 6일) 목요일 雲

… 今般 서울 간 것이 서울에 가 변두리에 집토約 2,30평가량 사 장차 어린것들의 進學問題을 準備하자는 取지에서이다. 땅갑은 껑중껑중 2만원 以下는 없고 孟植이 인는 데도 땅갑이 날로 올라 파는 사람이 주저하며 500坪 以上이라야라니 生覺도 어렵다고 한다.

◎ 12월 8일 (음 11월 7일) 금요일

… 적어도 100만원은 있어야 몇 평 장만하겠는데 1/10의 돈으로 장만하자니 어렵다. 냉한 날씨의 바람을 타고 5時 頃에 着했다.

◎ 12월 11일 (음 11월 10일) 월요일 晴冷

妻는 場에 갈다. 學校다니는 어린것들의 겨울신 장화며 털신을 사라 갈었다. 父母들이란 子息들을 爲해 온갈 情誠을 기우리는 것이 재미다. …

◎ 12월 24일 (음 11월 23일) 일요일 晴

… 妻는 新浦場에 갈섰다.

1968년

◎ 1월 6일 (음 12월 7일) 토요일
가는 새끼 한통을 꽜다. 처는 場에 같다.
◎ 1월 15일 (음 12월 16일) 월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 元植에게 가 白米 1叭 갑 3700원과 2,000원 借用해 같고왔다. 來日 安仲場의 外上갑을 갑으라고 했다.
◎ 1월 16일 (음 12월 17일) 화요일
… 妻는 場에 같다. 外上갑 갑고 설 흥정도 해 같고 왔다.
◎ 1월 17일 (음 12월 18일) 수요일
소 개우했다. 一金 9,000 보탰다. (…) 下午에 牛商人이 소를 같고와 개우했다. 우리 소에다가 9,000원 보태같고 바꾸었다. 소가 좋와 보이지는 않으나 부리기 좋다고 해서 개우했다. 잘한 거신지? 돈은 다음 安仲場에 주기로 했다.
◎ 1월 20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 오늘도 朝飯 後에 高棧가 쌀돈을 내여 來日 安仲場에 소 갑을 같다 줄라고 같다가 쌀 商人을 못 만나 좀 있다오니 점심 때가 되었다. …
◎ 1월 21일 (음 12월 22일) 일요일
… 食前에 쌀상인 高棧 原植이 와 白米 2叭代와 2,000원 借用해 온 것을 合해 3叭 갑 9,300원을 받었다. 朝飯食事 後에 安仲場에 갈 사람을 알아보니 轍雨와 같이 장에 같다. 牛전에 들려 安氏 牛商人 우리 소 개우한 것 9,000원 주고 永浩가 外家에 가 오늘까지 안 와 기다리다가 안 와 轍雨와 原植과 같이 오다가 날씨가 추워 玉吉에서 주막거리에 들려 300원어치를 받어먹고 왔다. …
◎ 2월 21일 (음 1월 23일) 수요일 눈
妻가 場에 갈랴다가 돈이 없어 못 가게 되었다. …
◎ 3월 2일 (음 2월 4일) 토요일
歸家. 朝飯食事을 金貞雲 家에서 10時 半 頃에 하고 人便하고 春植 家에 가니 孟植이 왔다. 우리 三兄弟가 한 자리에서 議論을 했다. 30万원짜리 세탁소을 얻어 돈이 모자라 날보구 10万원만 대주면 6分 利子로 처주겠노라고 한다. 그리해 승락하고 數日來로 보내기로 하고 12時 半 車로 떠나왔다. 내가 무엇을 해볼랴든 것이 孟植과 春植이 말이 春植의 밑천을 대주는 것이 더 낳고 튼튼하다고 결논이 내리여 春植에게 10万원 주기로 한 것이다.
◎ 4월 4일 (음 3월 6일) 목요일 晴
서울行. 어제 春植이 서울에서 나와 약속대로 안 되였다는 소식을 듯고 오늘은 서울 갈 차비을 하고 10時 半 車로 떠났다. 春植 家에 가니 게수씨만 잇고 春植은 밤이 늦게야 오겠노라고 한다. 金貞雲 家에 가 있다가 春植이 찾아왔다. …
◎ 4월 6일 (음 3월 9일) 토요일
… 妻는 場에 같섰다. 一金 千200원 같고 …
◎ 4월 21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晴
… 妻는 場에 갈라고 하다가 돈 장만거리가 없어 못 같다.
◎ 4월 26일 (음 3월 29일) 금요일 晴
… 妻는 場에 一金 壹千500원 같고 같었다. 肥料 해둔 곳에서 가지고 같으니 肥料代가 걱정이다. …
◎ 5월 11일 (음 4월 14일) 토요일 晴
… 場人便에 화가래와 二化명虫 藥을 사오라 보냈더니 화가래는 없다고 그냥 왔다.
◎ 6월 26일 (음 6월 1일) 수요일 晴
… 날씨가 가물은 관계인지 二化螟蟲이 아주 심하여 妻 場에 보내여 農藥을 사같고 오라했다. 二化螟蟲藥 時期가 지났으나 묘 1대가 몽조리 죽어가 사다 뿌릴까 한다. 農藥(タイアスノン) 1000cc 500cc짜리 2통에 1400원 주고 사같고 와 곳 농꼴 아논 5斗落을 분무했으나 약하게 기언진 듯하다.
◎ 7월 1일 (음 6월 6일) 월요일 晴
… 妻는 농약 통을 같다 줄라고 場에 같다. 場에만 가면 적어도 一金 천원을 같고 가나 해 같고 오는 것은 없다. 물까는 비싸고 穀價은 싸니

농군은 살 수 없다. 싸나 비싸나 풍년 들어야겠는데 웬일일까 들에 가기 실어 종일 집안에 있었다. 바께 내다보기 싫다.

◎ 7월 21일 (음 6월 26일) 일요일 雨

妻가 場에 가는 고로 집에 있었다. …

◎ 8월 6일 (음 7월 13일) 화요일 晴

… 來日 서울에 가 볼라니 英浩가 쪼차간다고 해 妻는 場에 가 英浩의 옷을 사러가고 …

◎ 8월 21일 (음 7월 28일) 수요일 晴

妻가 안중장에 간다고 準備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기로 하고 떠났다. 一金 千參白원을 갈고 모처럼만에 장에 가니 雄浩가 쪼차왔다. 날씨는 매우 무더운 날씨였다. 場 흥정을 거이 끝내고 점심을 먹고나니 氣分이 매우 좋이 않다. 雄浩는 좋와라고 한다. 妻男과 妻男의 댁도 만났다. 雄浩를 데리고 매우 감상을 한다. 흥정은 괭이 170, 갈키 150, 벤치 180, 못 90, 창호 반 자 정권지 等지 240, 其他 外 흥정을 해갈고 悠雨 큰어머니 等과 갈이 해가 기울어 저서야 집에 왔다.

◎ 9월 1일 (음 7월 9일) 일요일 晴

妻는 場에 꼬추 6斤 半을 갈고 場에 가 一金 900원을 받었다 한다…

◎ 9월 6일 (음 7월 14일) 금요일 雲晴

妻는 꼬추 7斤을 갈고 場에 가 세 절구을 사갈고 왔다. 650원. …

◎ 9월 21일 (음 윤 7월 29일) 토요일 晴

妻는 꼬추 11斤을 갈고 場에 가 1650원에 팔아 갈고 흥정을 해 갈고 왔다. …

◎ 10월 1일 (음 8월 10일) 화요일 晴

… 妻는 秋夕 명절 準備로 場에 갈다. …

◎ 10월 16일 (음 8월 25일) 수요일 雲

… 妻는 아번님 生辰 準備로 場에 갈섰다. (…) 場에 갈다온 妻가 우리 도야지 산 것은 눈뜨고 도독[도둑] 맛었다고 場中 上이 4500원이라니 1마리에 1500원을 더 주었으니 洞里之間에 참으로 못할 일이다. 그런 사람에겐 양심도 없다.

◎ 11월 1일 (음 9월 11일) 금요일 晴

… 妻는 場에 갈다왔다. 모처럼만의 冬外出服을 해 갈고 왔다. (…) 妻外出服 2500원.

◎ 12월 6일 (음 10월 17일) 금요일

住民登錄 申告 次 新浦面事務所에 갈섰다. 妻는 場으로 해서 新浦에 왔으나 사진이 안 되여 次後로 미루고 도라왔다. …

1971년

◎ 1월 1일 (음 12월 5일) 금요일 溫晴

… 妻는 一金 參仟원 갈고 場에 갈다. …

◎ 1월 10일 (음 12월 14일) 일요일 晴溫

… 朝飯食事을 마치고 高棧 水午보구 木材 사라가는 데 같이 가자고 하고 앉아 있다가 下午에야 왔다. 모두 말하기를 洋式으로 지으랴고 하나 우리 農村에선 아직 맞지 않아 韓式으로 마음을 굳치였다. 앞으로 몰릴 일에 걱정이다. 2日後에 가기로 했다.

◎ 1월 13일 (음 12월 17일) 수요일 晴

高棧 가 瑞雨氏을 모시고 高棧 가 敏浩에게 말하니 三溪 가 學秀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學秀와 같이 平澤에 가보니 서울 時勢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서울로 가기로 協議가 되어 一行은 下午4時半에 高速뻐스로 서울을 들리여 黑石동 당고모집을 찾아 갈다. 당고모 집에서 하루을 쉬였다.

◎ 1월 14일 (음 12월 18일) 목요일 雲雪

당고모 집에서 자고 당고모부을 모시고 눈 나리는 거리로 나왔다. 듯던 말과는 다르다. 東大門 청량리 일대의 製材所을 더듬었으나 平澤만도 아주 못하다. 참으로 氣分이 나뿌다. 후해가 막심하다. 흑석동 영등포을 더듬어도 매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을 많은 고생을 시키였다. 당고모부가 소개을 하고 쏘다니였으나 수고만 했지 효과가 없다. 未安하다. 참으로 未安하다. 우리는 平澤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5半에 水原에 와 삼촌 家에서 잤다.

◎ 1월 15일 (음 12월 19일) 금요일 晴

水原 三寸家에서 宿하고 오다 水原 東一製材所에 들리여 알아보니 사람도 좋와보일 분 제일 낳은듯하여 하기로 결정하고 결산을 냈다. 才當 70원 특재 85원에 결정 木材 180才 송판 15평 베니야 3×6.03=4장 함석 31mm 120장 3,750원 어치 16万어치의 흥정을 해왔다. 오늘 종일 제재했으나 半도 못했다. 瑞雨아저씨와 水原 집에 가 쉬웠다. 水原 吉書房 家에 가 쉬고 일직 木材所에 왔다. 오늘도 종일 했으나 저녁이 되어 車가 안 와 못 실리고 三寸 家에 같다.

◎ 1월 16일 (음 12월 20일) 토요일 晴

木材 실어오다. 三寸 家에 일직 製材所에 들리니 車가 와 上車하고 있다. 水原에 茂晟에게 一金 2,000원을 주고 出發 發案에 와 그 車에 갈아 싣고 4時 頃에 到着했다. 우리 집에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 一金 50원 더 주었다. 모자라는 것이나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 집 떠난지 벌써 5일만에 歸家했다.

◎ 2월 7일 (음 1월 12일) 일요일 晴

… 妻는 安仲場으로 해 妻家집에 다녀 下午에야 집에 왔다. …

◎ 2월 26일 (음 2월 2일) 금요일

… 妻는 場에 一金 5,000원을 같고 場에 같다 왔다. 連植에게 借用해 준 一金 2만원은 오늘 같고 왔다. …

◎ 4월 11일 (음 3월 16일) 일요일 晴

… 安仲場에 모자리을 써려 놓고 下午에 떠났다. 場에 가 문 마친 木工所에 가 契約金 조로 一金 20,000원을 주었다. 문을 잘 짤 것인지가 문제다.

◎ 4월 26일 (음 4월 2일) 월요일 晴

… 오늘은 집지 일을 中止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같다. 문 짜는 곳에 들리니 아직도 멀다. 月 2,3日 頃에나 달아 준다고 한다. 장흥정으로 一金 15,000원 어치다. 솟 1,500 방 종이 5,500원 철물 계약 3,000원 其他 5,000원 等의 흥정을 해 같고 소에 실어 왔다. 場에 가다가 보니 白髮의 할머니가 場에 가는 것을 보았다. 젊은이도 많지만 아주 老人도 많다. 老人할머니가 2,3斗의 穀植을 이고 가기에 소에 언저다 주었다. 젊은 子女들은 모두 서울에 가 있다는 것이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 洞里만 하더라도 둘재祖, 큰아번님家 等 모두 그러하다. 老人들은 들어앉아 孫子나 보아주고 家事나 돌보아야 할 일인데 場까지 가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 우리도 앞으로 저 모양이겠지 生覺하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 5월 16일 (음 4월 22일) 일요일

妻는 場에 갔다. 유리갑을 一金 15,000원을 같다주고 철물 나문 것도 일금 1,000원을 같다 주니 現在가지 위상는 없다. 돈도 떨어져 간다. …

◎ 6월 1일 (음 5월 9일) 화요일 細雨

… 妻는 下午에 場에 같다 왔다. 반찬거리와 除草藥을 사라같다가 그냥 도라왔다. 제초제는 苗에 풀기가 가지를 못 친다니 今年에는 여리게 심은 데다가 苗가 녹아 한 대가 거이다. …

◎ 6월 21일 (음 5월 29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午前에 집가리을 손질하고 논을 一週하여 보니 논마다 二化명虫이 심하고 물도 마르는 논이 많다. 午後엔 밭원 1斗을 제초하고 施肥을 했다.

◎ 8월 26일 (음 7월 6일) 목요일

敦一君 約婚日이 닥아온다고 場을 해서 妻家에 다녀온다고 한다. 約婚에 있어 우리보고 목거리을 하라고 하여 妻는 조바심이 된다. 돈을 장만타가 一金 1,000원을 주고 같다오라고 했으나 모자란다고 一金 萬원을 準備하라고 한다. 白米 1叭 賣했으나 돈을 못 받었다. 今年엔 큰 돈으로만 몰린다. 몇일 後엔 英浩가 開學에 돈이 필요한데 걱정이다. 들뜬 마음으로 별일 없이 하루 해을 보냈다. 저녁에 人便에 妻는 釜山까지 가겠다고 기별이 왔다. 옷도 마처 입고 돈도 더 준비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몰리는 돈. 쪽기는 돈.

◎ 9월 6일 (음 7월 17일) 월요일

… 妻는 場에 같다. 白米 1斗(참쌀), 꼬추 2斤

을 갈고 場에 가 白米는 1,200원, 꼬추는 1,800원을 받었다고. …

◎ 9월 18일 (음 7월 29일) 토요일

… 妻는 新浦에 가 고춧가루를 빠갈고 왔다.…

◎ 9월 21일 (음 8월 3일) 화요일

安仲場에 妻는 가 23日까지 支拂해야 할 林野收得稅 一金 8,400원의 돈을 하라 꼬추 20斤을 갈고 가 斤當 145원에 샀다고.

◎ 9월 26일 (음 8월 8일) 일요일

食前에 일어나니 英浩가 왔다고 한다. 오다 三溪에서 자고 온다고 永登浦 洞里 女人인데 꼬추 商人이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왔다. 朝飯을 같이 하고 洞里에서 꼬추 50餘斤을 사주었다. 우리고 13斤을 냈으나 돈은 서울 가 英浩에게 주겠다고 2,500원을 未受했다.

◎ 9월 30일 (음 8월 12일) 목요일

… 妻은 三溪 가 煙草 20갑을 사갈고 왔다. …

◎ 12월 11일 (음 10월 24일) 토요일

妻 安仲場 行. …

◎ 12월 15일 (음 10월 28일) 수요일

틀니가 고장이 나 場에 갈다와 재간을 修理했다.

◎ 12월 21일 (음 11월 4일) 화요일

場에을 갈가 했으나 妻가 가겠노라고 해서 妻을 보냈다. 場에 一金 6,000餘원을 갈고 갈다. 오양 처넜다. …

1972년

◎ 1월 1일 (음 11월 16일) 토요일

1972년의 東역 해살이 맑게 떠올랐다. (…) 妻는 英浩와 雄浩을 데리고 場에 갈다 왔다. 나는 종일토록 가는 새끼을 꽜다.

◎ 1월 11일 (음 11월 25일) 화요일 溫

妻가 場에 간다고 하여 外上 갑 갑으라고 一金 3,000원을 주었다. 德雨氏에게서 借用했던 1,000원도 갑았다. 여물 썰고 새끼 한동 꼬고 집을 추리였다.

◎ 1월 21일 (음 12월 6일) 금요일

… 妻을 場에 보내여 藥을 사라보낼까 했으나 돈이 없어 못 보내고 叭 6닙을 짰다. 오늘까지 空叭 51닙을 짰다. 藥이 떨어지면 못 사는데 떨어질가 걱정이다.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수요일

… 妻는 場에 英浩 大浩을 데리고 가고 나는 高棧 가서 午前中 놀다 왔다. 농촌 살림살이란 한가한 때가 없다. 항상 일에 쪼긴다. 이렇게 살아도 生活수준이 제일 못하니 한심지시다.

◎ 3월 11일 (음 1월 26일) 토요일

妻는 場에 갈다 왔다. 고무다라와 통을 사갈고 왔다. 一金 2000원을 주었더니 白米 1斗을 더 갈고 갈다 왔다. 午後엔 봄보리 갈 밭을 갈았다.

◎ 3월 16일 (음 2월 2일) 목요일 雨

이른 새벽부터 단비가 촉촉이 나리여 온 草木의 생기을 독꾸었다. 부슬 부슬 나리는 비는 下午 4時頃까지 나리여 田穀엔 적당히 나리였다. 來日 發安 精米所에 벼 갈다 搗精하라고 기별을 했으나 오늘 비가 나리여 벼을 담지 못하여 車가 와도 걱정이다. …

◎ 3월 18일 (음 2월 4일) 토요일

관상대 發表가 비가 올 것이라고 하여 食前에 發安에 갈랴고 공동墓地까지 가니 車가 온다. 곳와 벼을 실고 朝飯食事을 같이 하고 搗精次 갈다. 20叭 搗精 搗精料 除外 16叭 5升 發安 간김에 부럭크와 울다리[울타리]용 등을 알아보았더니 집에서 計算한 것의 培은 더 넘게 計算이 된다.

◎ 3월 26일 (음 2월 12일) 일요일

… 저녁에 妻가 왔다. 白米 1叭을 發安에서 賣해 갈고 一金 10,700원 中 4,000원을 냉겨 왔다. 꼬추도 갈고 가 一金 4,000원을 받었으니 白米 1叭代는 쓰고 온 셈. …

◎ 4월 10일 (음 2월 27일) 월요일

妻은 場에 가 비닐을 사갈고 왔다. 120m 1,100원 부럭 마친 것은 來 16日 頃에 到着시켜준다고

하더라고 悠雨 一金 1,000원 借用해 가다. …

◎ 4월 24일 (음 3월 11일) 화요일

… 敦植은 敎會로 해서 安仲場도 볼 겸 간다고 못 오고 瑞雨아저씨만 오시였다. …

◎ 4월 26일 (음 3월 13일) 목요일

… 妻는 場에 같다 못을 4치 못 2관 2치 못 1관을 사왔다. …

◎ 5월 8일 (음 3월 25일) 월요일

… 일직 朝飯食事을 하고 安仲으로 함석을 사라 6時 半 頃에 出發하여 玉吉部落을 가니 비가 나리기 始作한다. 水村部落에 가니 심히 나리기 始作하여 安仲에 가니 장마비양 쏘다진다. …

◎ 5월 11일 (음 3월 28일) 목요일

妻는 場에 가 도마도 고구마 순을 사왔다.…

◎ 6월 1일 (음 4월 20일) 목요일 晴

… 妻도 場에을 같다 왔다. 아주 심히 째이는 해이다.

◎ 7월 1일 (음 5월 21일) 토요일

… 妻는 場에 白米 1斗을 같고 같다. 朝飯 後 나는 前日 脫穀한 밀짚을 같다 쌓고 밀 나문 것을 午前 中 비고 妻가 場에 같다 와 脫穀했다. …

◎ 7월 11일 (음 6월 1일) 화요일

妻와 같이 송아지을 끌고 安仲場에 같다. 牛전에 들려 송아지금을 보니 말 듯던 바와는 아주 다르다. 우리 송아지가 80,000원 이상을 받을 줄 알았으나 오늘 場 市勢로는 75,000원을 더 못받겠다. 우리 송아지가 場中 上中은 데는데 송아지가 털이 거칠어 들띠이는 것 같다. 한참만에 작자가 걸려 결국 74,000원을 받었다. 安仲에 문갑 6,000원을 支拂하고 와 三溪 龍浩家에서 借用해 온 一金 30,000원과 利子 1,800원을 합해 一金 31,800원을 支拂했다. 三溪 가다 斗洙의 美莊갑 떨어진 것 5,500원 月谷의 鐵근 갑 떨어진 900원을 같다 주었다. 도르다보니 나문 것이라고는 20,000뿐이다. 서울의 敦一君으로부터도 편지가 왔는데 방이 나겠다고 10,000 보증에 3,000월세다. …

◎ 7월 22일 (음 6월 12일) 토요일

… 妻는 白米 1斗을 같고 西井里場에 같다 왔다. …

◎ 8월 6일 (음 6월 27일) 일요일 雨

… 우중에도 妻는 場에 같다 왔다.…

◎ 9월 26일 (음 8월 19일) 화요일

瑞山아주머니의 回甲日이 30日에 라고 청첩이와 걱정 끝에 洞里에서 여럿이 가며는 돈을 장만키 爲하여 妻을 場에 꼬추 3斤과 白米 1斗을 같고 같다가 일금 2,500원을 받어왔다.…

◎ 10월 1일 (음 8월 24일) 일요일 晴

… 妻는 꼬추 6斤을 같다 一金 2,700원을 받아 같고 아번님의 生辰 準備 흥정을 했다.

◎ 10월 11일 (음 9월 5일) 수요일 晴

… 妻는 아버지 家에서 借用한 一金 3,000원을 갑기 爲해서 꼬추 10斤을 같고 場에 가 4,500원 받어 3,000원 갑고 나는 혼자서 보리을 갈았다. …

◎ 11월 6일 (음 10월 1일) 월요일 雨

… 妻는 場에 같다오고 나는 高棧 가 쌀 상인을 만날랴다 못 보고 왔다. …

1973년

◎ 1월 6일 (음 12월 2일) 토요일 晴

妻는 場에 간다더니 아이들 보참[보챔]에 지처 나에게 와 이이하면 좋으냐고 한다. 무엇이나고 하니 英浩는 옷을 맞추어 달라 하고 雄浩는 스켓-트을 사나라고 했다. 英浩 옷은 高等校에 入學 後로 雄浩 부탁은 來年에 공부 잘하면 사주기로 미루었다. 그리하여 妻도 場에 못 가고 英浩만 場에 가 本 日記册을 사왔다. …

◎ 1월 11일 (음 12월 7일) 목요일 晴

… 妻는 大浩을 데리고 場에 같다 왔다.

◎ 2월 10일 (음 1월 8일) 토요일 晴

오늘 16日 安仲場에 소을 같고 나가자고 농꼴億洙君에게 傳하고 와 별일 안고 하루 해을 보냈다. …

◎ 2월 16일 (음 1월 14일) 금요일

오늘 송아지을 팔라 갈라고 한 날이다. 朝飯 後에 농꼴 가 池億洙君에게 소을 끌고 가라고 하고 쪼차같다. 場에 가 작자가 물리였다. 하도 말라 갑이 없다. 前坪 일가분이 와 一金 106,000원 차지다. 億洙에게 一金 50,500원을 주었다. 쌍방의 손해가 나는 本金에서도 만이 손해가 났다. 安仲에서 李允鎔氏을 베웠다. …

◎ 3월 26일 (음 2월 22일) 월요일

… 妻는 場에 같다. 一金 仟원을 같고 가 場 흥정을 하고 나니 봄잠바을 사같고 왔다.

◎ 4월 9일 (음 3월 7일) 월요일

일꾼이 來日이나 된다고 하여 來日은 發安場에 가게 될 것 같아 妻와 苗板을 하기로 하고 苗板을 始作했다. 發安에 保管中인 白米 3叭을 安祿榮氏가 賣해 같고 았다. 叭當 600원 以上이나 덜 받었다. 1叭는 敎雨氏 保管한 白米을 賣해 같고 와 1叭을 내가 借用한 셈이다. 그리하여 來日은 發安을 가지 않아도 되였다. 保溫苗板은 下午 3時에야 끝났다.…

◎ 5월 16일 (음 4월 14일) 수요일

… 妻는 場에 같섰다.

◎ 6월 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

… 妻는 場에 같다 왔다.…

◎ 6월 18일 (음 5월 18일) 월요일 晴

… 午後에 大浩가 저녁 취사을 하고 있으니 妻가 왔다. 夏服 기성복을 사왔다. 一金 7,500원을 주었다고 하여 너무 많이 준 듯하다. 돈을 많이 준 듯하여 마음이 不安하다. 어린 것들도 無苦하다니 多幸이다.

◎ 6월 2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午前에 妻는 場에 가기 爲해 동욕꿀 감자을 캐기 始作했으나 10時 頃에야 다 캐여 10時 頃에야 場에 같다. (…) 곤로을 交換해 왔다. 여름 와이샤스을 사왔으나 에리가 커서 못 입겠다.

◎ 7월 6일 (음 6월 7일) 금요일 晴

… 妻는 장에 가고 나는 除草 作業. …

◎ 7월 16일 (음 6월 17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동욕굴 논을 풀을 뽑고 午後엔 세풀을 비였다. …

◎ 9월 6일 (음 8월 10일) 목요일

… 妻도 場에 같다. …

◎ 9월 16일 (음 8월 20일) 일요일

妻가 場에 가다. 꼬추 10斤을 같고 場에 가 一金 35,000원을 받아 같고 왔다. 가마니을 꼬매고 下午에는 매끼을 틀다.

◎ 9월 21일 (음 8월 25일) 금요일

水路代金을 찾아 쓸랴고 計劃으로 있다가 돈을 찾기 어려을 듯하여 今日 安仲場으로 송아지을 끌고 같다. 一金 58,000원에 賣해 같고 일금 50,000원을 新浦 農協에 예금했다. …

◎ 10월 26일 (음 10월 1일) 금요일

妻는 場에 가고 나는 前日 실어온 밭벼을 午前中 脫穀하고 午後엔 비가 올 것이라 하여 벼을 조파리였다. …

Ⅶ. 금융거래와 물가

1959년

◎ 1월 1일 (음 11월 22일) 목요일 雲晴

炳賢 家에서 쌀겨 1叭 1500원에 샀다. 安仲場에 가 반장화 850원 日記册 600원에 사왔다. 아버지에게 仟5百圜 借用. 계란 3줄 8個에 1050원 受.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니 윤서방이 겨 살려며는 가저 가라해서 돈을 꿀려니 없어 아버지 보고 말하니 원목 益秀에게 가면 벼 돈 차즌 것을 찾아오라 해서 原木가서 益秀에게 一金 5仟2百50원을 찾아 仟5백圜을 아버지에게 借用해서 尹서방을 주고 德雨와 場에를 같다. …

◎ 1월 2일 (음 11월 23일) 금요일 晴

永植 家 도야지 잡아 고기 4斤근 사왔다. (…) 杜雨와 炳賢이 되야지 도리기 하자고 해서 永植家 도야지 1145斤짜리를 잡았다. 고기 72斤 났다. …

◎ 1월 3일 (음 11월 24일) 토요일 雲雪

朝飯을 마치고 前日 말한 來雨씨에게서 가저올 白米 4叭 件을 柱雨氏가 교환해준대서 原木 가서 말하고 柱雨 쌀은 高棧 智植을 주라하고 나는 日雨氏 家에서 찻기로 했다. …

◎ 1월 5일 (음 11월 26일) 월요일 晴

仁休氏 家에서 白米 一叭 受. 敎雨氏 家에서 白米 一叭 受. 代金은 前에 支佛햄씀. (…) 朝飯을 마치고 나니 차 소리가 나서 건너가 보니 衡植 쌀차가 와서 쌀들을 내는데 敎雨氏 家와 仁休氏 家에서 쌀돈 내간 것 1叭씩 달아저 왔다. …

◎ 1월 6일 (음 11월 27일) 화요일 晴

仁成 家에서 白米겨 代金 600원 先金 支佛. 祖父 誕生日. 아버지에게 600원 借用. (…) 집에서 朝飯食事을 하고 마실 가서 아버지에게 一金 600원을 돌리여 水村 아주머니 家 겨깝 先金을 支佛했다.

◎ 1월 11일 (음 12월 3일) 일요일 晴

… 妻는 일찍 일어나 場에 갈랴고 닭 두 마리를 잡아놓고 왔다. 朝飯을 마치고 妻는 場에 갈 準備를 하고 나스는데 生覺하니 봄에 도로 닭을 살랴고 파는 것인데 봄에 닭금이나 비싸고 또 병관게로 못 사게 되면 안 파니만 못함을 生覺하고 못 가게 했다. 돈이 몰리고 장만할 거리가 없어 生覺다 못해 닭을 生覺한 것인데 또 중지다. 白米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

◎ 1월 12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永植의 땅 아버지께서 76叭에 흥정 떼서 契約함.(아버지에게 附託) 닭 900원에 팔다. 石油 배給 10合 代金 110원. (…) 朝飯食事를 하고 마을 가니 永植의 집을 炳賢 家에서 35叭에 契約을 했고 논은 흥정중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논을 다른 데로 놓치 안을라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附託을 해왓던 것이라 다른 데로 갈 것 같지는 않아 아버지에게 알아보니 아버지 家가 마탓다고 하다. 아직 나는 아버지 家 게시고 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위임식킨다. (…) 午後 늦게 아버지와 큰아번님 永植 妹夫 等이 있어 들어가 보니 땅 말을 해서 헤여져 夕飯을 하고 또 아버지 家에 가서 잘 좀 해달라고 하고 마을 있다 큰집 사랑을 가니 흥정이 다 데여 契約中에 있다. 畓 전부(8말 데사지기) 田 전부(약 600여평에) 76叭에 아버지께서 마탔다. 좀 있더니 契約이 完了되고 닭을 사오라 해서 우리 닭을 900원에 가저다가 밤 늣게서야 먹고 닭 울 무렵에 집에 왔다.

◎ 1월 13일 (음 12월 5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니 契約書에 印을 치고 있다가 헤여저 아버지에게 가서 앞의 땅은 내가 사고 그 나머지는 팔아 달라고 하니 매우 氣分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잘 흥정을 해달라고 朝夕으로 附託한 것 이것만 좀 싸게 흥정이 된 것 같으니까 채드릴 모양이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감탄고토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노릇 아버지에게 말하니 그러면 날더러 마음대로 팔 것은 팔라고 좋지 않은 말 그리자 아버지는 新浦에 가서 契約金을 支佛次 가고 날더러 原木 來雨氏에게 가서 말하니 넘어와 흥정하자고 했다. 자식의 밥숙까하는 父生覺하면 生覺할수록 분하고 속이 상해 죽을 직경이다. 마음을 잘 생각하고 夕飯 後에 무슨 말이나 했을까 했으나 無消息 어디 두고 볼 일이다. 몇 십 년 몇 백 년 가도 분할 일. 남 몰래 속 태우는 이 마음 아버지라고 어른 대접을 하고 附託한 것이 골탕. 이래도 父 노릇 하는 것인가? 이래단 나는 영영 못살게 될 것인가? 父 때매 못살고 살랴는 竹순을 밟아 부슨 것이 父. 종일토록 안절부절 못하다. 夕飯後에 柱雨氏 家에 마실 같다 왔다. 남이 알까 속 태우는 이 마음.

◎ 1월 14일 (음 12월 6일) 수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마을을 가니 敎雨氏가 당[땅]이 엊이 된 것이냐고 해서 모른다고 對答. 좀 있으니 來雨氏가 넘어와서 땅을 산다고 해서 아버지를 차즈러 高棧 넘어가 차으니[찾았으나] 없어 그냥 왔다. 나중에 父를 만나니 良心이 안 되었는지 날더러 사라고 하나 앞 논만 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한다고 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땅장사를 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랴니 어른을 어른답게 대하느라고 하니 아버지는 나에게도 이익을 生覺하고 있다. 또 공동답 받을 말하니 아버지가 한다고 딱 잡아뗀다. 내가 다 사는 것이니 그것을 나에 주면 어떠련만. 그것도 채드린다. 이것이 남이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父로서 차마 (…) 앞 왜뚝배미 여덟 데지기[되지기]도 父가 채드리였다. 앞 왜뚝배미는 그냥 넘어온 것이다. 나는 쌀도 모자라니 그것은 나를 달라하니 생각 말라고 딱 잡아띈다. 생각할수록 父子지간에 이리 하나 아버지는 넉넉하고 나를 못 살것만 이리 씨리 박고 미는가. 父를 생각햇것만 골탕을 내가 먹고 있다.

◎ 1월 15일 (음 12월 7일) 목요일 雲

아버지의 나에 對함이 야속함과 분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일직 자리에서 일어나 앞 永植 왜뚝논을 가보았다. 그것을 日雨氏가 작꾸[자꾸] 달라는 것이다. 이번 땅 흥정에 기여 넘어온 것이다.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가서 다 아버지 처분 것 하시고 앞 永植 복새논은 나 쌀 1叭 대주시는 심 치고[셈 치고] 내가 처분하겟다고 하니 화를 내며 왜 참견이냐고 한다. 그리하여 永植 家로 오니 炳賢 父가 건너방을 치장하여 永植 妻에게 뒤염과 재는 내가 내겠다고 말하자 막 밖에서 듯고[듣고] 드러오는 父는 뒤염과 재는 내가 흥정한 것이니 한데 끼여 넘어온 것인데 요것 뿌니냐고[뿐이냐고] 또 채드린다. 갈수록 나의 앞을 막는다. 고것즘은[그것쯤은] 나에 주어도 좋을 것이것만 욕심도 유만부득이지. 子息의 턱을 차서 얼마나 잘 사나 보아야지? 종일 마실로 그럭저럭 하로해를 보냈다. 그리고 마을 다니시며 듯기[듣기] 좋게 큰 자식을 生覺해야 된다고 나를 生覺하는 것같이 하고 다닌다나.

◎ 1월 16일 (음 12월 8일) 금요일 晴

瑞山아주머니에게 2천백원 借用. 아버지에게서 2천백원 借用한 돈 갑다. 妻 親家에 出發.(보리쌀 一斗) 妻는 場으로 해서 妻家에 갈 준비를 하고 나는 마실을 갈다. 妻가 말하기를 親庭에 가서 모자라는 것을 봇태 달라고 해본다고 하기에 거절하다가 응하여 朝飯 後에 出發했다. 마실 건너가서 서산 아주머니에게 돈 2천백원을 借用해서 아버지에게 갈다 드리였다. 아버지에게서 借用해 쓴 돈이다.

◎ 1월 17일 (음 12월 9일) 토요일 晴

朝飯後에 晧植 家에 가 놀다오니 永植 家 寶買 問題로 柱雨와 싸우고 있다. 永植 家는 사랑으로 나오고 炳賢 家는 수리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없는 사이를 타서 내가 재를 먼저 어찌할까 바 재를 치내고 있기에 본숭만숭 할랴다가 차마 볼 수 없어 조역을 하여 같이 파냈다. …

◎ 1월 18일 (음 12월 10일) 일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는 禧雨氏 家에 가서 長利쌀 남은 것을 청산해 달라 하니 아저씨 오실 때까지 참아달라고 해서 그냥 왔다. …

◎ 1월 19일 (음 12월 11일) 월요일 晴

… 저녁에 자리에 누우니 땅갑 치룰 걱정 英浩 안 오는 것 걱정이 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요사이는 한심 자면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 1월 20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지난 장에 大麥 1斗에 800원 寶에 제사 흥정함. 前日 종일토록 기다리고 오늘도 궁금히 기다리던 英浩가 왔다. 妻가 親家에 간 目的은 白米五叭를 今般 땅 사는데 대 달라고 같섰는데[갔었는데] 나는 신통히 생각치도 않고 내 심[힘]으로 살랴고 하던 중 妻가 고집 쓰고 가더니 그냥 왔다. 고얀한 말을 해서 氣分만 나쁠 뿐더러 야속하기도 하다. 심이 없어 안 주는 것도 아니고만은[아니건만은] 쌀도 아니며 一年이면 50餘叭을 짓는 집이 식구 너덧 식구에 먹기도 시원치 안은 집인데 안 대주니 야속하고 켓심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리 할까. 父母의 살림사리도 아니고 옵빠의 살림사리라 父母와는 다르지만 좀 야속한 生覺이 든다. 妻 보구는 왜 같느니 무어

니 말마디나 했것만 세상은 나를 爲한 세상이 아닌가 한다.

◎ 1월 22일 (음 12월 14일) 목요일 晴

도지고기 갑 受金. (…) 朝飯을 마치고 마실 가서 日雨氏에게 白米 4叭를 다라 달라고 하니 나는 모른다고 한다. 日前에 來雨가 가저올 쌀을 高棧 智植에게 실리고 여기 쌀을 나를 주라고 柱雨가 말했고 또 日雨氏도 그리 하라고 하여 原木 가서 來雨氏 보고 일럿것만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니 경오에 맛지 않는 말이다. 사람을 조롱을 한 셈이고 自己 第 편의를 도모하기 爲해서 한 일이짓만 지금에 와서 모른다니 그게 될 말이 아니다. 여기 쌀로 빠구어[바꾸어] 준대서 맛고 알고 잇섯더니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기에 몇 마디 하였다. 炳賢과 永植의 도야지 잡은 것을 고기 갑을 受金을 좀 했다. …

◎ 1월 23일 (음 12월 15일) 금요일 晴

白米 六叭 땅갑 지불 형식 車에. (…) 新浦에 車가 드러와 아버지가 불러 白米 六叭를 주라 해서 六叭을 실었다.

◎ 1월 25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晴

땅갑 13叭 車에 실리였다. 仁成 家 長利 1叭 半 둘재 祖父 家에서 1叭 받았다. 賢雨氏 家에서 智植에게 高棧 넘어가서 1叭를 찾으라 했다. (…) 좀곰[조금] 있더니 차가 와서 쌀을 실리였다. 13叭를 실리고 朝飯을 마치였다. 仁成 家에서 長利 먹은 것 1叭 半 賢雨 氏가에서 借用한 白米 一叭을 내노으시고 집에서 9叭를 실었다. 집에서 5斗를 仁成 家 白米 5斗와 合해서 1叭 計 13叭를 실리고 집에 와 종일토록 함께 놀았다. 水村 아저씨 家에서 겨 팔아논 것을 갈고 왔다. 1叭.

◎ 1월 26일 (음 12월 18일) 월요일 雲

동서 妻男 出發. 겨갑 나문 것 一斗 二升 주었다. 水村 아주머니 家. (…) 午後에 水村 아주머니가 와서 겨갑 나문 것을 보리쌀 1斗 2升을 드리였다. 보리쌀 1斗 800원에 900원 나문데서 1斗 2升을 주었다. 일升을 더 준 셈이다.

◎ 1월 28일 (음 12월 20일) 수요일 晴

炳賢 家 600원 借用. 瑞山 아주머니 1800원 갈다드리다.(借用金) 朝飯食事를 마치고 炳賢家에 가서 一金 六百圜 借用해서 耘植 家에서 二仟百圜 中 三百圜 不足인 仟八百圜을 갈다 瑞山 아주머니를 갈다 드리였다. …

◎ 1월 29일 (음 12월 21일) 목요일 雲

仁川 아주머니에게서 300원 借用. 瑞山 아주머니에게 갑다. (…) 妻가 仁川 아주머니 家에서 春子 조고리감 위상[외상]으로 끈고 一金 300원을 돌리여 端山 아주머니에게서 借用한 것을 드리였다. …

◎ 2월 1일 (음 12월 24) 일요일 晴

原木 來雨 家에 白米 四叭 받으러 갈다 왔다. (…) 妻 場에 白米 一斗 갈고 가 천오십원 받아 양말 1,750원 소 骨 500원어치 사왔다. (…) 朝飯을 마치고 나니 아버지가 와서 前日 新浦에 가서 智植에게 알아보니 原木 來雨 家의 쌀은 모르고 인게 받을 수 없다 하드라고 해서 곳[곧] 原木 가서 來雨 氏에게 말하니 그리면 高棧 가서 長利 쌀을 얻어 댈태니 그리 알고 넘어 가라고 해서 高棧 와서 智植을 찾으니 新浦에서 오지 안앗다고 해서 작근집에 있다가 (…) 妻는 白米 一斗를 갈고 場에 가서 내 양말 1 고기 骨 500원어치를 사왔다. 白米 一斗에 천오십원을 받았다 한다.

◎ 2월 2일 (음 12월 25일) 월요일 晴

땅갑 1叭 치루었다. 아버지 家에서 叭가저 간 것도 4叭 실리였다. 합 39叭 실리였다. 오늘 땅갑 찾으라 드러온다 해서 (…) 조곰 있으니 車가 와서 둘재 祖父 家에서 五斗를 우리 집에 合해 1叭를 갈고 가고 東雨 家 前 일곱지기 164坪을 6叭 7斗에 팔아 오늘 車에 실리고 큰집 姊夫에게서 1叭을 실리고 高棧 가서 來雨가 쌀를 주어 4叭 琉植 家에서 실리였다. 來雨가 얻어주서 나를 주어 日前에 가지간 것을 갑는 것이다. 40叭 3斗 중 다 치르고 1叭 3斗 남았다. 炳賢 家에서 3叭는 安仲 가서 주기로 석憲에게 인게하였다. …

◎ 2월 3일 (음 12월 26일) 화요일 晴

… 午後에 뒤동산에 있으니 錫憲이 와서 來日 殘金을 支佛해 달라고 해서 그리하라고 하였다.

◎ 2월 4일 (음 12월 27일) 수요일 晴

食前에 孟植이 와서 거름 지치러 같다 오고 나는 큰집에 白米 2叭 나문 것을 달라 같더니 1叭는 땅 흥정 부친 것으로 지[제]하라고 하고 1叭는 없어 못 주것다고 하기에 姉夫 준 것이기에 學校에 가는 姉夫를 보고 말하니 至今 없으니 長利를 얻어주며는 姉夫가 책임지겟다고 하며 사실은 姉夫가 줄 것이 아니고 큰집에서 내놀[내어놓을] 것이라고 하며 姉夫가 책임질 태니까 급전을 돌려쓰면 나중에 해준다고 한다. 염려 말고 얻으라고 長利가 되며는 내가 長利로 해준다고 하고 學校에 같다. 朝飯을 마치고 富平 아주머니에게 가서 白米 5斗 나문 것을 달라고 하니 더 좀 참아 달라고 한다. 2日前 炳賢이 줄 3叭 代도 안되며 오늘 智植의 편에 해 준 모양이다. 1叭 지핸[제한] 것은 잘 되었다.(큰아버지가 땅 흥정 부친 것을 나 줄 것으로 지핸[제한] 것) 땅갑 지불하는데 종일 분주히 도라다니고 다 잘 되고 다 지불했다.

◎ 2월 5일 (음 12월 28일) 목요일 晴

白米 3斗 안골 祖父 家 땅갑 더 온 것 드리였다. 炳賢 家 白米 2斗 受. 大麥 1斗 800원에 賣. (…) 朝飯을 하고 마을 가서 도야지 고기갑을 靑年들이 것는데[걷는데] 炳賢 家에서 白米 2斗 받을 것에 1斗는 안골 祖父 家에 드리고 1斗는 우리 고기 代金으로 支佛하였다. 안골 祖父 家 白米 3斗 땅갑에서 더 온 것을 집에 와서 轍雨가 가저 같다. 難民이 와서 大麥 1斗를 팔라 해서 1斗 800원에 팔았다.

◎ 2월 6일 (음 12월 29일) 금요일 雲

白米 3斗 3천 100원. 肥料代 未受 1300원 주고 炳賢에게서 借用金 600원 주고 場 흥정 1400원 하고 場 路資로 500원 쓰고. 食前에 顚雨氏가 前年도 肥料代 미수를 받으러 와서 백미 3斗를 데주고 朝飯 後에 돈을 찾으러 가서 3천 백원을 받어 肥料代 130원을 드리고 炳賢 家에 와서 永植 家 도야지 고기 代를 것어주고 청산했다. 곳 場에 가서 炳賢君과 술을 같이 하고 국수 두 관 메리치[멸치] 한 봉 배 3개 牛肉 한 근 천400원을 주고 사고 炳賢에게 꾼 돈 600원을 갑고 오다가 顚雨氏와 술 1斗(약주)를 三溪서 먹고 왔다. 멋처럼[모처럼] 場 路資로 500원을 썼다. …

◎ 2월 18 · 19일 (음 1월 11 · 12일) 수 · 목요일 雨

… 夕飯을 마치고 나니 鍾소리가 나서 건너 가보니 洞里 어른들이 처음으로 많이 모이였다. 금번 나온 肥料 配給 問題이다. 그리하여 會가 끝나고 나서 다섯재祖父께서 里長도 없고 하니 날더러 新浦에 가서 肥料 전表를 떼오라 해서 오늘 新浦에 나가 전표를 떼왓다. 新浦 나가는 길에 계란 두 줄을 가지고 가서 540원을 받어 柳氏(難民)을 만나 도야지에게 준 注射代를 150원 支佛했다. …

◎ 3월 1일 (음 1월 22일) 일요일 晴雨水

도야지 다리를 못 써 오늘 잡앗다. 68斤 12양에 15,800원을 달라고 水村 아저씨와 日雨氏에게 위임. 食前 일찍 妻를 보내여 도야지 죽을 해다 주라 햇것만 죽은 영 먹지 안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보니 느러젓다. 이러날[일어 날] 것 같지 않아 잡기로 결정 生覺하고 炳賢家에 가서 炳賢에게 우리 도야지 잡지고 하니 場에를 간다고 한다. 도야질 잡아도 치울 것이 걱정이 되여 杜雨氏에게 가서 알아보니 치우다 못 치우면 홍월리[홍원리]로 같고[가지고] 오면 염전에 치운다고 한다. 朝飯을 마치고 잡을 사람을 구하니 수촌 아저씨와 수원 祖母 家 아저씨가 잡는다고 해서 잡기를 始作하니 大休씨도 그드럿다[거드렀다]. 도야지 고기 68斤 12양이 나가 斤當 230원씩 15,800원을 받어달라햇다. 그리하여 순데를 水村 아저씨 家에서 해서 나도 먹었다. 洞里에서 갈비 두 짝 목정을 지고 오후에 홍월리로 가저 같다.

◎ 3월 2일 (음 1월 23일) 월요일 雲

… 아버지 家에 가니 日雨氏가 보자고 하여 가보니 前日 도야지 고기를 가지고 홍을리[홍원리] 같다가 바다에서 고생만 하고 배가 건너오지 않아 그냥 왓다고 하여 치울 것을 걱정을 하고 잇기에 오늘 품갑은 내가 낼테니 잘만 치워 달라고 햇더니 지고 또 홍월리로 건너 같다. 좀 잇으니 高棧서 고기를 사라 왔으나 떠난 후이다. …

◎ 3월 4일 (음 1월 25일) 수요일 晴

興植氏에게 一金 仟五百圜 借用. 肥料代 仟七百六十圜 支佛. (…) 食前 興植氏에게 가서 一金 仟五百圜을 借用해서 肥料代金 仟七百六十圜을 같다 다섯재祖父에게 드리엿다. …

◎ 3월 5일 (음 1월 26일) 목요일 雲

白米 1斗 내다. 1,030원. 高棧 작근 집에서 1,000원 받다. 비누 1장 100원에 사다. (…) 朝飯을 마치고 (…) 둘재 祖父가 와서 쌀 가지려 왓다고 해서 집에 오니 妻가 없고 농골 難民 柳氏 婦가 와섯다. 水原 祖母 家에 가서 모말을 얻어다 1斗를 데여주엇다. 日前에 둘재 祖父에게 쌀돈 1斗代 낸 것이다. 妻는 高棧 가서 작근집에 一金 仟圜을 받어 정종 外上을 400원 갑고 비누 1 100원에 사고 500원을 남기여 왓다.

◎ 3월 7일 (음 1월 28일) 토요일 雨

돈식 家에서 100원 차용. (…) 妻는 敦植 家에 가서 一金 100원을 借用해 왔다. 몇일 前에 興植氏 家에서 一金 仟五百圜을 借用해온 것을 갑을랴니 100원이 모자라서이다. …

◎ 3월 8일 (음 1월 29일) 일요일 雨雲

… 몇일 前 興植氏에게 借用해온 一金 仟五百圜을 같다 주었다. …

◎ 3월 9일 (음 2월 1일) 월요일 晴

肥料 같고 와 나누다. 요소 35斤 現金. 석회질소 1叭 外上. 炳烈 軍入隊 위문금 一戶當 白米 2승. 英浩 藥갑 仟五十圜. 원기소 1병. 마이싱 1. 네오잉 1. 산內服藥 1. (…)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가니 肥料 가지러 간다고 하여 집에 와 계란 두 줄을 싸서 藥을 살랴고 쌋다. 新浦에 소 같고 가는데 炳烈君 軍入隊 위문금을 것기로 해서 白米 1戶當 2升을 것어 도합 3斗 一金 千圜을 一斗 술 하기로 하고 2斗 2仟圜에 샀다. 전부 合해서 一金 4,000원인 것이다. 新浦에 가서 藥 마이싱 1,200원 네오잉 1 원기소 1병 또 약 한 봉 千圜어치 약 중 650원을 냉기고(外上)으로 사 가지고 집에 오니 英浩는 잠이 들엇다. (…) 肥料 나누어 건너가서 肥料(35斤 尿素) (1叭 石岩 질소)를 타왔다. 尿素는 現金이고 석회질소는 外上이다. …

◎ 3월 12일 (음 2월 4일) 목요일 晴風

겨 2叭 팔다. 4,000원. 敦一에게서 受翰. 悠雨에게서 답사 受附託. (…) 原木 錦雨가 와서 겨를 팔라 해서 달아주었다. 나는 피까지 100斤에 샷는데 점미 100근이라야 된다고 해서 105斤을 두 가마 달고 1叭 當 2仟圜 중 100원이 모자라 차후에 겨 한 가마 나문 것 가지려 와서 주겟다고 햇다. …

◎ 3월 13일 (음 2월 5일) 금요일 晴

顚雨氏 妹 婚日 6日 五百圜 부조. (…) 13日 메리코롱代 支佛 30원. 悠雨에게 答辭를 써다 주고 그냥 있을 수 없어 白米 5升代 五百원을 부주하였다.

◎ 3월 16일 (음 2월 8일) 월요일 晴

協同組合 加入金 300원 支佛. (…) 朝飯 後에 炳黙이 와서 協同組合 가입金을 달래서 주엇다. 300원. 마실 건너가서 큰아번님에게 軍警 원조금이 우리가 섬지기 농사와 동이 내게 된 말이 원말이냐고 말하니 칭을 멜 수가 없어 그리 되였다고 하신다. (…) 金年 땅 산 것 登記券도 가저왔다. …

◎ 3월 19일 (음 2월 11일) 목요일 晴

… 종발 5個 外上. …

◎ 3월 23일 (음 2월 15일) 월요일 晴

… 도야기 고기 代 1,200원 受.(吉雨氏 家)

◎ 3월 24일 (음 2월 16일) 화요일 晴

新浦 藥代 未支拂 650圜 支佛. 祭祀 홍정 1000圜. 英浩 양말 150원. 英浩 신발 130원. 먹

100원. 붓 100원. (…) 新浦場에를 어머니 祭祀 흥정을 하려 같다. 新浦의 약갑 미수를 650원 갑고 제사흥정 1,000餘圜어치와 붓, 먹, 英浩 신발, 양말 等 500餘圜어치를 해 같고 바로 왔다. …

◎ 3월 26일 (음 2월 18일) 목요일 晴

… 妻 場에 같다 왔다. (…) 妻는 꼬추 20斤을 가지고 場에를 같는데 斤當 230圜을 준다고 싸다고 그냥 왔다. …

◎ 3월 27일 (음 2월 19일) 금요일 晴

… 사발 한 죽 仟圜에 삼. 종발 10個 산 것도 650원 중 230원 支佛 계란 한 줄. …

◎ 3월 31일 (음 2월 23일) 화요일 晴

自裁縫 契約金 支佛 4,500원. 4萬 圜흥정.(원가) (…) 아침 늦게 일어나 이불도 채 개기 前에 밖에서 누가 찾아 알아보니 來雨氏라 해서 드러오라 했더니 드러와 裁봉 사라는 말이다. 生覺이 잇는 中 좀 싸게 해준다 해서 朝飯을 마치고 原木을 넘어 가볼까 하고 炳賢을 데리고 갈랴니 炳賢君이 裁봉을 사라는 것. 原木을 간다고 來雨氏에게 말하고 해서 신융관게도 있고 해서 原木은 炳賢君과 같이 떠났다. 自裁縫 상인을 만나 4萬圜에 달라니 안 덴다고 4萬 6仟圜을 달라더니 4萬 3仟원가지 네리여 그냥 돌따섰다. 그 사람 말에 依하면 裁縫의 칭하가 많고 裁縫 차이에 萬원 차이까지 있으니 물건이 自己 것만 못한 것이니 自己 것을 사라는 것. 이 사람 말 드르면 이 사람 올코 저 사람 말 드르면 저 사람 말 오르니 요리 잘 모르는 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여야 좋을지 炳賢을 믿고 炳賢의 물건을 사기로 결정하고 도라와 손시게 4仟 500원에 처주고[쳐서 주고] 來日 裁縫을 가저오기로 하고 잔금은 2個월 후까지 결정하고 도라와 午後에 두엄을 저냈다. (…)

◎ 4월 1일 (음 2월 24일) 수요일 晴

裁縫 代 5,000원 支佛.(合 9,500원) (…) 朝飯을 마치고 妻를 場에를 보냈다. 炳賢에게서 裁縫 산 것 돈 支佛할랴고 꼬추를 팔아 500圜을 주라 했다. 꼬추 20斤을 보냈는데 17斤에 사먹고 斤當 2百20원을 받섰다 한다. 그리하여 보태서 돈 5,000원을 炳賢 母에게 주었다함. …

◎ 4월 2일 (음 2월 25일) 목요일 晴

裁縫 같고 오다. 아버지가 소 팔았다. 食前 炳賢 家에 가서 裁縫을 같고 왔다. (…) 庶母 모두 裁縫 구경왔다. 아버지 家 소 팔았다. 꼬추를 갈고 오니 아버지와 소장사가 와서 흥정하더니 午後에 올라가니 소가 없어 알아보니 팔았다 한다.

◎ 4월 5일 (음 2월 28일) 일요일 雲晴

… 裁縫 代 白米 一叭 支佛. (…) 朝飯을 마치고 나니 炳賢이 와서 裁縫 代 가저 가는데 白米 一叭 明雨에 家에서 가저같다.

◎ 4월 6일 (음 2월 29일) 월요일 晴

… 도야지 고기 代 1,300원 受.(興植부터 5斤 4兩) …

◎ 4월 7일 (음 2월 30일) 화요일 雲

… 裁縫 代 白米 一叭 支佛. (…) 朝飯을 마치고 건너가니 炳賢이 白米 一叭 가저가는데 原木 德植을 달어주었다.(裁縫 代)

◎ 4월 11일 (음 3월 4일) 토요일 晴

肥料 代 2,000원 支佛. 炳哲 家 도야지대 1,000원 受. (…) 朝飯을 마친 나는 마을로 건너가니 肥料代 5활 지불金 때메 야단덜이다. 나도 병哲 家에서 1,000원을 받어 보태 2,000원을 支佛하였다. 야미 비료 한 갑 다 못 산 나는 당장 모자리 거름이 문제다. 나뿐만 아니라 동리사람이 거이 다 그렇다. …

◎ 4월 14일 (음 3월 7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에 가서 비료 硫安 40k자리 1포 借用해다가 모자리 밑거름으로 했다. …

◎ 4월 17일 (음 3월 10일) 금요일 雲

肥料 尿素 54斤과 中過石 半包를 타왔다.(金額 半 支佛) 石油 한 사발 타오다. 軍警援護 會費 600원 支佛.(敎雨 家에서 借用) 마이싱 千圜어치 사오고 外上 700원 남앗다. (…) 鍾소리가 들리여 나오니 肥料 가지러 가자는 것이다. 날씨 험악하고 비가 오락까락 중에 둘재祖父家 소를

끌고 新浦에 가서 病院에 가서 百日咳에 對한 藥을 문의하니 신통한 藥이 없어 마이싱(스트리트, 오래오) 등 藥을 千圜어치 중 300원 支佛하고 700圜 남기고 肥料 싫고 왔다. 집에 와 좀 있으니 訪長이 와서 석유 가져가시고 솔까지나 등그럭 있으면 치우라고 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세금 안낸다고 왔다 한다. 좀 있으니 났 모르는 사람과 方書記가 오며 雜負金을 것으려 다닌다. 그리하여 軍警援護費 600圜을 支佛했다. 敎雨家에서 借用한 것이다. 石油도 한 병 타오고 肥料도 中過石 500k짜리 半 包와 尿素 54斤을 타왔다. …

◎ 4월 20일 (음 3월 13일) 월요일 晴

종발 代 260원 支佛. …

◎ 4월 21일 (음 3월 14일) 화요일 晴

… 妻 場에 솜 틀러 같다(게란 한 줄 260원) (돈 200원) (…) 朝飯食事를 하고 明雨 家에 가서 도야지 고기 대 4斤 8兩에 825원을 받어 敎雨 家에서 借用金 600원을 갑고 집에 와 있으니 鹽田 일 가자 해서 하루를 하고 왔다. (…) 妻는 솜 뜬[튼] 타고 場에를 같다. 게란 한 줄과 돈 200원을 갖고 같다.

◎ 4월 30일 (음 3월 23일) 목요일 晴

… 둘재祖父가 속이 不便하고 消化가 잘 안 데고 한다고 나를 보고 問議하며 약이 없느냐고 해서 급한 걸로 마이싱 두 알을 드리였다.(300원)

◎ 5월 5일 (음 3월 28일) 화요일 雲

겨 1叭 柱植이 가저같다. 代金 차후. (…) 11時頃에 高棧 柱植이 겨 1叭 가저같다. 代金은 10日 안으로 준다 함.

◎ 5월 13일 (음 4월 6일) 수요일 晴

澈雨 軍人 지원 次 의문금 戶當 200원.(3600원) 富平 아저씨에게 一金 600圜 借用. 닭 앵기다.(17개) (…) 朝飯을 마치고 마을 가 澈雨 軍人을 지원해서 쉬일 간다는 말이 들리여 前次 洞里 예가 있어 靑年들에게 말하여 一金 1戶當 200圜식 德雨가 代表로 것엇다. 나는 바로 모자리 중거름을 주고 오니 澈雨가 떠나는데 아무도 몰랏다고 하며 집안 식구도 모르게 해서 돈도 못 주어 未安해서 仁休氏에게 말하니 來日 간다고 해서 그리 傳하기로 했다. 닭이 알는 소리를 해서 닭을 사다가 앵기였다. 富平 아저씨 家에서 一金 600원 借用 澈雨 의문금 200원 게란 230원 8개를 사다 앵기였다. 위상代 200원 준다고 200원 가져가 600원 차용해서 장감 사이 다 없어졌다. 벼랑간 떠나 송별회식도 못했다.

◎ 5월 14일 (음 4월 7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나니 興植氏가 와서 穀草낼 것 잇느냐고 해서(집 穀草) 百束을 주고 十餘를 더 주었다. 代金은 3,500원 중 2,500원을 주고 1,000원은 차후로 미루었다. 조곰 있다가 富平 아주머니가 와서 前日 借用한 것 쌀로 달라고 와서 700원 더 찾고 白米 一斗 냈다. …

◎ 5월 15일 (음 4월 8일) 금요일 晴雲

雜種 100원 支佛. (訪長) 柱植에게 겨 代 受 2,000원. (…) 朝飯 中 訪長 炳默이 와서 雜種金 석유 代 未納과 70원, 道 代항 農樂出戰費 30원 等 100원을 支佛했다. (…) 高棧 柱植이 5日에 겨 一叭 代 2,000원 受.

◎ 5월 16일 (음 4월 9일) 토요일 晴

自縫針 代 잔금 3,000원 支佛.(完納) (…) 前日에 논 一週하고 朝飯을 맞추고 自縫針 나문 것 3,000원 支佛했다. …

◎ 5월 21일 (음 4월 14일) 목요일 雨

白米 一斗 1270원 受. 妻 美容費 1,000원 支佛. 광목 2마 낫 등 500원. 밀짚모자 100원. (…) 妻는 場에 白米 一斗와 金 千百圓을 같고 같다. (…) 비를 맛고 妻는 午後 3時 頃에 도라왓다. 妻의 髮美容費 1,000원 주고 백미는 1,270원 받엇다. 낫 200원 광목 300원 等의 흥정을 해 같고 왓다. …

◎ 5월 22일 (음 4월 15일) 금요일 晴

流安 3叭 사 借用한 것 1叭 줌. 1叭 代 3,750원. 석회질소 팔다. 1,050.(1포) (…) 점심 頃에 肥料 車가 와서 流安 3叭 45k짜리를 위상으로 사서 한 포는 아버지 家에 借用해온 것 주고 두

가마 집에 실어와 석회 질소 一叭를 갈다. 1,050원에 주고 流安 一叭에는 3,750원에 샀다. …

◎ 5월 24일 (음 4월 17일) 일요일 晴

穀草 代 未受 千圜 受領. (…) 興植 家에서 穀草 代 未受 千원 受領햇다.

◎ 5월 28일 (음 4월 21일) 목요일 晴

… 朝飯을 급히 하고 병철의 집일을 가는데 基植이 와서 肥料 갑 달라고 하여 柱雨에게 받어야 된다고 하니 당장 달라고 야단을 하여 주우가 홍월리서 와서 가서 말해 달라 했다. …

◎ 6월 1일 (음 4월 25일) 월요일 晴

… 妻는 白米 一斗를 갈고 場에를 갈다 왔다. 白米 1두 1,300원. 대접 한 죽 800원. 自縫油 100원. 自縫針 2개 80원. 꽁지 100원. 미역 150원.

◎ 6월 4일 (음 4월 28일) 목요일 雲

… 肥料 外上으로 사서 代金을 지불치 못한 것은 柱雨가 4個원 前 도야지 고기 대 만여 원을 안주어 못 준 것인데 주우가 소기는[속이는] 고로 나로 또 속이게 된다. 남을 소기는 것을 가장 실어하는 나는 미안하기 작이 없다. 오늘 柱雨를 만낫는데 공판이 서야 한다니 어이 또 해서 비료 상인을 보내나.

◎ 6월 5일 (음 4월 29일) 금요일 雨

… 朝飯을 마치고나니 高棧 基植이 와서 肥料 代金을 달라고 하여 柱雨에게서 받아야 한다 하니 안 된다고 하여 쌀이나 가저가라 하니 現金을 달라는 것이다. 걱정이다. 돈에 이리 졸려 보지 않은 나는 어이할 수 없이 농꼴로 가서 쌀 팔 사람을 구해 보았으나 없다. …

◎ 6월 7일 (음 5월 2일) 일요일 雲

… 外上 갑 白米 3升.

◎ 6월 8일 (음 5월 3일) 월요일 雲

… 白米 3斗 3升 9百圜 受.

◎ 6월 11일 (음 5월 6일) 목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妻는 참깨 一斗를 갈고 場에를 가고 나와 (…) 妻는 참깨 일두에 2,890원을 받어왓다. 데가 빠저 덜 받은 것이라고 한다. 一斗에(3,200원)을 받어왔다. …

◎ 6월 15일 (음 5월 10일) 월요일 晴

… 高棧 基植이 肥料 代 받으러 와서 7천 600원을 주고 나머지 2천 5백원은 차후 주기로 했다.

◎ 6월 16일 (음 5월 11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炳賢 家에서 낫을 위상으로 한 가락 사고(300원) 炳均 場에 가는데 호미를 한 가락 부탁했더니(200원) 사 갈고 왔다. …

◎ 6월 22일 (음 5월 17일) 월요일 晴

… 아버지 家에서 肥料 더 가저간 것 10餘 斤 鍾植이 해서 가저왔다.

◎ 6월 26일 (음 5월 21일) 금요일 晴

… 돈이 엊이 몰리는지 肥料 代 250원을 못 내고 깔았다.

◎ 6월 30일 (음 5월 25일) 화요일 雲

… 食前에 이러나 肥料 21斤에 250원 支佛할 것을 그냥 나누어왔다. …

◎ 7월 1일 (음 5월 26일) 수요일 雨

필식이 生日이라고 오라 해서 妻와 나는 옷 한 벌과 돈 백 원을 갈고 올라 갈다왔다. (…) 柱雨가 와서 도야지 고기대를 5個月이나 지나도 안 주어 오늘 왔기에 말마디나 했더니 10餘日 더 차마[참아] 달라는 것이다. 고구마순 500餘本 파라 600원 받았다.

◎ 7월 5일 (음 5월 30일) 일요일 雲雨

… 봄에 高棧 염전에 2日 가서 일한 것 품갑 1,200원 중 1,000만 가저왔다.

◎ 7월 16일 (음 6월 11일) 목요일 雲

… 新浦 藥局에 外上 700원을 잡고 와 픈 3짐을 지고 하루 해를 보냈다.

◎ 7월 17일 (음 6월 12일) 금요일 晴

興植 家에서 600원 借用. 家屋稅 550원 支佛. (…) 面職員이 와서 家屋稅 받으러 와서 興植 家에 가서 借用해서 550원을 支佛했다. 興植 家에서 600원 借用.

◎ 7월 21일 (음 6월 16일) 화요일 晴

… 午後에 德雨에게서 일전 일해 간 중 갑 600원을 가저와 興植 家에서 借用金 600원을 갈다 주라 妻에게 주었다. …

◎ 7월 26일 (음 6월 21일) 일요일 晴

妻 場 게란 한 줄 280원 受. 신 350원. 마늘 350원.

◎ 8월 4일 (음 7월 1일) 화요일 晴

妻는 外上으로 陽산을 사서 야단을 첫으나 너무 비싸서 말마디나 했다. 2,000원.

◎ 8월 5일 (음 7월 2일) 수요일 晴

德雨氏가 참외 장사 왔다고 해서 妻를 보내여 보리쌀 3升어치를 사다 먹었다. (…) 둘재祖父家 일 해준 것을 소금으로 가저가라 해서 高棧 염전에 가 소금 一叭을 가저왔다.

◎ 8월 6일 (음 7월 3일) 목요일 晴

… 닭 1마리 賣. 妻는 親庭에 간다고 食前 일직부터 분주히 도라 다니고 나는 뒤밭 둑을 뜻덨다. 妻는 조반을 일직 먹고 떠나는데 路資가 없어 닭 한 마리(숫닭)를 주고 맛 대[댓] 사발즘[쯤] 같고 떠났다. …

◎ 8월 11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염화가리 7斤 半. 妻와 聘母는 場으로 떠났다. 妻는 게란 한 줄 같고 가서 참외 200원어치와 비는 김장약(BHC)을 사왔다. (…) 食前에 肥料 염화가리 7斤 식 나누어왔다.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 妻는 참깨 一斗와 병아리 3마리를 같고 場에를 가고 (…) 場꾼이 다 와도 妻는 안 온다. 밤이 되어도 안 온다. 아마 親庭으로 行한 모양이다. (…) 人便 말에 依하면 참깨는 내빌다시피[내버리다 싶게] 팔았다 함. 前日 場까지도 2,800원이던 거시 2,200원인데 게다가 商人의 농간으로 서산 아주머니와 우리는 모자라 1,600원을 받앗다니 1,000원은 도망 같다.

◎ 8월 22일 (음 7월 19일) 토요일 雲

場에를 간 妻는 그날 못 오고 이튼날 親庭에 가자고 왔다. 밀가루(小麥粉) 一斗 가량과 누루 한 장을 같고 왔다. (…) 龍浩 家에서 꾸어온 밀가루를 갑았다. 참깨는 같다 도독마진[도둑 맞은] 것이나 다름없이 一斗 1,600원을 받엇다 한다. 잘 되어 보냈것만 서산 아주머니 家와 우리 것을 600원이나 덜 주었다. 병아리는 1,400원을 받엇다 한다. 오양木[옥양목] 6마를 1,450원에 바꾸엇다 한다. 도배지 800원을 주고.

◎ 8월 24일 (음 7월 21일) 월요일 晴

高棧 難民 장사 와서 外상 갑 大麥 1斗 600원에 주었다.

◎ 8월 28일 (음 7월 25일) 금요일 晴

興植 家에서 大麥 一斗 借用해 같다.

◎ 9월 6일 (음 8월 4일) 일요일 雲

POMADE 350원. 분 300원. INK 필촉. 기타 400원. 妻는 場에 갈랴고 하다가 늦게서야 꼬추(마른 것) 4斤 半과 게란 줄 반 一金 五百圓 닭 1조 等을 같고 더났다. 洞里 一大가 소동이 나서 場에 몰리여 같다. 午後 늦게 도라온 妻는 꼬추 닭 等을 그냥 같고 왔다. 시세 폭락이더라고 지천으로 쏘다저[쏟아져] 나와 처치골란[처지 곤란]이더라고 그냥 같고 왔다. 게란은 420원에 할 줄. 잉크 한 병, POMADE 한 병, 필촉 2개, 분 한 각[곽], 家用品 食用品 等 1,100원어치 해왔다.

◎ 9월 9일 (음 8월 7일) 수요일 雲

妻는 美容師가 洞里에 와 髮美容을 外上으로 했다. 一金 800원.

◎ 9월 11일 (음 8월 9일) 금요일 雲

妻는 꼬추 4斤을 같고 場에 가서 1,100원을 받었다. 祭祀 흥정 等을 해왔다.

◎ 9월 16일 (음 8월 14일) 수요일 雨

炳賢君 入營 慰門金 200원 支佛.

◎ 9월 29일 (음 8월 27일) 화요일 晴

柱雨가 오기에 妻를 보내여 돈 가저 왓느냐 무르니[물으니] 또 못 가저왔다고 미루러라고 차일피일 미루기를 10餘個月 미루어왔다. 自己 집에는 돈을 흔전만전 쓰고 라디오다 또 무어라 놓으며 남의 돈 채무를 갑지 안을랴는 심사 아이에[아예] 상대 못 할 사람.

◎ 10월 11일 (음 9월 10일) 일요일 晴

妻 場 꼬추 1,000원 5斤 대추 950원 2升. 솜트는 삭 400. 신발 私·春子 750. 英浩 內衣

550. 場 흥정 600. (…) 妻는 場에 꼬추 5斤과 대추 두 대[되]를 갈고 가 꼬추 1400원 대추 950원을 받어 이불솜 틀고 신발 내 것과 春子 것 750원을 주고 사고 英浩 속내이[속내의] 550원을 주고 家用品 600원어치 흥정을 해왔다. …

◎ 10월 14일 (음 9월 13일) 수요일 晴

고약 다이신 약솜 마큐롬 等 400원어치 삼. (…) 英浩가 발꼬락을 종기가 나서 알아[앓아서] 약 400원치를 사왔다.

◎ 10월 16일 (음 9월 15일) 금요일 晴

신발 사오다. 450원.(바꾸어오다)

◎ 10월 24일 (음 9월 23일) 토요일 雲

石油配給 5升 나누어오다.(70원 現金) (…) 食前에 石油配給 한 사발 나누어 오고 …

◎ 10월 25일 (음 9월 24일) 일요일 雲

新浦에서 英浩 신발 2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

◎ 10월 28일 (음 9월 27일) 수요일 晴

妻는 發安場에 가서 대추 1斗 3升을 갈고 가 7千800원을 받어왔다. 3日前에는 더 받을 것인데 돈 천원이나 덜 받었다. 그러나 아주 비산 셈이다. 눈이 번하다.

◎ 11월 1일 (음 10월 1일) 일요일 雨

돈육 3斤 사다.(460원) (…) 둘재 할먼네 집에서 오라 해서 가보니 인절미(떡)을 해서 洞里 靑年을 대접했다. 오늘 食前에 벼 떨려고 한 것이다. 거기에서 議論이 되여 도야지 잡기로 되여 敎雨氏 家 도야지 57斤을 잡았다. …

◎ 11월 6일 (음 10월 6일) 금요일 雲

食前에 영 두 마름 엮고 柱雨 왔다고 해서 건너가 2月에 가저간 도야지 고기 代 달라고 하니 없으니 쌀돈이라도 내서 쓰라는 허울 좋은 말! 올 여름내 次日彼日 미루어 와 今日까지 미룬 것이 또 미루는 수작!

◎ 11월 9일 (음 10월 9일) 월요일 晴

돈육 代 450圜 支佛. 仁成君 400원 借用해줌. (…) 돈육 대 460원 지불하고 仁成君 400원을 借用해주었다.

◎ 11월 11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상(床食) 2,500원 담배 200원 오즘통 1,800원 삽 900원 톱 600원 못 100원 채칼+생강+재봉유 300원 計 6,400원. 朝飯 後에 東雨氏 家에서 오라해서 건너가니 東雨 妻 근친 술과 떡, 엿 等을 내서 먹고 敎雨氏 炳哲 君 等이 모처럼 場에 같섰다. 場 흥정 상 2,500원(高級) 오즘통 1,800원 삽 톱 못 1,600원 생강 채칼 재봉유 300원 담배 200원 等의 흥정을 해왔다. 6,400원 어치 흥정해서 늣게서야 집에 도라왔다.

◎ 11월 12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晴

食前에 오즘 지게 만들고 食後에 큰아번님과 炳賢 父親이 와서 송아지 메길레면 머기여 보라고 難民事業所에 나온 것인데, 두 살배기 소 같다. 一金 만2千圜 주고 송아지 새끼 두 마리 나면 주면 내 소가 되는 것이다. 소도 적근 것 분[뿐]이고 또 메길 것과 열료[연료] 문제로 그만두기로 했다.

◎ 11월 15일 (음 10월 15일) 일요일 雲

도야지 집을 짓고 있으니 작근[작은] 叔父께서 오시여 비야목 柱植의 논을 흥정하려 왔다고 건너가보라 했으나 7곱 마지기 작자가 없어 흥정 못하고 말았다. 닷 마지기는 生覺이 있으나 일곱 마지기 작자도 없고 또 다 팔아야지 떼서는 못 판다고 해서 그만 두고 와서 잘 말이나 해달라고 했다. 쌀갑씨 너무 떠러진다. 生産 가격이 안덴다. 말쌀 950원, 가마쌀 만 환.

◎ 11월 16일 (음 10월 16일) 월요일 晴

柱雨가 正月달에 가저간 도야지 고기 대 오늘 장에 준다고 해서 朝飯을 마치고 곳 장에를 갈다. 한참만에 柱雨 妻男에게 一金 九千圜을 받고 나머지 천 원은 또 받었다. 곳 도야지 전에 가보니 도야지 같은 것이 없어 그냥 도라와 眼鏡店에 와서 眼鏡을 1,300원에 사고 일직 집에 왔다.

◎ 11월 17일 (음 10월 17일) 화요일 晴

食前에 저울 얻어다가 오늘 公販에 낼 볘를 計斤하고 둘재祖父 家에서 소를 얻이다 朝飯 後에 三溪로 싯고 나갈다. 收得稅 42k인데 나중 따지

기로 하고 1叭 내가고 또 한 가마는 高棧 란식氏에게 씨나락 바꾸는 것이다. 실어다 놓고 와 點心을 하고 벼를 잘 드리지 않아 궁금하여 나가보니 한 가마 불통을 맞엇서 드리여 3等으로 해 놓았다. 금사 가시여서 一等은 좀채로 없고 이러롱 3等이다. 오늘 公販에 1叭 바께[밖에] 없다.

◎ 11월 26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妻와 함게 安仲場에를 같다. 도야지 새끼 4,200원을 주고 사고 妻는 바지저고리감 3,000원을 주고 사고 솜 350원 영호 양복 2,200원 비누 100원 색실 100원 책 600원 民事訴訟法槪論 흥정 萬五百五十圓 어치 흥정을 해왔다. 참개 2升 500원 게란 270원 等 자고.

◎ 11월 27일 (음 10월 27일) 금요일 晴

비료갑 벼 1叭 公販場에 내가다. 오늘 公販이라 食前에 벼 1叭를 드리여 다려놓고 일직 三溪로 내갈랴 하다가 16時頃에 실려보내고 檢査를 마치었다. 1等은 전혀 없고 2等이 100에 한아 될까 말까 檢査가 매우 신데 우리 벼는 벼도 좋으려니와 잘 해 같더니 2等을 마젔다. 里稅는 먼저 公販에 收得稅 70斤에서 한 叭 내갔으니 27斤을 더 내가 그것으로 除하기로 하고 오늘 비료갑 더 내간 것은 찾을 것이다.

◎ 11월 29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雲

… 食前에 訪長이 와서 石油代金 300원 내라 해서 내주었다. 下午에 배추씨 代金도 받으려 와서 150원 치루어 주었다.

◎ 12월 2일 (음 11월 3일) 수요일 雨

下午 늦게 石油 配給 2斗 가령 나누어왔다.

◎ 12월 7일 (음 11월 8일) 월요일 晴

大雪. 큰집이 판다는 3마지기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敎雨氏와 흥정 중에 있다. 그러한 말 큰집이 가서 말하기 미한해서 말 못하고 있었더니 직접 敎雨氏에게 판다고 말해서 아마 흥정하는 모양.

◎ 12월 9일 (음 11월 10일) 수요일 晴

午後에 큰어머니가 와서 받원 서 말 가웃지기를 팔게 될 것이니 날더러 사라고 와서 敎雨 아저씨와 흥정 중에 잇고 또 생각 중에 있는데 내가 엊지 대들겠으며 살 심[힘]도 없다고 했더니 저녁에 엊지 말햇는지 敎雨 아저씨가 야숙하게 나는 차저왔고 큰집이선 큰아버지와 싸움이 벌어젔다. 모두가 큰 어머니의 농간이다. 중간에 나를 말 듯게 만들어 매우 심통치 않다. 氣分도 좋치 않고 또 내가 중간에서 공작한 것으로 된 것으로 조작해서 매우 불안하다.

◎ 12월 10 · 11일 (음 11월 11 · 12일) 목 · 금요일 雲

큰집 판다는 받원 서 마지기는 敎雨氏가 사고 또 오늘 소를 팔라가 116,500원을 받었다 한다. 나도 살 심이 있었것만 일절 말 한 마디 없다가 흥정 다 해놓고 끌고 드러가 욕만 메기였다.

◎ 12월 16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冷

아버지 家 도야지를 洞里서 잡아 목정 두 근 2斤 4兩을 사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21일) 일요일 晴

禧雨氏 家에서 長利 쌀 가저간 것을 안 내놔 가서 문의 하니 또 올해도 못 받을 것 같더니 땅을 팔았다는데 또 두고 良心이나 볼 걸.

◎ 12월 21일 (음 11월 22일) 월요일 晴

再昨年에 가저간 長利 禧雨氏에게서 7斗 半을 차저왔다.

◎ 12월 28일 (음 11월 29일) 월요일 晴

上植 父가 오라 해서 건너가 보니 安場 根植 외 三寸과 母가 와서 땅 사라고 해서 반승락을 하고 왔다. 壹雨氏가 하는 4말 3데[되]지기다.

◎ 12월 29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晴

자고 일어나니 前夜에 흥정하던 根植 땅 賣買件에 對해서 顯雨氏가 와서 사라고 해서 45叭 달라는 것 마흔 가마 坪當 7件에 말했더니 건너가 보겠다고 같다. 좀 있으니 작은숙이 와서 농골 3마지기 이매한다고 잘 生覺해서 하라고 하시고 강호가 와서 또 重雨 땅 하라고 오고 야단인데 根植 땅이 生覺에 잇어서 다른 것은 물리쳣더니 朝飯 後에 現場에 같다가 바로 도라와 결과를 알아보니 日雨氏에게 흥정을 떼 줌 셈이

된 심으로 日雨氏가 40叭에 흥정을 했다.

◎ 12월 31일 (음 12월 2일) 목요일 雲

농꼴 유영감에게도 노자로(집) 곡초 代 1,000원을 借用했다. (…) 今年에 논이 너덧 마지기 느니 또 수확도 늘어 좀 안돈한 마음이 드렀다. (…) 今年 여유가 洞里에서 빠지지 않는 관계로 땅 土地 賣買가 드러와 根植의 土地 4말 서 데 지기를 사라고 하여 흥정을 떼노니 壹雨가 하던 논이라 힘도 안 될 뿐더러 겨울메기도 될까 말까 하는 힘으로 꾸어서 잡아다니였다[잡아 당겼다]. 그리 비싼 매매는 아니다. 속이 상하여 氣分이 좋치 않았다. 土地賣買 件은 여러 군데서 드러온다[들어온다]. 하나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 또 土地도 장만하고 재봉도 샀다. …

1960년

◎ 新年所感

세간 난지 三年 오날날까지 실패없는 發展을 보았다. 나의 六個年 計劃도 실패는 없을 것 같다. …

入 申壹雨 白米 拾叭 長利

入 申頭雨 白米 壹叭 長利

(入) 申大休 白米 貳叭 長利

入 李壯晩 白米 貳叭 長利 悠雨 보증

入 尹景植 白米 四叭 長利

(入) 申壯雨 白米 壹叭 半 長利

◎ 1월 4일 (음 12월 6일) 월요일 晴

根植의 땅 팔리는데 흥정 다 덴 것이 틀리니 아무것도 다 실어 長利나 놀까 하고 있으나 땅 사라는 사람이 드나든다. 저붕골 元植의 서 마지기도 사라고 왓다가 도라갈다. 興植 집에 가 지붕 해인 품싹 六百圜 받어왔다.

◎ 1월 6일 (음 12월 8일) 수요일 晴

妻는 일직 場에 가고 (…) 찹쌀 一斗에 1200환 받고 一金 2천 300환 같고 가다. 外上 代 1000환 갑고 바지저고리 代 日記册 800환 주고 양말 800환 쇠꼴 800환 주고 사왔다. 場에서 妻는 일직 도라왔다.

◎ 1월 11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雲晴

農林部에서 알선하여 주는 肥料가 1구지 硫安 10個에 다른 잡肥料가 7個 석이는데 現在 야미에 比해 아주 싼데 現金으로 先金을 支佛해야 되는데 돈 주선할 것이 걱정이다.

◎ 1월 13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晴

農業協同組合에서 斡旋하여 주는 날이 來日까지라 돈도 來日까지 納入해야 되는 고로 쌀 商人을 찾으니 배장이다[배짱이다]. 하여 三溪 가서 다른 商人을 불러왔다. 白米는 來日 내고 돈도 來日 食前에 찾기로.

◎ 1월 14일 (음 12월 16일) 목요일 晴

白米 代 1叭代 九仟七百과 1斗代 9百七十圜 환에 白米 1叭 1斗代 1,600환 받어왓다. 夕飯後에 高棧 重植이와 郡農協까지 來日 일직 가지고 왔다 같다. 洞里일대가 斡旋肥料 代 問題로 걱정들을 한다. 쌀 사는 사람덜도 돈이 없어 쌀 돈을 못 준다 야단덜이다.

◎ 1월 15일 (음 12월 17일) 금 晴

平澤郡 協同組合에 斡旋肥料代金 約 七十萬圜 같고 갈섰다. …

◎ 1월 16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組合長 家에서 나와서 정유소로 나오니 九時 半 車가 出發하여 좀금 있으니 10時 半 車가 드리왔다. 安仲場이라 그런지 만원이다. 밀고 당기여 車에 올라 잠간 사이에 安仲에 到着했다. 아직 場이 일러 사람이 별로 없어 農銀에 들리여 불 좀 쪼이고 차를 타려 갈섰다. 오늘 洞里 場꾼도 많을 뿐 아니라 妻도 場에 나온다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그냥 新浦로 와 철용에게 藥代 400환 중 200환인 外上을 갑고 서서히 걸어왔다. 妻는 찹쌀 一斗를 같고 가 1,200환을 받어 흥정을 해왔다. 국수도 한 관 샀다.

◎ 1월 20일 (음 12월 22일) 수요일 晴雲

長利 달라는 사람이 많것만 아직 결정치 못하

고 있으나 아주 답변하기 困難하다.

◎ 1월 24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晴雲

軍警 援護會費 660환, 月曆 費 100환, 적十字會費 160환 [합] 白米 1斗 支佛.

◎ 1월 25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雲雪

午前 11時 頃에 壹雨氏가 보자고 해서 보니 白米 10叭를 長利로 달라고 해서 못 한다니까 땅문서를 잽히고 가저간다고 하며 간절히 요청하여 證書 한 장을 써주고 땅문서 悅雨氏 앞땅 문서 뒤깨 밭 지럭이 서 데지기 논 등의 문서를 잡고 백미 拾叭를 長利로 주었다. 저녁에는 너도나도 달라고 야단덜이라 입장 거북하다.

◎ 1월 26일 (음 12월 28일) 화요일 晴

李長萬 悠雨 보증 長利 2叭 가저감. 前夜에 炳賢 방으로 마실 갈더니 장만군이 悠雨를 데리고 와서 白米 2叭를 달라고 하며 悠雨도 주라고 해서 잘 대답치 않고 드러갈더니 悠雨氏 눈 쓰는데 가서 엊지 햘라고 쌀을 얻어 줄랴느냐고 말하니 염려 말고 주라고 했서 차마 뗄 수 없어 그냥 오니 壯晩이 借用證을 써와서 주었다. 今年 部落 척사大會를 연다고 一金 4,000환을 받어 가지고 安仲場에 가서 農具와 남비 등을 사왔다. (…) 李壯晩 長利 貳叭. 申悠雨 保證.

◎ 1월 27일 (음 12월 29일) 수요일 晴

顚雨氏 마당에 있으니 大休氏가 白米 二叭을 달라고 顚雨氏도 壹叭 달래서 勝落을 하고 조금 있으니 悠雨가 와서 兄任이 말씀한 白米 壹叭 가질려 왔다고 하여 술 한 잔 대접하고 다라 주었다.

◎ 1월 30일 (음 1월 3일) 토요일 晴

마실 건너가서 윳을 놀고 있으니 興植氏가 찾아와 집(穀草) 팔 것 있느냐고 말해서 400束을 곳 도라와 시여주고[세어서 주고] 點心을 먹고 德雨 仁成 炳哲 等이 一行이 되여 安仲까지 같이 같다. 집은 束當 30환에 주고 九餘束 더 주었다.

◎ 2월 4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배급비료 가저오는데 나는 얼마 안 데여 명우와 푸마시 하기로 하고 보냈다. 午後에 肥料가 와서 유안 열 근 초안석회 12근을 타왔다.

◎ 2월 11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高棧서 新浦의 崔哲龍君을 만나서 藥갑 떠러진 것 200환을 주었다.

◎ 2월 16일 (음 1월 20일) 화요일 晴

興植氏 家에서 집갑(穀草) 일금 壹萬貳仟圜 受.

◎ 2월 20일 (음 1월 24일) 토요일 雲

官用 肥料 代 八百九什圜 坊長에 支佛.

◎ 2월 21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安서방과 같이 朝飯을 하고 前夜 急錢을 借用해간 것을 白米 1叭을 속히 해달라고 하고 …

◎ 2월 26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妻 場에 가다.(계란 三줄과 수수 1斗와 교통 ○○)

◎ 2월 28일 (음 2월 2일) 일요일 晴

7日前에 一金 萬仟圜 借用해준 돈은 바로 後日 준다고 꾸어가더니 오늘까지 미루어오고 또 來日 준다는데 두고 볼 일.

◎ 3월 3일 (음 2월 6일) 목요일 晴

然雨가 와서 쌀 달라 해서 一叭를 다라주고 一叭는 炳賢 家에서 돈 가저간 것을 찾아 二叭을 長利로 주었다. (…) 白米 貳叭 大休氏 長利.

◎ 3월 4일 (음 2월 7일) 금요일 晴

朝飯 食事 前에 炳均이 와서 쌀갑 떠러진 돈 달라 해서 春子에게 있는 돈 六百圜을 달래 같다 주고 五百圜 肥料 代 1,100환을 炳默에게 주었다. 農協 幹旋 肥料도 4활이나 올라 큰 걱정인데 雪上加霜으로 또 肥料 갑을 달라니 걱정之事.

◎ 3월 5일 (음 2월 8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건너가니 肥料 傳票 떼왔으니 곳덜 가질려 가자고 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소를 내가 가저간다 하니 아버지가 가신다 해서 나는 네재祖父 소를 얻어 가지고 같다. (…) 下午 늣게 肥料를 나누어왔다. 尿素 四八 斤 타오고 유안석회 4斤 타 왔다.

◎ 3월 6일 (음 2월 9일) 일요일 晴

몇日 前에 仁成君 편에 妻男이 잠간 왔다 가라는 消息을 듯고 오늘 場으로 해서 들릴려고 일직 떠날 準備를 하였다. 一金 1500환을 넣고 떠났다.(맛 4사발 程度 入) 新浦에 가서 溫胃丹이라는 藥을 사같고(500환) 安仲에 가서 사과 300환 한 가고를 사들고 妻家에를 妻男을 만나서 같이 點心 요기를 하고 같이 떠나 드러같다. 장모는 그만해 게시고 잘 몸조리만 하면 낳을 것 같다. 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드리였다고 한다. 新浦 酒代 200환 支佛... 面書記 益秀와 坊長이와 잡종금 미수 170환 支佛했다. 昨年度 잡종금 미수 無.

◎ 3월 7일 (음 2월 10일) 월요일 晴

妻家에서 朝飯 食事를 일직하고 떠나왔다. 路資는 500환을 주어서 안 바더도 권하여 아주 미安한 生覺이 禁할 수 없다.

◎ 3월 10일 (음 2월 13일) 목요일 晴

食前에 農協斡旋肥料 두 組 追加金 55,260환을 것어 高棧 組合長을 같다주고 와 (…) 肥料갑하느라고 白米 三斗 345圜 받고 내가 작근 숙모와 편지 한 장 서 주었다.

◎ 3월 11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

妻는 場에 같다왔다. 제사흥정을 해왔다.

◎ 3월 14일 (음 2월 17일) 월요일 晴

오늘 肥料 가저온다 해서 5 사람이 나같디니 웬 肥料 傳票(出庫證)도 없이 무슨 肥料를 찾아온달 말이요. 종일 령다가 그냥 도라왔다.

◎ 3월 16일 (음 2월 19일) 수요일 晴

한숨지사. 오늘 肥料 가질려 新浦에 가서 비료가저와 今般 用 硫安 18斤 前般 用 6斤 合 25斤 초安 20斤 (總 45斤) 外上,

◎ 3월 19일 (음 2월 22일) 토요일 雲

興植 兄이 와서 짐 팔 것 있느냐고 해서 200뭇을 세워주고 몇 짐 저다 주었다. 돈은 아직 안 밧었다.

◎ 3월 23일 (음 2월 26일) 수요일 雲

새벽에 일어나 농꼴을 가서 炳殷 家에서 일한(농꼴 事務所) 품갑 중 5割 해주기로 하고 일활을 支佛해주었다. …

◎ 3월 26일 (음 2월 29일) 토요일 晴雲

尹서방이 朝飯 後에 다만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와 一金 천환을 주어 받어 路資로 주었다.

◎ 3월 27일 (음 3월 1일) 일요일 晴

대위양곡도 나오고 肥料도 나왓겄만 里長이 없어 안준다고 하며 구채가 많아서 못 준다는 것. 肥料 나온 것 활당이나 하라 해서 午前 中 활당하고 午後에는 거름(인분)을 보리밭에 주었다.

◎ 3월 29일 (음 3월 3일) 화요일 雲

우리 농민은 점점 말이 아니다. 肥料는 비싸고 농산물은 떠러지고 우리의 上官 농림장관은 농산물 저락만 되면 가장 잘 하는 냥 요즈음 米價가 좀 앙등하니 무었을 하느니 어떠니 큰 걱정을 하고 있으니 七활 이상을 농민을 가진 나라에서 누구를 爲한 정책인가. 1,500환을 해도 生産價格 안 되는 것을.

◎ 4월 1일 (음 3월 6일) 금요일 晴

肥料 硫安 36斤 受. 配給 外上.

◎ 4월 4일 (음 3월 9일) 월요일 晴

協同組合 斡旋肥料가 나왔는데 原木으로 나와 原木 가서 실러왔다. 나도 일을 끝나고 原木 가서 3袋를 저왔다. 硫安만 나왔다.

◎ 4월 5일 (음 3월 10일) 화요일 晴

食前에 高棧 넘어가 協同組合 斡旋肥料 硫安 마트리를 같다가 朝飯 食事 後에 나누어 주었다. (…) 興植이 穀草 代 6,000환을 가저왔다. (…) 敎雨氏 一金 貳仟圜을 借用해 같다.

◎ 4월 8일 (음 3월 13일) 금요일 晴

食前은 논을 一週하고 高棧協同組合理事會를 하는데 오라 해서 넘어가니 작근집 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 과연 죽었다. 찹쌀 一斗 가량 먹었다 하는데 前日까지도 괜찮더니 밤에 그리 데였다 한다. 이것을 엇이 처분해야 좋을지 몰라 공논이 구구하더니 10時 頃서 작판을 하게 되였다. 李昌均이 잡았다. 나도 종일 협조를 하였다. 수의도 오고 支署에서도 왔는데 支署에서

또 먹자는 것이다. 수의는 6,000환이나 주었다. 잡아놓고도 공논이 구구하더니 동리에서 치우기로 하고 現場市勢 8,000환인데 斤當 450환에 팔기로 해서 分肉을 하는데 저녁 먹글 때에 다 나갈다. 소 市價 20萬 園자리 8萬환 건지였다. 저녁에 전부 따저주고 늣게 집에 왔다. 내가 전부 책임을 맡었는데 受金할 것이 걱정이다.

◎ 4월 11일 (음 3월 16일) 월요일 晴

一金 貳千園을 갈고 妻 安仲場 에 가 作業服 上衣를 사고 그럭저럭 반찬 等을 사갈고 왔다.

◎ 4월 12일 (음 3월 17일) 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高棧 넘어가 작근집 소고기 갑을 받으려 다니였다. 아직까지 受金이 35,940환을 걷었다.

◎ 4월 17일 (음 3월 22일) 일요일 晴

마실 가니 悠雨가 一金 五百園 借用해 달래서 借用해주고 나는 네재 祖父 家 모자리를 하려 갈다.

◎ 4월 18일 (음 3월 23일) 월요일 晴

朝飯 後에 高棧 작근집에 가 牛肉 代 受金 事項을 보고 왔다.

◎ 5월 1일 (음 4월 6일) 일요일 晴

春植이 安仲場에 물건이 있으니 찾아오라고 해서 妻가 場에 가보니 벌서 庶母가 찾어왔다나. (…) 場에 가 아래쓰봉을 1,000원짜리 한 벌을 사왔다.

◎ 5월 5일 (음 4월 10일) 목요일

皓植이 發 安場에 가는데 낙시대 한 감 사오라 했더니 사왔다. 대, 줄, 비늘, 찌 等 合 600환에 사왔다.

◎ 5월 10일 (음 4월 15일) 화요일 晴

午後 늣게 瑞山 아주머니가 와서 일前에 一金 仟園을 借用해온 것과 낙씨때 갑 370환 중 一金 700환과 게란 3줄을 주었다.(게란 한 줄 230환)

◎ 5월 16일 (음 4월 21일) 월요일 晴

妻는 들깨를 갈고 가 기름을 짜고 鷄卵을 15줄 갈고 가 줄 당 250환 3,750환을 받아 보리쌀 김성 메일랴고 두 말을(배급보리) 두 말에 1500환을 주고 팔아왔다. 큰 고생을 했다. 짐으로도 한 짐을 이고 가고 또 이고 오느라고 오즉 고생을 혔을까?

◎ 6월 11일 (음 5월 18일) 토요일 晴

妻는 게란 10줄과 닭 일조를 갈고 장에 가 누비이불 280환를 주고 사고 영호 옷 春子 적삼 等 其他 6,000여환을 흥정해왔다.

◎ 7월 6일 (음 6월 13일) 수요일 晴

食前에 논뚜랑을 거실르까 하다가 오늘 妻가 場에를 간다고 鷄卵을 끄리라 해서 계란 다섯줄을 끄리고 있다가 朝飯을 마치고 아버지 家 일을 갈다.

◎ 7월 11일 (음 6월 18일) 월요일 晴

우리 두레에서 오늘 하로를 休日로 하여 집에 있게 되여 妻를 場에 가서 小麥粉을 사오라고 보내고 英浩를 보아주다가 新浦로 받으러 나갈다가 차가 安仲으로 올라가질 않아 집에 와 點心을 하고 또 나가니 덕수의 원뚝에 와 받아 가지고 왔다. 夕飯 後에 高棧에 가서 農協에서 出資되는 生産資金 우리 조합에 나와 16萬園을 근洞에 分해 元高棧에 7萬園 大谷에 4萬園 原木에 5萬園으로 활당을 했다.

◎ 7월 12일 (음 6월 19일) 화요일 晴

食前에 重過石 25k(50k入 半包)를 타왔다. (1包를 큰집과 나누었다)

◎ 7월 13일 (음 6월 20일) 수요일 晴

食前에 둘재 祖母 家 아주머니 血管注射를 놓아주고 前夜 약속한 개가 와서 우리가 1/8을 사왔다. 6000환짜린데 매우 크다.(750환)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夕飯 후에 靑年덜이 모여 尹서방의 집 洞里基金 260환 잇는 것을 받으러 갈다가 인성이 높을 程度로 하고 왔는데 큰어머니가 대들어 우리 형제를 못 먹것다고 하며 윤서방 家 역성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큰소리를 좀 했다. 洞里一代가 적대시하고 잇는데 큰어머니라는 자가 윤서방 편의 말 하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 7월 16일 (음 6월 23일) 토요일 晴

오늘 場에를 갈까 하다가 妻만 場에 병아리 4조를 보내 돈을 해오라 했더니 신발을 2,000환치 해왔다. 병아리는 1,950환을 받엇다고 한다.

◎ 7월 17일 (음 6월 24일) 일요일 晴

食前에 농꼴 所長이 아버지가 借用해라고 해서 借用한 一金 仟圜을 받으려 와서 집에서 500환 잇는 것과 仁成 家에서 500환 借用해서 주었다. 孟植이 때매 平澤 가서 쓴 돈이다.

◎ 7월 25일 (음 윤 6월 2일) 월요일 雨

비도 오고 날도 좋치 않아 동리 청년들이 모이여 술을 먹었다. 합자해서 술과 국수 2,500환어치를 우리 집에서 해내느라고 한참 분주했다. 물은 인제 충분히 나리였다. 今年에 第一 중요한 한재는 면했다.

◎ 8월 2일 (음 윤 6월 10일) 화요일 晴

집에 와 마실을 건너가니 莊晩(柱雨 家 일꾼)이 집에 간다고 일 년 몸인데 住人과 싸우고 안 살고 간다고 하며 悠雨가 왔다 같다 하고 白米 2叭 長利 얻어준 것(悠雨 保証 우리 쌀) 해결하고 가라고 하며 옥신각신하기에 顕雨氏와 내가 올라가 잘 생각하고 잇으라고 권고하여 있기로 했다.

◎ 8월 6일 (음 윤 6월 14일) 토요일 晴

妻男이 五日만에 場으로 해서 妻와 같이 떠났다. 모처럼 와서 몸에 두두러기가 나서 고생을 하여 오늘도 가시질 않아 떠나 궁금하다. 食前에 계란 9줄에 一金 2,500환을 받아 妻가 장에 가서 밀가루 2,450환에 한 포 사왔다. 밀가루 今年에 二包袋 사먹었다.

◎ 8월 7일 (음 윤 6월 15일) 일요일 晴

午後에 도야지 장사가 와서 양조금을 3,000환치르고 斤당 160환에 흥정했다.

◎ 8월 9일 (음 윤 6월 17일) 화요일 晴

새벽부터 배가 앞으기 始作해서 늣게 누어잇으니 밖에서 찾아 나가보니 도야지 장사가 와서 前에 160환(斤當)에 흥정해서 가저가기로 하고서 155환 준다고 해서 그리하면 못 가저 가것다고 해서 약조금 3,000환 받은 것 2,000환을 도로 反換하고 1,000환은 次後 주기로 하고 보냈다.

◎ 8월 12일 (음 윤 6월 20일) 금요일 晴

도야지 사러왔다 해서 와 보니 日前에 왓던 君더리다. 팔기로 하고 斤當 160환에 달아보니 72斤 아주 덜 나갔다. 11,500환을 받고 내주었다.

◎ 8월 14일 (음 윤 6월 22일) 일요일 晴

年前에 斡旋한 肥料 還拂額 2,000환을 타 같고 왔다.

◎ 8월 16일 (음 윤 6월 24일) 화요일 晴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肥料(農協斡旋) 인硫燐安을 15斤 나누어오고 풀 한 짐을 비였다.

◎ 8월 26일 (음 7월 5일) 금요일 晴

食前에 仁成 家에 가 借用해 간 一金 三仟圜을 오늘 場 틀림없이 해준다고 천만번 해서 주엇더니 오늘 食前에도 안 가저와 찾으러 가니 아무 말 없이 태연하게 잇더라고 春子가 말하여 -T심하기 짝이 없다. 큰아번님이 와 음물[우물] 修理費에 포함한 동리잡비가 伍百圜이라고 달라 하시여 仟圜을 주니 거실늘 돈 없다고 곳 보내준다더니 그냥 場으로 行하시엿으니 이게 무슨 노릇인고. 안골 祖父도 一金 仟환을 꾸어가더니 200환을 떠러트리고 벌서 월포가 되여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모두가 믿을 사람 없다.

◎ 8월 27일 (음 7월 6일) 토요일 晴

食前에 계란 두 줄 두 개에 770환에 賣하다.

◎ 8월 29일 (음 7월 8일) 월요일 雲

朝飯 後에 동쟁이[통을 제작하는 사람]가 와 통을 테를 미고[끼우고] 자백이 테를 미고는 四百圜을 주었다.

◎ 9월 1일 (음 7월 11일) 목요일 晴

妻가 場에 갓다고 仁成 家 借用해준 一金 參仟圜을 달내니까 20日이 지난 오늘까지 못 받았다. 몇일만 借用해 달랜 것이 이 모양이다. 앉아 주고 서 받는 현실. 妻는 여러 가지 場 흥정과 양재기 한 죽을 사왔다.

◎ 9월 6일 (음 7월 16일) 화요일 雲

朝飯을 마치고 安仲場에를 갈랴고 準備 中에

仁成이 借用金 3,000환 2,300환을 가저오고 700환은 後場에 주겟다고 하여 그리하라고 하고 安仲場에 별로 일도 없는데 같다가 치솔 치약 밀집모자 等 500환어치를 사같고 왔다. 場에를 가보니 꼬추場이다. 꼬추 斤당 마른 것에 600환 물꼬추 말에 1,000환까지 하니 꼬추금도 너무 좋은 셈이다. 今年 꼬추 많이 한 집은 큰돈 해 쓰게 되였다.

◎ 9월 8일 (음 7월 18일) 목요일 晴

水村 아주머니에게 보리쌀 一斗를 900환에 買하고 悠雨가 보리쌀 1斗만 달라 해서 우숨의 말로 알고 대답을 햇더니 내가 나무 간 사이에 내가 준다 했다고 水村 아주머니가 가저같다 한다.

◎ 9월 12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夕飯을 마치고 高棧서 協同組合 理事會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넘어가 事業資金 申請을 하기로 決議되였다.

◎ 9월 13일 (음 7월 23일) 화요일 晴

食前에 머리를 깍고 大休 壯雨氏 等 印章을 가지고 朝飯을 하고 高棧으로 가 重植과 같이 安仲 農銀에 가 알아보고 事業資金을 200萬圜을 申請하였다.

◎ 9월 15일 (음 7월 25일) 목요일 晴

夕飯 食事 後에 新聞 찾으려 같다가 敎雨 아저씨 家에 들렷더니 지난 場날 借用해간 一金 萬貳仟圜을 주어 받었다. 딴 물까는 폭등하고 農産物價는 폭락이라 한다. 꼬추금도 떠리지고 斤當 700환 가던 것 650환이라니 이거 농군만 죽글 판이다. 廣木 한 동에 7,000환 가던 것 8,700환이니 큰일이 아니냐.

◎ 9월 18일 (음 7월 28일) 일요일 雨

날씨는 종일토록 궂은 날씨고 朝飯 後에 우리 집 개를 敎雨 壹雨 大休 둘재 祖父 家에서 도리기를 하는 데 먹겠다는 사람이 많아젓으나 그냥 들 하게 되였다. 6,800환이라 과히 비싼 것은 아니다.

◎ 9월 21일 (음 8월 1일) 수요일 晴

妻가 場에 일직 간다고 일직 일어나 왔다같다 해서 나도 일직 일어났다. 도배장판지 1,200환 英浩 양복 1,200환 났 300환 其他 600환 합 2,900환어치 흥정을 해같고 왔다. (…) 食前에 개갑 2,800환을 壹雨氏에게서 받었다.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인천 아주머니 家 선뢰가 出血이 심하여 위급하다고 서울이나 水原으로 간다고 야단이며 돈 때매 걱정을 하고 다니여 一金 4,600환을 借用해 드리였다.

◎ 10월 1일 (음 8월 11일) 토요일 晴

妻도 場에서 제사흥정해 같고 늣게서야 도라왔다.

◎ 10월 10일 (음 8월 20일) 월요일 晴

저녁 먹고 둘재 조부 家 소를 말하라 같다가 몇일 前에 借用해간 돈 3,000환을 받었다.

◎ 10월 26일 (음 9월 7일) 수요일 雲雨

朝飯을 일직하고 妻가 場에 닭 3조를 같고 三溪나 가슬까? (…) 저녁나절 비가 끝일 무렵 妻가 場에서 도라왔는데 닭 2,700환을 받었다 한다.

◎ 10월 29일 (음 9월 10일) 토요일 晴

孟植은 水原에 朝飯을 하고 가서 夕飯 頃에 왓는데 時計를 사왓는데 12,000円을 주었다 한다.

◎ 11월 1일 (음 9월 13일) 화요일 晴

妻는 場에 닭 두 마리를 같고 場에 가 2,100환을 받어왔다.

◎ 11월 2일 (음 9월 14일) 수요일 晴

바다에서 도라와 도야지 代金을 같다 주었다. 一金 伍仟四百圓을 주었다.

◎ 11월 4일 (음 9월 16일) 금요일 晴

下午에는 그럭저럭 하다가 도야지 잡는 말이 나와 明雨 家 도야지를 柱雨 敎雨 顯雨 等이 찌워해서 같이 하여 나도 고기 한 목을 가저왔다. 도야지가 조금 아서 한 목이 五斤 程度인데 敎雨와 나누어 760환어치 가저왔다.

◎ 11월 5일 (음 9월 17일) 토요일 晴

도야지 고기 代 支佛. 860환.

◎ 11월 7일 (음 9월 19일) 월요일 晴

白米 三叭 入 大休氏 家(貳叭 長利)

◎ 11월 8일 (음 9월 20일) 화요일 晴

長利쌀덜을 갑는데 우리 집은 아직 안 가저온다. 炳賢 家도 방아를 찌여 집으로 쌀을 가저오는데 소식이 없다. 長利 먹은 집도 갑는라고 걱정이 되것지만 長利 논 사람도 잘들 가저올 것인가 잠이 안 올 지경이다.

◎ 11월 10일 (음 9월 22일) 목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理髮을 하고 發安場에 가기로 하고서 대추를 一斗 같고 場에 갈다. 場에 가 무러보니[물어보니] 대추가 많아 그리 시세가 없어 여러 가게에 가보고 4,000환에 一斗를 팔았다. 올길에 레디오 상회에 가보니 적당한 것이 있어 흥정하고 27,000환에 사 같고 왔다. 돈이 모자라 앞들(前坪) 女人行商人에게 一金 5,000환을 借用해서 사 같고 왔다.

◎ 11월 11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둘재祖父 家에 가 자루를 얻어 가지고 와 꼬추 20斤을 上植 家 소가 場에 가는데 언저 가지고 갈다. 집에서 20斤을 가지고 갈는데 場에 가서 달아보니 斤 두 兩이 빠저 18斤 14兩에 팔아가지고 왔다. 一金 17,800환을 받어 장노자 300환 허리띠 500환에 가갈고 작근아버지가 흥정해 갈고 오는데 같이 지고 왔다.

◎ 11월 12일 (음 9월 24일) 토요일 晴

농꼴 鹽田에 가 간수 한 짐 지고 와 농꼴 조선무 한 짐 지고 왔다. 저녁나절 큰집에서 白米 二叭를 가저왔다. 2斗 半을 더 가저와야 될 것을 그만 두시라고 했다. 그것 받는 것도 안 되였다. 白米 二叭 잎 큰집.(壹八 半 長利)

◎ 11월 16일 (음 9월 28일) 수요일 晴

… 땅덜이 나는데 長利 쌀도 아직 안 드러와 氣分이 좋치 않다. 收得稅도 더 나와 아주 氣分이 덜 좋다.

◎ 11월 17일 (음 9월 29일) 목요일 晴

그릇장사가 와 동리 일대서 약 20萬圜어치를 팔고 갈다. 우리도 살랴고 하다가 시세를 이랫다 저랫다 해서 그만 두었다.

◎ 11월 27일 (음 10월 9일) 일요일 晴

세재祖父 家에 갈다가 致雨 家에 레디오 사왔다기에 가보니 25,000환 주었다는데 신품인데 소리는 우리 것이나 별 수 없다.

◎ 11월 28일 (음 10월 10일) 월요일 雲

敏子가 돈을 차용해 달래서 一金 5,000환을 借用해주었다.

◎ 11월 29일 (음 10월 11일) 화요일 晴

食前에 큰아번任이 오시여 농꼴 炳賢 家 4마지기 前에 말하던 것(坪當 5斗 5升)을 말햇는데 그것에는 안 되것으니 1叭 半만 더 쓰라고 해서 34叭半에 흥정해보겠다고 오시였다. 그래 34叭에만은 사겟다고 하는 말하였다.

◎ 12월 3일 (음 10월 15일) 토요일 晴

큰아번任이 오라 해서 갈더니 炳賢 家 농꼴 논을 아주 귀결짓자고 해서 건너가 윤서방과 같이 앉아 결정을 하고 계약을 쓰랴니 한 마지기는 빼야 된다고 하야 나는 그리 할 수 없다고 하고 집에 왔다.

◎ 12월 6일 (음 10월 18일) 화요일 晴

아버지 家 소를 사왓다 하는데 15萬7仟圜을 주엇다고 한다.

◎ 12월 7일 (음 10월 19일) 수요일 晴

윤서방이 찾아와 조금만 더 生覺하고 해보라해서 그만 두기로 햇더니 저녁에 강호가 와서 또 말을 하고 있다. 敎雨 家 저봉굴 原植 家 논을 貳拾叭 四斗에 샀다.

◎ 12월 11일 (음 10월 23일) 일요일 晴

저녁나절 高棧을 갈다가 敬浩를 만나 저붕굴 炳殷 家 七마지기를 사라고 졸림을 받았고 큰집 농꼴 논을 사라고 졸림을 받다왔다.

◎ 12월 13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雲

午鍾 頃에 悠雨가 理髮료를 받으러 와서 벼(稻) 15斤을 달아주었다.

◎ 12월 14일 (음 10월 26일) 수요일 晴

… 前日 高棧 敬浩가 안골 祖父 家에 왓다 갈다기에 웬일인가 알아보니 저붕골 윤서방 집 일곱 마지기 논을 말하려 왔다 갈다기에 高棧을 넘

어가 敬浩에게 자서히 알아보니 오성굴 논을 말하려 간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을 누가 그리하더냐고 날더러 반문. 그것은 내가 흥정중인지라 내가 45叭까지는 살 생각이다.

◎ 12월 15일 (음 10월 27일) 목요일 晴

오늘 방아찌기로 하고 소를 가질러 같더니 다섯재 祖父가 잠간 드러오라 하여 드러가니 高棧 精米所를 賣買할랴는데 잘 말해 보라는 거다. 동욕꿀 논 禧雨 家 논도 팔 것이니 날더러 어떠냐는 의향.

◎ 12월 16일 (음 10월 28일) 금요일 晴

今年 白米 總數 23叭 3斗.

◎ 12월 19일 (음 11월 2일) 월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나니 찾아나가니 高棧의 敬浩가 와 炳賢 家 농꼴 논을 다 파는데 사라고 왔다. 논이 좋와 사기로 하고 저편의 것을 高棧 작근집에게 말하러 高棧가 말하니 하기로 해서 저녁에 敬浩와 炳賢 家에 가 흥정을 하는데 90叭를 달래고 나는 85叭을 준다고 평당 6되로 가위금을 준 셈이다. 炳賢이 新浦에 가서 없으니 의논한다고 하여 집에 와 잇으니 敬浩가 와서 땅금 네려놓았다고 혼낫다고 하며 90叭에 한톨이 비싸도 안 판다고 하드라고 작근 아번님도 와 같이 하기로 의논이 一致되엿던 것이다. 高棧 같다와 肥料 나누어 나도 비료 重過石 1包 요소 1包 염안 1包를 가저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3일) 화요일 雲雪

雜負金 及 官用肥料代 9,000환으로 全部 支佛. 炳賢 논 내가 五拾 叭. (…) 집에 왔다 가니 敬浩가 와 炳賢○○ 흥정하여 高棧 작근집에 가 말하고 84叭 5斗에 契約○에 큰 아번님이 와 작근아번님을 불러내고 나를 보고 이놈 저놈 ○○ 지기가 사니 큰 아번님을 괄세하네 하고 야단이나 契約이고 ○○ 허사가 되였다. 큰 아버지 中게를 놓치 않고 他人을 놓았다는 둥 하는 둥 일대 싸움이 벌어져 작근 아버지 못 하겟다고 하여 못 하게되여 족하 땅 사는데 헤방[훼방] 놓는 것이란 듯도 보도 못한 것이○ 그래 저녁도 못 먹고 속이 상해 잇으니 敬浩가 와 또 하라고 하기로 하고 내가 단 마지기를 사기로 契約을 作成 炳殷 ○○ 契約을 作成했다. 五拾叭에 사고 五斗를 공전을 제위했다. 큰 아번님은 방해 공작을 햇으나 나는 뜻대로 되였으나 나는 나대로 되였다. 감정은 큰집 논 단 마지기를 안 산다는 것인데 사실은 비싸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어이하라는 것인가? 來日 契約金으로 白米 五叭 주기로 했다.

◎ 12월 21일 (음 11월 4일) 수요일 晴

조반을 마치고 契約金을 支佛할랴고 햇으나 炳賢 父가 없어 못하고 마랐다. (…) 面雜債金 及 官用肥料費 全部 支佛.(9,000환) 농꼴 炳賢 家 단 마지기 논 五拾叭에 사기로 契約 作成.

◎ 12월 22일 (음 11월 5일) 목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나니 炳賢 父가 와서 돈으로 1叭 갑을 달라고 炳賢이 왔는데 노자를 주자면 쌀 돈을 낼 바에야 돈으로 달라고 해서 柱雨에게 가서 1叭갑을 주고 13,500환 柱雨 안에서 같다 주었다. 저녁나절은 高棧 같다가 里長 更申에 숟좌석이 잇어 같이 있다오니 壯晩이 長利 쌀 가저간 것을 가저와 炳賢이 집에 같다주고 顯雨氏家에서 1叭 半에 1叭만도 炳賢이 집에 같다주고 나머지 계약금 五叭 중 한 가마니는 우리 집에서 가저가 계약금 5叭을 다 같다 주었다.

◎ 12월 23일 (음 11월 6일) 금요일 晴

저녁나절 金永熏이 炳賢 家에 가서 쌀 달래서 전표를 떼 같고 와 白米 三叭代를 柱雨에게 발더 주었다. 땅갑으로 8叭 炳賢 家에 주고 柱雨氏에게 四叭 갑을 받았다.

◎ 12월 28일 (음 11월 11일) 수요일 晴

食前에 柱雨에게 가서 長利 가저간 것을 속히 달래고 …

◎ 12월 29일 (음 11월 12일) 목요일 晴

저녁나절 柱雨가 와 長利 쌀 다는데 보라 해서 가 보고 炳賢 家로 運반했다. 白米 15叭 중 다 같고 오고 1叭 남았는데 來日 같다준다고 한다.

四叭는 前에 받고 오늘 拾叭를 같다 尹서방 집에 땅갑 치루었다.

◎ 12월 31일 (음 11월 14일) 토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윤서방 家에 가서 땅갑을 치를랴는데 오늘 가저오랴 하니 집에다가 15叭는 두라해서 그냥 두기로 하고 나머지는 來日 치루기로 했다.

1. 1. 15叭는 집에 두기로 하고 10叭만 더 가저가며는 4叭 長利 가저간 것이 6叭 되여 그것을 제하고 되는데 貳叭를 뉘우기로 하고 孟植과 然雨를 얻어 八叭를 같다 주었다. 計斤은 윤서방이 했다.

◎ 送年後感

또 내가 炳賢 농꼴 논 단 마지기를 五拾叭에 (白米) 사게 되었다. (…) 昨年 農事진 것을 白米 20叭을 長利 놓아 전부 잘 받아드리였다. (…) 허나 논을 사고 또 논도 좋은 것을 사서 흐뭇한 것이다.

1961년

◎ 1월 1일 (음 11월 15일) 일요일

나에게는 작년에 논 長利 쌀도 잘 드러오고 또 炳賢 家 닷 마지기를 샷다는 것이 큰일이요 잘 되였다.

◎ 1월 2일 (음 11월 16일) 월요일

윤서방 집의 땅을 사고는 땅갑 해 줄 生覺을 심히 해서인지 밥맛을 일어 朝飯食事는 약 먹듯 한다. 三日前에 잔금을 치루고 四叭 가량 모자라는데 이것도 꼬리를 마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15叭는 집에 두엇다가 달래는 날 달라 해서 집에 쌓아 두었다. 五拾叭란 나로서는 심[힘]에 찬 數字이다.

◎ 1월 3일 (음 11월 17일) 화요일

둘재祖家 큰 當叔母 別世. 急히 命植이나 작근아저씨를 알려야 하고 상포 흥정도 해야 될 것인지라 安仲의 命植에게 보내고 내가 水原으로 기별하고 상포도 해올 次 水原으로 一金 萬八仟圜을 같고 楊甘으로 가니 車가 없어 德雨는 상귀[삼괴] 기별치 가는데 같이 發安으로 걸어 發安가서 車를 타고 水原에 二時 三十分 頃에 到着하여 緊雨 아저씨 집을 찾아 알리고 곳 市場으로 가서 상포 흥정을 같이 하고 나니 차가 더날랴 해서 곳 車를 타고 저녁 五時 頃 해서 도라왔다.

◎ 1월 6일 (음 11월 20일) 금요일

場에 가기로 하고 일직 일어나 理髮을 갈랴고 옷을 입고 잇으니 (…) 理발을 같다 와 늣게 창깨 一斗를 같고 場에를 떠났다. 창깨 一斗에 2,850환을 받어 라디오 약 600환 本册 850환 미역 500환 석약 비누 실 초 등 400환 點心 100환 합 2,450환을 쓰고 왔다.

◎ 1월 7일 (음 11월 21일) 토요일

孟植이 와 잇는데 高棧 敬浩가 와 땅이나 집을 사라고 햇으나 아무 심이 없을 뿐더러 敬浩가 온 동기는 흥정부친 것을 받으려 온 것이다. 와서는 윤병은을 매우 칭찬을 말하고 두둔하여 말을 하여 좋지 않은 말을 했다.

◎ 1월 8일 (음 11월 22일) 일요일

敬浩 당 흥정부친 것 一金 伍仟圜 줌. (…)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高棧 작근아번님이 농꼴 炳殷 家의 땅 서 마지기를 사겠다고 하여 아버지家에 올라가니 契約을 作成하는데 와보아 달라고 해서 가기 실은 炳殷 家 안방에 가서 契約을 쓰고 왔다. 아버지에게 一金 伍仟圜을 借用하여 敬浩를 주었다. (…) 작근집은 白米 28叭 五斗에 농꼴 서 마지기에 契約을 作成했다.

◎ 1월 9일 (음 11월 23일) 월요일

저녁나절 興植에게 一金 伍仟圜을 借用했다.

◎ 1월 10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前日 興植에게 借用한 一金 伍仟圜을 아버지家에 같다 주었다.

◎ 1월 17일 (음 12월 1일) 화요일

朝飯 後에 興植이 와서 집(穀草)을 팔라해서 옆 집가리를 헐게 되었다. 신집으로 집도 장하려니와 뭇(束)도 굴어 안 할랴 햇다가 마지못해 헐

어 200束을 세여 주고 몇 짐 저다 주었다. 몇칠 전에 一金 伍仟圜 借用해온 것으로 집갑을 찻고 나머지 仟圜을 더 받었다.

◎ 1월 18일 (음 12월 2일) 수요일

朝飯을 마치고 마실 건너가니 아버지 家의 땅갑 치루느라고 쌀을 저내리여 나도 같이 가 저내리였다. 큰집 농꼴 닷 마지기를 孟植의 앞으로 산 것이다. 앞 남정배미와 바꾸고 19叭을 더 주는 것이다. 9叭를 저네려왔다.

◎ 1월 19일 (음 12월 3일) 목요일

요즈음 大話제는 쌀금이 폭등한 대이다. 쌀금이 벼란간 앙등하여 政府가 흔들 그릴 지경이다. 白米 1斗에 10餘日間에 7,000환이 올랐으니 전예 없는 일이다. 서울서는 백미 1叭에 萬八仟伍百圓이라고 한다. 國會에서도 政府米放出하자고 하고 政府에서도 特別方針을 세우고 잇으나 별 신통한 일 없이 쌀금만 나날이 오르고 있다.

◎ 1월 21일 (음 12월 5일) 토요일

곳 밖에 가 除雪을 하고 朝飯을 일직 먹고 安仲場에를 가 春子와 같이 떠났다. 옥길 次前으로는 우리가 第一 먼저 같다. 눈의 발작이 없다. 닭 4마리에 3,800환을 받어 기름 자는데 150환 갈키 250환 구림 250환 석냑 기타 200환의 흥정을 하고 點心은 妻男이 사주어 먹었다. 집에 와 석반을 하고나 개가 짓는 소리가 이상하여 나가보니 무엇을 먹엇는지 눈을 이상스리 뜨고 마루 밑으로 드러가더니 나와선 뛰는데 다리를 제대로 못 뛰고 소리질러 붓잡아 비누물을 메기여 돌랏는데 몹씨 시늠하는 꼴이 살 것 같지 않아 농꼴 사람이 사겟다고 하여 2,000환에 위상으로 주었다. 쥐약 먹은 모양이다.

◎ 1월 26일 (음 12월 10일) 목요일

朝飯食事 後에 安仲場에를 가다가 然雨가 쌀을 지고 場에 가기에 우리가 買하였다. 一金 參仟圜을 주고 場금 하자고 하였다. 白米 一斗에 仟六百환을 하였다. 場에 가서 국수 한 관 330환 레디오 약 500환 레디오선 주리 200환 풍무 파랑 150환 후추 50환 其他 50환 합 1,280환을 쓰고 왓다.

◎ 1월 29일 (음 12월 13일) 일요일

敎雨 아저씨 家 마당에서 큰아번님에게 비료代 떠러진 것 200円을 드리였다. 일전에 가저온 비료 運임이 280환이라는데 그것만 안 내고 昨年度 잡종금이나 其他 아무것도 없다.

◎ 1월 31일 (음 12월 15일) 화요일

담보미 1叭 1,700환 찾았다. (…) 아버지가 담보한 벼 1叭 갑 1,700환을 차저다[찾아다] 주었다.

◎ 2월 1일 (음 12월 16일) 수요일

창깨 二斗를 같고 春子를 安仲場에 보냈다. 창깨 二斗에 一金 六仟百圓을 받어 제사흥정 천환어치를 해같고 왔다.

◎ 2월 3일 (음 12월 18일) 금요일

집에 오니 炳賢 母와 高棧 장사(영백씨 婦人)이 와 白米 五叭를 高棧 장사를 주라 해서 15叭 줄 것에 5叭를 내주기로 하고 點心을 먹고 孟植 計斤을 하고 잇으니 原木 사는 韓基 우가 와서 악아 炳賢 母가 말한 쌀 고잔 장사가 날더러 같다 달래서 왔다고 해서 소로 시러같다. 그 집에서(炳賢) 一叭를 더 얻으면 9叭만 더 가면 된다.

◎ 2월 5일 (음 12월 20일) 일요일

모든 物價는 올라고 生活苦에 억매인 우리 農民은 今年 年事를 걱정한다. (…) 下午에 高棧 넘어가서 外上 갑(국수 1관) 갑 600환을 갑고 …

◎ 2월 6일 (음 12월 21일) 월요일

白米 3斗 買. 1,650환.(一斗 當) (…) 食前에 둘재 祖父께서 오시여 쌀 팔 돈 잇느냐 해서 잇다고 하니 두 말 갑만 달라 해서 드리고 前日 敏子가 돈 借用해 간 것도 쌀로 준다고 해서 그리하고 둘재 祖父 家에선 쌀도 같고 왔다.

◎ 2월 11일 (음 12월 26일) 토요일

朝飯床을 받을 무렵 敏子가 쌀갑을 내라왔다고 하여 一金 1,500환을 주었다. 朝飯 後에 春子를 場에 보냈다. 닭 1에 900환 받고 보리쌀 3斤 360환 계란 7個 260환에 賣하고 고기 豚 1斤 400환 어린 것 사쓰 下 300환 其他 50환에 買하여 가지고 왔다.

◎ 2월 22일 (음 1월 8일) 수요일

下午에는 平澤의 澤休가 肥를 한 차 가저와 동리가 다 샀다. 우리도 찹쌀 1叭 멥쌀 1斗를 주고 肥料 5包를 땄다. 高棧 작근 아번님이 肥料 사는데 白米 1叭 차용해 달라 해서 借用해드리였다.

◎ 2월 25일 (음 1월 11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敎雨氏 家 마당까에서 敏子에게 쌀갑 떠러지 돈 200환을 주었다.

◎ 2월 26일 (음 1월 12일) 일요일

穀草 300餘束 賣 7500환 受. 朝飯食事 後에 興植氏가 와 穀草를 낼 것이 잇느냐고 해서 穀草 325束을 賣하였다. 보통 30환을 받는데 좀 적근 편인지라 25환 때 7,500환을 받었다. (…) 저녁을 먹고 나니 敏子가 와 돈을 借用해 달라 해서 一金 4,000환을 借用해 주었다.

◎ 3월 3일 (음 1월 17일) 금요일

뼈쓰 용금 六割 五부 引上.

◎ 3월 7일 (음 1월 21일) 화요일

朝飯 後에 둘재祖父가 白米 1叭만 일시 借用해 달라 해서 高棧 작근叔父 家에 잇서 借用해 간 1叭를 돌려드리였다. 高棧 지식을 주는 쌀인지라 高棧 知植과 같이 가서 돌려주고 連植君과 夫浩君이 入隊하는데 전송을 하고 오니 둘재祖父께서 쌀 1叭 借用한 것 윤서방과 따질테니 그리 알라해서 尹서방에 가 알아보니 그리 하라 해서 1叭 제하고 가저 가면 된다. 9叭 갈 것에서 8叭 가면 된다.

◎ 3월 11일 (음 1월 25일) 토요일

完雨 아저씨 場에 가기에 長靴를 사다 달라 부탁했다. 一金 1,300환을 주었다. 春子를 孟植이 데리고 場에 같다. 나중에 알아보니 솟을 사라 같다고 한다.

◎ 3월 12일 (음 1월 26일) 일요일

땅갑 白米 六叭 支佛. 軍警會費 七百圓 肥料 280환. 運임 赤十字會費 130환 매리크롬 代 80환 等 1090환 支佛. (…) 나무를 갈랴고 지게를 지고 나서니 작근 尹書房이 와서 쌀 달라 해서 孟植과 計金해서 들에 내다놓고 나는 나무를 갈다. 인제 땅갑 貳叭만 가면 된다. 그러면 長利 三叭을 윤서방에게 얻은 셈이다.

◎ 3월 24일 (음 2월 8일) 금요일

저녁나절에 삼장사가 와 白米 貳斗를 샀다. 감마니를 다 치고 좀 일러 도야지 오양을 치고 잇으니 炳均이 와 쌀을 가질러 왓다고 하여 절울 가저오라 했더니 炳哲이 가저온다 해서 좀 기다리니 炳哲과 炳默이 와서 計斤을 하여 炳默君이 壹叭는 저가고 壹叭는 炳均이 미고서 가저가 伍十叭 中 貳叭로 다 치루었다. 땅갑을 다 치루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니는 하나 參叭 來年에로 뉘운 것이 걱정이 되고 豊年이나 들엇으면 바랄 뿐.

◎ 3월 28일 (음 2월 12일) 화요일

三溪 新作路 出役. (…) 出役나같다 올 때 國土建設事業의 人負 代의 보리쌀을 3叭 1斗 半을 같고 왔다. 어린 것이 푸른 똥을 누어 奇應丸을 한 봉 사왔다. 一金 百圓.

◎ 3월 29일 (음 2월 13일) 수요일

新浦에 가는 겸 제사흥정도 해왔다. 흥정 仟餘圓어치를 해왔다.

◎ 4월 20일 (음 3월 6일) 목요일

꼿노리 느트리. (…) 논에서 도라오니 노리를 가자고 하기에 곳 옷을 가라입고 會費 五百四을 같고 쪼차가니 洞里 靑年들이 전부 같다. 노리 가기로 몇일 前부터 벼르다가 오늘 떠나기로 되여 느트리로 같섰다. 나는 느트리도 처음 가보았다. 숭어 두 관 1,800환에 사고 술을 받어 놀다가 왔다. 저녁 9時頃에 도라왔다.

◎ 4월 26일 (음 3월 12일) 수요일

키, 화로 一金 2000환에 사다 孟植 주었다. (…) 妻는 어린 것을 두고 場에 같섰다. 孟植이 세간 난 곳에 키와 火盧를 사다 주었다. 어린 것의 세타 等等 一金 4,000여원어치 흥정을 해왔다.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朝飯을 마치고 난 나는 오늘 安仲場에 官用 肥料 갑을 건는다 해서 白米 1斗를 1,800환에 내여 작만해 놓고 柱雨氏 家 새올리는데 같섯다.

◎ 5월 6일 (음 3월 22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一金 五百圓을 아버지가 場에 가시기에 借用해달라 해서 官用 肥料代 貳仟圓을 里長에게 支佛하였다.

◎ 5월 9일 (음 3월 25일) 화요일

대위약곡인 벼가 나왔는데 끼리끼리 나누어 먹어 不만이 있다. 나도 먹었으면 햇으나 활당이 안 데였다. 달라고 햇으나 허사이였다. 7叭 나온 것에 먹지 안을 사람도 끼여 먹었다. 妻는 白米 1斗를 갈고 新浦 場에 가서 一金 1,900환에 사 갈고 겨란 2줄에 600환을 받어왔다.

◎ 5월 10일 (음 3월 26일) 수요일

柱雨가 一金 貳百圓 借用해 갈다.

◎ 5월 14일 (음 3월 30일) 일요일

肥料 가질라 가는데 갈다. 肥料 활당을 아라보니 큰 아번님이 1包는 돈 낸 것이고 나머지는 外上인데 安雨 家와 반 包씩 나누어라 해서 安雨 소에게 짓고 아버지 家 3包 중 孟植과 나누어 두리 2包씩 나누어지고 오는데 아주 혼낫다.

◎ 5월 15일 (음 4월 1일) 월요일

敎雨 아저씨 家 소 사왓는데 12만 5천환 주엇다 하는데 白米 時勢로 6叭 半 程度다. 소는 일 가르킬 소다.

◎ 6월 7일 (음 4월 24일) 수요일

洞里 肥料가 나와 新浦로 가서 비료를 가저왔다. 洞里 전체 비료는 요소가 5包 유기질 14 重 過石 9 인안 2 等이 나와 소를 갈고 갈다. 下午에 왔다 갈다 논 肥料는 곳 나누엇는데 유기질 1包와 요소 1包를 가저왔다. 前般 肥料 요소는 半包를 안골 祖父 家에서 나누어 가저 온 것인데 안 가저오고 이번에 반포와 前번 안골 祖父가의 안 차저온 半包를 합해 1包를 가저왔다. 外上으로는 요소 1包 유기질 1包뿐.

◎ 6월 9일 (음 4월 26일) 금요일

저녁에는 會가 잇엇는데 會는 農어村의 高利채 정리의 會인데 現物 또는 現金도 해당이다. 政府로 報告하면 政府로 年 부로 갑는데 二割만 갑고 채權者는 政府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이 동리는 報告한 사람이 없다.

◎ 6월 16일 (음 5월 4일) 금요일

어린 것은 더 심한 것 같아 新浦 病院에 妻가 업고 갈다가 왔다. 注射 맛고 가루약을 사왔다. 500圓.

◎ 6월 21일 (음 5월 9일) 수요일

妻는 어린 것이 성치 않은 고로 약도 지을 겸 場에 갈다. 콩 1斗를 갈고 가 1,500환을 받고 신발을 사오고 어린 것의 약도 사왔다. 레디오 약도 500환에 사왓다.

◎ 6월 24일 (음 5월 12일) 토요일

저녁나절은 풀을 비고 夕飯食事를 일직 하고 자리에 누어잇으니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나 나가보니 일꾼이 肥料 1包를 갈고 왔다. 왜 밤에 가저왓느냐 하니 아버지가 갈고 가라는 것이라 한다. 일전에 차용해 간 것이다. 웬일로 밤에 가저갓을까 하고 누어 잇으니 庶母의 큰소리가 나 妻보고 나가 보라고 하니 한참만에 와 하는 말이 庶母와 孟植이 싸왓다 한다. …

◎ 7월 1일 (음 5월 19일) 토요일

妻는 場에 갈다. 今年에는 웬일인지 돈이 밀리고 있다. 위상갑을 대강 알아보니 5천환 정도니 돈 나올 것은 없는 대 어이 할 것인가?

◎ 7월 5일 (음 5월 23일) 수요일

來日 場에 肥料 사기로 하고 孟植에게 一金 2,000환을 借用해왔다.(半包 代)

◎ 7월 6일 (음 5월 24일) 목요일

소곰(鹽) 1叭 代 2000환에 買. (…) 前夜에 孟植 家에서 借用해온 一金 2,000환을 몇일 前에 敎雨에게 買온 鹽 1叭代 2,000환을 食前에 찾으려 와 주었다. 肥料는 白米 1斗와 모자라는 돈은 계란으로 사기로 하고 白米 1斗를 둘재 祖父에게 갈다 드리였다. 1包를 둘재 祖父와 나눌랴는 고로이다.

◎ 7월 19일 (음 6월 7일) 수요일

白米 1斗 賣 1800환. 家屋稅 550환 支佛. 大麥 政府 買上에 半叭. (…) 家屋稅할랴고 政府 買上에 大麥 半叭를 公販에 냇다. 壹雨氏 소편

에 壹雨氏와 1叭를 만드러 公販에 냇다. 매상한 金은 現場에서 지불한다 함. 家屋稅 나문 돈은 아직 찾지 않앗다. 里長 보관.

◎ 7월 27일 (음 6월 15일) 목요일

배추씨 外上 200환어치 買. 行商人 물것약 뿌리는 사람에게 一金 三百圓에 안房에 물것약을 끼언젓다.(行商人)

◎ 8월 1일 (음 6월 29일) 화요일

妻는 大麥精을 賣해갈고 1斗當 900환에 二斗를 賣갈고 場에 갈다왔다. 어린것의 옷 800환. 레디오 약 5,500환. 기타 700환의 흥정을 해왔다.

◎ 8월 3일 (음 6월 22일) 목요일

春子 婚需

솜 4등치 10,000환. 광목 1疋 10,000환. 소창 1疋 4,000환. 인조 5마 800마. 망사적삼 1 1,300환. 나이롱적삼 1 1,000환. 치마 赤色 1 白色 3,000환. 조고리 4 3,200환. 뽀부링 2 2,000환. 관사 1 1,300환. 內衣 上下 2,000환. 융바지 1 800환. 치마 2 2,600환. 이불 28,000환. 놋그릇 수저 2 5,600환. 상자 반지그릇 가새 자 실패 장갑 等 3,000환. 新婚服 2,500환. 소창 9마 1,200환. 인조 8마 1,300환. 보선 5 1,200환. 수건 5,600환. 보개모소리 테침 1,400환. 보 大 23,500환. 보 小 2마 260환. 신발 450환. 비누 갑 치솔 약 其他 2,400환. 국수 2,000환. 석면 其他 食用 1,000환.

◎ 8월 4일 (음 6월 23일) 금요일

저녁洞會. 農漁村 高利債 整理 관한 건. 農漁村 高利債 定理 엄중 지시 上部.

◎ 8월 9일 (음 6월 28일) 수요일

大麥 2斗 賣 1,850환. (…) 來日 妻 親家에 간다고 大麥 精 二斗를 950환(1斗當)에 賣하였다.

◎ 8월 11일 (음 7월 1일) 금요일 暴雨

안중장에 오늘 처음 난 꼬추금은 아주 下落하여 1斗 當 200환부터 400환까지라니 어이 없다. 昨年엔 900환부터 1,200환까지에 비해 말도 아니다. 꼬추 창깨 시세 아주 없다.

◎ 8월 18일 (음 7월 8일) 금요일

몇일 前에 먹은 술갑 330환을 悠雨에게 支佛했다. 무와 호배추 等 함께 부쳤다.

◎ 8월 23일 (음 7월 13일) 수요일

食前에 도장을 갈고 오라 해서 갈고 里長집에 가니 高利債에 對한 政府施策에 協助하며 여하한 벌도 받는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첬다. 약간의 채무자들도 債權者가 아무 말 없고 또 서약하니 차마 債務者도 어이할 수 없이 서약했으나 밭기 심들고 어려운 자리는 債權者가 申告를 한다. 그리하여 이 동리에서도 壹雨氏와 吉雨氏는 아마 申告한 모양이다. 壹雨氏는 아주 음침한 사람인지라 누구나 끄린다. (…) 말에 의하면 인제 長利도 年 五割은 없어질 것 같고 이번에 申告 않고 준다 해도 五割은 안 될 것이라는 말이 공통.

◎ 8월 24일 (음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이 農漁村 高利債 整理 申告 마감날이다. 洞里에서 壹雨와 吉雨가 申告로 끝났다.

◎ 8월 25일 (음 7월 15일) 금요일

高利債 整理는 연기했다. 9月 24日까지. 이것은 農民들이 인식 不足인 점에서 申告를 안는데 잇는 것이라 한다.

◎ 8월 26일 (음 7월 16일) 토요일

妻는 늣게서야 場에 갈다가 늣게 도라온 妻는 몸이 不便한 모양이다. 몸이 성치 안은지 3日째이다. 場에 간 妻는 춘자의 망사 저고리 1,300환 문풍지 250환 其他 500환 計 2,050환의 흥정을 해왔다.

◎ 9월 6일 (음 7월 27일) 수요일

몇 장을(安仲場)으로 깨이더니 맑근 날씨로 安仲場을 마지했다. (…) 安仲場엔 창깨와 꼬추장이라 한다. 安仲場 時勢는 꼬추 斤當 上品 350환 창깨 斗當 上品 2,300환 新米 1,700환 꼬추는 昨年에 아주 下落이다. 昨年에 上品 斤當 900환에서 仟환까지이라 한다.

◎ 9월 9일 (음 7월 30일) 토요일

石油 갑(配給)하라 妻는 창깨 1斗를 갈고 新浦

場에가 一金 2,200환 받어 石油갑 470환 支佛하고 와 午後에는 꼬추를 땄다. 나도 같이 했다. 配給 石油 2斤 가량 가저왔다.

◎ 9월 17일 (음 8월 8일) 일요일

도야지 팔기로 계약금 2만환 받었다.

◎ 9월 18일 (음 8월 9일) 월요일

도야지 賣 29000환 受. 食前에 도야지 장사와 파랏다. 130斤 29,000환.

◎ 9월 20일 (음 8월 11일) 수요일

朝飯을 일직 먹고 妻와 場에 같다. 도야지 賣돈 29000환을 場에 가 다 둘러쓰고 왔다. 솜 2,000환짜리 4동치 8,000환 광목 1필 10,000환 作業服 上下 2,800환 英浩 옷 1,700환 안신발 2케레 800환 소창 1疋 3,300환 흥정 600환 레디오약 800환 기타 700환 계 28,700환.

◎ 10월 1일 (음 8월 22일) 일요일

妻는 꼬추 8斤을 같고 場에 같다. 3,100환 받어 광주리 500 쟁반 600 其他 등으로다.

◎ 10월 6일 (음 8월 27일) 금요일

아버지 家의 裁縫針을 사온 것을 보니 아주 조와 보이고 一金 六萬圜을 주엇다고 한다.

◎ 10월 10일 (음 9월 1일) 화요일

妻는 식전에 새우젓 받으라 같섰다. 반독에 벼 17근 반에 샀다.

◎ 10월 11일 (음 9월 2일) 수요일

妻는 꼬추 6斤을 같고 場에 가 一金 2400환을 받어 당꼬바지 1100환 농구화 550환 기타 900환어치 흥정을 했다.

◎ 10월 21일 (음 9월 12일) 토요일

妻는 꼬추 17斤을 같고 場에 가 꼬추 갑이 폭낙이라고 7斤만 사먹고 場에 마끼고 도라왔다. 春子 옷감 한 벌 사같고 왔다. 대충 春子한테 갈 것을 計算해보니 10만환도 보잘 것 없을 것 같다. 아주 불성 모양인데도이다. 妻를 場에 보내는 것도 한 푼이라도 절략하는 妻인지라 妻를 보내는 것이다. 하기야 흥청그리면 우리 신접살림이 아주 말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最下의 生活로 겨우 밥 먹게 된 우리 살림을 生覺해 볼 째 지나온 것이 아주 험악했다. 父母의 德을 못 바든 우리는 결심도 대단햇던 것이다.

◎ 11월 1일 (음 9월 23일) 수요일

妻는 꼬추를 같고 場에 같다가 갑이 많이 떠러젓다고 妻男 서울 가는데 마끼고 3,000환을 借用해서 속치마감과 저고리감을 바꾸어왔다. 돈 드러 갈 자리는 많으나 돈 날 곳은 없다. 春子 혼사 문제로 걱정이 많다.

◎ 11월 3일 (음 9월 25일) 금요일

春子 앞으로 갈 것을 대충 게산해보니 約 133,000 가량이다. 이것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아주 불성 모양인 것인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 穀草 15束을 賣햇다. 4,500환.

◎ 11월 5일 (음 9월 27일) 일요일

穀草 300束 賣. (…) 잔치는 新婚으로 하자고 하잔다고. 新婚으로 하면 경비가 아주 많이 들뿐더러 우리 형편으론 舊婚을 해야겟는데 新婚으로 하잔다니 큰 걱정之事. (…) 穀草 3,000束을 賣했다. 9,000환 중 2,000환을 못 받었다.

◎ 11월 6일 (음 9월 28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같다 기름 짜 같고 一金 2,000환을 쓰고 왔다. 妻男에게 借用해쓰고 꼬추 마낀 것 파라 쓰라 했다고 한다.

◎ 11월 10일 (음 10월 3일) 금요일

食前 첫차로 水原 갈랴고 하다가 비가 오락까락해서 午車로 떠났다. 妙順 아주머니와 함께 같다. 꼬추 24斤을 같고 가서 8,500환을 받었다.

◎ 11월 11일 (음 10월 4일) 토요일

작근叔 家에서 朝飯을 하고 妙順 아주머니와 市場에 나와 이불 요 감을 박꾸고 英浩 옷 雄浩 속내의의 흥정을 했다. 이불요 5,000환 어린것들 옷 300환 8,000환의 흥정을 해 같고 밤 늣게 집에 歸嫁했다.

◎ 11월 12일 (음 10월 5일) 일요일

政府 買上 稻 五叭를 낼랴고 오늘 드리여 담아놓고 午後 늣게 二叭를 三溪로 내같다.

◎ 11월 13일 (음 10월 6일) 월요일

朝飯을 마치고 곳 三溪 公販場으로 한 바리를 실고 가 밤에 집에 왔다. 五叭 中 二等이 二叭 三等이 三叭를 했다. 不통이 아주 많았다. 우리도 不通이 二叭이나 억지로 三等 通過시켰다. 아번님 가는 19叭 중 12叭가 不通이다. 아버지家는 三溪 精米所로 실리였다.

◎ 11월 14일 (음 10월 7일) 화요일

食前에 里長 家인 큰아번님 家에 가 計算해서 一金 15,100환을 갈고 왔다. 1叭를 肥料代로 支佛하고 收得稅 104,010환을 支佛하고 나머지 15,100를 찾아왓다.

◎ 11월 21일 (음 10월 14일) 화요일

前日 夜부터 繼續한 비는 오늘도 종일 오락까락 한다. 場에 가야할 것인데 午前에 망서리다가 雨中에 點心을 먹고 妻와 安仲場에 떠낫다. 場에 三時 頃에 도착하지 場꾼은 한 사람도 없고 아주 쓸쓸하다. 곳 가 우리는 場흥정을 했다.

놋그릇 4800환 수저 800환 상자 반지그릇 1,000환 內衣 上 800환 장갑 500환 인두 가새자 실패 600환 네롱(衣類) 2,500환 보 2개(大) 3,400환 소창 9마 1,200환 인조 6마 1,300환 보선 5개 1,200환 수건 소창 소재 560환 보꺼모조리 테침 1,400환 妻의 나드리벌 7,500환 等의 흥정을 해 같고 집에 오니 밤 7時가 된다. 아주 기진하다. 計 22,100환.

◎ 11월 23일 (음 10월 16일) 목요일

春子 婚姻에 사용할 車를 아라보라 高棧을 朝飯을 마치고 곳 가 智植을 만나 알아보니 1만 5천환이라야 된다고 해서 뻐쓰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안 마치고 왔다.

◎ 11월 26일 (음 10월 19일) 일요일

저녁 나절은 高棧 가서 쌀돈을 낼라고 갈다가 못 내고 그냥 넘어왔다. 쌀금이 형편없이 떠러졌다. 叭當 萬伍仟圜 가던 것이 叭當 萬四仟圜이라고 한다.

◎ 11월 27일 (음 10월 20일) 월요일

食前에 高棧 가서 쌀돈을 오늘 場금 치자고 하고 萬伍仟圜을 내갈고 와 場에 妻와 함께 갈다. 場에 가 국수 5관에 2,000환 석면 대추 오징어等 1,100환 비누 실 비누갑 치솔 等의 其他 1,500환 신발 英浩 신발 1,000환 기타 1,000환의 흥정을 해 갈고 왔다.

◎ 12월 1일 (음 10월 25일) 금요일

새벽밥을 해 먹고 春子를 데리고 짐을 소에 싯고 아버지 둘재祖母 億植 큰어머니 惠植 等과 함께 첫차로 發해 水原에 9時 頃에 도착. 妙順아주머니 家에 짐을 마끼고 市長에 가 농을 42,000환에 사고 아버지가 경대 오강 마후라(春子用) 等 여러 가지 흥정을 내가 갈다주고 新郎을 만나 式場을 알아 갈고 우리가 부담할 돈을 支佛하고 작근집에로 갈다.

◎ 12월 5일 (음 10월 28일) 화요일

食前부터 누루미 부치고 온갓 잔치 준비에 분주하다. 오늘이 新郎이 再向온다는 날이다. (…) 午後 二時 車에 오나 햇더니 안 와 못 오는 줄 알앗더니 夕飯을 마치고 나니 왔다. 나는 午前에 高棧 가서 煙草를 五百圓어치와 메리치 等 仟圜어치를 사왔다. 妹弟가 와 집안이 더 모엿었다.

◎ 12월 9일 (음 9월 2일) 토요일

里稅 15斤(稻) 支佛. (…) 朝飯 後에 里稅를 支佛하고 高棧 가서 개 賣한 것 갑을 받으라 갈으나 반만 받고 그냥 왓다.

◎ 12월 11일 (음 11월 4일) 월요일

英浩는 어느 정도 생기를 얻은 듯하다. (…) 安仲場에 가서 약을 사왓으면 좋으련만 妻 혼자만 두고 갈 수 없어 仁川 아주머니에게 附託을 햇더니 데디마이싱 1,500환짜리를 사왓는데 차도가 잇으면 또 한 병 사다노라고 하더라고 갑은 如何間 하로 速히 안글길[긁지 않기를] 바랄 뿐.

◎ 12월 12일 (음 11월 5일) 화요일

午後에는 英浩가 點心도 안 먹고 해서 外上 藥갑 600圜을 지불하고 사과 200환어치를 사다 메겼다. …

◎ 12월 16일 (음 11월 9일) 토요일

仁川 아주머니에 藥 附託 해 外上 仟圜을 주고 사고 百圜어치를 附託했다.

◎ 12월 18일 (음 11월 11일) 월요일
午後에는 高棧으로 藥을 사라갈으나 藥이 없어 그냥 왔다. 개갑도 次後로 미루어 못 받었다.
◎ 12월 19일 (음 11월 12일) 화요일
午後에 高棧 가니 개갑 떠러진 것을 받으려 갈다가 一金 150원을 남기고 다 밧어왔다.
◎ 12월 21일 (음 11월 14일) 목요일
安仲場 行. 흥정 수판 550환 日記册 800환 방寒화 1100환 약 600환 융 800환 기타 500환 計 4,350환.
◎ 12월 24일 (음 11월 17일) 일요일
朝飯을 마치고 나니 敎雨가 와서 前日도 와서 받원 3마지기를 하라고 햇으나 힘이 모자란다니까 그럼 여유를 長利로 달라해서 확답을 말 안 햇더니 오늘도 와서 형편이 그리 되었으니 도와주는 심 치고 돌려달라고 졸라대며 마지못해 승낙했다. 딱 잘라 못핸다 할 수 없어 결정은 햇으나 승락 못 한니만 못하다. 내 自由대로 해도 그것 즉 長利는 드러소도록 할 수 잇는데 남의 손에 넌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줄 알지만 졸리는 데는 뗄 수 없는 人정에서이다. 쌀가마니 여유 잇는 줄 아니 땅 사라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 12월 27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理監事 五名이 精米所 買入 事項의 것이다. 資金도 확실시 되어 잇지 않는데다 農協에서 融資받어 할 것이라며 남의 精米所를 금을 본다는 것은 덜된 일인데 120만환에 금액을 본 것은 벌서 高棧 原木 理事 間에 벌서 合議 본 것이다. …
◎ 12월 28일 (음 11월 21일) 목요일
妻는 新浦에 가서 미역 550환찌 한 개와 솜을 트러왔다.
◎ 12월 31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내가 마터 같고 잇던 春子도 누구의 協助없이 出家를 보냈다. 春子 보내는 데도 拾餘萬圜 以上 드렀다. 英浩 火傷으로 많은 고생 나로선 아주 좋은 해도 못된다.

1962년

◎ 新年所感
보잘 것 없는 生活속에 누구의 協助없이 누이 春子를 出家시키고 굼주리고 못쓴 대가로 白米 15叭를 모았다.
◎ 1월 7일 (음 12월 2일) 일요일 晴
參壹叭 半를 같고 가 白米 貳拾貳叭 八斗를 精米해서 高棧 작근집에 쌀돈 낸 貳叭를 드리고 敎雨氏 家에 拾伍叭를 長利를 주어 炳殷 家 땅 갑으로 炳殷 家에 마차고 吉雨氏와 基植氏가 같다 노와 내가 와 計斤을 해주었다. 그리고 昨年에 炳賢 家에서 白米 參叭 長利 같고 온 쌀 四叭 半을 갑았다. 그리하여 白米 壹叭 마트리를 집에 같고 왔다. (…) 敎雨氏에게 白米 15叭 長利.(四되 長利) 炳賢 家에 長利 四叭 半 支佛.
◎ 1월 9일 (음 12월 4일) 화요일 晴
오늘 朴書房이 長利에 대한 말을 하는데 왜 四되 長利를 놓앗느냐고 敎雨 말에 의하면 權植이 뿐 아니라 얼마든지 얻을 수 잇으며 잘 하면 三되에도 얻을 수 잇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自己가 長利를 얻으니 선전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前日날 보구도 우수리 五叭를 내가 五되에 하자 햇더니 모두 四되에 놓을 뿐 三되 長利도 잇으니 四되에 하자고 하기에 대답을 안 햇다. 洞里에 長利쌀 놓는 사람 잇는데 날더러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몇 가마나 쌀이 잇게 쌀을 까느냐고. 나는 敎雨가 딱한 말을 하기에 동정한 것이…
◎ 1월 16일 (음 12월 11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를 일직한 妻는 場에 일직 出發했다. 鷄 一羽를 같고 가 仟百圓 받어 소고기와 도야지고기 1斤식 사오고 聘母任의 還甲이 도라오는 正月인지라 春秋服으로 一金 萬圜어치를 해같고 왔다.
◎ 1월 22일 (음 12월 17일) 월요일
理髮費 穀草 40束 支佛.
◎ 1월 26일 (음 12월 21일) 금요일 晴

朝飯 後에 安仲場에 같섯다. 敦一의 自轉車를 같다 줄 겸 場에 같더니 自轉車를 가질라 내가 떠난 後에 왓다가 떠낫다고 한다. 場 흥정 속치마감 1,400, 레디오약 900, 속 내의 1,500, 웅호 옷 교환 500, 약갑 600, 新浦 外上 약갑 1,000, 其他 400, 計 6,300환어치와 妻男의 英浩 藥 1,300환어치와 點心을 대접받었다.

◎ 1월 28일 (음 12월 23일) 일요일 晴

肥料 4包. (…) 點心 頃에 平澤의 澤休가 肥料를 같고 와 100叭 같고 왓는데 洞里서 다 처분했다. 우리도 4包를 白米 1叭 2斗를 주고 샀다.

◎ 2월 1일 (음 12월 27일) 목요일 晴

오늘 靑年 몇이 安仲場으로 農樂 북과 장꼬 채편을 해라 같다. 午後 늦게 7,000환에 사같고 왔다.

◎ 2월 25일 (음 1월 21일) 일요일 晴

오늘 安仲場에 같다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家축의 값이 폭등이라고. 소도 보통 大牛가 45만환 앙등하고 도야지도 보통 2,3천환 앙등 小牛는 23만환 내지 28만환. 도야지는 7천환에서 12,000환까지라고 하니 도야지 1마리 당 白米 7斗는 주어야 산다니 도야지 살랴고 하다가[하는데] 걱정이다.

◎ 2월 26일 (음 1월 22일) 월요일 晴

官用 肥料 配給. 重過石 1袋 요소 1袋. 朝飯 後에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한다. 肥料配給의 차이가 아주 많다. 그리하여 큰 아번님과 아번님과 큰 소리를 한다. 우리 아번님과 내가 아주 적다. 큰 아번님이 우리 두 집을 아주 못마땅이 한다. 나는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가서 肥料 4袋를 같고 왔다. 그리하여 里長 집에 두고 重過石 1袋와 요소 1袋를 같고 왔다.

◎ 2월 27일 (음 1월 23일) 화요일 晴

石油 配給 2斗 4斤 8百80환.

◎ 2월 28일 (음 1월 24일) 수요일 晴

炳賢 家 논 전부 9마지기 高棧 貞雨가 샀다.

◎ 3월 2일 (음 1월 26일) 금요일 晴

朝飯 後에 지게다리 구해 논 것이 잇어 지게를 걸랴 했으나 잘 안 된 것 같아 木手 顚雨氏에게 같다 걸어달라하고 手工費로 穀草 10束을 드리고 같이 협조해 걸었다.

◎ 3월 4일 (음 1월 28일) 일요일 晴

마실 건너가 잇으니 興植氏가 穀草를 賣하라 해서 310束을 주고 300束 갑만 달라 햇다. 1束當 30환에 外上으로 주엇다. 午後에 仁成君이 와 등겨를 1叭 賣하라 해서 1叭當 3,000환에 賣했다.

◎ 3월 10일 (음 2월 5일) 토요일 晴

興植家에서 穀草 代 一金 五千환 受.

◎ 3월 11일 (음 2월 6일) 일요일 晴

일직부터 서둘러 妻의 場에 갈 準備를 햇다. 朝飯 後에 妻는 場으로 나는 어린 것을 업고 마실로 건너가 午鍾 頃에야 도라왔다. 場에 가 外上갑 五仟圜을 支佛하고 제사 흥정을 하고 기타 잡費로 仟餘 환을 쓰고 왔다. (…) 아버지 家에서 借用해온 肥料 2斤을 같다 드리였다.

◎ 3월 12일 (음 2월 7일) 월요일 晴

上植에게 元氣素 1병을 1,400환에 사다가 어린 것을 메긴기 始作했다.

◎ 3월 14일 (음 2월 9일) 수요일 晴風

營農資金 高棧二里에 80萬圜 나온 중 14만환 大谷으로 환당이 되였다.

◎ 3월 15일 (음 2월 10일) 목요일

동욕굴 炳賢 家 밭 約 7, 80坪 될까 말까 하는 밭을 날 보고 사라 해서 반승락을 했다. (…) 敦雨 家 고구마 溫床하는데 上植에게 藥갑 1,550환 중 1,100환을 支佛하고 450환이 나맜다.

◎ 3월 16일 (음 2월 11일) 금요일 風

前夜에 레이오가 고장이 나서 妻를 場에 보냈다. 꼬추 몇 400환 賣 게란 2줄 340환 受하고 레디오는 修理도 못해 같고 왔다. …

◎ 3월 18일 (음 2월 13일) 일요일 晴

午後에 가마니를 꼬매고 잇으니 炳賢 父親이 와서 동욕꿀 밭을 사라해서 살랴고 하고 坪數를 보니 나는 7,80坪 程度는 될까 하고 지적도를 보니 53坪이다. 白米 1叭를 달래서 보리 갈은

밭도 그 금이면 사는데 밭도 좋치 못할 분 그만 둘다고 했다. 좀 덜 해면 살랴한다.

◎ 3월 23일 (음 2월 18일) 금요일 晴

白米 2斗 賣 3,100환.

◎ 4월 11일 (음 3월 7일) 수요일 晴

雄浩가 기침한지 오래되여 藥을 사다 메기였다. 一金 參百圓. 잡비료랴고 잘들 안 가저가는 염화가리 2袋가 잇어 큰 아번님에게 말하니 가지가라 해서 염화가리 1袋를 가저왔다.

◎ 4월 18일 (음 3월 14일) 수요일 晴

종일 그럭저럭하고 午後에 柱雨에게 사다리 할 나무가 잇다 해서 우리 나무와 交환을 했다. 交환한 나무가 마음에 들진 아느나[않으나] 그냥 交환했다. 그리고 비니루가 나멌다고 해서 9마를 가지왔다. 9마에 450환이다.

◎ 4월 24일 (음 3월 14일) 화요일 雲 細雨

朝飯을 마치고 마실을 건너가니 오늘 官用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해서 新浦로 肥料를 차질라 갈다. 이번 가저온 肥料가 硫安 11袋 요소 14袋 中過石 7袋 염화가리 6袋인데 硫安을 里長인 큰아번님이 6袋나 더 처놓고 안 준 사람이 많을 분, 1袋이상 준 사람이 없다고 말이 많다.

◎ 5월 5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를 일직 하고 水原 애 떠난다고 한다. 혼자 보내기 뭐해 妻를 같이 가 發安場을 보고 오라 했다. 路資로 一金 五百圓을 주고 妻는 내가 서울까지 같다온 先物이 없어 섭섭해서 스이스갑사 적삼(春秋用)을 사 이부라고 2,000환을 주었다. 오늘 發安場에 가서 쓰고온 金額은 3,500환 가량 된다.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집에서 朝飯을 하고 잇으니 官用肥料가 나왓는데 가질라 오라해서 곳 소를 끌고 洞里 사람이 다 動員되여 나가니 肥料 모두 11袋 나왔는 것을 戶當 1包 半식이라고 해서 나가니 이 모양이라 里長의 꼴이 무엇이 될까마는 태얀자약하다. …

◎ 5월 11일 (음 4월 8일) 금요일 晴

食前에 들에 나갈랴고 마당에 나가니 농꼴 崔書房이 와서 일로 해줄태니 白米 1斗만 달라고 해서 일 3만 해주기로 하고 백미 1斗를 주었다.

◎ 5월 19일 (음 4월 16일) 토요일 晴

오늘 안방을 바르랴고 도배지를 사라 新浦場에 妻가 白米 1斗를 갈고 가 1,750환을 받어 도배반 자 지 850환어치를 사 갈고 午鍾 頃 도라왔다.

◎ 5월 21일 (음 4월 18일) 월요일 晴

安仲場에 갈랴고 쌀을 賣할랴 햇으나 買갈 사람이 없어 場에 못 같다. 官에서 農機具가 나왓는데 괭이를 한 개 外上으로 가저왔다.

◎ 5월 23일 (음 4월 20일) 수요일 晴

일을 같다오니 妻가 白米 五斗를 賣했다. 도야지 새끼를 살랴고 한 것인데 場에 갈 수 없 어쁜 아니라 날이 너무 가무는데 쌀을 낸다니. (…) 白米 5斗 8,500환.

◎ 5월 26일 (음 4월 23일) 토요일 晴

도야지 새기 買. 壹萬仟圜. 白米 6斗 萬五百圓. 白米 6斗를 내고 一金 五百圓을 보테 같고 도야지 새끼를 사왔다. (…) 場꾼도 적다. 도야지새끼를 사 같고오니 도야지는 왜 사오느냐고 한다.

◎ 6월 10일 (음 5월 9일) 일요일 晴

화폐 改革. 10對 1로. 前夜 10時에 公포한 화폐를 오늘 中으로 改革을 한다. 벌써 解放 後 3번재 화폐 개역[개혁]을 본다. 저녁에 鍾을 처 가보니 돈을 모고 來日 安仲 農銀으로 바꾸라 가는데 이 洞里에도 約 30萬환 가량 된다. 그저 잔돈 푼 모은 것이 5萬 여원이고 人休氏 家에서 轍雨에게 온 돈 20만환과 興植 家에도 10여만환이 넘는 모양이다. 우리는 비상금 2,300환을 주었다. (…) 會에 같다가 洞里로 모줄이 나왔기에 7치 반짜리 모줄을 한아 가저왔다. 金額은 아직 모른다고 한다.

◎ 6월 16일 (음 5월 15일) 토요일 晴

큰아번님이 오라해서 건너가니 農協用 有上 肥料代 3叭 갑 壹仟百六拾을 같다. (…) 일을 같다오니 妻가 三溪 精米所에 가서 보리를 찌여 왔다. 170斤을 같고 가 삭뜨고 精麥 6斗 3升이라고 한

다. 일을 같다오니 또한 白米도 1斗를 賣했다. 190원을 받었다. 그리하여 230환 交換해 잦을 돈을 합해 390원을 官用 肥料代로 같다드리였다.

◎ 6월 17일 (음 5월 16일) 일요일 晴

일찍 집에 오다가 아버지 家에서 肥料 硫安 1包 借用해왔다. 來日 일 하는데 모자랄 것 같다서다.

◎ 6월 25일 (음 5월 24일) 월요일 雲

官用肥料(硫安 1包 現金) 鹽安 1包 重過石 1包 外上. (…) 오늘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해서 일직 소를 같고 新浦에 가서 잇다가 肥料를 싣고 오니 午後가 되였다.

◎ 7월 2일 (음 6월 1일) 월요일 晴

가뭄은 如前히 繼續. 田畓은 몽조리 타들고 이러한 가뭄은 老人들도 못 보앗다고들 한다. 물 모금이나 잇던 농꼴 논도 말라부텄다. 凶年도 凶年이려니와 나는 白米 15叭 長利 논 것도 고얀한 짓을 했다. 그대로 나두엇으면 얼마나 좋왓을까?

◎ 7월 4일 (음 6월 3일) 수요일 晴雲

安仲서 온 犬 商人에게 犬을 賣 600환.

◎ 7월 6일 (음 6월 5일) 금요일 晴

그래도 혹씨나 비를 기다리고 安仲場으로 農藥(근잠) EBN을 두 병 사왔다. 240환을 주엇다고 함. 안 끼언질랴고 햇는데 근잠이 심하여 사왓는데 늣젔다. 레디오藥도 80환에 사왔다.

◎ 7월 7일 (음 6월 6일) 토요일 晴

농꼴 鹽部長 婦人이 와서 나무와 소곰과 交煥하자고 해서 나무 3동을 주었다.

◎ 7월 8일 (음 6월 7일) 일요일 雲

食前에 농꼴 鹽田에 가서 소곰을 3叭 가저왔다. 나무 석 동 가저가고 공가마 가저와 3叭 가저가라 해서 소금을 가질라가니 3叭는 못 주겟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따지기로 하고 3叭를 가저왔다.

◎ 7월 26일 (음 6월 25일) 목요일 晴

大麥 精 2斗 賣 270환. 妻 安仲 場 行. (…) 場 흥정. 마라리야 注 1갑, 消化不良 注 1갑, 百日咳 注 3병, 알콜 大 1병, 其他 170원. 作業服 下 130원. 其他 50원. 옷감 210원 外上. 計 560원.

◎ 8월 10일 (음 7월 11일) 금요일 晴

朝飯 後에 아번님 家에 가 官用 肥料 硫安 20斤을 가질라 가니 里長인 큰아번님 보고 다시 알라보라 해서 큰 아번님 보고 말씀드리니 里事務所에 잇는 尿素 1包를 가저가라고 해서 尿素 1包를 가저왔다.

◎ 8월 16일 (음 7월 17일) 목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里事務所에 가서 삼테 만들던 것을 만들고 잇으니 悠雨와 德雨가 場에를 가자고 해서 돈을 德雨에게 200환을 借用해서 場에를 같다. 날은 비가 오락까락 해서 길 것기엔 더운 것보다 낳은 셈이다. 場에 가 藥房에 가서 진통제 1갑에 80환 핀셋트 10환 관장기 40환 판창코 5원 마기롬 50환 화장가제 10원 其他 20환의 흥정을 해같고 왔다.

◎ 8월 19일 (음 7월 20일) 일요일 雲

닭이 안는 소리를 하는데 닭알이 잇어야 앵길 것이라 德雨에게서 借用핸 一金 200환도 주어야 하고 해서 新浦場에 妻를 보낼랴 하니 妻가 한참 잇더니 大麥精 2斗를 賣하여 一金 290환에 200圓을 德雨 같다주고 35圓에 게란 사서 앵기였다.

◎ 8월 21일 (음 7월 22일) 화요일 晴

悠雨 生日. 白米 1斗 賣 180원.

◎ 8월 22일 (음 7월 23일) 수요일 晴

羅巡警 水原 가는데 레디오 약을 附託햇더니 사같고 왔다. 80원.

◎ 9월 8일 (음 8월 10일) 토요일 晴

雄浩가 요즈음 起縮이 심하여 오늘 급히 妻가 雄浩를 데리고 安仲을 같다왔다. 病院에서 氣管支가 나뿌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리하여 藥을 百圓어치나 사오고 치료비를 합해 百五拾圓이라고 한다. 아주 간 김에 제사 흥정도 해왔다. 2百60원 藥 買. 大麥精 1斗 130 賣.

◎ 9월 21일 (음 8월 23일) 금요일

妻가 場에 간 고로 종일 雄浩 보아 주었다. 場 흥정 200환어치 낫을 사왔다.

◎ 9월 26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아번님 生辰日이 모래인데 해마다 닭을 잡아 진지를 해드리였는데 닭이 없고 보니 고기라도 한 칼 살랴고 햇으나 돈이 없어 보리쌀을 1斗 냈다. 그리하여 場人便에 보냈더니 사갈고 왔다.

◎ 10월 11일 (음 9월 13일) 목요일 雲

妻는 오늘 꼬추 3斤과 콩 1斗을 갈고 場에 가서 藥을 해왔다. 쌍화탕 10병. 경丸 5. 간기산 5. 마이싱 10個. 아스피링 350個. 스타뿡 5 等 230환어치 흥정. 고추 210원 콩 130원.

◎ 10월 14일 (음 9월 16일) 일요일 晴

아논 말 가웃지기 225束, 아논 일곱지기 145束, 서 말 가웃지기 667束, 농꼴 5마지기 784속, 앞 1.5되지기 下 155束, 앞 1.5되지기 上 165束, 앞 1마지기 113束, 앞 5되지기 53束,其他 달뱅이 10束, 昨年 2242束, 총 2317束이다. 白豆 1叭. 黑豆 9斗 . 小豆 5升.

◎ 10월 26일 (음 9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잠도 잘 잤다. 朝飯食事를 일직 해먹고 自轉車를 얻어다가 일직 新浦 病院에 갈다. 마침 醫師가 잇어 곳 治療를 받었다. 상처를 4바눌 꼬매였다. 그만 하기가 다행이다. 곳 집에 왔다. 治療費는 120원을 주었다. 종일 별로 아푸지는 않았다. 흉터는 안 질 수 없지만 하로 속히 完治가 되여야겠는데. 던나지 않으면 될 상십다. 한참 바쁜 時期에 일을 못 하니 조바심이 생기여 못 배기겠다.

◎ 10월 28일 (음 10월 1일) 일요일 晴

官用肥料代 이달 말일 안으로는 現金으로 받고 來月부터는 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吉雨 아저씨에게 食前에 白米 貳叭 갑을 3,800환을 내서 朝飯을 마치고 里長인 큰 아번님에게 가서 肥料갑을 計算하니 3,337원이라고 해서 利子는 아직 計算 못해 元金 肥料 3,330원을 支佛해서 今年 肥料갑을 끝었다. 큰아번님 家에 肥料갑을 支佛하라가니 朝飯床을 받은 큰어먼님이 앞 큰집 밭을 사라고 한다. 청용뿌리 것과 같이 큰어먼님은 6叭만 달라고 했는데 큰번님은 일곱 데지기 논머리 것만 산다고 하니 5叭을 내라고 해서 대답치 않고 그냥 왔다. 저 아래 짓과 함께 6叭 주고 다사지 5叭에 한 때기만은 가당찮은 金額이다.

◎ 11월 5일 (음 10월 9일) 월요일 雲晴

妻는 오늘 發安場에 대추 2斗와 꼬추 5斤을 갈고 갈다. 대추 2斗 仟円을 받고 꼬추 400원을 받어 雄浩 포대 600원 약 230원 솜 200원 其他 300원어치 흥정을 해갈고 왔다.

◎ 11월 10일 (음 10월 14일) 토요일 晴

今년 總 收확이 叭數로 48叭 마트리 斤數 平均 140斤 入.

◎ 11월 14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아버지 家에서 등겨 77斤을 借用해왔다.

◎ 11월 18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來日 公販場에 나갈 벼를 드리여 담았다. 종일 말리고 우리 벼중에서 第一 좋은 벼로 담았는데 二等은 마저야겠는데 금사가 어이 될 것인지? (…) 저녁 먹을 경에 孟植이 왔다. 孟植의 논을 팔랴고 하는데 날더러 맡으라고 하고 그러치 않으면 서울의 집을 보아놓은 것을 170만환짜린데 사라고 한다. 孟植의 말도 믿을 수 없다. 精神이 아직 믿을 수 없는 精神이다.

◎ 11월 19일 (음 10월 23일) 월요일 雨

公販에 二叭 一等 叭當 643円. (…) 일기가 좋이 않아 公販이 안슬 줄 알앗더니 公販이 슨다고 해서 아번님 家 한 바리를 내가고 우리는 午後에 가저가는데 雨中에 내갈다. 벼는 몇 가마 안 났다. 檢査가 昨年보다는 물른 셈이다. 우리 것 昨年 같으면 二等짜리고 三溪 公販場에 總 6叭 뿐 一等이 없엇다는데 今年엔 一等이 제법 많아 우리 것도 一等을 마젓다. 다른 一等짜리보다도 우리 벼가 좋은 편이다.

◎ 11월 22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저녁상을 받으니 敎雨氏 家에서 長利쌀을 갈고와 같이 저 날랐다. 21叭 中 11叭 오늘 가저왔다.

◎ 11월 25일 (음 10월 29일) 일요일 晴

各種 藥 買. (…) 鍾植의 自轉車를 얻어 갈고 꼬추 대바래기를 갈고 發安場에 갈다. 지난 장에

꼬추금이 좋아 가저갈더니 아주 말이 안니여 고추 10餘斤에 350원을 받었다. 그리고 雄浩 藥 원기소를 사왔다. 그 外에 各種 400餘円어치 藥을 사왔다.

◎ 11월 26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雲

長利 8叭. (…) 午後에 敎雨 家에서 長利 가저간 것 21叭 중 다 가저 온 셈이다. 집에 가저 온 것이 먼점번에 11叭 오늘 8叭 가저오고 2叭는 내가 吉雨氏 줄 쌀을 敎雨氏가 가저올 쌀로 제했다.

◎ 11월 29일 (음 11월 3일) 목요일 晴

三溪 公販場에 正籾 2叭를 아번님에게 드리였다. 모두 1等을 마젔다고 한다.

◎ 11월 30일 (음 11월 4일) 금요일 晴

저녁을 마치고 아번님이 보자고 해서 올라가니 興植 家 논을 사도록 햇는데 한 가지 걱정은 興植 家 논은 등기가 안 나 잇어 不動産 취득權에 잇어 장차 어이 될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여 논은 마음에 들었으나 등기 문제로 주저하는 것이였다. 더 좀 두고 보자고 했다. 前日 내간 벼 1叭는 1等을 마젔다고 하신다. 羅巡警에게 附託한 藥을 가저왔다. 一金 70원어치였다.

◎ 12월 1일 (음 11월 5일) 토요일 雲

오늘은 지붕기스락을 짜르고 영을 몇 마름 엮었다. 못 1斤 20買.

◎ 12월 2일 (음 11월 6일) 일요일 晴雲

前日 못 1斤 산 것이 모자랐다. 午後에 事業所의 全氏가 와 농꼴 논 정짐물 事業所 土地를 사라고 해서 흥정을 해서 거이 合議를 보고 갈다. 650坪 치고 26叭(白米)에 했으나 來日 기별해 주겠다고 했다.

◎ 12월 3일 (음 11월 7일) 월요일 晴

敎雨氏가 와 쌀을 안 쓰면 달라고 해서 아직 물르겟다고 돌려보내 前日 말하던 농꼴 논을 前日대로 되엿으니 契約을 作成 次 넘어가자고 하기에 아번님에게도 아직 못 알린 참인지라 아번님에게 말씀 드리고 저녁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그리 하자고 하고 넘어갈다. (…) 作業事項은 앞 새울라리 하고 里稅 15斤 納入. 里事務所 買入 費 昨年에 걷은 저축미 20斤과 今年에 4斤을 모아 支佛했다.

◎ 12월 4일 (음 11월 8일) 화요일 雲

午後 늦게 정짐물 全氏가 왔다. 아직 확실한 결과를 못 보았으니 참아 달라는 것이다.

◎ 12월 6일 (음 11월 10일) 목요일 晴

방아를 언제나 찌을까 알랴 갈다오니 농꼴 全氏가 왔다. 事業에서 거이 合意가 되여 나에게 資하기로 結晶이 되였는데 柱雨가 3斗를 더 하겠으니 달라고 하니 어이 하면 좋으냐는 것이다. 그러하니 5斗만 더해서 契約을 하라 가자는 것이다. 나는 더 밭을랴는 짓으로 알고 點心을 먹고 정짐물 柱雨에게 가 보앗더니 과여 그 말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이 동리선 남의 흥정 속에 들어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없는데 아주 좋이 안은 행동이다. 柱雨와 契約을 作成하는지 웅기중기 모여 들엇다. 氣分이 좋이 않아 高棧 가서 담배 9갑 파랑새 봉조 1봉을 사다 할아번님 드리고 파랑새만 갈고 왔다.

◎ 12월 7일 (음 11월 11일) 금요일 晴

종일토록 氣分이 좋이 않은 것은 柱雨의 行爲로이다. 남의 흥정 속에 들어 새치기 한다는 것은 洞里에서 없든 일이다. 음침하고 나쁜 놈이다. 26叭 본데 3斗 더 죽고 한다는 것은 없던 일이다.

◎ 12월 10일 (음 11월 14일) 월요일

朝飯을 일직 먹고 發安場에 갈다. 敎雨氏와 一行이 되였다. 藥을 310円어치나 해왔다. (…) 도야지를 갈고 가는데 같이 협조했다. 돈이 모자리 一金 200円을 敎雨 아저씨에게 借用해서 섰다.

◎ 12월 11일 (음 11월 15일) 화요일

食前에 里長인 큰아번님이 오시여 肥料代를 내야 安仲 場에 간다고 하시여 朝飯食事를 하고 流安 1袋 尿素 1袋 갑 800원을 支佛하고 더 必要하면 돈을 내라고 하시긴 하나 돈을 借用할 수 없어 그만 두었다.

◎ 12월 12일 (음 11월 16일) 수요일 晴

저녁을 먹고 나니 孟植이 왔다. 땅을 팔아달라는 것이다.

◎ 12월 18일 (음 11월 22일) 화요일 晴

午後에 高棧 大浩 家 도야지 잡아 우리도 돈육 1斤 14兩을 사다 먹었다. 정육 40원에 팔았다.

◎ 12월 19일 (음 11월 23일) 수요일 雨雲

正籾 1叭 賣 1等. (…) 公販場이 三溪인데 날일기가 궂은 날인고로 公販이 스나 햇더니 檢查員이 왓다고 해서 비 오는데도 벼 1叭를 아번님 家와 합해 같고 나갔다. 아번님 家 3叭은 二等 맛고 우리 것은 一等을 맞어 一金 841원을 찾아왔다. 肥料를 살랴고 벼를 냈다.

◎ 12월 21일 (음 11월 25일) 금요일 雲

白米 12叭 1斗. (…) 朝飯食事를 일직 마치고 高棧 精米所에 가니 主人이 안 와 한참이나 기달려 始作했다. 午前 좀 기울여서야 다 찌였다. 소출이 아주 덜 났다. 白米 數가 말이 아니다. 今年 白米 數가 28叭 4斗다. 오늘 12叭 9斗다. 씨나락 2叭 公販에 4叭 내고 里稅 20 理髮料 20斤을 除外하고서 모두 搗精한 것이다. 昨年보다 白米 4叭는 덜 낫다. 今年엔 아주 존조리 해도 20叭 여유가 안 될 것 같다.

◎ 12월 22일 (음 11월 26일) 토요일 晴

20日 場에 敎雨가 소를 사왔는데 15,000원 주엇다는데 멍에질 햇을까 말까 정도의 송아지를 사왔다.

◎ 12월 25일 (음 11월 29일) 화요일 晴

등겨 77斤 갑다. (…) 午前엔 아번님 家에서 등겨 77斤 借用해온 것을 갑다드리고서 …

◎ 12월 26일 (음 12월 1일) 수요일 晴

興植 家 통배미 2마지기와 통배미 위 1마지기의 흥정을 하고 있다. 나는 6되 가웃으로 33叭를 보앗는데 37叭를 달라고 해서 흥정이 미결로 있다. 이 근방의 체고[최고] 市勢다. 30叭도 비싼 것인데 3叭는 더 生覺을 해도 몰라 주고 잇어 흥정이 힘든다.

◎ 12월 27일 (음 12월 3일) 목요일 晴

興植 家 논 흥정은 아직 未決로 있다. (…) 저녁은 기러기 도리기를 하게 되여 70원을 대랍했다.

◎ 12월 30일 (음 12월 6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를 마치고 나니 孟植이 와서 농꼴 논과 밭원 孟植의 논을 사라고 졸라 興植의 논도 흥정 중에 잇고 또 마음에 들고 잇으나 兄弟之間에 하도 조르는 고로 마지못해 반승락을 했다. 농꼴 닷 마지기와 밭원 1마지기다. 여유가 38叭뿐인데 40叭를 달라고 해서 반승락을 하니 조와라고 떠났다. 땅흥정을 하고 나도 개운치는 않다.

◎ 12월 31일 (음 12월 5일) 월요일 雲

今年엔 보기 드문 가뭄과 보기 드문 風害로 많은 소출을 감소시켰다. 그래도 크나큰 재해는 면해서 千萬多幸으로만 여긴다. 長利로 순조로히 드러왔다. (…) 今年 소출은 우리 농사에 白米 4叭는 감소다. (…) 今年엔 여유가 白米 40叭는 존조리 하면 될상십다.

◎ 官用肥料 及 雜

2. 26.	요소 1. 中過石 1.		外上
	요소 3,908. 中過石	5,054환	外上.
4. 11.	염화가리 1.	3,455환.	外上.
4. 24.	硫安 1.	3,857환.	外上.
5. 21.	괭이 1個.	720환.	外上.
5. 23.	이화등 1個.	350환.	外上.
6. 10.	모줄 1.		外上.
7. 1.	尿素 1. 中過石 半.	無償.	
6. 25.	硫安 1.	現金 支佛.	
6. 25.	鹽安 1.	2,113.	外上.
6. 25.	中過石 1.	5,054.	外上.
8. 5.	鹽安 1.	2,113.	外上.
8. 5.	尿素 1.	3,908.	外上.
8. 10.	尿素 1.	3,908.	外上.
	비니루 25마.	1,250환.	外上 高棧.
	비니루 9마.	450환.	外上 柱雨.

◎ 금전출납부

戶籍協會費 500환
家屋稅 1,200환
部落表示 國旗 대
게시판 等 330환

農協出資金 900환
里長에게 借用 1,300환
計 4,200환
저축 資金 稻 4叭 代 4,000환.

白米 28叭 6斗
公販 正籾 4叭
種子 2叭(140斤入)

◎ 官用 1962年度 肥料配給表

肥料 名	단량	가격
유안	45K	3,958환
요소	25K	3,908환
초안	45K	5,896환
염안	30K	2,113환
초석	50K	3,160환
인안	45K	8,931환
인이안	45K	9,247환
과석	45K	2,405환
중과석	45K	5,054환
유산가리	45K	4,708환
염화가리	45K	3,455환

1963년

◎ 1월 14일 (음 12월 20일) 월요일 晴

春子 시부가 도라가셨다는 것이다. (…) 賻儀金 300円을 내고 그날 밤 그 집에서 宿하고 …

◎ 1월 16일 (음 12월 21일) 수요일 晴

날씨가 풀린 것 같아 安仲場에 같섰다. 場흥정 祭祀흥정을 하고 소등성마루뼈와 동태 좀 사갈고 왔다. 一金 250円을 같고 가 一푼도 안 남기고 왔다.

◎ 1월 17일 (음 12월 22일) 목요일 晴

朝飯 後에 농골서 穀草를 팔라고 해서 50束에 200원을 받고 냈다.

◎ 1월 18일 (음 12월 23일) 금요일 晴

穀草 500束賣 白米 1叭 出. (…) 午前에 농골 사람이 와서 穀 200束을 같고 가고 來日 가저가기로 一金 千円을 내고 같다. 壹束當 35원에 팔았다. 午後에 悠雨가 와서 孟植이 朴書房에게 쌀돈 내간 것 白米 1叭을 달라고 해서 計斤해서 주었다.

◎ 1월 20일 (음 12월 25일) 일요일 晴

今日 現在까지의 雜種金反 肥料代完納 里長에게 前夜에 말한 쌀 갑을 내려 개슴을 가다가 原木에서 洛光君을 만나 쌀갑을 말하니 現金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냥 와 다른 곳에서 알아보았으나 新浦나 가야겠기에 孟植이 서울서 오면 新浦에 갈랴 했더니 안왔다. 쌀갑도 안 낸 것이 多事이다. 만약 쌀갑도 냈으면 안될 뻔 했다. (…) 오늘 昨年度 雜種金反 肥料代 今日 現在까지 完納했다. 一金 700餘円을 支佛했다.

◎ 1월 21일 (음 12월 26일) 월요일 晴

悠雨가 오늘 洞里青年들을 데리고 安仲으로 農藥을 修理하라 가는데 一金 百円을 借用해달라고 해서 借用해주고 洞里돈 百貝[百圓] 保管하고 잇던 돈도 아주 내놓았다. (…) 孟植이 前日 온다던 것이 안 온줄 알고 쌀 살 사람을 오라 해서 왔는데 좀 기달리라고 하고 보냈더니 孟植은 前日 와서 아버지家에서 자고 가면서도 안 왔다. 孟植으로 해서 내가 실 없는 사람이 되었다. 一金 2,300원어치 農藥을 보충 수리해왔다.

◎ 1월 22일 (음 12월 27일) 화요일 晴

오늘 洞里에서 도야지를 잡는다는 날인데 날씨가 아주 冷한 零下 19度란 무서운 날이다. 해끼가 퍼진 後에야 일을 始作해서 잡았다. 우리는 고기 목정으로 45斤을 같고 왔다. 妻는 이같이 추운 날씨였건만 어린 것들과 싸워가며 두부하고 午後엔 흰떡 쌀을 빠고 있어 내가 協助했다. 저녁 순대국을 끓여서 먹고 있으니 종식이 오라해 가보니 孟植이 車를 같고 쌀을 가질라 왔다. 9時頃에 실어 白米 5叭을 싯고 같다.

◎ 1월 23일 (음 12월 28일) 수요일 晴

前日 도야지 고기갑을 오늘 支佛했다. 一金

160원이다.

◎ 2월 1일 (음 1월 8일) 목요일 晴

오늘 安仲場이라 場에 와 가마니바디(막까마) 200円 을 주고 사 같고 집에 오니 5時가 되었다.

◎ 2월 10일 (음 1월 17일) 일요일 晴

땅갑 오늘로 完了 31叭.(40叭중) (…) 孟植이 쌀을 가질려 왔다고 하여 건너와 보니 車를 같고 왔다. 쌀은 妻家집 집안에 長利를 논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31叭을 오늘 실리였다. 땅갑은 오늘 다 치룬 것이다.

◎ 2월 21일 (음 1월 28일) 목요일 晴

肥料代 640원 支佛. (…) 食前에 里長任이 오시여 肥料代을 오늘까지 내야 오늘 安仲場에 가 傳票을 떼겠다고 하시여 돈을 보니 70원이 不足이라 돈을 구하라 다니고 있으니 敏子가 借用해주어 냈다. 肥料는 流安 1袋 重過石 半包袋이다.

◎ 2월 23일 (음 1월 30일) 토요일 晴

現金支佛함. (…) 官用肥料, 流安 1包, 重過石 半包. (…) 食前에 里長任이 오시여 도장을 달라고 해서 賣상 한 대 쓴다고 하시여 드리고 朝飯後에 肥料 차지라[찾으러] 新浦에 같다가 아번님 家 秋穀政府 賣상한 대 對해 肥料 30円어치와 보리쌀 10斤에 30원어치 무상을 주게 되니 아번님 家는 60여가마나 매상을 하여 오늘 종일 싯고도 남았다. 우리도 정부매상 6叭을 했는데 비료 180원어치와 보리쌀과 小麥粉이 나왔다. 小麥粉는 아직 안 나왔다. 新浦에 3번을 다니였드니 피곤하여 夕飯後에 그냥 자리에 쓰러졌다.

◎ 2월 25일 (음 2월 2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鍾소리가 나 건너가니 前日 실어온 양곡(政府賣)한 것을 割當하여 우리는 肥料 23斤을 둘째 祖父任 家에서 나누어 오고 보리쌀은 然雨 家에서 40斤 나누어 왔다.(政府賣商한 4叭分이다)

◎ 2월 28일 (음 2월 5일) 목요일 晴

午後에 大休氏가 소곰(鹽)을 1叭 낸다고 하더니 있느냐고 하기에 大休氏 집의 두 叭 있다고 해서 소곰 사라온 사람에게 1叭 210원에 냈다.

◎ 3월 5일 (음 2월 10일) 화요일 晴

發安場에 朝飯食事를 일직 물리고 떠났다. 智德이 瑞雨아저씨 논에서 오리가 있어 얼음을 끄며 맨발로 드러가 끄내 같고 집에 왔다가 悠雨, 德雨 等이 場에 간다고 해서 一行이 되어 같다. (…) 場 흥정 용두래용 松板 120원, 쌍화탕약 35원, 제사흥정 100원, 其他 150원의 흥정을 해 같고 왔다.

◎ 3월 8일 (음 2월 13일) 금요일 雲

食前에 悠雨씨가 와서 顯雨氏家 집토 壹雨氏에게 賣渡한 契約書을 써달라고 해서 써주고 왔다.

◎ 3월 12일 (음 2월 17일) 화요일 晴

이 해 박는 사람이 와서 어금니가 빠진 것을 해박을려고 찍었다. 그리고 白米로 1斗 2升을 주었다. 來日 해박으려 갈려고 한다.

◎ 3월 13일 (음 2월 18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德雨氏와 後坪에 이를 해박으러 갔다.

◎ 3월 16일 (음 2월 21일) 토요일 晴

食事을 일직 해 먹은 妻는 場에 가 雄浩을 데리고 마실 같다가 와 변소 흙 일을 좀 했다. 꼬추 10斤을 같고 간 妻는 900원을 받어 廣木 半疋 540원 其他 750원을 해 같고 와 돈이 모자라 外上 190원을 젔다고 한다.

◎ 3월 29일 (음 3월 5일) 금요일 晴

食事를 하고나니 鍾소리가 나 가보니 오늘 賣渡한 벼에 小麥粉을 준다고 하더니 大麥으로 준다고 오늘 가질러 간다고 하여 둘째祖父家 소를 같고 新浦에 가 2叭을 실고 와 둘째祖任家에 가 따 노았다. 둘째 祖任은 모두 賣渡해서 脫穀機 사는 데 보태쓰자고 해서 모두 그냥 둘째祖任家에 두었다. 우리는 政府에 賣渡한 것이 四叭 해당에 먼저번에 大麥 40근과 今般에 62斤이다. 1叭당, 15斤이라고 한다.

◎ 4월 22일 (음 3월 29일) 월요일 雲雨

농꼴 아는 5마지기 登記申請. (…) 新浦에 간 김에 面에 들려 尹서방에게 산 땅 分割申請을 해 측량을 해 같는데 어이 되었나 알아보라 했더니

來日까지 기한이라고 하는데 里長에게 通告했다고 한다. 里長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도장을 얻어 申請을 했다. 柱雨도 용지를 갖다주어 來日까지 申請하라고 했다.

◎ 4월 25일 (음 4월 2일) 목요일 晴

自警隊要員에 物品配給 (…) 집에 와 點心을 먹고 있으니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 가보니 自警隊要員에게 간첩에게 압수한 물건을 나누어준다고 해 가보니 모두 나누어왔다. 양복지 저고리감, 수건 等. 特정 外래품다. 나는 봄잠바가 도라왔다. 모두들 時價 5, 6百원어치 가량은 된다. 나는 300원.

◎ 4월 26일 (음 4월 3일) 금요일 晴

오늘 場에 脫穀機 을 살랴고 崔巡警에 700원 借用하고 1斗를 賣하고 몇일 前에 보리쌀 賣한 것 770원고 둘째 祖父任이 주신 1,550원을 합해 갖고 場에 떠났다. 장에 가다가 들으니 쌀갑이 껑중 뛰여 200원 하던 것이 250도 더 간다고 한다. 오늘 食前에도 230원에 샀으니 20원은 미찌고 들어갈다. 場에 가 脫穀機을 3,000원에 買하고 올 걱정을 했더니 德均君이 自轉車에 싯고 와 三溪까지 실어다 주었다. 그냥 있을 수 없어 담배 5갑을 주었다. 脫穀機는 둘째祖父 家와 같이 샀다.

◎ 5월 4일 (음 4월 11일) 토요일 細雨

白米 3斗 賣 750원. (…) 朝飯食事中 柱雨 가와 형명촌[혁명촌]에 소가 죽었는데 고기 안 먹겠느냐고 해서 斤當 市價 100원인데 65원이라고 해서 2斤 半을 샀다. 午後에 龍浩母親이 쌀 3斗를 팔아 갖다. 1斗를 더 내야겠다.

◎ 5월 5일 (음 4월 12일) 일요일 雲

오늘도 白米 1斗 賣했다. 250원. 官用肥料代와 고기갑을 장만했다.

◎ 5월 6일 (음 4월 13일) 월요일 晴

肥料代도 달라고 朝飯食事中에 하시여 肥料代 780원을 드리니 만약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산다고 하면 돌려주신다고 해서 대답했다.

◎ 5월 7일 (음 4월 14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엔 新浦로 肥料 가질라 가 두 번을 新浦에 갈다왔다. 우리 配給數量은 流安1, 尿素1, 鹽安1, 鹽化加里1, 計 5포를 가저 왔다. 食前에 들에서 前日 肥料代를 드리였든 것을 오늘 반환해였다.

◎ 5월 21일 (음 4월 28일) 화요일 雲

重過石 半包代 外上金額 支佛, 流安 1包代 重過石 半包代. (…) 朝飯食事 後에 肥料代 640원을 里長에게 支佛하고 (…) 重過石 半包代는 外上. 流安 1. 重過石 1.

◎ 5월 24일 (음 윤 4월 2일) 금요일 雲 細雨

몸이 재이는데 도야지 새끼도 팔아야겠는데... 도야지 새끼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

◎ 5월 25일 (음 윤 4월 3일) 토요일 雲

도야지 새끼 두 마리 賣 600원, 賣藥 200원어치 買. (…) 妻가 오늘 發安場으로 도야지 새끼를 갖고 간 고로 어린 것들을 보아주며 심짜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간다. (…) 妻는 場에서 도라왔는데 도야지새끼 두 마리에 600원을 받었다니 한 마리 갑도 못바덨다. 보통은 데는데 좋와야 400원 간다고 그냥 내빌고 왔다. 속이 상해 아논 일급되지기 물을 푸는데 氣分이 안 난다.

◎ 6월 11일 (음 윤 4월 20일) 화요일 晴

妻가 場 간다기에 準備를 해주고 朝飯食事 後에 妻는 도야지 새끼 두 마리를 갖고 場에 가고 (…) 午後에 場에서 妻가 도라왔는데 도야지 새끼 한 마리는 700원을 받고 문열이는 300원을 받었다니 상상 外의 금을 받었다. 먼점번에 골라간 것이 300원 及 400원을 받었는데 많은 돈을 이렀다[잃었다]. 이번 場에 다 갈다 팔았으면 도야지새끼 낸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 場흥정. 노타이 200원. 기타 300원

◎ 6월 17일 (음 윤 4월 26일) 월요일 雨

食前에 큰아번님이 오시여 官用肥料를 現金으로 사라 해서 1包袋갑 386원을 支佛하고 農藥代 250원을 냈다가 洞里 있는 푼무機가 꽃일 것 같지 않아 농약갑 250원 도로 찾았다.

◎ 6월 20일 (음 윤 4월 29일) 목요일 雨晴

流安 肥料 1包 受 現金證. (…) 新浦에 가 官用

肥料 1包를 저왔다. 일前에 現金支佛한 것이다.

◎ 6월 25일 (음 5월 5일) 화요일 雲

孟植은 쌀을 달라고 해서 白米 1斗를 주었다.

◎ 6월 26일 (음 5월 6일) 수요일 雲晴

14名 安仲場에 가 組合에서 나오는 除草機를 사오라고 妻를 시켰드니 高棧 와 있다고 해서 高棧 가서 가저왔다고 한다. 價격은 아직 자세히 몰라 150원을 里長을 주었다고 한다. 組合에서 보조를 해 93원이라고도 하는데 里長은 127원이라니 아직 모른다.

◎ 6월 27일 (음 5월 7일) 목요일 雲

어제 장 쌀끔이 벗석 올라 1斗에 290원한 것이 450원까지 하고 보리쌀 180원 하던 것이 350원을 했다니 이것이 무슨 소동이 날 것인지 농민인 우리도 걱정之事.

◎ 7월 11일 (음 5월 21일) 목요일 晴

오늘 里長이 安仲場에 가신다고 해서 農樂 세린산석회 半包갑 125원을 드리였다. 도청 稻熱病이 심하여 農藥 사기도 힘들다고 한다.

◎ 7월 15일 (음 5월 25일) 월요일 雲

場行. (…) 모에 二化명虫이 심하여 農藥도 살겸 發安場에 같다. 場꾼들 말에 依하면 요즈음 발생된 病기는 소용 없고 또한 時期 2化期는 8월요일 초순 경이라고 해서 家庭常備藥 400餘円 어치를 사오고 레디오 약도 사왔다.

◎ 7월 19일 (음 5월 29일) 금요일 晴

오늘 新浦에 가 官用肥料를 가저왔다. 우리 配給量 流安 1, 重過石 半인데 아버지 家 소를 같고 가 流安 2, 重過石 1을 실고 왔다.

◎ 7월 21일 (음 6월 1일) 일요일 雲雨

二化명虫이 심하여 妻는 場에 가 농약 다이야지론(タイヤヂロン)을 450원에 사고 도배 반자지를 사같고 왔다. 둘째祖 家에도 사실텐데 돈이 현재 없으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사같고 왔다.

◎ 8월 1일 (음 6월 12일) 목요일 晴

安仲場에 가 牛소의 時勢와 物價의 時勢를 알아볼랴고 食前에 보리집을 추리고 나 理髮을 하고 朝飯食事를 하고 悠雨와 같이 場에를 가는데 날이 매우 무더운 날씨다. 場에서 일직 떠나 4時頃에 집에 왔다. 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장만하기 좋다. 쌀갑이 第一 좋다. 白米 叭當 440원이다.

◎ 8월 2일 (음 6월 13일) 금요일 晴

舜雨氏가 쌀을 판다고 해서 쌀을 1叭 갑을 440원을 받어같고 왔다. 인제 도야지도 팔아 돈을 장만해서 송아지라도 살까 한다.

◎ 8월 3일 (음 6월 14일) 토요일 晴

朝飯을 늦게 하고 나니 어제 쌀판 高棧 舜雨氏가 와 쌀을 달아가는데 달아 두었는 곳에 모자리 7斤을 보탰다.

◎ 8월 6일 (음 6월 17일) 화요일 晴

저녁나절 도야지 장사가 와 팔었다. 안을 줄 알았더니 와 죽도 못 메기고 팔아 섭섭하다. 126斤에 3,150원을 받었다. 새끼를 냈으면 했으나 접이 안데고[안되고] 속을 쎄기며 팔았다.

◎ 8월 10일 (음 6월 21일) 토요일 晴

妻는 發安場으로 藥을 뜨라 같다왔다. 鎭痛劑 마이시 S.M 及 其他.

◎ 8월 11일 (음 6월 22일) 일요일 晴

돈을 장만해 같고 安仲場으로 소를 사라 같다 牛市場엔 경험이 없다. 9,000원짜리를 살랴고 하니 적당한 것이 없다. 종일 금을 마치다가 그냥 도라왔다. 12,000원 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다. 3,000원만 더 장만해볼까 한다.

◎ 8월 12일 (음 6월 23일) 월요일 晴

高棧 가서 있으니 德均이 소곰을 줄테니 白米를 좀 달라 했다. 구하다 못했으니 事情을 좀 보아달라고 해서 1두 1斤에 1叭 줄테니 달라고 해서 싼듯하고 事情을 뗄 수 없어 주었다. 鹽 1叭에 550원이라고 한다.

◎ 8월 14일 (음 6월 25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高棧 가서 마당쓰리 보리를 찌였다. 精麥 2斗다. 搗精을 해 같고 賣했다. 530원을 받었다.

◎ 8월 15일 (음 6월 26일) 목요일 晴

牛 九阡百円에 샀다. 朝飯食事 後에 發安場行 楊甘에 차를 떠나 10時 半車로 發安에 到着. 牛市

場에 가 소을 도라보고 午後에 소를 九阡壹百円에 사 같고 도라왔다. 萬円만 넹겨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으나 우리 소는 못 부릴 것 같다. 좀 비싸게 산 것 같으나 먹끼리나 종일 바란다.

◎ 8월 19일 (음 7월 1일) 월요일 晴

통미는[통을 제작하는] 사람이 와서 통을 60원에 미고 點心을 대접했다.

◎ 8월 20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妻는 發安場에 도야지 새끼를 사라 같다 마땅한 것이 없다고 그냥 도라왔다. 마늘 한 접을 같고 가 300원을 받어 왔다.

◎ 8월 21일 (음 7월 3일) 수요일 雲晴

도야지 새끼 買 650원, 里稅 15斤 支佛. (…) 食前에 高棧 德均에게 준 鹽代 준 것을 鹽을 안 같다주어 알아보려 같다와 朝飯食事後에 妻는 安仲場에 도야지 새끼 사라 가고 나는 敎雨氏家 허청을 이루키어 달라 해서 協助해주고 와 里稅 15斤을 支佛하고 (…) 妻는 場에서 도야지 새끼를 아주 잘 못 사왔다. 속이 상했다.

◎ 8월 23일 (음 7월 5일) 금요일 雲

午後에 농꼴 趙京彙가 穀草 63束을 일삭으로 가저같다.

◎ 8월 25일 (음 7월 7일) 일요일 晴

重過石 半包와 尿素 半包를 할당된 것을 안 찾아와 큰 아번님에 말하고 이번에 안 찾았으니 다음에 달라고 하고 포기했다.

◎ 8월 26일 (음 7월 8일) 월요일 晴

德均君에게 소곰갑을 주었는데 오늘까지 안 가저와 졸랐더니 1斗 가량 가저오고 2, 3일 來에 와 준다고 한다.

◎ 9월 5일 (음 7월 18일) 목요일 晴

풀을 비여 같고 오니 高棧 德均이 소곰을 가져왔다. 대금은 벌써 1個月 前에 준 것이다.

◎ 9월 7일 (음 7월 20일) 토요일 晴

저녁을 먹고 나니 高棧서 마이크 소리가 나고 해서 알아보니 藥宣傳員이 와 無料로 藥을 나누어 주는데 도장을 같고 오라고 해서 저녁에 高棧 가서 위보롱이란 위약을 한 봉 타고 腎氣丸이란 보약을 사 같고 왔다. 내가 몸이 약한 관계로 어린 것들을 줄랴고 샀다. 一金 500원 外上이다.

◎ 9월 11일 (음 7월 24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는 場에 꼬추 45斤 半과 참깨 1斗를 같고 가 꼬추 630원 받고 참깨 420원을 받어 솟을 4동이 드리[들이] 650원에 사왔다. 午前에 나무 한 짐 하고 午後엔 앞 내뚝 뜻은 것 나무 두 동 묵고 妻가 솟 가저오는데 마중 나가니 태피 원뚝에서 받어왔다. 安仲서 가저오느라고 혼났겠다. (…) 今年엔 꼬추 금이 좋와 꼬추 잘한 집엔 돈푼이나 만저보겠으나 우리집엔 田穀은 凶年을 만났다.

◎ 9월 12일 (음 7월 25일) 목요일 晴

오지그릇 外上갑 大靜脈 1斗 3斤 갑다. (…) 작두마침 250원 支佛. (…) 朝飯食事 後에 나무 한 짐하고 點心 먹고선 작두를 마칠랴 陽甘에 가 못 가저오고 10日 後에 된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작도 바탕이 없어 구하다 못해 아주 볼성 모양의 밤나무를 가저 같다.

◎ 9월 16일 (음 7월 29일) 월요일 晴

妻 場에 간 고로 어린 것들을 보아주며 나무 2짐을 했다. 妻는 場에 가 雄浩, 英浩 옷을 사같고 오니 어린 것들이 좋와하는 것이란 父母들에 흐뭇하게 하여 준다.

◎ 9월 23일 (음 8월 6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를 일직 먹고 自轉車를 얻어 같고 陽甘으로 작도 마친[맞춘] 것을 가질라 같더니 안 되였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9월 30일 (음 8월 13일) 월요일 雲

高棧서 오늘 소을 잡는다고 해서 고기를 사오라 했는데 떠러져 못 사와 原木도 소을 처 日雨氏가 가저와 2斤 4양을 사왔다.

◎ 10월 11일 (음 8월 24일) 금요일 晴

食前 일직 陽甘으로 작도를 찾으려 自轉車를 타고 가다가 길이 익숙지 않고 自轉車 부레키가 말을 안 드러 自轉車에서 떨어져 한참이나 정신을 일코 일어나 보니 엔편 팔이 쓸 수가 없이 아푸고 결린다. 괜신히[간신히] 場에 가 한참 있다

가 작도를 찾아 같고 왔다. (…) 나 陽甘 간 사이에 肥料갑 流安1, 重過石 半包갑을 드리였다.

◎ 10월 17일 (음 9월 1일) 목요일 晴

今年度總束數

농꼴 밭원	555束, 앞 닷데지기 71束
농꼴 안원	623束, 동욕굴 73束
앞말가웃지기 下	145束, 달뱅이 20束
앞말가웃지기 上	156束, 計數 2,903束
한마지기	134束
밭원 한마지기	126束
안논 밭원	1000束

◎ 10월 20일 (음 9월 4일) 일요일 雲

妻는 發安場에 白米 2斗를 같고 같다. 場흥정 藥을 330원어치 해오고 水原 생질려 옷 250원.

◎ 11월 4일 (음 9월 19일) 월요일 晴雲

脫穀 끝났다. (…) 今年에 總叭數 무稻 合해서 70叭은 났다. 140斤입. (…) 今年度稻總收穫叭數 140斤入. 70叭 半.

◎ 11월 6일 (음 9월 21일) 수요일 雨

일직부터 서둘르더니 妻가 場에를 같다. (…) 妻는 大豆 1斗와 一金 百貝을 같고 가더니 牛足을 사 같고와 닭을 한 마리 잡아 곰을 한다 한다.

◎ 11월 12일 (음 9월 27일) 화요일 晴

高棧으로 石油를 사라 같다가 떠러저 못해왔다.

◎ 11월 14일 (음 9월 29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마실을 가니 敎雨氏家 도야지가 새끼를 11마리나 낳고 새끼보가 뒤집어저 나와 約 2時間後에 급끼야 죽고 마랐다. (…) 도야지를 잡아 같고 新浦푸주간으로 가지고 같다. 斤數 150근.

◎ 11월 15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어제 같고 간 도야지는 6,000원을 받었다고 한다.

◎ 11월 16일 (음 10월 1일) 토요일 晴

白米 1叭 賣渡 2,700원 (…) 政府買上 價格이 어제 저녁에 發表되였다. 45k 當 1等 千四拾원, 2等 千원, 3等 950원이라고 하니 白米叭 2,300원 때도 못된다. 政府買 價格이 언제나 市中時勢보다 높았는데 今年엔 아주 떠러진다. 市中時勢는 오늘 叭當 2,800원이 넘는다. 政府買上 갑이 나와 쌀갑이 떠러질 것 같아 午後에 高棧 가서 쌀갑을 내왔다. 收得稅를 金納이라고 해서 一叭갑을 냈다. 妻는 白米 1斗을 같고 場에 같다 왔다. 今年 들어 쌀을 벌써 5斗와 오늘 1叭 갑을 냈다.

◎ 11월 21일 (음 10월 6일) 목요일 晴

肥料代 現金 130원 支佛. (…) 朝飯食事 後에 今般에 肥料가 나왔는데 現金으로 사게 되는데 希望대로 사라고 하나 米價가 낮고 해서 3叭, 流 2, 中過 1의 갑을 내고 나니 돈이 있으면 一金 千円만 借用해 달라고 해서 千원을 큰 아번님에 借用드리였다.

◎ 11월 22일 (음 10월 7일) 금요일 雲

2時頃에 어제 傳票 떼온 肥料를 가저온다고 해서 新浦에 가 肥料를 찾아왔다.

◎ 12월 3일 (음 10월 18일) 화요일 雲晴

收得稅를 할랴고 쌀갑 1叭을 냈다. 一金 2,730원에 냈다.

◎ 12월 6일 (음 10월 21일) 금요일 晴

妻가 安仲場에 가게 되어 종일 어린 것들 보아주었다. 配給鹽代 半叭에 130원을 냈다.

◎ 12월 8일 (음 10월 23일) 일요일 晴

共販場에 벼 2叭 내서 1等을 맞아 交換穀으로 1叭, 肥料代로 1叭을 했다.

◎ 12월 9일 (음 10월 24일) 월요일 晴

今年 總搗精數는 초가을에 2叭 6斗와 高棧서 17叭, 오늘 22叭 7斗를 搗精했다. 公販에 稻 2叭, 막통 2叭 냉기고 種子 1叭 半을 냉기였다. (…) 搗精總數 42叭 3斗. 正稻 5叭 막통.

◎ 12월 10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晴

큰아번님 家 큰 도야지가 죽게 되어 잡는데 같이 하고 新浦 肉庫간에 팔았다. 洛光君에게 쌀돈 1叭갑 낸 것은 悠雨와 高棧서 交換해서 精米所에 놓았다. (…) 농꼴 孫正俊 穀草 65束 일 품갑.

◎ 12월 11일일 (음 10월 26일) 수요일 晴

농골 安昌運 君이 와서 穀草를 내라고 해서 승낙하여 一束 當 450전에 210束을 가저같다. 一

金 900원중 400원만 내고 2, 3日來에 돈이 안 데면 모를 심어주겠노라고 한다. 命植의 婚日이 모래인고로 妻와 나는 오늘 일을 보아드리고 부조금으로 一金 400원을 냈다. 今年에 아번님 家소를 같이 부리여 품갑으로 白米 5斗를 같다 드리였다.

◎ 12월 12일 (음 10월 27일) 목요일 晴

穀草 210束 내다. 軍稅 15斤 支佛. (…) 食前에 농꼴 金富賢氏가 와 穀草를 좀 내라고 해서 210束을 냈다. 數日來로 돈이 안 되면 일로 모를 심어주겠노라고 했다. 여러 사람이 달라는 것을 승낙치 못했다. 午鍾에 軍稅를 지불하고 朴巡警과 吳巡警이 三溪 가자고 해서 悠雨, 仁性 等과 같이 가 400여원어치 술을 먹고 왔다.

◎ 12월 14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食前에 농꼴 崔書房이 와서 穀草을 일 품삭으로 달라고 해서 일 하루치만 주어 돌려보냈다.

◎ 12월 19일 (음 11월 4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날씨가 冷하여 누어 있으니 다섯째祖 아주머니가 와 空叭 6닙을 借用해달라고 해서 골라 주었다. (…) 저녁 세죽을 쑤고 있으니 월順이 學校 같다 오며 一金 320원을 같고 와 웬 돈이냐고 하니 농꼴 安昌勳君이 주더라고 穀草代 500원 올 것에 나머지는 일로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 12월 20일 (음 11월 5일) 금요일 晴

食前에 高棧 敬浩가 와 興植家 통배미 3마지기를 사라고 해서 德雨家 흥정 中인고로 나는 못한다고 했다.

◎ 12월 21일 (음 11월 6일) 토요일 雲晴

10時頃에 집에 있으니 德雨가 찾아 나가니 밭 원 2마지기를 팔아야겠는데 알아보아 달라고 해서 高棧 裕浩가 말한 바 있어 高棧을 같더니 安仲場에 같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12월 22일 (음 11월 7일) 일요일 晴

德雨가 還賣할랴고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高棧을 같섰다. 裕浩를 만나 聖浩家에 가서 알아보니 몇일 있어야겠다고 해서 도라와 그럭저럭 했다. 저녁나절 敬浩가 왔다. 德雨가 흥정하던 興植의 땅은 敬浩가 샀다고 하며 靑龍뿌리 논 2말 7급데지기를 사라고 해서 과히 生覺 없어 데는대로 [되는대로] 흥정을 해보라 했다. 큰골 땅이 高棧으로 넘어간대 對해선 섭섭하다. 나도 관심이 많았었다.

◎ 12월 25일 (음 11월 10일) 수요일 晴

날이 冷하여 마실 사랑방에서 있노라니 床 商人이 와 흥정 끝에 교제상 900원 달라는 것을 440원에 샀다. 현시가로는 싼 것 같으나 써보아야 알 일이다. 저녁 後에도 마실 가 계란을 사 먹었다.

◎ 12월 26일 (음 11월 11일) 목요일 晴冷

朝飯 前에 悠雨가 와 돈을 借用해 달라고 해서 一金 800원을 借用해 주고 朝飯 後에 安仲場에 같다. (…) 장흥정, 호구, 120원, 기타 300원의 흥정을 해 같고 왔다.

◎ 12월 28일 (음 11월 13일) 토요일 晴

今年度外上肥料代 完納. (…) 오늘 肥料代를 완납하기 위해 朝飯 後에 벼 1叭을 드려 담고 46斤마트리를 해 놓고 愼書房과 합해 1叭을 만들었다. 그래 해 午後에 共販場에 가 금사해서 [검사해서] 1等을 마젔다. 今年度 雜種金 肥料代는 完納했다. 外上肥料代 2374원, 利子 230원에 稻 2叭 46斤과 交換穀에서 60원이 남아 肥料代로 加算해서 完納했다.

◎ 12월 29일 (음 11월 14일) 일요일 雲雨

石油傳票가 나왔다고 하여 里長任인 큰아번님께 졸라 傳票를 받어 致雨家 나누라 해서 一斗中 두 집이 나누기로 했다.

◎ 12월 30일 (음 11월 15일) 월요일 晴

高棧서 소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를 3斤 220원어치 사같고 왔다.

◎ 官用肥料事項

受配日字	肥料種類	現/外
5. 7	流安 1	外上
5. 7	尿素 2	外上
5. 7	鹽安 1	外上

5. 7	鹽化加里 1	外上
2. 23	流安 1	現金
2. 23	重過石 半	現金
5. 21	流安 1	現金
6. 17	重過石 1	半包 外上 ┐
		686원
6. 17	流安 1	現金 ┘
7. 19	流安 1	外上

◎ 穀草賣 及 勞賃

朴	110束 일	5名分
孫正俊	65束	3名 分 미상
安昌運	210束	
	900원 中	400원 入
金富賢	210束(일로 안되면 現金)	

1964년

◎ 1월 3일 (음 11월 19일) 금요일

高棧 敬浩가 와 興植 논 산 것을 되 팔겠다고 와 말하여 사볼까 生覺을 했다.

◎ 1월 4일 (음 11월 20일) 토요일 晴

서울의 南植이 와 한참이나 한담을 하다 헤여졌다. 家대을[家垈를] 賣渡할 모양이다. 午後엔 高棧에서 소고기 3斤갑을 220원을 支拂했다.

◎ 1월 10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敦一君이 水原으로 가는 고로 路資도 줄겸 發安場도 볼겸 妻가 간다고 하기에 보냈다. 닭을 두 마리 같고 가 290원 받어 路資 100원 주고 약을 해 같고 왔다.

◎ 1월 11일 (음 11월 27일) 토요일

朝飯을 마치고 白米 1斗을 내같고 安仲장에 같다. 場에서 妻男을 만나 點心을 대접받고 同婿가 安仲다가 精米所을 샅다고 가보자고 해서 가보고 집에 올랴고 하니 비가 오락까락해서 車를 타고 올랴고 하니 아번님이 場에 오시여 파이푸을 사같고 오시는데 같이 같고 왔다.

◎ 1월 21일 (음 12월 7일) 화요일 晴

오늘 安仲場에서 쌀금이 오르기 始作해서 300원(1斗當)을 했다고 …

◎ 1월 24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晴

농꼴 밭원으로 두엄을 저내고 잇으니 농꼴 京彙가 製신機을 안 사겠냐고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 崔書房집 것인데 하도 졸라대여 마지 못해 사기로 하고 白米 7斗에 작정하고 일 둘만 해달라고 하고서 製신機을 지고 와 술을 몇잔 같이 하고 헤여젔다. 간 後에 새끼을 꼬와보니 뒤의 기아가 넘는 거이라 못꽜다. 이놈들에게 속았다.

◎ 1월 25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晴

食前 일직 넘어가 京彙보고 製신기가 고장인 것을 알지 못하고 샀노라고 하니 와서 고처 주겠다고 해서 같이 와 朝飯食事을 같이 하고 보아주어 곳잘 데는 것 같아 새끼 두 사리을 꼬고 나니 또 마찬가지다. 아주 氣分 덜 좋다.

◎ 1월 26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晴

安仲場에 갈랴고 했으나 새끼틀이 고장이 나서 농꼴 京彙가 와 고치는 고로 場에 못 같다. 完全한 줄 아랐든 것이 고장이 자주 나니 氣分이 나뿌다.

◎ 1월 27일 (음 12월 13일) 월요일 晴

食前에 高棧 敬浩가 와 興植 논 말하든 것을 또 말하여 승낙을 했다. 종일 李巡警과 새끼을 꼬고 잇다가 저녁 後에 아주 契約을 하자고 해서 興植 家에 가 契約을 했다. 每 坪當 6升로 하데 測量後에 結定키로 했다. 坪數가 얼마나 나올 것인진 몰라도 과한 금이 아닌가 生覺된다. 契約後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어 한참이나 고생했다.

◎ 1월 29일 (음 12월 15일) 수요일 雲 細雨

興植 家 논 산 것에 測量技士도 없고 해서 그냥 흥정하자고 하니 30叭은 받어야겠다고 해서 27叭가 넘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먼점 契約한 것을 解約했다. 다 된 흥정을 그만두니 氣分이 덜 좋다. 흥정꾼도 덜 좋게 生覺한다.

◎ 1월 30일 (음 12월 16일) 목요일

食前에 敬浩가 또 넘어왔다. 통배미 2마지기와

둘을 흥정이라 어느 거나 하라고 한다. 될뜻하고 안되고 다 되었다 그만두고 成事가 없다. 잘되면 오라고 했더니 종일 안 왔다.

◎ 2월 1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雪

새끼틀을 買入한 것이 큰일이요 땅 흥정은 될 뜻하고 마랐다. 이 달에 成事있길 기원하며.....

◎ 2월 2일 (음 12월 19일) 일요일 晴

저녁엔 洞會가 있었다. 大豆와 正粉을 賣上(政府)하라는 것인데 이 동리에 활당이 있는데 활당량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콩은 다 먹은 後인 이때에 내리면 어이할 것인가.

◎ 2월 5일 (음 12월 22일) 수요일 晴

저녁엔 마실 같더니 壹雨氏 家에서 顯雨氏 家 안산 밭을 샀는데 立會人 겸 契約을 作成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

◎ 2월 12일 (음 12월 29일) 수요일 晴

소고기 3斤 270원. (…) 午後에 高棧가서 소고기 한 목을 같다가 上植家 朴書房 等과 나누어 3斤을 같고 왔다. 斤當 90원이다.

◎ 2월 14일 (음 1월 2일) 금요일 晴

농꼴 아논 단 마지기 登記 나오다.

◎ 2월 19일 (음 1월 7일) 수요일

농꼴 富平 아주머니 家 6마지기을 사라고 해서 55叭을 보았더니 60叭을 달라고 한다.

◎ 2월 21일 (음 1월 9일) 금요일 晴

점심을 먹고 나니 찾아 나가보니 孟植이 장인이와 앞 事業所에 흥정을 부처달라고 해서 농꼴까지 같이 같다왔다. 資本主을 끌고 온 모양이다.

◎ 2월 24일 (음 1월 12일) 월요일 晴

어제 저녁에 富平아주머니 동생 勳相君이 와서 농꼴 논 흥정을 하자고 해서 거이 가까운 合議을 보았다.

◎ 2월 25일 (음 1월 13일) 화요일 晴

어제 저녁에 富平아주머니 家 농꼴 6마지기를 完全에 가까운 合議을 보고 오늘 新浦에 가 坪數을 알아보기로 하고 新浦에 가보니 843坪이라 6마지기가 아주 못된다. 오늘 食前에 高棧 가서 長利쌀 얻을 곳을 알아보았으나 없어 原木엘 아번님게 가시라 하고 勳相君과 新浦에 가다 성꼴 柱大天氏을 만나 말하니 선 듯 승낙하여 20叭을 얻었다 長利는 3升 半에 來年에 27叭을 주기로 하고 來日 가질러 오기로 했다. 곳 原木엘 가서 勳相과 쌀돈을 낼랴고 했으나 洛光君이 없어 못 내고 來日 만나기로 했다. 지녁에 집에 와 마실 가니 다섯재 祖父와 吉雨氏가 땅을 사지 말라고 하며 시른[싫은] 소리을 해서 富平 아주머니에게 집안 協議가 있어 해달라고 했다.

◎ 2월 26일 (음 1월 14일) 수요일 晴

말에 대상이 되던 富平 아주머니家 6마지기을 오늘 契約하고 땅갑을 支拂했다. 다섯재 祖父家에서 승낙을 받었다는 말을 듯고 契約을 作成. 땅갑을 오늘 중으로 달라고 해서 성꼴 柱大天家에 가 엊에[어제] 얻은 長利米을 달라고 하고 新浦에 가 쌀갑을 내며 3叭만 次後로 미루고 全部 支拂해서 富平 아주머니, 아주머니兄, 勳相이가 같고 떠났다. 오늘 같고 간 것이 53叭갑 叭당 3,800원에 사 같고 같다. 곳집에 와 쌀 3叭을 高棧 작근집에 가 얻고 모든 주선은 다 되였다. 白米代 낸 것은 모래인 28일에 가질라 온다고 한다.

◎ 2월 27일 (음 1월 15일) 목요일 晴

富平 아주머니家 논 산 것에 吉雨氏가 말할 줄 알았더니 오늘은 잘했노라고 人使을 해서 氣分이 좋왔다. 우리 땅 사는데 壹雨 大休 세재祖母等이 시기를 하고 壹雨와 大休는 다섯재 祖와 吉雨氏에게 많은 말을 한 모양이다.

◎ 2월 28일 (음 1월 16일) 금요일 晴

쌀돈 낸 것 쌀 47叭 실리였다. (…) 朝飯食事을 하고 나니 車가 왔다고 한다. 곳 洞里 몇 사람을 불러 저내도록 했다. 동욕꼴 밭에다 대놓고 저내는대 叭當 10원식 주었다. 집에서 30叭을 가저가고 高棧 작은 집에서 借用한 3叭을 실고 柱大天家에서 拾四叭을 실고 같다. 저녁 먹고 달 보려 같다 오다가 다섯재 祖家에 말씀드리니 매우 언안은 말을 하고 外面해서 氣分 나쁘게 도라섰다. 물론 땅 판[파]는 심리가 좋을 리 없고 말기든 땅을 삿으니가[까]라 生覺한다. 九叭는 돈으

로 支拂키로 하고 6叭 돈으로 주고 3叭만 나맜다.

◎ 2월 29일 (음 1월 17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에게 英浩就學에 對해 學校에 가 校長先生任에게 알아보시라고 附託했는데 어이되였다. (…) 興植兄에게 알아보니 校長은 못 만났으나 곳이 말아니 半승락은 잇섰다고 해서 冊갑으로 140원을 興植에게 주었다. (…) 敎雨氏家도 興植家 땅을 520坪에 27叭에 사오는 쌀을 運반하였다.

◎ 3월 4일 (음 1월 21일) 수요일 晴

妻家에서 11時頃에 出發 新浦에 12時頃에 到着. 支署에 가 좀 있다가 面에 가서 登記簿을 살펴보니 농꼴 6마지기가 富平 아저씨 명의로 잇는 줄 알았더니 朴讚熙이 앞으로 있으니 登記내기가 不便하게 되였다. 勳相君이 오면 다시 議論해 볼 필요성이 生紀였다.

◎ 3월 5일 (음 1월 22일) 목요일 晴

오늘 發安場으로 소을 賣할랴고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떠났다. 11時 頃에 牛市場에 着했으나 소 賣買가 덜 되고 소가 많이 났다. 風門에 依하면 소금가(이) 올랐다고 하나 별로 오른 것 같이[같지] 않다. 우리 소는 작자가 없다.

◎ 3월 6일 (음 1월 23일) 금요일 晴

오늘도 安仲場을 소를 끌고 같으나 작자가 없어 그냥 도라왔다. 땅갑을 3叭를 못 댔는데 소를 팔아야겠는데 팔지를 못하니 큰 걱정이다. (…) 7月에 9,300원이나 준 소를 이제 멕이고 본전이나 밭을까 한다. 今般 소를 멕기고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 3월 7일 (음 1월 24일) 토요일 晴

소를 못 팔아 땅갑 떠러진 것이 걱정이다.

◎ 3월 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농꼴 塩田에 품파리. (…) 오늘 농꼴서 塩田을 가는데 소[와] 사람이 오면 300원을 준다고 해서 朝飯食事을 하고 아번님家 소를 같고 일을 같다. 일은 별로 힘이 들지 않는 일이다. 點心도 집에 와서 먹고 가니 일은 할만하다. 저녁 먹고선 마실을 같더니 勳相君이 땅갑 떨어진 3叭을 달라고 해서 登記 申請 印鑑을 내다 달라고 印鑑만 내오면 즉시 支拂하겠노라 했다. 농꼴 엿마지기가 水村 朴纘熙 앞으로 잇어 印鑑을 잘 내줄 것인지? 의문이라 큰 소리을 냈다.

◎ 3월 9일 (음 1월 26일) 월요일 晴

富平 아주머니가 水村을 같더니 塋雨에게 판 것이니 塋雨氏에게서 산 契約을 같다 주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한다. 나는 곳 서둘러 해달라고 했다. 몇일 前부터 말해오던 밭원뚝 밑에 1마지기를 賣渡할랴고 말해오던 것이 오늘 저녁에 가 契約을 썼다. 九叭에 농꼴사람에게 매도하여 五叭만 밭기로 하고 四叭는 長利로 해 달라고 해서 고리하기로 契約을 作成했다. 그리하여 잘 팔아 주었다고 구문을 그리 주기로 했다.

◎ 3월 10일 (음 1월 27일) 화요일 晴

일직 땅갑을 넹겨 올줄 알았더니 白米 1叭만 넹겨오고 午後에 가 저오겠다더니 午後에도 안 와 가보니 來日 가저가겠다고 한다. (…) 몰려오던 근심이 땅을 팔고나니 잘되였다.

◎ 3월 11일 (음 1월 28일) 수요일 晴

土地賣渡米 白米 5叭收. (…) 朝飯食事 前에 농꼴로 땅갑 관계로 넘어가니 午鐘 때 넹겨올 것이라 해서 그냥 넘어와 마실 가보니 新作路出役이라 해서 次後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못 가겠다고 했다. (…) 午後에 땅갑 白米 5叭 넹겨왔는데 2斗는 申○人을 주고 4叭는 今年 農事지여 長利로 주기로 했다.

◎ 3월 12일 (음 1월 29일) 목요일 雲晴

夕飯食事 後에 마실같다가 富平아주머니 가에서 買收한 땅갑 3叭남은 것을 來日 中으로 달라고 해서 인감을 내와야 주겠다고 하니 당장 밭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언쟁으로, 언쟁에서 싸움으로 화하여 李勳相이란 놈과 싸왔다. 땅 사고 氣分 나뿌다.

◎ 3월 13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水村아저씨가 양식이 떨어젔으니 몇일만 白米 1叭을 借用해 달라고 사정해서 마지못해 借用해 드리였다.

◎ 3월 14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朝飯 後에 德雨 아저씨에게 一金 四百원을 借用해서 肥料代을 支拂했다. 尿素 1叭다. 朝飯食事은 仁性家에서 개고기을 해서 같이 하고 新作路 出役을 갈다고 끝맛고 肥料을 가질라 가 午後 늦게까지 里長을 기달려 馬車에 洞里나오는 押麥을 실고 와 肥料와 押麥을 같고 왔다. 우리 집에 肥料 1叭, 押麥 1叭 활당.

◎ 3월 15일 (음 2월 2일) 일요일 雪

몇일 前에 농꼴 事業所에 가 일한 품갑을 받어 德雨에게서 借用한 돈을 갑다.

◎ 3월 18일 (음 2월 5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平澤에 登記手續次 떠났다. 홍淳龍 事무所에 가 書類을 꾸미여 같고 띠나오다가 水村에 가 朴纘熙에게 가서 도장을 맞어 같고 왔다.

◎ 3월 20일 (음 2월 7일) 금요일

柱雨가 新浦로 가 自耕農증 印을 받어같고 平澤에 갈다온다고 해서 주었다. 잘 될 것인지 登記 手續에 이리 까장스러운지. (…) 食前에 後坪에 가 農地委員長印을 다시 얻어같고 왔다.

◎ 3월 26일 (음 2월 13일) 목요일 風

安仲場에 가 흥정. 제사흥정 英浩가방 等 一金 360원을 같고 가 쓰고 外上 200원을 지고 왔다.

◎ 3월 27일 (음 2월 14일) 금요일 雲晴

땅갑 完納.(농꼴 6마지기) (…) 용구새을 틀고나 富平 아주머니家 땅갑 떨어진 것 白米 3叭을 오늘 집에서 2叭 仁性家에서 借用해 간 1叭을 밭어 가저 같다. 計斤은 富平 아주머니가 달았다. 600원은 登記비용에 보전등기에 달라고 해서 600원을 받었다.

◎ 3월 29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뒤엄을 저다주고 오니 高棧 東植이 와 理事會가 잇으니 넘어오라 해서 (…) 會件은 精米所에 對한 最종적인 會이다. 會을 하고 吉雨氏家 精米所을 買入키로 하고서 大谷으로 와 흥정을 해서 30만원에 흥정하고 25만원은 돈 나오는 대로 支拂하고 5만원은 가을에 支拂키로 하고 契約作成. 契約金으로 만원 支拂했다.

◎ 4월 3일 (음 2월 21일) 금요일 雲

空叭 7닙. 메리크롱 3포 外上.

◎ 4월 5일 (음 2월 23일) 일요일 雲雨

2, 3日後에 가래질을 할랴고 일꾼을 얻을려고 농꼴 가 일꾼을 마치고 와 朝飯食事 後에 然雨家에서 보는 姜春彦家 先代祖墓에 沙草을 하는데 아번님이 보내서 같섰다. 일을 할랴니 비가 오기 始作해서 그해 가면서 했다. 1時 半 頃에 끝났다. 사람을 사는 고로 一金 百원식 샀다고 百원을 받었다.

◎ 4월 21일 (음 3월 10일) 화요일 雲

安仲場으로 같다. (…) 安仲場에 가, (…) 英浩가방갑 200원 支拂하고, 소풍가방 100원, 물병 50원(외상), 雨衣 200원, 煙통 150원, 롬부(바) 100원, 소창 3마 100원 外上, 農藥(이짜 除) 60원의 흥정을 해 같고 왔다.

◎ 4월 23일 (음 3월 12일) 목요일

白米 1斗을 냈다.(370원)

◎ 4월 27일 (음 3월 16일) 월요일 晴

朝飯 後에 里長이 肥料갑을 달라 해서 一金 五百원을 支拂했다.

◎ 5월 8일 (음 3월 27일) 금요일 晴

洞里 一氏가 어제 官用肥料을 가저왔다. 논가리 관계로 어제 못같더니 우리 肥料 거이 半程度는 가저와 重過石 2塩化加里 1包을 가저왔다.

◎ 5월 9일 (음 3월 28일) 토요일 晴

外換改革으로 因해 물까는 大폭 앙등되여 배以上이 오르고 잇어 政府에서도 큰 관심사이다. 午前에 쌀 2斗을 賣했다. 820원. 몇일 前만해도 1斗當 500원을 호까했고 고무신 1足에 60원 하던 것이 100원 等이라고 한다.

◎ 5월 17일 (음 4월 6일) 일요일 雲雨

白米 1斗 賣 410원. (…) 壹雨氏가 오늘 登記申請한 것을 오늘 찾으려 간다고 해서 떠러진 돈 350원을 주었다.

◎ 5월 19일 (음 4월 8일) 화요일 晴

어제 소에 지치고 해서 오늘은 쉬울랴고 肥料

가저오든 것을 三溪가서 重過石 1袋을 저왔다.

◎ 6월 6일 (음 4월 26일) 토요일 晴

그루을 갈고 있으니 큰아번님이 오시여 肥料갑을 내라고 하시여 阡五百원을 드리였다. 肥料는 尿素가 4.5이고 流安 28斤라 복合 85斤 이라고 한다.

◎ 6월 7일 (음 4월 27일) 일요일 雲晴

오늘 新浦로 가 肥料를 가저온다고 해서 朝飯食事 後에 소에 길마를 언저놓고 10時 頃에 新浦에 같다. 肥料는 처음으로 많이 나리였다. 아번님家와 합하면 3번 이상 가야 될 것인데 新浦精米所에서 馬車을 鄭 巡警이 얻어주어 마차로 실고 왔다.

◎ 6월 11일 (음 5월 2일) 목요일 晴

호미 買 40원.

◎ 6월 22일 (음 5월 13일) 월요일 晴

食前 일직 개合[개섬] 塩田에 새끼 20둘래을 같고 가 소곰 2叭를 실고 왔다. 12둘래에 1叭식이라고 해서 4둘래는 次後에 주기로 했다. (…) 저녁에 肥料을 싯고 왔다. 官用肥料는 우리가 아주 적게 타 里長인 큰아번님게 數次 말했으나 속수무책이다. 집안 골려 남에게 인심쓰는 분이다.

◎ 6월 23일 (음 5월 14일) 화요일 晴

肥料을 流安 35斤 復合 40k 1包

◎ 7월 11일 (음 6월 3일) 토요일 雲

場 흥정 英浩 옷 230원(上下), 外上갑 230원. (…) 일을 못가고 場에 農藥을 사라 같다. (…) 今年에 藥 안쓴 것이 아주 후해다[후회다]. 農藥商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農事指導所을 찾아같다. 時期는 아주 늦었다는 것이다. 效力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 농약도 아주 침투성이 강한 놈이라야 한다는데 安仲엔 없다. 그리해서 그냥 왔다.

◎ 7월 15일 (음 6월 7일) 수요일 雲 쏘나귀

二化螟蟲이 아주 심하여 二化期엔 藥을 써야겠는데 돈 장만 할 것이 없다. 今年같이 돈(金錢)에 求애 받는 해는 없다.

◎ 7월 18일 (음 6월 10일) 토요일 雲 쏘나귀

英浩 敎科書代 141원 支拂함.

◎ 7월 23일 (음 6월 15일) 목요일 雲雨

비료 尿素가 나왔는데 큰집에서 半包를 借用해 쓴 것이 있어 19斤 나와 나누어 조지 않고 드려 놓으시라고 했다.

◎ 7월 26일 (음 6월 18일) 일요일 晴

妻가 場에를 가겠다고 분주히 도라다네 언린 것을 돌보았다. 妻는 마늘 두접을 같고 같다. (…) 妻는 일직 왔다. 마늘 굴근 놈은 350원 잔놈은 20원을 받고 鷄卵은 한줄에 70원이라고 한다. 穀價는 下락이고 白米 1斗에 480원 가던 것이 35원이라 하고 보리쌀이 400원 가던 것이 250원이라니 다런[다른] 물까는 오르고 穀價는 네리니 우리 農民만 살가 걱정이다.

◎ 8월 7일 (음 6월 30일) 금요일 雲 쏘나귀

朝飯 後에 復合肥料를 찾아 온 것을 21斤 찾아오고 尿素 半包는 里長집에서 借用해 온 것을 갑았다. 김장 갈 肥料가 없다고 했더니 7斤만 가저가라고 해서 7斤을 가저왔다. 큰아번님이 7斤 더 준것에 큰 어머니가 不滿이 되여 큰소리가 났다.

◎ 8월 11일 (음 7월 4일) 화요일 雲雨

妻가 親家에 간다고 해서 (…) 午後 4時 半 頃에 雄浩와 大浩를 데리고 떠났다. 날씨가 좋이 않은 날이라 고생이나 안을까 걱정이다. 路資로 一金 250원을 주었다. 어제 外上으로 초마[치마] 조고리 700원에 같고 왔다.

◎ 8월 15일 (음 7월 8일) 토요일 晴

高棧서 오늘 夏穀 搗精決算을 본다고 오라해서 같섰다. 決算을 본 바 전부 제하고 7萬円가량 나맜다. 정미소 修理한다 했다.

◎ 8월 22일 (음 7월 15일) 토요일 晴

도야지 賣 148斤 斤當 55원 8,140원. (…) 저녁을 먹고 잇으니 큰아번님이 오시여 도야지를 팔라고 來日 各 里長들이 洞里서 놓게 되는데 팔라해서 승낙해서 달아보니 148斤 나같다. 큰아번님의 도야지와 바꾸어 잡았다. 斤當 55원에 代金은 26日 里長 月급에 준다고 해서 돈은 아직 못받다.

◎ 8월 25일 (음 7월 18일) 화요일 晴

쌀끔이 폭落이다. 쌀끔이 350원 가던 것이 280원이라 금이가 안마자[금이 안 맞아] 소를 못 치것으니 다른 곳으로 팔라고 해서 팔기로 했더니 작자가 물려 1,600원에 흥정했다. 돈을 기룰랴고 하다가 안핸다고 해서 그냥 끌고 왔다.

◎ 9월 3일 (음 7월 27일) 목요일 雲

食前에 도야지갑을 가질라 오라해서 갈더니 148斤에 8,140원인데 5斤을 접어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275원을 제 했다. 이번에 큰집엔 이리저리 많은 德을 보았다. 8,140원을 쳐 갈는데 고기서도 또 뗐다. 수작할 수 없는 분이다.

◎ 9월 6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安仲場으로 소를 갓고 나갔다. 午後에 牛전이 성황이 되여 우리 소를 1時頃에 賣買되였다. 돈 萬6仟원에 賣買에 찾이 돈 萬6仟원을 받어갈고 왔다.

◎ 9월 7일 (음 8월 2일) 월요일 雲

食前에 작근 아번님이 오시여 나무를 사라가야겠는데 契約金을 치루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3,000원을 借用해 달라고 하여 드리였다. 午前에 농밑 일 치도을 하고 點心을 먹고 나니 高棧 진植氏가 와 3,000원만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주었다. 借用이 되던지 아니면 利子를 준다고 한다. 진植氏 3,000원 借用.

◎ 9월 8일 (음 8월 3일) 화요일 雨

高棧 가니 어제 작근 아번님이 나무 사라 같다가 못사고 왔다고 어제 借用해 간 돈을 내오며 瑞雨氏가 달라고 와서 瑞雨氏에게 借用해 드리였다. (…) 瑞雨氏 3,000원 借用.

◎ 9월 9일 (음 8월 4일) 수요일 雲

우수 4,000원 借用. 食前에 高棧 우秀가 와 돈을 논는다고 해서 왔다고 三溪에 와 理髮所을 차리는데 興植家에서 돈을 드려놓라 해는데 4,000원만 돌려달라고 또 조금 잇다가 大植이와 政府땅에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돈이 필요하여 왔다고 5,000원만 달라고 해서 신용을 알 수 없어 午後에 오라고 高棧가 작근집 왜뚝 손질하는데 협조해주고 오다 이 사람들 신용을 알아보니 원만하다고 해서 집에 와 있으니 午後 저녁 먹을 무렵 우수君이 와 4,000을 7부 利子로 주었다. 大植은 안왔다.

◎ 9월 10일 (음 8월 5일) 목요일 晴

敎雨 氏가 食前에 一金 2,000원을 借用해 갈다.

◎ 9월 11일 (음 8월 6일) 금요일 晴

妻는 場에 一金 2,200원 갈고 가 旋風機 仟百원에 사고 어린 것들 옷 1,100원 어치 흥정을 해왔는[데] 아직도 仟원은 잇어야 급한 것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돈이란 價치 없는 것이다.

◎ 9월 12일 (음 8월 7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 後에 悠雨가 와 一金 仟円을 가저갈다.

◎ 9월 15일 (음 8월 10일) 화요일 雲

食前에 매끼을 틀고 있으니 朱大天氏가 와 돈 잇으면 一金 2,000원만 借用해 달라고 해서 2,000원을 돌려주고 出役을 갈다 오니 高棧 讚植가 와 一金 1,000만 달라해서 주었다. 出役 가다가 三溪서 興植兄이 봄에 가저간 새끼 5테갑 225원인데 200원을 쥐여 받어 갈고 新浦에서 담배을 한 보루 사갈고 왔다.

◎ 9월 16일 (음 8월 11일) 수요일 晴

食前 일직 잦은 소리가 나가보니 다 高棧 優秀가 와 10餘日前에 借用해 간 돈을 가저왔는데 4,000원 가저 갈는데 100원을 보태와 도로 돌려주니 안 밧겠다고 다라나 버리였다. 좀 잇다가 매끼을 틀고 있으니 裕浩가 와 一金 1,500원만 돌려달라고 해서 1,500원을 돌려주었다. 洞里가 거이 新穀을 잡았으나 우리는 못잡았다. 妻는 아주 조바심을 하고 있다. 妻는 오늘 場에 꼬추 8斤을 갈고 가 제사 흥정하고 150원, 삽 200원을 주고 사갈고 왔다.

◎ 9월 20일 (음 8월 14일) 토요일 雲

어제 저녁 裕浩가 一金 1,000원만 더 달라해더니 오늘 食前에 농꼴 논에 갈다오니 와 있어 1,000원 주었다.

◎ 9월 22일 (음 8월 16일) 월요일 晴

食前에 매끼을 틀고 있으니 高棧 敬浩가 돈 2,000원만 借用해 달라는 것을 아번님이 4,000원만 달라고 해 4,000원을 제처놓고 보니 1,500(원)만 잇어 1,500원 돌려주고 아번님 4,000원을 돌려드리였다. …

◎ 9월 25일 (음 8월 20일) 금요일 晴

어제 李柱乙兄이 사람을 못구했다고 듯고 오늘 朝飯食事後 平澤 가 일꾼을 求해 보았다. 驛前에 가보니 아주 많다. 3名을 求해 오다가 高棧 眞植兄에게 1名을 주고 1名은 아번님家에 주고 1名 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1달 작정하고 2,700원 작정하고서 데리고 왔다.

◎ 9월 27일 (음 8월 22일) 일요일 雨雲

午前에 성꼴 朱大天이 借用해 간 一金 2,000원을 가저왔고 조곰 있다가 高棧 孝植이 와 돈을 借用해 달라고 해서 1,800(원)과 農協助合의 精米所에서 쓴다고 일前에 말해 온 一金 2,000원을 달라 해서 孝植이 3,800원을 가저 같다.

◎ 10월 3일 (음 8월 28일) 토요일

저녁에 집에 오니 高棧서 借用해 간 讚植과 敬浩가 돈을 가저왔다. 讚植 1,000 借用에 70원 더 가저오고 敬浩가 借用金 1,500원(에) 50원을 더 가저와 妻가 敬浩 집에서 借用해 간 돈은 50원 안 밭었다고 해서 잘했고 讚植에게 돌려줄 生覺이다.

◎ 10월 4일 (음 8월 29일) 일요일 雲

食前에 高棧의 孝植의 借用 1,800원과 아번님 借用해 간 4,000원은 오늘 들어왔다.

◎ 10월 6일 (음 9월 1일) 화요일 晴

妻 꼬추갈고 場에 가 18斤에 阡百원 (…) 妻는 場에 꼬추 18斤을 같고 가 一金 阡百원을 받어 왔다. 꼬추 해서 재미을 못 보았다.

◎ 10월 11일 (음 9월 6일) 일요일 晴

妻가 場에 꼬추 12斤을 같고 팔아같고 도야지 새끼을 사 같고 온다고 했으나 꼬추 870원을 받어 같고 도야지는 120원부터 2,000까지라고 그냥 왔다.

◎ 10월 13일 (음 9월 8일) 화요일 雲

午後 옆밭을 다 갈고 나는 新浦로 肥料을 가질라 같다. 같더니 肥料을 못 찾아 오겠다고들 하[며] 비료갑이 95%가 올랐다는 것이다. 봅합[복합]비료가 1포에 1,165원이라니 쌀 1叭에 3,000치고 2포반 뿐이니 큰일이다. 그냥 들 온다고들 오는대 나는 1포을 같고 왔다. (…) 食前에 里長에게 肥料代 640원을 드리였다.

◎ 10월 17일 (음 9월 12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德雨氏家에 가 도야지 색끼을 사왔다. 1,700원 白米 6斗갑이다.

◎ 10월 26일 (음 9월 21일) 월요일 晴

품꾼이 오늘 나같다. 1個月 일하고 2,800원을 주었다. 1個月間에 3日 노랐으나 그만두고 2,700원 작정하고 있었으나 100원을 더 주었다.

◎ 10월 27일 (음 9월 22일) 화요일 晴

妻가 發安으로 대추 3斗을 같고 가 1斗當 380원을 받었다니 生覺보다 아주 덜 받었다. 生覺컨대는 1斗當에 600원 以上 받을 줄 안 것인데 아주 덜 받었다. (…) 妻는 場에서 牛足 1足을 사 같고 와 닭을 잡아 곰을 한다고 사 같고 왔다.

◎ 11월 6일 (음 10월 3일) 금요일 晴

重植이 借用해 간 一金 2,000, 瑞雨 借用해 간 一金 3,000, 重植이 借用해 간지 1個月 2,000中 200원 가 2,200 受하고, 瑞雨氏 借用해 간지 2個月 3,000원 中 500 加해서 3,500 受.

◎ 11월 21일 (음 10월 18일) 토요일 雲晴

朝飯食事을 하고 나니 아번님이 오시여 큰아번님 동욕꿀 밭과 아논 옆 밭을 판다고 하니 사라고 하시여 알아보니 동욕꿀 밭을 큰아번님은 8叭라고 하고 큰어머니는 8叭 半이고 아논 옆 밭 4叭 半이라니 집안 흥정이라 어렵다.

◎ 11월 25일 (음 10월 22일) 수요일 晴

敏子가 一金 5,000원을 借用해 같는데 쌀로 달라고 一金 1,000원을 더 주기로 하고 白米 2叭를 달라했다.

◎ 12월 1일 (음 10월 28일) 화요일 晴冷

모처럼 安仲場에 같섰다. 場에 가 旣成靴 한 1

足에 400원과 모자 200원, 장갑 300원 新聞料 1,400원 等 一金 1,200원을 쓰고 왔다. 큰아번님에게 取得稅 1,434원을 支拂했다. 今年에 농꼴 6마지기 登記한 것이다.

◎ 12월 3일 (음 10월 30일) 목요일 晴冷 .

오늘 新浦 公販場에 벼 어제 오늘 5叭 실어다 1等 2叭 2等 3叭을 맞았다. 收得稅 3叭 16k에 양곡먹은 것 1叭, 押小麥도 1叭 먹었으니 肥料代 합해 7叭은 내가야겠다.

◎ 12월 6일 (음 11월 3일) 일요일 晴雲

登記申請費 농꼴 논, 밭. 앞 밭. 3자리에 780원인데 오늘 500원을 里長에게 드리였다.

◎ 12월 7일 (음 11월 4일) 월요일 雲

今年 總 搗精 白米 50叭, 種子로 2叭 막통, 公販場 벼 6叭 구가마, 殘 正籾 1叭 막통. (…) 除雪을 하고 朝飯食事 後에 高棧으로 搗精을 하라갈다. 午後에 오라해서 點心을 먹고 가 搗精을 했다. 25叭 搗精에 17叭 6斗다. 몇日前에 石油 갑도 白米 1斗 1升을 주고 白米 借用 3叭와 朱大天家 長利쌀도 高棧 裕浩에게 8叭 주라 해서 오늘로 다 대주었다. 작年에 진 長利米 31叭 2斗을 갑다.

◎ 12월 21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晴

음물을 팔랴고 高棧 같다 왔다. 3,500원에 작장했다.

◎ 12월 23일 (음 11월 20일) 수요일 晴

음물을 食前부터 始作해서 15尺파고 午後 늦게 끝났다. 물 나오는 것이 시원찮아 2尺만 더 파달라니까 만족하라고 해서 그냥 독을 뭇고 돌을 7尺가량 뭇고 저녁 7時頃까지 했다.

◎ 12월 24일 (음 11월 21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넘어 같다 왔다. 쌀 1叭갑 20원에 내고 음물 판 것 3,500원을 주었다.

◎ 12월 27일 (음 11월 24일) 일요일

朝飯 後에 高棧 農協總會에 같으나 午後가 되도록 成員未達 되어도 會은 했으나 賣渡하느냐 高利債을 얻어서라도 하느냐의 옥신각신 끝에 高利債을 白米 20叭얻어 갚도록 하고 會는 끝났다. 오늘 나는 理事職을 辭任했다.

◎ 12월 28일 (음 11월 25일) 월요일

新浦 公販에 벼 1叭 냄.

◎ 12월 30일 (음 11월 27일) 수요일

午後에 悠雨 家 도야지 도리기 했다. 우리도 3斤 사같고 왔다. 斤當 900원.

◎ 金錢借用者名單

9月 7日 陰 8. 2 申眞植 3,000
9月 8日 陰 8. 3 申瑞雨 3,000 500원 (入)
11月 6日 受
9月 9日 陰 8. 4 申우秀 4,000 (入) 百원 利
9月 12日 陰 8. 7 申悠雨 1,000
9月 15日 陰 8. 10 朱大天 2,000 食前(入)
9月 15日 陰 8. 10 申讚植 1,500 午後(入)
9月 16日 陰 8. 11 申裕浩 1,500
9月 19日 陰 8. 14 申裕浩 1,000
9月 19日 陰 8. 14 申茂植 2,000 (入)
9月 21日 陰 8. 16 申敬浩 1,500 (入)
9月 21日 陰 8. 16 아번님 4,000 (入)
9月 27日 陰 8. 22 申孝植 1,800 (入)
9月 27日 陰 8. 22 申重植 2,000
11月 ○日 受 200원 가→精米所
11月 6日 陰 10. 3 申敏子 5,000
朴三福 200
李仁性 200
申命植 300
家庭 2,700 外上 600〉3,300

◎ 肥料受配事項

3月 14日 尿素 1包 現金
5月 6日 流安 42斤 2,184원
〃 重過石 1袋 1,350원. 塩化加里 1袋 346원〉現 1,200원 支
6月 6日 尿素 4袋半 1,770원. 流安 28斤. 145 복合 85斤 739〉現 1,500원支
6月 16日 流安 1,924원 37斤. 復合 616원 70斤 〉現 完納 823원 80.9원

7月 16日 尿素 백90원 20斤. 流安 8십8원40전 7斤. 尿素 追 7斤 〉現完納 283원 2,784원

◎ 官用肥料代
66.3 復合 40k 572원 88錢
33.6 復合 20k 245원 75錢
75 流安 45 385원 斤當 52전
66 重過 40k 450원 68錢
42 尿素 25k 391원 95錢

1965년

◎ 年頭所感

家庭的으로 농꼴은 買收(6마지기)登記 取得稅 農藥 不便用으로 農事失敗 政府조치법으로 未登記실시 등 우리는 앞 농꼴 밭원等 登記申請 等等 費用이 상상外로 많이 들었다. (…) 長利米를 31叭나 졌다가 다갚고 今年糧度나 될까하고 井戶도 되었다. 남의 長利米 많이 저 걱정의 한해를 보냈으나 갚고나니 아주 후련하다. 今年엔 빚을 다 넹기였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 1월 2일 (음 11월 30일) 토요일 晴

敦植 發安 聖堂에서 結婚式을 12時에 하게 되며 新蒲로 가 삐쓰로 發安에 到着 좀 있다가 式을 보고 대절용 車로 오후 3時頃 着했으나 (…) 一金 貳百원 부조.

◎ 1월 8·9일 (음 12월 6·7일) 금·토요일 晴

孟植이 저녁에 와 오늘 食前에 와 白米 1叭만 달라고 졸라대며 마지못해 1叭는 주었으나 우리가 살 일이 큰일이다. 아무리 生覺해도 모자랄 것 같다. 인제 집에 잇는 거라고 食糧 6叭 半가량 나맛는데 糧渡도 모자란다. 안 줄 수도 없고 큰일이다. 아무리 生覺해도 얻어야겠다. 종일토록 氣分이 덜 좋다. 저녁엔 잠을 못 이루었다. 2叭는 모자란다.

◎ 1월 12·13일 (음 12월 10·11일) 화·수요일 晴

이판에 농꼴 골장 6마지기을 끄이을 해야겠는데 今年에는 못할 것 같다. 양도도 모자랄 형편이다. 남들은 넉넉할 줄 生覺하나 안 된다. 오늘은 高棧가서 놀다왔다. 洛光君에게 一金1800圓을 借用했다.

◎ 1월 21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晴

妻가 場에 白米 1斗을 갈고 같다 어린 것을 보며 집을 보았다. (…) 妻가 場에 갈라면 의레 돈 때매 걱정 끝에 不和가 온다. 우리는 糧食은 걱정없는 데도 돈에 몰려 이렇니 없는 집은 오즉할까.

◎ 1월 22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晴

다섯째祖 家 도지소 실수한 것을 오늘 수의사가 와 본 後에 잡탕을 했다. 斤當 70원인데 안 팔리여 그냥 같고 事業所로 같다. 뼈다귀는 이곳에서 다 팔렸다. 나는 사챙이뼈 130원에 사같고 왔다. 精肉은 기분이 덜 좋와 안 팔리는 모양이다.

◎ 1월 25일 (음 12월 23일) 월요일 晴

高棧 가서 洛光을 보라 같다가 그냥 도라 와 愍雨 보고 洛光君을 보면 一金 800원만 달라 같고 오라고 나하고 나중에 따지겠다고 했더니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一金 800원을 같고 왔다.

◎ 1월 27일 (음 12월 25일) 수요일 晴

종소리가 나서 가보니 肥料代을 게산 해서 오늘은 나도 게산 해보니 未配金 1590원이다. 今年度도 肥料代及 對外糧穀 籾 1叭 押中麥 1叭 小麥粉 1袋 等 게산되고 肥料代만 1590원 未拂되였다. 벼을 6叭 公販場에 냈다.

◎ 2월 12일 (음 1월 11일) 금요일 晴

배로 구둘이 들어 왔다고 홍정해서 사라고 해서 홍정했다. 한 간치에 600원에 홍정이 되었다. 午後에 저붕굴 배턱에 가 敎雨 德雨 等 같이 사왔다. 우리는 한 간치 사왔다. 저붕굴서 저오느라고 아주 혼났다. 저붕굴 6번 다니니 기진맥진이다.

◎ 2월 13일 (음 1월 12일) 토요일 晴

구둘 1간치가 모자란다고 해서 배사람과 다시

흥정해서 오늘 구둘을 더 주기로 해 午後에 오라고 했는데 日氣가 좋이 않아 못 가고 午後에 농꼴 가서 놀다왔다.

◎ 2월 14일 (음 1월 13일) 일요일 雲

食前에 일직 壹雨氏에게 一金 300원을 借用해 같고 구둘을 가질라 같다 두 번을 더 저왔다.

◎ 2월 22일 (음 1월 21일) 월요일 晴

白米 1叭 賣. (…) 洛光君이 쌀돈 내온 것 2次에 걸치 2,600원을 借用해온것에 1叭을 내고 660원을 더 찻고 1叭을 내주었다.

◎ 2월 23일 (음 1월 22일) 화요일

장모래 대청매기에 돈벌이 좋다고 해서 朝飯食事 일직하고 德雨 然雨 朴氏 等이 같다 힘만 들고 일공 품갑도 안 들어주다. 4人이 900원 벌고 왔다.

◎ 2월 26일 (음 1월 25일) 금요일 風

농꼴 이기찬이 穀草 23束을 가저감.

◎ 2월 28일 (음 1월 27일) 일요일

장화 때우는 사람이 와 長靴을 80원에 때웠다.

◎ 3월 1일 (음 1월 28일) 월요일 晴

나는 安仲場에 같었다 소금을 보기 爲해서다. 白米 6,7叭며는 좋은 農牛을 세울 수 잇었는데 가당찮게 올랐다. 15叭는 주어야 세울 것 같다. 큰 손해을 보았다. 돈도 準備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놓치고 말았다.

◎ 3월 2일 (음 1월 29일) 화요일 晴

오늘 朝飯食事 일직하고 三溪 앞바다 대청매기 하는데 일을 가 일공을 했다. 골장에 말박기을 했다. 별로 힘드는 일은 아니다. 품깝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 3월 3일 (음 2월 1일) 수요일

오늘은 더 일찍 일을 갈다 오늘도 골장 말박기을 했다. 어제 傳票가 나왔다. 166원 나왔다. 오늘은 집에 오니 3時다.

◎ 3월 4일 (음 2월 2일) 목요일 晴

오늘도 장모래 대청매기 일을 가 말 박는 일을 하고 왔다 날씨가 차거워 일하기 좋이[좋지] 안았으며 點心 먹고 나니 떨린다. 남의 돈 먹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아는 사람마다 날보고 무엇이 그리워 이런 일을 다니느냐는 것이다. 하로 종일 해야 150원 程度다.

◎ 3월 7일 (음 2월 5일) 일요일

아버님 家 소도지 7斗을 같다 드리였다.

◎ 3월 8일 (음 2월 6일) 월요일

10時 頃에야 三溪 앞 대청매기에 일을 같다. 얼음으로 土叭 쌓는 일을 했다. 일공은 과히 힘드는 편은 아니다.

◎ 3월 9일 (음 2월 7일) 화요일

오늘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일을 같다 물이 잇어 일공일을 못하고 柱雨氏 家에가 놀다가 點心 먹고 가 만보발기 흙을 젔다. 下午에 가 160원을 벌었다 매우 힘든다. 기진맥진이다. 집에와 夕飯床을 받고 잇으니 큰어먼님이 와 동욕꼴 밭을 사라고 졸라 대여 반승락은 했으나 쌀이 모자라 큰 걱정이다. 7叭 半을 달라는데 비싼 편이다. 쌀을 얻으면 사고 못 어드면 못 한다고 했다.

◎ 3월 12일 (음 2월 10일) 금요일

白米3斗을 내고 900원을 받어 918원의 肥料代를 支拂했다.

◎ 3월 13일 (음 2월 11일) 토요일

오늘 肥料傳票을 떼 같고 新蒲로 오라해서 高棧 瑞雨氏 家 婚事에 갈다와 新蒲에 가다가 傳票을 못 뗐다고 해서 그냥 도라왔다.

◎ 3월 18일 (음 2월 16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 後엔 新蒲場에 제사 흥정을 같섰다. 어린 것들의 홍역 관계로 주저하다가 1年에 한 번 제사을 철할 수 없어 지내기로 했다.

◎ 3월 20일 (음 2월 18일) 토요일 晴

땅갑 契約金 白米 5斗代金 1500원 支拂. (…) 동욕꼴 큰집 밭 산 것에 7叭半에서 白米 5斗 갑으로 一金 1500원을 큰어머님에게 드리어 7叭 나맜는데 쌀 商人에 주기로 했다.

◎ 3월 23일 (음 2월 21일) 화요일

밭 산 것 白米 40叭 오늘 대주었다.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오늘 肥料도 가저올 겸 新作路出役도 할 겸 가자고 해서 갈라고

하니 洛光君이 와 큰집에서 白米 四叭을 洛光君에게 내주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2叭을 소에 실어다 주고 (茂晟마다까지) 2叭는 敏子에게서 長利쌀 얻은 것을 洛光에게 대주라고 하고서 新作路出役을 나가 일하고 新蒲에가 아버지家 소로 肥料 流安 2포 尿素 3포을 실고 왔다. 肥料는 受配 流安 44斤 尿素 29斤 現金120원 支拂.

◎ 3월 27일 (음 2월 25일) 토요일 晴風

오늘 三溪 앞바다에 대청매기일 품갑을 준다고 해서 몇이 옥길리에 같었다. 4割 간조라고 해서 一金 300원을 타 같고 왔다.

◎ 4월 13일 (음 3월 12일) 화요일 晴

종일 논을 손질했다. 메리코론 4봉, 20원에 사 3봉만 썼다.

◎ 4월 14일 (음 3월 13일) 수요일 晴

前日 農藝技術學校의 鍾浩君으로부터 日前에 許한 學校 贊助金을 보내달라고 人便에 傳이 와 오늘 一金 貳百원을 敏植의 人便에 보냈다.

◎ 4월 21일 (음 3월 20일) 수요일 晴

妻는 장에 가 食口 신발을 사왔다. 肥料代을 장만하라고 해서 白米 4斗을 냈다. 肥料代 仟八百원이라고 한다. 大청매기 품싹이 나와 510원을 찾아왔다.

◎ 4월 26일 (음 3월 25일) 월요일

食前에 肥料代 1800원을 里長에게 支拂했다. 동욕끌 큰아번님 밭을 산 것이 보리도 땅으로 기여들어 갈 분[뿐] 아니라 坪數도 200평도 못 되 보이는 것 같고 누구나 비싸다고들 해서 아주 氣分이 나뿌다. 260평이라고 하더니 200평도 못 되니 말도 아니게 비싸다. 더군다나 밭머리 몇 평 외 따비의 부평아주버니와 말썽이 되었다. 氣分 나뿌다.

◎ 4월 27일 (음 3월 26일) 화요일 晴

오늘 동욕끌 밭갑 完納. (…) 朝飯食事을 하고 나니 쌀商人 洛光君이와 큰 아번님 家에서 白米 1叭을 가저 가랬다고 해서 受叭을 달아주고 큰어머니가 2叭 나문 것은 오늘 가저간다고 해서 독에서 담아 놓았다. 인제 집에 잇는 것이라곤 白米 5叭와 벼 200斤 가량 나맜다. 不足일 듯하다. 糧米 肥料代 家用 품갑 쌀 등 아주 不足인데 큰일이다. 저녁나절 큰집 일꾼 아이와 白米 貳叭 나문 것을 같이 큰집으로 저같다. 오늘로 동욕끌밭 산 것을 다 가저같다. 아주 비싼 밭이다. 坪當 白米 3升만 사는 것을 4升도 더 준 셈이 아주 시원이 치루었다.

◎ 4월 30일 (음 3월 29일) 금요일 晴

官用肥料受配 尿素 25斤, 重過石 20斤, 鹽化加里 25斤, 復合 20K 1包, [합] 現金1800원. (…) 復合肥料는 다 찾아오지 못해 덜 찾았다. 朝飯食事 後에 소을 같고 新蒲에 가 肥料을 찾아 같고 와 點心을 먹고서 아논 苗板의 가름을 따고 물을 퍼 실었다. 늦게 肥料을 나누는 듯하여 肥料을 나누어 같고 왔다.

◎ 5월 10일 (음 4월 10일) 월요일 晴

밭원 1斗落 昨年에 賣渡했든 논을 쌀도 안 가저오고 해서 今年엔 내가 하고 금년 農事지여 長利을 갖어오면 주겠다고 가랐다. 長利 今年에 6叭니까 9叭가 되는 셈이다.

◎ 5월 15일 (음 4월 15일) 토요일 晴

三德國民學校 先生들이 오늘 大谷으로 놀라 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떡을 좀 했다. 안골祖家에서도 했다. 敎職員들이 술 3斗을 같고 와 參席人員 10餘名이 其他附담을 책임젔다. 생선 골득이 접으릭기 點心代 白米 1斗 담배 壹仟六百원이다. 1人當 1100원 程度가 아닌가 한다. 잘들 놀다가 오후 6時 頃에 헤젔다. 나도 술이 취했다.

◎ 5월 23일 (음 4월 23일) 일요일 晴雲

聘母任이 오늘 떠나시는데 노자로 200원을 드리였다.

◎ 5월 26일 (음 4월 26일) 수요일 雲 細雨

洞里에서 15叭의 肥料을 借用했다고 해서 우리도 硫安 1包袋 尿素 1 復合 1(16~20) 等을 가저오게 되여 아번님이 찾아다 주시였다.

◎ 6월 8일 (음 5월 9일) 수요일 晴

저녁나절 柱雨가 白米 1叭을 洛光君에게 쌀돈

낸 것을 달라고 해서 1叭을 柱雨에게 주었다. 鹽田 人부에게 주는 모양이다. 穀草도 百束 가저 같다. 一金 600원을 받었다.

◎ 6월 12일 (음 5월 13일) 토요일 晴

농꼴 경회가 와 농꼴 밭원 5斗落의 혼자 맛겠다고 해서 매끼였다.

◎ 6월 19일 (음 5월 20일) 토요일

朝飯食事 後에 春植이 돈 30만원환을 (正籾을) 팔아 달란다고 米商人을 보고 오라해서 洛光을 보고 왔다. 洛光군은 알아보겠노라고 하나 自信없는 대답이다. 일꾼 1名을 얻어 동욕꿀 보리을 떨고 아논 일곱 데지기[되지기] 깨끼을 했다. 보리 떨어 담아보니 今年 總 叭數 4叭半 程度다. 斤數로 早麥까지 630斤 程度다. 아주 소출 감소다. 보리 흉년이다.

◎ 6월 21일 (음 5월 22일) 월요일

쌀 갑 3斗 賣 1100원을 갈고 장에가 농약 지푸테레스 1봉(1kg)을 800원에 사고 其他 1,300원을 쓰고 왔다. 장꾼 모두 가뭄 때매 걱정이다. 商人이 먼저 흉년을 타는지 장사가 안 되여 걱정이라고 한다. 먹기 장사도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한다.

◎ 7월 1일 (음 6월 2일) 목요일 晴

妻가 장에 가게 되여 종일 어린 것을 보아 주었다. (…) 妻는 結婚반지을 一金 3500원에 賣했다. 大麥精을 買하야 늘리것다는 것이다.

◎ 7월 18일 (음 6월 20일) 일요일 雲

高棧 작근집에 가 尿素 1包袋을 借用해다가 농꼴 밭원 5斗落 끼언고 또 아논 1斗 5升落 밭원 3斗 5升落 等을 施肥하는데 아주 주는 둥 마는 둥 했다. 아주 적다.

◎ 7월 21일 (음 6월 23일) 수요일 雲

官用肥料 運반. (…) 朝飯食事 後에 雨中에 新浦에 가 肥料을 싯고 왓다. (…) 下午에 高棧 작근집에서 借用해온 尿素 1包같다 드림. (…) 반외상 비료수급이 一次에 復合 16-20 2 包, 流安 2 包, 尿素 2 包, 重過石 2 包, 配合 1包, 2次에 流安 1 包, 尿素 1包, 配合 1 包,有상肥料復合 20-20斗 50斤 今般에 受及함.

◎ 7월 26일 (음 6월 28일) 월요일 雲

自輪車을 얻어 갈고 안중장에 가 도야지 새끼를 1,700원에 샀다. 上치가 2,500원까지 잇으나 中치 上을 산 셈이다. 場에서 點心을 먹고 生覺끝에 洋服을 마치기로 결심하고 洋服店에 들어가 모든 것을 生覺지 않고 마치였다. 夏服겸 春秋服으로 4,500원에 마치였다. 많은 돈을 쓰고 오니 무엇이나 잊은 것 같다. 내손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허용한 것 같다.

◎ 8월 5일 (음 7월 8일) 목요일 雲

下午엔 새끼 꽈논 것을 갈고 개섬으로 소금을 받으러 갈다. 앞에서 交換할라고 한 것이 今般 鹽被害로 개섬까지 가 10 둘레에 소금 2叭을 받고 10 둘레는 돈으로 달라 했다. 돈을 몇일 잇다 찾아가라고 해서 소금 2叭만 받어 갈고 왔다. 今年 糧鹽은 될 상 십다.

◎ 8월 6일 (음 7월 9일) 금요일 雲

김장 種子 及 其他의 흥정 次 場에 갈다. 妻가 場에 가 洋服을 찾아갈고 왔다. 고얀한 짓을 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양복을 해 입다니 後悔가 막심하다. 잘 지은 農事가 이리 망하다니 참으로 애용之事다. 洋服을 찾어왔것만 氣分이 不安하다.

◎ 8월 7일 (음 7월 10일) 토요일 雲晴

今年 總 精麥 3叭 2斗.

◎ 9월 6일 (음 8월 11일) 월요일

妻가 場에 가는 고로 종일 어린 것 보아주었다. 돈 모두 내가 준 것이 5,000원 가량인데 秋夕 흥정을 어이 할 것인지! 今年엔 더욱 돈이 몰린다.

◎ 9월 20일 (음 8월 25일) 월요일 晴

오늘부터 농꼴 堤防工事을 面에서 始作해서 첫날 取勞者가 約 400명가량 왔다. 나는 십장 及 잡부로 감독을 했다.

◎ 9월 26일 (음 9월 2일) 일요일 晴

水害民 堤防復舊工事關係로 가을일이 늦어질 듯하다. 벼 가을이 곳 始作해야 할 始期에 일날도 안 잡고 있다. 하로 일을 나가면 일당 300원 400원은 올른다. 그남상 지여 놓은 農事도 제대

로 못 끄디릴 것 같다. 妻는 오늘 場에 같다왔다. 今年엔 꼬추 금새가 좋은데 꼬추을 했어야 잔돈푼이나 만저보는 것인데 꼬추 凶年을 當하니 잔돈푼이 궁해다. 돈이 아주 말라붙었다.

◎ 10월 1일 (음 9월 7일) 금요일 晴

妻은 場에 집을 비우고 같다. 돈 장만하라 같다. (…) 甲秀 家에 一金 300원 부조.

◎ 10월 3일 (음 9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일을 나가 午前에 洞里에서 맡은 일은 끝났다. 평균 小麥粉 半包이상 벌게 되었다. 金額으로 500원 가량 벌게 되었다.

◎ 10월 11일 (음 9월 17일) 월요일

今年 大豆 白斗 12斗, 黑斗 7斗.

◎ 10월 15일 (음 9월 21일) 금요일

농꼴 밭원 5斗落 495束, 앞아논 7升지기 118束, 동옥꿀 52束, 달뱅이 23束.

◎ 10월 16일 (음 9월 22일) 토요일

妻는 安仲場에 같다. 英浩의 세타을 사 같고 왔다.

◎ 10월 18일 (음 9월 24일) 월요일 晴

앞 5升지기 60束, 1斗지기 95束.

◎ 10월 19일 (음 9월 25일) 화요일 晴

오늘도 몇 군대서 勞賃을 받으라 왔다. 勞賃條로 27万원인데 불과 4万원을 나누어 주자니 6부박에 안 된다. 야단덜이다. 마지못해 鹽160叭을 더 주었다.

◎ 10월 20일 (음 9월 26일) 수요일 晴

穀草代로 貳仟五百원을 타다가 아번님에게 仟원 드리고 仁休氏에게 仟원을 드리였다. 五百원은 來日 李柱乙氏宅에 母親의 回甲請牒이 있어 가기로 했다.

◎ 10월 23일 (음 9월 29일) 토요일

豚肉 3斤 半 사오다. 330원.

◎ 10월 26일 (음 10월 3일) 화요일 晴

쌀끔이 아주 폭낙해서 오늘 白米 1斗 當 310원이라니 다른 物件갑이 말할 수 없이 오르고 穀價만 폭낙이라니 農民이 살 수가 없다. 今年엔 農事도 잘못 지였으려니와 穀價마저 폭낙이니 허덕이느니 農民이다. 더구나 肥料갑도 6,70% 나 올랐으니.

◎ 11월 3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種子 1叭 아논 11斗落에서 농꼴 아논 11斗落 26叭 約 4,000斤, 농꼴 밭원 5斗落 10叭半 約 1750斤.

◎ 11월 10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藥行商人이 와 졸라대여 어린이 보약 노젤정이란 藥을 外上 400원에 샀다.

◎ 11월 14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今年稻叭數 게꼴 除外, 농꼴 11斗落 27叭, 농꼴밭원 5斗落 10叭, 앞 5斗落 11叭, 죽은벼 앞밭원 5斗落 10叭, 아논 7升지기 2叭. (합) 60叭.

◎ 11월 16일 (음 10월 24일) 화요일 晴

妻가 場에 간 고로 어린 것을 보아 주었다. 어린 것들의 겨울 衣類 等 1,000원 어치의 흥정을 해왔다. 요즈음 잔돈푼이 몰렸다. 품갑도 밀린 것을 해결해야겠는데.

◎ 11월 17일 (음 10월 25일) 수요일 晴

今年 總收穫이 64叭다.

◎ 11월 18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당장 돈이 몰려 白米 3斗을 냈다. 930원.

◎ 11월 20일 (음 10월 28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멍석을 널고 농꼴을 같더니 金鎭元氏가 소곰 (鹽) 1叭을 같다 먹으라고 해서 鹽이 잇느라고 하니 金氏가지고 왔다. 堤防일을 보아준 분들에게 鹽 1叭씩 주었노라고.

◎ 11월 21일 (음 10월 29일) 토요일 晴

朴三福이와 품갑을 야기해서 200원을 주었다.

◎ 11월 22일 (음 10월 30일) 월요일 晴

농꼴 明光郁 穀草 110束 일로 가저감. 일 5日分.

◎ 11월 23일 (음 11월 1일) 화요일 雲

金鎭元氏 穀草 210束 줌. (…) 농꼴 金氏가 와 穀草을 좀 달라고 해서 뗄 수 없어 穀草을 210束을 주었다.

◎ 11월 28일 (음 11월 6일) 일요일 雲

洛光君에게서 一金 400원을 借用 朴三福 품

갑을 주었다. 백미 3두 一金 600원으로 다 주었다.

◎ 12월 3일 (음 11월 11일) 금요일 雲

搗精이 30叭 3斗에서 搗精料로 1叭 3斗을 주었다. 來日 찌을 것까지 주었다.

◎ 12월 4일 (음 11월 12일) 토요일 晴

金氏을 얻어 소 두 필로 白米을 넹겨왔다. 29叭 中 둘재 祖父任이 白米 2叭을 借用해달라고 해서 借用해 드리였다. 둘재祖父任이 借用한 白米 2叭는 精米所에서 借用한 것이니 悠雨을 주라고 해서 悠雨을 주었다. 玫雨家에서 白米 2叭 長利 먹은 것을 白米 2叭을 실어다주어 鄭巡警이 受하고 利子는 못 가저 갈다. 그리해 집으로 25叭을 실어왔다. 25叭을 건너방에 다 쌓는데 아주 심이 들었다. 둘재祖 白米 2叭 借用 해드리고 玫雨家 白米 2叭 長利支拂 利子支拂.

◎ 12월 7일 (음 11월 15일) 화요일 晴

큰아번님家 소을 얻어 한 발이[바리]을 실고 아번님家로 실어 6叭을 三溪 公販場에 냈다. 1叭 46k을 收得稅하고 40叭는 肥料대로 했다. 公販이 끝나고 玉吉의 方連植 父親내의 壽宴 잔치에 갈다 왔다. (…) 一金 百원을 부조하고 밤에서야 집에 왔다. (…) 4叭代 二等 6332원.

◎ 12월 8일 (음 11월 16일) 수요일 晴

白米 10叭 6斗에서 2斗 先賣, 새우젓 代 1斗 5升, 搗精料 1斗, 2斗 先拂.

今年度 搗精事項 白米 1차 1叭, 2차 1叭 7斗, 3차 29叭 3, 4차 10叭 7斗, 42叭 7斗 (합) 42叭 7斗. 種子 正籾 2叭 막통, 1叭 막통 殘. 公販場 6叭 出. 9叭 1叭 殘.

◎ 12월 19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晴

高棧에 오니 水原 작은 아번님과 高棧 작근어머니가 싸우고 있다. 뱃말 논을 昨年에 20叭 주기로(4斗落) 했는데 今年에 줄 줄 알았더니 못주겠다고 하드라고. 水原 작근아번님이 펄펄 뛰고 야단이다. 高棧 原木 事業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떠들고 있으니 아주 창피하고 不安하다.

◎ 12월 22일 (음 11월 30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高棧 舜雨氏를 찾아 갈다. 朱大天氏가 쌀을 長利로 달라고 했는데 기별을 해달라고 갈더니 朱大天氏도 舜雨氏家에 安龜永氏와 같이 있다 長利 쌀 었어다가 舜雨氏의 魚業을 同業을 하는 모양이다. 그리 해 20叭을 주기로 했다.(4斗 長利로)

◎ 12월 23일 (음 12월 1일) 목요일 雲雪

朝飯食事 後에 마실을 가니 里長任이 新浦의 公販日이라고 벼를 내가라고 해서 準備해 갈고 11時 頃에 벼 1叭를 내고 마트리 51斤 半을 냈다. 우리 1叭와 둘재祖 2叭을 싫고 新浦에 갈다. 우리 1叭는 1等을 맞았다.

◎ 12월 24일 (음 12월 2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里長집에 가 肥料代을 計算을 할라니 바뿌다고 해서 못하고 다섯재祖 家에 가니 윗상게 宗山 關係을 말씀이 나왔다 宗祖인 양雨氏가 自己所有라고 한다고 그냥 빼길 수 없다고 걱정을 하며 알아 볼라니 돈이 있어야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리 宗中에서 키우고 잇는 쌀이 있것만 큰아번님이 내 놓아야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먹는 것이라면 휫하고 먹는 집이 큰 집이다. 高棧을 갈더니 大宗會가 있어 參席했다. 高棧 가 알아보니 朱大天이 투기 事業인 큰 魚網을 한 하는데 거기다 쌀을 주었는냐고 입가진 사람마다 말기는 것이다. 가마니 生覺하니 잘되면 좋이만 잘 못 데면 받기 어렵다고 해서 舜雨을 두 번이나 찾아 갈으나 못 만나 집에 와 妻을 보냈다. 주기로 했던 白米 20叭는 못하겠다고 하고 왔다.

◎ 12월 25일 (음 12월 3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마실 가 있어니 高棧 舜雨氏와 安龜永君이 와 어제 저녁에 妻가 城谷을 갈다 온 것을 말하고 잘해 달라고 졸라 대여 借用을 해가라고 했다. 집에 와 生覺하니 너무나도 큰 事業을 하는 고로 궁리타 못해 妻을 보내여 朱大天을 만나 보라고 했다. 갈다 오더니 잘 되였다고 하니 아주 多幸이다.

◎ 12월 28일 (음 12월 6일) 화요일

食前에 들에서 들어오니 孟植이 왔다. 朝飯食事을 같이 하고 春植이 事業하는데 아번님 보고 돈을 좀 要求次 온 모양이다. 春植의 아푸로 일비라고 준 2斗落을 팔아달라고 온 모양이다. 朝飯食事에 아번님이 오시였다. 孟植이 前夜에 말한 말씀을 하시며 줄 것 없다고 잡아 떼는 것이다. 벼 몇 가마 준 것으로 다주었는데 줄 것 없다는 것이다. 괜한 일이다. 당치도 않은 일이다. 春植과 庶母와 싸운 이야기까지 하며 나물하고 있어 매우 듯기 곤란하다. 庶母 말이라면 껌벅하는 아번님인지라 귀전 박이다. 격고 나문 일이라 아번님 속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點心을 먹고 孟植은 허탕치고 올라같다. 그리 벌이 누구을 모아줄랴는지! 庶族을 많이 모아주어 얼마나 덕을 볼 것인가?

◎ 乙巳年을 보내면서

60年來 처음 오는 旱魃이 잇는가 하면 50年來 처음 오는 장마였다. 또한 80老人도 볼 수 없었든 海溢로 막심한 被害을 보았다. 80 餘日 가물음에서 다 죽다 깨연난 穀植을 海水가 몰려와 앞 鹽田堤防이 터저 와 우리 집 앞까지 海水가 처와 農作物은 아주 못쓰게 되었다. 大谷部落에 큰 不幸이 왔다. 우리는 농꼴을 괜신히 求하여 큰 위급을 덜었다. 하도 風被 많은 해인 고로 가을 秋收 때까지 마음 못 놓았다. 秋收을 해보니 昨年보다 白米 10叭가 떨어진다. 우리가 洞里에서 第一 잘 지였다는 것이다.

1967년

◎ 年頭所感

몇年을 두고 격은 일이지만 다른 것을 볼것없이 우리네 땅갑이 올라가야 농촌의 살림이 는다는 것인데 今年엔 도치에 移舍 땅 賣渡人이 늘어간다. 이동리가 面의 畓洞이라는곳도 땅이 많이 나고 잇으나 원매자가 없다. 政府에서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農村실정은 말이 아니다. 5都會 사람 마냥 쓰고 하고 나면 단 2,3個월 유지도 안된다. 우리가 洞里에서 괜찮다. 하지만 우리 농사 지며 여유라고 안 쓰고 못 먹은 것 남는 것이다. 간12月에 壹雨氏-아논 513坪와 밭원263坪을 53叭에 買入했다. 昨年에 長利논 것도 모두 잘 受탑이 되였다.

◎ 1월 4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孟植과 같이 南大門市場에가 오바을 골라 3,000원주고 사입고 …

◎ 1월 5일 (음 11월 25일) 토요일

春植을 만나 朝飯食事하고 漢藥房에 들리였다. 진찰하니 신경성위장렴이라고 한다. 약을 20첩 먹으면 효력이 있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5첩에 一金 仟을 주었다.

◎ 1월 7일 (음 11월 27일) 일요일

今年에 웬일인지 土地賣買가 많다.

◎ 1월 9일 (음 11월 29일) 화요일

安仲의 사法書士에게 果樹園 登記簿登本을 해달라고 一金 200원을 주고 來日까지 보내달라고 말하고 왔다.

◎ 1월 10일 (음 11월 30일) 화요일

午正頃에 농꼴서 李昶鎔 明光旭君이 와 來年度에 농꼴논 16斗落을 농싸지여 줄 것이니 달라고 왔다. 白米16斗에 달라는 것이다. 그리 해 반승락을 했다.

◎ 1월 11일 (음 12월 1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일직 新浦로 해서 安仲 가서 등기부등본 한 것을 찾아 같고 서울에 가다가 (…) 永登浦에 가 敦一을 만나보고 電話을 걸으니 오라고 해서 같다. 安仲에 있는 果樹園 소개다. …

◎ 1월 12일 (음 12월 2일) 목요일

흥정은 거의 닥아오는 듯하다.

◎ 1월 13일 (음 12월 3일) 금요일

午後에 安仲에 간 命植이 왔다. 安仲에 오늘 가자고 한다. 서울사람에게 말한 4500평의 어제 잰 것이 4500평이 못된다는 것이다. 3540평이라니 100평이 줄었으니 …

◎ 1월 14일 (음 12월 4일) 토요일

安仲에서 오라고 해서 朝飯食事後에 安仲에 出發해 新浦에 가니 安仲行 10時 半車 떠나 12時半로 出發했다. 果樹원 소개에 말을 하자는 것이다. 오늘도 만날 사람을 못 만나 來日 일찍 만나기로 하고 왔다. 잘 되어야 할 일인데 취위에 떨며 다닌 보람이 있을 것인데 …

◎ 1월 15일 (음 12월 5일) 일요일

소개해오던 安仲果樹園 賣買契約締結. (…) 安仲으로 일직 나오라고 해서 일직 일어났으나 한냉한 한파가 몰려와 令下 16度란 차거운 날씨다. 朝飯食事를 하고서 命植과 같이 安仲으로 떠났다. 安仲에 가 賣渡人을 만나 절충하고 나니 서울에서 왔다. 비로서 賣買雙方人이 한자리에 안치고 흥정을 했다. 70원에 떠러져 24,800원에 賣買契約을 締結했다. 소개을 해 끝나니 개운하다. 소개비을 얼마나 줄 거일까. 2萬원 이상 받어야 할 것인데.

◎ 1월 20일 (음 12월 10일) 금요일

下午에 洛光君이 와 白米 1叭을 賣出하여 330원을 받아 먼저 借用한 一金 1000원을 洛光君에게 주고 2300원을 받었다.

◎ 1월 21일 (음 12월 11일) 토요일

妻가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場에 같다. 설흥정과 어린 것들 옷 내 소화藥등의 흥정을 해왔다. 一金 3,000원 가량 다 썼다.

◎ 1월 22일 (음 12월 12일) 일요일

농꼴 논 16斗落에 16斗에 도급준다. 朝飯食事後에 농꼴 李基讚君이 移舍간다고 집을 賣한다고 해서 농꼴가 알아보니 아직 멀었다고 한다. 우리와 임 穀草 150束 가져간 것을 解決하고 가라고 했다. 李昶鎔과 明光郁와 농꼴논을 도급 달라고 졸라대여 마지못해 오늘 도급 契約條로 白米 5斗을 주고 移秧하고 5斗 벼비고 6斗 合16斗에 결정하고 술과 점심을 먹고 白米 5斗을 같고 갔다.

◎ 1월 27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둘재祖 家에서 長利 白米1叭 5斗入. 長利쌀은 오늘로 다 들어 왔다.

◎ 1월 28일 (음 12월 18일) 토요일

둘재祖父 家에서 받은 長利 白米 1叭을 壹雨氏 땅갑 줄 것을 仁休氏 家에 주라고 해서 敝雨氏가 와 敎雨氏 家에 가 달아주었다.

◎ 2월 3일 (음 12월 24일) 금요일

安仲의 金奎植이 왔다. 果樹원 登記가 잘 않되는 듯하니 平澤까지 가자고 졸라대여 마지못해 떠나 三浦가 理髮을 하고나니 5時다. 급히 平澤에 가니 7時 측량기사를 만나니 사측을 한 것 같다. 安仲에 와 잤다.

◎ 2월 4일 (음 12월 25일) 토요일

妻가 흔떡을 하라 어린것들을 다 데리고 와 해같고 1時 頃에 왔다. (…) (흔떡 2斗) 料140원.

◎ 2월 5일 (음 12월 26일) 일요일

어린것들 옷을 해줄라고 妻가 場에 같섰다. 永登浦 孟植 보고 해오라 했는데 오늘까지 기별이 없어 場에 같다. 돈에 쪼겨사는 人生 오늘도 妻가 場에 가며 한바탕 푸념이 있었다. 1,000원 어치. 英浩 雄浩의 잠바.

◎ 2월 13일 (음 1월 5일) 화요일

서울에서 安仲의 과수원 殘金 치룰 날이 닥아오것만 오늘까지 않와 기다리게 한다.

◎ 2월 15일 (음 1월 7일) 목요일

오늘이 安仲에 과수원 殘金 치루는 날이다. 종일토록 기다리었으나 오지 않아 기다리였다. 기다리다 못해 新浦에 가 서울로 電話를 걸었다. 오늘 못 와 殘金 치루지 못하겠다고 편지를 했다고 20日까지 참아 달라는 것이다. 安仲의 賣渡人도 조바심이 生起여 人便을 띠였다.

◎ 2월 19일 (음 1월 11일) 일요일

朝飯床을 받고 있으니 命植이와 安仲 과수원 계則을 한 결과 또 360坪이 줄었다고 한다. 입장이 골란해진다. 安仲서 만나자고 해서 安仲에 같다. 來日이 殘金支拂日이다. 혹시나 해서 電話을 걸었더니 來日 잔금이 못 치루니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또 서류도 잘 안 되여 5日間 연기했다. 院長이 서울 좀 같다오라고 해서 來日

서울 가기로 하고 一金 阡원을 院長이 路資을 주었다.

◎ 2월 21일 (음 1월 13일) 화요일

朝飯食事라야 11時 頃에 하고 崔氏는 못 만나고 主人만 만나 25日날은 꼭 殘金을 치루도록하고 春植이 孟植家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같다.

◎ 2월 24일 (음 1월 16일) 금요일

李起찬이 일품갑 7名치을 못주고 移舍간다고 농꼴 里長과 상의하라 하고 떠났다.

◎ 2월 25일 (음 1월 17일) 토요일

오늘 安仲 과수원 서울 사람이 와 잔금을 치루니 安仲으로 와 기다리라 해서 安仲에 일직 같다. 종일 기달려도 안 와 電話을 했더니 月요일에 오겠다고 한다. 氣分이 아주 덜 좋다. 기별도 없이 약속 不이행하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月요일도 두고 볼일이다.

◎ 2월 26일 (음 1월 18일) 일요일

白米 1斗을 농꼴 韓氏을 일품 갑으로 주었다.

◎ 2월 27일 (음 1월 19일) 월요일

오늘이 서울에서 온다고 했건만 믿어지지 않는다. 기다릴 필요도 없이 되였다. 아주 約束없는 사람들이다. 命植이 安仲에서 기다리다가 電話하니 틀렸다고 한다. 와 서울에 가자고 졸라대여 마지못해 4時 半 車로 命植과 떠났다. 7時 頃에 서울에 着하고 11時 頃에 主人을 만난결과 約 10日 기달려주라는 것이다. 밀지 못할 일이라 안할 모양이다. 이제까지 헛수고했다. 나는 기다릴 必要도 없이 生覺된다. 春植과 같이 잤다.

◎ 2월 28일 (음 1월 20일) 화요일

레디오 약170원 사 같고 12時 頃에 歸家했다.

◎ 3월 9일 (음 1월 29일) 목요일

가마니을 짜고 있으니 다섯재祖 家 아주머니가 와 쌀을 달라고 졸라대어 2叭을 長利로 주기로 했다. 그리해 三溪에 保管한 것을 주라고 하겠다고 했다.

◎ 3월 10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朝飯食事 後에 가마니을 짜다가 서울을 갈라고 生覺하고 命植 安仲을 보냈다. 安仲 가면서 2時까지 안 오면 新浦로 오라고 해서 2時 半 頃에 三溪에 保管한 白米 6叭 中 2叭와 肥料代로 천원 가량 妻을 주라 하고 서울로 떠났다.

◎ 3월 11일 (음 2월 1일) 토요일

서울서 과수원 산 主人을 만났다. 만났더니 돈이 잘 돌지 않아 미루어주던지 아니면 몇일 기달려 주던지 해라고 하며 오늘 收金 결과을 보아야겠다고 하여 春植과 같이 收金을 나가 約11萬원을 收金하여 命植에게 一金 七萬원을 주어보내고 나는 모래 네려가라고 해서 그리하기로 했다. 2日後엔 約 67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 3월 13일 (음 2월 3일) 월요일

다섯째祖 家 長利 白米 2叭 가져가다. 代金으로 오늘 12時까지 돈이 된다고 하더니 春植이 收金 나같다 오더니 來日 가라고 하여 집 떠난지 여러 날이라 조바심이 生긴다. 또 묵기로 했다. 땅 흥정 부치고 이렇게 속을 썩다니 서울놈들이 아주 못미들 놈들이다. 妻가 肥料代 參仟參百원 里長에게 支拂. 尿素 3包 復合 1包代.

◎ 3월 14일 (음 2월 4일) 화요일

果樹園 소개費로 賣渡人則에서 壹万원 受 (…) 12時 頃에 만나기로 하고 어제 저녁에 떠나 기다리고 있으니 10時頃에 命植이 왔다. 돈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 12時 頃에 春植이 왔는데 돈이 4만원뿐 안 된다고 한다. 또 기달릴 수 없어 떠나기로 하고 命植 다 떠났다. 安仲으로 와 6時頃에 到着하니 아주 氣分이 덜 좋와 한다. 땅 팔고 이렇게 속쎄기는 것이 어데 있느냐고 투덜대고 있다. 마지못해 소개費로 一金 万원을 주었다. 나는 이제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소 사는데 보탤까 한다. 집에 와 들이니 다섯째 祖家에서 말해오던 長利 2叭갑을 三溪에서 주었다고 妻가 한다.

◎ 3월 15일 (음 2월 5일) 수요일

三溪 姜氏에게 가 白米代 5叭 갑을 냈다. 万七千원 넜다. 參仟參百원 肥料代 주고 來日 소를 사라 갈까 한다.

◎ 3월 16일 (음 2월 6일) 목요일

牛買 20,000원 妻 春秋服 2,000원. (…) 安仲場 갈 準備을 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갈다. 場에 가 牛市場에 들리였다가 布木전에 가 妻의 春秋服을 마치였다[마추었다]. 春秋 約 2,000餘원 흥정을 했다. 牛市場에 와 소를 골으니 제대로 돈에 만는[맞는] 것이 없다. 저녁 나절서야 20,000원 짜리를 샀다. 꼬[코] 뚠지 오래지 않은 어수래기 송아지다. 白米 6叭 半이 넘는다. 白米 10叭만 場中 第一牛를 고르던 것이 20叭라야 산다. 소금이 말할 수 없이 비싸다. 모처럼만에 妻와 같이 장에 갈다. 인제 먹성이나 잘 하고 잘 자라주었으면 한다.

◎ 3월 17일 (음 2월 7일) 금요일

肥料傳票 떼왔다고 해서 일직 서둘러 비료를 찾으라 갈다. 三溪가 肥料 실고 왔다. 尿素 3包 復合(18~40)1包 受配.

◎ 3월 19일 (음 2월 9일) 일요일

서울에서 來日 安仲으로 오겠다고 電報가 왔다.

◎ 3월 20일 (음 2월 10일) 월요일

서울에서 10時까지 安仲으로 오겠다고 해서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安仲에 갈다. 安仲에서 기다리니 12時 頃에 왔다. 과수원을 구경하고 광덕편 과수원을 보고 만호바다 구경을 갈섰다. 殘金은 來日 서울에 와 찾으러 와달라고 한다. 내가 갈 수 없어 命植을 보냈다.

◎ 3월 21일 (음 2월 11일) 화요일

命植이 오늘 서울 갈다 올 날인데 저녁 늦도록 기달리였으나 않왔다. 오늘도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서울 놈들은 모든 것에 믿을 수가 없다.

◎ 3월 23일 (음 2월 13일) 목요일

三溪에서 서울에 도라오는 命植을 만났다. 一金 三阡원을 과수원 전지 作業費로 쓰라는 것이다. 茂晟에게 來日 전지를 하라고 一金 천200원을 주었다.

◎ 3월 24일 (음 2월 14일) 금요일

어먼님 제사 흥정도 했다. 500원. 신문代 130원 支拂 朝鮮日報.

◎ 3월 26일 (음 2월 16일) 일요일

朝飯食事 後에 校長이 訪問했다. 술을 같이 하고 헤여젓다. 一金 萬원만 借用해달라는 것이다.

◎ 3월 30일 (음 2월 20일) 목요일 細雨

來日 서울 갈까 하다가 오늘 서울을 떠났다. 가랑비가 종일 오락까락했다. 서울에 4時 頃 着했다. 主人이 來日이면 돈이 된다고 해서 主人집에서 잣다.

◎ 3월 31일 (음 2월 21일) 금요일

春植은 水金[收金]을 나가고 春植이 水金을 헤갈고 와야 네려오게 되는 것이다. 主人집도 藥業이 잘 안 된다. 春植이 水金 나가더니 電話왔는데 돈이 안 되였다고 해서 主人이 6일에 安仲에서 만나기로 하고 下午 3時에 떠났다. 水原에 와보니 집에 올 차가 없다. 水原에 집으로 진흥청 있는 곳으로 가 찾아보아 吉龍國을 만나 집으로 찾아 들어갈다.

◎ 4월 6일 (음 2월 27일) 목요일

朝飯後에 물꼬을 一週하고 安仲 갈 準備을 하고 있으니 命植이와 같이 安仲에 갈다. 11時頃에 着해 서울 사람을 기다리였으나 3時半이 지나도록 기다리였으나 오지 않아 命植만 서울로 가고 나는 집으로 왔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오늘 安仲으로 올터니 기다리라고 한 사람들이다. 벌서 여러 번 속았다. 그 사람 때문에 나 역시 시없는[실 없는] 말을 여러번 했다. 무었을 이렇게 해달라고선 이행치 않아 나도 기짓말을 하게 된다. 참으로 신용없는 사람들이며 無責任한 사람들이다. 아주 不쾨하기 짝이 없다. 열 마디 중 한 마디가 참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과수원도 일시불로 한다는 사람들이 서울에 열 번도 더 올라가 3만원 4만원으로 쪼차가야 주고 한다. 아직도 5만원이 나마[남아] 있는데 오늘 와 殘金치루고 登記을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다. 또 거짓말의 과수원 約 万坪짜리 사달라고 해서 알아보았으니 나 역 또 거짓말을 했다. 나도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여러번 했으니 나 역시 시용[신용] 없는 사람이 되였다.

◎ 4월 10일 (음 3월 1일) 월요일

命植이 서울 간지 5日재 곳 네려온단던 사람이 닷새가 되도록 않으니 궁금하다. 돈이 안 데여 있는지 아니면 就職을 했는지. 과수원엔 농약도 끼언저야겠는데 소식이 없으니 이대로 간다면 과수원 유지 못 할 것 같다. 돈을 네려보내야 할 것이지만 돈을 내려보내야지. 내가 한 달 이상이나 수苦을 했건만 돈 한 푼 안주고 있으니 말이다.

◎ 4월 13일 (음 3월 4일) 목요일

서울 果樹園 산 사람들 消息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라간 命植이도 소식이 없다. 果樹園의 作業農藥 等을 써야겠는데 돈이 네려와야 말이지.

◎ 4월 14일 (음 3월 5일) 금요일

서울 消息이 궁금.

◎ 4월 16일 (음 3월 7일) 일요일

妻는 安仲場에 가고 나도 서울 消息도 궁금하여 安仲에 가면 알 수 있을까 하고 (…) 安仲으로 떠났다. 氣分이 좋이 않은지라 종일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돈도 6百원 中 500원 出 다 썼다. 理髮料 200원을 네 번 깎은 것 支拂.

◎ 4월 17일 (음 3월 8일) 월요일

서울에서 電報가 왔다. 下午 2時까지 安仲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12時半 車로 4時까지 기달리다가 지쳐 4時 車로 못 만나고 그냥 도라왔다. 참으로 일이 안 된다. 참으로 約束 이행이 않되는 分이다. 일꾼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 4월 18일 (음 3월 9일) 화요일

서울서 오늘이나 기별 있을까 했더니 오늘도 소식이 없다.

◎ 4월 19일 (음 3월 10일) 수요일 細雨

서울 消息을 학수고대했더니 저녁 먹을 무렵 命植이 왔다. 오늘 잔금은 다 치루었다고 등기비용도 타같고 와 서류을 제출했다고 200원 주었고 自오가 천원을 같었다고 하여 200원을 나를 같다 주었다. 내게로 오는 돈을 1400원은 命植이 넣었다. 잘 했노라 했다.

◎ 4월 21일 (음 3월 12일) 금요일

妻가 妻家에 가 일품갑을 받고 安仲으로 해서 소을 사같고 왔다. 솟은 동이 드리배 一金 700원 白米 2斗다. (…) 命植이 서울 떠났다. 妻가에게 과수원 시비와 농약이 급하다고 했다.

◎ 4월 23일 (음 3월 14일) 일요일

오늘도 서울에서 온다고 해서 종일토록 기달리였다.

◎ 4월 24일 (음 3월 15일) 월요일

오늘도 종일 기달리였다. 果樹園은 아주 버리게 되였다. 서울에 오늘 갈까 했으나 命植이 올라같으니 또 갈수도 없이 내가 할 일을 命植이 가로채니 돈푼이나 생기는데 지장이 있다. 또 命植이 가로채고 있다. (…) 來日도 消息 업으면 올라가야겠다. 오늘도 종일 電報을 기달리였다.

◎ 4월 25일 (음 3월 16일) 화요일

서울 갈 차비을 차리고 新浦에 가 차을 타고 安仲 가서 서울 金氏 果樹園의 登記을 찾아같고 서울로 出發. 下午 4時 頃에 到着 광화문 金氏宅에 같다 반가히 맞아주었다. 그리해 과수원의 腿肥와 農藥이 늦었으니 어이 하겠느냐고 하니 돈이 안 돌아 걱정이라고 2,3日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金氏 집에서 宿하고 春植과도 만났다.

◎ 4월 26일 (음 3월 1일) 수요일

金氏가 收金하고 오거든 보고 가라고 해서 下午까지 기달릴 수 없어 靑瓦坮을 開放한대 가보았다. 일직 들리니 상춘객이 많은 편은 아니다. 잠깐 다녀와 春植이을 기달리니 오지 않아 收金나간 春植을 찾아같다. 3時가 늦어서야 네려가겠다고 하니 路資을 五百원을 주어 서울을 떠나니 水原와 車가 없어 西井里로 돌어 8時 半에야 집에 着했다.

◎ 5월 10일 (음 4월 2일) 수요일

肥料代 900원 里長에게 드리고 學校增築金 650원을 드리었다. 白米 1斗當 410원

◎ 5월 15일 (음 4월 7일) 월요일

肥料 찾아왔다. 復合14-14(20K)2包. 重過石 流安은 倉庫속에 깊이 있다고 해서 못 찾았다. 점심을 먹고 鍾植이 서울 짐을 싯고 가 肥料을 찾아왔다. …

◎ 5월 16일 (음 4월 8일) 화요일

妻는 場에 가 일꾼과 내 쓰봉 雄浩옷을 사왔다.

◎ 5월 21일 (음 4월 13일) 일요일

安仲으로 肥料購入券을 떠라간다고 해서 肥料代 3,000[원]을 里長에게 주었다.

◎ 5월 22일 (음 4월 14일) 월요일

肥料受配. (…) 肥料을 車로 갈고 와 우리 肥料運賃이 200원, 호當 20원 代, 尿素 7袋, 重過 2袋, 鹽OO 1袋, 10包袋를 受領하고 流安 65斤만 受配치 못했다. (…) 농꼴 가 숭어 7斤을 250원에 사 갈고왔다.

◎ 6월 5일 (음 4월 28일) 월요일

雄浩가 感氣가 총냉해서인지 기침이 심하여 저녁나절은 그냥 두고 불수 없어 新浦로 약을 사라 갈다. 新浦에 가 내 신발과 운동화을 사 갈고 오다가 革命村 고기갑(숭어) 250원을 주고 왔다.

◎ 6월 6일 (음 4월 29일) 화요일

장에 간지도 오래이고 果樹園도 궁금하고 참깨 고구마 심은 것도 볼겸 安仲場에 갈다. (…) 신발을 한 켤래 마처 신을랴 했더니 1700원이라 해서 못마치고 도라왔다. (…) 場 흥정 광목 10마 호미2 양산 其他 1200원.

◎ 6월 21일 (음 5월 14일) 수요일

食前에 논에 갈다와 里長에게 肥料代을 支拂했다. 肥料代 4,000원을 드리였다.

◎ 6월 22일 (음 5월 15일) 목요일

來日 일날이데 肥料가 없어 出庫을 못한다고 해 큰일이 다 洞里에서 말이 많으나 里長은 無관심하다. 里長이 태만해서이다. 나는 來日 일날을 걱정해 농꼴 柱雨氏에게 사정해 肥料 尿素 2包와 硫安 1包을 借用해갈고 왔다. 下午에 施肥을 하는데 농꼴 16斗落에 硫安1 尿素 1包 1斗을 끼언졌다. 肥料을 借用주어 感謝하다.

◎ 6월 25일 (음 5월 18일) 일요일

下午엔 新浦로 官用 肥料을 찾으러 가 尿素 6包와 硫安 1包을 갈다가 柱雨氏에게서 借用해온 硫安1 尿素 2包을 갑았다.

◎ 6월 26일 (음 5월 19일) 월요일

朝飯後에 妻는 安仲場에 밀을 비라갈다. 白米 1斗 400원에 賣해 갈고 場에 가 내 胃腸藥 사 갈고왔다.

◎ 7월 1일 (음 5월 24일) 토요일 雨

下午에 肥料 찾으라 간다고 해서 소을 가질라 가니 아번님이 간신다고 해서 朴三福이 馬車을 갈고 간다고 해서 나가 馬車에 실고 같이 밀고 왔다. 今般 활당된 肥料가 尿素 6包 硫安 1包半 重過 1包半인데 半包은 里長와 議論 삭제해 1包만 찾기로 했다. 復合 18-25 1包, 용성인肥 1包, 유산가리 半包와 鹽化加里 1包은 新浦에서 出庫치 못했다. 尿素 6包 硫安 1包半은 6月 25日에 受配했다. 現金은 4,000원 支拂

◎ 7월 8일 (음 6월 1일) 토요일 晴

食前에 아번님이 오시여 소를 갈고가 소금(鹽)을 실라 갈라느냐고 하시여 가기로 하고 朝飯後에 개섬鹽田으로 갈다. 春雨 敎雨等 3名이 車길가지 소금을 실었다. 11叭 실어 1,500원 一人當 500원식이다.

◎ 7월 9일 (음 6월 2일) 일요일 晴

白米을 조사해 보니 白米 1叭 半과 稻 200斤 가량 나맜다. 큰 걱정이다. 今年에 넉넉히 둔다는 것이 不足이다. 가용이 큰일이다.

◎ 7월 14일 (음 6월 7일) 금요일 雨雲

農事 20마지기도 못할재 如유가 20叭가 넘었는데 30마지기가 넘어도 20叭가 못된다. 25斗落 할재 30叭을 냈는데 現在 20叭의 여유가 못되니 말이다. 이대로 家用이 늘어만 간다면 如유가 없을 것 같으니 농사는 참으로 못할 직업이다. 어떻게 生啓설계을 해야 할 것인지? 남들은 우리가 洞里에서 第一 낳다고 하지만 실속없는 것이 농사다. 못쓰고 못먹고 하는 것이 農事인가보다.

◎ 7월 16일 (음 6월 9일) 일요일 雲

妻는 場에 같섰다. 一金 850원을 갈고 場에 갈다.

◎ 7월 21일 (음 6월 14일) 금요일

일꾼 고용인이 場에 가겠다고 洞里 일꾼들을 선동을 하여 우리 오늘 피사리일 날을 물리 해서 일을 못하게 되였다. 남의 사람 두고 농사짓기란

매우 힘드는 일이다. 급기야 場에 가기로 해서 一金 九百원을 주었다. 白米 1斗當 420원 2斗값 840원에서 60원을 더 주며 점심을 사먹고 오라 했다. 일꾼이 요즈음 일도 잘 않고 속을 세기고 있다. 종일토록 氣分이 좋이 않았다. 洞里 고용일들도 場에 간 사람은 없다.

◎ 7월 28일 (음 6월 21일) 금요일

피사리 3名. (…) 일꾼도 나갈 것 같고 해서 2名을 얻어 피사리을 하자니 또 와 피사리해주고 來日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갑지않다. 나갈라면 하루속히 나가고 있을라면 있었으면 (…) 來日 나갈 나간다고 해서 따져 달라고 해서 가을에 白米 2叭代을 돈으로 一金 6,000원을 주기로 했다.

◎ 7월 29일 (음 6월 22일) 토요일

일꾼(고용인) 나간다. 몇일 前부터 들락날락하던 일꾼이 朝飯 後에 나가겠노라고 한다. 路資가 없다고 해서 300원을 주었다.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몇일 놀다가 가을일을 해달라고 해서 보냈다.

◎ 8월 1일 (음 6월 25일) 화요일

妻는 場에 가 어린것들의 여름옷을 사 같고 왔다.

◎ 8월 5일 (음 6월 29일) 토요일

農村 살림사리가 날로 어려워진다. 사람이 구하니 사람 살 수 없고 가을 추수기는 다가오것만 걱정이다. 곡까는 없고 노임은 비싸고 정부에서 중농정책을 한다지만 파농정책이다. 땅금은 날로 떨어지니 농촌경기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다른 대책을 하여야지 이대로 농촌경기가 없으면 못살게 말린다. 우리 어려서만도 稻 500斤이면 일꾼 새경이던 것이 白米 8叭 내지 9叭니 수확은 고종이고 노임은 오르고 곡식갑은 떨어지고 못쓰고 못입고 제일 서민생활이 농민이다. 도회지 중심의 政治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 8월 6일 (음 7월 1일) 일요일

安仲場에 갈랴고 하다가 돈을 장만치 못하여 못 같다. 여름만 되면 쌀의 여유가 없어 돈거리가 없다. 서울 果樹園 主人이 왔다 간는지 궁금하다.

◎ 8월 11일 (음 7월 6일) 금요일 晴

白米 1斗 400원 보리쌀 1斗 210원에 賣해 같고 妻와 함께 場에 같다 과수원을 가볼 겸 場도 볼 결 같다. 과수원에 가보니 관리인 愼氏가 과목 밑가지 밭삭 심어 보기에 나뿌고 과수에도 지장이 많다.

◎ 8월 21일 (음 7월 16일) 월요일 晴

妻가 場에 갈까 하다가 돈을 장만치 못해 못가고 날씨가 좋아 밀을 비라 같다.

◎ 8월 29일 (음 7월 24일) 화요일 雲

소 길마 언진 김에 鹽田에 가 鹽2叭을 실어 왔다. 李貞鎔氏와 따지기로 鹽2叭을 실어 왔다.

◎ 9월 1일 (음 7월 27일) 금요일 雲晴

주農인 畓穀이 豊年이라야 農事을 잘 지였다고 하는 우리 고장은 農事들을 잘 지였다. 妻은 꼬추 10斤을 같고 場에 가 賣해서 1,100원을 받아 같고 모말(斗)을 650원에 買같고 왔다.

◎ 9월 5일 (음 8월 2일) 화요일 雲

大休氏 家에 소가 벼란간 누어 가보니 아주 심하다. 수의가 와보구선 自信이 없다고 한다. 그리해서 平澤에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있으니 車을 같고 澤休가 왔다. 4万5,64원자리을 4万원에 賣했으니 별 손해은 없다. 平澤에 연척간이 인는 덕이였다. 夜 12時頃에 실고 같다.

◎ 9월 6일 (음 8월 3일) 수요일 雲

妻는 꼬추 18斤을 같고 場에 같다. 2,300원을 받어 같고 어린 것들 옷을 사왔으나 上下 제대로 못 사와 앞으로도 2,000원은 더 있어야 어린것들 옷 한 벌씩을 입힌다니 食口 많은 집들은 어렵겠다.

◎ 9월 11일 (음 8월 8일) 월요일 晴

妻는 꼬추 15斤을 場에 가 흥정을 해 같고 왔다. 白米 6斗 賣했다 2,400원. 李柏鎔에게 일품갑으로 一金 1,000원을 달래주었다.

◎ 9월 12일 (음 8월 9일) 화요일 晴

10時半 車로 쑥고개에 裵鎔氏을 데리고 가 광대문 짤 송판을 가 같고 왔다. 400원에 산는데 路資가 300원 들었다.

◎ 9월 22일 (음 8월 19일) 금요일

前日 脫穀한 벼을 高棧精米所에 실어도 주고 基植氏이 보구 脫穀機을 보아 달라고 하니 바빠 못 와 저녁 나절 둘째祖父 家에 일꾼과 같이 新浦로 지고 같다. 新浦에 故障을 알아보니 비아링을 넣고 大修理을 해야겠다고 大修理을 하자면 3,200원이 든다고 한다. 마음 아픈 가운데 修理하라고 하고 도라왔다.

◎ 9월 25일 (음 8월 22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高棧精米所에 같다. (…) 찰벼을 져드리고 또 精米所에 가 찌여같고 마끼고 왔다 白米 15斗 1叭는 마끼고 5斗은 賣했다. 1,900원을 받었다

◎ 9월 27일 (음 8월 24일) 수요일 晴

新浦에서 脫穀機 修理費을 차즈려와 1,400원을 주었다

◎ 9월 30일 (음 8월 27일) 토요일 雲

束數 골장 3斗落 444, 苗板 7升 102, 苗板 3斗 5升, 아논 1斗 5升 827, 밭원뚝밑 1斗落 106, 앞 4斗 5升 630, 밭원 1斗 185, 농골 밭원 5斗 520.

◎ 10월 8일 (음 9월 5일) 일요일

今年 稻束數 동욕골 56束, 앞밭달뱅이 17束, 앞들 4斗 5升 630, 골장 3斗 444, 苗板 7升 102, 밭원 苗板 3斗 5升 827, 아논 1斗 5升, 밭원뚝밑 108, ㅇ形 1斗 185, 농골 밭원 520, 아논 11斗 1310, 計 4199束. 今年엔 束數가 굴은 편. 約 半農事는 비여깔아 말리였다.

◎ 10월 17일 (음 9월 14일) 화요일

脫穀 23叭. (…) 脫穀日이라 일직 일어났다. 나까지 6名 농골 분들이다. 李柏鎔君이 데리고 왔다. 오늘까지 28名을 댔다. 오늘 800원을 가저가 一金 3,000원을 가저같다. 오늘 脫穀은 23叭 約 1,000束 脫穀했다.(150升 入) 많이 떨었다 끄디린 것 約 300束가량 남았다.

◎ 10월 18일 (음 9월 15일) 수요일 晴

搗精 38斗, 搗精料 1斗. (…) 白米 2叭는 쌀상인에게 賣渡하고 7,600원 18斗을 집으로 가저왔다.

◎ 10월 22일 (음 9월 19일) 일요일 晴

安仲 고구마 실어왔다. 5叭. (…) 午鍾 頃에 安仲에서 고구마을 馬車에 싣고 왔다. 運賃으로 600원을 물었다.

◎ 10월 29일 (음 9월 26일) 일요일 晴

脫穀完了 게골까지 3叭半. (…) 오늘로서 脫穀 게골 等을 다해 치우었다. (…) 食前에 柏鎔君이 넘어와 일한 품갑을 計算해 달라 해서 품갑도 支拂 3,000원과 나문 것 1,500원 주고 품바들 것 6名分 計算해 주었다. 품갑까지 計算이 되고 ㅇ君 150원만 주면 된다. 女子 1名分까지 주었다. 今年 總 正稻叭數 106叭.

◎ 11월 6일 (음 10월 5일) 월요일 晴

場에 가 도야지 새끼을 살랴고 서둘러 妻와 같이 꼬추 48斤을 같고 場에 같다. 꼬추금이 떨어저 아주 덜 받았다. 5,600원을 받아 도야지전에 같다가 마땅한 것이 없어 못 사고 李柱乙氏을 만나 점심食事와 술만 얻어먹었다. 도야지 새끼도 못 싸고 돈만 3,000원 가량 썼다.

◎ 11월 11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晴

妻는 場에 도야지 새끼을 사라가고 나는 집에서 午前 中 도야지 깐을 완전히 손질하여 새끼을 사라 넣을라고 서둘렀다. (…) 妻 場에 가 도야지 새끼 사오는데 마중가니 그냥 와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校長과 술을 대접했다.

◎ 11월 13일 (음 10월 12일) 월요일 晴

金貞雲氏家에 가 安仲 과수원의 就得權을 와 새끼갑 一金 1,000원을 받아같고 春植과 같이 廣州에 가 木峴里가니 밤 9時가 되였다.

◎ 11월 21일 (음 10월 20일) 화요일 晴

도야지 새끼을 사라 갈랴고 朝飯食事을 일직했다. 妻도 場에 간다고 해서 나는 그만두고 저 근너가 壹雨氏에게 실어다 달라고 對話하고 나는 그만두고 妻가 場에 같다. 下午에 도야지 새끼을 사왔다. 3,450원 주었는데 숫놈을 사와 내生覺과는 다르게 사왔다. 암놈을 살랴든 것인데- 그리고 쌀 1叭갑을 주고 사서 별 이득이 없을 것 같다.

◎ 11월 26일 (음 10월 25일) 일요일 雲

妻는 場에 갔다. 닭이 보리밭을 뜻어 먹어 앞턱은 피여 나질 못한다. 그리해 닭이[닭의] 장 철사을 사라 같다.

◎ 11월 27일 (음 10월 26일) 월요일 雨

共販 7叭出. (…) 오늘이 三溪共販日이다. (…) 朝飯食事을 마치고 아버지家에 가 소을 같다가 1번을 같다오니 비가 오기 始作해 급히 2번을 다니고 慈雨氏家에서 실는다고 해서 1叭을 언저다 달라해서 7叭을 내 같다. 5叭가 二等이고 2叭가 3等을 마젓다. 4叭을 肥料代로 3叭을 收得稅로 했다. 共販 正稻 54K에 一等에 1,897원, 二等에 1,794원, 三等에 1,756원.

◎ 12월 4일 (음 11월 3일) 월요일 雲

高棧서 놀다가 쇠장사인 申韓秀君이 와 한참 있다가 高棧의 洞里契가 있어 점심을 얻어먹고 原木가서 韓基禹 家의 소을 한필 흥정해 주고 하오에 高棧와 白米 2叭감을 내같고 왔다. 白米 貳叭代 7,600원.

◎ 12월 7일 (음 11월 6일) 목요일 雲

今般 서울 간 것이 서울에 가 변두리에 집로 約 2,30평가량 사 장차 어린것들의 進學問題을 準備하자는 取지에서이다. 땅갑은 껑중껑중 2만원 以下는 없고 孟植이 인는데도 땅갑이 날로 올라 파는 사람이 주저하며 500坪 以上이라야 하니 生覺도 어렵다고 한다.

◎ 12월 8일 (음 11월 7일) 금요일

歸家. (…) 孟植이 직장에 出勤하게 되여 孟植과 春植이 議論해서 결과를 알려주면 곳 準備하겠노라고 對話하고 집으로 왔다. 적어도 100만원은 있어야 몇 평 장만하겠는데 1/10의 돈으로 장만하자니 어렵다.

◎ 12월 10일 (음 11월 9일) 일요일 雲

朝飯食事 後에 高棧精米所에 같다가 작근아번님이 오시라해서 가니 농꼴 땅을 사라고 하신다. 달식이 세탁所을 내는데 부득히 팔아야겠다는 것이다. 나 역시 서울에 무엇이라도 장만할랴는 中이라고 했다.

◎ 12월 18일 (음 11월 17일) 월요일 晴

下午에 저녁 먹게까지 술을 먹었다. 술에 취한 김에 三溪 酒店에 가기로 해서 悠雨 德雨 徐巡磐 鄭巡磐 登이 三溪에 가 一金 仟원어치 술을 믹고 놀다왔다.

◎ 12월 20일 (음 11월 19일) 수요일 雲

… 午鍾頃에 농꼴서 金鎭元氏가 長利米을 가져왔다. 昨年에 떨어진 것 9斗을 밭었다.

◎ 12월 24일 (음 11월 23일) 일요일 晴

李昶鎔君 穀草20束 가져감. 妻는 新浦場에 같섰다.

◎ 12월 26일 (음 11월 25일) 화요일 雲

妻는 來日 完雨 婚日 準備에 같다. 국수 두 관 부조.

◎ 12월 31일 (음 12월 1일) 일요일

農事도 짓든 中 잘 지였다. 막통 100餘叭을 했다. 큰 所願을 가젓다고 나의 生活의 범위內이서다. 촉새가 황새을 쪼차가자면 가랭이가 쪼개진다 했다. (…) 政府에서 重農政策을 한다지만 우리 農事君은 더욱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노임은 비싸고 穀價는 떨어지는 農事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120원하던 노임이 200원. 도저히 힘드는 農事다. 게다가도 일꾼이 모자라니 어이 될 것이냐. 昨年에 논 산 것이 후해막심이다. 今年 農事진 것은 다른 것을 해 볼라고 搗精도 아니했다.

◎ 今年度 搗精事項

一次 9斗, 15斗, 20斗, 37斗, 71斗, 31叭, 16叭, 1斗, 7叭 7.

1968년

◎ 1월 1일 (음 12월 2일) 월요일

昨年 農事 여유로 서울로 運動을 해볼라고 生覺中에 있어 서울에 가 집이라도 아니면, 쪼꼬마한 事業을 生覺하고 벌서 서울에 2,3次 올라 같다. 입에 맛는 것이 없어 同生들 보고 付託했 놓

고 집에 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잘 들어맞아 줄 것 인가 걱정이다. 자식들 敎育問題로 서울로 유의 중이다.

◎ 1월 7일 (음 12월 8일) 일요일

床 修理 行商人이 와 상과 테불의 칠을 했다. 修理 白米 1斗 1升.

◎ 1월 8일 (음 12월 9일) 월요일

面書記가 와 賣上하라 졸라대여 1叭하기로 했다.

◎ 1월 15일 (음 12월 16일) 월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 元植에게 가 白米 1叭 갑과 3700원 2,000원 借用해 같고 왔다. 來日 安仲場의 外上갑을 갑으라고 했다.

◎ 1월 16일 (음 12월 17일) 화요일

妻는 場에 같다. 外上갑 갑고 설 홍정도 해 같고 왔다.

◎ 1월 17일 (음 12월 18일) 수요일

소 개우했다. 一金 9,000 보탰다. (…) 下午에 牛商人이 소를 같고 와 개우했다. 우리 소에다가 9,000원 보태 같고 바꾸었다. 소가 좋와 보이지는 않으나 부리기 좋다고 해서 개우했다. 잘 한 거신지? 돈은 다음 安仲場에 주기로 했다.

◎ 1월 18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前日 개우한 소가 우리 소만큼은 먹성 좋이지 안다. 찍거기을 냉기는 모양이다.

◎ 1월 19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共販場에 벼 2叭 냈다. 朝飯食事 後 里長任과 昨年度 肥料代 收得稅 等을 따지고 三溪 共販 1叭 52斤을 내 가게 되여 1叭 52斤에 大休氏 家에서 채워 2叭을 실고 나같더니 검사원(금사원)과 組合 面에서 안 나와 맥기고(文氏家)에 元寄錫 家 조문을 하고 도라왔다. 한대 다 놓아두고 오니 쥐가 먹을 것이 不安하다. 오다가 三溪里長에게 農場倉庫 문을 열면 倉庫에 드리며 놓아 달라고 付託하고 도라왔다.

◎ 1월 20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오늘도 朝飯 後에 高棧가 쌀돈을 내여 來日 安仲場에 소갑을 같다 줄라고 같다가 쌀 商人을 못 만나 좀 있다오니 점심때가 되였다.

◎ 1월 21일 (음 12월 22일) 일요일

소갑 9,000 支拂. 英浩 歸家. 食前에 쌀상인 高棧 原植이 와 白米 2叭代와 2,000원 借用해 온 것을 合해 3叭 갑 9,300원을 받었다. 朝飯食事 後에 安仲場에 갈 사람을 알아보니 轍雨와 같이 장에 같다. 牛전에 들려 安氏 牛商人 우리 소 개우한 것 9,000원 주고 永浩가 外家에 가 오늘까지 안 와 기다리다가 안 와 轍雨와 原植과 같이 오다가 날씨가 추워 玉吉에서 주막거리에 들려 300원어치를 받어먹고 왔다.

◎ 1월 22일 (음 12월 27일) 월요일

高棧 農協總會. (…) 朴刑查와 朝飯食事을 같이하고 高棧서 精米所의 賃貸契約을 하여 原木에 鄭建植이 入札을 하여 白米 33叭 5斗에 落札이 되였다. 應札者는 其植氏와 두리였다[둘이었다]. 賃貸契約書을 내가 作成했다.

◎ 1월 23일 (음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이 新浦 共販이라 해서 큰 아번님에게 말씀드리니 요 다음 共販에 내겠노라 해서 떡도하라 간다고 妻가 말하며 三溪에 保管한 벼 2叭을 찾아 싯고 新浦로 갈랴니 三溪 里長인 敏泰君에게 付託 할랬는데 賣上한다고 해서 敏泰君이 賣上을 하고 오늘 돈을 3,650원을 주어 그냥 新浦로 벼가 안 나게 되여 떡쌀만 妻가 싣고 가고 나는 理髮을 하고 下午에 돌라왔다.

◎ 1월 26일 (음 12월 27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있으니 壹雨氏가 와 쌀 2斗代만 달라 해서 里長에게 알아보고 드리겠노라고 가보니 안 게시여 一金 760원을 드리며 쌀을 팔라면 쌀로 주고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드리였다. 이 돈은 賣上한 돈인데 이장이 벼나 쌀로 달래서이다.

◎ 1월 27일 (음 12월 28일) 토요일 晴

壹雨氏 家 도야지을 잡아 고기는 사왔으나 2斤가량 사왔다. 330원 어치.

◎ 2월 9일 (음 1월 11일) 금요일

저녁에 悠雨君이 와 도야지 고기代 330원을

달라고 해서 借用해주시든지 아니면 白米 1되대로 주라했다.

◎ 2월 21일 (음 1월 23일) 수요일 눈

妻가 場에 갈랴다가 돈이 없어 못 가게 되였다.

◎ 2월 26일 (음 1월 28일) 월요일

저녁을 먹고 있으니 春植이 왔다. 安仲 果樹園主人과 같이 왔다. 春植이 워커힐 납품 관계는 손을 떼고 세탁을 하겠으니 兄任이 一金 十萬원만 보태달라고 利子는 6分으로 드리겠다고 해서 승낙을 하고 모래 서울을 가서 보겠다고 하고서 哨所巡警들 送別會을 한다고 해서 같다왔다. 손님은 우리 집에서 쉬게 했다.

◎ 3월 2일 (음 2월 4일) 토요일

歸家. (…) 朝飯食事을 金貞雲 家에서 10時 半頃에 하고 人便하고 春植 家에 가니 孟植이 왔다. 우리 三兄弟가 한자리에서 議論을 했다. 30万원짜리 세탁소을 얻어 돈이 모자라 날보구 10万원만 대주면 6分 利子로 처주겠노라고 한다. 그리해 승락하고 數日來로 보내기로 하고 12時半 車로 떠나왔다. 내가 무엇을 해 볼랴든 것이 孟植과 春植이 말이 春植의 밑천을 대주는 것이 더 낳고 튼튼하다고 결논이 내리여 春植에게 10万원 주기로 한 것이다.

◎ 3월 4일 (음 2월 6일) 월요일

下午엔 서울 갈 돈 準備찻 여러 군대 알아보았으나 쌀금이 맛지 않아 來日하기로 하고 마랐다. 夕飯食事 後에 高棧 元植에게 가 쌀금을 마저보았으나 4,100원도 줄 수 없다고 한다.

◎ 3월 5일 (음 2월 7일) 화요일

자고 일어나는 卽時 三溪 姜氏에게가 쌀금을 말하니 쌀금이 弱세라고 한다. 많은 쌀이니 더주겠다고 하며 4150원을 처 받었다. 白米 25叭代로 拾万參千七百五拾원을 받었다 곳 집에 와 朝飯食事을 하고 서울로 떠났다.

◎ 3월 6일 (음 2월 8일) 수요일

자고 일어나 春植家에 같다 와서 자고 있다 밤늦게 들어왔다고 春植과 下午 3時에 나와 春植 만날 사람을 茶房에서 만났는데 돈 말을 하는 모양인데 8日 午前 中에 된다고 한다. 오다가 극장구경을 시켜주었다. 잠은 金貞雲家에서 잤다. 一金 拾万원을 春植에게 주며 모든 일은 알아 잘 해달라고 付託했다. 春植이 말이 6分 利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달이 보내주게다고.

◎ 3월 7일 (음 2월 9일) 목요일 雨雪

서울에 다 一金 拾万원을 놓고온 것이 잘 한 것인지? 白米가 25叭과 春植의 事業이 잘 되여야 할 것인데 종일토록 비 진눈가비가 나리였다.

◎ 3월 11일 (음 2월 13일) 월요일 雲

개미꿀로 "길마"을 사라가 一金 800원에 사갈고 왔다. 일이 몰리여 日課가 짜저 있다. 내일은 벼을 실어 날리여야겠다. 一金 500원과 찹쌀 一斗을 같고 妻는 親家에 같다.

◎ 3월 13일 (음 2월 15일) 수요일 晴

前日 실은 것 合해 44叭 실어다 搗精을 했더니 32叭가 났다. 1叭은 搗精料로 주고 저녁 10時頃에야 끝났다. 精米所에 保管하고 왔다. 精米을 비워두어 벼가마을 쌓아두니 매우 不安하다.

◎ 3월 17일 (음 2월 19일) 일요일

食前에 三溪 姜氏가 와 쌀이 좋이 않아 못 가저가겠으니 더 씰어주거나 해달라고 해서 朝飯食事後에 高棧 가서 精米所에서 한번 더 내려놓았다. 白米 2斗가 不足이다. 쌀금이 떨어지니 속을 쎄긴다. 속깨나 쎄긴다. 氣分이 나쁘다. 서울일도 消息이 없어 궁금한대다가 搗精한 것까지 속을 쎄기니 모든 일이 순조로히 안 되는 것 같다.

◎ 3월 19일 (음 2월 21일) 화요일

安仲行. (…) 朝飯食事을 하고 마실을 가니 큰 아번님이 서울에서 電報가 왔는데 전식으로 와 洞里에 없는 사람이라 그냥 보냈다고 해 生覺해니 나에게 온 것이다. 급히 新浦에가 알아보니 도로 서울로 반료했다고 해 오늘 安仲에서 만나자는 것이라. 10時半 車로 安仲에 가 기달리였다. 愼氏家에 가 점심을 먹고 나니 서울에서 왔다. 그래 전지할 것을 알아보고 安仲旅館에서 같이 잤다.

◎ 3월 20일 (음 2월 22일) 수요일

자고 일어나 朝飯을 사먹고 전지할 돈을 받고

과수원 主人은 서울로 떠나고 愼氏와 같이 쟁기을 예약하고서 愼氏 보고 같다 달라고 付託해 놓고 구라 보줄等 흥정을 해 같고 歸家하니 妻가 기름을 짜라 같는지 없다.

◎ 3월 24일 (음 2월 26일) 일요일 晴

果樹원은 愼氏에게 도지 白米 5叭에 주고 농약과 거름(퇴비)을 2천원어치 사놓고 노임도 2,400원 신서방을 주고 下午에 떠났다.

◎ 3월 26일 (음 2월 28일) 화요일 晴

昨年만 해도 일군이 있었는데 今年엔 일군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일이다. 일군 새경은 10餘 叭가 있어야 하고 穀價는 그대로 있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만는다[맞는다]. 今年 농사지을 것이 걱정이다.

◎ 3월 27일 (음 2월 29일) 수요일 晴

午後에 妻는 英浩 學級會에 같다 왔다. 과위修業 하는데 1時間 수연장 業에 月 250원씩 내도록 결의했다고. 國民學校 가르키기에도 高學年이 되면 中學校 가르키는 돈이 드는 셈이다.

◎ 3월 28일 (음 2월 30일) 목요일 晴

英浩는 과위 수업을 한다고 父兄會을 해 一人當 250원식 걷어 내기로 되여 오늘 가져 같다.

◎ 4월 1일 (음 3월 3일) 월요일

당장 몰린 일감으로 가래질 묘짜리 等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것만 일군을 求하지 못해 걱정이다. 일 좀 덜하고 살아볼까 했더니 일군 求하기도 어려우려니와 노임이 비싸니 쌀 1斗에 3名 사든 것이 2名 사기도 어려우니 농사짓고 살 시절은 못 된다. 일군도 6叭면 두던 것이 10叭 以上이니 穀價는 그대로고 도저히 살 수 없다.

◎ 4월 3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妻가 서울의 소식을 들으니 세탁소을 사지 않고 春植은 다른 곳에 다닌다고 하니 매우 氣分이 나쁘다. 하루가 급하게 돈을 올려 오리고 졸라대여 쌀갑을 얻어가며 쌀을 사서 돈을 올려 가 놓았더니 오늘날까지 소식 없이 있으니 참으로 밑지 못할 사람이다. 사람이란 신용을 生命같이 여겨야 할 일이것만. 이렇게 신용없은 사람이니 兄弟지간에 참으로 못할 일이다. 兄弟로 間에 누구를 믿어야 할일이냐. 아직까지 나는 신용 없다 소리 안 듯고 살아왔것만. 同生으로 하여금 나까지 실없는 사람이 되였다. 이 말을 들으니 저녁 밥맛이 없어 속이 不便한 가운데 자리에 들었으나 잠도 안온다. 날이 새면 서울 가서 알아보아야겠다.

◎ 4월 4일 (음 3월 6일) 목요일 晴

서울行. (…) 어제 春植이 서울에서 나와 약속대로 안 되였따는 소식을 듯고 오늘은 서울 갈 차비을 하고 10時半 車로 떠났다. 春植家에 가니 게수씨만 잇고 春植은 밤이 늦게야 오겠노라고 한다. 金貞雲 家에가 있다가 春植이 찾아왔다. 春植의 말에 依하면 세탁소을 살라고 막상 돈을 같고 다니니 제대로 없어 次日 피일 미루어나가니 兄任 돈 10萬원이 어려워 利子로 놓는데 내가 들어가 일할 곳에 잘 놓았으니 安心하라고 한다. 나는 利子가 目的이 아니라 進取成 있는 일을 하라고 하루 속히 돈을 빼여 우리 계획대로 하라고 付託했다. 매우 不安하다.

◎ 4월 5일 (음 3월 7일) 금요일 晴

春植 같이 나와 극장 구경하고 春植 일 보는데 같이 다니다가 2時 車로 서울 出發 歸家했다. 서울일이 잘 되여야겠는데 걱정이다. 春植 말은 절대 安仲 하라고 하나 싱거워 아주 믿기는 어렵다.

◎ 4월 6일 (음 3월 9일) 토요일

妻는 場에 같섰다. 一金 千200원 같고.

◎ 4월 12일 (음 3월 15일) 금요일

妻는 來日 서울 떠난다고 서둘러 일을 한다. 朝飯 後에 新浦 基植氏가와 肥料을 白米 1叭에 肥料 4包을 支換하게 되여 우리도 白米 1叭에 肥料을 支換했다. 來日 서울 갈 路資 1,500원을 교우氏 家에 가 借用해왔다.

◎ 4월 16일 (음 3월 19일) 화요일 晴

下午 5時 頃에 妻가 歸家헸다. 돈도 6,000원 같고 왔다. 春植에게 매우 친절한 대접을 바덨다고 한다.

◎ 4월 21일 (음 3월 24일) 일요일 晴

妻는 場에 갈라고 하다가 돈 장만 거리가 없어 못갈다.

◎ 4월 26일 (음 3월 29일) 금요일 晴

前日 搗精한 쌀과 겨를 집으로 가지왔다. 15叭 6斗 中 14叭 6斗을 가저오고 1叭는 悠雨 5斗 借用 해주고 朴三福 2斗 주고 原植에게 500원 쌀갑 낸 것을 주니 2斗 가량 남는 것 原植家에 주고 차후에 따지기로 했다. 妻는 場에 一金 壹千500원 같고 같었다. 肥料 해둔 곳에서 가지고 같으니 肥料代가 걱정이다.

◎ 5월 2일 (음 4월 5일) 목요일 晴雨

食前에 高棧 가서 原植家에 가 쌀돈을 낼라고 하니 原植이 없어 아주머니에게 말하여 一金 1千五百원을 같고 오며 原植 오며 따지기로 하고 와 肥料代 參千원을 里長任에게 支拂했다.

◎ 5월 5일 (음 4월 8일) 일요일 晴

硫安 2 尿素 半 重過 1 復合 1半 鹽加 半, 그리고 昨年에 못 찾은 유산가리 半과 鹽加 1包을 찾아오기에 新浦에 두 번 다니였다. 肥料을 찾아와 苗板에 중거름을 주었다.

◎ 5월 10일 (음 4월 13일) 금요일 晴

前日 夜 조카 詳浩가 왔다. 利子 돈 一金 六千원을 같고 왔다. 春植을 通해 一金 壹拾萬원 利子가 두번채 찾아왔다. 白米 25叭 利子가 拾萬원이다. 쌀갑이 폭동하면 별 利子가 없는데 春植의 권고로 한 짓인데 잘 될 것인가 不安全하다. 兄弟之間에 좋은 情 그릇칠가 걱정이다.

◎ 5월 11일 (음 4월 14일) 토요일 晴

場人便에 화가래와 二化명虫 藥을 사오라 보냈더니 화가래는 없다고 그냥 왔다.

◎ 5월 13일 (음 4월 16일) 월요일 晴

일품갑 선支拂 2,500. (…) 농골 가서 一金 2,500원을 주고 移秧을 해 달라고 付託했다. 陰 26,27日 경에 농꼴 논을 심어 달라고 부탁했다.

◎ 6월 2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白米 2叭代 8600원, 肥料代 支拂 8,000. (…) 來日 肥料傳票을 떼라 가신다고 해 白米 2叭 갑 8600원을 받어 8,000원 肥料代을 支拂하고 600원을 가저왔다.

◎ 6월 4일 (음 5월 9일) 화요일 晴

점심 먹고 있으니 高棧 基植氏가 찾아 나가 보니 前坪 恒秀와 같이와 長利米 6叭만 달라고 졸라대여 심이[셈이] 흐린 基植인지라 꺼리니 거저주는 셈치고 도와 달라고 졸라 대여 白米 6叭을 주기로 하고 利子는 年 4割로 定하고 借用證書을 作成하고 오늘로 白米 壹叭을 둘이 저가기로 하고 술을 한 잔 대접했다. 白米 壹叭는 둘이 저가고 5叭는 쌀 상인이 오면 대여 주라고 하고 떠났다. 잘해 줄것인지. (…) 이 쌀은 서울 사는 同生 집짓는데 보탠다고 한다. 잘해 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떠났다.

◎ 6월 5일 (음 5월 10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新浦에가 肥料을 倉庫에서 꺼내 놓고 한바리을 실어 오고 午後에 두 번가 14叭을 실어 오고 8叭을 保管 해 놓았다. 今般 肥料受配 硫安 7, 尿素 8, 復合 6, 규산질 半, 석회질소 半. 現金 8,000 支拂.

◎ 6월 22일 (음 5월 27일) 토요일 晴

下午에 농골서 와 쌀을 내겠느냐고 해서 논맬 품갑도 줄겸 白米 1叭賣 一金 四千三百원을 받었다. 서울에서 논이 네려오며은 쌀을 안살텐데. 어이 될 것인지 不安하다.

◎ 6월 26일 (음 6월 1일) 수요일 晴

날씨가 가물은 관계인지 二化螟蟲이 아주 심하여 妻 場에 보내여 農藥을 사같고 오라 했다. 二化螟蟲藥時期가 지났으나 묘 1대가 몽조리 죽어가 사다 뿌릴까 한다. 農藥(タイアスノン) 1000cc 500cc짜리 2통에 1400원 주고 사같고 와 곳[곧] 농꼴 아논 5斗落을 분무했으나 약하게 기언진듯하다.

◎ 7월 1일 (음 6월 6일) 월요일 晴

妻는 농약 통을 같다 줄라고 場에 같다. 場에만 가면 적어도 一金 천원을 같고 가나 해 같고 오는 것은 없다. 물까는 비싸고 穀價은 싸니 농군은 살 수 없다. 싸나 비싸나 풍년 들어야겠는데

웬일일까.

◎ 7월 5일 (음 6월 10일) 금요일 雲

自轉車로 安仲으로 農藥을 사라 같다. 農藥을 사 같고 분무기을 얻어 같고 와 점심 먹고 또 농약을 끼언젓다. 가시질 않는다.

◎ 7월 8일 (음 6월 13일) 월요일 雲晴

제대로 된 논도 稻熱病이 나 한참 심한데 비가 와야 가실텐데. 藥갑으로 2,000 餘원 드렀다.

◎ 7월 24일 (음 6월 29일) 수요일 雲晴

점심을 먹고 三溪의 姜氏에게 쌀갑으로 一金 1,500원을 내 같고 新浦치과에 가 이를 해 끼우었다 치아가 좋이 않아 당장 뜨해 끼우어야 할 이가 몇 개 더있다. 아직도 (음식물 먹기가 좋이 않다. 억음이가[어금니를] 4개 뺐으나 치아가 반 이상 없는 셈이다.

◎ 7월 26일 (음 7월 2일) 금요일 晴

前日 게획 했든 除草作業이 못 다해서 朝飯食事後에 鹽田에 가 鹽 2叭을 가저오고 下午에는 除草을 했다. (…) 三溪 姜氏 쌀 商人에게 白米 1叭을 주고 一金 2,500원 받었다. 4,400원 中 2,5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차후에 찾기로 했다. 농꼴 金富鉉氏가 일품갑으로 一金 1,000원만 달라 해서 1,000원 같다 주었다.

◎ 7월 31일 (음 7월 7일) 수요일 晴

점심 먹고 三溪에 가 肥料 重過石 1 鹽加 1을 실고 왔다. 먼저 차자오다 나문 것이다.

◎ 8월 3일 (음 7월 10일) 토요일 晴

搗精米 7叭 8斗 보리 165斤. (…) 搗精해보니 7叭 8斗 보리쌀을 도정해 精米所에 마끼고 왔다. 今年엔 長利 농기도 순조롭지 못하여 쌀이 묵게 된다.

◎ 8월 6일 (음 7월 13일) 화요일 晴

來日 서울에 가 볼라니 英浩가 쪼차 간다고 해 妻는 場에가 英浩의 옷을 사러가고 나는 高棧가 쌀갑을 내같고 와 농꼴 洞里共同畓田 우리가 하던 것을 사라고 해서 一金 6,000원을 龍雨氏에게 같다 드리고 나머지는 平數을 확인 後에 알아보아드리겠다고 했다.

◎ 8월 7일 (음 7월 14일) 수요일 雲雨

서울행. (…) 下午 늦게 春植을 만나라 같다. 春植을 만나 돈 말을 하니 自身없는 말을 한다. 不安한다. 一金 壹拾万원이 공중에 뜰 生覺을 하니 精神이 아찔하다 아주 잘못했다. 여기다가 그대로 늘리거나 그냥 둘 일을.

◎ 8월 8일 (음 7월 15일) 목요일 雲晴

돈 점 가질라 간 것이 못 가저오고 3,000원 주어 같고 왔다. 利子만 18,000원인데 利子는 고사하고 本金이나 하루 속히 찾았으면 한다. 春植이 싱겁기 짝이 없다. 신용이 없다 兄弟之間에 이 모이야 속일랴 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 말하는 것과 行動과는 항상 빗나간다. (…) 白米 25叭가 제대로 늘지도 못할 것은 勿論이지만. 本錢도 심들겠으니 同生에게 속은 셈이 된다.

◎ 8월 9일 (음 7월 16일) 금요일 晴

큰아번님에게 "지관"(붕수객) 들이보는 "세"를 사다 드리였다. 一金 300원에 사다가 취미 삼아 하시라고 사다가 드리였다.

◎ 8월 13일 (음 7월 20일) 화요일 晴

食前에 草命村에 가 徐斗鎬가 송아지을 매기겠다고 해 알아보라 같섰다. 내 生覺으로는 송아지 갑을 빼고 半分하는 것이 어떠내하니 徐氏는 24個월 멕이고 송아지 1斗을 달라고 한다. 그리해 잘 메겨 주면 좋은 것을 잘못 메기며 나쁜 것을 사줄테니 16日에 오라고 하고 왔다.

◎ 8월 16일 (음 7월 23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 後에 安仲場에 송아지을 끌고 갈라 하니 날씨가 고로지 않아 못가고 徐斗鎬에게 황송아지가 싫으면 우선 매기다가 交換해 주겠다고 하고 가저 가라니깐 來日 가저 가겠노라고 한다. 송아지 금치고 半 갈으자니[갈라서] 24朔 메기여 주면 송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해 저금하는 셈치고 주기로 했다. 우리 송아지 現時勢로 2만 칠,팔,千원은 갈 것이다. 午後에는 新浦에가 치과에 들리니 없어 양회만 두포 사 같고 들어왔다.

◎ 8월 21일 (음 7월 28일) 수요일 晴

妻가 안중장에 간다고 準備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기로 하고 떠났다. 一金 千參白원을 갈고 모처럼 만에 장에 가니 雄浩가 쪼차왔다. (…) 場 흥정을 거이 끝내고 점심을 먹고나니 氣分이 매우 좋이 않다. 雄浩는 좋와라고 한다. 흥정은 괭이 170, 갈키 150, 벤치 180, 못 90, 창호 반 자 정권지 等지 240, 其他 外 흥정을 해같고 悠雨 큰어머니 等과 같이 해가 기울어저서야 집에 왔다.

◎ 8월 27일 (음 윤 7월 4일) 화요일 晴雲

英浩 歸家. 英浩便에 一金 四千원을 보내왔다. 하루 속히 本錢이나 보냈으면 한다.

◎ 8월 29일 (음 윤 7월 6일) 목요일 晴

농골 李昶鎔氏가 白米 1斗을 품갑으로 가저같다. 李昶鎔君이 일품갑으로 3,400원, 金富鉉 1,000원, 韓相殷氏 200원 等이다.

◎ 9월 1일 (음 윤 7월 9일) 일요일 晴

妻는 場에 꼬추 6斤 半을 같고 場에 가 一金 900원을 받었다 한다. (…) 精米所의 鄭根植에게 마긴 돈 一金 五千원을 鄭根植이 一個월 쓰겠다고 하여 그리하라고 했다. 돈이 되면 水原에 가저 갈라 했다. 來日 妻보고 水原같다 오라 했다. 水原애 돈 白米 貳叭을 늘릴 수 없어 議論次의 것이다.

◎ 9월 2일 (음 윤 7월 10일) 월요일 風晴

妻을 水原을 보내여 白米 2叭을 長利 놀라든 것이 뜻대로 안되니 같다 먹는 것이 어떠하냐고 議論하라고 보냈다.

◎ 9월 4일 (음 윤 7월 12일) 수요일 晴

水原 애가 떠난다고 해서 白米貳叭을 新浦에 실어다 주었다. 버스에 (10時半 車) 못 실리여 12時 車에 新浦人에게 付託해 놓고 나는 집에 도라왔다. 昨年에 一金 四千원과 봄에 千원을 주고 간 것을 白米 2叭을 늘릴라고 한 것이 제대로 늘어날 것 같이 않아 가저가라 했더니 왔던 것이다. 水原에 가서 집 한채 사같고 제대로 만하면 집에서 한섬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낳다고 해 농사 짓기도 힘들고 마음이 들떴다. 一金 50万원만 있으면 農事진흥청 근방에 집 한채 마련한다고.

◎ 9월 6일 (음 윤 7월 14일) 금요일 雲晴

妻는 꼬추 7斤을 같고 場에 가 세 절구을 사같고 왔다. 650원.

◎ 9월 7일 (음 윤 7월 15일) 토요일 雲

春植과 水原 同生에게 片紙送. 서울에 있는 돈을 네려오게 하여야겠는대. 今年의 일이 제대로 안되는 해라 제대로 잘 될 것인지?

◎ 9월 13일 (음 윤 7월 21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나니 안골 祖任 와시여 돈을 借用해달라 하시여 一金 万원을 一個월간 借用해드리고 농골 昶鎔氏에게 벼날을 잡아 주었다.

◎ 9월 16일 (음 윤 7월 24일) 월요일 晴

꼬추 14斤을 팔았다. 200원 받었다. 妻가 場에 가 별로 한 것도 없이 다 쓰고 왔다. 물건갑은 비싸고 돈은 가치가 있어야지. (…) 농골 魯應奉氏가 와 새끼 10통을 借用해달라고 졸라대여 借用해주었다.

◎ 9월 18일 (음 윤 7월 26일) 수요일 晴

서울에 집토을[집터를] 마련하면 住宅資金을 융자 받을 수 있다고 高棧 敬浩가 와 같이 서울에다 집도을 마련해 보자고 朝飯 後에 왔다 같다. 春植에게 있는 돈이 빠저 나와야겠는데 그 돈만 生覺하면 속이 상하다. 今年엔 모든일이 순조롭이 되지 않는다.

◎ 9월 21일 (음 윤 7월 29일) 토요일 晴

妻는 꼬추 11斤을 같고 場에 가 1,650원에 팔아 같고 흥정을 해 같고 왔다. 來年에 魚網을 할라고 生覺 中에 있는데 妻는 극구 反對한다. 約 40万원을 들여 차릴라고 準備을 할라니 妻가 反對하는지라 매우 곤란하다. 나는 어망을 하고 십은 生覺이다. 또 하기로 李貞國과 議論까지 햇다. 妻가 反對하는지라 生覺을 해보아야겠다.

◎ 9월 22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소 개우 6,000 원 언음[얹음]. (…) 소상인이 소을 같고 와 우리 소와 바꾸라 해 믿은 처지라 交換하기로 하고 一金 六千원을 언고 交換했다. 우리 소보다 약간 살이 있고 애우다. 交換하고 보니 우리 소보다 더 큰 것 같이 않다. 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집에 一金 四千원이 있어 주고

弍千원은 次後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부리기 좋고 새끼을 잘 낳아야겠는데 모르겠다.

◎ 9월 25일 (음 8월 4일) 수요일 晴

우리 일 11名. (…) 농꼴 서 일군 10名을 사 오늘 벼비기 일을 했다. 아논뚝 밀 아논 7升 지기을 除外 하고 다비였다. 쓰러저서 매우 더디고 束數가 昨年에 비해 많이 났고 일이 아주 더디다. 벼을 비여 보니 아주 쭉정벼로 쓰러진 곳은 아주 벼 나올 것 같이 않다. 일꾼 들이 모두 서둘러 일을 해주어 많이 한편이다. 모두 산에 걸로 200餘束은 來日 떨까 하고 왜뚝에 놓아 두었다. 昨年에 비해 17餘束이 더 收穫은 아주 떠러질 것이다. 3斗5升 밭원 662束, 아논 1.5升 780束, 3斗 計 1,442.

◎ 9월 26일 (음 8월 5일) 목요일 晴

脫穀을 해서 드려 담으니 쭉정벼가 더 많은 것 같다. 아주 소출이 안 난다. 마지기 대고 兩石만났으면 좋겠다. 1,700餘坪인데 마지기로 9마지기다. 9斗落 兩石이만 만족하다. (…) 權管里 同婿에게서 魚網은 좋이 않다고 편지가 왔다.

◎ 9월 30일 (음 8월 9일) 월요일 晴

下午에 도야지 상인이 와서 졸라대여 도야지을 팔았다. 몇일 前에 16,500원 주겠다는 것을 안 팔았더니 16,000원에 팔았다.

◎ 10월 1일 (음 8월 10일) 화요일 晴

食前에 田氏가 돈을 借用하라 와 一金 3,000원을 借用해주고 朝飯食事을 같이 했다.

◎ 10월 5일 (음 8월 14일) 토요일 晴

서울에서 春植 네려오라 했으나 안 왔다. 참으로 氣分 나뿌다. 一金 拾餘万원 날린 것만 같다. 春植에게 속았다고 生覺된다. 속일 사람이 없어 兄을 속였나 생각하니 不快하기 짝이 없다. 白米 25叭 날라갈 것만 같다.

◎ 10월 6일 (음 8월 15일) 일요일 晴

秋夕. (…) 차례 中 春植이 서울에서 왓다. 조와라 했으나 돈은 안같고 왔다. 돈은 못 같고 왔서도 몸이라도 와 이야기 할라고 왔다고 한다. 게수씨가 네려 보냈다고 한다. 春植이 살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이 믿없지 않다. 종일토록 庶母家에서 있었다. 議論을 할라야 만날 수 없고 피해다니고 있다.

◎ 10월 11일 (음 8월 20일) 금요일 雲

농골 밭원 338束, 농꼴 아논 1,200, 밭원 苗板 배미 1442, 밭원뚝밀 1斗 143, 앞 밭원밀 1斗 167, 아논 苗 95, 앞 1斗 5升(下) 133, 앞 1斗 5升(上) 108, 달뱅이 13, 앞 1斗와 말가웃지기마냥 140束, 앞 5升지기 50, 동욕골 37束, 計 3,846.

◎ 10월 12일 (음 8월 21일) 토요일 晴

도야지 사오다. 2마리에 一金 11,000원. 농꼴 柱雨氏家 도야지 새끼을 판다고 해서 食前에 가보았다. 하도 비싸게 달래 살까 말까 하다가 2마리에 壹万千원에 사갈고 왔다. 白米 3叭 갑에 까깝다. 비싸도 먹끼나 잘 해주었으면 하다. (…) 현 時勢로 1,000원은 더 주었다.

◎ 10월 13일 (음 8월 22일) 일요일 晴

前日 도야지 새끼 사온 것이 비싸게 사왔다고 누구나 보고 말하니 더욱 가슴이 쓰리다. 妻가 안달을 떨어 잘 메겨 잘 자라면 될 것이니 잘 메기라 했다. 아무쪼록 잘 자라야 후해 없겠다. 소개우 하고도 돈을 만히 더 주고 이번 도야지도 더 주고. 今年엔 일을 하고 보면 실수다.

◎ 10월 16일 (음 8월 25일) 수요일 雲

場에 갈다온 妻가 우리 도야지 산 것은 눈뜨고 도독 맛었다고. 場中上이 4,500원 이라니. 1마리에 1,500원을 더 주었으니 洞里之間에 참으로 못할 일이다. 그런 사람에겐 양심도 없다.

◎ 10월 22일 (음 9월 1일) 화요일 晴

來日 英浩가 修學여행을 간다고 해서 一金 500원을 주어 學校에 같다 냈다. 白米 2斗을 賣渡해서 주었다.

◎ 10월 23일 (음 9월 2일) 수요일 晴

英浩가 修學旅行 간다고 4時부터 서둘러 나도 일직 자리에서 일어났다. (…) 旅行 가는데 一金 250원을 주었다.

◎ 10월 25일 (음 9월 4일) 금요일 雨雲

새벽밥을 해 먹고 서울을 떠났다. (…) 12時에 孟植을 만났다. 孟植과 같이 고척동을 찾아가 땅

(집토) 갑을 알아보니 生覺과는 다르다. 1個月前만 해도 좋왔다는 것이다. 날로 시세는 뛰여 오른다고 그중에서도 14坪자리 시위지[시유지] 10만원이면 사겠다. 孟植집에 들리였다가 또 가보았다. 대충 미루어 보았다. 앞으로 發展이 있을 듯 하고 交通도 비교적 좋다. 春植에게 電話을 걸어보니 내 돈 때매 매우 걱정 중이라고 당장 어렵지나 않을까. 春植에게서 돈이 빠저 나오지 않으면 매사는 허사다. 孟植 家에서 宿했다.

◎ 10월 26일 (음 9월 5일) 토요일 雲

朝飯食事을 孟植 家에서 하고 孟植와 같이 春植을 만나라 永登浦에 왔다. 孟植이 결혼을 하게 되여 마음에 안되였다. 永登浦에서 11時頃에 春植을 만났다. 春植이 2,3日 來로 一金 6,7万원은 나을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집으로 모든 일을 同生들에게 마끼고 집으로 왔다. 同生들은 前日 본 지역을 보라 같다. 同生들 보고 곳 契約을 하라고 했다. 인제 돈을 마련할 일이 급선무다. 집을 것재면 30万원은 필요하다.

◎ 11월 1일 (음 9월 11일) 금요일 晴

서울에서 기별이 와야겠는데 매우 궁금하다. 또 허사가 된 것이 아닌가 궁금하다. 妻 外出服 2,500원.

◎ 11월 5일 (음 9월 15일) 화요일 雨

今年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여 가고만 있다. 서울의 일도 今日까지 無消息이니 궁금하기만 하다. 孟植과 같이 보아온 집토을 사기로 하고 보고 오며 급히 契約하라고 하고 왔으나 소식이 없다. 春植에게서 돈이 여의치 않은 모양. 春植과 같이 세탁소을 사기로 하고 一金 拾万원 가저간 것이 못사 누구을 주었다는대. 오늘날까지 利子도 제대로 못 밭고 元金을 빼달라 해도 빼주지 않으니 속만 상해 먹는 것도 消化가 안 되고 있다. 白米 25叭가 여기에서 늘었으면 34.5叭는 데는 것인데. 그 돈이 와 쌀을 팔아도 20叭 못 파게 되니 拾叭는 손해을 보고 있다. 生覺하면 참으로 속이 상해 죽겠다. 참으로 今年은 不吉한 해다. 게다가 농사도 제대로 못 되였으니 모든 일이 如意치 못하다.

◎ 11월 6일 (음 9월 16일) 수요일 晴

앞으로 집을 짓는데 뒤돈 낼 것이 걱정이다. 六日 내로 갈다와야겠는데 脫穀도 못하고 해 날이 없다. 하루 速히 脫穀하고 搗精해야 돈을 마련할텐데. 공상 속에 장기였다가 늦게야 자리에 들었다. 또 電話걸고 孟植에게 편지했다.

◎ 11월 9일 (음 9월 19일) 토요일 雪

오늘 脫穀도 못하고 서울 일이 급해 서울에 가기로 했다. (…) 서울 가 孟植을 만났다. 孟植도 집 질[지을] 準備에 여렴이 없다. 代地는 샀는데 생각에 덜 맛는 곳이다. 75,000원에 샀다고 한다. 과히 비싼 것은 아닌 상십다.

◎ 11월 10일 (음 9월 20일) 일요일 雲

날만 풀리면 곳 집을 지여야겠는데 큰일이다. 孟植과 같이 첨보을 마끼기로 하고 資料는 대여주고 일만 木手 미장이 等은 下請을 매끼였다. 대충 게산해보니 建坪 12坪 정도에 約 20万원 이상 들겠다. 큰일이다. 돈 장만 할일이 春植이와 같이 서울에 같다가 麻浦 가서 쉬게 되였다. 麻浦 庶매재가 후한 대접을 했다.

◎ 11월 11일 (음 9월 21일) 월요일 雲

서울 麻浦에서 出發. 歸家. 눈이 많이 나리여 일을 못 하겠다. 집에 오니 서울 일이 궁금해 곳 편지을 썼다. 돈이 제대로 대여 줄 것인지. 脫穀을 못해 걱정이다. …

◎ 11월 12일 (음 9월 22일) 화요일 雪

食前에 일어나보니 물이 제법 많이 얼었다. 마당이 얼지 않아야 脫穀을 헬탠대. 마당이 말으지 않아 來日 脫穀을 할수 있을는지? 하루 속히 搗精을 해야 쌀갑을 높이 밭을수 있을 텐대. 큰일은 앞에 놓고 마음이 조바심이 된다.

◎ 11월 15일 (음 9월 25일) 금요일 晴

今年엔 흉년 농사다. 74叭인데 인제 게꼴을 해야지 알겠다. 今年 叭數 74叭다.

◎ 11월 16일 (음 9월 26일) 토요일

서울行. (…) 白米 30叭 代金 中 先金으로 一金 5万원을 내갈고 쌀은 3日後에 주기로 하고

一金 5万을 갈고 서울에 떠났다. 孟植을 만나니 집을 짓기 始作 했다고 한다. 같이 우리 집 짓는데 가 보았다. 축대을 쌓아 같고 부엌을 쌓기 始作했다.

◎ 11월 18일 (음 9월 28일) 일요일

朝飯밥을 6時 半 頃에 먹고는 현장에 간다. 일군들도 왔다. 오늘도 분주히 일을 보았다. 오늘로 부럭은 다 쌓았다. 白米 31叭 搗精. 賣 30叭 15,300원.

◎ 11월 20일 (음 10월 1일) 화요일

오늘도 일직 현장에 같다. 오늘 개와을 해이였다. 오늘은 개와 쟁이와 木手을 점심을 해 주었다. 一金 500원을 주어 쌀을 사고 400원어치 술과 담배을 사 같고 대접 했다. 급한 대로 했으나 돈이 떨어져 큰 낭패다. 시골서 쌀 돈을 오늘 대여주기로 해 매우 기다리였으나 오지 않아 일이 중단 된 것이나 아닌가 조바심이 된다. 큰일이다 來日까지 않으면 큰일이다.

◎ 11월 21일 (음 10월 2일) 수요일

歸家. (…) 기다리다 못해 서대문 春植 家로 해 歸家했다. 쌀은 서울로 가지 않고 집에 있다. 큰일이다. 큰 낭패다. 서울서는 돈이 떨어지면 큰 손해다. 내가 쌀 돈을 아주 같고 가야 하는데 실수했다. 孟植이 고역을 겪을 것을 生覺하니 심신의 괴로움을 안정할 수 없다. 이런 일에는 고비가 있으나 해결 할 수 있을까. 돈이 해결인데 쌀 돈을 잘못 낸 대서 실수다.

◎ 11월 22일 (음 10월 3일) 목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 原植에게 쌀갑을 달라니깐 車을 부르다가 없다고 해서 아번님 家에 가 一金 万원과 大休氏 家에서 一金 万五仟원을 借用해 같고 10時 半車로 서울에 같섰다. 서울이가 보니 집짓는 일은 前日 中止간 했다고 孟植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이 많아 中止했다고 한다. 속이 상해 죽겠다.

◎ 11월 24일 (음 10월 5일) 토요일

一金 25,000원 같고 간 것은 다 쓰고 위상갑은 밭으라 오고 原植에게 받을 一金 拾万원은 消息이 없고 돈을 몰리고 참으로 속이 상해 同生과 말다틈까지 했다. 그리해 마지못해 딸라 돈을 20,000원을 섰다.

◎ 11월 25일 (음 10월 6일) 일요일

집 짓는데 갈 기분이 안난다. 돈이 돌아야지. 돈은 쫄리고. 春植에게서 돈은 나와야겠는데 한 푼도 안주고. 앙회로 보내준다더니 소식이 없고. 양회는 떨어저가고. 이렇게 쫄리고 서야 헤여 나갈 수 없다. 집의 진척은 3,4日이면 거이 끝나간다.

◎ 11월 26일 (음 10월 7일) 월요일

朝飯食事 後에 일토로 가니 조금 있다가 孟植이 왔다. 서울에서 原植에게서 電話가 왔다고 하도 깁어[기뻐] 서울에 가 京畿상회에 가니 原植에게 가니 쌀을 못 냈다고 주저주저 三溪 相得氏 氏가 原植 앞으로 一金 拾万원을 주어 찾았으나 原植은 쌀깝을 깍아 달라고 해 기분 좋게 一金 千원을 각아 주었다. 집에서 借用 해 같가[가지고] 온 一金 25,000원을 쌀 상인 相得에게 일금 20,000원을 집에 같다가 아번님을 드리라 했다.

◎ 11월 27일 (음 10월 8일) 화요일

일토에서 집에 가보니 妻가 왔다. 오늘서야 방을 놓았다. 모래 집을 둘 것인데 오늘서야 房을 놓았으니 들 수 없겠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집 걱정이 난다. 집에 일이 몰린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럽다. 지붕 울타리 거름 等외 일이 몰리였다.

◎ 11월 28일 (음 10월 9일) 수요일

오늘은 종일토록 방을 말리였다. 妻는 종일 불을 태[때서] 방이 아래 목을 말라 妻와 같이 새집에서 자면서 방을 말리였다.

◎ 11월 29일 (음 10월 10일) 목요일

오늘 집을 들라다가 집이 아직 멀어 못 들고야 말았다. 孟植집에 있으니 넉넉지 못한대다 있을라니 孟植이 눈치가 보이고 게수(제수)씨가 어려워 아주 不便하다.

◎ 12월 1일 (음 10월 12일) 일요일

집은 아직 꾸미지 못했으나 孟植을 이사시켰다.

우리집에서 쌀 같고 간 것으로 떡을 하고 술을 받어 洞里 이웃 몇 분과 孟植의 會社 친우 몇 이와 밤이 깁도록 놀다 같다. 아직도 방이 마르지 않아 초배만 했다. 인제 돈이 떨어저가 아직 집을 꾸밀라면 멀었다. 아직도 45万원은 있어야 꾸미겠다. 집에서는 돈을 더해갈 형편이 못 된다.

◎ 12월 2일 (음 10월 13일) 월요일

귀가. (…) 오늘은 집에 올라고 대충 孟植에게 付託하고 나문 것을 메끼고 一部 精算하라고 하고 모자라는 돈은 집세 노아 형편대로 하고 집에 가 준비하겠다고 하고 會社에 보내고 木子와 午前中 마루다락 놓고 하오에는 妻와 같이 귀가했다. 집에 오니 미리 쌀이 어지러울 程度로 일이 몰리였다.

◎ 12월 3일 (음 10월 14일) 화요일

조반식사을 모처럼 집에서 하고 洞里에 나가니 洞里분들이 모두 人便을 한다. 아직까지 이근방에서 서울에 가 집장만한 집은 없다고 人便가 자자. 高棧 가도 모두 방가운 人便! 前坪에가 恒秀집에 가니 바다에 같다고 해서 바다에 가니 新浦에 같다 해서 高棧와 瑞雨氏 家에서 점심을 먹고 下午 늦게 前坪에 가 만났다. 2,3日來로 4叭 나머지는 16,7日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왔다. 서울에 집 짓는데 예신 外로 들어 앞으로 집 세간사리가 걱정이다.

◎ 12월 4일 (음 10월 15일) 수요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 차분한 기분을 일을 해야겠는데 서울에 外上 갑 걱정 집에 오니 쌀돈 내쓴 것 걱정 마음을 安定시킬 수 없다. 不安한 가운데 안절부절 하루해을 보냈다.

◎ 12월 5일 (음 10월 16일) 목요일

前坪 恒秀가 쌀을 대준다는 날인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어 高棧가 基植에게 附託하고 집에 와 영 몇 마름 역고 해을 보냇다. 서울에서 孟植이 시달릴게 걱정이다.

◎ 12월 6일 (음 10월 17일) 금요일

쌀갑은 時勢가 날로 떨어지고 쌀돈은 못갑고 서울의 돈 해 갈 것이며 큰일이다. 빗은[빚은] 저서는 안될 텐데. 춘식에게서 나올 돈만 다 나와도 과히 몰리지 않을텐데.

◎ 12월 7일 (음 10월 18일) 토요일

살금은 더욱 떨어저 5,400원 가든 것이 4,500원으로 下落했다고 하니 남의 外上을 청산하자면 쌀을 팔아야겠는데 걱정!

◎ 12월 8일 (음 10월 19일) 일요일

서울서 맹식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꿈자리에서 서울집이 떠오른다. 오매불망이라서인 모양이다.

◎ 12월 9일 (음 10월 20일) 월요일

몰리는 돈만 해결하면 아주 개운할 것 같다.

◎ 12월 10일 (음 10월 21일) 화요일 雲

食前 일직 前坪에 갈랴고 高棧 가니 恒秀가 서울 가 없다고 해 高棧精米所에서 쌀갑 낸 것을 甫淳君에게 줄 것이라 해서 甫淳에게 몇일 더 기달려 달라고 하고 洛光君에게 一金 五千원을 쌀갑으로 내 같고 아번님 家에 借用한것을 같다 드리였다. 이곳에 몰려드는 금액은 대충 정리되였으나 서울 일이 걱정이다. 末日 共販日인데 收得稅 肥料代 등 벼을 못내 걱정인데 벼가 건조가 안되여 말리여야겠는데 날씨가 흐리여 못 내겠다.

◎ 12월 11일 (음 10월 22일) 수요일 雲

정午가 되어 正租 3叭을 실고 가고 1叭는 鎭元祠鎔氏가 지고 삼계까지 와 共販에 내 3叭 2등 1叭 3等을 맞아 收得稅 3叭 肥料代 1叭을 하고 왔다. 앞으로도 3叭 以上 더 내야 될 것 같다.

◎ 12월 12일 (음 10월 23일) 목요일 雲

長利米 8叭 4斗 受. (…) 식전에 세죽을 쑤고 있으니 前坪 恒秀가 와 長利米 때매 왔다고 해 계산했다. 前日 高棧에서 相得氏 앞으로 甫淳에게 白米 4입 주고 4叭 4斗 나문 것을 1叭 洛光君에게 쌀돈 낸 것 1叭 주라하고 3叭 4斗을 돈으로 받었다. 16,000원 16,300원인데 덜 받은 셈이다. 長利米가 계산되니 개운하다. 慈雨에게서 2叭 8斗만 오면 된다. 末日 妻 보구 서울을 같다오라 했다.

◎ 12월 13일 (음 10월 24일) 금요일 雲

벼 8叭 精米所에 실리다. 妻 서울행. 一金 万五千五百원.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가 서울 갈 준비을 했다. 9時頃에 出發했다.

◎ 12월 15일 (음 10월 26일) 일요일 雲雪

당장 몰려오는 돈에 머리가 어지럽다 품갑으로 一金 3,000원 위상갑 3,800원 쌀돈 낸 것이 3,000원. 앞으로도 19,000원이 필요한데 돈이 돌지 않는다.

◎ 12월 17일 (음 10월 28일) 화요일 雲

안골 祖母가 一金 200원 부조. 몇 일만에 妻가 歸家을 했다. 家庭에 매였다가 解放이 된 듯하다. 서울 일은 아직도 돈들 곳이 아주 많다고 위상갑도 못갑았으니 3,4 万원이 더 필요 안골 祖母의 환갑 부조로 一金 200원.

◎ 12월 23일 (음 11월 4일) 월요일 雲雪

저녁 나절 昶鎔君이 와 一金 200원만 달라 해서 아번님家에서 借用하다 주었다.

◎ 12월 24일 (음 11월 5일) 화요일 晴

朝飯 後에 孟植이 떠났다. 서울집을 房 1개을 전세놓아 밀린 빛 청산하고 여기에 万원만 보내달라고 했다.

◎ 12월 25일 (음 11월 6일) 수요일 雲

온늘도 朝飯 後에 농골서 도야지을 잡는다고 해 가 보니 나눌 사람이 없어 4斤 半 가량 사갈고 왔다. 좀 많은 듯하니 그냥 갈고왔다. 4斤 半에 700원이다.

◎ 12월 26일 (음 11월 7일) 목요일 雲晴

당장 몰리는 돈을 해결하기 위해 쌀을 팔랴고 高棧에 갈으나 高棧까지 갈다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왔다. 高棧 갈다와 날씨가 좋와 末日 共販場에 낼 벼을 널어 3叭 담았다.

◎ 12월 27일 (음 11월 8일) 금요일 晴

점심을 먹고 三溪에 벼 3叭을 실고나갈다. 3等을 맞았다. 檢查가 신[센] 편이다.

◎ 12월 28일 (음 11월 9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나니 高棧 작은 아번님이 오시였다. 작은 아번님이 살을 팔라 오시여 白米 1叭을 4,900원에 냈다. 下午에 창용이 와아 품갑 떨어진것 一金 1,600원을 주었다.

◎ 12월 29일 (음 11월 10일) 일요일 晴

농골 昶鎔君이와 수수 1叭을 三溪精米所에 지고가 댕겨왔다. 날 일기는 온화한 날씨와 쌀갑은 날로 올라가 5,100원이라고. 아무리 生覺해도 來年 計糧이 모자랄 것 같다. 당장 몰린 돈도 計산 못하고. 서울서 消息도 없고 매우 기다려진다. (…) 妻보고 三溪 白米 떨어진 一金 2,000원 妻氏에게 支拂.

1971년

◎ 年頭所感

希望을 가득신고 71年을 맞아 나로서는 最大의 해이다. 今年엔 집을 지여볼라 計劃中에 있으니 辛亥年이야말로 꿈을 안은 大望의 해라 아니 할 수 없다.

◎ 1월 1일 (음 12월 5일) 금요일 溫晴

… 妻는 一金 參仟원 같고 場에 갈다. 날씨는 푸근하여 일하기엔 좋으나 밀린 일이 산적같다. 집 한 채를 지울랴면 三年을 일에 싸인다는데 인제 始作도 아니다. 우선 物件이나 다 들여왔으면 한다. 木材, 계와, 양회, 모새 等 昨年에 산 논을 賣渡해 契約金으로 白米 拾入中 一金으로 5만원 밭어 흥정갑으로 5斗代 一金 3,400원을 주었다. 뭇 梁正鎬 君 품갑 밀린 것 2人分 800원 주고 李昶鎔 白米 1叭代 68,500원, 池億洙 一金 4,000원 일품갑으로 先拂했다.

◎ 1월 4일 (음 12월 8일) 월요일 雪冷

池億洙 白米 1叭 先拂 일품갑. (…) 朝飯을 마치고 누어 있으니 농골서 池億洙가 付話했든 白米 1叭을 더 달라고 당장 먹을 쌀이 없다 해서 高棧가서 柱雨에게서 契約米 올 것에서 1叭을 가저가라고 했다. 그리해 壹叭을 가저갈다.

◎ 1월 6일 (음 12월 10일) 수요일 雲

… 妻는 서울일이 궁금하여 떠났다. 갈 길에 집

지울 모든 時勢을 잘[알]아보라 付託했다.

◎ 1월 8일 (음 12월 12일) 금요일 晴

지억수 一金 2,700원 주다. 朝飯食事 後에 高棧가서 材木 살 것을 맞추고 午後에야 왔다. 와석까래를 베기였다. 高棧가서 原植에게 柱雨와 契約米 拾叭 中 5만원 받고 白米 貳叭을 받어 농꼴 池億洙에게 壹叭을 주고 洛光君에게 壹叭을 주어 나머지 5,795원을 받어다가 池億秀가와 四仟원 주고 나머지 2,700원을 더 주어 白米로 2叭 가저간 셈이다.

◎ 1월 13일 (음 12월 17일) 수요일 晴

高棧 가 瑞雨氏을 모시고 高棧가 敏浩에게 말하니 三溪가 學秀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學秀와 같이 平澤에 가보니 서울 時勢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서울로 가기로 協議가 되어 一行은 下午 4時 半에 高速뻐스로 서울을 들리여 黑石동 당고모집을 찾아 같다. 당고모 집에서 하루을 쉬였다.

◎ 1월 14일 (음 12월 18일) 목요일 雲雪

당고모 집에서 자고 당고모부을 모시고 눈 나리는 거리로 나왔다. 듯던 말과는 다르다. 東大門 청량리 일대의 製材所을 더듬었으나 平澤만도 아주 못하다. 참으로 氣分이 나뿌다. 후해가 막심하다. 흙석동[흑석동] 영등포을 더듬어도 매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을 많은 고생을 시키였다. 당고모부가 소개을 하고 쏘다니였으나 수고만 했지 효과가 없다. 未安하다. 참으로 未安하다. 우리는 平澤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5半에 水原에 와 삼촌 家에서 잤다.

◎ 1월 15일 (음 12월 19일) 금요일 晴

水原 三寸 家에서 宿하고 오다 水原 東一製材所에 들리여 알아보니 사람도 좋와 보일 분 제일 낳은 듯하여 하기로 결정하고 결산을 냈다. 才當 70원 특재 85원에 결정 木材 180才 송판 15평 베니야 3×6.03=4장 함석 31mm 120장 3,750원 어치 16万어치의 흥정을 해왔다. 오늘 종일 제재했으나 半도 못했다. 瑞雨아저씨와 水原집에 가 쉬웠다. 水原 吉書房 家에가 쉬고 일직 木材所에 왔다. 오늘도 종일 했으나 저녁이 되어 車가 안 와 못 실리고 三寸 家에 같다.

◎ 1월 16일 (음 12월 20일) 토요일 晴

三寸 에 일직 製材所에 들리니 車가 와 上車하고 있다. 水原에 茂晟에게 一金 2,000원을 주고 出發 發案에 와 그 車에 갈아 싣고 4時頃에 到着했다. 우리 집에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 一金 50원 더 주었다. 모자라는 것이나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 집 떠난지 벌써 5일만에 歸家했다.

◎ 1월 18일 (음 12월 22일) 월요일 晴

朝飯床을 물리고 나니 車소리가 나서 가보니 前 付託했던 모래를 싣고 왔다. 모래 운반 代로 一金 3,000원을 주고 모래을 밀양 아저씨가의 마당에다 부려놓고 같다. …

◎ 1월 19일 (음 12월 23일) 화요일 晴

食前에 왕울기 한통을 꼬고 朝飯食事 後에 집에 나문 돈 9,000원 같고 高棧가 源植에게 一金 3,000원을 받어 같고 優秀家에 가 함석 갑[값]과 운임 떨어진 一金 39,000원을 주었다. 함석갑으로 37,500원과 운임 3,500원 중 2,000을 주었으니 優秀와의 계산이 3,900원을 주어야 되겠기에 39,000원을 지불하고 와 우리 소로 前日 실어온 모래를 집으로 運搬했다.

◎ 1월 20일 (음 12월 24일) 수요일 雨

산 契約함. (…) 종일토록 가랑비가 나리였다. 재목이 그대로 비에 젖어 걱정이다. 석가래는 대패질 한 것이라 빛이 변할 것 같다. 午前에 德雨가와 譽植 家대[家垈] 賣買에 대해 議論하고 간 後 茂植이 와 흥정을 했다. 내가 살랴는 林野을 致雨가 덤벼들어 당 흥정이 공교롭게 되는 동시에 산갑이 최고도로 오르고 마렀다. 致雨가 응큼한 수단으로 덤벼들다 茂植과 致雨간에 싸움가지 이루어지고 경우에 결국 눌리여 내가 사게 되었으나 산갑은 최고 갑이 되었다. 146林에 坪當 42원 147林에 50원에 흥정 예웨의[예외의] 금액이다. 40원에 팔랴든 것이 46원이나 오르게 되었으니 공교롭게 되어 계약을 작성. 계약금으로 3만원. 저녁에 3,000원을 주었다.

◎ 1월 21일 (음 12월 25일) 목요일 雨

장마비만양 종일토록 부슬부슬 가랑비가 나리였다. 재목이 비에 맞아 빛이 번치 않을는지 염려가 된다. 식전에 농꼴 가서 柱雨氏에게 一金 30,000원을 받어 왔다. 땅갑으로 60,000원을 받은 셈인데 自己말로 갑은 잘처주겠노라 했다. 朝飯을 마치고 壹雨氏 家에 가니 茂植이 있기에 契約金條로 一金 30,000원 주었다. 譽植家 산은 茂植이 위임 맡아[맡아서] 팔고 있다. 契約金을 주고 나니 茂植이 동욕굴 산은 돌려달라기에 못한다고 했다.

◎ 1월 22일 (음 12월 26일) 금요일

朝飯 後에 궁금하여 마실가니 德雨 家에서 契約을 하고 있다. 譽植 田을 德雨가 사고 평당 白米 3付 7合에 700평을 契約하고 있다. 나도 산을 契約했으나 몇 평이나 되는지 매우 궁금할 뿐 아니라 병이나 아니 날는지? 아직까지 시세로는 가위 시세다. 前日 茂植이 앞산 관리權을 환원하라는 말이 氣分이 가라안지 안는다.

◎ 1월 23일 (음 12월 27일) 토요일

下午 늦게 德雨가 와 쌀 관계로 농꼴 간다기에 나도 柱雨을 보라가 쌀갑 43,200원을 받어왔다. 源植에게 一金 30,000원과 契約 치루느라고 30,000원을 받어 왔으나 103,200원으로 백미 15叭 代金을 찾은 셈이다. 나문 돈이 백미 15叭 나맛다.

◎ 1월 24일 (음 12월 28일) 일요일

食前에 音子에게 산 중도금조로 一金 40,000을 주고 領收證을 받어 갈고 왔다. 午前에 당이 질지만 車길에 같다 놓은 沙(모새)을 소로 실어왔다. 다 실어오고 위 얼글[얽을] 새끼를 꽜다.

◎ 1월 25일 (음 12월 29일) 월요일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담배 금잔디 5보루, 아리랑 20갑 2,950원어치을 사 갈고 왔다.

◎ 1월 26일 (음 12월 30일) 화요일

食前에 농꼴 梁正鎬君이 와 오늘 장보게 돈을 좀 달라고 해서 一金 1,200원을 주었다.

◎ 2월 5일 (음 1월 10일) 금요일

柱雨에게서 一金 8,000 受. (…) 高棧서 柱雨을 만나 一金 3,000원을 갈고 왔더니 妻도 정즘 물 가서 一金 5,000원을 갈고 왔다.

◎ 2월 9일 (음 1월 14일) 화요일

나무을 다듬고 쇠연장을 드리였다. 仁性 父가 협조했다. 수촌아저씨와 悠雨와 같이 와 술과 점심을 같이 했다. 水村 아저씨 일품갑으로 돈을 달라해서 一金 500원을 드리였다. 유우에게 술갑으로 借用한 一金 500원을 주었다.

◎ 2월 14일 (음 1월 19일) 일요일 雨雲

朝飯食事後에 高棧 精米所에 가 基植氏을 졸라대여 搗精을 始作해서 31叭 4斗을 搗精했다. 마트리만 搗精料로 주고 31叭는 連植에게 賣渡했다. 叭當 6,950원에 叭當 7斗꼴은 나야 할 것인데 6斗 5升인 셈이다.

◎ 2월 15일 (음 1월 20일) 월요일 晴

산은 187,000원. (…) 오늘부터 집지을 始作한다더니 날씨가 좋이 않어서인지 木手가 안 와 敦植家에 가 연장 귀을 저오고 일을 알아보라고 하니 高棧 같다 와 來日부터 始作하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새끼을 꼴랴고 하니 音子가 와 산을 재지 않고 人交으로 계산하자고 하여 그리 하기로 하고 敦植 名義로 있으니 印鑑을 떼와 등기 수속을 하라고 하고 坪數을 자세히 모르니 各自 帳籍을 作成하자고 했다. 마음이 한가롭지 않아 일이 제대로 안된다. 산을 샀서도 잘한 것인지 너무나도 비싸게 사서 어리둥절하다.

◎ 2월 18일 (음 1월 23일) 목요일

날씨는 冷한 편이나 木手아저씨와 敦植이 와 일을 했다. 기둥 마른개질이 거이 다 끝나간다. 敦植은 나무을 다듬었다. 音子가 와 등기 서류을 해 갈고 와 조사해 보니 틀린 곳이 정정하라고 했다. 등기비용이 9,000여 원이나 든다.

◎ 2월 19일 (음 1월 24일) 금요일

마른개질이(기둥) 끝나고 도리을 마른개질을 하시였다. 洞里 敎雨 德雨 悠雨 申 아번님이 오시여 끌구멍을 뚤었다. 거의 다 뚤었다. 지녁

나절은 주춧돌을 원뚝에 가 주서같고 왔다. 소가 별안간 젓이 동이 동이 만큼 부어 집이나 妻을 安仲으로 보낼랴고 하다가 새끼를 날랴고 하는지 모르어 그만두니 조금 있다가 (10時半頃) 새끼을 낳았다. 황송아지을 낳았으면 15,000원은 더 받을 것인데.

◎ 2월 20일 (음 1월 25일) 토요일

수촌 아저씨와 아번님이 오시여 끌 구멍을 파시였다. 洞里 사람이 거이 다 와 드려다[들여다] 보았으나 致雨와 다섯재祖만은 인사조차 없다. 기둥도리 구멍이 거이 다 파인다. 저녁에 洞里분들이 모여 와 앞뜰(1021)번지의 등기가 제대로 나지 않았으니 全作人들이 掌書을 作成하여 次後에 정정하자고 全作人 署名捺印을 하자고 와 각서을 作成했다.

◎ 2월 21일 (음 1월 26일) 일요일

柱雨에게 白米 15叭 땅갑 나문 것에 6叭代 11,800원 받고 9叭 나맜다.

◎ 2월 22일 (음 1월 27일) 월요일

등기 비용 一金 6,000원 支拂하다. 오늘로 마른개질이 거이 끝나가는 듯하다. 全般 산 등기 관계로 妻을 新浦에 보내 등기 비용을 9천 여원 중 一金 6,000원을 주었다.

◎ 2월 23일 (음 1월 28일) 화요일

食前에 高棧 連植君이 와 돈이 있으면 三日만 借用해 달라고 하여 一金 20,000원을 借用해 주고 柱雨氏에게서 얼마나(몇 가마) 引收했느냐고 하니 8叭이라고 해서 어이된 일인가 하고 柱雨氏를 찾아가 알아보니 白米 9叭 분명히 인수했다고 하여 넘어왔다.

◎ 2월 26일 (음 2월 2일) 금요일

妻는 場에 一金 5,000원을 같고 場에 같다 왔다. 連植에게 借用해 준 一金 2만원은 오늘 같고 왔다. 敦植은 대패질하고 木手 아저씨는 대공 거리와 평고자 6개 손질로 해을 보냈다. 능율이 오르지 않는다. 始作한 지 10일이 되었다.

◎ 2월 28일 (음 2월 4일) 일요일

오늘도 잔일로 해을 보냈다. 아직도 잔 손 갈 것이 얼마인지 모른다. 안채 세간사리을 사랑으로 옮겼다. 솟도 올메였다. 英浩는 서울에 같다. 一金 만원을 주어 보냈다. 수업료 4,000원 서울 취득세 4,000원 기타 2,000원 합 만원을 주어 보냈다.

◎ 3월 7일 (음 2월 11일) 일요일

上樑日. 일직부터 서둘러 집을 세웠다. 前日에서 약간 실수하여 장모의 마른개질이 한치가 낮아 前間기둥에 한 치을 나추었다. 氣分이 매우 좋이 않았으나 그리 큰 잘못이 아니라 어이 할 수 없다. 9尺 기둥이 8자 9치로 前間柱가 주렀다[줄었다]. 2時頃에 기둥을 다 새우고 上梁式을 곳 했다. 上樑을 쓰고(自身) 上梁式에 白米 1斗 5升과 一金 500원을 냈다. 洞里분들이 다 모이였다. 날씨는 풀리지 않는다.

◎ 3월 9일 (음 2월 13일) 화요일

것 중방은 거의 다 드리였다. 推進해오던 道路工事기공식을 하는 날이다. 나는 가 보지도 못했다. 오늘도 날씨는 풀리지 않는다. 前夜에 함석공이 왔다갔다. 상상 이위의[이외의] 재료가 든다. 덧집 지우는데 가구목 석가래 송판 等 3,4万원이 더 든다니. 妻男과 妻 생질이 오늘 떠났다. 정수가 와 혼났다. 정수 一金 천원 妻男 500원을 주었다. 저녁에 德雨가 連植에게서 一金 120,000원을 찾아왔다.

◎ 3월 10일 (음 2월 14일) 수요일 晴冷

장 추녀 걸고 前面 석가래을 걸었다. (…) 林野買權代殘金 拾万七仟원을 支拂했다. 前日 德雨가 高棧 連植에게서 白米代로 一金 120,000원을 같고 온 돈으로 산 갑[산 값]을 音子에게 支拂했다.

◎ 3월 15일 (음 2월 19일) 월요일

敦植 藥 지라 간다고 하여 一金 2,000원을 주었다. …

◎ 3월 17일 (음 2월 21일) 수요일 晴

동욕꿀 미루나무을 비여다가 아번님 창용군과 같이 덧집거리을 키였다. (…) 오늘 산 등기을 찾아왔다. 등기 비용이 오늘 3,000원을 같고 같다.

◎ 3월 20일 (음 2월 24일) 토요일 晴

敦植 500원 拂. (…) 食前 일직부터 함석일을 끝내고 오늘 일직 끝냈다. 下午 4時頃에 일을 끝내고 떠났다. 일품갑으로 3人이 2日 半에 一金 9,500원을 주었다. 敦植이 종일 協助하고 木手 아저씨도 協助했다. 지붕을 해 이우고 나니 아주 개운하다.

◎ 3월 21일 (음 2월 25일) 일요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木手일을 始作했다. 木手 2名이 모두 와 문꼴의 마른개질 급 대패질을 했다. 지붕을 해두루니 비가 와도 安心이다. 妻은 場에 가고 高棧 精米所에서 와 "벼" 正籾 50叭을 실어 같다.

◎ 3월 22일 (음 2월 26일) 월요일

… 食前에 高棧 가서 連植에게 쌀 돈으로 一金 參万원을 받어왔다.

◎ 3월 23일 (음 2월 27일) 화요일

문 중방 드리다. 문 중방은 거이 다 드리였다. 내일 문꼴 드릴 것 같다. 妻는 搗精 次 高棧 같다. 正籾 50叭 中 34叭 7斗와 찹쌀 6斗 中 搗精料에 白米 33叭 3斗 保管하고 등겨 6叭을 保管했다. 왕겨는 木手 아저씨 家에 드리다.

◎ 3월 24일 (음 2월 28일) 수요일 雲

朝飯 前에 成洛光 君이 와 白米을 自己을 달라고 하여 白米 20叭을 外上으로 洛光君을 주기로 하고 朝飯後에 高棧가 基植군에게 白米 20叭는 洛光君에게 위상하고 나머지 23叭 3斗는 같고 오라고 했다. 木手 아저씨와 敦植은 종일 門꼴을 드리였으나 안방문 앞 같고 종일 했다. 아주 능율이 오르지 않는다. 어느 때라도 받기로 하고 洛光君에게 주었다.

◎ 3월 25일 (음 2월 29일) 목요일 雲

敦植은 마루 송판을 대패질을 하고 木手 아저씨는 문꼴을 드리겠다. 門꼴 드리기 始作하면 2, 3日이만 끝날 줄 알았으나 몇 일이 더 걸릴는지? 敦植도 食前에 오더니 朝飯 後에 온다. 오늘 下午에 高棧 精米所이서 白米 12叭마트리와 등겨 2叭 실어왔다. 인제 찹쌀 6斗와 등겨 4叭 나마 있다.

◎ 3월 31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오늘은 木手도 종일 와 구루마루을 놓고 敦植은 중깃을 드리고 외을 일겄다. 큰아번님, 둘재 祖, 壹雨, 正奭, 撒雨, 然雨, 裕浩, 작근 아번님, 안골 祖, 弘植 등이 위을 걸것다. 下午에 木手는 일이 끝나 計算을 해 주는데 내 生覺에 日當 仟원을 生覺했으나 800원식 계산하자고 하여 마지못해 800원식 32日分 一金 25,000원을 드리고 왕겨 40가마. 敦植은 16,200원을 주었다.

◎ 4월 4일 (음 3월 9일) 일요일

午前에 농꼴 池氏와 德雨가 와 來日 흙일 할 흙을 개여 놓고 午鐘대 安仲으로 문을 마치라 같다. 몇 집에 다녀 보왔으나 가격 차이가 난다. 來日 와 보라고 하고 下午 늦게 도라왔다. 新浦에서 正籾 種子을 교환해 준다고 하여 貞愛에게 一金 2,000원을 매기고 왔다.

◎ 4월 6일 (음 3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흙을 바르었다. 뒤 추녀가 남고 다 바르었다. 致雨가 와 부역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와 또 문을 재여 같다. 오늘 온 사람이 금액 차이가 있어 결정했다. 짝 당 1,000원에 마치였다. 食前에 쌀돈 찾다 남은 돈이 있어 찾으라 같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아번님에게 一金 5,000원을 借用해서 一金 17,000원 어치 肥料을 사다 달라고 德雨에게 付託했다. 下午에 肥料 23包袋 尿素 12袋 複合 14-35包袋.

◎ 4월 7일 (음 3월 12일) 수요일 晴

午鐘때에 洋회가 왔다고 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一金 1,000원을 드리였다. 335包 中 戶當 16袋식 나누고 31袋 洞里에 쓰기로 保管했다. 우리는 17袋 1袋는 運전수가 술을 주었다고 주고 같다.

◎ 4월 9일 (음 3월 14일) 금요일 晴

來日 맛벽칠 흙을 準備하고 개여 놓고 育成會總會에 나같다. (…) 連植에게서 一金 17,500원을 받고 計算이 끝났다. 쌀 갑을 일었다.

◎ 4월 10일 (음 3월 15일) 토요일 晴

맏벽을 첬다. 농꼴 가 池氏가 온다고 해 기다리

다 가보니 仁川같다고 하여 水村아저씨을 얻어다 맏벽을 발랐다. 건너방 벽만 나맜다. 일이 몰리니 무었을부터 해야 할는지 머리가 어지럽다. 저녁에 분회 20포와 수사 40봉을 車便에 洛光君이 가저왔다. 다이루 도기다시 함석 等이 모자란다.

◎ 4월 11일 (음 3월 16일) 일요일 晴

安仲場에 모자리을 써려 놓고 下午에 떠났다. 場에 가 문 마친 木工所에 가 契約金 조로 一金 20,000원을 주었다. 문을 잘 짤 것인지가 문제다.

◎ 4월 15일 (음 3월 20일) 목요일 晴

수촌 아저씨와 億秀 君은 재벽을 했다. 房 3을 재벽했다. 池億秀 白米 1叭 支拂. 양식이 떨어젔다고 하여 白米 1叭을 食前에 가저갔다.

◎ 4월 18일 (음 3월 23일) 일요일

벽돌 1,000장 代 3,500원, 車 운임 1,000원 4,500원 洛光 君이 支拂.

◎ 4월 19일 (음 3월 24일) 월요일 晴

저녁에 魯氏家에 일온 1名分 합해 一金 1,000원을 주었다.

◎ 4월 21일 (음 3월 26일) 수요일 晴

水村 아저씨가 一金 1,000원 만 달라고 하여 一金 1,000원을 드리고 鳳性의 품갑 400원과 水村 아저씨의 100원 末抑除外하면 500원이 더 간 셈이다.

◎ 4월 24일 (음 3월 29일) 토요일

水村 아저씨는 건너방을 놓고 억수君은 굴뚝 쌓고 (…) 식전에 낙광군을 찾아가 一金 2,000원을 받어왔다.

◎ 4월 26일 (음 4월 2일) 월요일 晴

水村 아저씨에게 大용[대형] 체경[거울]을 감사한 마음에 드리였다.(1,600원자리) (…) 오늘은 집지 일을 中止하고 妻와 같이 場에 같다. 문 짜는 곳에 들리니 아직도 멀다. 5月 2, 3日頃에나 달아 준다고 한다. 장 흥정으로 一金 15,000원 어치다. 솟 1,500 방 종이 5,500원 철물게약 3,000원 其他 5,000원 等의 흥정을 해 같고 소에 실어왔다. …

◎ 5월 1일 (음 4월 7일) 토요일 晴

물건이 없어 美粧일도 中止하고 妻가 場에 간다고 하여 一金 參仟원을 주었다.

◎ 5월 4일 (음 4월 10일) 화요일 雲

농꼴 安榮來君과 李창용 군이 왔다. 安榮來君이 품갑으로 10名치을 달라고 하여 一金 4,000원인데 5,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一金 4,500원을 주고 나중에 따지자고 했다. 우리 食口은 안채로 들었다. 술 한 잔 대접은 9日에나 할까 한다.

◎ 5월 5일 (음 4월 11일) 수요일

문 나문 것 달고 유리도 끼우었다. 苗板에 물이 많이 들어 물을 푸고 오니 유리와 문을 달라 왔다. 문갑으로 一金 4,500원 支拂하다. 인제 유리 갑만 나맜다.

◎ 5월 6일 (음 4월 12일) 목요일

億秀君은 부엌 양회을 바르었다. 下午 늦게 문과 유리 나문 것을 달라왔다. 바틀 오늘 始作할라고 高棧 같다가 연장을 가저왔다.

◎ 5월 7일 (음 4월 13일) 금요일

校長과 會長 訪問. 億秀君을 평결 보내여 다이루을 사같고 오라고 一金 4,500원을 주다.

◎ 5월 11일 (음 4월 17일) 화요일

소 1. 徐斗鎔 2. 정圭潤 3. 高憲植 4. 金圭철. 초벽 2 半. 재벽 10, 기타 3 半, 합 16. (…) 못이 모자라 물꼬을 일직하고 新浦에 가 못 2근을 사같고 왔다. 億秀君은 대똘 시아게을 하고 아저씨는 뒤마를 종일 놓았다. 午前 中 하고 億秀君은 같다. 소가 前日 재철 집에서 부리였는데 목이 부어왔다.

◎ 5월 13일 (음 4월 19일) 목요일 晴雷雨

木手일이 오늘 끝났다. 귀 마루을 종일 놓고 선반을 맸다. 일손을 일직 뗐다. 木手일로 새대문까지만 하였으면 完全이 끝날 것을. 夕飯을 마치고 일한 勞賃을 計算하여 드리였다. 一金 4,000원. 저녁을 먹고 나니 천동 번개가 쏘나귀와 함께 쏘다지더니 지났다. 木手아저씨는 越房에서 쉬시였다.

◎ 5월 16일 (음 4월 22일) 일요일
妻는 場에 갔다. 유리갑을 一金 15,000원을 같다주고 철물 나문 것도 일금 1,000원을 같다 주니 現在가지 위상는 없다. 돈도 떨어저 간다.
◎ 5월 18일 (음 4월 24일) 화요일 晴
洞里 앞 役事라고 食前에서야 알았다. 못 나갈 형편이다. 一金 400원 하루 품갑을 냈다.
◎ 6월 11일 (음 5월 19일) 금요일
白米 1叭 賣 7,500원.
◎ 6월 16일 (음 5월 24일) 수요일
白米 1叭 賣出 7,650원.
◎ 6월 17일 (음 5월 25일) 목요일
농꼴 池億秀家에서 송아지 가저같다. 20個月 멕여주고 암송아지 사주기로 했다. 가저가기 前에 잘 멕여 주면 좋은 것. 앞으로 송아지 보아 사주기로 하고 보냈다. 송아지는 億秀婦人이 가저 같다.
◎ 6월 19일 (음 5월 27일) 토요일
午前 中에 來日 한 곳에 손 보고 함석일 하는 사람은 떠났다. 일품갑으로 재료 슴해 17,200원 중 500원 못 주고 다 주었다. 함석 10장 3,300원, 챙쇠, 납, 노임 합해 17,200원이다.
◎ 6월 22일 (음 5월 30일) 화요일
白米 1叭 賣出 7,600원.
◎ 6월 23일 (음 윤 5월 1일) 수요일
敎雨叔이 一金 1,400원 借用해 같다.
◎ 6월 26일 (음 윤 5월 4일) 토요일
소금 2叭 받다. 1,200원. (…) 소금을 받으라가 장지 염전에 가 2叭을 받고 간수을 얻어 같고 왔다.
◎ 7월 15일 (음 윤 5월 23일) 목요일
收得稅 家屋 5,400원 支拂. 白米 1叭 賣. 貞愛嬢이 面에 같나 알아보니 서울 간다기에 面 에 들려 收得稅을 같다주라고 했다. 오늘까지 支拂日.
◎ 7월 18일 (음 윤 5월 26일) 일요일
白米 1叭 賣 7,500원. (…) 朝飯 後에 몇 일 前에 賣한 白米을 가질라 왔다. 쌀이 조치 않아 300원 덜 받고 賣했다. 1叭을 더 내야겠는데 쌀이 좋이 않다고 안 온다. 서울 黑石洞사는 극장 君이 와 집 칠하는데 보고 같는데 20,000원 이상 들어야겠다고 한다. 와 칠해 달라 했으나 돈이 問題다.
◎ 7월 25일 (음 6월 4일) 일요일
오다가 新聞代 800원 支拂하다. 新聞은 7日부터 計算키로 했다. 一金 800원 支拂.
◎ 7월 26일 (음 6월 5일) 월요일
雄浩가 눈이 왜 이러냐고 하여 자세히 보니 눈빛이 아주 노랑빛이다. 急히 서둘러 新浦 病院에 데리고 같다. 간장념(黃疸)이라고 한다. 病院에서 治료하고 웅호을 드려 보냈다.
◎ 7월 27일 (음 6월 6일) 화요일
妻은 일직 서울을 보내고 나는 雄浩을 데리고 新浦 病院에 같다. 오늘도 치료을 하고 집에 보냈다. (…) 雄浩 치료비가 1,500원이다.
◎ 7월 28일 (음 6월 7일) 수요일
英浩 歸家. 약 1,500원 어치 사같고 왔다. (…) 雄浩을 데리고 新浦에 같다가 病院에 안 들리고 藥房에 들려 약을 사고 벵(닝겔) 2병을 사같고 와 집에 와 놓아 주기로 하고 사 같고 와 닝겡 注射을 놓아 주고 나니 3時頃이 되여서야 동욕꿀 밭을 2골 매고 나니 英浩와 妻가 歸家했다.
◎ 7월 31일 (음 6월 10일) 토요일
돈이 몰리여 白米 1叭을 賣했다. 一金 7,600원. 나문 것이라고 白米 3叭와 벼 5叭다. 家用이 모자라겠다.
◎ 8월 1일 (음 6월 11일) 일요일
병원 500원, 藥房에 1,400원의 外上갑 支拂.
◎ 8월 4일 (음 6월 14일) 수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같다가 午鐘頃에야 왔다. 高棧간 김에 (스피아 감)代 500원을 連植에게 傳하라고 童植에게 주고 왔다.
◎ 8월 6일 (음 6월 16일) 금요일
白米 2斗을 같고 場에 가 一金 2,400원 받어 같고 家用品을 사같고 왔다.
◎ 8월 8일 (음 6월 18일) 일요일
朝飯食事 後에 高棧 柱植氏가 와 茂植家 寶度

한 林 8町 致雨家 賣度한 林 8町에 對한 괄리하라는[관리하라는] 委任狀을 받어왔다. 買受한 者가 月前에 왔다가 나을 잠깐 만나고 같섰다. 한발 앞 당겨 柱植과 경계을 一週하고 高棧가 술까지 먹고 왔다. 柱植이 말은 나에 對해선 잘 生覺하겠노라고 한다.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8월 12일 (음 6월 22일) 목요일

白米 6斗을 냈다. 일금 3,000원.

◎ 8월 22일 (음 7월 2일) 일요일

白米 1叭을 賣 7,700원을 받었다.

◎ 8월 26일 (음 7월 6일) 목요일

敦一君 約婚日이 닥아온다고 場을 해서 妻家에 다녀온다고 한다. 約婚에 있어 우리 보고 목거리을 하라고 하여 妻는 조바심이 된다. 돈을 장만타가 一金 1,000원을 주고 같다오라고 했으나 모자란다고 一金 萬원을 準備하라고 한다. 白米 1叭 賣했으나 돈을 못받었다. 今年엔 큰돈으로만 몰린다. 몇 일 後엔 英浩가 開學에 돈이 필요한데 걱정이다. (…) 저녁에 人便에 妻는 釜山까지 가겠다고 기별이 왔다. 옷도 마처 입고 돈도 더 준비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몰리는 돈. 쪽기는 돈.

◎ 8월 29일 (음 7월 9일) 일요일

午前에 白米 1叭 賣出 一金 7,700원.

◎ 9월 6일 (음 7월 17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같다. 白米 1斗(찹쌀), 꼬추 2斤을 같고 場에 가 白米는 1,200원, 꼬추는 1,800원을 받었다고.

◎ 9월 11일 (음 7월 22일) 토요일

妻 서울가다. (…) 10時 半 車로 서울에 간다고 서둘러 떠나는데 德秀家 堤防가지 짐을 같다 주니 弘植이 自轉車에 짐을 마기고 집에 와 나무을 했다. 英浩의 學資金 5,000원을 같고 같으나 부족이다.

◎ 9월 12일 (음 7월 23일) 일요일

午鐘 頃에 妻가 歸家했다. 來日 올 줄 알았는데 今日 왔다. 집에서 같고 간 돈과 방세을 받어 英浩의 등록금을 주고 내 양복 기성복 6,000원에 사 같고 왔다.

◎ 9월 14일 (음 7월 25일) 화요일

林野 收得稅가 나왔는데 生覺 外로 8,400원이 나왔다.

◎ 9월 18일 (음 7월 29일) 토요일

土曜日 下午에 英浩가 왔다. 妻는 新浦에 가 고춧가루를 빠[빻아] 같고 왔다. 日曜日인 19日에 英浩가 떠나는데 돈이 없어 一金 700원을 주었다.

◎ 9월 21일 (음 8월 3일) 화요일

安仲場에 妻는 가 23日까지 支拂해야 할 林野 收得稅 一金 8,400원의 돈을 하라 꼬추 20斤을 같고 가 斤當 145원에 살다고.

◎ 9월 26일 (음 8월 8일) 일요일

食前에 일어나니 英浩가 왔다고 한다. 오다 三溪에서 자고 온다고 永登浦 洞里 女人인데 꼬추 商人이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왔다. 朝飯을 같이 하고 洞里에서 꼬추 50餘斤을 사주었다. 우리고 13斤을 냈으나 돈은 서울 가 英浩에게 주겠다고 2,500원을 未受했다.

◎ 9월 30일 (음 8월 12일) 목요일

妻은 三溪 가 煙草 20갑을 사 같고 왔다. 取得稅을 정애에게 支拂했다. 8,400원.

◎ 10월 5일 (음 8월 17일) 화요일

新浦에 같다왔다. 등기 件으로. 高棧 精米所에 벼을 실어다 주고 와 新浦에 가 肥料 6포 尿素 2 復合 2(22-) 新浦에 간 김에 黃氏에게 앞논 壹雨氏에게 산 논을 등기 신청했다.

◎ 10월 7일 (음 8월 19일) 목요일

肥料 借用해온 尿素 같다주다.

◎ 11월 1일 (음 9월 14일) 월요일

食前에 柱雨氏에게 一金 3,000원 借用해 妻을 서울 보내고 …

◎ 11월 2일 (음 9월 15일) 화요일

石油 1도란[드럼]과 모비루 한통 高棧 精米所에서 위상으로 가지오다.

◎ 11월 8일 (음 9월 21일) 월요일

아논 벼 실다. 13,184원.

◎ 11월 9일 (음 9월 22일) 화요일
아번님으로부터 洞里 논 受 18,276원. 6分 利子 6月 半分.
◎ 11월 16일 (음 9월 29일) 화요일
아논 등기 件으로 新浦에 같으나 黃裕章氏을 못만나고 東雨氏에게 등기 수수료 一金 7,000원을 마기고[맡기고] 왔다.
◎ 12월 4일 (음 10월 17일) 토요일
致雨에게서 一金 3,000원 借用. 敎雨氏 借用해 간 1,500원 중 1,000원 受.
◎ 12월 5일 (음 10월 18일) 일요일
妻 서울행 一金 2,000원 같고 新浦에 짐 같다 주고 와 1021번지 등기 찾아오다.
◎ 12월 9일 (음 10월 22일) 목요일
三溪 共販日이라 벼 3叭을 묶어 놓고 마트리 13k을 큰 아번님인 里長에게 같다 드리고 三溪 共販場에다가 2叭 收得稅하고 마트리는 里長에게 채우었다. 1叭은 賣上하여 一金 4,257원을 받어같고 致雨에게서 借用한 一金 3,000원을 주고 敎雨氏에게 借用해 둔 500원을 받어 울뫼 同窓會 기附 1,500원 해놓았다.
◎ 12월 14일 (음 10월 27일) 화요일
오늘 방아실리여 벼 15叭 搗精 白米 10叭 7斗 배서 柱雨에게서 一金 3,000원 갖어갈 것에 白米 1叭 주고 次後에 殘金을 찾기로 해고 1叭은 농골 光榮君이 일품갑으로 달라고 졸라대여 쌀돈을 技雨에게서 내가 주었다.(柱雨에게) 그리고 白米로 8叭 7斗 精米所에 保管.
◎ 12월 18일 (음 11월 1일) 토요일
脫穀機 사용 費用(기름갑 雜費)을 오늘 청산했다. 주식이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 12월 19일 (음 11월 2일) 일요일
柱雨에게서 白米代 殘金 6,900원을 받었다.
◎ 12월 21일 (음 11월 4일) 화요일
場에을 갈가 했으나 妻가 가겠노라고 해서 妻을 보냈다. 場에 一金 6,000餘원을 같고 같다.
◎ 12월 23일 (음 11월 6일) 목요일
가는 새끼을 놓아 꼬고 있으니 농꼴 里長인 田榮基氏가 와 中止하고 사랑으로 같이 들어 왔다. 長利米 얻으라 왔다. 長利米 11叭을 달라해서 그리 해 보자고 했다. (아끼바래쌀)로 줄터이니 來年에도(아끼바래쌀)로 달라고 하였다. 午종일 같이 있다가 下午에야 가는데 3,4日後에 搗精을 하여 주기로 했다. (利子는 35斤)
◎ 12월 25일 (음 11월 8일) 토요일
白米 14叭 搗精. 田榮基에게 11叭 長利. 李昶鎔에게 일품갑으로 1叭 17名 분. (…) 朝飯食事後에 농꼴 가 田榮基氏을 만나 昨日 付託한 件(白米)에 대해 搗精을 해서 精米所에 保管하라고 해서 집에 오니 馬車가 와 正籾 18叭을 실리고 午後에 가 搗精을 했다. 搗精料 除外 白米 14叭을 保管. 14叭中 1叭은 일품갑으로 주라하고 11叭은 田榮基에게 長利 7升 5升으로 주고 2叭는 賣할랴고 한다. 搗精이 끝나고 田氏에게 알리고 2叭는 田氏 파는데 같이 내여 肥料傳票을 떼다 달라 했다.
◎ 12월 29일 (음 11월 12일) 수요일
朝飯 後에 마실 같다 와 新浦에 가 田榮基氏에게 付託한 肥料傳票을 찾아 왔다. 肥料 尿素 14包 復合 11包 용산인비 5都 合 30包을 一金 18,364원에 살다 한다. (…) 三溪에서 실어와야 할 것인데 걱정이다.
◎ 12월 31일 (음 11월 14일) 금요일
우리 家庭的으로 나의 一生 가장 큰 집지을 했다. 白米 約 100餘叭을 들여 지은 우리 집은 高棧里 아니 靑北面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한 大役을 끝마친 해이다. 도라온 明年에도 無事한 한 해가 되였으면. 三溪에 가 肥料을 찾아 왔다. 三溪에 5번 같다 다 실어왔다.

1972년

◎ 1월 9일 (음 11월 23일) 일요일 溫
朝飯 後 德雨氏에게 一金 1,000원을 借用해 같고 高棧 瑞雨氏家 2男 結婚에 같다. 술과 국수을

먹고 나 祝儀金으로 1,000원을 範植에게 주고 도라왔다. 온 家族이 禮式場에 가고 손님은 範植이 치르고 있다. 瑞雨 아저씨가 우리집 짓느라고 많은 手苦을 해서 다른 집과 다른 祝儀을 했다.

◎ 1월 10일 (음 11월 24일) 월요일

下午에 柱雨에게서 쌀갑으로 우선 一金 5,000원을 냈다.

◎ 1월 11일 (음 11월 25일) 화요일 溫

妻가 場에 간다고 하여 外上갑 갑으라고 一金 3,000원을 주었다. 德雨氏에게서 借用했던 1,000원도 갑았다.

◎ 1월 17일 (음 12월 2일) 월요일

농꼴의 李昶鎔君이 또 노름을 하여 拾餘万원 이상 이른 모양이다. 今年에 농사을 지여 달라고 白米 1叭을 주었는데 걱정이다.

◎ 1월 20일 (음 12월 5일) 목요일

上植 家에 도야지을 잡는다고 하여 午鐘 頃에 가 도야지 고기 4斤을 사왔다. 斤當 190원.

◎ 1월 21일 (음 12월 6일) 금요일

妻을 場에 보내여 藥을 사러 보낼까 했으나 돈이 없어 못 보내고 叭 6닙을 짰다. (…) 藥이 떨어지면 못 사는데 떨어질가 걱정이다.

◎ 1월 23일 (음 12월 9일) 일요일

柱雨에게 一金 1,000원 못.

◎ 1월 28일 (음 12월 14일) 금요일

午前에 柱雨氏에게서 쌀돈으로 一金 5,000원을 先拂냈다. 쌀 돈으로 오늘까지 11,000 先拂이다. 1月 10日 5,000. 1月 23日 1,000. 1月 28日 5,000. 1月 31日 4,000. 2月 1日 15,000.

◎ 1월 29일 (음 12월 15일) 토요일

2월 5일 8,000. 2월 13일 3,000. 2월 25일 白米 1叭代 10,000.

◎ 1월 31일 (음 12월 17일) 월요일

朝飯 後에 妻가 柱雨氏에게 白米代로 一金 4,000원을 갇고 와 서울에 一金 8,000원을 갇고 갇다.

◎ 2월 1일 (음 12월 18일) 화요일

朝飯中에 柱雨氏가 왔기에 一金 15,000원을 받았다.

◎ 2월 5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柱雨에게 一金 8,000원을 내여 德雨에게 借用한 一金 3,500원을 주고 雄浩 서을 가는데 줄 돈이다.

◎ 2월 11일 (음 12월 27일) 금요일

비닐 장판 사오다. 2,000 外上. 테리오악 200. (…) 朝飯을 하고 안사랑을 바르다가 장판이 말이 아니여 곳 新浦에 나가 東雨家에서 장판을 外上으로 갇고 와 깔아 보니 不足이라 東雨家에도 그것뿐이다. 一寸만 더 있어도 충분할 것을.

◎ 2월 12일 (음 12월 28일) 토요일

悠雨에게 洋更갑 떨어진 것을 計算했다. 360원 中 50원을 주었다. 여물을 썰고 농꼴 가 도야지 고기 3斤 1양을 사갇고 왔다. 613원 外上.

◎ 2월 13일 (음 12월 29일) 일요일

柱雨氏에게 一金 3,000원 白米代로.

◎ 2월 14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朝飯食事 後 도야지 고기갑 支拂次 농꼴 가 孫貞準家에서 술을 먹었다. 도야지 고기대 610원을 拂하고 昶鎔家의 생선代 一金 1,000 支拂하고 왔다. 食前에 柱雨氏가 馬車 갇고 와 白米代만 내여 쓰고 한 白米 4叭을 내여 주었다. 計算은 後日로 하기로 하고.

◎ 2월 25일 (음 1월 11일) 금요일

농꼴 柱雨家이 이제까지 갇다 슨[쓴] 쌀갑을 計算하였다. 41,000中 2叭는 9,100원 1叭은 9,200원 1叭은 9,600원에 計算하니 白米 4叭 가저간 것을 따지고 나니 一金 4,000원이 더 온 셈이다. 그리하여 今日 白米 1叭代에 10,000원에 내여 1叭 4斗을 더 주어야 계산이 맞는다. 곳 新浦에 가 收得稅 2,700원을 支拂하고 쌀보리 6k 4,300원 東雨家의 外上 2,600원 新聞代 300원 라면 850원의 계산을 끝내니 일금 3,500원이 나맜다.

◎ 2월 26일 (음 1월 12일) 토요일

240원을 겄다[걷다]. 쌀갑은 오늘 10,400원인데 덜쳐 밭어 氣分이 덜 좋다. 柱雨가 쌀갑을 덜 친다.

◎ 3월 1일 (음 1월 16일) 수요일

食前에 原木 가 洛光君에게 쌀돈을 내라 갈드니 돈이 없다고 하여 쌀금은 10,500원이라고 한다. 오다가 重雨에게 쌀돈을 낼랴니 10,000원이상 못 주겠다고 하여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격으로 허는 수 없이 16,000원을 내갈고 왔다. 英浩와 雄浩 가는데 一金 20,000원을 주어 英浩 授業料와 交通費 等의 돈과 房費 쓴 것을 해주었다. 아이들은 10時車로 出發했다.

◎ 3월 2일 (음 1월 17일) 목요일

쌀갑이 고르지 않아 前日 쌀갑 낸 것도 1,000餘원이나 이른 듯하다.

◎ 3월 5일 (음 1월 20일) 일요일

同窓會. (…) 新浦에 같더니 거이 모인 듯 하다. 崔承玉 家에서 會을 하였다. 會費는 300원인데 나는 600원을 냈다. 지금가지 受募한 金額이 25,000원 가량 된다. 白米 2叭代로 22,000원을 3分利子로 長利을 徐廷燮君에게 주었다.

◎ 3월 6일 (음 1월 21일) 월요일

食前에 三溪의 敏豪君이 와 敎雨氏에게 長利쌀을 이야기 次 왔다가 들리였다. 長利을 20叭을 말했는데 敎雨氏가 朝飯 後에 와 10叭식 같이 주자고 하여 그리 하라고 하고 저녁에 三溪에 가기로 하고서 일직 마치고 敎雨氏와 三溪에 갔다왔다. 白米는 3, 4日後에 주기로 하고 利子는 3分으로 결정했다.

◎ 3월 8일 (음 1월 23일) 수요일

長利 10叭 三溪 李敏豪에게. (…) 오늘도 가마니을 꾸밀랴고 하고 있으니 車가 왔다고 세재 祖가 왔다. 가 보니 發安서 벼 실라[실으러] 車가 왔다. 敎雨家에서 16叭 우리 집에서 15叭늘 실고 發安으로 搗精次 같다. 午後에 始作해서 두 집 다 끝냈다. 敎雨氏家와 똑같이 냈다. 搗精料 除外 12叭 3斗다. 아주 많이 났다. 高棧보다 5斗는 더 남김. 끝내고 10叭는 賣했다. 20叭代 23,600 敎雨 10叭 나 10叭代 오다가 敎雨氏와 敏豪家에 같다 두 집이 10叭식 20叭을 三溪에 長利을 놓는 것이다. 돈으로 여기 時勢 22,800원을 주고 왔다.

◎ 3월 11일 (음 1월 26일) 토요일

妻는 場에 같다 왔다. 고무다라와 통을 사갈고 왔다. 一金 2,000원을 주었더니 白米 1斗을 더 같고 같다 왔다.

◎ 3월 26일 (음 2월 12일) 일요일

午後에 뒤엄을 실고 있으니 後坪 金貞植이 와 웬일인가 했더니 모래을 실고 왔다. 一金 3,700원을 借用해 같고 (金貞植) 車運賃代 支拂했다. 집에까지 와야겠지만 못 오고 동욕꼴 밭에 부리고 같다. 來日 또 실고 온다고 했다. 저녁에 妻가 왔다. 白米 1叭을 發安에서 賣해 같고 一金 10,700원 中 4,000원을 냉겨 왔다. 꼬추도 같고 가 一金 4,000원을 받었으니 白米 1叭代는 쓰고 온 셈.

◎ 3월 27일 (음 2월 13일) 월요일

車로 실어온 모래을 소로 실어왔다. 午後엔 모래가 한 차 또 왔다. (…) 致雨家 되지[돼지] 잡는데 가 도야지고기 2斤 半을 사왔다.(400원)

◎ 3월 30일 (음 2월 16일) 목요일

午中에는 發安場에 같다. 場에 가 搗精한 白米 16叭中 3叭 妻가 같고 가고 2叭 洞里米인데 悠雨 長利로 주고 3叭 柱雨 주고 8叭 賣했다. 아기바래 10,900원 막쌀 1,070원에 매受해 같고 부럭 下等으로 마룬 장당 22원, 一金 18,000원 契約金으로 사왔다.

◎ 4월 1일 (음 2월 18일) 토요일

洋灰을 完全히 結晶키 爲하여 三溪里長을 만나라 갈다. 돈을 같고 가 주니 次後에 주라고 한다. 洋灰는 50包 주기로 했으나 運搬이 問題다.

◎ 4월 6일 (음 2월 23일) 목요일

쑥고개 가다. (…)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西井里車을 三溪에 가 車에 몸을 실고 동챙의 다리에 가니 前夜에 다리가 끈어젔다. 괜신히 건너가 택시을 타고 쑥고개 가 申權雨氏을 찾았다. 前日 아번님과 契約한 담용 부럭을 마치였다. 58장 先契金으로 10,000원을 支拂하고 함석갑도 21,720원 中 20,000원을 주고 대문도 알아보고 왔다. 10日 後에 같고 오기로 했다. 2, 3日後에

한 번 더 가야겠다.

◎ 4월 10일 (음 2월 27일) 월요일

妻은 場에 가 비닐을 사갈고 왔다. 120m 1,100원 부럭 마친 것은 來 16日頃에 到着시켜준다고 하더라고 悠雨 一金 1,000원 借用해 가다. 來日 사랑채을 헌다고 해서 대충 치우다.

◎ 4월 11일 (음 2월 28일) 화요일

쑥고개에 가다. (…) 7時 半 첫차로 西井里에 가 쑥고개에 가서 權雨氏을 만나 함석갑 떨어진 것 2,600원을 權雨氏 주고 大門을 맞추고 契約金으로 一金 5,000원을 주고 문돌조기갑 200원 주고 나무門 木材을 1,300원 주고 점심 먹고 집에 왔다.

◎ 4월 19일 (음 3월 6일) 수요일

물건 마춘 것이 到着치 않어 쑥고개에 갈랴고 三溪에 같더니 來日 오겠다고 하여 기다리기로 하고 집으로 왔다. 木手일로 敦植에게 가니 2日後에 오겠다고 한다. 10時頃에 發安에선 물건이 다 와 3,200원 中 2,000원을 차후에 주기로 하고 보냈다.

◎ 4월 26일 (음 3월 13일) 수요일

木手일은 午前 中하고 午後엔 原木으로 일을 같다. 木手 연장은 우리 집에 두고 瑞雨氏 敦植은 석까래 걸라 오게 된다. 午後엔 뒤엄을 농꼴로 실고 妻는 場에 같다 못을 4치못 2관 2치못 1관을 사왔다. 오늘 담일 하는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안왔다. 제재하라 간 나무도 가지와야겠는데.

◎ 4월 29일 (음 3월 16일) 토요일

搗精 11叭半과 찹쌀 6斗. (…) 發安에서 차가와 벼을 싣고 가 搗精을 하여 6叭을 賣했다. 叭當 11,400원 68300원 받어 부럭 떠러진 代 2,000원 支拂. 부럭 벽돌 不足있어 6,000원 어치 더 사고 나무 製材代 2,000원 支拂. 못 괭이 500원 어치 사갈고 왔다. 부럭을 차에 싣고 저녁에 왔다. 白米 5叭 마트리와 벼 2叭 半 나문 것과 白米 1叭半으로 今年 生産할 걸로 생각하니 不足일 것 같다.

◎ 5월 2일 (음 3월 19일) 화요일

瑞雨氏와 敦植은 석가래 걸고 농꼴 光烈君을 億洙가 보내여 나와 아번님 等이 助役을 하여 석가래을 다 걸었다. 기다리던 함석과 울타리 담 부럭이 도착했다. 午前에 와 종일 담을 세웠다. 쑥고개에 부탁한 物件을 다 잘왔으나 대문 돌조기가 붇어오지 않아 안되였다. 돈은 다 계산을 해보냈다. 權雨氏가 부탁치 않은 지붕용 사비도 매을 싣고 와 3,600원에 드려 놓았다. 權雨氏가 수고을 많이 했다.

◎ 5월 3일 (음 3월 20일) 수요일

在潤家의 일을 볼겸 같다가 문을 재라와 우리도 같이 마출 겸으로 했다. 昨年의 우리집 문짠 李氏이다. 같이 있다가 술을 같이 먹고 나는 농약을 끼언고 오니 우리 문을 재고 있다. 우리 문 5작에 6,500원이라고. 같이 在潤家에 가 上梁을 써 달라고 하여 같다. 上梁을 해 떡과 술을 먹고 下午에야 왔다.

◎ 5월 10일 (음 3월 27일) 수요일

食前부터 敦植이 일을 하여 午前 10 時頃에 끝났다. 지붕 해인 代로 一金 6,000원을 주었다. 瑞雨氏와 2日 하고 비오는 날 하루 半日과 오늘 10時頃에 끝난 代金이다.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투르고 지붕이 높아 보기 싫다. 논을 一週하고 샛大門을 해 달았다.

◎ 5월 14일 (음 4월 2일) 일요일 雲

妻가 아이들에게 간다고 쌀돈을 내라 같으나 못내여 一金 7,000원을 借用해 같고 같다. (轍雨家에서 3,500원 敦植에게서 3,500원, 7000원) 下午 3時頃에 떠났다.

◎ 5월 16일 (음 4월 4일) 화요일

來日 大門 스라부을 한다고 하여 농꼴서 흙벽돌을 리야카로 실어 왔다. 85장.

◎ 5월 21일 (음 4월 9일) 일요일

敦植에게 一金 1,000원 支拂.

◎ 5월 22일 (음 4월 10일) 월요일

美匠人에게 5,000원 支拂.

◎ 5월 30일 (음 4월 18일) 화요일

除草제도 끼언저야겠는데 몸도 바뿌려니와 돈

도 없어 걱정뿐이다.

◎ 6월 1일 (음 4월 20일) 목요일 晴

마지못해 500원을 借用하고 白米 2斗을 같고 가 一金 2,100원 받고 郵遞局에 가 일금 2,120원을 찾아 같고 농약 탁크 8봉 2,400坪用을 사 같고 왔다. 6봉 1,800坪을 끼언저야 할 것을 2,300餘坪을 끼언지였다. 일직 심은 苗는 물에 녹아 아주 말이 아니다. 妻도 場에을 같다 왔다. 아주 심히 째이는 해이다.

◎ 6월 6일 (음 4월 25일) 화요일 晴

敦植이 一金 500원 주다.

◎ 6월 7일 (음 4월 26일) 수요일 晴雲

安仲에 가 門 찾아오다. (…) 鄭在潤君이 馬車을 같고 門을 찾으라 간다고 하여 같이 가기로 하고 自轉車로 떠났다. 돈이 없어 東雨氏에게 一金 3,000원을 借用해 같고 가 門장식 1,500원 주고 新浦에 와 농약 除草劑 사란에스 5봉 2,200원에서 2,000원 주고 200원 外上하고 ○雨家에서 술갑 200원 外上지고 왔다.

◎ 6월 11일 (음 5월 1일) 일요일 雨

雄浩 英浩 歸京. (…) 德雨氏에게서 一金 7,000원 借해 같고 東雨家애서 借用한 돈 3,000원 가고 英浩에게 3,000원 주고 大浩 藥갑으로 1,000원 事用.

◎ 6월 14일 (음 5월 4일) 수요일 말금

들에서 오다가 柱植을 만나 살충제 農藥(二化螟蟲)을 指導所에서 판다고 오늘 中에 다 팔릴는지 모른다고 하여 朝飯食事을 德雨家에 가 一金 1,000원을 借用해 같고 新浦에 가 삿다. 2反步用에 160원 어치 9봉을 사왔다.

◎ 6월 17일 (음 5월 7일) 토요일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億洙家에 가 일을 언제 하느냐고 하니 來日부터 하겠노라고 하며 천벽할 것은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한다. 나는 포함해서 하자고 始作 前부터 한 것이 아니냐고 해도 안 된다고 하여 4,000원 더 주기로 했다.

◎ 6월 19일 (음 5월 9일) 월요일

오늘도 斗秀君과 池億洙君이 오고 助役으로 昶鎔君을 데리고 왔다. 午後에 재벽 흙을 처서 싫어[실어] 왔다. 내 生前에 처음으로 一金 三萬원을 三溪 龍浩家의 아주머니에게 付託하여 오늘 가지 오시였다. 1個月만 쓸까 한다. 그래도 現在 모자라는 것 같다.

◎ 6월 20일 (음 5월 10일) 화요일

高棧 瑞雨氏 4,500원 敦植 4,500원 中 1,500원 주어 3,000원 德雨 借用金 8,000을 오늘 지불하고 高棧 같다가 술과 朝飯까지 하고 와 술이 취해 누었었다. 午前 11時에 일어나 大門에 使用할 잔 돌맹이을 洪遠里로 가 가져 왔다. 벽이 마르지 않아 美莊 일은 내일이다.

◎ 6월 21일 (음 5월 11일) 수요일

億洙 斗洙 昶鎔君이 와 白灰을 바르었다. 농꼴 在潤家에서 白灰 나문 것 2包와 수사 2개을 사같고 집에 나문 것 2包 半이 모자라 來日 사와야 겠다. 인제 2日이면 맡은 일은 끝낼 것 같다. 아직도 나의 일은 굴뚝 대똘 음물 장판 등 아직 멀었다.

◎ 6월 22일 (음 5월 12일) 목요일

벽 바르다가 白灰가 모자라고 쑥고개 門판 집에 가보야겠다고 하여 첫차로 갈량으로 떠나 三溪 가 理髮하고 쑥고개에 가 權雨氏을 만나니 돈 떨어진 것으로 그냥 하라는 것이다. 白灰 4包을 사 같고 午鐘頃에 왔다. 來日까지만 집일은 거이 끝날 것 같다.

◎ 6월 23일 (음 5월 13일) 금요일

오늘이나 끝날 줄 알았던 大門 及 사랑채 일이 아직도 못 끝나고 來日도 午前에 나 끝날 것인가. 집 치장을 하고 보니 보기에 좋다. 妻는 앞밭의 봄 보리를 비는데 나도 틈틈이 協助하며 일의 助役도 했다. 前日 英浩에게서 돈을 보내 달라고 片紙가 왔는데 돈도 없으려니와 아주 바쁜 때이다. 今年엔 二化螟蟲의 藥을 안 끼언지였는 고로 마음이 不安하다. 분무기가 고장났으려니와 高壓式 분무기을 살 것을 못사니 農事에도 지랄이다. 농기구는 다 구비해야겠는데 항상 돈에 쫄린다. 今年엔 아주 돈에 몰린다. 사랑채가 예상 外로 돈이 들어서이다.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學費을 못대주니 父母 노릇을 못하는 것 같다.

◎ 6월 24일 (음 5월 14일) 토요일

大門일 끝냈다. 봄보리 비다. 오늘 午前中에 사랑채 及 大門일이 끝냈다. 일이 끝난 後에 술 한 잔 대접하고 一金 10,000을 주어 4,5000원 中 5,500이 남고 다 주었다. 곳 농꼴가 來日 農藥 끼언질 사람을 얻고 분무기을 얻어 놓고 와 앞보리 빈 것을 꺼드리고 梁正鎬가 協助하여 일직 끝냈다.

◎ 6월 25일 (음 5월 15일) 일요일

英浩에게서 편지가 와 一金 3,000원은 命植에게 보내라고 하여 人便에 오늘 보냈다. 납입금은 못 주었다. 돈이 이렇게 몰릴 줄이야.

◎ 6월 26일 (음 5월 16일) 월요일

농꼴의 田氏가에 도야지을 잡아 돈육 3斤을 사왔다.

◎ 6월 27일 (음 5월 17일) 화요일

午後엔 英浩가 왔다가 갔다. 돈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前日 命植에게 보냈는데 안 받은 모양이다. 용돈만 3,000원 보내고 學校의 納入金은 몇일 더 참아달라고 片紙을 써 보냈다.

◎ 7월 2일 (음 5월 22일) 일요일

일꾼 4名을 얻어 농꼴 16斗와 앞에 와 1斗 5升의 除草을 했다. (…) 농꼴의 除草劑農藥의 효력은 좋은 편이 못된다. 일꾼은 昶鎔 光烈 貞來 免榮.(高憲植家 쇠품)

◎ 7월 11일 (음 6월 1일) 화요일

송아지 팔다. 74,000. (…) 妻와 같이 송아지을 끌고 安仲場에 같다. 牛전에 들려 송아지금을 보내 말 듯던[듣던] 바와는 아주 다르다. 우리 송아지가 80,000원 이상을 받을 줄 알았으나 오늘 場 市勢로는 75,000원을 더 못 받겠다. 우리 송아지가 場中 上中은 데는데[되는데] 송아지가 털이 거칠어 들[덜] 띠이는[띄이는] 것 같다. 한참 만에 장자가 걸려 결국 74,000원을 받었다. 安仲에 문갑 6,000원을 支拂하고 와 三溪 龍浩家에서 借用해 온 一金 30,000원과 利子 1,800원을 합해 一金 31,800원을 支拂했다. 三溪 가다 斗洙의 美莊갑 떨어진 것 5,500원 月谷의 鐵근 갑 떨어진 900원을 같다 주었다. 도르다 보니 나문것이라고는 20,000뿐이다. 서울의 敦一君으로부터도 편지가 왔는데 방이 나갔다고 20,000 보증에 3,000 월세다.

◎ 7월 15일 (음 6월 5일) 토요일 晴

田氏家에서 되야고기[돼지고기] 2斤代 300원 支拂.

◎ 7월 28일 (음 6월 18일) 금요일

敎雨氏家에 가 尿素 1包을 借用하다가 농꼴 안원 5 받원 5斗의 이삭거름으로 약 1斗가량 10斗에 施肥하고 앞 아논 4斗 5升에 約 6k 가량 주었다.

◎ 7월 29일 (음 6월 19일) 토요일

三溪 共販場에 쌀보리 2叭 賣出 6,626원 2等 받어 같고 大麥精米 交換으로 3,474원을 마기고[맡기고] 왔다. 집에 와 있으니 洪明勳君이 와 일품갑으로 2名치만 달라고 졸라대여 일금 1,200원을 주었다.

◎ 7월 30일 (음 6월 20일) 일요일

양회일 할 모래가 떨어저 저붕굴 모래을 8바리 실어왔다. 모래가 좋은 편은 못된다. 모래을 실어와도 개운치 않다.

◎ 7월 31일 (음 6월 21일) 월요일 晴

肥料 傳票을 떼라가 尿素2 復 合2. 2,610 오다가 農藥 파란 4. 640원어치을 사 같고 大浩 땀띠약 웅호 皮부약 영호 공책 등을 사 같고 왔다.

◎ 8월 1일 (음 6월 22일) 화요일 晴

소금받었다. 2叭 1,600. 농藥 잎마름병(쌀균제)충과 살충제 3봉 450. 살균제 10봉 위상. (…) 食前에 개섬 가서 소금 2叭을 받어 왔다. 朝飯後에 新浦에 가 肥料을 찾으라 같다가 농약 살균제을 못 사 위상으로 10봉을 사 같고 오려니 보리 賣出 교환곡 1叭을 찾아 같고 왔다.

◎ 8월 2일 (음 6월 23일) 수요일 雲

敎雨氏家의 肥料 借用해온 것 같다 두고 高壓式 분무기 4人이 사는데 나도 한목 850원을 주었다.

◎ 8월 11일 (음 7월 3일) 금요일 晴
新浦 輸雨便에 휘나진 농약대 支拂 1,400원.
◎ 8월 22일 (음 7월 14일) 화요일
新浦의 崔承玉 大人이 別世해 조문 같섰다. 賻儀金 一金 500원. (…) 妻는 쑥고개 觀雨氏에게 떨어진 돈 5,000원을 받으라 같다가 그냥 도라왔다.
◎ 8월 23일 (음 7월 15일) 수요일
서울에서 바라지 않은 방 전세을 놓았다고 편지가 와 氣分이 매우 좋지 않았다. 來日 당장 같다오라고 했다.
◎ 8월 24일 (음 7월 16일) 목요일
妻는 서울 房 전세 놓는 것의 해약을 爲하야 一金 10,000원을 같고 서울에 같다.
◎ 8월 29일 (음 7월 21일) 화요일
白米을 5斗 賣해 같고 아이들 갈 準備을 했다. 英浩 學校納入金 9,000餘원과 雜費 等 13,000餘원을 準備해야겠다.
◎ 9월 11일 (음 8월 4일) 월요일 晴
妻는 白米 5斗을 賣해 같고 場에 같다.(白米 1斗當 1,200원)
◎ 9월 21일 (음 8월 14일) 목요일
午後에 농꼴가 도야지 고기 정육 2斤 6양을 8,400원어치을 사 같고 왔다.
◎ 9월 24일 (음 8월 17일) 일요일 雲
英浩와 雄浩을 3時車로 떠났다. 아이들에게 一金 2,500원을 줌.
◎ 9월 26일 (음 8월 19일) 화요일
瑞山 아주머니의 回甲日이 30日에라고 청첩이 와 걱정 끝에 洞里에서 여럿이 가며는 돈을 장만키 爲하여 妻을 場에 꼬추 3斤과 白米 1斗을 같고 같다가 일금 2,500원을 받어왔다.
◎ 10월 1일 (음 8월 24일) 일요일 晴
妻는 꼬추 6斤을 같다 一金 2,700원을 받아 같고 아번님의 生辰 準備 흥정을 했다.
◎ 10월 7일 (음 9월 1일) 토요일
食前에 아번님 家에 가 아이들 같다 줄 一金 3,000원 借用해 같고 집에 돈 1,500원 보태 쌀 1斗 팔고 쓰라고 보냈다.
◎ 10월 11일 (음 9월 5일) 수요일 晴
妻는 아버지家에서 借用한 一金 3,000원을 갑기 爲해서 꼬추 10斤을 같고 場에 가 4,500원 받어 3,000원 갑고 나는 혼자서 보리을 갈았다.
◎ 10월 16일 (음 9월 10일) 월요일 晴
來日은 妻가 아이들 食糧 같다 주라 서울 가야겠는데 당장 돈이 없어 걱정이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못하여 항상 돈에 몰리고 쪼긴다. 한번 해주고 나면 한숨 쉬였나 하면 10日이 멀다고 또 돈이 몰린다.
◎ 10월 17일 (음 9월 11일) 화요일
妻가 서울 아이들에게 갈랴고 서두르는 고로 午前中에 분주했다. 아버지家에 가 一金 4,500원을 借用했으나 무엇으로 갑을지?
◎ 10월 26일 (음 9월 20일) 목요일
200餘束 昶鎔君이 午後에 와 一金 3,000원을 달라고 하여 高棧 重植이 쌀 돈을 달라고 하여 高棧 가 重植에게 달라고 書字을 써주었다.
◎ 10월 27일 (음 9월 21일) 금요일
今年 總束數 約 5,000餘束.
◎ 11월 5일 (음 9월 30일) 일요일 雲
집에 와 보니 英浩가 왔다. 一金 4,000원을 借用해 午後에 白米 2斗와 같이 妻가 차에 올려주고 왔다.
◎ 11월 6일 (음 10월 1일) 월요일 雨
妻는 場에 같다오고 나는 高棧가 쌀 상인을 만날랴다 못 보고 왔다.
◎ 11월 10일 (음 10월 5일) 목요일 雲
朝飯食事 後에 脫穀機 合資人이 모여 脫穀機을 修理하고 午後엔 脫穀할 準備用品을 사고 고장 수리을 하라 新浦에 나같다. 돈을 1人當 2,000원식 準備하라고 하여 쌀돈을 20,000원 내여 借用金 아버지家 4,500원 輸雨 1,000원을 갑고 脫穀油 2,000원을 내였다. (…) 新浦에 가 ○○에 油을 사 같고 왔다. 脫穀 合資人은 모두 같다 왔다.
◎ 11월 11일 (음 10월 6일) 토요일 雲
昶鎔 白米 1叭代 10,500원 支拂. (…) 食前에 또

脫穀機 受理. 昶鎔君이 와 來年度 품갑을 先拂해 달라고 졸라대여 우리 일도 잘해오고 하여 전번에 一金 3,000원과 今 7,500원 合 10,500원을 주었다. 白米 1叭. 來年度일은 18名으로 결정.

◎ 11월 17일 (음 10월 12일) 금요일 雨雲

우리 大谷部落과 平決세무서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동리에 세무서에서 탈곡기(궁굴레통)을 1台 기정[기증] 받었다[받았다].

◎ 11월 20일 (음 10월 15일) 월요일 雨

午後엔 농꼴 池긍洙 弟의 결혼일이라 오라 해서 돈이 없이 一金 200원을 갈고 갈다 왔다.

◎ 11월 27일 (음 10월 21일) 일요일 雨雲

雄浩 中學入學金이 急하여 下午에 서을 가보낼라고 三溪 가 敏泰君에게 敎雨氏와 같이 가 25,000원을 妻을 주어서 서울에 보냈다. 오늘 敏泰에게서 一金 60,000원에서 내가 25,000. 敎雨氏가 35,000을 썼다.

◎ 12월 6일 (음 11월 1일) 수요일

總 收穫量은 110叭이다. 17,000餘束가량.

◎ 12월 11일 (음 11월 6일) 월요일 雲

洛光君에게 쌀돈으로 一金 2,000원을 내여 왔다.

◎ 12월 12일 (음 11월 7일) 화요일

富子 結婚에 參席 承原. 三溪 朴承玉家에서 쌀돈 一金 10,000 受.

◎ 12월 14일 (음 11월 9일) 목요일

妻 서울행. (…) 妻가 아이들의 김장을 하라 가는데 新浦까지 짐을 갈다 주었다. 房貰 쓴 돈과 아이들 용돈으로 一金 13,000원을 주었다. 三溪 朴承玉君 家에서 一金 2,000원을 오늘 더 가저왔다. 東雨家 마루타 갑으로 550원 支拂하다.

◎ 12월 17일 (음 11월 12일) 일요일

오다가 高棧의 瑞雨氏의 三子婚에 참석했다. 오늘 3군대 一金 500원식 1,500원 부조했다. 東雨家에서 一金 1,000원을 借用했다.

◎ 12월 21일 (음 11월 16일) 목요일

共販에 收得稅 2叭 내다. (…) 共販에 벼 낸 것의 등급은 3등을 밧았다. 共販場에 갈다가 三溪의 長利米 나간 것에서 白米 6叭을 귀受하여 현수에게 마끼고[맡기고] 6叭中 2叭는 朴承玉君에게 주고 2叭는 李동우에게 주라고 했다. 쌀돈 내여 쓴 돈이 나다. 方連植과 一行이 되어 益秀 二子 잔치에 갈다 왔다. 一金 300원 부조.

◎ 12월 25일 (음 11월 20일) 월요일 晴

해가 저물 무렵 三溪의 朴容泰氏가 와 몇일 前에 말하든 長利米 件에 왔노라고 하여 20叭을 달라고 하여 半승락은 하고 新年度 2,3일게 보자고 했다.

◎ 12월 26일 (음 11월 21일) 화요일 晴

田榮基에게 白米 拾叭 長利. 利子 3割 5分. (…) 朝飯食事을 먹고 나니 田榮基氏가 와 술을 대접하고 나니 長利米 가저간 것에 利子는 갈다 주고 나니 本米 10叭는 한 해 더 눌러 주면 좋겠다고 하여 승낙을 했다.

◎ 12월 30일 (음 11월 25일) 토요일

共販場에 벼 1叭 出荷. (…) 收得稅 25k을 채우지 못해 1叭을 냈다. 2等을 받었다. 敎雨氏와 長利논 것 決算을 하라 오라해서 三溪에 갈다 왔다. 長利 20叭을 今日로 다 받었다. 돈으로 치면 壹叭 利潤이 없다. 昨年에 11,500원을 주고 今年에 돈으로 11,100원을 처[쳐서] 받었으니.

◎ 추기

李昶鎔 가래질 1
朴銀祿 〃 1
李昶鎔 苗板 1
崔光烈 〃 1

白米 1叭 17名 李昶鎔
白米 1叭 17名 崔光榮 崔光榮 木材代 5名.
過年度殘 6名 池億洙
〃 소 2名 高薰植
〃 1名 朴銀祿 苗板
肥料復合(22-22) 李昶鎔
1名 申敦植
소 安貞來

수촌아저씨 소 2
梁正鎬　　소 3 中 1名 오다.
鄭도윤　　1 中 1名 오다.

◎ 편지글(1973년도에 쓴 글로 추정됨)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그리고 대호도 학교 잘 다니는지 궁금하군요. 이 곳 저희들은 잘 있답니다. 삼촌 내외 분들도 안녕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수리 때문인데요. 지붕을 하는데 100장 이상이 든데는데[든다는데] 25원씩이면 100장이면 2,500원이잖아요. 하루 품값 2,500원이래요. 기와 하는데 기술자로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기와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앞 챙은 달았는데 썩은 나무라서 뚝뚝 부러지더군요. 그래서 썩은데다 다른 나무를 붙여서 달아 놓았는데 갈아야 되겠어요. 긴 받침대가 700원 챙이 2,500원 덴조 한 장에 70원씩 2,000원이고 방 좀 되배를 할려면 한 10,000원쯤 필요할 것 같애요. 품값은 추석 때로 미루고 재료만 사다 주고 남으면 품값을 주기로 하고 우선 10,000원만 등기로 붙여주셔요. 우체국에 가서 해 달라면 해주니까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돈을 붙여요. 작은 집에 도장 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하셔요.

주소; 부천시 심곡 1동 360번지 소사공고 고2 직물과 A반 신영호

그럼 편지 도착되는 대로 빨리 붙여주셔요. 기와는 1일날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2일날로 미루었는데 날씨가 흐려서 못하거든요. 재료를 사와야 일을 하니까 빨리 붙여 주셔요. 그럼 이만 줄이겠어요.　학교에서 딸 씀.

1973년

◎ 1월 2일 (음 11월 28일) 화요일 晴

田榮基 長利米 11叭中 14叭 8斗 5升을 때서 10叭는 또 뉘우고 5叭 왔다.

◎ 1월 3일 (음 11월 29일) 수요일 晴

洪明勳君이 와 移秧하여 줄게 품갑을 달라고 하여 2名分 1,200원을 주었다. (…) 申柱雨 人便에 重植에게서 借用한 一金 3,000원을 주라고 傳했다.

◎ 1월 4일 (음 11월 30일) 목요일 晴

午後에 田榮基에게서 1斗 5升 더 온 것에 現金으로 1斗 5升代 1,600원 주었다.

◎ 1월 5일 (음 12월 1일) 금요일 晴

食前에 李昶鎔君이 와 농끌에 품갑을 주라고 自己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10名分 6,000원을 주었다.

◎ 1월 6일 (음 12월 2일) 토요일 晴

妻는 場에 간다더니 아이들 보참에 지쳐 나에게 와 어이하면 좋으냐고 한다. 무엇이냐고 하니 英浩는 옷을 맞추어 달라 하고 雄浩는 스켓-트을 사나라고 했다. 英浩 옷은 高等校에 入學 後로 雄浩 부탁은 來年에 공부 잘하면 사주기로 미루었다. 그리하여 妻도 場에 못가고 英浩만 場에 가 本 日記册을 사왔다.

◎ 1월 7일 (음 12월 3일) 일요일 雲

午後 4時에 李允鎔氏가 新浦에서 만나자고 하여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新浦에 가 新聞代 1,920원으로 밀린 신문대을 청산하고 會에 임했다. 저녁 식사을 李允鎔氏을 밀겠다는 7名은 저녁 식사을 같이 하고 레디오(휘대용)을 받었다.

◎ 1월 13일 (음 12월 9일) 토요일 晴

三溪의 安祿榮氏가 와 몇일 前에 있었던 테리비을 사라 왔다. 一金 빳데리 2個 合해 約 70,000원 이라고(9인치용)하여 次後 보자고 했다.

◎ 1월 15일 (음 12월 11일) 월요일 晴

共販場에 벼을 賣上하라고 졸라대여 몇 가마 내여 볼까 하다가 길이 질어 못냈다. (…) 下午에 會長인 方連植이 왔다 같다. 長利 3叭을 달라 하여 3叭代 31,500원을 주었다. 利子는 3分 5리로 결정했다.

◎ 1월 16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나는 星谷의 安氏家 弔問을 갈다. 賻儀金으로

一金 參白원을 내고 …

◎ 1월 20일 (음 12월 16일) 토요일

下午에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精米所에 保管中인 白米 2叭 賣할랴고 같더니 曺○煥氏가 長利로 달라고 졸라 승낙을 했다. 利윤은 말하지 않았으나 3分 5利로 할까 한다.

◎ 1월 23일 (음 12월 19일) 화요일

英浩 보고 朝飯食事을 서둘러 데리고 永登浦에 나와 가방 1,300원을 주고 사주고 同生 보고 지붕을 손질해 달라고 일금 1,000원을 주고 시골행 뻐쓰에 몸을 실고 水原을 경유 쑥고개의 權雨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 같다가 못 만나고 그냥 왔다.

◎ 1월 26일 (음 12월 22일) 금요일

共販 3叭 2등 14,780원. 稻穀賞上價格 1등 5,036원, 2등 4,810원, 3등 4,598원. (…) 오늘 臨時로 三溪에 共販이 슨다고 하여 午前에 새끼을 꼬다가 下午에 벼 3叭을 共販場에 내같다. 벼을 같다 놓니 진눈개비는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나리였다. 늦게야 檢查員이 우리벼 3叭을 2등을 맞았다. 洞里 벼 26叭 나간 것을 큰 아번님이 날 보고 챙견하여 달라고 하여 賣上 양비조 등을 정리하고 돈을 찾아 같고 와 나누어 주고 나니 돈이 130원이 不足이다. 돈 만지고서 술갑을 재하고 나니 500원이나 창이 났다.

◎ 1월 27일 (음 12월 23일) 토요일 晴

朝飯을 마치고 나니 큰 아번님이 오시여 돈을 計算하여 드리고 나니 三溪 金顯台氏가 와 차대접을 하고 나니 敎育保險을 들라고 졸라대고 마지못해 30만원자리 한자을 들었다.

◎ 1월 29일 (음 12월 25일) 월요일 晴

새끼을 꼬고 있으니 雄浩가 서울 가겠노라고 하여 路資와 용돈으로 一金 1,000원을 주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며 차량급 연탄 조심하라고 당부하여 보내였다.

◎ 1월 31일 (음 12월 27일) 수요일 晴

마실 가 新浦面에 나갈 사람을 알아보고 오니 田榮基氏가 와 기다리고 있다. 白米 10叭 가저간 것을 今年에 年 3割로 인데 어이 하였으면 하여 남의 하는 대로 하자고 하였다.

◎ 2월 7일 (음 1월 5일) 수요일

後坪에서 도라와 누어 있다가 나가 세죽[쇠죽]을 쑬랴고 하니 英浩가 온다. 學校의 入學金 壹萬參白원은 치루고 敎科書代 실습비 제도기 等 12,000원과 가방 校服 等 合 30,000원 以上 들 것 같다. 雄浩는 또 얼마가 들것인지? 머리가 어려울 지경이다.

◎ 2월 15일 (음 1월 13일) 목요일 晴

농꼴 洞里분들을 對接. (…) 10時頃에 농꼴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15, 6名이와 술과 국을 대접했다. 計劃에 依하면 洞里 사람은 午中에 농꼴 분은 下午에 對接할랴고 한 것이 뒤바뀌였다. 洞里사람들이 먼저 對接 해야겠는데 안되였다. 농꼴분들은 모두 우리 일을 도웁는 분들이다.

◎ 2월 16일 (음 1월 14일) 금요일

오늘 송아지를 팔라 갈라고 한 날이다. 朝飯後에 농꼴 가 池億洙君에게 소을 끌고 가라고 하고 쪼차 같다. 場에 가 작자가 물리였다. 하도 말라[말라서] 갑이[값이] 없다. 前坪 일가 분이 와 一金 106,000원 차지다. 億洙에게 一金 50,500원을 주었다. 쌍방의 손해가 나는 本金에서도 만이[많이] 손해가 났다.

◎ 2월 17일 (음 1월 15일) 토요일 雲 細雨

英浩가 서울 같다. 英浩 雄浩 책갑 등록금 등 24,500원 같고.

◎ 2월 19일 (음 1월 17일) 월요일 晴

午鐘 頃에 崔氏와 敏泰君이 왔다 같다. 지난 가을에 李東佑에게 白米代로 一金 20,000원 내온 것을 오늘 白米 2叭을 李東佑에게 支拂했다.

◎ 3월 1일 (음 1월 27일) 목요일 晴

來日 開學으로 妻은 雄浩을 데리고 서울에 떠났다. (…) 英浩 雄浩 入學金 及 雜費金으로 오늘까지 約 一金 拾萬원 白米 10叭가 든 셈이다.

◎ 3월 4일 (음 1월 30일) 일요일 晴雲

高憲植집의 父親 7순 잔치에 같다 왔다. 4名의 800원 부조하다.

◎ 3월 10일 (음 2월 6일) 토요일

午鐘頃에 집 칠한 代價을 洞里 돈을 借用해 같고 一金 13,000원을 支拂했다. 도합 支拂 합해 칠하는데 一金 23,000원이 든 셈이다.

◎ 3월 26일 (음 2월 22일) 월요일

妻는 場에 같다. 一金 仟원을 같고 가 場 흥정을 하고 나니 봄 잠바를 사 같고 왔다.

◎ 4월 2일 (음 2월 29일) 월요일

里長 1個월의 수당을 탇다. 5,000원 중 1,000원을 보험으로 떼고 4,000원에서 新聞代 祝儀金을 떼고 3,400원을 받었다.

◎ 4월 4일 (음 3월 2일) 수요일

搗精 白米 15叭 5斗 (長利 12叭) (…) 搗精해 보니 搗精料 除外하고 20叭 搗精에 15叭 5斗이다. 15叭 中 敎雨氏와 12叭식 24叭을 安祿榮氏에게 長利 年 3割로 주고 3叭은 安氏에게 來日 賣해다 돈으로 달라고 했다.

◎ 4월 5일 (음 3월 3일) 목요일

午後에야 다 같고 오니 雄浩가 왔다. 돈 가질라와 몇일 전에 一金 4,000원을 주었는데 또 왔다. 마지못해 일금 5,000원을 또 주었다. 午後 4時 車로 雄浩는 서울행 車에 올랐다.

◎ 4월 9일 (음 3월 7일) 월요일

白米 4叭代 40,000원 (…) 發安에 保管中인 白米 3叭을 安祿榮氏가 賣해 같고 았다. 叭當 600원 以上이나 덜 받었다. 1叭는 敎雨氏 保管한 白米을 賣해 같고 와 1叭을 내가 借用한 셈이다. 그리하여 來日은 發安을 가지 않아도 되였다.

◎ 4월 10일 (음 3월 8일) 화요일

新浦에 가 自轉車의 타이여을 갈았다.(後) 900원.

◎ 4월 15일 (음 3월 13일) 일요일

午鐘 때에 雄浩가 떠나같다. 一金 4,500원을 주었다. 이렇게 돈을 가저 가다간 당해 날 수 없다.

◎ 4월 20일 (음 3월 18일) 금요일 晴

下午에 新浦에서 允浩가 산소통을 싣고 와 대문을 달고 같다. 수수료가 2,000원이라고 해 次後에 주기로 했다.

◎ 4월 22일 (음 3월 20일) 일요일 晴

搗精 30叭 5斗. 長利 28叭. (…)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妻와 같이 發安 精米所로 搗精을 하라 같다. 8時부터 搗精해서 下午3時에 벼 40叭을 搗精을 하여 보니 生覺했든 것 보다 아주 덜 났다. 搗精料을 除外하고 8斗꼴 나던 것이 오늘은 7斗 5升 꼴 났으니 참으로 기분이 좋이 않다. 白米로 搗精料 除外하고 30叭 4斗가량 났다. 30叭 中 28叭을 長利주고 1叭 賣하고 1叭는 敎雨氏에게 借用한 것을 精米所에 매끼였다. 長利米 28叭은 安祿榮氏가 賣해 같고 같다. 安祿榮 2叭 方基乘 六叭 吳相連 拾叭 方承鎭 拾叭이다. 곳 부럭 120장과 왕겨 등겨 등을 싣고 도라왔다. 長利米는 제일 좋은 쌀을 주었고 받을 째도 제일 좋은 것을 받기로 약속하였음.

◎ 4월 27일 (음 3월 25일) 금요일 晴

妻 서울 가다. (…) 10時 半 車로 妻가 아이들에게 가는데 楊甘가지 짐 白米 5斗을 같다 주고 와 묘짜리 苗을 그누었다. 一金 13,500원을 같고 같다.

◎ 5월 2일 (음 3월 30일) 수요일 晴

가래길을 할랴다 못하고 新浦에다가 肥料전표을 뗐다. 肥料 尿素 20 復合 20(20-22-) 용성 8포을 뗐다.

◎ 5월 3일 (음 4월 1일) 목요일

午後엔 쟁기 볏과 보섭이 깨여저 新浦에 나가 사고 肥料도 찾아 革命村과 같이 車에 싣고 와 우리 집까지 왔다. 午後 늦게 妻男이 왔다. 長利米을 얻으라 온 모양이다.

◎ 5월 6일 (음 4월 4일) 일요일

午後에 (…) 妻男이 와 長利米 6叭을 달라고 졸라대여 형편이 돌지 않아 있으니 얻어달라고 졸라대여 큰일이다. 어려울 재 같이 도웁는 것이 兄弟之間인데 떼기란 주기보다 더 어렵다.

◎ 5월 15일 (음 4월 13일) 화요일

成洛光에게 白米 2叭 賣 叭當 11,800. 23,600 中 16,000원 殘 7,600.

◎ 5월 20일 (음 4월 18일) 일요일 晴

搗精 4叭 7斗. (…) 妻을 搗精次 보낼라 하다 내가 가기로 하고 三溪에 가 理髮을 하고 三溪아주머니 注射 놓아주고 新浦에 가니 10時 車가 없어 1時 車로 떠나 다섯재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 대접을 하고 搗精을 했다. 白米로 合해 21k을 借用 5叭을 賣했다. 叭當 19,600원 5叭代 59,800원을 받었다. 양회 5袋 2,000. 農藥除草 15袋 7,000. 솟 1個 3,300. 건방 1苗 500. 午後에 歸家했다.

◎ 5월 26일 (음 4월 24일) 토요일 晴雲

移秧 7名. (…) 우리 일을 했다. 일군이 7名 李昶鎔 洪明勳 洪基德 安貞來 梁○○ 崔光 等이다. 나와 8名이 골장 6斗 심고 아논 5斗 심다. 2斗 가량 나만는데 1,200원에 마끼였다.

◎ 6월 3일 (음 5월 3일) 일요일 晴

移秧 4名. (…) 일꾼 품갑는[품값은] 즉일로[당일날] 2,400원을 計算했다. (…) 저녁에 英浩가 왔다 같다. 納入金과 雜費로 一金 3,700원을 주었다.

◎ 6월 13일 (음 5월 13일) 수요일 晴雲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듯하여 중지하고 成洛光君에게 가 쌀돈 떨어진 것 一金 8,000원을 찾아 같고 오다가 高棧서 瑞雨 潤雨 貞雨氏와 같이 술을 먹고 늦게 왔다.

◎ 6월 16일 (음 5월 16일) 토요일 晴

妻가 서울에 갈랴고 朝飯食事을 일직 했다. 소에다 아이들 糧米을 싣고 新浦에 나가 8時 40分 車을 태워주고 왔다. 新浦에서 蔡浩을 만나 三溪에 와 술을 같이 하고 11時半경에야 집에 와 點心을 먹고 오양을 처냈다. 저녁 취사는 大浩가 했다. 一金 1,200원을 같고 서울에 떠났다.

◎ 6월 18일 (음 5월 18일) 월요일 晴

午後에 大浩가 저녁 취사을 하고 있으니 妻가 왔다. 夏服 기성복을 사왔다. 一金 7,500원을 주었다고 하여 너무 많이 준 듯하다.

◎ 6월 2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晴

李昶鎔君이 一金 7,000원을 같고 와 交제費로 써 面 송아지을 求해 달라고 하여 우리집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君이라 面에 나같다. 總務係 鄭昌煥君을 데리고 나와 교제하니 데도록 하겠노라고 하며 친구의 말이면 힘쓰겠다고 하여 술을 대접하고 一金 5,000원을 주었다. 몇 사람과 어울리여 술을 취했다.

◎ 6월 28일 (음 5월 28일) 목요일 雨雲

선희 인편에 아이들에게 一金 4,500원을 보냈다.

◎ 7월 1일 (음 6월 2일) 일요일

午後에 雄浩을 보내는데 돈이 없어 一金 1,500원을 아번님 家에서 借用해 같고 보냈다.

◎ 7월 4일 (음 6월 5일) 수요일 雲

午前에 共販場에 내가 洞里 大麥을 共販에 出荷을 34叭을 마치였다. 우리는 4叭을 같다가 3등을 맞아 보리쌀로 2叭을 交換을 해왔다.

◎ 7월 5일 (음 6월 6일) 목요일 晴

前日 共販한 보리갑을 計算해 주었다.

◎ 7월 9일 (음 6월 10일) 월요일 晴

앞산 왜뚝에서 쓴다고 水路工事場에서 말목 24木代 2,000원을 받었다.

◎ 8월 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洞里에 肥料가 활당되였다고 하여 組合에 가 알아보니 5包가 활당되였다고 面에 들렸다가 왔다.

◎ 8월 6일 (음 7월 8일) 월요일

洞里에 肥料을 활당해 같고 같이 新浦에 가 組合에 가니 어제 긴급 전통이 와 肥料을 못 팔겠다고 하여 그냥 도라왔다.

◎ 8월 12일 (음 7월 14일) 일요일

사랑마루을 나무로 놓아야 될 것이지만 돈이 不足이라 양회로 할 생각으로 午前에 흙을 쌓고 午後에 양회을 했다.

◎ 8월 22일 (음 7월 24일) 수요일

搗精 9叭 2斗. 搗精料 3斗. 借用米 4斗 除外. 1叭 5斗 保管. 8叭 5斗에서 7叭 賣出 一金 8万 7千500원. 농 大本用 찬장 50,000원 買, 소금 2叭 1,400, 부록 300장 6,000, 운임 2,000, 석유 700, 기타 2,000, 殘 25,500. (…) 세재祖숙모가 23,000원 借用함. 妻와 같이 搗精 次 같

다가 농, 찬장 등의 흥정을 했다. 우리와 같이 세재 숙모도 같이 했다.

◎ 8월 23일 (음 7월 25일) 목요일

비가 와 精米所 車가 今日에도 못 왔다. 세재 祖 숙모가 家庭과 함께 찬장을 흥정해 알려주라고 하여 朝飯後에 가니 敎雨氏가 水原病院에 같다고 하여 마음이 不安하다. 찬장 흥정을 해주고 돈까지 借用해 주어서 오다가 德雨氏家에서 술 한잔 한 것이 취하여 下午에 누어 있었다.

◎ 9월 15일 (음 8월 19일) 토요일

농꼴 池億洙君을 데려다가 장독대의 미장을 했다. 每日 벼르다가 미장을 하여 놓고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午後 3時 頃에 끝마치였다. 양회도 不足이라 敦植에게서 1/3袋을 借用하여다가 끝마치였다. 세멘장가지 겸하여 했다. 今年度 양회일은 끝매치였다.

◎ 9월 16일 (음 8월 20일) 일요일

妻가 場에 가다. 꼬추 10斤을 같고 場에 가 一金 35,000원을 받아 같고 왔다.

◎ 9월 21일 (음 8월 25일) 금요일

今日 安仲場으로 송아지을 끌고 같다. 一金 58,000원에 賣해 같고 일금 50,000원을 新浦農協에 예금했다. 응호가 왔다가 今日 떠나는데 서울에 水道을 놓는데 一金 50,000이 든다고 하여 예약금이 20,000원이라고 하여 송아지을 매매했다.

◎ 10월 2일 (음 9월 7일) 화요일

靑北國民學校 竣工式에 參席. (…) 10時半에 낙성식이 있어 新浦에 나가니 吳君도 나와 있다. 우리 동창들이 시게 20,000원 찌리 最大刑을 사다 증정했다.

◎ 10월 15일 (음 9월 20일) 월요일 晴

午前에 英浩와 같이 갈고 英浩는 12時에 떠나고 午後엔 동욕꿀의 밭을 갈고 옆 밭은 갈이만 놀고 씨는 못 던지였다. 英浩 2,500원을 주었다. 李창용 품갑으로 一金 貳仟원 가저가다.

◎ 10월 29일 (음 10월 4일) 월요일

식전에 脫穀機의 會을 열어 우선 修理하여 쓰리고 수리비로 一金 5,000원이 들 상십다. 오늘 敦植이 安仲 가는데 부탁했다.

◎ 10월 30일 (음 10월 5일) 화요일

脫穀機 修理 石油 1드람 7,400. 모비루 1,200원 휘발유 등 1人당 2,700원 식 내야 된다.

◎ 10월 31일 (음 10월 6일) 수요일

朝飯 後에 高棧 가 宗家돈 20,000원을 차용해 같고 妻가 서울 가는데 보내기로 했다. (…) 오다가 柱雨家 得植의 結婚에 같섰다. 부조로 一金 500원 부조했다.

◎ 11월 15일 (음 10월 21일) 목요일

벼을 드려 담아 共販場에 나같다. 壹雨氏 3叭와 우리 벼 3叭을 내 같으나 건조 불량으로 등수을 못 맞아 매끼고 一金 20,000원을 借用해 같고 壹雨氏 10,000원 드리고 도라왔다.

◎ 11월 16일 (음 10월 22일) 금요일

10時부터 里長會가 있어 新浦에 나같다. 里長會가 있은 後 面長이 보자고 하여 가보니 長利米 25叭을 얻어 달라고 하여 반 승낙을 했다.

◎ 11월 17일 (음 10월 23일) 토요일

朝飯 後에 아번님에게 가 前日 面長에게 付託을 받아 말씀드리니 今月엔 쓸 때가 많아 여유가 없겠노라고 하신다. 前日 半승낙을 하고 와 보니 마음이 안 되였다. …

◎ 11월 19일 (음 10월 25일) 월요일

朝飯後엔 新浦에 가 面長이 長利쌀 얻어달라고 했는데 못 얻겠다고 미투었더니 닥아[다가] 붙으니 딱한 사정이다.

◎ 11월 22일 (음 10월 28일) 목요일

共販日이라 共販에 나같다. 洞里에서 稻 32叭 나같다. 우리도 6叭을 3叭는 一등 外 二등으로 수득세 2叭 28k을 했다.

◎ 11월 24일 (음 10월 30일) 토요일

組合에 나가 肥料 전표을 떼였다.(나문 것 尿素 3 復合 5)

◎ 11월 27일 (음 11월 3일) 화요일

午中에 面에 가 會가 끝나고 술을 먹고 늦게야 도라왔다. 面長이 長利米을 얻어 달라고 하여 고

심이다.

◎ 11월 28일 (음 11월 4일) 수요일

妻 서울행. (…) 高棧 가 종게[宗契] 돈 예금한 것을 쌀금으로 계산하여 前般에 貳萬원과 今日 參萬 五千원을 찾아 白米 5叭代을 찾아 妻 서울 가는데 一金 33,000원을 주어 보내고 있다가 늦게야 도라왔다. 일직 올랴고 하였으나 우리 크롭 몇 명이 모여 面長의 要求에 代하여 議論했다. 결논은 가까운 사이 일수록 금전거래는 안는 것이 좋다는 것.

◎ 12월 4일 (음 11월 10일) 화요일 晴

명식家 肥料 2포와 우리 6포을 싣고 왔다. 복합 5, 요소 3. (…) 우리 몇몇이 面長家의 응접셋드을 기증했다. 일인당 2,500원식. 面長의 長利米 달라는 것은 떼야겠는데 큰일이다. 食前에 安녹영君이 왔다. 長利 가저간 것을 다 收納했다고.

◎ 12월 8일 (음 11월 14일) 토요일 晴

脫穀機의 심을 보았다. 우리가 1,140원을 더 내놓았다. 경비와 수리備가 2,550원이였다.

◎ 12월 9일 (음 11월 15일) 일요일 晴

下午 늦게 농꼴 皿永基氏와 長利米 13叭 中 10叭을 가저왔다.

◎ 12월 11일 (음 11월 17일) 화요일 晴

安祿榮이 와 新浦의 李相순 垈 350평의 賣의 흥정次 왔다가 같이 같다. 茶床에 앉았다가 下午에 몇몇 一行이 玉吉리 응택家 잔치에 같다가 吳 相連 長利 件도 아라보았다. 來 15일에 같다 주겠노라고.

◎ 12월 15일 (음 11월 21일) 토요일

녹영의 長利 18叭 2斗 中 4斗는 敎雨家에다 두었다고 17叭 8斗가 왔다. 玉吉서도 今日 長利米가 온다던 것이 안 와 종일 기달리였다.

◎ 12월 16일 (음 11월 22일) 일요일

도야지 새끼 사오다. 5,400원.

◎ 12월 17일 (음 11월 23일) 월요일

玉吉 長利米가 今日 온다고 하더니 종일 기다리여도 안 왔다.

◎ 12월 18일 (음 11월 24일) 화요일

玉吉 長利米 26叭 중 1叭 덜 받고 25叭을 晴[천]정환에게 매끼였다. (…) 자고 일어나며 玉吉에 같다. 아직 차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玉吉 가 吳相連을 만났다. 車을 불렀는데 올는지 모른다 하여 쌀이나 보자고 하니 어두 더두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또 미루는 것이며 속을 쎄일 듯하여 족치였다. 하여 方承鎭氏에게서 白米 13叭을 인수하고 吳相連은 땅 산 사람에게서 22일에 받기로 하고 쌀을 千정환에게 쌀이 一등米가 못되여 백원식 더 주고 매끼였다. 결국 오상연에개는 1叭을 까까주었다[깎아 주었다]. 쌀도 좋이 않으려니와 1叭 각을 각고[깎고] 보니 개운치 않다.

◎ 12월 19일 (음 11월 25일) 수요일

食前에 安祿榮이 왔다. 方基東氏 長利米 7叭 8斗 中 돈으로 밭을랴면 밭고 쌀고 팔아 달라면 팔아주겠노라고 하여 1叭 8斗 갑만 돈으로 19,900원을 밭았다.

◎ 12월 21일 (음 11월 27일) 금요일

方基東氏 長利米 受. (…) 비바람을 피해 밤에 와 있으니 長利米 方基東氏 7叭 8斗가 다 온 셈이다. 7叭 8斗 중 6叭은 安祿榮氏가 싣고 오고 1叭 8斗는 돈으로 찾았다.

◎ 12월 25일 (음 12월 1일) 화요일

妻 大浩와 함게 서울 행. (…) 來日 건너방 든 사람이 나간다고 하여 妻가 서울에 같다. 방세도 제대로 안 내고 나가지도 않아 속을 쎄기더니 來日 나갈 것인지? 식전에 敦植이 와 쌀돈을 달라고 하여 貳叭代 21,600을 주었다. 朝飯 後에 세재 祖母가 病院에 갈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借用하라 해서 一金 20,000원을 借用해 드리고 아번님家에서 脫穀機 結算대 借用해 온 一金 1,000원도 드리였다.

◎ 12월 28일 (음 12월 4일) 금요일

동욕꿀밭 앞밭 토 등 등기을 내기 爲해 新浦에 같다. 등기 비용이 앞으로 배가 오른다고.

◎ 12월 29일 (음 12월 5일) 토요일

등기 서류일질을 맞추어 제출했다. 비용이

94,500원이라니 엄청난다. (…) 妻는 大浩와 귀가 했다. 서울에 水道을 놓았다고 54,000원. 시계을 게종 8,500원에 샀다고.

◎ 12월 31일 (음 12월 7일) 월요일

앞산을 賣渡한다니 買收인이 많다. 月谷의 喆秀가 산을 사달라고 일직 온다고 했는데 안 와 나는 일직 新浦에 나같다. (…) 모두 헤여졌는데 德雨가 나마 命植家의 땅을 사겠는데 命植에게서도 편지로 땅을 팔아달라고 왔다. 땅금을 몰겠으니 來日 水原갈 일정을 변경 高棧 가 알아보기로 하고 헤여졌다.

◎ 추기

尿素 25 749, 염가 40 492, 용성 40 430, 석회 25 624, 復合 18-18-(25) 625, 復合 22-22-(25) 685, 復合 14-14-(25) 766.

Ⅷ. 축산

ㅇ 소

1964년

◎ 1월 2일 (음 11월 23일) 금요일 晴

妻 생일. 영식 가 도야지 잡아 고기 4斤근 사왔다. (…) 朝飯을 맞추고 前日 原木 來雨가 쌀 가저가라 해서 소가 다닐 수 있는가 아버지에게 같다가 빌려오니 柱雨와 炳賢이 되야지 도리기 하자고 해서 永植家 도야지 114斤짜리를 잡았다. 고기 72斤 났다. 賢雨氏 家에서 물 끄리고 炳賢家서 순대 해서 먹고 술 한 통 받아 어른덜도 대접했다. …

◎ 3월 26일 (음 2월 18일) 목요일 晴

… 前日 作業으로 因해서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어나 앞 논을 一週하고 朝飯 食事를 하고 소를 같다 앞 논 깜뚝을 하였다. …

◎ 4월 2일 (음 2월 25일) 목요일 晴

… 아버지 家 소 팔았다. 꼬추를 갈고 오니 아버지와 소장사가 와서 흥정하더니 午後에 올라가니 소가 없어 알아보니 팔았다 한다.

◎ 4월 23일 (음 3월 16일) 목요일 晴風

… 소를 팔아 나래질로 할 것을 못한다. …

◎ 5월 3일 (음 3월 26일) 일요일 雨

… 食前에 논뚜랑 一週하고 朝飯 食事 後에 소를 같다가 今年에 산 3말 가웃지기 논을 갈고 앞 한 마지기 닷 데지기 동욕굴논 等을 갈고 (中) 말 가웃지기를 갈랴하니 물이 깊어 못 갈았다. 처음 신일을 햇것만 그대로 햇으나 소가 참해서 신일하기도 수월햇다. 비가 올뜻 올뜻 하더디 夕飯 食事 後에는 나리기 始作해서 밤새도록 오락까락 했다. 소는 3時頃에 같다 주었다.

◎ 5월 9일 (음 4월 2일) 토요일 晴

… 朝飯을 마친 나는 방아를 찌러 갈 텐데 소가 없어 걱정이다. 집에 소가 없으니 아쉽기 한량없다. …

◎ 5월 17일 (음 4월 10일) 일요일 雲

… 논을 돌고 조반을 마치고 아버지 家에 가서 소를 갈다가 받원 서 말 가웃지기 앞 한 마지기 닷 데지기 동욕꿀 논 等의 두 벌을 풀고 남정매미를 푸는데 비가 나리여 그만 드러왔다. 나머지 논은 물이 잽히여 못 갈았다. …

◎ 5월 24일 (음 4월 17일) 일요일 晴

… 食前에 논에서 돌라오니 소를 부리여 달라해서 朝飯 後에 올라가니 高棧서 부린다고 해서 그냥 그럭저럭 해를 보냈다. …

◎ 6월 10일 (음 5월 5일) 수요일 雲

… 敎雨氏 家 소를 달래다가 가라 쓰리고 모를 쩌다 느주니 10時 頃은 된 뒤 妻와 春子 보고 심으라 하고 아버지 家 모심기 사람 몇 명 얻어 일하는데 일을 같다. …

◎ 6월 11일 (음 5월 6일) 목요일 晴

… 일직 타작을 하고 나는 敎雨氏가 소를 얻어다가 가랐다. 소도 약하고 나도 신일이 서투르고 콩밭 간 것이 엉망이다. …

◎ 6월 13일 (음 5월 8일) 토요일 晴

食前 일찍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 앞밭 콩을 심을랴고 하고 소를 차리니 아버지가 오시여 가라주고 일꾼도 같이 콩을 심고 있으니 큰아버지도 오시여 콩을 심고 하여 食前에 다 심었다. …

◎ 8월 11일 (음 7월 8일) 화요일 雲

… 우리도 朝飯 食事 後에 소를 얻어다가 갈고 妻와 聘母는 場으로 떠났다. …

◎ 8월 14일 (음 7월 11일) 금요일 雲

食前에 다섯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방아(大麥) 한 바리 실어가고 朝飯 後에 나문 것을 지고 가서 다라보니 443斤이다. …

◎ 9월 20일 (음 8월 18일) 일요일 晴

食前에 둘재祖父 家에서 소를 얻어다가 옆 참깨 밭을 갈았다. …

◎ 9월 26일 (음 8월 24일) 토요일 晴

… 소로 자갈을 실어 일직 끝맡치고 일직 집에 와 …

◎ 10월 12일 (음 9월 11일) 월요일 晴雲

… 朝飯 後에 벼를 시러 드릴려고 高棧 소를 가질러 같더니 없어 그냥 와 저 드리기로 하고 …

◎ 10월 15일 (음 9월 14일) 목요일 晴

… 洞里 一대가 보리 갈기에 분주하고 도처에 보리갈이 적기 놓치지 않을려고 야단덜이다. 우리는 소가 없는 관계로 준비도 안했다.

◎ 10월 17일 (음 9월 16일) 토요일 晴

오늘 보리 갈기로 하고 大麥 種子를 내보니 바금이 먹어 염수선을 食前에 하고 高棧 작근집에 가서 소를 같다가 보리를 갈았다. …

◎ 10월 18일 (음 9월 17일) 일요일 晴

食前에 다섯재祖父 家에 소를 같다 벼 한 바리[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실어다 주고 와 아버지와 함게 朝飯食事를 했다. …

◎ 11월 12일 (음 10월 12일) 목요일 晴

食前에 오즘 지게 만들고 食後에 큰아번님과 炳賢 父親이 와서 송아지 메길레면 머기여 보라고 難民事業所에 나온 것인데, 두 살배기 소 같다. 一金 만2千圜 주고 송아지 새끼 두 마리 나면 주면 내 소가 되는 것이다. 소도 적근 것 분이고 또 메길 것과 열료문제로 그만 두기로 했다. …

◎ 11월 17일 (음 10월 17일) 화요일 晴

… 食前에 저울 얻어다가 오늘 公販에 낼 베를 計斤하고 둘재祖父 家에서 소를 얻어다 朝飯 後에 三溪로 싯고 나같다. …

◎ 11월 18일 (음 10월 18일) 수요일 雲

食前부터 終日 高棧精米所로 베를 소로 시러 20叭를 날렀다. 베를 대뚤에서[대뚤; 댓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올려놓고 시르니 사람이 필요치 않아 妻와 春子를 되리고 시렀다. …

◎ 11월 20일 (음 10월 20일) 금요일 晴

食前 일찍 高棧 精米所에 가서 우리 방아를 찌였다. 朝飯 食事가 좀 늦어서 현미는 다 되였다. 空叭가 없어서 왕겨 가마를 내가며 시러오며 10時頃에 다 찌였다. 白米 13叭 1斗 삭 6斗 前에 찌은 삭 1斗라도 떴다. 高棧 작은집 소로 종일 시렀다.

◎ 11월 21일 (음 10월 21일) 토요일 晴

朝飯 後에 上植 家 소로 稻 12叭 시러다가 午後에 찌였다. 7叭 5斗 白米 시러왔다. 시러오기는 다섯재 祖父 家로 시러왔다. …

◎ 12월 10·11일 (음 11월 11·12일) 목·금요일 雲

… 큰집 판다는 받원 서 마지기는 敎雨氏가 사고 또 오늘 소를 팔라가 116,500원을 받었다 한다. 나도 살 심이 있었것만 일절 말 한 마디 없다가 흥정 다 해놓고 끌고 드러가 욕만 메기였다. …

1960년

◎ 3월 5일 (음 2월 8일) 토요일 晴

… 朝飯 食事를 하고 건너가니 肥料 傳票 떼왔으니 곳덜 가질려 가자고 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소를 내가 가저간다 하니 아버지가 가신다 해

서 나는 네재祖父 소를 얻어 가지고 갈다. 新浦 나가보니 소를 炳均이 가저왔다. 내가 가저간댄 것을 他人을 줄 것이 무어 있을까? …

◎ 3월 18일 (음 2월 21일) 금요일 晴

… 재나 농꼴밭에 낼까 하고 지게를 만지고 있으니 네재祖父께서 소 갈다 감자 갈랴고 해서 급히 갈았다. 고마운 일. 좀 일은 편이나 소를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소 난 김에 감자를 심었다. …

◎ 3월 30일 (음 3월 4일) 수요일 雨

… 저녁나절 비가 덜 나리여 다섯재조부가 깜뚝 할려고 온 소를 얻어 우리 말 가웃지기(上)을 깜뚝하려 하니 비가 더 나리여 드러왔다. …

◎ 4월 6일 (음 3월 11일) 수요일 晴

… 高棧에 우두 노라 오라 해서 英浩가 우두를 놓았다. 高棧 작은 집소가 白米 一斗(찹쌀)을 먹엇다고 야단이라고 해서 넘어 가보니 밤에 먹근 것인데 下午 늣게까지 관게치 않고 쌀애기 똥을 누어 관게치 않을 것 같다.

◎ 4월 7일 (음 3월 12일) 목요일 晴

… 오늘 모자리를 갈까하고 소를 읻으려 다니였으나 소 얻기가 매우 심이 들다. 소가 없어 못엇고 그럭저럭 하다가 동욕골 논을 파냈다. 모자리들 하느라고 야단덜이다. 새새년년 차자오는 봄을 올해도 차저왓 만물이 충동하는 즐거운 양춘을 마지하니 온 초목이 싹이 트고 온 동물이 차자들것만 농사짓 걱정이 앞을 가리운다. 소가 금년 들어 갑자기 줄어드러 더욱 걱정이다.

◎ 4월 8일 (음 3월 13일) 금요일 晴

食前은 논을 一週하고 高棧協同組合理事會를 하는데 오라 해서 넘어가니 작근집 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가보니 과연 죽었다. 찹쌀 一斗 가량 먹었다 하는데 前日까지도 괜찮더니 밤에 그리 데였다 한다. 이것을 엇이 처분해야 좋을지 몰라 공논이 구구하더니 10時 頃서 작판을 하게 되였다. 李昌均이 잡았다. 나도 종일 협조를 하였다. 수의도 오고 支署에서도 왔는데 支署에서 또 먹자는 것이다. 수의는 6000환이나 주었다. 잡아놓고도 공논이 구구하더니 동리에서 치우기로 하고 現場市勢 8000환인데 斤當 450환에 팔기로 해서 分肉을 하는데 저녁 먹글 때에 다나갈다. 소 市價 20萬圜 자리 8萬환 건지였다. 저녁에 진부 따저주고 늣게 집에 왔다. 내가 진부 책임을 맡었는데 受金할 것이 걱정이다.

◎ 4월 9일 (음 3월 14일) 토요일 晴

… 모자리를 갈까 했으나 소가 없는 고로 못 갈았다. 네재조부 가 소를 얻엇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버지가 가저간는데 저녁나절 일직 손을 떼면 주라 했다는데 일직 소를 떼고도 그냥 갈다 주었다. 둘재祖父가 여물을 쓸어주고 來日 소를 갈다 갈라고 하시였다. 點心을 마치고 나니 작근 숙모가 와서 巡警이 와서 前日 소를 실수한 것에 말없이 치우었다고 와서 말성이라 넘어 가보니 벌써 떠나버리였다. 前日 警察도 왔다 같는데 먹자는 것이다.

◎ 4월 10일 (음 3월 15일) 일요일 雨

… 모자리를 못 가러 걱정이다. 10時 頃에 비가 개여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모자리를 갈았다. …

◎ 4월 14일 (음 3월 19일) 목요일 晴

… 食前에 물꼬에 갈다 와 高棧 작근집이 갈다 와 네재祖父 家 소를 갈다 네재祖父 家 모자리 쓰리고 우리 모자리도 쓰리였다. 처음 쓰리는 것이라 아주 스툴러 형편이 없다. …

◎ 4월 15일 (음 3월 20일) 금요일 晴

… 朝飯을 일직 마치고 高棧 넘어가 작근집 소의 共濟金 申請 次 平澤組合에 갈 準備를 하고 떠났다. 平澤에 10時 頃에 到着하여 郡廳 內의 축산조합에 가서 書類를 提出하고 도라서 집에 오니 下午 6時 頃 되였다. 來日 소의 카-드를 安仲場으로 갈다주라고 알리고 집에 왔더니 떡을 하였다. …

◎ 4월 26일 (음 4월 1일) 화요일 晴雲

… 동리 일때가 오늘 챙깨를 부치느라고 야단덜인데 우리는 소가 없어 걱정이다. …

◎ 5월 2일 (음 4월 7일) 월요일 晴

오늘 소 부리기로 해서 朝飯을 마치고 다섯재

祖父 家 소를 얻어다 논가리를 했다. 종일 우리 농사 3마지기 냉기고 다 갈았다. …

◎ 5월 9일 (음 4월 14일) 월요일 晴

… 午後에 아버지 보고 소를 달라 해서 아논을 갈았다. …

◎ 5월 16일 (음 4월 21일) 월요일 晴

… 오늘날이 드렀다. 食前에 들에 가니 네재祖父께서 소 같다 한나절 씩 갈자고 해서 네재祖父家 논 길뚝배미와 우리 논 및 말 서 데지기를 갈고 아논 일곱 데지기 앞 한 마지기 닷 데지기 等 두 벌 풀고 앞 말 가웃지기 애벌을 갈았다. …

◎ 5월 18일 (음 4월 23일) 수요일 雲

… 朝飯 後에도 비가 나리여 朝飯을 마치고 新聞을 보고 있으니 소 같다 부리지 안 부리면 날이 없다 해서 나가보니 가랑비는 나리고 있다. 그리하여 9時 頃이 되어서 소를 같다 갈았다. 늦게 시작해서 못다 갈 줄 알았더니 건가리 속만 못 빼고 다 부리였다. …

◎ 5월 27일 (음 5월 3일) 금요일 晴

…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고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어나 네재祖父 家에 가서 소를 얻어 놓고 와 논을 일주하고 도라와 朝飯을 마치고 다섯재祖父 家 일을 같다. …

◎ 5월 31일 (음 5월 7일) 화요일 晴

… 10名이 심고 아버지는 소를 부리였다. 겨우 쓰려댔다. …

◎ 6월 10일 (음 5월 17일) 금요일 雲

앞달뱅이를 심어볼까 하고 물을 푸고 움물 안을 글거내고 한 웅뎅이를 푸고 소를 얻어다가 갈았다. …

◎ 6월 14일 (음 5월 21일) 화요일 雲

食前 일직 일어나 둘재祖父 家에 가서 소를 얻어다 앞밭 그루를 갈았다. 孟植 아버지가 같이 갈았다. …

◎ 6월 15일 (음 5월 22일) 수요일 晴

… 물꼬에 다니여와 세재祖父 家 그루를 갈아 주었다. 소를 갈다가 朝飯 後에 우리 옆 밭 그루를 갈았다. …

◎ 6월 30일 (음 6월 7일) 목요일 雲

前日 일 끝나고 孟植이 모를 얻어와 동욕꿀 논을 심기로 하여 食前 일직 일어나 孟植은 썩근 모라도 골라 쩌 오라 하고 나는 소를 얻어다 쓰리였다. …

◎ 7월 9일 (음 6월 16일) 토요일 雲

… 오늘 肥料 가질러 간다고 하여 집에 와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家 肥料와 우리 肥料를 高棧소로 가저왔다. 두 번을 가저와 …

◎ 7월 14일 (음 6월 21일) 목요일 雲

쉬고 방아를 찌여 올 작정으로 食前에 소를 같다 大麥 한 바리를 실어다 두고 와 朝飯食事를 하고 나니…

◎ 8월 25일 (음 7월 4일) 목요일 晴

食前 일직 일어나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 보리방아 한 바리를 실어 같다. …

◎ 10월 12일 (음 8월 22일) 수요일 晴

보리 가랏다. 食前 일직 일어나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보리를 갈았다. 朝飯 前에 앞밭은 다 갈았다. …

◎ 12월 6일 (음 10월 18일) 화요일 晴

… 아비지 家 소를 사 왓다 하는데 15萬 7仟圜을 주엇다고 한다.

◎ 12월 15일 (음 10월 27일) 목요일 晴

오늘 방아찌기로 하고 소를 가질러 같더니 다섯재祖父가 잠간 드러오라 하여 드러가니 …

◎ 12월 16일 (음 10월 28일) 금요일 晴

… 午前에 다 찠고 下午에는 나도 작근집 소를 같고 겨를 시렀다. …

1961년

◎ 4월 29일 (음 3월 15일) 토요일

… 下午 3時 頃에 소를 떼여 같다 맸다. …

◎ 5월 3일 (음 3월 19일) 수요일

… 朝飯食事 後에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를 갈랴고 웃 배미를 갈고 밑에 배미의 소를 드리여

모니 물이 깊어 못 갈았다. …

◎ 5월 13일 (음 3월 39일) 토요일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도라와 아버지 家의 소를 갈다가 앞논과 밭원 等의 논을 가랐다. …

◎ 5월 15일 (음 4월 1일) 월요일

… 敎雨 아저씨 家 소 사왓는데 12만 5천환 주엇다 하는데 白米 時勢로 6叭 半 程度다. 소는 일 가르킬 소다. …

◎ 6월 9일 (음 4월 26일) 금요일

… 오늘 방아를 찐다 해서 벼 나문 것을 소에 싯고 高棧 가 食前에 지여오고 일을 갈다. …

◎ 6월 24일 (음 5월 12일) 토요일

… 둘재祖父 家 소를 얻어다가 갈고 春子와 妻는 심고 모를 떠왔다. …

◎ 6월 30일 (음 5월 18일) 금요일

오늘 집에서 쉬게 되여 보리방아를 찌을랴고 소를 갈다가 晧植이 싫고 가 갓다온 뒤에 보리 2叭를 싯고 갈다. …

◎ 7월 20일 (음 6월 8일) 목요일

食前에 아버지 家 소를 갈다가 감자 캐 밭을 갈고 나니 몸이 피곤하고 괘로와 朝飯을 못하고 누어잇엇다. …

◎ 10월 17일 (음 9월 8일) 화요일

食前에 벼 한 바리를 실어다 精米所에 두고 종일 농꼴 벼를 저 드리였다. 아버지 家 소를 믿다가 소를 못 으든 탔이다. …

◎ 11월 8일 (음 10월 1일) 수요일

朝飯을 마치고 다섯재祖 家에서 소를 갈다 가 高棧 精米所로 벼 10叭를 午前 中 넹겨갔다. …

1962년

◎ 1월 4일 (11월 28일) 목요일 雪

… 晧植이 와서 馬車로 벼를 싯기 始作해서 午前中 동욕꿀로 싯고 午後에 高棧으로 시럿다. …

◎ 1월 8일 (음 12월 3일) 월요일 晴

… 허나 오늘 왕겨를 갈고 올랴고 高棧에 떠나 왕겨 19叭와 공겨 3叭를 써다 마차로 실고 왔다. …

◎ 2월 25일 (음 1월 21일) 일요일 晴

… 오늘 安仲場에 갈다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家축의 값이 폭등이라고. 소도 보통 大牛가 45만환 앙등하고 도야지도 보통 2,3천환 앙등 小牛는 23만환 내지 28만환. 도야지는 7천환에서 12,000환까지라고 하니 도야지 1마리 당 白米 7斗는 주어야 산다니 도야지 살랴고 하다가 걱정이다.

◎ 4월 7일 (음 3월 3일) 토요일 雨

오늘 감자를 갈랴고 食前에 準備를 하고 소를 가질랴 가니 밭 한 대기 갈고 나면 가저가라 해서 10時 頃에 갈다 갈기 始作하니 가랑비가 솔솔 나리기 始作해서 꼬추밭은 갈다가 말고 點心을 먹고나니 비가 끔하여 소를 갈고 농꼴로 가 가르니 또 비가 와 급하게 갈았다. …

◎ 4월 11일 (음 3월 7일) 수요일 晴

… 午後에 모자리를 쓰릴랴고 하다가 소가 없는 관계로 못 쓰렸다. …

◎ 4월 12일 (음 3월 8일) 목요일

모자리를 쓰릴라고 소를 가질라 갈더니 아번님은 갈다 쓰리라고 하는데 庶母가 일군을 데리고 소를 끌고 골이 잔득 난 얼굴로 농꼴로 가는 것이다. 소를 가저오면 그냥 가저오는 것도 아니고 꼭 따저 일을 해주었다. 氣分이 아주 좋지 안은 나는 庶母가 말할 수 없이 괫심하다. 소는 午前 中 농꼴 갈다 매놓았다. 종일 氣分이 낭빴다. 다른 집 소를 얻어부렸으면 生覺되나 속 모르는 他人은 나를 잘못이라 할 것이 아닌가. …

◎ 5월 4일 (음 4월 1일) 금요일 晴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朝飯食事 後에 소를 갈다가 初耕을 칬다. 밭원 3말 가웃지기 아논 일곱지기 앞 말 가웃지기(下) 가운데 논은 물이 적어 갈다가 말고 한 마지기 닷 데지기는 감이 안 나고 농꼴 아논은 물이 깊어 못 갈고 그 나머지 논은 가랐다. …

◎ 5월 6일 (음 4월 3일) 일요일 晴

… 집에서 朝飯을 하고 잇으니 官用肥料가 나

왓는데 가질라 오라해서 곳 소를 끌고 洞里 사람이 다 動員되여 나가니 …

◎ 5월 14일 (음 4월 11일) 월요일 晴雲

… 朝飯 後에 소를 같다가 논꼴 논과 앞 건가리를 떼고 말 가웃지기(下) 두 벌을 가랐다. …

◎ 5월 25일 (음 4월 22일) 금요일 晴

소를 늣게 같다가 농꼴부터 갈기 始作해서 앞말 가웃지기 건가리를 떼고 밭원 3말 가웃지기 前日 같다 나문 것을 갈고 아논 일곱지기를 갈고서 밭원 3말 가웃지기와 아논 일곱지기를 곱쓰레를[곱써래; 갈아 놓은 논밭을 가로로 다시 한 번 써는 일] 노았다. …

◎ 5월 29일 (음 4월 26일) 화요일 晴

… 朝飯을 마치고 소를 같다가 논을 쓰리였다. …

◎ 6월 2일 (음 5월 1일) 토요일 雨

… 午後에 웅뎅이를 푸고 밋창의 말 가웃지기 물을 퍼서 보태고 소를 같다가 갈고 쓰리였다. …

◎ 6월 3일 (음 5월 2일) 일요일 雲

… 午後 다섯재祖 家 소를 얻어다가 말 가웃지기(上)를 쓰리는데 감이 좋지 않다. 덩어리가 그냥 잇으니 來日 심을랴면 큰 걱정이다.

◎ 6월 25일 (음 5월 24일) 월요일 雲

오늘 新浦로 肥料를 가질라 간다고 해서 일직 소를 같고 新浦에 가서 잇다가 肥料를 실고 오니 午後가 되었다. …

◎ 8월 12일 (음 7월 13일) 일요일 晴

… 午後에 밭에 가보니 감이 한감인데 몇일 잇다가 비가 안 오면 김장이 늣을 것 같아 소를 같다가 옆의 밭을 갈고 무수를 부치고 來日 농꼴의 배추를 부칠랴고 한다.

◎ 10월 19일 (음 9월 21일) 금요일 晴

… 來日부터는 앞 칭용뿌리 벼를 끄디려야겠는데 소길도 좋이 않을뿐더러 소도 없고 지게질로 1,000束 以上이나 저드리자면 큰 고욕이다. …

◎ 10월 23일 (음 9월 25일) 화요일 晴

오늘 농꼴 벼를 소로 끄디리였다. 다 끄디릴라고 妻보고 짐을 풀며 쌓으라고 하고 부지런히 다니여 일직 다 끄디리였다. …

◎ 11월 7일 (음 10월 11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아번님이 편치않타고 해서 올라가니 그만 하시여 네려와 時祭에 갈까 하고 있으니 소를 부릴랴면 부리라고 해서 소를 같고 와 농꼴 닷 마지기를 갈랴고 같더니 물이 깊어 못 갈고 서 말 가웃지기와 아논 일곱지기를 갈았다. 갈기가 아주 나뿌다.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이 많이 든다. …

◎ 11월 17일 (음 10월 21일) 토요일 晴

오늘 소가 논다고 해서 소를 같다가 앞 말 가웃지기 두 배미를 午前 中 다 갈고 午後엔 소를 부린다고 해서 같고 같더니 바람이 잘 불어 게꼴 해치운다고 더 갈라고 하는데 속이 不便한 것 같더니 배가 아푸기 始作해서 고생을 했다. …

◎ 11월 22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날씨가 갑작히 싸늘하여젔다. 朝飯食事 後에 洞里사람을 動員하여 아논 화죽고를 막고 와 좀 잇으니 아버지 家 2日前에 낳은 송아지가 젓을 안 먹는다고 해서 올라가보고 도라올랴니 언제 왓는지 孟植의 妻 게수씨와 왔다. …

◎ 12월 12일 (음 11월 16일) 수요일 晴

… 朝飯 늣게 벼를 싯기 始作해서 馬車로 20叭 실어같다. …

◎ 12월 17일 (음 11월 21일) 월요일 晴

오늘은 搗精한 白米를 집에 가저올랴고 朴書房을 서둘 보내고 작근집 소를 얻어 高棧 앞까지 식고 馬車로 싯고 같이 오니 點心 때가 기울렀다. …

◎ 12월 20일 (음 11월 24일) 목요일 晴

… 食前에 付託하여 오늘 소 두 필로 午前 中에 벼 20叭를 高棧으로 넹겨같다. 午後엔 도야지 밥구융을 손질했다.

1963년

◎ 2월 6일 (음 1월 13일) 수요일 晴

… 妻는 떵방아를 하고 나는 前日 오양 처낸 것을 농꼴 안는으로 처냈다. …

◎ 2월 7일 (음 1월 14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를 일직하고 아번님家에 가서 소연장(주대)을 드리라고 했더니 張滿(아번님家 고용인)이 高棧으로 방아을 찌으려 같다고 하기에 기다리다가 둘재祖父 家 주대 드리는데 協助해드리고 …

◎ 3월 18일 (음 2월 23일) 월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소를 갈다가 봄밭 냉긴 것을 갈았다. …

◎ 3월 29일 (음 3월 5일) 금요일 晴

食事를 하고나니 鍾소리가 나 가보니 오늘 賣渡한 벼에 小麥粉을 준다고 하더니 大麥으로 준다고 오늘 가질러 간다고 하여 둘째 祖父家 소를 같고 新浦에 가 2叭을 실고 와 둘째 祖任家에 따노았다. …

◎ 4월 17일 (음 3월 24일) 수요일 雨

… 앞 논뚜랑들이 질질 넘는다. 소를 같다가 한 마지기와 닷데지기 논뚜랑 깜뚝을 했다. …

◎ 4월 24일 (음 4월 1일) 수요일 雲

… 朝飯食事後에 농꼴 논 뒤엄을 피고 와 소를 같다 갈았다. …

◎ 5월 3일 (음 4월 10일) 금요일 晴

食前이면 논뚜랑을 一週하고 朝飯食事後에 소를 부릴까 했으나 소를 부린다고 하여 못 부리고 별 일 없이 하루 해를 보냈다. …

◎ 5월 12일 (음 4월 19일) 일요일 晴

食前이면 논뚜랑을 돌아보고 朝飯食事後에 소를 같다가 농꼴 밭원 5마지기 갈고 두 벌, 밭원 3.5지기 틀을 갈았다. …

◎ 5월 31일 (음 윤 4월 9일) 금요일 雲晴

… 소를 같다가 앞말가웃지기(下)를 갈고 아논을 삭 갈고 서말가웃지기 틀을 갈아 쓰리였다. 來日소를 하루 더 부려야 할 것인데 모래 일을 하게 된다. …

◎ 6월 1일 (음 윤 4월 10일) 토요일 晴

來日 일 날인데 오늘 논을 써려야 일을 할 것인데 소를 같다 부리라고 하더니 午後에나 같다 부리라니 속이 상해 소 없는 서러움을 당했다. 午後에 가질라 가니 종일 부린다고 해서 일날을 물려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며 물릴 수도 없는지라 午後엔 달라고 해서 농꼴 아논을 써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밭원도 대충 다 쓰리였다. 午後에 10마지기나 써린 심인데[셈인데] 아주 잘못 써렸다.

◎ 6월 3일 (음 윤 4월 12일) 월요일 雨

오늘도 소 때매 속이 상했다. 午前에 아번님 家에서 소를 부린다고 해서 일직 부리고 달라고 하니 그리하라고 해서 午後 일직 소를 가질라 같더니 소는 산에 매여 있고 부리질 않아 같다 부릴랴고 하니 모짜리배미 쓰린다고 해서 來日 일 날인데 논 써린 것이 없으니 같다 부리여야겠다고 하니 잠깐 쓰린다고 해서 집에 와 있다 가 보니 논은 쓰리질 않고 모를 심고 있어 熱이 오르고 하는 수 없이 내가 쓰리고 갈고의 아논을 쓰리니 비가 많이 오기 始作해 품들을 미였으나 나는 비를 맞고 쓰리였으나 밭원 한 마지기는 못 쓰리고 아논도 곱써래만 노왔다. 비를 맞고 소를 부리였드니 아주 피곤하다. …

◎ 6월 6일 (음 윤 4월 15일) 목요일 晴

오늘 食前에 소를 부릴까 하다가 피곤하여 朝飯後에 부릴랴 했더니 소가 나같다고 해서 오늘 移秧하긴 틀린 일이라 했더니 둘째 祖父님이 오시여 소를 같다 써리라 하시여 밭원을 쓰리고 妻가 協助해주어 일직 다 심고 모짜리도 심었다. …

◎ 7월 2일 (음 5월 12일) 화요일 雲 쏘나귀

食前에 그루를 갈랴고 했으나 소를 부린다고 해서 朝飯食事後에 가질라 가니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 있다 가니 午前中엔 안되겠다. 午後에 부리라고 했으면 午前에 다른 것을 했을 것인데.... 소를 막 가저오니 쏘나귀가 나리여 개인 뒤에 옆 밭 꼬추 갈고 나문 밀간 데를 가니 발이 빠진다. …

◎ 7월 10일 (음 5월 20일) 수요일 雲雨

오늘 食前엔 논과 같은 밭을 갈고 그루를 갈랴고 했다. 둘째祖 家 소로 밭을 가니 도저히 콩을 심을 것 같지 않고 밭 가운데서 샘이 솟사오른다. …

◎ 7월 14일 (음 5월 24일) 일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소를 같다가 高棧精米所에 大麥을 실어 같다. …

◎ 8월 11일 (음 6월 22일) 일요일 晴

돈을 장만해 같고 安仲場으로 소를 사라 같다. 牛市場엔 경험이 없다. 9,000원짜리를 살랴고 하니 적당한 것이 없다. 종일 금을 마치다가 그냥 도라왔다. 12,000원 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다. 3,000원만 더 장만해볼까 한다. …

◎ 8월 15일 (음 6월 26일) 목요일 晴

牛 九阡百円에 샀다. 朝飯食事後에 發安場行 楊甘에 차를 떠나 10時 半車로 發安에 到着. 牛市場에 가 소을 도라보고 午後에 소를 九阡壹百円에 사 같고 도라왔다. 萬円만 넹겨주면 來年에 그대로 부릴 것 같으나 우리 소는 못 부릴 것 같다. 좀 비싸게 산 것 같으나 먹꺼리나 종일 바란다. …

◎ 8월 16일 (음 6월 27일) 금요일 雲

송아지 먹성은 괜찮다. 둘째祖 家 소로 김장밭을 갈고 부첬다. …

◎ 9월 19일 (음 8월 2일) 목요일 晴

… 60束을 비여 點心 後에 소로 실어 다 脫穀機로 훌텄다. …

◎ 9월 22일 (음 8월 5일) 일요일 晴

食前에 소를 같다가 방아를 찌러 같다. 朝飯食事을 하고 오라 해서 같더니 술이 취해서 午後에 오라고 해서 …

◎ 9월 25일 (음 8월 8일) 수요일

食前에 농꼴 논을 소로 골을 타놓고 朝飯食事後에 농꼴서 어제 품민일을 왔다. …

◎ 9월 30일 (음 8월 13일) 월요일 雲

… 高棧서 오늘 소을 잡는다고 해서 고기을 사오라 했는데 떠러저 못 사와 原木도 소을 처 日雨氏가 가저와 2斤 4양을 사왔다.

◎ 10월 10일 (음 8월 23일) 목요일 晴

… 8時 30分頃에 도라와 소를 같다 농꼴 벼를 싯기 始作해서 일직 다 끄디리였다.

◎ 10월 22일 (음 9월 6일) 화요일 晴

… 午前에 소를 부리고 午前엔 소를 부린다고 해서 같다주고 몇 짐 젓다. …

◎ 11월 8일 (음 9월 23일) 금요일 晴

오늘 合同講演이라 新浦에 가볼랴고 해니 肥料도 가저와야 한다고 해서 洞里肥料를 가저오자면 소로 2번은 다녀야 하겠기에 午後에 가기로 하고 집에서 기다리니 午後가 지나도 안 와 3時부터 演說인데 哨所巡警들과 點心을 우리집에서 같이 하고 기다리다가 時間이 지난데야 新浦에 같다. …

◎ 11월 18일 (음 10월 3일) 월요일 雲

… 朝飯後에 高棧으로 벼를 시를랴고 하니 소한 필이라 11時頃에 朴書房과 같이 벼 26叭을 실어 같다. …

◎ 12월 11일 (음 10월 26일) 수요일 晴

… 今年에 아번님 家 소를 같이 부리여 품갑으로 白米 5斗를 같다 드리였다.

◎ 12월 30일 (음 11월 15일) 월요일 晴

高棧서 소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를 3斤 220원어치 사같고 왔다. …

1964년

◎ 1월 28일 (음 12월 14일) 화요일 雲雨

자고 일어나 소죽을 쑤어주고 나니 가랑비가 나리기 始作한다. …

◎ 3월 5일 (음 1월 22일) 목요일 晴

오늘 發安場으로 소을 賣할랴고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떠났다. 11時頃에 牛市場에 着했으나 소賣買가 덜 되고 소가 많이 났다. (…) 드러 앉았든 소는 걸음을 못 것고 주저앉아 집에 오기가 힘이 들었다.

◎ 3월 6일 (음 1월 23일) 금요일 晴

오늘도 安仲場을 소를 끌고 같으나 작자가 없어 그냥 도라왔다. 땅갑을 3叭를 못댔는데 소를 팔아야겠는데 팔지을 못하니 큰 걱정이다. (…) 7月에 9,300원이나 준 소를 이제 멕이고 본전이

나 밭을까 한다. 今般 소를 메기고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 3월 8일 (음 1월 25일) 일요일 晴

오늘 농꼴서 塩田을 가는데 소사람이 오면 300원을 준다고 해서 朝飯食事을 하고 아번님家 소을 갈고 일을 같다. …

◎ 3월 22일 (음 2월 9일) 일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아번님家 소를 같다가 인분재만든 것을 午前 中 싫고 午後엔 뒤엄을 농꼴 논으로 시렀다. …

◎ 4월 7일 (음 2월 25일) 화요일 雲

… 물이 잽힌 논을 그냥 둘 수 없어 소을 같다가 깜뚝을 했다. 午後엔 소곱비을 드리고 마랐다. …

◎ 4월 23일 (음 3월 12일) 목요일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食事後엔 소을 갈다가 논가리을 했다. (…) 종일 소와 싸운 나는 피곤하여 일직 자리에 들었다. …

◎ 4월 30일 (음 3월 19일) 목요일 雲

朝飯食事後에 소을 같다가 농꼴 아논 닷마지기 논을 갈았다. …

◎ 5월 6일 (음 3월 25일) 수요일 晴

소를 부칠랴고 가니 安仲場에 洋灰사라 간다고 해서 소를 못부리고 李巡警과 가마니 3닙을 치고 세풀 한망을 비였다.

◎ 5월 7일 (음 3월 26일) 목요일 晴

食前에 논을 一週. 食事後에는 농꼴 6마지기을 갈기 始作했다. 종일토록 6마지기 괜신히 갈았다. 소가 배가 다서 못갈고 생가리가 반은 된다. 저녁 나절은 소사람이 지처 나오질 못할 程度라 빠지는 가운데도 굽이 빨어 소는 아주 볼 수 없다. …

◎ 5월 17일 (음 4월 6일) 일요일 雲雨

어제 洞里사람이 興植兄家 허는데 다 같으나 소를 부리게 되여 못가서 오늘 가기로 朝飯後에 가서 助役을 해 주었다. …

◎ 5월 18일 (음 4월 7일) 월요일 晴

소를 갈다가 농꼴 밭원 닷마지기와 아논 골장 갈든 것을 갈았다. (…) 농꼴 아논 골장을 갈재면 소가 애석하다. …

◎ 5월 22일 (음 4월 11일) 금요일 雲

… 來日한다고 해서 아번님家에서 소을 얻어다가 동욕꿀을 쓰리고 오늘 동욕꿀에 찰베를 심었다. …

◎ 5월 24일 (음 4월 13일) 일요일 晴

… 소가 지처 아주 안가고 섰다. 아논 말가웃지기 갈고 농꼴 골장 6마지기를 곱써래하고 닷마지기을 곱써래할랴고 한 것인데 소가 안가 못써리고 소를 걸고 나오는데 쓰러지고 해서 걱정이다. 한참 바뿐 고비인데 소가 못가르니 큰일이다. …

◎ 5월 25일 (음 4월 14일) 월요일 晴

… 나는 한참 소를 같고 아논을 쓰리고 심었다. …

◎ 5월 26일 (음 4월 15일) 화요일 晴

품꾼 1名과 농꼴서 3名을 사같고 1名은 소를 부리고 5名이 농꼴 골장 6마지기을 심었다. …

◎ 5월 28일 (음 4월 17일) 목요일 晴

오늘은 소를 부리였다. 종일 부린 소는 농꼴 아논 장써래[논바닥의 두둑한 곳을 길이로 써는 일]을 놓고 밭원 닷마지기을 써리였다. 소가 지처 비철 그리고 해서 아주 능률이 안난다. …

◎ 6월 7일 (음 4월 27일) 일요일 雲晴

… 朝飯食事 後에 소에 길마를 언저놓고 10時頃에 新浦에 같다. …

◎ 7월 23일 (음 6월 15일) 목요일 雲雨

… 高棧같더니 벼는 午後에야 된다고 해서 소를 같고 가 大麥은 실어오고 벼는 비오는 고로 오늘도 못찌였다. …

◎ 8월 24일 (음 7월 17일) 월요일 晴

… 高棧서 우리 소를 할량으로서이다.

◎ 8월 25일 (음 7월 18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하고 소를 끌고 發安場에 같다. (…) 쌀끔이 350원 가던 것이 280원이라 금이가 안마자 소를 못치것으니 다른 곳으로 팔라고 해서 팔기로 했더니 작자가 물려 1,600원에

흥정했다. 돈을 기룰랴고 하다가 안핸다고 해서 그냥 끌고 왔다.

◎ 9월 6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安仲場으로 소를 갓고 나갔다. 午後에 牛전이 성황이 되여 우리 소를 1時頃에 賣買되였다. 돈 萬6仟원에 賣買에 찾이 돈 萬6仟원을 받어갈고 왔다. …

◎ 10월 29일 (음 9월 24일) 목요일 晴

… 종일 소를 부리니 저녁나절은 아주 피곤하다. …

◎ 11월 27일 (음 10월 24일) 금요일 晴

高棧 精米所에서 아번님家 소로 왕겨를 실어왔다. 馬車로 2번을 다니고 쪽바리로 1번을 실고와 왕겨을 다 실어왔다. …

◎ 12월 4일 (음 11월 1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高棧 가서 소와 사람을 데리고와 아번님家 소와 같이 벼를 넹겨갈다. …

◎ 12월 10일 (음 11월 7일) 목요일 晴

오늘은 일직 高棧 가서 쌀 나문 것을 가저올랴고 馬車에 멍에를 미고 朴書房에게 附託했다 같이 몰고 왔다. 午後엔 왕겨을 우리 소와 精米所 소로 실어왔다. …

1965년

◎ 1월 21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晴

… 다섯재 祖家에서 메기는 事業所 소가 어제 저녁에 죽었다 수의사가 와야 치운다고 종일 잇다가 저녁 늦게까지 치우지를 못했다.

◎ 1월 22일 (음 12월 20일) 금요일 晴

다섯째 祖家 도지소 실수한 것을 오늘 수의사가 와 본 後에 잡탕을 했다. 斤當 70원인데 안 팔리여 그냥 같고 事業所로 같다. 뼈다귀는 이곳에서 다 팔렸다. 나는 사챙이 뼈 130원에 사갈고 왔다. 精肉은 기분이 덜 좋와 안 팔리는 모양이다.

◎ 2월 1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 高棧서 소를 친다고 해서 안 샀더니 안 잡아 …

◎ 2월 15일 (음 1월 14일) 월요일

朝飯食事後에 쇠연장을 드릴라고 집에서 準備했으나 혼자는 할 수 없어 저근너로 같고 가 보줄 5겨래와 짐바[짐을 묶거나 매는 데에 쓰는 줄]을 드리고 소을 사게 되면 理용할 것이다. …

◎ 3월 7일 (음 2월 5일) 일요일

… 아버님家 소도지 7斗을 같다 드리였다.

◎ 3월 16일 (음 2월 14일) 화요일 晴

… 午前에 농꼴 양씨집에 오양을 발바달라고 검불 1짐 저다주고 下午엔 오양을 가서 치고 왔다.

◎ 3월 23일 (음 2월 21일) 화요일

… 洛光君이와 큰집에서 白米四叭을 洛光君에게 내주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2叭을 소에 실어다 주고(茂晨마다까지) 2叭는 敏子에게서 長利쌀 얻은 것을 洛光에게 대주라고 하고서 新作路出役을 나가 일하고 新蒲에가 아버지家 소로 肥料 流安 2포 尿素 3포을 실고 왔다. …

◎ 3월 29일 (음 2월 27일) 월요일 晴風

… 午後늦게 농꼴 가서 오양을 처내고 왔다. …

◎ 3월 30일 (음 2월 28일) 화요일 晴風

보리밭을 午前中 妻와 같이 매니 거이 다 매였다. 점심을 먹고선 소를 같다가 농꼴 잇는 뒤엄을 농꼴 밭원으로 실어 내였다. 소를 같다 주고 서모가 서울 같다온 말을 들었다. …

◎ 3월 31일 (음 2월 29일) 수요일 雲風

早飯食事後에 소를 같다가 감자 꼬추을 갈았다. …

◎ 4월 16일 (음 3월 15일) 금요일 晴

… 바다에 같다오니 피곤하여 오양 몇 짐 저내였다. …

◎ 4월 26일 (음 3월 25일) 월요일

食前 일직 논을 一週 朝飯食事 後에 소를 같다가 농꼴 밭원을 갈고 앞밭원 2斗5升락 논을 가랐다. 앞 한 마지기을 가르니 감이 아직 안나밀다 말고 닷 데지기와 동욕골 논을 가랐다. …

◎ 4월 30일 (음 3월 29일) 금요일 晴

… 朝飯食事 後에 소을 같고 新蒲에 가 肥料을

찾아 같고 와 …

◎ 5월 10일 (음 4월 10일) 월요일 晴

… 오늘 소을 같다가 밭원 거름. 1斗落 昨年에 貢渡했든 논을 쌀도 안 가저오고 해서 今年엔 내가 하고 금년 農事지여 長利을 갖어오면 주겠다고 가랐다. …

◎ 5월 20일 (음 4월 20일) 목요일 晴

오늘 소을 부리기로 하고 소을 같고 와 아논 밭원 3斗 5升 等을 갈아 써렸다. …

◎ 5월 22일 (음 4월 22일) 토요일 晴

… 오늘 소을 부리기로 하고 소을 같다가 仁性父와 농꼴 5斗落 물이 깊은 줄 알고 소을 바꾸었으나 벼밥[볏밥; 논밭을 갈 때에 보습의 볏으로 받아 뒤집어 놓은 흙덩이]이 듬슥하게 나와 내가 갈었다. …

◎ 5월 24일 (음 4월 24일) 월요일 晴雲

敎雨가 농꼴물을 푼다고 해서 소을 같다가 농꼴 밭원 논과 아논 5두락의 再耕을 했다. …

◎ 10월 24일 (음 10월 1일) 일요일

… 朝飯食事 後엔 소를 같다가 농꼴 벼를 오늘부터 끄디리였다. …

◎ 10월 29일 (음 10월 6일) 금요일 晴

食前에 어제 脫穀한 아논 벼을 高棧精米所에 실어다 주었다. 朝飯食事 後엔 堤防取勞한 精穀이 나와 실라간다고 해서 소을 끌고 新浦에 같다. …

◎ 12월 4일 (음 11월 12일) 토요일 晴

金氏을 얻어 소 두 필로 白米을 넹겨왔다. …

1967년

◎ 3월 16일 (음 2월 6일) 목요일

… 牛市場에 와 소을 골으니 제대로 돈에 만는 것이 없다. 저녁나절서야 20,000원 짜리를 샀다. 꼬 뚠지 오래지 않은 어수래기 송아지다[어스럭송아지; 크기가 중간 정도 될 만큼 자란 큰 송아지]. …

◎ 4월 7일 (음 2월 28일) 금요일

… 朝飯後에 소를 같고 가 苗板할곳을 가랐다. …

◎ 4월 11일 (음 3월 2일) 화요일

… 세죽을 놓고 들을 一週했다. …

◎ 4월 30일 (음 3월 21일) 일요일 폭우

… 점심을 먹고 한심자고 일어나니 물이 제법 많이 고여 소를 같다가 앞 한마지기 깜뚝을 했다. …

◎ 5월 18일 (음 4월 10일) 목요일

… 소가 지치였는지 잘 갈지 못한다. …

◎ 5월 19일 (음 4월 11일) 금요일

初再耕. 농꼴 물을 놓고 닷마지을 갈았다. 물을 많이 두고 갈았으나 새나가지나 않으라 소가 다리지못해 5斗落과 앞에 와 4마지기 장써래을 놓았다. 물이 말아 2日後에 移秧해야겠다. …

◎ 5월 22일 (음 4월 14일) 월요일

… 소을 부릴랴니 아번님이 부리신다고 해서 못부리고 물단속을 했다. …

◎ 5월 23일 (음 4월 15일) 화요일

농꼴 6斗落을 갈았다. 소가 지치여 갈이가 매우 힘이 드는 본인데 소가 안 가니 더욱 힘이 든다. 종일토록 소와 사람이 매우 힘이 들었으나 다 갈지도 못했다. 來日 갈 예정이다. …

◎ 5월 25일 (음 4월 17일) 목요일 雨

… 朝飯 後에 소을 부리니 10時 頃부터 비가 始作해서 종일토록 田穀에 알맛도록 왔으나 보리엔 지장이 왔다. 우리보리는 쓰러졌다. …

◎ 5월 27일 (음 4월 19일) 토요일

… 소을 같다가 닷마지기와 골장논 쓰리다 냉긴것을 쓰리다가 소가 안가 오시랑으로 고르고 금쓰래만 놓고 심을라고 한다. 6마지기에서 소 사람이 완전히 지치었다.

◎ 5월 29일 (음 4월 21일) 월요일

소을 같다가 농꼴밭원 5斗落 쓰리고 밭원뚝 및 1斗落 갈아 쓰리고 今年엔 산 1斗落도 갈아쓰리니 소가 안가서 그만두었다.

◎ 5월 31일 (음 4월 23일) 수요일

… 소가 안가 둘재祖 家 소로 부리였다. …

◎ 6월 17일 (음 5월 10일) 토요일

… 悠雨氏가 와 仁性家의 소가 죽었으니 어이하면 좋겠느냐고 와 건나가 처분할랴고 서둘렀다. 좀 있으니 수의가 와 잘 해 보냈다. 그리고 잡아 헐갑으로 팔었다. 仁性家도 참으로 않 되는 집이다. 3년만에 송아지을 얻어 맨 것이 죽다니 노르쟁이도 않 된다. …

◎ 7월 1일 (음 5월 24일) 토요일 雨

… 下午에 肥料 찾으라 간다고 해서 소을 가질라 가니 아번님이 간신다고해서 朴三福이 馬車을 같고 간다고 해서 나가 馬車에 실고 같이 밀고 왔다. …

◎ 7월 8일 (음 6월 1일) 토요일 晴

食前에 아번님이 오시여 소를 같고가 소금(鹽)을 실라 갈라느냐고 하시여 가기로 하고 朝飯後에 개섬鹽田으로 같다. 春雨 敎雨等 3名이 車길가지 소금을 실었다. 111叭 실어 1,500원 一人當 500원식이다. 놀다가 소을 몰고 다니니 피곤하다. 5時間 가량에 끝내고 일직 집에 왔다.

◎ 7월 15일 (음 6월 8일) 토요일 雲

… 요즈음 일이라고 저녁나절 세풀한짐과 세죽쑤는 것이다. 소를 거두니 소몸은 좋와졌다. …

◎ 8월 22일 (음 7월 17일) 화요일 晴

食前에 세죽을 퍼주니 세죽을 잘 먹지 않아 藥을 먹이였다. 점심대야 세죽을 먹어 또 藥을 먹이니 차도가 있는 것 같다. …

◎ 9월 5일 (음 8월 2일) 화요일 雲

… 大休氏家에 소가 벼란간 누어 가보니 아주 심하다. 수의가 와보구선 自信이 없다고 한다. …

◎ 9월 21일 (음 8월 18일) 목요일

… 朝飯後에 소를 같다가 벼을 실어다가 脫穀을 했다. 妻와 같이 午前中에 했다. …

◎ 10월 5일 (음 9월 2일) 목요일

농꼴밭원 벼을 실어 드릴랴고 소을 같다 실기 始作해서 妻가 쌓아 다 실고 밭원 가서 한바리 실어왔다. …

◎ 10월 9일 (음 9월 6일) 월요일 晴

黃金으로 물들었든 田園은 몇일 동원에 활기찬 農民들의 손 努力으로 다 거두고 논뚜랑에 쌓아 논뚜랑마다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듯하다. 논의 벼비기 일이 끝나자 소가 바빠저 소바리로(벼끄디라느라고) 길이 바빠진다. …

◎ 10월 16일 (음 9월 13일) 월요일

朝飯食事後에 소를 같다가 아논 뜰 벼을 실어 올리였다. …

◎ 11월 23일 (음 10월 22일) 목요일 雲

… 搗精을 해야겠는데 馬車 않오며 소가 아주 못부리게 되였다고 한다.

◎ 11월 27일 (음 10월 26일) 월요일 雨

… 朝飯食事을 마치고 아버지家에 가 소을 같다가 1번을 같다오니 비가 오기 始作해 급히 2번을 다니고 慈雨氏家에서 실는다고 해서 1叭을 언저다 달라해서 7叭을 내 같다. …

◎ 12월 4일 (음 11월 3일) 월요일 雲

… 食前에 세죽을 쑤고 있으니 高棧 작은아번님 生辰日이라 오라해서 朝飯食事을 하고 搗精한 白米을 실어오라고 했더니 소가 못부리게 되여 오늘 못 가져오게 되였다. …

◎ 12월 5일 (음 11월 4일) 화요일 雪

精米所의 소가 못부린다고 해서 朝飯後에 아번님家 소를 같다가 前日 搗精한 것을 실어오는데 눈이 많이 나리여 고생을 하였다. …

1968년

◎ 1월 17일 (음 12월 18일) 수요일

소 개우했다. 一金 9,000 보탰다. 朝飯食事後에 재을 앞 3斗5升 지기와 아논 苗板할 곳에 저냈다. 下午에 牛商人이 소를 같고 와 개우했다. 우리 소에다가 9,000원 보태 같고 바꾸었다. 소가 좋와 보이지는 않으나 부리기 좋다고 해서 개우했다 잘 한 거신지? 돈은 다음 安仲場에 주기로 했다.

◎ 1월 18일 (음 12월 19일) 목요일

午前에 오양 처내고 洞里靑年들이 와 윳을 놀

자고 해서 우리마당에서 윳을 놀았다. 前日 소 개우한 소가 우리 소만큼은 먹성 좋지 안다. 찍 거기을 냉기는 모양이다.

◎ 1월 20일 (음 12월 21일) 토요일

7時 20分이나 되여 일어나 세죽을 쑤니 (…) 來日 安仲場에 소갑을 같다 줄라고 같다가 쌀 商人을 못 만나 좀 있다오니 점심때가 되였다. …

◎ 3월 12일 (음 2월 14일) 화요일 晴

오늘은 일직부터 서둘러 搗精한 벼을 高棧으로 실어 가는대 아번님소와 우리소로 실어 갈라고 했으나 우리소는 힘이 약해선지 못실고 아번님家 소로 종일 30叭를 실었다. 저근너까지 저 날라 馬車로 실었다. …

◎ 3월 14일 (음 2월 16일) 목요일 晴

午前에 高棧 가 우리소로 등겨와 왕겨 나문 것을 실어오고 下午엔 高棧 原植에게서 쌀돈 낸 것 3叭을 原植家에 저다두고 3叭은 집으로 실어 오니 25叭가 아직 精米所에 保管中이다. …

◎ 3월 15일 (음 2월 17일) 금요일 晴

午前에 세죽을 쑤고 있으니 …

◎ 4월 6일 (음 3월 9일) 토요일

뒤염을 실었다. 소가 짐실이는 아주 약하다. 가리질이나 잘 해야겠는데 …

◎ 4월 9일 (음 3월 12일) 화요일 雲

… 소을 개우해서 논에는 처음 들어 가는것인데 약하기는 하나 그대로 부리겠다.

◎ 4월 15일 (음 3월 18일) 월요일 晴

新作路出役에 집이 비우게 되여 소를 내보냈다. (…) 出役 나 같든 소는 저녁을 데섹 길 정도로 힘이 든 모양이다. 英浩가 늦게 도라오니 세죽쑤라 저녁 밥 지으랴 매우 분주했다. …

◎ 4월 23일 (음 3월 26일) 화요일 晴

동욕꿀 밭벼 부친대 소로 끌었다. …

◎ 4월 25일 (음 3월 28일) 목요일 雲

精米所에서 소사람을 얻어 오늘 벼을 실어 가는데 우리소로 午前中 벼을 같이 실고 下午엔 搗精을 하여 넹겨올라고 했더니 가랑비가 나리여 못실어왔다. …

◎ 5월 8일 (음 4월 11일) 수요일 晴

… 朴三福을 얻어 오늘 아논을 갈았다. 빠저 소가 하여와질[헤여나질] 못해 개머리와 굳뎅이을 갈다 말았다. 下午엔 농꼴 5斗落을 두 번 풀었다. …

◎ 5월 10일 (음 4월 13일) 금요일 晴

… 소가 새끼을 날라는지 매우 게로워하여 5斗落을 갈고 소을 땠다. …

◎ 5월 12일 (음 4월 15일) 일요일 雲

… 서울의 詳浩가 떠난다고 해 집에서 떡을좀 해 白米 1叭을 먹으라 소에 실려 보냈다. …

◎ 5월 15일 (음 4월 18일) 수요일 晴

농꼴 논을 갈라고 소을 몰고 가 갈아보니 소가 허여 나질 못해 도저히 갈수가 없다. 소가 새끼가 들어 마음대로 부릴수가 없고 골장논에 드려 볼수가 없어 아논 3斗, 1斗 5升을 두벌을 갈았다. 거이 종일 걸리였다. …

◎ 5월 22일 (음 4월 25일) 수요일 晴

… 妻가 젓두리[곁두리;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을 내와 소가 이상하다고 하더니 下午 4時頃에 송아지을 낳았다. 황송아지다. 妻가 집에서 매우 분주했다. …

◎ 5월 25일 (음 4월 28일) 토요일 晴雲

然雨氏家 소을 한참 얻어 아논 1斗 5升 3斗 5升 苗板除外 원뚝 밑 1斗 等의 장서리을 했다. 소가 말을 잘 안 들어 午前中 했다. …

◎ 6월 12일 (음 5월 17일) 수요일 晴

… 前日 소을 같다 부리고 소 당뎅이을 까같고 와서인지 심히 부리여서인지 먹지을 안아 세푼을 뜩기고 …

◎ 6월 15일 (음 5월 20일) 토요일 晴

… 前夜에 피곤하여 늦게 일어나 세죽 쑤고 …

◎ 8월 3일 (음 7월 10일) 토요일 晴

食前에 高棧 가 馬車을 같다가 正穀을 4叭을 실어 보냈다. 朝飯食事을 하고 나도 오지 안해 가보니 馬車가 정복이 되여 있다 소는 다치지는 안했는 것 같다. 소을 얻어다가 쪽바리로 11叭을 실어 가고 보리 1叭을 실어 같다. …

◎ 8월 13일 (음 7월 20일) 화요일 晴

食前에 草命村에 가 徐斗鎬가 송아지을 매기겠다고 해 알아 보라 같섰다. 내 生覺으로는 송아지 갑을 빼고 半分하는 것이 어떠내 하니 徐氏는 24個월 멕이고 송아지 1斗을 달라고 한다. 그리해 잘 메겨 주면 좋은 것을, 잘못 메기면 나쁜 것을 사줄테니 16日에 오라고 하고 왔다. …

◎ 8월 16일 (음 7월 23일) 금요일 雲雨

朝飯食事後에 安仲場에 송아지을 끌고 갈라 하니 날씨가 고로지 않아 못가고 徐斗鎬에게 황송아지가 싫으면 우선 매기다가 交換해 주겠다고 하고 가저 가라니깐 來日 가 저가겠노라고 한다. 송아지 금치고 半 갈으자니 24朔 메기여 주면 송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해 저금하는 셈치고 주기로 했다. 우리 송아지 現時勢로 2만 칠,팔千원은 갈 것이다. …

◎ 8월 31일 (음 윤 7월 8일) 토요일 晴

朝飯食事을 하고 소을 갈다 맬라고 하니 소가 소리을 지르며 암청 내가 난듯하여 黃牛 있는 곳을 알아보고 와 소을 자세히 보니 잘 알 수가 없다. 잘 알수 없어 原木에 소가 있다고 해서 소을 글고 原木 來雨氏에 소을 끌고 같다. 교접을 시켰으나 잘 되였는지 모르겠다. 소을 끌고 왔으나 종일토록 소리을 지른다. …

◎ 9월 9일 (음 윤 7월 17일) 월요일 晴

재 소 교접. 朝飯食事 後에 소가 나대여 자세히 보니 앞 내을 낸듯하여 농꼴 엇무 부칠 것을 갈고와 原木에가 교접을 시켜같고 도라와 점심 먹고서 김장 밭의(액비) 거름을 주었다. …

◎ 9월 11일 (음 윤 7월 19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 高棧 精米所에 保管한 小麥粉을 新浦로 소에 실고가 국수을 눌리였다. …

◎ 9월 13일 (음 윤 7월 21일) 금요일 晴

… 좀 있으니 洞里 治道을 한다고 鍾을 쳐 우리는 소을 내 보내고 學校의 會에 參席했다. …

◎ 9월 20일 (음 윤 7월 28일) 금요일 晴

午前에 쇠오양 처낸 것이 오늘의 日課이다. 下午에야 세 풀 한짐! …

◎ 9월 22일 (음 8월 1일) 일요일 晴

소 개우 6,000 원 잎음. (…) 점심을 막 먹고 나니 무러니 소상인이 소을 같고 와 우리소와 바꾸라 해 믿은 처지라 交換하기로 하고 一金六千원을 언고 交換했다 우리소 보다 약간 살이 있고 애우다. 交換하고 보니 우리 소보다 더 큰 것 같이 않다. 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집에 一金四千원이있어 주고 貳千원은 次後 주기로 했다. 무었보다도 부리기 좋고 새끼을 잘 낳아야겠는데 모르겠다.

◎ 9월 26일 (음 8월 5일) 목요일 晴

前日 빈 벼를 約 100束 가량 소로 실어다가 脫穀을 했다. …

◎ 9월 29일 (음 8월 8일) 일요일 晴

前日부터 개우한 소가 암청 내가 나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 한산리에 있는 종우에게 가 교접을 해 같고 왔으나 제대로 되였는지? 집에 와서도 종일토록 나댄다.

◎ 10월 14일 (음 8월 23일) 월요일 晴

午前에 벼을 실어다 脫穀을 했다. 소가 집시리가 서투룬 것인지 매우 속을 쎄기였다. …

◎ 10월 29일 (음 9월 8일) 화요일 晴

朝飯食事을 일직 하고 한신리 종우 집을 찾아가보니 일을 같다고 해 기다리다가 교접을 식혀 같고 왔다. 교접이 되었는지? 또 둘암소가 아닌지 궁금하다. 집에 오니 오종 점심을 먹고 앞 아는 벼을 실기 始作햇다. …

◎ 10월 30일 (음 9월 9일) 수요일 晴

前日부터 벼 끄디리기 始作해서 오늘도 종일 실었다. 소가 짐시리가 염려되였으나 오늘 실어보니 제대로 한다. 인제 논가리 잘하고 새끼만 잘 나면 소는 나물할 곳이 없다. …

◎ 11월 3일 (음 9월 13일) 일요일 晴

… 벼을 게속 끄디리니 소가 지치였다. (…) 下午엔 소가 누어 버리여 쉬며 실었다. …

◎ 11월 4일 (음 9월 14일) 월요일 晴雲

농골 밭원 벼을 오늘 끄디리여 벼는 앞 5斗 除外하고 소로 시를 버뭇은 오늘로 다 디려 왔다. …

1971년

◎ 1월 1일 (음 12월 5일) 금요일 溫晴
… 下午엔 오양을 처냈다. …
◎ 1월 5일 (음 12월 9일) 화요일 雲
… 食前에 소오양 앞을 영으로 둘러주고 세죽을 쑤웠다. 날씨도 춥고 하여 종일 누어있다가 下午에 여물쓸고 일은 물리였어도 별일없이 누어있었다. …
◎ 1월 19일 (음 12월 23일) 화요일 晴
… 우리 소로 前日 실어온 모래를 집으로 運搬했다.
◎ 1월 24일 (음 12월 28일) 일요일
… 午前에 땅이 질지만 車길에 같다 놓은 沙(모래)을 소로 실어 왔다. …
◎ 2월 13일 (음 1월 18일) 토요일 晴
푸근한 날씨다. 理髮을 하고 와 울타리에 쓸 나무 한 토막을 비고 점심 먹고 여물 쓸고 있으니 …
◎ 2월 19일 (음 1월 24일) 금요일
… 소가 별안간 젓이 동이 동이 만큼 부어 겁이나 妻을 安仲으로 보낼랴고 하다가 새끼를 날랴고 하는지 모르어 그만두니 조금있다가 (10時半頃) 새끼을 낳았다. 황송아지을 낳았으면 15,000원은 더 받을 것인데 …
◎ 3월 31일 (음 3월 5일) 수요일 晴
봄 날씨가 좋으니 들에는 소바리여 밭 갈기며 온 식구가 들에 나가 분주한데 …
◎ 4월 7일 (음 3월 12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모처럼만에 마실 같다 와 苗板(保溫)할 논을 갈았다. 소 개우해같고 처음 갈았으나 그댁치 않으나 빠지는 논을 잘 가는지가 문제다. 물이 채였든 貯水畓이라 매우 힘이 들었다. …
◎ 4월 13일 (음 3월 18일) 화요일 雨
妻는 재벽 할 흙을 치고 나는 소로 실었다. …
◎ 5월 11일 (음 4월 17일) 화요일
… 소가 前日 재철 집에서 부리였는데 목이 부어왔다.
◎ 5월 29일 (음 5월 6일) 토요일
敦植 소 가저가다.
◎ 5월 30일 (음 5월 7일) 일요일 晴
水村아저씨가 소을 가저가 농꼴 苗木을 기눌랴고 한다. …
◎ 5월 31일 (음 5월 8일) 월요일
… 송아지도 떼야겠는데 갈 날이 없다.
◎ 6월 17일 (음 5월 25일) 목요일
… 농꼴 池億秀家에서 송아지 가저갈다. 20個月 멕여주고 암송아지 사주기로 했다. 가저가기 前에 잘 멕여 주면 좋은 것. 앞으로 송아지 보아 사주기로 하고 보냈다. 송아지는 億秀婦人이 가저갈다.
◎ 6월 28일 (음 윤 5월 6일) 월요일
… 소가 암청이 나 농꼴 弟氏 家에 가 소을 교접시겨 같고 왔다. 고구마 심다.

1972년

◎ 1월 3일 (음 11월 18일) 월요일
… 朝飯後에 오양 처 밭원 1斗에 같다 피고 …
◎ 1월 4일 (음 11월 19일) 화요일 雨
… 오늘 午前中 여물을 썰고 空叭을 짜고 있으니 …
◎ 1월 27일 (음 12월 13일) 목요일
… 午前에 소 오양 처내고 午後엔 꾸밀 새기 한 동 꼬다.
◎ 2월 10일 (음 12월 26일) 목요일
6時半에 起上하여 朝飯食事라고 세죽 쑤어 大浩 學校 보내기 분주하다. (…) 午前에 새기 한 통을 꼬고 午後엔 오양을 처냈다. …
◎ 2월 27일 (음 1월 13일) 일요일
感氣 차래가 와 종일 누어 있다가 午鐘頃에 여물 썰고 오양처낸 것으로 오늘의 日課다. …
◎ 3월 14일 (음 1월 29일) 화요일
여물 썰고 오양 처내고 동욕꿀 밀밭 글느라 가니 밀이 半도 나오지 않아 위쪽은 글다 말았다. …
◎ 3월 26일 (음 2월 12일) 일요일
… 소가 새끼 날 날은 다가오고 소가 할 일은

많고 조바심이 된다.

◎ 3월 27일 (음 2월 13일) 월요일

車로 실어온 모래을 소로 실어왔다. 午後엔 모래가 한 차 또 왔다. 下午엔 소가 꿍꿍그리여 길마을 떴다. 소가 죽을 데섹인다. 새끼 날 날이 임박해서 애석하다. …

◎ 3월 28일 (음 2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모래을 소로 실으니 소가 힘이 드는지 꿍꿍그리고 심이 드는듯하여 일직 길마을 떴다. 길마 속이 닷는지 등이 부었다.

◎ 4월 2일 (음 2월 19일) 일요일

소의 새끼 날 달이 임박하여 뒤엄을 실었다. 종일토록 뒤엄을 실으니 소가 힘드는 모양이다. …

◎ 4월 7일 (음 2월 24일) 금요일

… 소가 새끼을 낳을 것 같다. 부리면서도 조바심이 된다. …

◎ 4월 9일 (음 2월 26일) 일요일

… 소는 今日로 286日. 송아지을 낳야 될 것인데 안 낳았다. …

◎ 4월 12일 (음 2월 29일) 수요일

… 나는 소가 새끼을 언제 날지 몰랴 모짜리 할 것에 갈았다. …

◎ 4월 16일 (음 3월 3일) 일요일

… 송아지 낳았다. 황송아지.

◎ 5월 12일 (음 3월 29일) 금요일

… 옆 밭도 치우고 갈았다. 봄 밭은 다 갈았다. 소 오양간을 손질하고 소을 드려 맸다.

◎ 5월 13일 (음 4월 1일) 토요일 흐림

소 부리다.

◎ 5월 14일 (음 4월 2일) 일요일 雲

감자밭의 거름을 주고 午後엔 오양을 처냈다. …

◎ 5월 16일 (음 4월 4일) 화요일

… 소 양정호 가저가다.

◎ 5월 17일 (음 4월 5일) 수요일

… 오늘도 소을 양정호 가저가다.

◎ 5월 25일 (음 4월 13일) 목요일 雲雨

食前에 세죽솟에 불을 피워놓고 들을 一週하고 와 朝飯食事을 하면 妻는 안에서 분주한 모양이다. 세죽을 저어 퍼주자면 일직 들에서 도라와야 할 것을 들에 가면 또 일이 많다. …

◎ 5월 31일 (음 4월 19일) 수요일 晴

食前에 논을 一週하고 세죽 퍼주고 나면 朝飯食事가 바쁘다. (…) 소사람이 힘이 무척 든다. …

◎ 6월 6일 (음 4월 25일) 화요일 晴

… 午前에 오양처내고 …

◎ 7월 11일 (음 6월 1일) 화요일

妻와 같이 송아지을 끌고 安仲場에 갈다. 牛전에 들려 송아지금을 보내 말 듯던 바와는 아주 다르다. 우리 송아지가 80,000원 이상을 받을 줄 알았으나 오늘 場 市勢로는 75,000원을 더 못받겠다. 우리 송아지가 場中 上中은 데는데 송아지가 털이 거칠어 들띠이는 것 같다. 한참만에 장자가 걸려 결국 74,000원을 받었다. …

◎ 7월 17일 (음 6월 7일) 월요일 晴

朝飯後 갈다 매고 그루밭을 맬랴고 하니 소가 암내 난 듯하여 농꼴 魯應奉家에 가 소을 교접 싴겨같고 와 옆 밭을 매기 始作했다. …

◎ 7월 20일 (음 6월 10일) 목요일 晴

밀 230斤을 소에 싣고 三溪精米所에 가 製粉국수을 눌릴랴고 妻와 같이 나같으나 국수는 못 눌리고 製粉만 했다. 昶鎔이 面 송아지을 얻어 달라고 面에 갈다가 송아지가 現在없으니 後日 보자고 하여 그냥 도라왔다. …

◎ 8월 26일 (음 7월 18일) 토요일 晴

食前에 소을 끌고 농꼴 가 交接을 시켜같고 왔다. 가는 새끼을 꼬와 놓고 세풀 한짐을 비였다. 저녁 나절 소가 교접을 시켜 왔건만 종일 소리을 지르고 하여 또 같고 같다. …

◎ 8월 29일 (음 7월 21일) 화요일

… 마당을 소로 흙을 실어다 돗았다. 午前이면 다 돋을 줄 알았으나 종일 돋았다. …

◎ 9월 17일 (음 8월 10일) 일요일

몇차래 소의 교접을 시키였으나 食前부터 소는 소리을 지르고 한다. (…) 벼 매끼을 틀다가 논을 一週하고 午中에 소을 끌고 다른 곳으로 갈랴다가 농꼴 가 다시 교접을 시켰으나 소리는 如前하다. …

◎ 9월 22일 (음 8월 15일) 금요일 晴
… 세죽을 쑤어 놓고 큰집으로 차례을 지내라 갈다. …
◎ 9월 27일 (음 8월 20일) 수요일 晴
… 농꼴 池億洙君이 갈다 기르는 송아지의 교접을 부치였노라고 왔다 갈다. …
◎ 10월 18일 (음 9월 12일) 수요일 晴
朝飯食事하랴 세죽 쑤랴 분주했다. …
◎ 11월 1일 (음 9월 26일) 수요일
여물 썰고 농꼴 벼 뽑다 냉긴 것을 저내고 와 (…) 소는 金在喆이 가저갈다. …
◎ 12월 16일 (음 11월 11일) 토요일
큰 아번님家 脫穀을 하는데 食前에 세죽을 쑤고 …
◎ 12월 27일 (음 11월 22일) 수요일 晴雲
… 여물 썰고 영 몇 마름 엮었다. …

1973년

◎ 1월 16일 (음 12월 12일) 화요일 雲
흔떡도 할겸 아이들의 서울 갈 짐도 가저갈겸 소에 싣고 德秀家 堤防까지 실어다주고 雄浩와 妻는 新浦로 가고 나는 星谷의 安氏家 弔問을 갈다. …
◎ 1월 20일 (음 12월 16일) 토요일
來日은 서울에 갈까 하고 겨가 없어 소메기 겨를 꾸어 볼랴고 마실갈다가 주어 오지도 못하고 놀다가 왔다. …
◎ 1월 21일 (음 12월 17일) 일요일
… 일직 일어나 세죽을 쑤고 妻는 밥을 지여 먹고 나니 …
◎ 2월 5일 (음 1월 3일) 월요일
妻가 서울에 일직 갈랴고 서둘렀으나 여물을 썰고 나니 9時가 지났다. 10時에 출발하여 德壽堤防까지 짐을 갈다 주고 왔다. …
◎ 2월 7일 (음 1월 5일) 수요일
… 後坪에서 도라와 누어 있다가 나가 세죽을 쑬랴고 하니 英浩가 온다. …
◎ 2월 10일 (음 1월 8일) 토요일 晴
오늘 16日 安仲場에 소을 갈고 나가자고 농꼴 億洙君에게 傳하고 와 별일 안고 하루 해을 보냈다. …
◎ 2월 16일 (음 1월 14일) 금요일
오늘 송아지을 팔라 갈라고 한 날이다. 朝飯後에 농꼴 가 池億洙君에게 소을 끌고 가라고 하고 쪼차갈다. 場에 가 작자가 물리였다. 하도 말라 갑이 없다. 前坪 일가 분이 와 一金 106,000원 차지다. …
◎ 2월 18일 (음 1월 16일) 일요일
… 李敍泰을 보내고 쇠오양을 처냈다.
◎ 3월 16일 (음 2월 12일) 금요일
食前에 楊甘에 가 ○○○을 손보아 갈고 집에 오니 前坪의 平浩가 와 있다. 우리 송아지을 사다 맷는데 먹거리을 않하여 날로 말라간다고 生覺해 달라는 것이다. 池億洙가 갈다 멕이던 소인데 億洙에게 가 議論하자고 해 농꼴 億洙에게 가 알아보니 신통한 일이 아니였다. 次後에 알려주겠다고 하여 보냈으나 우리로선 아무런 責任이 없다. 소 보고 사간 소인데 이제 와 무슨 소리란 말인가.
◎ 4월 16일 (음 3월 13일) 월요일 雨
… 집에 오니 소가 뇌여 물苗 씨나락을 約 2斗 가량 먹었다. …
◎ 4월 20일 (음 3월 18일) 금요일 晴
영을 엮어 집가리을 두루고 오양을 처냈다. …
◎ 4월 27일 (음 3월 25일) 금요일 晴
… 소는 농꼴로 나갈다.
◎ 5월 6일 (음 4월 4일) 일요일
소 부리다. 午前에 밭원 1斗 7升, 안논 7升, 앞 3斗 5升 등을 갈고 午後에는 밭원 1斗을 갈았다. …
◎ 5월 8일 (음 4월 6일) 화요일
소가 나가 신일을 못하고 午前中 물 苗板에 물을 퍼내고 새마을 事業하는데 協助하고 午後엔 뒤엄 몇 짐을 저냈다. …
◎ 5월 12일 (음 4월 10일) 토요일
… 午後엔 소을 부리였다. 농꼴 5斗와 앞 밭원 뚝 및 1斗을 갈았다. …

◎ 5월 18일 (음 4월 16일) 금요일
하루면 갈던 논을 半 좀 더 갈았다. 소가 몇 번이나 누어 도저히 갈 수 없어 午後엔 한참이나 소을 떼여 놓고 논쥐을 팠다. 소도 힘이 들지만 사람도 지쳐 죽겠다.
◎ 5월 21일 (음 4월 19일) 월요일 晴
하루을 놀린 소가 별로 더 낳은 편이 아니다. 농꼴 아논 밭원 5斗 合 10斗을 곱서리고 앞에와 밭원뚝 後 1斗와 안논後 1斗을 곱써리였다.
◎ 5월 24일 (음 4월 22일) 목요일 晴
아번님家에 苗 쩌논 것이 있어 앞 1斗 을 써리고 妻가 심었다. 나는 농꼴 골장 6斗을 써리였다. 소가 죽을 먹지 않아 부리기가 안되였으나 헐 수 없다. 아주 지치였다. 먹지 않어 더하다. …
◎ 6월 16일 (음 5월 16일) 토요일 晴
… 소에다 아이들 糧米을 싣고 新浦에 나가 8時 40分車을 태워주고 왔다. 新浦에서 蔡浩을 만나 三溪에 와 술을 같이 하고 11時半경에야 집에 와 點心을 먹고 오양을 처냈다. …
◎ 6월 23일 (음 5월 23일) 토요일 晴
李昶鎔君이 一金 7,000원을 같고 와 交제費로써 面송아지을 求해 달라고 하여 우리집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君이라 面에 나같다. …
◎ 6월 29일 (음 5월 29일) 금요일 雨
… 비가 나리여 누었다가 나가보니 송아지을 낳았다. 암송아지.
◎ 9월 4일 (음 8월 8일) 화요일
午前에 新浦面에 같다. 李창용군이 송아지을 얻어달라고 付託한 것이 어이되였나 알아보기 爲해 總務係에 같다. 總務係에게 一金 參仟원을 던저주고 부탁하고 송아지는 길어가겠다고 하고 …
◎ 9월 21일 (음 8월 25일) 금요일
水路代金을 찾아 쓸랴고 計劃으로 있다가 돈을 찾기 어려울 듯하여 今日 安仲場으로 송아지을 끌고 같다. 一金 58,000원에 賣해 같고 일금 50,000원을 新浦 農協에 예금했다. 웅호가 왔다가 今日 떠나는데 서울에 水道을 놓는데 一金 50,000이 든다고 하여 예약금이 20,000원이라고 하여 송아지을 매매했다. …
◎ 10월 15일 (음 9월 20일) 월요일 晴
보리 갈다. 소 교접.
◎ 10월 21일 (음 9월 26일) 일요일
… 밀렸던 오양을 처내 옆밭에 같다 피고 …

ㅇ 돼지

1959년

◎ 1월 29일 (음 12월 21일) 목요일 雲
朝飯食事를 마치고 도야지 오양을 쳐 내고 도야지를 모르니 안 와 속을 쎄기여 호차리로 다리를 때리였는데 하로 終日 못 이러나고 뒤다리를 못쓴다. …
◎ 2월 1일 (음 12월 24) 일요일 晴
… 작근집에 있다가 憲植에게 가서 도야지가 四日前에 오양 칠랴고 내노앗다가 호차리로 뒤다리 때린 것이 못 이러난다고 해서 곳 와 농골 유지부에게 가서 오이루를 얻어다가 2g를 노앗다. 오늘도 잘 이러나지 못했다. …
◎ 2월 3일 (음 12월 26일) 화요일 晴
食前에 도야지를 나가보니 좀 이러나서 죽을 먹어 매우 싱기하다. …
◎ 2월 28일 (음 1월 21일) 토요일 晴
前日부터 도야지가 암청이 난 것 같아 큰아버지가 지가 가기에 알아보니 암청이 화긴되여 高棧 넘어가 알아보고 朝飯을 마친 나는 도야지를 끌고 高棧 넘어 같다. 행궝이아저씨 家에 가서 교미를 시킬랴고 숫놈을 내놓아 어르니 주저앉아 못 이러나더니 영영 이러날 것 같이 않아 注射도 노앗것만 가망이 없어 午鍾 頃에 지고 왓다. 종일토록 죽을 안 먹고 다리를 쓰지 못한다.
◎ 3월 1일 (음 1월 22일) 일요일 晴雨水
食前 일찍 妻를 보내여 도야지 죽을 해다주라 햇것만 죽은 영 먹지 안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보니 느러젓다. 이러날 것 같지

않아 잡기로 결정 生覺하고 炳賢 家에 가서 炳賢에게 우리 도야지 잡자고 하니 場에를 간다고 한다. 도야질 잡아도 치울 것이 걱정이 되여 柱雨氏에게 가서 알아보니 치우다 못 치우면 홍월리[홍원리]로 같고 오면 염전에 치운다고 한다. 朝飯을 마치고 잡을 사람을 구하니 수촌 아저씨와 수원 祖母 家 아저씨가 잡는다고 해서 잡기를 始作하니 大休씨도 그드럿다[거들었다]. 도야지 고기 68斤 12양이 나가 斤當 230원씩 15,800원을 받어달라 햇다. 그리하여 순데를 水村 아저씨 家에서 해서 나도 먹었다. 洞里에서 갈비 두 짝 목정을 지고 오후에 홍월리로 가저 같다.

◎ 3월 2일 (음 1월 23일) 월요일 雲

… 前日 도야지 고기를 가지고 홍을리 같다가 바다에서 고생만 하고 배가 건너오지 않아 그냥 왓다고 하여 치울 것을 걱정을 하고 잇기에 오늘 품갑은 내가 낼 테니 잘만 치워 달라고 햇더니 지고 또 홍월리로 건너 같다. …

◎ 9월 18일 (음 8월 16일) 금요일 雲

… 午鍾 頃에 德雨 家 되야지 注射를 놓아달라 해서 건너가 놓아주고 …

◎ 11월 1일 (음 10월 1일) 일요일 雨

… 거기에서 議論이 되여 도야지 잡기로 되여 敎雨氏 家 도야지 57斤을 잡았다. 午後 늣게 悠雨氏 시간[세간]집 재목이 와서 한 짐 저다 주고 悠雨氏 家에서 순데국을 끄리여 夕飯과 같이 했다.

◎ 12월 16일 (음 11월 17일) 수요일 晴冷

… 아버지 家 도야지를 洞里서 잡아 목정 두 근 2斤 4兩을 사왔다. 夕飯 後에는 强植이 이모가 오양서 도라와 가보고 순데 햇는데 얻어먹었다.

1960년

◎ 2월 3일 (음 1월 7일) 수요일 晴

… 도야지 오양 처냇다.

◎ 8월 12일 (음 윤 6월 20일) 금요일 晴

食前에 옆 밭뚝을 뜻고 있으니 妻가 와서 도야지 사러왔다 해서 와 보니 日前에 왓던 君더리다. 팔기로 하고 斤當 160환에 달아보니 72斤 아주 덜 나갔다. 11,500환을 받고 내주었다. (…) 새벽녁에 병아리(중닭) 두 마리를 물어갓는데 한 마리 찾아 복아서 孟植과 같이 먹었다.

◎ 10월 25일 (음 9월 6일) 화요일 晴

午前 中 도야지 간 정리 수리하고 도야지 깃을 논으로 처내고 하였다. …

◎ 10월 29일 (음 9월 10일) 토요일 晴

오늘 도야지를 사올랴고 도야지 우리를 손 보고 잇으니 孟植이 손도 앞으고 水原도 가야겠고 해서 손을 바꾸어 달라 해서 孟植이를 보내고 내가 둘재祖父 家 일을 했다. 孟植은 水原에 朝飯을 하고 가서 夕飯 頃에 왓는데 時計를 사왓는데 12,000円을 주었다 한다. 高棧 福植이 받은 것과 똑 같다.

◎ 11월 4일 (음 9월 16일) 금요일 晴

… 午前 中 영을 엮고 下午에는 그럭저럭 하다가 도야지 잡는 말이 나와 明雨 家 도야지를 柱雨 敎雨 顯雨 等이 찌워해서 같이 하여 나도 고기 한 목을 가저왔다. 도야지가 조금아서[작아서] 한 목이 五斤 程度인데 敎雨와 나누어 760환어치 가저왔다.

1961년

◎ 6월 17일 (음 5월 5일) 토요일

어린 것의 차도가 잇어 약을 메기고서 종일 잘 보아주고 고구마 밭에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서 고구마 약 400餘木을 심었다. …

◎ 7월 15일 (음 6월 3일) 토요일

… 朝飯食事 後에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 종일 놀다가 下午에 풀을 좀 비었다. …

◎ 9월 17일 (음 8월 8일) 일요일

… 도야지 팔기로 계약금 2만환 받었다.

◎ 9월 18일 (음 8월 9일) 월요일

… 도야지 賣 29,000환 受. (…) 食前에 도야지 장사 와 파랏다. …

1962년

◎ 1월 12일 (음 12월 7일) 금요일 晴
… 내가 몇일 前에 도야지 새끼 낼 것을 사달라 햇더니 前坪에 잇다 해서 가보니 도야지가 마음에 들기는 하나 갑이 틀리여 그냥 도라와 點心을 먹고 나니 큰 처男이 또 왓다. …

◎ 1월 14일 (음 12월 9일) 일요일 晴
… 食前에 두엄을 몇 짐 저내고 朝飯 後에는 도야지 우리를 손질했다. …

◎ 1월 31일 (음 12월 26일) 수요일 晴
… 그리하여 몇이 서둘라 도야지를 잡기로 하여 둘재 祖父家 도야지를 잡았다. 午後에 순대국을 해서 먹고 저녁에도 놀다왔다. …

◎ 2월 2일 (음 12월 28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 後에 몇일 前 도야지 고기갑을 몇몇이 받으라가고 …

◎ 2월 25일 (음 1월 21일) 일요일 晴
… 오늘 安仲場에 갈다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家축의 값이 폭등이라고. 소도 보통 大牛가 45만환 앙등하고 도야지도 보통 2,3천환 앙등 小牛는 23만환 내지 28만환. 도야지는 7천환에서 12,000환까지라고 하니 도야지 1마리 당 白米 7斗는 주어야 산다니 도야지 살랴고 하다가 걱정이다.

◎ 5월 26일 (음 4월 23일) 토요일 晴
도야지 새끼 買. 壹萬仟圜. 白米 6斗 萬五百圓. 白米 6斗를 내고 一金 五百圓을 보태 갈고 도야지 새끼를 사왔다. (…) 도야지새끼를 사 갈고 오니 도야지는 왜 사오느냐고 한다. …

◎ 7월 27일 (음 6월 26일) 금요일 晴
… 도야지 오양을 처서 김장 갈 밭에 갈다 냈다. …

◎ 8월 2일 (음 7월 3일) 목요일 雨
… 또 도야지 죽도 해주었다. …

◎ 8월 18일 (음 7월 19일) 토요일 雲雨
… 그리고 仁成 家에 가서 도야지 注射를 놓아주고 왔다.

◎ 8월 19일 (음 7월 20일) 일요일 雲
… 나는 午前에 高棧 德均 妻가 와 도야지가 똥을 못 눗는데 걱정이라고 하며 좀 가보아 달라고 해서 管장기를 갈고 가 관장을 해주고 德均家에서 술을 먹고 오니 …

◎ 9월 16일 (음 8월 18일) 일요일 雲雨
食前에 도야지 오양 처내고 풀 한 짐 비여왔다. …

◎ 9월 24일 (음 8월 26일) 월요일 晴
食前에 매끼를 들고 잇으니 다섯재祖 家에서 도야지 注射를 노아달라고 해서 노아주고와 …

◎ 10월 13일 (음 9월 15일) 토요일 雲
… 食前에 도야지 오양 처내고 朝飯 後엔 앞밭 달뱅이 비고 벼를 손쳤다. …

◎ 11월 5일 (음 10월 9일) 월요일 雲晴
… 나는 도야지 오양을 처 논에 갈다 내고선 하로 그럭저럭 했다.

◎ 11월 13일 (음 10월 17일) 화요일 雲
어린 것을 食前에 보아주고 朝飯食事 後에 敎雨氏 家 도야지 注射를 놓아주고 사방 工事 出役을 했다. …

◎ 11월 18일 (음 10월 22일) 일요일 晴
오늘은 도야지 밥 구융을 파고 來日 公販場에 나갈 벼를 드리여 담았다. …

◎ 11월 30일 (음 11월 4일) 금요일 晴
致雨 家 지붕일 가다. 食前에 도야지 오양을 처냈다. 그리고 마눌밭에 갈다 폈다. …

◎ 12월 2일 (음 11월 6일) 일요일 晴雲
오늘 作業事項은 朝飯食事 後 急히 서둘러 뒤곁에 잇는 밤나무가 죽근 것이 잇어 비여 갈고 도야지 우리깐을 다시 지였다. …

◎ 12월 18일 (음 11월 22일) 화요일 晴
… 午後에 高棧 大浩 家 도야지 잡아 우리도 돈육 1斤 14兩을 사다 먹었다. 정육 40원에 팔았다. …

◎ 12월 20일 (음 11월 24일) 목요일 晴
… 食前에 付託하여 오늘 소 두 필로 午前 中에 벼 20叭를 高棧으로 넹겨갈다. 午後엔 도야

지 밥구융을 손질했다.

◎ 12월 25일 (음 11월 29일) 화요일 晴

… 食前에 도야지를 몰고 다시 高棧 종모톳에게 같으나 前日 교접이 되였는지 순놈[숫놈]을 얼진도[얼씬도] 못하게 해서 그냥 몰고 왔다. 교접이 잘 되였는지 첫 배라 궁금하다. …

1963년

◎ 1월 3일 (음 12월 8일) 목요일 晴

… 오늘 午後엔 妻男에게 밤나무 토막을 얻어 도야지 밥구융을 妻男이 파서 노았다. …

◎ 1월 4일 (음 12월 9일) 금요일 晴

朝飯食事後에 도야지 밥 구융을 싯고 떠났다. …

◎ 1월 17일 (음 12월 22일) 목요일 晴

… 食前에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 朝飯後에 농꼴서 穀草를 팔라고 해서 50束에 200원을 받고 냈다. …

◎ 1월 22일 (음 12월 27일) 화요일 晴

오늘 洞里에서 도야지를 잡는다는 날인데 날씨가 아주 冷한 零下 19度란 무서운 날이다. 해끼가 퍼진 後에야 일을 始作해서 잡았다. 우리는 고기 목정으로 45斤을 같고 왔다. (…) 저녁 순대국을 끓여서 먹고 있으니 …

◎ 2월 5일 (음 1월 12일) 화요일 晴

… 한 바퀴 휙 돌고 와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 한참 있다가 點心을 하고 오양 처낸 것을 농꼴 안논으로 저냈다. …

◎ 2월 17일 (음 1월 24일) 월요일

… 點心을 먹고선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서 농꼴로 몇 짐 저냈다. …

◎ 3월 2일 (음 2월 7일) 토요일 雲

… 午後엔 도야지 오양을 치고 午後엔 옆 밭에 있는 집가리를 손질하고 농꼴 밭원 5마지기로 두엄을 볓 짐 저냈다. …

◎ 3월 20일 (음 2월 25일) 수요일 晴

날씨는 맑고 개인 날씨다. 비가 와야겠는데… 午前에 도야지 우리 손질. 午後에 흙벽돌 몇 방 밖았다.

◎ 3월 27일 (음 3월 3일) 수요일 晴

… 그리고 前日 오양 처낸 것을 논으로 저냈다. …

◎ 4월 16일 (음 3월 23일) 월요일 雨

… 집에 옷을 입으랴 오니 도야지가 아주 게로 와하고 깃을 물어드리여 2日 後에 나올 것인데 하고 그래도 미심적어 깃을 느어주었다. 비가 오니 물이 모여들어 아주 도야지우리가 질다. 그리하여 妻보고 같다오라 했더니 한 마리를 낳았다 해서 상을 바들 때까지 있다 바 밨고 와 좀 있으니 6마리를 낳아 7마리를 낳았다. 병아리도 한아 믈코 12개를 한꺼번에 네리였다.

◎ 4월 18일 (음 3월 25일) 목요일 雨

… 들아 같다오니 도야지새끼가 등에 상처가 많이 나리였따. 3치 까량 찌저저 곳 같다가 꼬매여 주었다. 좀 생기가 나 보인다. …

◎ 5월 15일 (음 4월 22일) 수요일 晴

… 도야지 새끼가 한 달이 되는데 큰 도야지를 못 메겨서인지 큰 편이 못된다. 도야지 메기가 떨어질까 걱정이다. 아주 잘메기지 못해 많이 팔랬다. …

◎ 5월 21일 (음 4월 28일) 화요일 雲

… 다섯째祖 家 도야지 注射을 놓아주고 …

◎ 5월 24일 (음 윤 4월 2일) 금요일 雲 細雨

… 아논 물을 놓아 논도 물을 잡아야겠고 갈기도 해야겠고 몸이 재이는데 도야지새끼도 팔아야겠는데… 도야지새끼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

◎ 5월 25일 (음 윤 4월 3일) 토요일 雲

… 妻가 오늘 發安場으로 도야지새끼를 같고 간 고로 어린 것들을 보아주며 심짜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간다. (…) 妻는 場에서 도라왔는데 도야지새끼 두 마리에 600원을 받었다니 한 마리 갑도 못바덨다. 보통은 데는데 좋와야 400원 간다고 그냥 내빌고 왔다. …

◎ 5월 29일 (음 윤 4월 7일) 수요일 雨
… 도야지새끼가 꼬추밭에 가 뜻어 먹어 큰 일이다. 한참 바뿐 농번기에 팔라 갈 사이 없고 곡식은 개개고 又 進退兩難이다.
◎ 6월 9일 (음 윤 4월 18일) 일요일 雲
… 도야지새끼가 꼬추를 뜯어먹어 많이 씨가 비였다. …
◎ 6월 11일 (음 윤 4월 20일) 화요일 晴
… 妻가 場 간다기에 準備를 해주고 朝飯食事後에 妻는 도야지새끼 두 마리를 같고 場에 가고 나는 어린 것들을 보살피며 …. 午後에 場에서 妻가 도라왔는데 도야지새끼 한 마리는 700원을 받고 문열이[무녀리; 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는 300원을 받었다니 상상 外의 금을 받었다. 먼점번에 골라 간 것이 300원 及 400원을 받었는데 많은 돈을 이렀다. 이번 場에 다 같다 팔았으면 도야지새끼 낸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
◎ 7월 23일 (음 6월 3일) 화요일 雨
… 食前에 꿀 한 짐을 비고 와 도야지를 보니 시원찮아 오양을 처냈다. …
◎ 7월 24일 (음 6월 4일) 수요일 雲雨
… 도야지가 오늘은 더 심하고 먹지 않아 注射를 놓아주었다. …
◎ 8월 2일 (음 6월 13일) 금요일 晴
… 인제 도야지도 팔아 돈을 장만해서 송아지라도 살까 한다.
◎ 8월 5일 (음 6월 16일) 월요일 晴
食前에 도야지를 상궈보니[살펴보니] 암청을 낸 것 같아 高棧으로 같더니 안되여 저녁 나절 부칠까 하고 놓아 두고 와 저녁나절 가 부칠랴니 또 안되여 그냥 끌고 왔다. …
◎ 8월 6일 (음 6월 17일) 화요일 晴
… 저녁나절 도야지 장사가 와 팔었다. 안 올 줄 알았더니 와 죽도 못 메기고 팔아 섭섭하다. 126斤에 3150원을 받었다. 새끼를 냈으면 했으나 접이 안데고 속을 쎄기며 팔았다.
◎ 8월 7일 (음 6월 18일) 수요일 晴
… 前日 도야지를 팔았더니 도야지깐에 있는 것 같다.
◎ 8월 20일 (음 7월 2일) 화요일 雲
… 妻는 發安場에 도야지새끼를 사라 같다 마땅한 것이 없다고 그냥 도라왔다. …
◎ 8월 21일 (음 7월 3일) 수요일 雲晴
… 朝飯食事後에 妻는 安仲場에 도야지 새끼 사라 가고 (…) 妻는 場에서 도야지 새끼를 아주 잘 못 사왔다. 속이 상했다.
◎ 8월 24일 (음 7월 6일) 토요일 晴
食前에 오양간에 修理를 하고 모처럼 바다에 맛을 잡으려 같다. …
◎ 11월 13일 (음 9월 28일) 수요일 晴
그럭저럭 하루 해를 보냈다. 朝飯食事後에 오양을 처냈다.
◎ 11월 14일 (음 9월 29일) 목요일 晴
朝飯食事를 하고 마실을 가니 敎雨氏家 도야지가 새끼를 11마리나 낳고 새끼보가 뒤집어저 나와 約 2時間 後에 급끼야 죽고 마랐다. (…) 도야지를 잡아 같고 新浦푸주간으로 가지고 같다. 斤數 150근.
◎ 11월 15일 (음 9월 30일) 금요일 晴
… 어제 같고 간 도야지는 6,000원을 받었다고 한다. 午前엔 거름을 첬다. …
◎ 12월 10일 (음 10월 25일) 화요일 晴
… 큰아번님 家 큰 도야지가 죽게 되어 잡는데 같이 하고 新浦 肉庫간에 팔았다. …
◎ 12월 19일 (음 11월 4일) 목요일 晴
… 곳 만녕 호구[괭이, 삽, 쇠스랑, 창 따위의 자루를 박는 부분]를 얻어다가 오양을 처내고 午後에 날씨가 풀린 것 같아 여물을 쓸었다. …

1964년

◎ 1월 23일 (음 12월 9일) 목요일 晴
… 오늘 오양을 처내였다.

◎ 2월 11일 (음 12월 28일) 화요일 雪冷
… 朝飯食事을 하고서 오양을 처내고 敦植이 왔끼에 여물을 쓸었다. …
◎ 3월 7일 (음 1월 24일) 토요일 晴
… 여물을 쓸고 도야지 오양을 처냈다. …
◎ 7월 29일 (음 6월 21일) 수요일
… 朝飯食事後엔 뒤지우리를 손질했다. 지붕을 다시하고 도야지 오양을 처내니 點心 때가 되었다. …
◎ 8월 22일 (음 7월 15일) 토요일 晴
… 저녁을 먹고 잇으니 큰아번님이 오시여 도야지를 팔라고 來日 各 里長들이 洞里서 놓게 되는데 팔라해서 승낙해서 달아보니 148斤 나갈다. 큰아번님의 도야지와 바꾸어 잡았다. 斤當 55원에 代金은 26日 里長 月급에 준다고 해서 돈은 아직 못받다.
◎ 8월 29일 (음 7월 22일) 토요일 晴
… 敎雨氏家 도야지가 새끼을 낳다가 실수 했다고 해서 가보았다니 잡았다. 새끼은 9마리을 낳고서 죽었다고 한다. 저녁 12時頃에 까지 잡당질[잡탕질; 잡손질]하여 發安商人에게 賣하고 집에 와 자리에 들었다. …
◎ 10월 11일 (음 9월 6일) 일요일 晴
… 妻가 場에 꼬추 12斤을 같고 팔아같고 도야지 새끼을 사같고 온다고 했으나 꼬추 870원을 받어 같고 도야지는 120원부터 2,000까지라고 그냥 왔다. …
◎ 10월 17일 (음 9월 12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後에 德雨氏家에 가 도야지 새끼를 사왔다. 1,700원 白米 6斗갑이다.

1965년

◎ 1월 19일 (음 12월 17일) 화요일 晴
… 도야지 오양도 첬다 재을 칠까 했으나 눈이 녹아 못첬다.
◎ 3월 12일 (음 2월 10일) 금요일
… 종일 어린 것을 보살피며 도야지 오양을 처냈다. …
◎ 7월 5일 (음 6월 6일) 월요일 雲晴
… 午後부터 도야지가 죽을 안 먹고 해서 밤에 오양을 처내고 夜 11時까지 도야지 시늉[시중]을 드렀다. 注射을 놓아주고 했다.
◎ 7월 26일 (음 6월 28일) 월요일 雲
自輪車을 얻어같고 안중장에 가 도야지 새끼을 1,700원에 샀다. 上치가 2,500원까지 잇으나 中치上을 산 셈이다. …

1967년

◎ 11월 10일 (음 10월 9일) 금요일 晴
… 下午엔 도야지 우리을 손질했다.
◎ 11월 11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晴
妻는 場에 도야지 새끼을 사라가고 나는 집에서 午前中 도야지 깐을 완전히 손질하여 새끼을 사라 넣을라고 서둘렀다. 奉事公時祭에 같다가 楊州時祭에 내가 가기로 하고 妻 場에 가 도야지 새끼 사오는데 마중가니 그냥 와 나는 三溪에 가 理髮을하고 校長과 술을 대접했다.
◎ 11월 21일 (음 10월 20일) 화요일 晴
… 도야지 새끼을 사라 갈랴고 朝飯食事을 일직 했다. 妻도 場에 간다고 해서 나는 그만두고 저근너가 壹雨氏에게 실어다 달라고 對話하고 나는 그만두고 妻가 場에 같다. 下午에 도야지 새끼을 사왔다. 3,450원 주었는데 숫놈을 사와 내 生覺과는 다르게 사왔다. 암놈을 살랴든것인데 …

1968년

◎ 1월 27일 (음 12월 28일) 토요일 晴
… 下午에 돌아왔다 집에보니 壹雨氏家 도야지을 잡아 고기는 사왔으나 2斤가량 사왔다. …

◎ 1월 29일 (음 12월 30일) 월요일 雲晴
午前에 쇠오양 도야지 오양을 처내고 …
◎ 2월 9일 (음 1월 11일) 금요일
… 저녁에 悠雨君이와 도야지 高棧代 330원을 달라고 해서 借用해주시든지 아니면 白米 1되대로 주라했다.
◎ 8월 18일 (음 7월 25일) 일요일 晴
… 下午엔 도야지 우리의 콩크리을 했다. (…) 徐斗鎬氏 우리 송아지을 24삭 멕여 주고 송아지 中으로 사주기로 하고서 가저같다.
◎ 8월 19일 (음 7월 26일) 월요일 晴雲
午前中 도야지 우리 修理.
◎ 8월 25일 (음 7월 2일) 일요일 晴
… 新浦에 마중을 나가야겠는데 食前에 도야지 우리을 修理하다가 발목을 다쳐 거름을 거를수 없어 妻을 보냈다. …
◎ 8월 26일 (음 7월 3일) 월요일 晴
… 下午에는 도야지 우리을 콩크리 한 곳으로 옮기고 손질했다. 도야지 병이 全國的으로 번저 매우 걱정이다. 이 洞里에도 5,6 마리의 도야지가 앓고 두 마리는 실수했다.
◎ 8월 28일 (음 윤 7월 5일) 수요일 晴
종일토록 도야지 우리을 또 하나 지였다. 지붕만 못하고 콩크리을 했다. …
◎ 8월 29일 (음 윤 7월 6일) 목요일 晴
도야지 우리 修理 광 修理 等으로 몇일을 소요하고 오늘로서 대충 끝났다. 下午에는 피곤하여 누었다가 理髮하고 세풀 한짐을 비였다. …
◎ 9월 30일 (음 8월 9일) 월요일 晴
… 下午에 도야지 상이 와서 졸라대여 도야지을 팔았다. 몇일 前에 16,500원 주겠다는 것을 안 팔았더니 16,000원에 팔았다. (…) 게다가 소까지 짐시리가 못한다. 인제 짐시리을 많이 해야 될 것을 소가 짐시리을 못하고 속을 새기니 큰일이다.
◎ 10월 12일 (음 8월 21일) 토요일 晴
농꼴 柱雨氏家 도야지 새끼을 판다고 해서 食前에 가보았다. 하도 비싸게 달래 살까 말까 하다가 2마리에 壹万千원에 사같고 왔다. 白米 3叭갑에 까깝다. 비싸도 먹끼나 잘 해주었으면 한다. 朝飯後엔 아논 뚝 밑 1斗 벼을 비여 까랐다. 13束을 비여 까랐다. 今年農事로는 잘된 셈이다. (…) 도야지 새끼을 하도 비싸게 사와 마음 한구석이 멍굴하다. 현 時勢로 1,000원은 더주었다.
◎ 10월 16일 (음 8월 25일) 수요일 雲
… 場에 같다온 妻가 우리 도야지 산 것은 눈뜨고 도독 맛었다고 場中上이 4,500원 이라니 1마리에 1,500원을 더주었으니 洞里之間에 참으로 못 할 일이다 그런 사람에겐 양심도 없다. …

1971년

◎ 6월 13일 (음 5월 21일) 일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돼지우리을 수리하고 점심을 먹고 …
◎ 7월 2일 (음 윤 5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비가 오락까락하는 날씨라 午前中 몸이 不便하지만 오양을 처내고 도야지우리을 손질했다. 午後에도 손질하고 세죽을 비라가니 …

1972년

◎ 1월 20일 (음 12월 5일) 목요일
… 上植家에 도야지을 잡는다고 하여 午鐘頃에 가 도야지 고기 4斤을 사왔다. 斤當 190원.
◎ 3월 27일 (음 2월 13일) 월요일
車로 실어온 모래을 소로 실어왔다. 午後엔 모래가 한 차 또 왔다. 下午엔 소가 꿍꿍그리여 길마을 뗐다. 소가 죽을 데섹인다. 새끼 날 날이 임박해서 애석하다. 모래을 실다 길마을 때고 致雨家 되지 잡는데 가 도야지고기 2斤半을 사왔다.(400원)
◎ 6월 26일 (음 5월 16일) 월요일
… 밀린 오양을 한참이나 처냈다. 농꼴의 田氏가에 도야지을 잡아 돈육 3斤을 사왔다.

1973년

◎ 2월 13일 (음 1월 11일) 화요일
… 洞里에서 뒤지을 잡는다고 하여 건너가 고기 820원 어치을 사고 德雨家에서 곱창국을 끄린다고 하여 먹고 왔다.
◎ 12월 15일 (음 11월 21일) 토요일
… 되야지우리 今日가지 못다 지였다. …

ㅇ 닭

1959년

◎ 1월 4일 (음 11월 25일) 일요일 晴
… 문꼬리에 손이 어러붓고 닭더러 물을 주어도 먹지도 않고 있다. …
◎ 1월 11일 (음 12월 3일) 일요일 晴
… 妻는 일찍 일어나 場에 갈랴고 닭 두 마리를 잡아놓고 왔다. 朝飯을 마치고 妻는 場에 갈 準備를 하고 나스는데 生覺하니 봄에 도로 닭을 살랴고 파는 것인데 봄에 닭금이나 비싸고 또 병 관계로 못 사게 되면 안 파니만 못함을 生覺하고 못 가게 했다. 돈이 몰리고 장만할 거리가 없어 生覺다 못해 닭을 生覺한 것인데 또 중지다. …
◎ 1월 12일 (음 12월 4일) 월요일 晴
… 좀 있더니 契約이 完了되고 닭을 사오라 해서 우리 닭을 900원에 가저다가 밤 늦게서야 먹고 닭 울 무렵에 집에 왔다. …
◎ 1월 24일 (음 12월 16일) 토요일 晴
… 그리하여 집에 술이 없어 高棧 넘어 가서 정종 한 병을 받고 닭을 한 마리 잡아 대접했것만 변변치 못하여 제송하기 짝이 없다. …
◎ 5월 6일 (음 3월 29일) 수요일 晴
닭 앵기였다. 17개.
◎ 5월 13일 (음 4월 6일) 수요일 晴
… 닭이 알는 소리를 해서 닭을 사다가 앵기였다. 富平 아저씨 家에서 一金 600원 借用 澈雨 의문금 200원 게란 230원 8개를 사다 앵기였다. …
◎ 8월 6일 (음 7월 3일) 목요일 晴
… 妻는 조반을 일직 먹고 떠나는데 路資가 없어 닭 한 마리(숫탉)를 주고 맛 대사발즘 같고 떠났다. …
◎ 8월 21일 (음 7월 18일) 금요일 雲 폭우
… 妻는 참깨 一斗와 병아리 3마리를 같고 場에를 가고 …
◎ 8월 22일 (음 7월 19일) 토요일 雲
… 병아리는 1,400원을 받엇다 한다. …
◎ 9월 5일 (음 8월 3일) 토요일 雲
… 午後에 가마니를 치고 나와 보니 강아지가 닭장에 드러가 병아리를 한 마리 자바놓았다. 암병아리를 자바 노아 저녁에 해 먹었다. …
◎ 9월 6일 (음 8월 4일) 일요일 雲
… 妻는 場에 갈랴고 하다가 늣게서야 꼬추(마른 것) 4斤 半과 게란 줄 반 一金 五百圓 닭 1조等을 같고 더났다. 洞里 一大가 소동이 나서 場에 몰리여 같다. 午後 늣게 도라온 妻는 꼬추 닭等을 그냥 같고 왔다. 시세 폭락이더라고 지천으로 쏘다저 나와 처치골란이더라고 그냥 같고 왔다. …
◎ 9월 15일 (음 8월 13일) 화요일 雨
… 高棧서 소를 치는 고로 牛肉을 사려 갈까 했더니 비가 오고해서 못 같다. 또 고기갑도 場과 마찬가지라 닭을 잡아 쓰기로 했다. …
◎ 11월 26일 (음 10월 26일) 목요일 晴
妻와 함께 安仲場에를 같다. 도야지 새끼 4,200원을 주고 사고 …

1960년

◎ 2월 13일 (음 1월 17일) 토요일 雲
흐린 날씨가 종일토록 繼續되더니 못처럼 비방

울이 후둑둑 그리더니 멈추었다. 닭이 보리밭에 심이 됨비여 닭장을 색끼로 얼거매여 못 나오도록 했다. …

◎ 5월 4일 (음 4월 9일) 수요일 晴

… 종일토록 닭 한 마리가 고고--- 소리를 하여 모시도 잘 먹고 또 잘 다니며 잡아다 모이통 금사를 해 보아도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비누물을 메기다가 코구멍에 물이 드러가 죽는 시늉을 하여 잡아 아버지와 孟植이 한 자리에서 같이 믹고…

◎ 7월 16일 (음 6월 23일) 토요일 晴

… 오늘 場에를 갈까 하다가 妻만 場에 병아리 4조를 보내 돈을 해오라 했더니 신발을 2,000환치 해왔다. 병아리는 1,950환을 받엇다고 한다. …

◎ 7월 27일 (음 윤 6월 4일) 수요일 雲

… 소주 두 병과 안주로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았다.

◎ 8월 12일 (음 윤 6월 20일) 금요일 晴

食前에 옆 밭뚝을 뜻고 있으니 妻가 와서 도야지 사러왔다 해서 와 보니 日前에 왓던 君더리다. 팔기로 하고 斤當 160환에 달아보니 72斤 아주 덜 나갔다. 11,500환을 받고 내주었다. (…) 새벽녁에 병아리(중닭) 두 마리를 물어갓는데 한 마리 찾아 복아서 孟植과 같이 먹었다.

◎ 10월 19일 (음 8월 29일) 수요일 晴

…夕飯食事는 우리 집에서 닭을 잡고 해서 아버지 식구 祖父母를 같이 했다. 술도 잇어 대접하고 祖父母를 모시여 다 드리였다.

◎ 10월 26일 (음 9월 7일) 수요일 雲雨

朝飯을 일직하고 妻가 場에 닭 3조를 같고 三溪나 가슬까? (…) 저녁나절 비가 끝일 무렵 妻가 場에서 도라왔는데 닭 2,700환을 받었다 한다. 보리에는 아주 알맞을 것이다. 보리가 나지 않아 걱정을 햇는데 잘 데였다. …

◎ 11월 1일 (음 9월 13일) 화요일 晴

… 妻는 場에 닭 두 마리를 같고 場에 가 2,100환을 받어왔다.

1961년

◎ 1월 21일 (음 12월 5일) 토요일

場에 가 鷄賣. 기름 짜다. 犬死. (…) 닭 4마리에 3,800환을 받어 …

◎ 2월 11일 (음 12월 26일) 토요일

… 닭 1에 900환 받고 보리쌀 3斤 360환 계란 7個 260환에 賣하고 고기 豚 1斤 400환 어린것 사쓰 下 300환 其他 50환에 買하여 가지고 왔다. …

◎ 8월 10일 (음 6월 29일) 목요일

… 妻는 路 二仟餘圜과 닭 1조를 같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떠났다. …

◎ 10월 9일 (음 8월 30일) 월요일

… 저녁밥은 우리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잡아 우리 집에서 해 드리였다.

1962년

◎ 3월 16일 (음 2월 11일) 금요일 風

… 꼬추 몇 400환 賣 계란 2줄 340환 受하고 레디오는 修理도 못해 같고 왔다. …

◎ 4월 21일 (음 3월 11일) 토요일 晴雲

… 午後에 安雨가 犬가 우리 닭 3마리 박에 없는 닭을 한 마리를 물어주기였다.

◎ 8월 4일 (음 7월 5일) 토요일 晴

… 朝飯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點心은 巡警들과 함께 장국을 했다. 午後엔 개를 잡아 도리기를 한다고들 하는데 같이 하자고 성화 같이 하여 속 不便해서 별 마음 없으나 같이 하여 貴植의 집에서 도리기를 햇다. 개 한 마리를 어른들과 半식 나누어했다. …

◎ 8월 19일 (음 7월 20일) 일요일 雲

닭이 안는 소리를 하는데 닭알이 잇어야 앵길 것이라 德雨에게서 借用핸 一金 200환도 주어야 하고 해서 新浦場에 妻를 보낼랴 하니 妻가

한참 잇더니 大麥精 2斗를 賣하여 一金 290환에 200圓을 德雨 같다주고 35圓에 게란 사서 앵기였다. 나는 午前에 高棧 德均 妻가 와 도야지가 똥을 못 눗는데 걱정이라고 하며 좀 가보아 달라고 해서 管장기를 같고 가 관장을 해주고 德均 家에서 술을 먹고 오니 …

◎ 9월 26일 (음 8월 28일) 수요일 晴

… 아번님 生辰日이 모래인데 해마다 닭을 잡아 진지를 해드리였는데 닭이 없고 보니 고기라도 한 칼 살랴고 햇으나 돈이 없어 보리쌀을 1斗 냈다. …

1963년

◎ 2월 24일 (음 2월 1일) 일요일 晴

… 어제 저녁나절 닭이 한 마리 시원치 않아 오늘 잡았는데 아주 氣分이 좋지 않아 食성에 않만는다. …

◎ 4월 4일 (음 3월 11일) 목요일 雲

… 어려운 길을 오신 聘母任 을 아무 대접할 것이 없어 닭이라도 잡으라고 했다.

◎ 4월 16일 (음 3월 23일) 월요일 雨

… 집에 옷을 입으랴 오니 도야지가 아주 게로와하고 깃[외양간, 마구간, 닭둥우리 따위에 깔아 주는 짚이나 마른풀]을 물어드리여 2日 後에 나올 것인데 하고 그래도 미심적어 깃을 느어주었다. 비가 오니 물이 모여들어 아주 도야지우리가 질다. 그리하여 妻보고 같다오라 했더니 한 마리를 낳았다 해서 상을 바들 때까지 있다. 다 밧고 와 좀 있으니 6마리를 낳아 7마리를 낳았다. 병아리도 한아믈코 12개를 한꺼번에 네리였다.

◎ 9월 9일 (음 7월 22일) 월요일 晴

… 靑年會 있어 같는데 요즈음 洞里에서 닭을 30餘조을 盜難 當하여 來日부터 夜巡을 돌기로 했다.

◎ 11월 6일 (음 9월 21일) 수요일 雨

… 妻는 大豆 1斗와 一金 百貝을 같고 가더니 牛足을 사 같고와 닭을 한 마리 잡아 곰[닭곰탕]을 한다 한다. …

1964년

◎ 1월 10일 (음 11월 26일) 금요일

… 닭을 두 마리 같고 가 290원 밧어 路資 100원 주고 약을 해 같고 왔다.

◎ 1월 31일 (음 12월 17일) 금요일 雪

… 會가 끝나고 뼁을 해서 닭을 잡아 먹었다.

1965년

◎ 8월 9일 (음 7월 12일) 월요일 晴

… 雄浩가 하두 고기 타령을 하고 닭이라도 잡아주라고 했더니 종일 좋와하며 병아리을 잡았는데 저녁을 늦게까지 자지 않고 기달려 먹고 잤다. 어린 것을 좋와하는 고기 한 번 실컷 못 메기니 父母된 도리가 아니다.

◎ 10월 2일 (음 9월 8일) 토요일 晴

… 어제 場에 가 牛足을 같고 와 닭을 잡고 음주을 해서 잘 먹었다. …

1967년

◎ 11월 26일 (음 10월 25일) 일요일 雲

… 妻는 場에 갔다 닭이 보리밭을 뜻어 먹어 앞턱은 피여 나질 못한다. 그리해 닭이장 철사을 사라같다.

◎ 12월 30일 (음 11월 29일) 토요일

… 妻는 아번님家에 가 있고 나는 종일 아번님家에 가 있다가 下午 늦게 洞里靑年들이 망년會을 하자고 해서 닭을 한 마리 사고 토끼 1마리을 사서 술을 마시고 노랐다.

1968년

◎ 12월 19일 (음 10월 30일) 목요일 晴
… 日氣는 온화하여 봄날과 같다. 닭병이 성행하여 도처에 닭병으로 닭들을 쓸다십히 죽는다고 한다.

1972년

◎ 8월 13일 (음 7월 5일) 일요일 晴
집 헐은 나무을 準備해 같고 닭장을 지였다. …
◎ 8월 14일 (음 7월 6일) 월요일 晴
午前中 김장 부치고 下午엔 닭장 에얼었다.
◎ 8월 15일 (음 7월 7일) 화요일
… 오늘도 닭장을 짖는데 흙을 바르었다. 연 3日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한참 일은 더해야 겠다.

1973년

◎ 1월 18일 (음 12월 14일) 목요일 晴
… 닭을 잡아 국을 끄리고 불고기, 찌개, 잡채 등 妻의 정성이 들었다. …
◎ 2월 12일 (음 1월 10일) 월요일 晴
… 한잠이 깊이 들어 있는데 급히 깨우고 문을 부수는 소리가 나 급히 나가 보니 재깐 급 헛간이 불길이 쏘구쳐[솟구쳐] 있다. 삽시간에 닭장 급 재간이 태우고 말았다. …
◎ 2월 17일 (음 1월 15일) 토요일 雲 細雨
… 저녁엔 닭을 잡아먹고 놀다 왔다. …

ㅇ 개

1960년

◎ 3월 21일 (음 2월 24일) 월요일 雲
… 妻家에서 개고기를 가저와서 夕飯 食事는 맛있게 먹었다.
◎ 7월 13일 (음 6월 20일) 수요일 晴
… 前夜 약속한 개가 와서 우리가 1/8을 사왔다. 6,000환짜린데 매우 크다.(750환) (…) 저녁때는 와서 개국을 잘 먹었다. 저녁나절 개새끼 9마릴 나서 한 마리 실수하고 8마리가 있다.
◎ 7월 31일 (음 윤 6월 8일) 일요일 晴
… 개새끼를 돌랐다. 개새끼 가저가는 사람마다 좋은 것을 가저갈랴 하고 좀 저근 것을 주며는 氣分이 좋지 않아 하니 강아지 내고 인심 잃게 되니 ….

1961년

◎ 1월 9일 (음 11월 23일) 월요일
食前에 두엄 몇 짐 저내니 둘재祖父의 개가 소리를 지르고 뛰더니 쥐약을 먹고 보채더니 朝飯食事 後에 죽었다 한다. 비누물을 메기여 보앗으나 아무 소용없다. 농꼴에 두엄 몇 짐 저내니 敎雨가 오라 해서 가보니 개죽을 끄리여 동리 사람을 거이 다 대접하는데 큰어머니는 게서도 우리를 못 먹것다고 뜻고 있다. …
◎ 1월 21일 (음 12월 5일) 토요일
場에 가 鷄賣. 기름 짜다. 犬死. (…) 닭 4마리에 3,800환을 받어 기름 자는데 150환 갈키 250환 구림 250환 성냥 기타 200환의 흥정을 하고 點心은 妻男이 사주어 먹었다. 집에 와 석반을 하고나 개가 짓는 소리가 이상하여 나가보니 무엇을 먹엇는지 눈을 이상스리 뜨고 마루 밑으로 드러가더니 나와선 뛰는데 다리를 제대로 못 뛰고 소리질러 붓잡아 비누물을 메기여 돌랏는데 몹씨 시늠하는 꼴이 살 것 같지 않아 농꼴 사람이 사겟다고 하여 2,000환에 위상으로 주었다. 쥐약 먹은 모양이다.
◎ 5월 1일 (음 3월 17일) 월요일
… 일을 갈다오니 聘母任이 왔다. 강아지를 갈

고 오시였다.

◎ 6월 21일 (음 5월 9일) 수요일

… 큰집에서 강아지도 얻어다 場人便에 妻家에 보냈다. …

◎ 7월 27일 (음 6월 15일) 목요일

… 朝飯 後에 高棧을 놀라 같다가 작은집에서 개고기 한 그릇을 잘 먹었다. 몇일 앓고 일어나 기운이 없는데 개국 한 그릇을 달게 먹었다. …

◎ 12월 1일 (음 10월 25일) 금요일

… 高棧 가서 개 賣한 것 갑을 받으라 같으나 반만 받고 그냥 왓다. (…) 도야지 우리에 불이 붙어 타올라 급히 끄니 洞里 사람이 거이 다 모여 불종을 치고 왔다.

1962년

◎ 7월 4일 (음 6월 3일) 수요일 晴雲

… 安仲서 온 犬 商人에게 犬을 賣 600환.

1963년

◎ 9월 8일 (음 7월 21일) 일요일 晴

… 어제 안골 祖家 개(犬)가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는데 어제 오늘 몹시 신음해서 注射을 노아 주고 했으나 낫지 않고 있더니 午後에 죽고야 말았다. …

1964년

◎ 3월 13일 (음 1월 30일) 금요일 晴

… 일을 같다오니 개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 그리하여 水村아저씨에게 해 잡수라고 하고 같이 협조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잘 안된다. …

◎ 3월 14일 (음 2월 1일) 토요일 晴

… 朝飯食事은 仁性家에서 개고기을 해서 같이 하고 …

◎ 5월 16일 (음 4월 5일) 토요일 晴

… 李巡警家에서 강아지를 주었다. …

◎ 11월 5일 (음 10월 2일) 목요일 晴

… 저녁나절 개가 쥐약 논 고구마를 먹고 신음하다가 죽었다. 살려볼랴고 무진 애를 섰으나 구하지 못했다. 집에서 해 먹을까 했더니 敎雨氏가 해 먹겠다고 가저갈다.